파주의 성씨조사 연구용역

파주의 성씨

2020. 12

(주)역사만들기

제 출 문

파주문화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파주시 성씨 조사 연구용역」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역사만들기 대표 이기만

▮ 연구진

책임연구원 이기만(역사만들기 대표)
연 구 원 강동준(역사만들기 콘텐츠편찬실 차장)
이기철(역사만들기 지역자료센터 연구원)
연구보조원 한상지(역사만들기 콘텐츠편찬실)
현장조사원 강윤원(파주 도시농업 대표)
류성신(전 파주문인협회 사무국장)
이윤희(파주이야기가게 대표)
조진석(파주문화원 이사)

파주의 성씨

소주 가씨(蘇州賈氏) ····· 15
가평 간씨(嘉平簡氏) ····· 16
남양 갈씨(南陽葛氏) ····· 17
창원 감씨(昌原甘氏) ····· 18
회산 감씨(會散甘氏) ····· 19
곡산 강씨(谷山康氏) ····· 20
신천 강씨(信川康氏) ····· 21
재령 강씨(載寧康氏) ····· 22
진주 강씨(晋州姜氏) ····· 23
진주 강씨(晉州康氏) ····· 24
청주 경씨(淸州慶氏) ····· 25
태인 경씨(泰仁景氏) ····· 26
수안 계씨(遂安桂氏) ····· 27
제주 고씨(濟州高氏) ····· 28
곡부 공씨(曲阜孔氏) ····· 29
선산 곽씨(善山郭氏) ····· 30
청주 곽씨(淸州郭氏) ····· 31
현풍 곽씨(玄風郭氏) ····· 32
평해 구씨(平海丘氏) ····· 34
능성 구씨(綾城具氏) ····· 35
창원 구씨(昌原具氏) ····· 36
담양 국씨(潭陽鞠氏) ····· 37
안동 권씨(安東權氏) ····· 38
봉화 금씨(奉化琴氏) ····· 39
행주 기씨(幸州奇氏) ····· 40
해평 길씨(海平吉氏) ····· 41
강릉 김씨(江陵金氏) ····· 42
강화 김씨(江華金氏) ····· 44
개성 김씨(開城金氏) ····· 45
경주 김씨(慶州金氏) ····· 46
고령 김씨(高靈金氏) ····· 48
고성 김씨(固城金氏) ····· 49
공주 김씨(公州金氏) ····· 50
광산 김씨(光山金氏) ····· 51
광주 김씨(廣州金氏) ····· 52
교하 김씨(交河金氏) ····· 53
금릉 김씨(金陵金氏) ····· 54
금산 김씨(錦山金氏) ····· 55
김녕 김씨(金寧金氏) ····· 56

김제 김씨(金堤金氏) ····· 57
김해 김씨(金海金氏) ····· 58
나주 김씨(羅州金氏) ····· 60
낙안 김씨(樂安金氏) ····· 61
남양 김씨(南陽金氏) ····· 62
당악 김씨(堂岳金氏) ····· 63
대구 김씨(大邱金氏) ····· 64
덕수 김씨(德水金氏) ····· 65
도강 김씨(道康金氏) ····· 66
무장 김씨(茂長金氏) ····· 67
무주 김씨(茂朱金氏) ····· 68
밀양 김씨(密陽金氏) ····· 69
부안 김씨(扶安金氏) ····· 70
사천 김씨(泗川金氏) ····· 71
삼척 김씨(三陟金氏) ····· 72
상산 김씨(商山金氏) ····· 73
서흥 김씨(瑞興金氏) ····· 74
선산 김씨(善山金氏) ····· 75
설성 김씨(雪城金氏) ····· 76
수안 김씨(遂安金氏) ····· 77
수원 김씨(水原金氏) ····· 78
순천 김씨(順天金氏) ····· 79
안동 김씨(安東金氏) ····· 80
안산 김씨(安山金氏) ····· 82
안성 김씨(安城金氏) ····· 83
안악 김씨(安岳金氏) ····· 84
야성 김씨(野城金氏) ····· 85
양산 김씨(梁山金氏) ····· 86
양주 김씨(楊洲金氏) ····· 87
언양 김씨(彦陽金氏) ····· 88
연안 김씨(延安金氏) ····· 89
영광 김씨(靈光金氏) ····· 90
영산 김씨(永山金氏) ····· 92
영암 김씨(靈岩金氏) ····· 93
영양 김씨(英陽金氏) ····· 94
영천 김씨(永川金氏) ····· 95
예안 김씨(禮安金氏) ····· 96
용궁 김씨(龍宮金氏) ····· 97
우봉 김씨(牛峰金氏) ····· 98
울산 김씨(蔚山金氏) ····· 99
원주 김씨(原州金氏) ····· 100

월성 김씨(月城金氏) ····· 101
의성 김씨(義城金氏) ····· 102
적성 김씨(積城金氏) ····· 103
전주 김씨(全州金氏) ····· 104
진도 김씨(珍島金氏) ····· 105
진위 김씨(振威金氏) ····· 106
진주 김씨(晉州金氏) ····· 107
진천 김씨(鎭川金氏) ····· 108
창원 김씨(昌原金氏) ····· 109
청도 김씨(淸道金氏) ····· 110
청송 김씨(靑松金氏) ····· 111
청주 김씨(淸州金氏) ····· 112
청풍 김씨(淸風金氏) ····· 113
충주 김씨(忠州金氏) ····· 114
태원 김씨(太原金氏) ····· 115
통천 김씨(通川金氏) ····· 116
파평 김씨(坡平金氏) ····· 117
평산 김씨(平山金氏) ····· 118
평양 김씨(平壤金氏) ····· 119
풍천 김씨(豊川金氏) ····· 120
함창 김씨(咸昌金氏) ····· 121
해주 김씨(海州金氏) ····· 122
해평 김씨(海平金氏) ····· 123
해풍 김씨(海豊金氏) ····· 124
희천 김씨(熙川金氏) ····· 125
금성 나씨(錦城羅氏) ····· 126
나주 나씨(羅州羅氏) ····· 127
고성 남씨(固城南氏) ····· 128
영양 남씨(英陽南氏) ····· 129
의령 남씨(宜寧南氏) ····· 130
함열 남궁씨(咸悅南宮氏) ····· 131
개성 내씨(開城乃氏) ····· 132
곡산 노씨(谷山盧氏) ····· 133
광산 노씨(光山盧氏) ····· 134
광주 노씨(廣州魯氏) ····· 135
교하 노씨(交河盧氏) ····· 136
신창 노씨(新昌盧氏) ····· 137
안동 노씨(安東盧氏) ····· 138
장연 노씨(長淵盧氏) ····· 139
풍천 노씨(豊川盧氏) ····· 140
해주 노씨(海州盧氏) ····· 141

강화 노씨(江華魯氏) ····· 142
함평 노씨(咸平魯氏) ····· 143
밀양 당씨(密陽唐氏) ····· 144
성주 도씨(星州都氏) ····· 145
광천 동씨(廣川董氏) ····· 146
고흥 류씨(高興柳氏) ····· 147
문화 류씨(文化柳氏) ····· 148
전주 류씨(全州柳氏) ····· 149
진주 류씨(晋州柳氏) ····· 150
풍산 류씨(豊山柳氏) ····· 151
목천·장흥 마씨(木川·長興馬氏) ····· 152
신창 맹씨(新昌孟氏) ····· 153
서촉·연안 명씨(西蜀·延安 明氏) ····· 154
함평 모씨(咸平牟氏) ····· 155
사천 목씨(泗川睦氏) ····· 156
남평 문씨(南平文氏) ····· 157
여흥 민씨(驪興閔氏) ····· 158
강릉 박씨(江陵朴氏) ····· 160
경주 박씨(慶州朴氏) ····· 161
고령 박씨(高靈朴氏) ····· 162
고성 박씨(固城朴氏) ····· 163
구산 박씨(龜山朴氏) ····· 164
군위 박씨(軍威朴氏) ····· 165
면천 박씨(沔川朴氏) ····· 166
무안 박씨(務安朴氏) ····· 167
문의 박씨(文義朴氏) ····· 168
밀양 박씨(密陽朴氏) ····· 169
반남 박씨(潘南朴氏) ····· 171
비안 박씨(比安朴氏) ····· 173
삼척 박씨(三陟朴氏) ····· 174
상주 박씨(尙州朴氏) ····· 175
순창 박씨(淳昌朴氏) ····· 176
순천 박씨(順天朴氏) ····· 177
여주 박씨(驪州朴氏) ····· 178
영암 박씨(靈岩朴氏) ····· 179
영해 박씨(寧海朴氏) ····· 180
운봉 박씨(雲峰朴氏) ····· 181
울산 박씨(蔚山朴氏) ····· 182
월성 박씨(月城朴氏) ····· 183
음성 박씨(陰城朴氏) ····· 184
의흥 박씨(義興朴氏) ····· 185

죽산 박씨(竹山朴氏) ····· 186
진원 박씨(珍原朴氏) ····· 187
창원 박씨(昌原朴氏) ····· 188
춘천 박씨(春川朴氏) ····· 189
충주 박씨(忠州朴氏) ····· 190
태안 박씨(泰安朴氏) ····· 191
평산 박씨(平山朴氏) ····· 192
함양 박씨(咸陽朴氏) ····· 193
거제 반씨(居第潘氏) ····· 194
남양 방씨(南陽房氏) ····· 195
온양 방씨(溫陽方氏) ····· 196
곤양 배씨(昆陽裵氏) ····· 198
달성 배씨(達城裵氏) ····· 199
분성 배씨(盆城裵氏) ····· 200
성주 배씨(星州裵氏) ····· 201
흥해 배씨(興海裵氏) ····· 202
수원 백씨(水原白氏) ····· 203
금성 범씨(錦城范氏) ····· 205
초계 변씨(草溪卞氏) ····· 206
원주 변씨(原州邊氏) ····· 207
장연 변씨(長淵邊氏) ····· 208
황주 변씨(黃州邊氏) ····· 209
면천 복씨(沔川卜氏) ····· 210
하음 봉씨(河陰奉氏) ····· 211
제주 부씨(濟州夫氏) ····· 212
대구 빈씨(大邱彬氏) ····· 213
청주 사씨(靑州史氏) ····· 214
효령 사공씨(孝令司空氏) ····· 215
목천 상씨(木川尙氏) ····· 216
달성 서씨(達城徐氏) ····· 217
대구 서씨(大丘徐氏) ····· 218
부여 서씨(扶餘徐氏) ····· 220
연산 서씨(連山徐氏) ····· 221
이천 서씨(利川徐氏) ····· 222
장성 서씨(長城徐氏) ····· 224
안음 서문씨(安陰西門氏) ····· 225
월성 석씨(月城昔氏) ····· 226
충주 석씨(忠州石氏) ····· 227
보성 선씨(寶城宣氏) ····· 228
태원 선우씨(太原鮮于氏) ····· 229
경주 설씨(慶州偰氏) ····· 230

경주 설씨(慶州薛氏) ····· 231
순창 설씨(淳昌薛氏) ····· 232
창녕 성씨(昌寧成氏) ····· 233
진주 소씨(晋州蘇氏) ····· 235
경주 손씨(慶州孫氏) ····· 236
밀양 손씨(密陽孫氏) ····· 237
일직 손씨(一直孫氏) ····· 238
청주 손씨(淸州孫氏) ····· 239
평해 손씨(平海孫氏) ····· 240
서산 송씨(瑞山宋氏) ····· 241
여산 송씨(礪山宋氏) ····· 242
은진 송씨(恩津宋氏) ····· 244
진천 송씨(鎭川宋氏) ····· 246
절강 시씨(浙江施氏) ····· 247
거창 신씨(居昌愼氏) ····· 248
고령 신씨(高靈申氏) ····· 250
아주 신씨(鵝州申氏) ····· 252
평산 신씨(平山申氏) ····· 253
영산 신씨(靈山辛氏) ····· 255
영월 신씨(寧越辛氏) ····· 257
삼척 심씨(三陟沈氏) ····· 258
청송 심씨(靑松沈氏) ····· 259
풍산 심씨(豊山沈氏) ····· 261
광주 안씨(廣州安氏) ····· 262
순흥 안씨(順興安氏) ····· 263
원주 안씨(原州安氏) ····· 265
죽산 안씨(竹山安氏) ····· 266
탐진 안씨(耽津安氏) ····· 268
태원 안씨(太原安氏) ····· 269
남원 양씨(南原梁氏) ····· 270
제주 양씨(濟州梁氏) ····· 271
남원 양씨(南原楊氏) ····· 272
중화 양씨(中和楊氏) ····· 273
청주 양씨(淸州楊氏) ····· 274
충주 어씨(忠州魚氏) ····· 275
함종 어씨(咸從魚氏) ····· 276
영월 엄씨(寧越嚴氏) ····· 277
성산 여씨(星山呂氏) ····· 278
의령 여씨(宜寧余氏) ····· 279
곡산 연씨(谷山延氏) ····· 280
파주 염씨(坡州廉氏) ····· 281

의흥 예씨(義興芮氏) ····· 283
고창 오씨(高敞吳氏) ····· 284
군위 오씨(軍威吳氏) ····· 285
나주 오씨(羅州吳氏) ····· 286
낙안 오씨(樂安吳氏) ····· 287
동복 오씨(同福吳氏) ····· 288
보성 오씨(寶城吳氏) ····· 289
울산 오씨(蔚山吳氏) ····· 290
장흥 오씨(長興吳氏) ····· 291
평해 오씨(平海吳氏) ····· 292
함양 오씨(咸陽吳氏) ····· 293
함평 오씨(咸平吳氏) ····· 294
해주 오씨(海州吳氏) ····· 295
화순 오씨(和順吳氏) ····· 296
의령 옥씨(宜寧玉氏) ····· 297
금구 온씨(金溝溫氏) ····· 298
개성 왕씨(開城王氏) ····· 299
홍천 용씨(洪川龍氏) ····· 300
단양 우씨(丹陽禹氏) ····· 301
원주 원씨(原州元氏) ····· 302
장흥 위씨(長興魏氏) ····· 303
기계 유씨(杞溪兪氏) ····· 304
무안 유씨(務安兪氏) ····· 305
인동 유씨(仁同兪氏) ····· 306
창원 유씨(昌原兪氏) ····· 307
강릉 유씨(江陵劉氏) ····· 308
거창 유씨(居昌劉氏) ····· 309
배천 유씨(白川劉氏) ····· 310
무송 유씨(茂松庾氏) ····· 311
옥천 육씨(沃川陸氏) ····· 312
남원 윤씨(南原尹氏) ····· 313
무송 윤씨(茂松尹氏) ····· 314
예천 윤씨(醴泉尹氏) ····· 315
칠원 윤씨(漆原尹氏) ····· 316
파평 윤씨(坡平尹氏) ····· 318
함안 윤씨(咸安尹氏) ····· 320
해남 윤씨(海南尹氏) ····· 321
해평 윤씨(海平尹氏) ····· 322
행주 은씨(幸州殷氏) ····· 323
죽산 음씨(竹山陰氏) ····· 324
가평 이씨(加平李氏) ····· 325

강진 이씨(康津李氏) ····· 326
개성 이씨(開城李氏) ····· 327
경산 이씨(京山李氏) ····· 328
경주 이씨(慶州李氏) ····· 329
고부 이씨(古阜李氏) ····· 331
고성 이씨(固城李氏) ····· 332
공주 이씨(公州李氏) ····· 333
광산 이씨(光山李氏) ····· 334
광주 이씨(廣州利氏) ····· 335
광평 이씨(廣平李氏) ····· 336
나주 이씨(羅州李氏) ····· 337
농서 이씨(隴西李氏) ····· 338
단성 이씨(丹城李氏) ····· 339
단양 이씨(丹陽李氏) ····· 340
대흥 이씨(大興李氏) ····· 341
덕산 이씨(德山李氏) ····· 342
덕수 이씨(德水李氏) ····· 343
덕은 이씨(德恩李氏) ····· 345
동성 이씨(東城李氏) ····· 346
밀양 이씨(密陽異氏) ····· 347
벽진 이씨(碧珍李氏) ····· 348
봉산 이씨(鳳山李氏) ····· 349
부평 이씨(富平李氏) ····· 350
상주 이씨(尙州李氏) ····· 351
서림 이씨(西林李氏) ····· 352
서산 이씨(瑞山李氏) ····· 353
성산 이씨(星山李氏) ····· 354
성주 이씨(星州李氏) ····· 355
수안 이씨(遂安李氏) ····· 356
수원 이씨(水原李氏) ····· 357
순천 이씨(順天李氏) ····· 358
신평 이씨(新平李氏) ····· 359
아산 이씨(牙山李氏) ····· 360
안산 이씨(安山李氏) ····· 361
안성 이씨(安城李氏) ····· 362
안악 이씨(安岳李氏) ····· 363
양산 이씨(梁山李氏) ····· 364
양성 이씨(陽城李氏) ····· 365
여주 이씨(驪州李氏) ····· 366
연안 이씨(延安李氏) ····· 367
영천 이씨(永川李氏) ····· 369

영해 이씨(寧海李氏) ····· 370
예안 이씨(禮安李氏) ····· 371
온양 이씨(溫陽李氏) ····· 372
용인 이씨(龍仁李氏) ····· 373
우계 이씨(羽溪李氏) ····· 374
우봉 이씨(牛峰李氏) ····· 375
울산 이씨(蔚山李氏) ····· 376
원주 이씨(原州李氏) ····· 377
익산 이씨(益山李氏) ····· 379
인천 이씨(仁川李氏) ····· 380
장수 이씨(長水李氏) ····· 381
장흥 이씨(長興李氏) ····· 382
재령 이씨(載寧李氏) ····· 383
전의 이씨(全義李氏) ····· 384
전주 이씨(全州李氏) ····· 385
정선 이씨(旌善李氏) ····· 387
정주 이씨(貞州李氏) ····· 388
진성 이씨(眞成李氏) ····· 389
진안 이씨(鎭安李氏) ····· 390
진위 이씨(振威李氏) ····· 391
진주 이씨(晋州李氏) ····· 392
차성 이씨(車城李氏) ····· 393
창녕 이씨(昌寧李氏) ····· 394
청안 이씨(淸安李氏) ····· 395
청주 이씨(淸州李氏) ····· 396
청해 이씨(靑海李氏) ····· 397
충주 이씨(忠州李氏) ····· 398
태안 이씨(泰安李氏) ····· 399
평산 이씨(平山李氏) ····· 400
평창 이씨(平昌李氏) ····· 401
하빈 이씨(河濱李氏) ····· 402
하음 이씨(河陰李氏) ····· 403
학성 이씨(鶴城李氏) ····· 404
한산 이씨(韓山李氏) ····· 405
함안 이씨(咸安李氏) ····· 406
함평 이씨(咸平李氏) ····· 407
합천 이씨(陜川李氏) ····· 408
해주 이씨(海州李氏) ····· 409
홍주 이씨(洪州李氏) ····· 410
화산 이씨(花山李氏) ····· 411
흥양 이씨(興陽李氏) ····· 412

교동 인씨(喬桐印氏) ····· 413
나주 임씨(羅州林氏) ····· 414
안의 임씨(安義林氏) ····· 415
평택 임씨(平澤林氏) ····· 416
장흥 임씨(長興任氏) ····· 417
풍천 임씨(豊川任氏) ····· 418
결성 장씨(結城張氏) ····· 419
구례 장씨(求禮張氏) ····· 420
단양 장씨(丹陽張氏) ····· 421
덕수 장씨(德水張氏) ····· 422
목천 장씨(木川張氏) ····· 423
부안 장씨(扶安張氏) ····· 424
순천 장씨(順天張氏) ····· 425
안동 장씨(安東張氏) ····· 426
예산 장씨(禮山張氏) ····· 427
옥구 장씨(沃溝張氏) ····· 428
울진 장씨(蔚珍張氏) ····· 429
인동 장씨(仁同張氏) ····· 430
절강 장씨(浙江張氏) ····· 431
진천 장씨(鎭川張氏) ····· 432
창녕 장씨(昌寧張氏) ····· 433
흥덕·흥성 장씨(興德·興城張氏) ····· 434
거창 장씨(居昌章氏) ····· 435
아산 장씨(牙山蔣氏) ····· 436
경주 전씨(慶州全氏) ····· 437
나주 전씨(羅州全氏) ····· 438
성산 전씨(星山全氏) ····· 439
성주 전씨(星州全氏) ····· 440
옥산·경산전씨(玉山·慶山全氏) ····· 441
옥천 전씨(玉川全氏) ····· 442
완산 전씨(完山全氏) ····· 443
용궁 전씨(龍宮全氏) ····· 444
정선 전씨(旌善全氏) ····· 445
죽산 전씨(竹山全氏) ····· 446
천안 전씨(天安全氏) ····· 447
평강 전씨(平康全氏) ····· 448
남양 전씨(南陽田氏) ····· 449
담양 전씨(潭陽田氏) ····· 450
연안 전씨(延安田氏) ····· 451
하음 전씨(河陰田氏) ····· 452
문경 전씨(聞慶錢氏) ····· 453

하남 정씨(河南程氏) ····· 454
경주 정씨(慶州鄭氏) ····· 455
고성 정씨(固城鄭氏) ····· 457
공산 정씨(公山鄭氏) ····· 458
광주 정씨(光州鄭氏) ····· 459
금성 정씨(錦城鄭氏) ····· 460
나주 정씨(羅州鄭氏) ····· 461
동래 정씨(東萊鄭氏) ····· 462
봉화 정씨(奉化鄭氏) ····· 463
서산 정씨(瑞山鄭氏) ····· 464
야성 정씨(野城鄭氏) ····· 465
영일 정씨(迎日鄭氏) ····· 466
온양 정씨(溫陽鄭氏) ····· 468
전주 정씨(全州鄭氏) ····· 469
정주 정씨(貞州鄭氏) ····· 470
진주 정씨(晋州鄭氏) ····· 471
청산 정씨(靑山鄭氏) ····· 473
청주 정씨(淸州鄭氏) ····· 474
초계 정씨(草溪鄭氏) ····· 475
하동 정씨(河東鄭氏) ····· 476
함평 정씨(咸平鄭氏) ····· 478
해주 정씨(海州鄭氏) ····· 479
칠원 제씨(漆原諸氏) ····· 480
남양 제갈씨(南陽諸葛氏) ····· 481
창녕 조씨(昌寧曺氏) ····· 482
김제 조씨(金堤趙氏) ····· 484
밀양 조씨(密陽趙氏) ····· 485
배천 조씨(白川趙氏) ····· 486
순창 조씨(淳昌趙氏) ····· 487
양주 조씨(楊州趙氏) ····· 488
옥천 조씨(玉川趙氏) ····· 489
임천 조씨(林川趙氏) ····· 490
직산 조씨(稷山趙氏) ····· 492
평산 조씨(平山趙氏) ····· 493
평양 조씨(平壤趙氏) ····· 494
풍양 조씨(豊壤趙氏) ····· 495
한양 조씨(漢陽趙氏) ····· 496
함안 조씨(咸安趙氏) ····· 498
횡성 조씨(橫城趙氏) ····· 500
청주 좌씨(淸州左氏) ····· 501
상주 주씨(尙州周氏) ····· 502

신안 주씨(新安朱氏) ····· 503
봉산 지씨(鳳山智氏) ····· 504
충주 지씨(忠州池氏) ····· 505
남원 진씨(南原晋氏) ····· 506
진주 진씨(晋州秦氏) ····· 507
풍기 진씨(豊基秦氏) ····· 508
광동 진씨(廣東陳氏) ····· 509
삼척 진씨(三陟陳氏) ····· 510
여양 진씨(驪陽陳氏) ····· 511
연안 차씨(延安車氏) ····· 512
인천 채씨(仁川蔡氏) ····· 514
평강 채씨(平康蔡氏) ····· 515
영양 천씨(潁陽千氏) ····· 516
강릉 최씨(江陵崔氏) ····· 517
강화 최씨(江華崔氏) ····· 519
경주 최씨(慶州崔氏) ····· 520
광주 최씨(廣州崔氏) ····· 522
낭주 최씨(郎州崔氏) ····· 523
동주 최씨(東州崔氏) ····· 524
밀양 최씨(密陽崔氏) ····· 526
삭녕 최씨(朔寧崔氏) ····· 527
수성 최씨(隋城崔氏) ····· 529
수원 최씨(水原崔氏) ····· 531
양주 최씨(楊洲崔氏) ····· 532
양천 최씨(陽川崔氏) ····· 533
영천 최씨(永川崔氏) ····· 534
완산 최씨(完山崔氏) ····· 535
용궁 최씨(龍宮崔氏) ····· 536
원주 최씨(原州崔氏) ····· 537
월성 최씨(月城崔氏) ····· 538
전주 최씨(全州崔氏) ····· 539
죽산 최씨(竹山崔氏) ····· 541
직산 최씨(稷山崔氏) ····· 542
진주 최씨(晋州崔氏) ····· 543
청송 최씨(靑松崔氏) ····· 544
초계 최씨(草溪崔氏) ····· 545
충주 최씨(忠州崔氏) ····· 546
탐진 최씨(耽津崔氏) ····· 547
통천 최씨(通川崔氏) ····· 549
해주 최씨(海州崔氏) ····· 550
화순 최씨(和順崔氏) ····· 552

황주 최씨(黃州崔氏) ····· 553
흥해 최씨(興海崔氏) ····· 554
추계 추씨(秋溪秋氏) ····· 555
광산 탁씨(光山卓氏) ····· 556
영순 태씨(永順太氏) ····· 557
절강 편씨(浙江片氏) ····· 558
신창 표씨(新昌表氏) ····· 559
괴산 피씨(槐山皮氏) ····· 560
달성 하씨(達城夏氏) ····· 561
진주 하씨(晉州河氏) ····· 562
곡산 한씨(谷山韓氏) ····· 563
청주 한씨(淸州韓氏) ····· 564
강릉 함씨(江陵咸氏) ····· 566
김해 허씨(金海許氏) ····· 567
양천 허씨(陽川許氏) ····· 568
태인 허씨(泰仁許氏) ····· 570
하양 허씨(河陽許氏) ····· 571
성주 현씨(星州玄氏) ····· 572
순천 현씨(順天玄氏) ····· 573
연주 현씨(延州玄氏) ····· 574
창원 현씨(昌原玄氏) ····· 575
진주 형씨(晋州邢氏) ····· 576
신평 호씨(新平扈氏) ····· 577
남양 홍씨(南陽洪氏) ····· 578
풍산 홍씨(豊山洪氏) ····· 580
덕산 황씨(德山黃氏) ····· 581
상주 황씨(尙州黃氏) ····· 582
우주 황씨(紆州黃氏) ····· 583
장수 황씨(長水黃氏) ····· 584
제안 황씨(齊安黃氏) ····· 586
창원 황씨(昌原黃氏) ····· 587
평해 황씨(平海黃氏) ····· 589
회덕 황씨(懷德黃氏) ····· 590

소주 가씨(蘇州賈氏)

가씨(賈氏)는 중국의 소주(蘇州)를 단본(單本)으로 하는 성씨로, 주나라 문무(文武)의 후예(後商)로 명나라 신종(神宗) 때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지낸 가유약(賈維鑰)을 시조(始祖)로 한다.
소주는 중국 강소성(江蘇省)에 있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춘추전국시대에는 오나라의 수도였던 곳이다.
문헌에 따르면 가유약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에 신종의 명으로 원병을 이끌고 이여송(李如松), 마귀(麻貴) 등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 안주(安州) 등지에서 왜군과 싸워 공을 세우고 돌아갔다. 그 후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유격장군(遊幣將軍)인 아들 상(祥)과 병부종사관(兵部從事官)인 손자 침(深)을 데리고 다시 조선에 들어와 부천과 남원 등지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며, 부산포구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싸우다 전사하였다. 그래서 손자 침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 경남 울산의 서생진(西生鎭) 도독동(道督洞)에 무덤을 만들었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명나라 군대가 중국으로 돌아갈 때 도독(都督) 마귀가 침에게 함께 귀국할 것을 권유했으나,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가 있는 조선에 남겠다고 귀화하여 울산에 자리잡아 안동부사(安東府使) 권순(權純)의 딸과 혼인하여 성(晟), 호(昊), 병(昺), 수(遂) 네 아들을 두었다.
1647년(인조 25) 침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들은 충남 서산으로 터전을 옮겨 우리나라 가씨(賈氏)의 터전을 이루었다. 1851년(철종 2)에는 시조(始祖) 유약과 아들 상, 손자 침 '3대의 충효'를 기리는 사당(祠堂)과 정문(桂門)이 서산의 가씨마을에 내려졌다.
그후 가씨는 서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 일대에서 충효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가문이 크게 번성하였고, 시조 유약의 14세손 행건(行健)이 헌종 때 충청도 안흥량진(安興梁鎭)의 수군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를 지냈다. 그의 아들 일영(日永)도 철종 때 울진현령 등을 지냈는데 울진에 현재 선정비가 전한다.
역사인물로는 일영의 동생 중영(中永)이 철종 때 충량과(忠良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고종 때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으며, 14세손 익건(翊健)은 1866년(고종 3)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했을 때 의병을 일으켰다.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의영(義永)과 병준(秉俊) 부자(父子)는 사재(私財)를 털어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등 사회사업에 공헌했으며, 호서(湖西) 일대의 한학자(漢學者)로 이름을 떨쳤던 형로(衡魯)는 항일투쟁에 헌신하였다. 신구(新舊) 학문과 사학(史學)에 정통했던 병준은 서산에 농림중학교(農林中學校)를 설립하여 교육운동과 농촌 발전에 함써 면민(面民)들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웠으며, 18세손 재연(在衍)은 인천상고 재학시와 은행원 신분으로 항일투쟁에 앞장섰다가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일본 헌병을 처단하려 했던 17세손 정로(晶魯)와 사재를 털어 임시정부를 지원했던 재창(在昌)도 독립운동에 매진했으며, 정로(廷魯)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예산·서산·공주군수를 지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주 가씨는 파주시에 총 4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 간씨(嘉平簡氏)

가평 간씨(加平簡氏)는 문헌에 중국 범양(范陽) 간백(簡伯)의 후손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를 정확하게 고증할 길이 없어 연원(淵源)을 알 수 없다.
간씨의 본관(本貫)은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가평(加平)을 비롯하여 남양(南陽), 서산(瑞山), 경주(慶州), 인동(忍冬) 등 아홉 개의 본(本)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가평을 제외 한 관향(貢鄕)은 미상(未詳)이다 .
경기도 가평은 고구려 때는 근평군이었으나 신라 경덕왕 때 부근의 조종현(朝宗縣)과 합하여 가평으로 개칭하였으며 고려 때는 강원도 춘천에 속하였다. 1507년(중종 2) 이곳에 중종의 태(胎)를 묻어 군으로 승격되었으며 1895년(고종 32) 다시 경기도에 속하면서 한성부(漢城府)에 속하기도 하였다.
『가평 간씨 세보(加平簡氏世譜)』에 따르면 시조 간균(簡符)은 1164년(고려 의종 18) 문과에 급제 하여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를 역임하고, 1189년(명종 19) 벼슬에서 물러나 경기도 풍덕(豊德, 지금의 황해도 개풍군) 백후동(桓後洞)으로 낙향(落鄕)하여 생을 마쳤다고 한다. 그 후 그의 손자인 주(株)가 고려 충숙왕 때 민부전서(民部典書)를 지내며 나라에 공을 세워 가평군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관향(貫鄕)을 가평으로 하게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때 군기감사(軍器監事)를 지낸 유(有)를 비롯하여 무과에 급제하여 만호(萬戶)를 지낸 홍(弘)과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통명(通明)이 있으며, 세종 때 통덕랑(通德郎)에 오른 사열(思裂)과 공열(恭悅), 통정대부(通政大夫) 충국(忠國),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충기(蟲氣),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기린(麒麟)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평 간씨는 파주시에 총 2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 갈씨(南陽葛氏)

남양 갈씨(南陽葛氏)는 본래 제갈씨(諸葛氏)에서 갈라져 나온 성씨이다. 『남양 제갈 세보(南陽諸葛世譜)』에 따르면 제갈씨의 시조(始祖) 제갈규(諸葛珪)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諸葛亮, 제갈공명)의 아버지로 전하며, 그 20대손 제갈공순(諸葛公巡)이 신라 흥덕왕 때 귀화한 것이 우리나라 제갈씨(諸葛氏)의 시초라고 한다. 남양은 지금의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의 옛지명이다.

고려 고종 때에 이르러 제갈홍(諸葛泓)과 제갈형(諸葛瀅) 두 형제가 복성(複姓)인 제갈씨를 한 자씩 나누어 쓰기로 하여, 형은 제씨(諸氏)로 아우는 갈씨(葛氏)로 분종(分宗)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칠원 제씨 족보(漆原諸氏族譜)』에는 이들 홍과 형 형제가 고려 현종 때 사람인 제갈한(諸寫漢)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갈씨의 본관은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서원(西原, 지금의 청주)을 비롯하여 양성(陽城), 양주(楊州), 청풍(淸風), 청산(靑山), 죽장(竹長), 해남(海南), 비안(飛應) 등 22개 본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남양을 제외한 관향(貫鄕)은 모두 미상이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형의 아들 현(俔)이 고려 때 판관(判官)을 역임하였고, 손자 은(溵)이 나라에 공을 세워 서성백(西城伯)에 봉해졌다. 그 외 고려 때 태수(太守)를 지낸 춘(春)과 희(熙) 부자(父子)와 화산군(火山君)에 봉해진 현(顯)이 있으며, 대구군(大邱君) 원(遠)과 부사(府使)를 지낸 지만(芝蔓), 효자로 이름난 덕래(德來)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 갈씨는 파주시에 총 11명이 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감씨(昌原甘氏)

창원 감씨(昌原甘氏)는 조선시대에 발간된『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보여지는 성씨지만 그 시조와 세계(世系)를 확인할 수 없어 성씨의 연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 감씨는 파주시에 총 8명이 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산 감씨(會散甘氏)

감씨(甘氏)는 본래 발해(渤海) 주왕(周王)의 셋째아들 숙대(叔帶)가 감후(監候)에 봉해지고 식읍(食邑)을 하사받아 그 땅이름을 따서 감씨의 성을 삼았다고 한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따르면 감씨의 본관은 회산(檜山), 합포(合浦), 거창(居昌), 창녕(昌寧), 충주(忠州), 부령 (府令) 등 6개 본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 전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회산 감씨 대동보(檜山甘氏大同譜)』에 시조 감규(甘揆)는 원나라 성종 때 한림학사(翰林學士)로 1351년(충정왕 3)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를 모시고 고려로 돌아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올랐으며 후에 연릉군(延陵君)에 봉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15대 수화(受和)에 이르기까지 본관을 연릉으로 삼아오다가, 16대 철(喆)이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오르고 회산군(檜山君)에 봉해져 관향을 회산으로 삼았다.
회산은 지금의 경상남도 창원(昌原)의 옛 이름으로 6가야 중 금관가야(金官伽倻)에 속했던 곳이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감규를 비롯하여 감규의 손자인 평장사(平章事) 홍협(興鋏), 밀직제학(密直提學) 소연(紹延), 중추부사(中樞副使) 진요(震耀), 이부시랑(吏部侍郎) 침(鐵), 회산군의 손자로 예부승지(禮部承旨)를 지낸 원한(元漢)과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지낸 익한(益漢) 형제 등이 있다. 익한은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과 함께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화를 입은 충신이다. 이외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운 경인·경륜 형제가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산 감씨는 파주시에 총 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산 강씨(谷山康氏)

곡산 강씨(谷山康氏)의 시조는 고려시대에 상산백(象山伯)에 봉해진 강서(康庶)이다.
역사인물로는 태조 때 상산부원군에 봉해진 강윤성(康允成)이 있다. 곡산 강씨는 강씨(康氏) 가운데 신천, 진주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성씨이지만 족보, 연원, 세계 등을 접할 수 없어 집성촌, 인물, 사적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곡산 강씨는 파주시에 총 17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천 강씨(信川康氏)

강씨(康氏)의 연원(淵源)은 중국 주나라 왕족(王族) 강숙(康叔)인데, 우리나라의 강씨는 강숙의 둘째 아들 강후(康侯)의 68세손 강호경(康康虎)을 시조(始祖)로 하고 있다. 중시조(中始祖)는 호경의 14세손으로 고려 고종 때 호종공신(區從功臣)에 오르고 신성부원군(信城府院君)에 봉해진 충렬공(忠烈公) 강지연(康之淵)이다.

강씨의 본관(本貫)은 신천(信川), 곡산(谷山), 재령(載寧)을 비롯하여 충원(忠原), 진주(晋州), 강령(康翎) 등 10여 본(本)이 있는 것으로 전하나 현존하는 강씨는 신천과 곡산, 재령 등 3개 본이 대종(大宗)을 이룬다.

『신천 강씨 대동보(信川康氏大同譜)』에 따르면 중시조 지연은 고려 명종 때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내고 1231년(고려 고종 18) 몽고군의 침략으로 이듬해 도읍을 강화도로 옮길 때 왕을 모신 공으로 호종공신(鹿從功臣)에 올라 신성부원군에 봉해져 관향(貫鄕)을 신천으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성(信城)은 신천의 옛이름으로 신성부원군은 제주의 조천서원(朝天書院), 전주 기린사(麒麟祀), 고창 신산사(新山祀)에 배향되었다.

그 후 지연의 7세손 상산부원군(象山府院君) 윤성(允成)을 파조(派組)로 하는 곡산파(谷山派)와 8세손 안릉부원군(安陵府院君) 득룡(得龍)을 파조派祖)로 하는 재령파(載寧派)로 크게 갈리었으며, 조선조에서 한림학사(翰休學士)와 전라감사(全羅監司)를 지낸 영암공(溫巖公) 영(永)을 신천 강씨(信川康氏)의 제주 입도시조(入島始祖)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신천은 황해도 중앙부에 위치한 곳으로 단군신화에 담긴 아사달산(阿斯達山) 당장경(虐藏京)이 있었던 곳으로 한사군(漢四郡)을 거쳐 고구려 시대에는 승산군(升山郡)이었다. 그 후 고려초에는 신주(信州)로 불렀고 1413년(태종 13) 지금의 신천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중시조인 신성부원군 지연을 비롯하여 고려 충혜왕 때 상산부원군에 봉해진 윤성, 재령파의 파조로 조선 태조 때 안릉부원군에 봉해진 득룡, 제주의 입도시조로 전라감사를 지낸 영(永), 고려 때 도통사(都統使)를 지낸 조(兆),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증(拯), 영의정을 지내고 보람부원군(保藍府院君)에 봉해진 순(純)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천 강씨는 파주시에 총 41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령 강씨(載寧康氏)

재령 강씨(載寧康氏)의 시조는 고려시대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강적(康適)으로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사람이 살고있는 성씨이다.
역사인물로는 재령백(載寧伯)에 봉해진 강적의 증손(曾孫) 강순룡(康舜龍), 강순룡의 아우로 재령부원군(載寧府院君)에 봉해진 득룡(得郡), 조선시대에 판관(判官)을 지낸 숙(淑), 감문위(監門衛) 상호군(上護軍)을 지낸 적순(迪順)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령 강씨는 파주시에 총 1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 강씨(晋州姜氏)

조선시대 한때 진양(晋陽)으로 불리기도 했던 진주 강씨(晋州姜氏)의 시조는 고구려의 무장(武將)인 강이식(姜以式) 장군이다
문헌에 따르면 수나라 문제가 중국을 통일한 후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가 실패한 후, 그 아들 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침략해 올 때 당시 고구려의 병마원수(兵馬元帥)로 있던 강이식 장군은 을지문덕(乙支文德)과 함께 출정하여 요동성(遼東城)과 살수(薩水) 등지에서 수나라 군사를 크게 무찔렀다고 한다.
그 후 그의 6세손인 택인(擇仁)이 839년(신라 문성왕 원년) 과거에 급제하여 밀직제학(密直提學)과 밀직부사(密直副使) 등을 지낸 후 진안후(晋安候)에 봉해졌으며, 그의 아들 진은 헌강왕 때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태중대부(太中大夫)와 판내의령(判內議令)을 지낸 후 진양후(晋陽侯)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장군 강이식(姜以式)을 시조로 삼고 본관을 진주(晋州)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오면서 박사공파(博士公派), 소감공파(少監公派), 관서공파(關西公派), 은열공파(殷烈公派) 등의 크게 4파로 나뉘어져 오늘에 이른다.
역사인물로는 박사공파 파조로 고려 때 국자박사(國子博士)를 지내고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에 봉해진 계용(啓庸), 고려말 대사헌을 지낸 회백(淮伯)과 보문각(寶文閣)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회중(淮仲) 형제, 세조 때 호조참의를 지낸 희안(希顔), 이조판서와 좌찬성(左贊成)을 지낸 희맹(希孟), 대사헌을 지내고 진원군(晉原君)에 봉해진 귀손(龜孫), 병조판서와 우의정을 지낸 사상(士尙), 정여립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평난3등공신에 오르고 진흥군(晉興君)에 봉해진 신(紳), 소감공파 파조인 위용(渭庸), 관서공파 파조인 원로(元老), 이조판서를 지낸 국흥(國興), 대제학을 지낸 문회(文會), 은열공파의 파조로 고려 현종 때 거란의 10만 대군을 물리친 '해동명장(海東名將)' 민첨(民瞻), 숙종 때 좌참찬(左參贊)을 지낸 백년(栢年),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된 현(鋧), 서화로 이름을 떨친 세황(世晃), 철종 때 대사간(大司諫)을 지낸 노(浻), 숙종 때 대사간을 지내고 진선군(晉善君)에 봉해진 석빈(碩賓), 『한성순보(漢城旬報)』를 간행하고 한말의 3대 시인으로 불린 위(瑋) 등이 있다.

진주 강씨(晉州康氏)

진주 강씨(晉州康氏)의 시조는 군수 강여즙(康汝楫)이다.
역사인물로 시조의 증손(曾孫)인 강홍제(康弘濟)는 조선 영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풍기군수를 역임했다. 진주 강씨는 강씨(康氏)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성본(姓本)이지만 문중의 역사, 인물, 집성촌, 종친회 및 세계(世系)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 강씨는 파주시에 총 8명이 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경씨(淸州慶氏)

청주 경씨(淸州慶氏)의 시조는 고려 중기의 무신 경진(慶珍)이다.
문헌에 따르면 고려 명종 때 서경(西京)에서 반란을 일으킨 조위총(趙位寵)의 세력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서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가 되었고 한다.
이후 세계가 사라져 고려 고종 때 호부상서를 지낸 경번(慶蕃)을 일세조로 하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무신 정권 때 정중부를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대승(大升), 충숙왕비 명덕태후(明德太后)의 조카딸과 혼인하여 우대언(右代言)이 된 사만(斯萬), 청원부원군(淸原府院君) 복흥(復興), 조선 개국공신에 책봉되어 찬성사(贊成事)에 이른 보(補), 서북면병마도절제사(西北面兵馬都節制使)에 이른 의(儀)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 경씨는 파주시에 총 23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청주 경씨는 경유후를 입향조(入鄕祖)로 하는데 경유후가 1632년(인조 10) 벼슬에서 물러나 적성면 구읍리의 관골마을로 낙향하였다. 관골마을은 한국전쟁 때 폭격을 당해 마을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경유후의 장남 식(寔)의 후손들이 적성에 집성촌을 이루며 15대 370년을 파주에 세거하며 살아오고 있다. 적성면 구읍리 마을에 한말까지는 40여 가구가 살았으나 서울 등 외지로 이주하고 현재는 10여 호가 살고 있다. 청주 경씨 족보가 있다.

태인 경씨(泰仁景氏)

태인 경씨(泰仁景氏)의 시조는 고려시대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에 올라 태산군(泰山君)에 봉해졌던 경차(景磋)이다.
문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씨는 중국 은(殷)나라의 기자(箕子)를 호종해 온 경여송(景汝松)이 평양에 정착함으로써 문호(門戶)가 열렸다고 한다. 경씨의 본관은 태인(泰仁)·해주(海州)·충주(忠州)·경주(慶州)·밀양(密陽)·장연(長淵)·치등(置等)·능향(綾鄕)·복흥(福興)등 10여 개의 관향이 있다고 하나, 태인·해주를 제외한 본관은 미상이다. 또한 자료가 사라져서 경차를 중시조로 삼았다.
그 후 사공(司空)을 역임한 상조(祥租)를 태인파(泰仁派)로 좌복야(左僕射)를 지낸 상록(祥錄)을 해주파(海州派)를 하여 가계가 나누어졌다.
역사인물로는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와 경기도 병마절도사(京畿道兵馬節度使)를 역임한 세정(世貞), 수문전 태학사를 지낸 일창(日昌), 태학사(太學士)에 오른 희(曦), 임진왜란 때 활동하다가 왜군(倭軍)에게 죽임을 당한 응순(應舜), 예문관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기(耆)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인 경씨는 파주시에 총 1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안 계씨(遂安桂氏)

수안 계씨(遂安桂氏)의 시조는 중국 천수(天水) 지역 출신인 계석손(桂碩遜)이다.
『수안계씨계축보(遂安桂氏癸丑譜)』에 의하면 계석손(桂碩遜)은 명(明)나라에서 예부시랑(禮部侍郎)을 지내고 고려로 넘어와 공을 수안백(遂安伯)에 봉해졌다고 한다. 후손들은 이후 관향을 수안으로 삼아 선천장파(宣川長派)·군현파(群賢派)·태산파(台山派) 등 22파로 분파되었다.
특히 시조 계석손의 아들 원우(元祐)·원조(元祚)·원제(元製)·원겹(元袂) 4형제 대에서 크게 번성하여 맏아들 원우(元祐)가 합문지후(閤門祗候)를 지냈고, 그의 아들 문식(文植)은 우대언(右代言)을 역임하였다. 원조(元祚)의 셋째 아들 양춘(陽春)은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첨사(僉使)를 지낸 후 강화(江華)로 들어가 강화파(江華派)의 파조(派組)가 되었으며, 원제(元製)의 후손에서는 강동파(江東派)를 비롯한 영유(永柔)·증산(甑山)·용강(龍岡) 등 7파(派)로 분파(分派)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정원도호부사(定遠都護府使)를 지낸 빈(斌), 조방장(組防將) 반(斑), 삼화현령(三和縣令)을 지낸 준(遵), 심하(深河)의 전투에서 많은 적을 죽이고 장렬하게 전사한 여강(汝江), 정묘호란 때 천상(天祥)·익상(益祥) 두 아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장렬하게 전사한 지문(之文), 조선중기의 학자로 유명한 노천(魯川), 예조좌랑(禮曹佐郎)을 역임한 덕해(德海)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안 계씨는 파주시에 총 6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고씨(濟州高氏)

제주 고씨(濟州高氏)의 시조는 고을나(高乙那)이다.
이후 45세손(世孫) 자견왕(自堅王)까지 탐라군주(耽羅君主)로 세습해 오다가 서기 938년(고려 태조 21) 자견왕(自堅王)의 태자(太子) 말로(末路)가 고려의 신하가 되어 그가 고씨의 중시조가 되었다. 그 후 아들 유(維)·강(綱)·소(紹) 형제가 모두 고려에서 벼슬을 지냄으로써 육지로 진출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고씨의 본관은 제주를 비롯하여 장흥(長興)·개성(開城)·횡성(橫城)·연안(延安)·용담(龍膽)·의령(宜寧)·고봉(高峰)·옥구(沃溝)·상당(上黨)·김화(金化)·면산(免山)·회령(會寧)·안동(安東) 등 122본(本)이 있는 것으로 전하나 모두 제주를 단본(單本)으로 한다.
그 후 말로(末老)의 15세손(世孫) 인단(仁旦)을 파조(派祖)로 하는 성주공파(星州公派), 신걸(臣傑)을 파조(派祖)로 하는 전서공파(典書公派), 득종(得宗)을 파조(派祖)로 하는 영곡공파(靈谷公派), 경(慶)을 파조(派祖)로 하는 문충공파(文忠公派), 중연을 파조(派祖)로 하는 장흥백파(長興伯派), 인비(仁庇)를 파조(派祖)로 하는 화전군파(花田君派), 택(澤)을 파조(派祖)로 하는 문정공파(文禎公派), 공익(恭益)을 파조(派祖)로 하는 상당군파(上黨君派), 영신(令臣)을 파조(派祖)로 하는 양경공파(良敬公派) 등 아홉 파로 갈렸다.
역사인물로는 벼슬이 문하시중(門下侍中)·우복야(右僕射)에 이른 유(維), 이자겸(李資謙) 일파(一派)였던 봉우(奉佑)를 탄핵하고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에까지 오른 조기(兆基),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지낸 득종(得宗), 조선개국공신 여(呂),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끌고 왜적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충렬공(忠烈公) 경명(敬命)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고씨는 파주시에 총 2,58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제주 고씨는 문충공파로서 약 450여 년 전에 적성면 어유지리 봉화촌 마을로 입향 하였다. 입향조(入鄕祖)는 고치웅(高致雄)이다. 입향조의 묘는 어유지리에 있다. 제주 고씨는 어유지리 봉화촌 마을에 20여 호가 살고 있었으나 지금은 7호만이 거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리읍 등원리, 파주읍 부곡2리, 금촌 검산동, 법원읍, 운정동 등지에 살고 있다.
매년 11월 첫째주 일요일 시제를 지내며 선영은 적성면 어유지리 475-11이다. 문중 회장은 고갑춘, 총무는 고병만이며 임야 5천평과 답 500평을 종중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곡부 공씨(曲阜孔氏)

곡부 공씨(曲阜孔氏)의 시조는 중국의 공자(孔子)이다.
그 후 공자의 53세손 완(浣)의 둘째 아들 소(紹)가 1351년(충정왕3) 공민왕비인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를 수행하여 고려에 들어와 귀화하였다. 그 후 소는 문하시랑평장사로 회원군(檜原君)에 봉해졌고, 본관을 창원 공씨로 하여 우리나라 공씨의 중시조가 되었다. 그러나 노국의 공씨와 같은 조상이다 하여 1794년에 다시 곡부를 본관으로 하였다.
『임자시월정원일기』에는 1792년(정조 16) 정조가 공서린(孔瑞麟)의 9대손 공윤항(孔胤恒)이 경기도 용인군에 살고 있으니, 그들 자손에게는 세습제로 하여 녹용(祿用)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논하여 주달하게 하였다. 여러 신하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왕의 전교대로 결정하고 공윤항의 맏아들 공영수(孔營洙)에게 녹과 벼슬을 주는 한편, 공씨의 본관을 곡부로 정하라고 명령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곡부 공씨는 파주시에 총 62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산 곽씨(善山郭氏)

선산 곽씨(善山郭氏)의 시조는 곽우현(郭佑賢)이다.
그는 현풍곽씨(玄風郭氏)의 시조 곽경(郭鏡)의 후손으로 고려조에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 겸 태자첨사(太子詹事)를 지내고 선산군(善山君)에 봉해졌다.
『선산곽씨세보(善山郭氏世譜)』에 의하면 선산 곽씨에 세전되어 온 구보(舊譜)가 있었는데 족보를 모신 분이 황간(黃澗) 산중에 격리당해 있을 때 화재로 족보가 소실되어 곽우현 이상의 세계를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묘비문 등을 바탕으로 1743년 포산 곽씨와 합보하였다가, 여러 사서 등을 참고했을 때 곽우현이 곽경의 6세손이라는 것은 연대상으로 맞지 않아, 1782년에 곽우현을 시조로 하여 족보를 간행하였다고 한다.
역사인물로는 상장군·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낸 원(元), 예의판서(禮儀判書) 겸 동지밀직사(同知密直事)를 지낸 윤성(允誠), 은 고려 말에 삼사 좌윤(三司左尹)을 지내다가 조선어 개국되자 절의를 지키고 옥천(沃川)의 구룡촌(九龍村)으로 은퇴하여 세거한 수원(綏元), 조선 성종 때 승지를 지낸 은(垠),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를 지낸 시(郭詩) 등이 있다. 한편 언(郭諺)은 임진왜란 때 아들 자방(自防)과 함께 창의하여 순절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산 곽씨는 파주시에 총 5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곽씨(淸州郭氏)

청주 곽씨(淸州郭氏)의 시조는 신라 헌강왕(憲康王) 때 시중(侍中)을 지낸 곽상(郭祥)이다. 그는 문장(文章)이 뛰어나 당대 최고의 문장가인 최치원(崔致遠)과 교분을 나누었다.

『청주곽씨대동보(淸州郭氏大同譜)』에 의하면 그의 후손 원(元)은 996년(고려 성종 15) 문과에 급제하고 형부시랑(刑部侍郞)·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를 거쳐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렀으며, 원(元)의 손자인 상(尙)은 수사공(守司空)에 올랐다고 한다. 여(輿)는 고려 예종(睿宗)과의 세자(世子) 때 친분으로 순복전(純福殿)에 있으면서 왕(王)과 담론(談論)을 나누었고,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郞)이 되었다가 사직하고 금주(金州)의 초당(草堂)으로 돌아가자 왕이 성동(城東)의 약두산(若頭山)에 산재(山齋)를 짓게 하고 〈허정재(虛靜齋)〉로 사액(賜額)한 후 왕이 산책을 나오면 들러 함께 시(詩)를 읊고 즐겨 세칭 〈금문우객(金門羽客)〉으로 불렸다. 그가 죽자 왕은 남호(南湖) 정지상(鄭知常)을 시켜 『산재기(山齋記)를 써 비(碑)를 세워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한다.

역사인물로는 충렬왕 때 좌승지(左承旨)와 국자감(國子監)의 대사성(大司成)을 거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에 이른 예(預), 문과에 장원하고 문장과 충성심을 인정받아 선유사(宣諭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일본을 다녀온 인(麟), 헌납(獻納)을 거쳐 대간(臺諫)에 올라 권신 조일신(趙日新)의 비리를 탄핵하고 뒤에 형부시랑(刑部侍郞)을 지낸 충수(忠秀)는, 조선의 개국 후에 대제학이 된 추(樞), 조선개국원종공신(朝鮮開國原從功臣)이 된 충보(忠輔), 영조대왕(英祖大王)의 스승이었던 시징(始徵), 한말에 의열단(義烈團)을 조직하고, 경남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지는 등 항일운동 몸 바친 재기(在驥)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 곽씨는 파주시에 총 19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풍 곽씨(玄風郭氏)

송나라 귀화 성씨로 알려진 현풍 곽씨(玄風郭氏)의 시조는 관서(關西) 홍농(弘農) 출신인 곽경(郭鏡)이다. 그는 고려 인종(仁宗)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를 지내고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포산군(苞山君)에 봉해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향을 포산(苞山)으로 하였으나, 조선시대에 포산현(苞山縣)이 현풍(玄風)으로 개칭되어서, 관향이 현풍(玄風)으로 바뀌었다.

현풍 곽씨의 인맥을 살펴보면 포산군의 현손 기정(基正)이 고려조에서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역임했고, 그의 아들 응(膺)은 충렬왕조(忠烈王朝)에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와 감찰어사(監察御史)를 지냈다. 충숙왕(忠肅王) 때 좌리공신(佐理功臣)에 녹훈된 부(郛)는 수사도(守司徒)에 올라 포산군(苞山君)에 봉해졌고, 제학(提學) 원진(元振)의 9세손(世孫) 안방(安邦)은 세종 때 해미현감(海美縣監)과 익산군수(益山郡守)를 지내면서 청렴한 성품으로 선정(善政)을 베풀어 뒤에 청백리(淸白吏)로 녹선(錄選: 벼슬에 추천하여 관리로 뽑음)되었으며, 그의 아들 승화(承華)는 어려서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여 한훤당 김굉필(金宏弼)과 더불어 당대의 양재(兩才)로 불렸다.

역사인물 가운데에서 특히 안방(安邦)의 현손대(玄孫代)에서 주(走)자 항렬의 8형제가 크게 현달하여 '현곽8주(玄郭八走)'로 명성을 떨쳤는데 그중 월(越)·율·준 3형제가 빼어났다. 월(越)은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호조참의(戶曹參議)를 거쳐 청송(靑松)·남원(南原) 등지의 부사(府使)를 역임했다. 율은 일찍이 당대의 석학 조식(曺植)과 정구(鄭逑)의 문하(門下)에서 글을 읽고 학행(學行)으로 벼슬에 등용되어 홍산현감(鴻山縣監)과 예천군수(醴泉郡守)를 지냈다. 특히 임진왜란 때 김면(金沔)이 의병을 일으키자 그 막하에 들어가 공(功)을 세웠고,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는 안음현감(安陰縣監)으로 김해부사(金海府使) 백사림(白士霖)과 함께 호남(湖南)의 목구멍이라던 황석산성(黃石山城)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자 호상(胡床)에 걸터앉아서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는 무저항으로 죽음을 당했다. 그의 아들 이상(履常)·이후(履厚)도 그 아버지를 안고 적을 꾸짖다가 죽음을 당했고, 딸 이문호(李文虎)의 아내도 남편이 포로가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일문삼강(一門三綱)'의 가문으로 일컬어졌다.

월(越)의 셋째 아들 재우(再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항상 붉은 비단으로 만든 첩리(帖裡)를 입고 스스로 '천강홍의대장군'이라 칭하면서 의령(宜寧)·삼가(三嘉)·합천(陜川)·현풍(玄風)·창녕(昌寧)·영산(靈山) 등지에서 크게 무공을 세웠다.

그 밖에 재우(再祐)의 종형(從兄)인 재겸(在謙)은 임진왜란 때 금강(琴江) 방어에 전공을 세웠고, 정유재란 때에는 재우와 함께 화왕산성(火旺山城)에서 의병을 거느리고 싸워 부호군(副護軍)에 임명되었고, 자방(自防)은 의병장 조헌(趙憲)의 휘하에 들어가 금산(錦山)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순절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풍 곽씨는 파주시에 총 1,32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현풍 곽씨 남계공파는 곽득강을 파시조(派始祖)로 하고 곽원을 중시조로 하는데 400여년 전인 16세기 무렵 적성면 답곡리로 입향하여 오늘에 이른다.

한국전쟁 전까지는 답곡리에 40여 호가 살았는데 전쟁 후 피난을 나갔다 돌아와 식현2리에 정착해 13호가 살고 있다. 이외에도 파평면 장파리에 15호가 살고 있다.

남계공파 후손들은 파주시 전체에 161호, 537명이 살고 있으며 선영은 적성면 답곡리에 있다.

매년 11월 셋째주 일요일 적성면 답곡리에서 시제를 지낸다. 종중 회장은 곽중광, 총무는 곽창용이다.

평해 구씨(平海丘氏)

평해 구씨(平海丘氏)의 시조는 당나라 사람인 구대림(丘大林) 장군이다. 그는 663년(신라 문무왕 30) 일본에 사신으로 가다가 동해에서 풍랑을 만나 평해(平海)의 월송정(月松亭) 부근에 표착하여 해안의 남쪽 언덕 미포(美浦)에 터를 잡아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600여 년간 세계가 실전되어, 구선혁(丘宣赫)을 일세조로 하고 관향을 평해(平海)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는 공민왕(恭愍王) 때 이방실(李芳實) 장군과 함께 홍건적(紅巾賊)을 토벌하여 공신(功臣)에 책훈된 인물이다.
평해 구씨는 선혁(宣赫)의 아들 천우(天祐)가 판도판서(版圖判書: 판도사의 으뜸 벼슬)를 역임하였고, 그의 아들 4형제가 모두 현달하였다. 맏아들 춘호(春浩)는 사재시사(司宰寺事)를, 차남 춘경(春景)은 판사(判事)를, 셋째 춘서(春瑞)와 막내 춘보(春甫)는 낭장(郎將)을 지냈으며 그들의 후손에서 가세(家勢)가 크게 번성하였다.
역사인물로는 1444년(세종 26)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고 등준시(登俊試: 재상 이하의 문관을 시험하던 과거)에도 합격했으며, 좌찬성(左贊成)에 이른 종직(從直)이 있다. 그는 가문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대표적인 인물이라 평해지데, 그에 대한 일화가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에 전해진다. 그의 아들 달손(達孫)과 숙손(夙孫) 형제도 과거에 급제하고 직제학(直提學)과 이조정랑(吏曹正郎)을 각각 역임하였다. 이외에 1464년(세조 9) 춘시문과(春時文科)에 급제하고 이조참의(吏曹參議)·대사헌(大司憲)·한성좌윤(漢城左尹)에 이른 치곤(致崑), 병조좌랑(兵曹佐郎)을 거쳐 예조참의(禮曹參議)을 지낸 치강(致崗), 임진왜란 때 남원성(南原城) 싸움에서 장렬하게 순절한 복남(福男)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해 구씨는 파주시에 총 10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성 구씨(綾城具氏)

구씨(具氏)의 선계는 중국 진(晋)나라 구병(具丙)으로 전하는데, 『동사보유(東史補遺)』와 『주청계공실기(朱淸溪公實記)』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구씨(具氏)는 송나라 출신인 구존유(具存裕)라고 한다. 그는 1224년(고종 11) 주잠(朱潛)과 함께 고려에 귀화하였다.
능성은 전라남도 능주(綾州)의 옛 지명이다. 백제시대에 이릉부리군(爾陵夫里郡)·죽수부리군(竹樹夫里郡)·인부리군(仁夫里郡) 등으로 불리다가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능성현(能聲縣)이라 개칭되었고, 1913년에 능주면(綾州面)으로서 화순군(和順郡)에 편입되었다.
『능성구씨세보(綾城具氏世譜)』에는 구존유의 벼슬은 벽상공신삼중대광(壁上功臣三重大匡) 검교상장군(檢校上將軍)에 이르렀고 전남 능성현(能聲縣: 현 능주면 고정리)에 은거하던 주잠(朱潛)의 딸과 혼인하여 능성에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
능성 구씨는 시조 존유(存裕)의 7세손(世孫)때부터 가세가 크게 번창하여 사재감판사(司宰監判事) 현좌(賢佐)를 파조(派祖)로 하는 판사공파(判事公派), 공조전서(工曹典書) 현로(賢老)를 파조(派祖)롤 하는 전서공파(典書公派), 시랑(侍郞) 영량(英良)을 파조(派祖)로 하는 시랑공파(侍郞公派) 좌정승공파(左政丞公派), 판안동공파(判安東公派), 도원수파(都元帥派), 재신파(宰臣派), 낭장공파(郞將公派), 감무공파(監務公派), 임천군사공파(林川郡事公派), 참판공파(參判公派) 등 10여파로 크게 갈리었다.
역사인물로는 집현전교리(集賢殿敎理)로 문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세상을 비판하여 눈 뜬 소경으로 행세하며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킨 인문(人文), 수찬(修撰)·전적(典籍) 등을 역임하고 강원도 암행어사로 백성의 억울함을 다스린 의강(義剛), 고려말에 문과에 급제하여 병부시랑(兵部侍郞)을 지낸 환(桓), 중종 때 효행이 뛰어나 임금의 특별한 명으로 공릉참봉(恭陵參奉)으로 뽑혀, 명종 때 광흥창봉사(廣興倉奉事)가 된 두남(斗南), 임진왜란 때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진주성(晋州城) 수비에 가담하여 적과 싸우다가 순절한 희(喜)는, 병조판서(兵曹判書)와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지내고 보조공신(補祚功臣)으로 능성군(綾城君)에 추봉된 서(緖), 병조참의(兵曹參議)로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에 오른 신충(信忠), 계유정란에 가담하고 승승장구하여 영의정에까지 오른 치관(致寬), 중종(中宗) 대 정국이등공신(靖國二等功臣)으로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에 봉해진 수영(壽永), 중종의 딸 숙정옹주(淑靜翁主)와 혼인하여 능창위(綾昌尉)에 봉해진 한(澣), 선조 때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능해군(綾海君)에 봉해지고 영의정에 추증된 성(宬), 인조반정의 공신이 된 굉(宏)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능성 구씨는 파주시에 총 91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능성 구씨 도정공파는 400여 년 전 7대조 구용서(具龍瑞), 구성서(具星瑞) 형제가 파주에 입향하였으며 27대조 구경운(具敬云,1875~1944)도 파주에 정착하여 살았다. 경기 광주에서 적성현감으로 온 후 눌러살게 되었다. 입향조 묘가 적성 장현리에 있다.
적성면 장현리 봉우재에 예전에는 40여 호가 살았으나 현재는 11호가 살고 있다. 후손들 중 일부가 탄현면 오금리 질오목 마을에 분가하여 100여 년째 살고 있는데 현재 질오목 마을에 3호가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10일 장현리에서 시제를 지내며, 10월 둘째 일요일에는 오금리에서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적성면 장현리와 탄현면 금산리 산 56 일대이다.
장현리의 전답 1만 5천평과 산 1만 5천평을 종중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창원 구씨(昌原具氏)

창원 구씨(昌原具氏)는 본래 중국 남양(南陽)에서 나온 성씨이다. 우리나라의 시조는 구성길(仇成吉)이다.

『창원구씨세보(昌原具氏世譜)』와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의하면 창원 구씨의 원성(原姓)이 구씨(仇氏)이다. 한(漢)나라 구성길(仇成吉)이 고려로 들어온 후, 945년(혜종 2) 서경(西京)에서 공을 세워 의창군(義昌君)에 봉해졌고 벼슬은 찬성사(贊成事)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관향을 창원으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였으나, 상계가 실전되어 생원(生員) 설(雪)을 일세조로, 세종 때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을 역임한 종길(宗吉)을 중시조(中始祖)로 삼았다. 이후 1791년(정조 15) 현재의 구씨(具氏)로 성을 고쳤다고 한다.

『한국지명연혁고(韓國地名沿革考)』에 의하면 창원(昌原)은 본래 의창현(義昌縣)과 회원현(會原縣)의 합명(合名)이었다. 의창(義昌)은 신라 때 굴자군(屈自郡)·의안군(義安郡)으로 불리다 1282년(충렬왕 8)에 의창(義昌)으로 개칭되었고, 회원(會原)은 신라 때 골포현(骨浦縣)이 합포(合浦)로 고쳐졌다가 고려 때 회원(會原)으로 바뀌었다. 1413년(태종 13)에 두 현을 합하여 창원부(昌原府)를 설치하였다.

가세를 일으킨 중시조 종길(宗吉)은 1363년(공민왕 12) 경남 의창군 북면(北面) 내곡리(乃谷里)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한 그는 주역(周易)에 통달했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學問)에만 진력하다가 노모(老母)의 뜻을 따라 늦게 벼슬길에 나서 1422년(세종 4)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장원(壯元)으로 급제하여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를 거쳐 직제학(直提學)에 이르렀다. 그는 슬하에 4형제를 두었는데 이들이 창원구씨의 4대 산맥(山脈)을 이루어, 맏아들 복한(復漢)은 부사공파(府使公派), 둘째 동설(東薛)은 진사공파(進士公派)로, 셋째 동직(東直)은 승지공파(承旨公派)로, 그리고 막내 석훈(錫勳)은 처사공파(處士公派)로 각각 분파(分派)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임진왜란 때 제포만호(濟浦萬戶)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김해(金海)·노현(露峴) 등지에서 수많은 왜적을 무찔렀고, 부상당하고 포로가 되어 항복하지 않아 왜군에게 무참히 처형당한 응진(應辰), 임진왜란 때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으로 선조를 의주(義州)에까지 호종하고 전쟁에서 순절하여 선무원종일등공신(宣武原從一等功臣)에 녹훈된 응삼(應參), 임진왜란 때 권율(權慄)의 막하에서 전공을 세우고 순절하여 선무원종이등공신(宣武原從二等功臣)의 훈작을 받은 응성(應星), 의병을 일으켜 의령(宜寧)·함안(咸安) 등지에서 공을 세워 이름을 떨쳤으나 끝내 싸움터에서 순절한 동(棟)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 구씨는 파주시에 총 5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 국씨(潭陽鞠氏)

국씨(鞠氏)는 중국 여남(汝南)에서 시작된 성씨이다. 담양 국씨(潭陽鞠氏)의 시조는 국양(鞠樑)이다. 송나라 출신인 그는 고려 인종(仁宗) 때 고려로 들어왔는데,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역임하고 담양에 정착하였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담양은, 본래 백제의 추자혜군(秋子兮郡)이었던 것을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추성군(秋城郡)으로 고쳤고, 후에 담양으로 개칭하였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通寶)』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의 문헌에 의하면 국씨의 본관)은 담양(潭陽)·영광(靈光)·복성(福城: 전남 보성지방)·진주(晋州)·대구(大邱)·부령(富寧) 등 6본(本)이 있는 것으로 전하나 담양을 제외한 본관은 미상이다.
역사인물로는 1369년(고려 공민왕 18) 부통사(副統使)로 도통사(都統使) 최영(崔瑩)의 막하에서 전공을 세워 병부상서(兵部尙書) 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에 올랐으나, 고려가 국운을 다하자 통한의 비분을 삼키며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죽음으로 절의를 지킨 유(儒), 조선에서은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역임한 성(珹), 사간원(司諫院) 헌납(獻納)을 지낸 황(煌), 1451년(문종 원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사간(司諫)에 올랐으나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후에는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면서 학문에만 진력(盡力)한 강직한 학자였던 경례(經禮), 조선중기의 학자로 명성을 날린 함(涵)과 침(沈) 형제, 성환찰방(成歡察訪)을 거쳐 적성현감(積城縣監)과 감찰(監察)을 지낸 민(旻),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오른 민중(敏中)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양 국씨는 파주시에 총 13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 권씨(安東權氏)

안동 권씨(安東權氏)의 시조는 권행(權幸)이다.
그의 성씨는 원래 김씨(金氏)였다. 927년 후백제 견훤이 신라에 침입하여 포석정(鮑石亭)에서 연회를 하던 경애왕(景哀王)을 죽게 하자, 이에 격분한 김행(金幸)은 견훤의 군사를 맞아 싸우고, 김선평(金宣平), 장길(張吉) 등과 함께 왕건을 도와 고려 창업에 공을 세웠다. 이어 왕건이 기뻐하며 이들에게 삼한벽상 아부공신 삼중대광태사(三韓壁上 亞父功臣 三重大匡太師)을 제수하였다. 한편 김행에게는 '능히 기미에 밝고 권도에 통달하다(能炳機達權)'하여 권씨(權氏)의 성(姓)을 내리고 고창군(古昌郡)을 안동부(安東府)로 승격하여 식읍(食邑)으로 하사(下賜)하니 안동 권씨(安東權氏)가 문호가 열렸다.
안동 권씨는 고려 창업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조선에 들어오면서 명문대가로 확실한 기초를 다졌고, 10세를 전후하여 15개파로 나누어졌다. 안동 권씨의 역사를 빛낸 두드러진 인맥을 살펴보면 단(문청공)이 충렬왕(忠烈王) 때 명신)으로 전리총랑(典理摠郞)을 지내며 3도를 다스려 폐단을 일소했고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로 시관(試官)을 겸임하며 권한공(權漢功)·최한지(崔漢之)·백이정(白頤正)등 인재를 천거하여 그의 선견지명이 후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그의 아들인 부(溥)는 주자학(朱子學) 발전의 선구적인 학자(學者)로 『사서집주(四書集註)』·『은대집(銀臺集)』·『효행집(孝行集)』등의 저서(著書)를 남긴 청백리(淸白吏)였다. 특히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인 자신을 비롯하여 아들 5형제 준(準), 종정(宗頂), 고(皐), 왕후(王煦), 겸(謙)과 3명의 사위 이제현(李齊賢), 왕숙, 왕순(王珣) 모두 봉군(封君)되어 '당대 9봉군(當代九封君)'으로 명성을 떨쳤다.
역사인물로는 원(元)나라 만권당(萬卷堂: 충선왕이 원나라 연경에 설립한 독서당)에서 문명(文名)을 떨쳤던 한공(漢功), 조선개국공신(朝鮮開國功臣)으로 태종 때 영의정(領議政)이 되어 여천백(呂泉伯)에 봉해진 중화(仲和), 대제학으로 평생 동안 세종의 문신정치(文臣政治)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정인지(鄭麟趾)·안지(安止) 등과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지어 바친 제(踶), 연산군 때 성현(成俔) 등과 함께 『역대명감(歷代明鑑)』을 지어 문명(文名)이 높았던 건(健),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幸州大捷)의 명장 율(慄), 광해군 때 척족(戚族)들의 방종을 궁류시(宮柳詩)로 비방했다가 발각되어 유배길에 올랐던 필(韠),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눈부신 활약 한 응수(應銖),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의병장을 모아 왜적과 대항하다 성(城)이 함락되자 우의정 김상용(金尙容)과 함께 자결한 순장(順長)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동 권씨는 파주시에 총 5,01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안동 권씨는 적성면 가월리에 입향하여 정착했는데 예전에는 30여호가 거주하였으나 지금은 12호가 살고 있다. 입향조는 10대조 권웅윤이며 입향조 묘는 가월리 버지미산에 있다. 권웅윤을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안동 권씨 추밀공파 후손들은 10대조 선조가 약 300여 년전 탄현면 낙하리로 들어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동 권씨 선조들의 묘역은 원래 월롱면 덕은리에 1만평 정도 있었으나 파주 LCD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수용되어 연천군에 땅을 새로 사서 종중묘역을 조성할 때 납골묘로 만들었다.
월롱면 덕은리를 비롯해 탄현면 낙하리에 13호 가량이 살고 있으며 적성면 가월리에 12호 가량이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3일 시제를 지낸다.

봉화 금씨(奉化琴氏)

금씨(琴氏)는 중국 위국(衛國)에 연원을 두는데, 주나라 경왕(景王) 때 공자의 제자인 금우(琴牢)의 후예로 전한다.

봉화 금씨(奉化琴氏)의 시조는 금씨(琴氏)의 시조는 고대 기자(箕子)가 들어올 때 함께 건너온 금응(琴應)이라고 전하지만, 고증할 문헌이 없다. 그리하여 그의 후손으로 고려 초에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에 올라 태사(太師)를 역임한 금용식(琴容式)을 시조(始祖)로 전하는 기록도 있다.

금씨의 본관은 봉화를 비롯하여 계양(桂陽: 김포의 별호)·안동(安東)·평해(平海)·봉산(鳳山)·문화(文化) 등 6본이 있는 것으로 전하나, 모두 봉화 금씨의 세거지명에 불과하다. 『정축보(丁丑譜, 1937년판)』까지 관적(貫籍)을 봉성(鳳城)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지명이 개칭됨에 따라 봉화로 통칭하고 있다.

봉화는 경상북도에 위치하는 지명으로 고구려 때 고사마현(古斯馬縣), 신라 때 옥마현(玉馬縣), 고려 때 봉성현(鳳城縣)이 되었다가, 1289년(충렬왕 15)에 지금의 명칭인 봉화현(奉花縣)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어사(御使)·중서사인(中書舍人)·수찬관(修撰官)을 역임하고, 1215년(고종 2) 금자광록대부금(金紫光祿大夫)로 벽상삼한공신(壁上三韓功臣)에 책록된 의(儀), 무신정권의 핵심인물로 권력을 남용하던 최우(崔禹)에게 죽음으로 항거했던 휘(暉), 세종 때 전라감사(全羅監司)를 거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오른 유(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전투에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으로 성주판관(星州判官)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은 난수(蘭秀), 당대의 석학 이황(李滉)의 문하(門下)에서 글을 배우고 조선 선조 때 서화가로 명성을 떨친 보(輔)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봉화 금씨는 파주시에 총 10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주 기씨(幸州奇氏)

기씨(奇氏)는 중국 하남(河南)에서 나온 성씨이다. 고대 기자조선(箕子朝鮮)에 연원을 둔다. 기자의 41세손 기준(箕準)에 이르러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기준(箕準)이 배를 타고 금마군(金馬郡: 지금의 익산군)으로 내려가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마한(馬韓)이라 개칭한 후 50여 소국(小國)을 통합하여 다스리며 한왕(韓王)이 되었다. 기준의 7세손 기훈(箕勳)은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우성(友誠)이 덕양(德陽: 행주) 기씨(奇氏), 우량(友諒)은 상당(上黨: 청주) 한씨(韓氏), 우평(友平)은 북원(北原: 평양) 선우씨(鮮于氏)가 되었다고 한다.

행주는 경기도 고양(高陽)의 옛 지명으로 본래 고구려의 개백현(皆伯縣)이었다. 이를 신라에서 우왕(遇王) 또는 왕봉(王逢)이라 하였고, 고려 초에 행주(幸州)로 개칭하여 성종(成宗) 때는 고봉(高峰)·덕양(德陽) 등으로 불리다 조선 때고양군(高陽郡)이 되었다.

우성(友誠)은 백제 온조왕조(溫祚王朝)에서 시중(侍中)을 지냈고 후손들이 백제와 신라를 거쳐 고려(高麗)에 이르도록 크게 번성하였다. 그러나 행주 기씨는 1688년(숙종 14) 『무진보(戊辰譜)』를 시작할 때 득성조(得姓祖) 이하의 계대(系代)를 알 수 없어 고려 인종조(仁宗朝)에 평장사(平章事)에 추증된 순우(純祐)을 일세조(一世祖)로 하였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따르면 기씨의 본관은 행주·개성(開城)·풍양(豊壤)·서원(西原)·단양(丹陽) 등 21본까지 있는 것으로 전하나, 모두가 행주 기씨의 세거지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인물로는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발탁되어 벼슬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이르렀으며 청렴으로 이름이 높았던 건(虔), 중종 때 조광조와 더불어 성리학에 의거한 이상정치를 실현 하려다가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사사된 준(遵), 광해군 때 영의정을 역임한 자헌(自獻), 정묘호란 때 선천부사(宣川府使)로 남한산성을 지키다가 순절한 협(協),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 토산(兎山) 전투에서 전사한 효일(孝一), 장성(長城)의 수록산(隨綠山)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의 침략에 항거한 삼연(參衍), 고종 때 김평묵(金平默) 등과 함께 유생을 이끌고 정부의 행정개혁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를 올려 '호남소수(湖南疏首)'로 일컬어진 우만(宇萬), 을사약이 체결되자 암살단을 조직하여 매국오대신(賣國五大臣)을 저격한 산도(山度), 민족주의자로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근섭(近燮)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주 기씨는 파주시에 80여 가구에 총 39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행주 기씨는 교하 송촌리 감골마을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행주 기씨가 감골마을에 들어 온 것은 15세기 이다. 입향조 기정지(奇廷芝, 1461년생)의 묘가 교하 다율리에 있으며 현재 송촌리에 행주 기씨가 40여 호 집성촌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해평 길씨(海平吉氏)

길씨(吉氏)는 중국 풍익(馮翊)에 연원을 두는 성씨다. 해평 길씨(海平吉氏)의 시조는 길당(吉瑭)이다.

당나라에서 귀화해 온 8학사(八學士)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고려 문종(文宗) 때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내고 해평백(海平伯)에 봉해져 우리나라 길씨의 시조가 되었다.

해평(海平)은 경상북도 선산군(善山君)에 있는 지명으로 파징(波澄)이라고도 불렸다. 신라 때 병정현(竝井縣), 고려 때 해평군(海平郡)으로 불리다가, 1415년(태종 15) 해평현(海平縣)으로 강등된 후 선산군 해평면(海平面)이 되었다.

길씨의 본관은 해평·개성(開城)·하음(河陰)·여주(驪州) 등 28본까지 있는 것으로 전하나 모두가 해평 길씨의 세거지명에 불과하고, 현존하는 관향은 해평(海平) 단본이라고 알려졌다. 길당(吉瑭)의 후손에서 1백여 년간 세계가 실전되어 고려 때의 성균진사(成均進士)인 길시우(吉時遇)를 일세조로 삼았다.

역사인물 가운데에서 특히 재(再)가 더욱 빛냈다. 고려가 기울기 시작한 1353년(공민왕 2) 태어난 그는 박분(朴賁)에게서 성리학을 배우고 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권근(權近)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여 도학(道學)을 밝혔다. 이후 그는 김숙자(金叔滋)에게 성리학을 가르쳐 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 등으로 하여금 학통을 잇게 하여 영남학파(嶺南學派)의 진수를 이루었으며, 『야은집(冶隱集)』을 비롯한 많은 저서를 남겼다.

이외의 인물로는 송당(松堂) 박영(朴英)의 문인으로 이름난 면지(勉之), 임진왜란 때 피난가는 대가(大駕) 앞에 길을 막고 엎드려 변방에 왜적의 염탐군이 있어 해침을 받을까 염려되오니 가마대신 말을 타시도록 진언했고 뒤에 원종일등공신(原從一等功臣)에 추록된 회(誨), 3·1운동의 주역이며, 안창호(安昌浩) 등과 함께 독립협회(獨立協會) 평양지부(平壤支部)를 조직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선주(善宙)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평 길씨는 파주시에 총 15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 김씨(江陵金氏)

강릉 김씨(江陵金氏)의 시조는 대보공(大輔公) 김알지(金閼智)의 21세손 김주원(金周元)이다. 사기(史記)에 의하면 그는 신라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김춘추(金春秋)의 6세손으로 서기 777년(신라 혜공왕 13) 이찬(伊飡)으로 시중(侍中)이 되었으며, 785년(선덕왕 6) 선덕왕(宣德王)이 죽고 그의 후사가 없어 군신들의 회의 끝에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갑자기 그때 큰 비가 내려 알천(閼川: 현재 경주 부근의 하천)의 물이 불어나 건널 수 없어 입궐을 못하게 되자 이는 하늘의 뜻이라 하며 즉위를 포기하였다 한다. 이에 내물왕(奈勿王)의 11세손 경신(敬信)이 왕(원성왕)으로 추대되었고 비가 그친 후 원성왕(元聖王)은 그에게 즉위를 권유하였으나 끝내 사양하고 강릉(江陵)으로 이거(移居)하였다.
원성왕은 그의 겸손함에 감복하여 명주군왕(溟洲郡王)으로 봉하고 명주(溟洲)·익령(翼嶺)·근을어(斤乙於) 등 다섯 군(郡)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후손들은 본관을 강릉(江陵)으로 하게 되었다.
강릉은 상고시대에 창해(滄海)와 임둔(臨屯)에 속했으며 서기 313년(고구려 미천왕 14)에 하서량(河西良) 또는 하슬라(何瑟羅)라 하였다. 서기 550년(신라 진흥왕11) 신라의 영토가 되어 639년(선덕여왕 8) 2월 소경(小京)으로 삼았다가 685년(태종무열왕5) 하서주(河西州)로 개편, 서기 776년(경덕왕 16) 다시 명주(溟州)로 개편하였으며, 936년(고려 태조 19)에는 동원경(東原京)이라 칭하고 임영관(臨瀛館)을 세웠다. 그 후 우계(羽谿)·연곡(連谷)의 두 현(縣)을 두었다가 1675년(조선 숙종1)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승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예종(睿宗) 때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상기(上琦), 인종(仁宗) 때 익성동덕공신(翊聖同德功臣)에 책록되고 학문과 문장에 뛰어났던 인존(仁存),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인 매월당(梅月堂) 시습(時習), 1561년(명종 16) 서장관(書狀官)으로 명(明)나라에 다녀왔으며 강릉부사(江陵府史)로 나갔다가 뒤에 예조판서(禮曹判書)에까지 이른 첨경(添慶),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으로 『중종실록』과 『인종실록』 편찬에 참여한 충렬(忠烈), 공조판서(工曹判書)와 좌참찬(左參贊)을 역임하고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에 오른 시혁(始奕), 이괄(李适)의 난 때 도원수 장만(張晩)의 종사관(從事官)으로 무훈을 세워 진무이등공신(振武二等功臣)으로 영해군(瀛海君)에 봉해진 기종(起宗), 영조 때 대사헌(大司憲)과 대사간(大司諫)을 거쳐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이른 상중(尙重), 영조 때 영의정에 올랐고, 우의정 때 편집청(篇集廳)을 두어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편찬케 한 상철(尙喆)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릉 김씨는 파주시에 총 2,28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강릉 김씨는 파평면 두포리 밤고지마을, 문산읍 내포1리 장포마을, 월롱면 능산리 등지에 후손들이 살고 있다.
파평면 두포리 밤고지 마을에는 강릉 김씨 한림공파가 15세기 후반부터 정착해 거주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30여호 이상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지만 현재 6가구만 거주하고 있다,
내포리, 능산리에 모여 살던 강릉 김씨 집성촌은 서영대학 설립 후 대부분 이주하여 현재 17호 정도 남아있다. 매년 음력 10월 셋째주 일요일 능산리 국사봉로 124번지에 있는 재실에서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능산리 국사봉로 124번지 등에 있다. 매년 음력 4월 20일 강릉에서 열리는 군왕제 제례에 참가하고 있다. 인터넷 족보 사이트는 www.kangkim.or.kr이며 문중의 종중정란 규약이 있다. 능산리에 임야 및 토지 14만 6천평을 문중이 소유하고 있으며 종친회

총무는 김승래 이다.
강릉 김씨 한림공파(병사공파)는 김덕승(1373~1448)을 파시조(派始祖) 로 하고 15대조 김언경(1443~1501)을 입향조(入鄕祖)로 한다. 15세기 무렵 파주로 입향 하였다.
주요 인물로는 김행(金行,1532~1588), 김윤남(金允南, 1361~?) 등이 있다. 매년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 문산읍 내포1리 장포영정각에서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파평면 두포리 산3번지이다. 문산읍 내포리 장포 김행 묘는 파주시향토문화유산 제24호로 지정되었다.

강화 김씨(江華金氏)

강화 김씨(江華金氏)는 동원(同源)인 경순왕(敬順王)의 후손이면서도 계통(系統)을 달리하는 3파가 있다.

첫째, 경순왕 김부(金傅)의 셋째 아들인 영분공(永芬公) 명종(鳴鐘)의 7세손 성(晟)이 고려 명종(鳴鐘) 때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내고 나라에 공(功)을 세워 하음(河陰: 강화의 옛 지명) 백(伯)에 봉해졌으므로, 그를 일세조(一世祖)로 하는 개성파(開城派)가 있다. 둘째, 영분공 명종(鳴鐘)의 18세손 광(光)이 조선 때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을 거쳐 병조참판에 올랐다가,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연루되어 화(禍)를 입고 평안남도 숙천(肅川)에 적거(謫居)하게 되자 후손들이 그를 일세조로 하여 숙천파(肅川派)의 계통을 이었다. 셋째, 광(光)의 증손(曾孫)으로 조선조에서 훈련원주부(訓鍊院主簿)를 지낸 송학(松鶴)을 일세조로 하는 의주파(義州派)이다.

강화(江華)는 경기도에 위치한 섬이다. 문헌에 의하면 아득한 옛날에는 갑비고차(甲比古次), 고구려 때에는 혈구군(穴口郡), 신라 때는 해구군(海口郡)으로 불렸다. 그 뒤 서기 940년(고려 태조 23) 현재의 지명인 강화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 개성파는 고려 때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지낸 장생(長生), 문하시중(門下侍中)과 찬성사(贊成事)를 지낸 원벽(元壁), 상장군(上將軍)을 지낸 성손(姓孫), 전라우도수군우후(全羅右道水軍虞候)를 지낸 인보(仁輔), 선전관(宣傳官)을 거쳐 감찰(監察)을 역임한 의보(義輔), 자인현감(慈仁縣監)을 지낸 예보(禮輔),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 지보(智輔) 등이 있다.

숙천파 인물로는 나라의 의식(儀式)을 맡아보던 통례원(通禮院)의 우통례(右通禮)를 지낸 도순(道淳),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낸 철손(哲遜), 부호군(副護軍) 구정(九鼎), 참의(參議)를 지낸 여전(汝銓)·인순(仁淳)·숭흘(崇屹) 등이 있다.

의주파 인물로는 연산군 때 무오사화(戊午士禍)로 화를 입은 계후(繼厚),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오른 봉원(鳳元)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화 김씨는 파주시에 총 1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 김씨(開城金氏)

개성 김씨(開城金氏)의 시조는 충의공(忠毅公) 김용주(金龍珠)이다.
그는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다섯째 아들 의성군(義城君) 김석(金錫)의 후손인데, 1035년(정종 1)에 출생하여 1054년(문종 8) 문과에 급제하고 누차 여진정벌(女眞征伐)에 공을 세워 추충공신(推忠功臣)에 책록되고, 개성부사(開城府使)와 평장사(平章事)를 거쳐 개성군(開城君)에 봉해졌다. 그러자 후손들이 의성 김씨(義城金氏)에서 분적하여 개성(開城)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개성은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려의 수도로 처음에는 송악(松岳)·송도(松都)·개경(開京)·부소갑(扶蘇岬)·동비홀(冬比忽)·촉막군(蜀莫郡) 등으로 불렸다. 919년(고려 태조 2) 1월 수도를 철원(鐵原)에서 이곳 송악산(松岳山) 남쪽으로 옮긴 후 개주(開州)라 불렀고, 960년(광종 11)에 황도(皇都)로 고쳤다가, 995년(성종 14) 개성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예종(睿宗) 때 여진란(女眞亂)을 평정한 공으로 병부(兵部)·예부(禮部)·이부(吏部)의 상서(尙書)를 지내고 평장사(平章事)에 오른 정신공(貞愼公) 준(晙),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을 지낸 지선(之宣), 상서(尙書)를 지낸 지경(之慶), 영의정에 증직된 문민공(文敏公) 남보(南寶), 좌찬성(左贊成)을 지낸 무(茂), 당대의 이름난 화가(畵家)로 상의원별제(尙衣院別提)에 이른 응환(應煥), 임진왜란 때, 스승인 조헌(趙憲)을 조헌을 따라 의병을 일으켜 금산에서 왜적과 분전하다가 장렬하게 순절한 충장공(忠壯公) 절(節), 대사간(大司諫)을 거쳐 승지(承旨)가 되었고, 3대에 걸쳐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영예를 추증받은 여량(汝亮)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성 김씨는 파주시에 총 23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김씨(慶州金氏)

경주 김씨(慶州金氏)는 대보공(大輔公) 김알지(金閼智)의 후예로 전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김알지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렇게 시작된 김씨(金氏)는 김알지의 7세손 미추(味鄒)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까지 38명의 왕을 배출하여 587년 동안 신라(新羅)를 지배해 오면서 왕족(王族)의 지위를 지켰으며 경주(慶州)를 비롯한 600여 관향으로 분적(分籍)되었다.
경주 김씨는 알지 계통의 김씨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혈족으로, 경순왕의 셋째 아들인 영분공(永芬公) 명종(鳴鐘)과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은열(殷說)을 일세조(一世祖)로 계대(系代)하는 계통(系統)이 대표적이다. 상계(上系)는 미상(未詳)이나 경순왕의 후예로 전하는 인관(仁琯: 태사공파), 순웅(順雄: 대장군공파)을 일세조(一世祖)로 하는 계통 등 크게 5파로 갈라져 후대로 내려오면서 10여 개의 지파(支派)가 생겨났다.
경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기원전 57년 이곳에 6촌(村)이 연합하여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국호(國號)를 서라벌(徐羅伐)·사로(斯盧)·사라(斯羅)라 하였다. 65년(탈해왕 9) 시림(始林)에서 김씨(金氏)의 시조 김알지가 탄생하여 국호(國號)를 계림(鷄林)으로 고쳐 삼았다가 307년(기림왕 10)에 신라(新羅)로 하였다. 935년(태조 18)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등극한 후 처음으로 경주(慶州)라는 명칭이 생겼다. 987년(성종6) 동경(東京)으로 개칭하고 1008년(목종11) 별칭(別稱)으로 낙랑군(樂浪郡)이라 하다가 충렬왕 때 계림부(鷄林府)로 개칭하였고, 1413년(태종 13)에 와서 경주부(慶州府)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때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내중령(內中令)을 지낸 예겸(禮謙), 고려 사학(私學) 12공도(公徒)의 하나인 양신공도(良愼公徒)를 육성한 의진(義珍), 무신의 난을 일으킨 정중부(鄭仲夫)와 이의방(李義方)을 제거하려 했던 영고(永固), 고종(高宗) 때 조충(趙沖)과 함께 강동성(江東城)에서 거란군 평정에 공을 세우고 벼슬이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에 이른 인경(仁鏡), 고종(高宗) 때 한림학사(翰林學士)를 거쳐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이른 태서(台瑞), 조광조(趙光祖)와 더불어 혁신정치를 시도하다가 기묘사화 때 서른여섯의 나이로 죽은 정(淨),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 전쟁에서 순절한 홍익(弘翼), 영조(英祖)의 사위(영조의 딸 화순옹주와 혼인)였던 한신(漢蓋), 학문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주장하고, 추사체(秋史體)를 대성시킨 정희(正喜), 고려 문종(文宗)과 의종(毅宗)까지 문무를 겸한 명신이었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지은 부식(富軾)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주 김씨는 파주시에 총 14,50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면 주월리 한배미마을은 경주 김씨 집성촌으로 현재 35호 정도가 살고 있다.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식현2리에 정착하여 살아온 사람들이다. 매년 11월 둘째주 토요일 시제를 지내며 선영은 적성면 답곡리이다. 주월리에 살고 있는 경주 김씨 후손들은 매년 음력 9월 9일 객현리에서 11대조에 제사를 지낸다. 종중 총무는 김정무이다. 객현리에 임야(?) 5천평 정도를 종중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파주에 살고 있는 경주 김씨 도사공파 입향조(入鄕祖)는 도사공 김인길(金仁吉)이며 조선 중기에 파주에 입향하였다. 계림군파 입향조(入鄕祖)는 계림군 김수근이며 16세기에 파주에 입향하였다. 이들 후손들은 적성면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리읍 등원리, 탄현면 축현1리 등지에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10일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도사공 입향조(入鄕祖) 묘는 적성면 객

현리 산 155 감악산에 있으며, 계림군 입향조(入鄕祖) 묘는 조리읍 등원리 옹록골에 있다.

고령 김씨(高靈金氏)

고령 김씨(高靈金氏)의 시조는 김남득(金南得)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본명이 기지(麒芝)로 1340년(고려 충혜왕 복위 1) 진사가 되어 감찰집의(監察執義)를 지내고 공민왕 때 양광도안렴사(楊廣道按廉使)를 거쳐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문하평리(門下評理)에 이르렀다. 그 후 사은사(謝恩使)로 원(元)나라에 가서 예부상서(禮部尙書)를 명(命)받고 환국하자 왕(王)이 익대공신(翊戴功臣)으로 고양부원군(高陽府院君)에 봉하고 '득어영남지의(得於嶺南之意)'라고 사명(賜名)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름을 남득(南得)으로 하였고, 후손들이 본관을 고령(高靈)으로 하게 되었다.
고령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대가야국(大伽倻國)의 중심지로서 562년(신라 진흥왕 23)에 신라에 병합되었다. 그 후 757년(경덕왕 16) 고양(高陽)으로 불리다 1018년(고려 현종 9)에 영천현(靈川縣)이 되었고, 조선 태종 때 고양(高陽)의 고(高)자와 영천(靈川)의 영(靈)자를 따서 고령(高靈)으로 칭하게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공양왕 때 간관(諫官)을 지낸 무(畝), 세종 때 여산(礪山)·홍산(鴻山) 등지의 부사(府使)를 역임한 사행(士行),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를 지낸 사문(士文), 승지(承旨)를 지낸 사충(士忠)은, 합천군수(陜川郡守)를 지낸 사신(士信), 고성군수(固城郡守)·진주목사(晋州牧使) 등을 역임한 후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오른 수(銖), 문과에 장원하여 하동(河東)·순천(順天)·수원(水原) 등지의 부사(府使)와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지낸 구(鉤), 1559년(명종 14)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수차에 걸친 호인(胡人)의 침략을 격퇴하다가 전사한 양촌(陽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거창(居昌)·고령 등지에서 의병을 규합하여 진주목사(晋州牧使) 김시민(金時敏)과 함께 격퇴시켜 그 공으로 합천군수(陜川郡守)가 된 문절공(文節公) 면(沔)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 김씨는 파주시에 총 6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 김씨(固城金氏)

고성 김씨(固城金氏)는 김수로왕(金首露王)과 함께 구지봉(龜旨峰)에서 세상에 나온 여섯 동자 중 막내인 김말로왕(金末露王)을 시조로 하고 있다.
고성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변한 시대에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고사포국(古史浦國)이었다가, 신라에 흡수되어 고자군(古自郡)으로 불렸고, 757년(경덕왕 16)에 고성군(固城郡)으로 바뀌었다. 고려 때 고주(固州)로 확장되었고 후에 철성부(鐵城府)로 승격되었다가, 1018년 현종 9) 고성현으로 강등되었다. 1896년 13도제 실시로 고성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충렬왕 때 문과에 급제하고 삼중대광(三重大匡)·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올라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로 고령백(固寧伯)에 봉해진 정렬공(貞烈公) 윤화(潤華)와 낙천군(洛川君) 수(隨), 1397년(태조 6) 왜구를 격퇴하는 데 공을 세워 삼도수군도절제사(三道水軍都節制使)가 되었으며, 이듬해 재침한 왜구를 멸악산(滅惡山: 황해도 평산군 신암면과 문무면의 경계에 있는 산)에서 대파하여 병조판서(兵曹判書)·정헌대부(正憲大夫)·검교정승(檢校政丞)에 오르고 뒤에 우의정에 추증된 빈길(贇吉), 1467년(세조 13) 이시애(李施愛)가 반란을 일으키자 좌대장 어유소(魚有沼)의 종사관(從事官)으로 공을 세워 함길도순무중군(咸吉道巡撫中軍)을 역임하고 가선대부에 오른 경현(慶賢), 이때 북청(北靑)에서 공을 세워 노성 현감(魯城縣監)을 지낸 후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추증된 세응(世應), 임진왜란 때 왜적을 대파하여 수문장(守門將)에 오른 사홍(仕弘),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국운(國運)을 한탄하며 오대산에 은거한 봉섭(鳳燮), 보통학교를 설립하여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다가 한일합방이 되자 격분함을 이기지 못해 죽은 중오(重五)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성 김씨는 파주시에 총 14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 김씨(公州金氏)

공주 김씨(公州金氏)의 시조는 김의손(金義孫)이다.
그는 경순왕의 후예 오산군(鰲山君) 김지대(金之岱: 청도 김씨의 시조)의 9세손이다. 세종 때 형조판서를 거쳐 돈녕부사(敦寧府事)에 오른 점(漸)의 둘째 아들로, 어려서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참판을 거쳐 공주백(公州伯)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그를 일세조로 하고 본관을 공주(公州)로 삼아 청도김씨(淸道金氏)에서 분적하였다.
의손의 아들 중 여의(麗義)·일동(逸東)·응동(應東)은 청도김씨를 계승하였고, 용(龍)은 공주파(公州派)로, 구(龜)는 평양파(平壤派) 또는 곽산파(郭山派)로 분파하였다.
백제의 옛 도성이었던 공주의 이름은 웅진(熊津)이었다가, 신라 신문왕(神文王) 때 웅천주(熊川州)로, 940년(고려 태조 23) 공주(公州)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1478년(성종 9) 서거정(徐居正)·최숙정(崔淑精) 등과 함께 『동문선(東文選)』 편찬에 참여한 학기(學起), 현감을 지낸 학익(學益),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역임한 태좌(台佐),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응참(應參)·응철(應哲) 등과 함께 창의하여 능한산성(綾漢山城)에서 장렬하게 순절한 천경(天慶), 1546년(명종 1) 문과에 급제하고 감찰(監察)과 군수(郡守)를 지낸 덕량(德良), 군자감(軍資監) 계로(繼老)를 지낸 부호군(副護軍) 언충(彦冲), 부총관(副摠管)을 지낸 덕택(德澤), 감찰(監察)을 지낸 변적(卞赤)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주 김씨는 파주시에 총 6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 김씨(光山金氏)

광산 김씨(光山金氏)의 시조는 김흥광(金興光)이다.
신라왕의 후예인 그는 장차 국난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경주를 떠나 광주(光州) 서일동(西一洞: 지금의 담양군 평장동)에 은거하였다고 한다. 고려 초기부터 명문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한 광산 김씨는 시조의 10세손 체의 아들 위(位)와 주영(珠永) 형제 대에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광세(光世)와 광존(光存)의 양대산맥으로 이어진다.
광산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곳으로 백제의 무진주(武珍州)였는데, 757년(경덕왕 16)에 무주(武州)로 이름을 고쳤다. 이후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다가, 1935년 광주(光州)가 부(府)로 승격됨에 따라 광산군(光山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중랑장(中郎將)을 지내고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추증된 광세(光世), 대장군(大將軍)에 오른 경량(鏡亮), 삼별초의 난 때 순절한 수(須), 충렬왕 때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를 역임한 주정(周鼎), 세조 때 『동국여지승람(東國與之勝覽)』을 편찬한 성원(性源), 대제학(大提學)에 오른 진(稹), 고려 말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충청도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를 지낸 약채(若采), 성종 때 좌의정(左議政)이 되고 좌리일등공신(左理一等功臣)으로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에 봉해진 국광(國光), 성종 때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좌리삼등공신(佐理三等功臣)으로 광성군(光城君)에 봉해진 겸광(謙光), 선조 때 대사헌(大司憲)을 역임한 계휘(繼輝), 송익필(宋翼弼)에게 예학을 배우고 이율곡(李栗谷)에게 성리학을 전수받아 영남학파와 쌍벽을 이룬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영수가 된 사계(沙溪) 장생(長生), 대제학을 역임한 만기(萬基), 대제학을 지냈고 한글소설 『구운몽(九雲夢)』을 쓴 만중(萬重), 영의정을 역임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전임된 상복(相福), 한말에 금위대장(禁衛大將)을 역임한 기석(箕錫)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산 김씨는 파주시에 총 7,35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광산 김씨 공안공파는 고양시 일산에서 시제를 지낸다.

광주 김씨(廣州金氏)

광주 김씨(廣州金氏)의 시조는 김녹광(金綠光)이다.
경순왕의 다섯째 아들인 의성군(義城君) 석(錫)의 7세손인 그는, 1236년(고려 고종 23) 몽고군이 침입해 왔을 때 상장군(上將軍)으로 출정하여 이를 격퇴시켜 광주군(廣州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광주(廣州)를 본관으로 삼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광주는 마한의 일부였다. 371년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은 이곳을 한성(漢城)이라 불렀다. 553년 신라의 한산주(漢山州)가 되었다가 756년(경덕왕 15) 한주(漢州), 940년(고려 태조 23)에 지금의 광주(廣州)가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감찰어사(監察御使)를 지낸 굉(閎), 권신(權臣) 임연(林衍) 일당의 역모를 저지하고, 이듬해 금주(金州: 지금의 김해) 방어사(防禦使)로 나가 삼별초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으며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이른 훤(晅), 안동부사(安東府使)를 지낸 남물(南物), 충숙왕 때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역임한 개물(開物), 조선시대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역임한 차문(次文), 경연관의 참찬관(參贊官)을 거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추증된 차문(次武), 영의정에 추증된 희증(希曾),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울산군수(蔚山郡守)로서 역전의 무공을 세웠고 난이 평정된 후 선무1등 공신으로 도총관(都摠管)·호위대장을 거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오른 명장 태허(太虛),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동래성(東萊城) 전투에서 부사(府使) 송상현(宋象賢)과 함께 장렬하게 순절하여 어모장군(禦侮將軍)·훈련원정(訓鍊院正)에 추증된 기(琦), 한말의 항일 투사 진성(振聲)·석창(錫昌)·상윤(相潤)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김씨는 파주시에 총 20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하 김씨(交河金氏)

교하 김씨(交河金氏)의 시조는 김맹정(金孟貞)이다.
고려 때 장군인 그는 경순왕의 둘째 아들 김굉(金鍠)의 8세손이다. 135년(인종 13) 묘청(妙淸)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교하군(交河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일세조로 하고 교하(交河)를 본관으로 삼아 나주 김씨에서 분적하였다.
교하는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에 속한 지역인데, 고구려 때에는 천정구현(泉井口縣)·굴화(屈火)·어을매관현(於乙買串縣)이라 했고,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교하로 개칭되었다.
교하 김씨는 전객령(典客令) 득성(得成)의 아들 전(田)·삼(三)·어도(御道) 3형제의 후대(後代)에서 크게 번성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상장군(上將軍)을 지낸 전(田), 전공판서(典工判書)를 지낸 승귀(承貴),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오른 용례(庸禮), 판관(判官)을 역임한 실로(實老), 인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성구(成九, 후에 다른 일파의 파조가 됨), 숙종)때 등과하여 현감(縣監)을 지낸 희신(喜臣),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른 억남(億南), 과 충청도관찰부주사(忠淸道觀察府主事)를 지낸 윤구(尹九)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하 김씨는 파주시에 총 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릉 김씨(金陵金氏)

금릉 김씨(金陵金氏)의 시조는 김무득(金無得)이다.
그는 가락국(駕洛國)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仇衡王)의 셋째 아들이다. 『사기(史記)』에 의하면 562년(신라 진흥왕 23) 대가야가 신라와 병합되고 진흥왕(振興王)이 가락국에 금관소경(金官小京)을 설치하여 시조(始祖)인 무득(武得)에게 시랑(侍郞) 겸 총관(摠管)을 제수하고 금릉군(金陵君)에 봉했으므로 그의 아들 창현(昌玄)이 본관(本貫)을 금릉(金陵)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의 세계가 실전되어 후손들은 고려 고종(高宗) 때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수사공(守司空)·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서경유수(西京留守) 등을 지내고 나라에 공(功)을 세워 태자태사(太子太師)에 오르고, 금릉군(金陵君)에 봉해진 김중구(金仲龜)를 일세조로 삼았다.
금릉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삼한시대의 감문소국(甘文小國)이었다. 660년(신라 무열왕 7)에 와서 감문군(甘文郡)으로 불렸고, 757년(경덕왕 16) 개령군(開寧郡)으로 개칭되었다가 1914년 조선 총독부령에 의하여 금천군(金泉郡)으로 바뀌었다. 1949년 금릉읍이 시(市)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의 금릉(金陵)으로 고쳐졌다.
역사인물로는, 고려시대 보문각제학(寶文閣提學)을 지낸 위(褘), 태자첨사(太子詹事)에 오른 효탁(孝鐸), 좌복야(左僕射)를 역임한 관(琯), 조선시대 양주목사(楊州牧使)를 지낸 광귀(光貴), 중종반정(中宗反正)에 공을 세워 정국원종이등공신(靖國原從二等功臣)에 책록되고 덕산현감(德山縣監)을 지낸 각(珏),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인(門人)으로 학문이 뛰어나 『훈몽서지행방편(訓蒙書知行方編)』을 저술한 장(樟)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릉 김씨는 파주시에 총 1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 김씨(錦山金氏)

금산 김씨(錦山金氏)의 시조는 김신(金侁)이다.
그는 경순왕의 후손으로 사복시부정(司僕寺副正)을 지낸 정보(正寶)의 13세손인데, 요양성참정(遼陽省參政)을 지낸 후 귀국하여 금주군(錦州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그를 일세조로 하고 본관을 금산(錦山)으로 하여 경주 김씨에서 분적하였다.
충청도에 있는 금산(錦山)은 백제 시대에 진내(進乃)·진내을(進乃乙)이라 부르다가 757년(신라 경덕왕 16) 진례(進禮)로 하였다. 983년(고려 성종 2)에는 금계(禁溪), 충렬왕 때 금주(錦州)로 불렸으며, 1413년(태종 13)에 지금의 금산(錦山)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부원수(副元帥)를 지낸 세유(世宥), 호조전서(戶曹典書)를 역임한 광유(光宥), 1370년(공민왕 19) 문과에 급제하고 한림원학사(翰林院學士)를 거쳐 사의대부(司義大夫)·좌사간(左司諫)을 지낸 지(摯), 선조 때 문과 급제하여 은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과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낸 희옹(希雍), 광해군(光海君) 때 등과하여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역임한 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곡성(谷城)에서 의병장이 되어 아들 남식(南植)·남억(南億) 형제와 함께 눈부신 활약을 펼친 감(鑑), 병조참판을 지낸 언장(彦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낸 언태(彦兌), 좌승지(左承旨)를 지낸 언익(彦翊)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산 김씨는 파주시에 총 9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녕 김씨(金寧金氏)

김녕 김씨(金寧金氏)의 시조(始祖)는 김시흥(金時興)이다.
그는 경순왕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9세손으로, 의성(義城)에서 출생하였다. 고려 인종 때 묘청의 난을 평정하여 금주군(金州君)에 봉해졌고, 명종 때 조위총(趙位)의 난을 평정하여 상락군(上洛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관향을 김녕(金寧)으로 하였다. 고려 말에 지명이 김해(金海)로 개칭되자 김해로 본관을 고쳤다. 그러나 수로왕(首露王) 계통의 김해김씨(金海金氏)와 혼돈되므로 1865년(고종 2) 왕명에 의하여 본관을 김녕(金寧)으로 확정하였다.
김녕은 경상남도 김해(金海)의 옛 지명이다. 고려 초기 김해부(金海府)로 고쳐 임해(臨海)·금주(金州) 등으로 불렸고, 후에 금주목(金州牧)·김해부(金海府)로 개칭되었다. 이후 1895년(고종 32)에 군(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때 안렴사(按廉使)를 거쳐 형부시랑(刑部侍郞)을 지내고 이부상서(吏部尙書)에 증직된 중원(重源), 공양왕 때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낸 광저(光儲), 고려 때 호조판서를 역임한 순(順),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에 임명되어 『태종실록(太宗實錄)』을 편찬했으며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이조판서(吏曹判書)로 내외종간(內外從間)인 박팽년(朴彭年) 등과 더물어 단종(端宗)의 복위를 도모했다가 1456년(세조 2) 6월 8일 사육신(死六臣)과 함께 순절한 문기(文起), 영월군수(寧越郡守)를 역임한 현석(玄錫), 천문(天文)·지리(地理)와 실학(實學)에 능통한 인물로 단종(端宗)이 죽임을 당하자 3년간 복상을 한 후 벼슬을 버리고 전남(全南) 고흥(高興)으로 내려가 학문(學問)에만 전념한 준(遵), 형제들과 더불어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우고 호성공신(扈聖功臣)에 오른 응수(應壽), 권율의 영천(永川) 전투와 이순신 장군의 노량대첩(露梁大捷)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명성을 떨친 언공(彦恭), 노모를 등에 업고 팔공산(八公山) 전투에서 공을 세운 유부(有富)와 그의 아들 기남(起南)·난생(蘭生) 형제, 효행으로 정표(旌表)를 받은 진행(鎭行)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녕 김씨는 파주시에 총 1,20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 김씨(金堤金氏)

김제 김씨(金堤金氏)의 시조는 김천서(金天瑞)이다.
그는 경순왕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12세 손이다. 고려 때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내고 월성부원군(月城府院君)에 봉해진 그가 김제(金堤)에 정착한 것이 시초가 된다. 한편, 그의 7세손 정걸(正傑)이 이조판서를 지내고 이성계를 도와 조선개국에 공을 세워 개국삼등공신(開國三等功臣)에 책록되었고, 태종이 즉위하자 김제군(金堤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정걸(正傑)을 일세조로 하고 관향을 김제로 하게 되었다.
김제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고장으로 본래 백제 시대에는 벽골(碧骨)로 불렸고, 통일신라 때 김제가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1405년(태종 5) 문과에 급제하고 예천군수(醴泉郡守)와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을 거쳐 예문관직제학(藝文館直提學)에 오른 희준(熙俊), 구례현감(求禮縣監)을 지낸 순의(順義), 통덕랑(通德郎)에 이른 순례(順禮), 세종 때 여산부사(礪山府使)를 지낸 세효(世孝), 성종 때 영광군수(靈光郡守)를 지낸 세광(世光), 병자호란때 대가(大駕: 임금이 타는 수레)를 모시고 따라가 원종일등공신(原從一等功臣)에 책록된 극혜(克諿), 철종 때 통정대부(通政大夫)와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거쳐 비서승(秘書承)에 오른 연태(然泰), 고금도수군절제사(古今島水軍節制使)를 지낸 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른 희영(熹永), 길주목사(吉牧州使)에 오른 신걸(神傑)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제 김씨는 파주시에 총 2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 김씨(金海金氏)

김해 김씨(金海金氏)의 시조는 김수로왕(金首露王)이다. 김해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고장으로 고대 금관가야(金官伽倻)의 중심지였다. 이후 신라에 병합되어 금관군(金官郡)·금관소경(金官小京)이라 불렸다.

『삼국유사(三國遺事)』와 『가락국기(駕洛國記)』에 따르면, 42년 3월 가락국의 아홉 촌장이 구지봉(龜旨蜂) 산정에 모여 나라를 통솔한 군장(君長)을 얻기 위해 하늘을 향해 의식을 올리자 한줄기 붉은 빛이 내려와 함께 달려가 보니 금합(金盒)에 여섯 개의 알(卵)이 담겨 있었다. 이튿날 알 속에서 여섯 동자(童子)가 나왔는데 그 중 맨 먼저 나온 동자를 수로(首露)라고 이름짓고 금합(金盒)에서 태어났다 하여 성(姓)을 김씨(金氏)로 하였다고 한다. 군왕이 된 수로왕(首露王)은 나라 이름을 대가락(大駕洛)으로 정하고 김천축(金天竺: 고대 인도의 행정지역)에서 바다를 건너온 허(許) 여인을 왕비로 맞아 10명의 왕자와 2명의 공주를 두었다.

그 후 10대 구형왕(仇衡王)이 532년(법흥왕19) 신라에 항복하고 상등(上等)의 작위(爵位)와 가락(駕洛)을 식읍(食邑)으로 하사(下賜) 받았으며 그의 아들 무력(武力)이 각간(角干)을 역임했다. 구형왕의 증손(曾孫) 유신(庾信)은 신라 무열왕(武烈王)과 함께 삼국통일(三國統一)의 대업(大業)을 달성(達成)한 명장(名將)으로 무열왕의 의 딸 지소부인(智炤夫人)과 혼인하여 김해김씨(金海金氏)의 세계(世系)를 이루었다.

김해 김씨는 중시조(中始祖) 유신(庾信)의 후대에서 가세가 크게 번창해, 148여 개 파(派)로 분파되었다. 그중에서 경파(京派)와 사군파(四君派), 삼현파(三賢派), 문경공파(文敬公派)의 후손들이 가장 많다.

각 파별 역사인물로, 경파에서는는 충정왕 때 조적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김녕군(金寧君)에 봉해진 목경(牧卿), 공민왕이 세자로 연행(燕行)할 때 시종한 공으로 일등공신(一等功臣)의 호(號)를 받은 보(普), 숙종 때 우의정에 오른 우항(宇杭) 등이 있다.

사군파에서는 고려말에 예의판서(禮儀判書)를 거쳐 대제학(大提學)에 오른 진문(振門), 도총관(都摠管)을 지낸 추(錘), 찬성사(贊成事)를 지낸 석(錫), 명사수로 이순신 장군의 막하에서 전공을 세우고 한산도 싸움에서 전사한 극희(克禧), 임진왜란의 남원대첩(南原大捷) 때 공을 세우고, 이괄의 난 때도 창성방어사(昌城防禦使)로 길마재 결전에서 공을 세우고 진무3등공신(振武三等功臣)에 올라 학성군(鶴城君)에 봉해진 완(完),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는 소현세자(昭顯世子)와 인평대군(麟坪大君)을 호종한 여준(汝峻) 등이 있다.

삼현파(판도판서공파)에서는 고려에서 판도판서(判圖判書)를 역임하고 학교를 건설하여 유학(儒學)을 진행시키는 등 나라에 많은 공을 세운 관(管), 세종 때 문과에 올라 집의(執義)를 지낸 맹(孟), 1486년(중종 17)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고, 당대의 거유(巨儒) 점필재 김종직의 문하에서 글을 읽고 한훤당 김굉필(金宏弼), 일두 정여창(鄭汝昌) 등과 친교를 맺었으며 춘추관(春秋館)의 사관(史官)으로 있었던 탁영 일손(馹孫), 시(詩)와 글씨에 뛰어났으며 특히 송설체(松雪體)에 능했던 언유(彦諭) 등이 있다.

그 밖에 심하(深河)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경서(景瑞), 『운서(韻書)』를 깊이 연구하여 중국어에 능통했던 덕승(德承),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를 지낸 예직(禮直), 조선 풍속화(風俗畵)의 조종(祖宗) 홍도(弘道), <해동가요(海東歌謠)>를 남기고 『청구영언(靑丘永言)』을 편찬한 천택(天澤)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해 김씨는 파주시에 총 33,785명이 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해 김씨 안경공파는 12대조인 안경공 김수승(金壽承)이 입향조(入鄕祖)이며 조선 중기에 파주에 입향하였다. 후손들은 금촌과 당하동 등지에 살고 있으며 선영은 당하동에 있다.
김해 김씨 석송공파는 12대조인 석성공 김희민이 입향조(入鄕祖)이며 조선 중기에 파주에 입향하였다. 후손들은 8대조까지 가월리에서 살았으며 매년 10월 10일 무렵 적성 가월리에서 시제를 지낸다.

나주 김씨(羅州金氏)

나주 김씨(羅州金氏)의 시조는 김운발(金雲發)이다.
그는 경순왕의 둘째아들인 김굉(金鍠)의 맏아들이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굉(鍠)은 신라가 망하자 가야산(伽倻産) 해인사(海印寺)로 들어가 법명을 범공(梵空)으로 하여 불가로 귀의하였는데, 그가 입산하기 전에 고려조에서 두 아들을 예우하여 큰아들 운발(雲發)은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나주군(羅州君)에 봉하고, 작은아들 우발(雨發)은 경주군(慶州君)에 봉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운발(雲發)을 시조(始祖)로 하고 나주(羅州)를 본관(本貫)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오면서 누대에 걸쳐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여 명문(名門)의 긍지를 심었다.
나주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백제 때 발라(發羅)라고 불렸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는 금산(錦山)으로 고쳤으며,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여기를 점령하고 나주(羅州)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고려에서 시중(侍中)을 지낸 중륜(重輪), 원윤(元尹)을 지낸 인륜(仁輪), 예의판서(禮儀判書)를 역임한 원상(源相), 보문각(寶文閣)의 정2품 벼슬인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광(光), 벼슬이 대제학(大提學)에 이르렀으며 문장(文章)이 뛰어나 『동문선(東文選)』에 그의 시(詩)가 오른 대경(臺卿), 조선에서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낸 규(珪), 형조참의(刑曹參議)를 지낸 경근(敬近), 명종 때 호남지방에서 방어사(防禦使)로 왜구를 격퇴한 경석(景錫),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책록되고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올랐으나 정유재란 때 장렬하게 순절한 충수(忠秀)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 김씨는 파주시에 총 42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안 김씨(樂安金氏)

낙안 김씨(樂安金氏)의 시조는 김수징(金粹澄)이다.
그는 신라 경순왕의 셋째 아들 영분공(永芬公) 김명종(金鳴鍾)의 후손인데, 고려 명종 때 감무(監務)로 있으면서 국난을 평정한 공을 인정받아 낙안군(樂安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그를 시조로 하고 낙안(樂安)을 본관으로 삼아 경주 김씨에서 분적하였다.
낙안은 전라남도에 위친한 곳으로 백제 때에는 분차(分嵯)·분사(分沙), 신라 때에는 분령(分嶺)이라 불리다가, 고려 때 낙안(樂安)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고려에서는 명종과 신종(神宗) 두 임금에 걸쳐 벼슬을 하여 금오위대장군(金吾衛大將軍) 등을 거쳐 좌승상(左承相)에 이른 광습(光襲),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역임한 윤견(允堅), 충렬왕 때 문하평리(門下評理)를 지내고 익대공신(翊戴功臣)에 책록되어 낙안군(樂安君)에 봉해진 지겸(之謙), 충목왕) 때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지내고 대제학(大提學)에 오른 남정(南正), 예문관(藝文館) 제학(提學)을 역임한 규(糾), 는 강릉존무사(江陵存撫事)를 거쳐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올라 낙천군(洛川君)에 봉해진 수(隨) 등이 있다.
조선에서는 조선이 개국한 후 좌복야(左僕射)로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 조선 태조가 건국 후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임시기구)에 임명되어 종묘(宗廟), 궁궐(宮闕) 신축(新築)에 공이 컸으며, 1397년(태조 6)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에 이른 주(湊), 태종 때 보문각(補文閣)의 직제학(直提學)을 지낸 인관(仁琯), 전라수군절제사(全羅水軍節制使)를 지낸 빈길(贇吉), 성종 때의 공조참판을 지낸 정익(廷益), 이천부사(利川府使)를 거쳐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오른 은창(殷昌)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안 김씨는 파주시에 총 3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 김씨(南陽金氏)

남양 김씨(南陽金氏)의 시조는 김적(金頔)이다.
그는 가락국 김수로왕의 후예로 고려 의종(毅宗) 때 사람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나라에 변란이 있음을 알고 가족과 함께 남양(南陽)의 산곡(山谷)에 이거하여 살았다고 한다. 그 후 상계가 실전되어 정확한 계대를 알 수 없자, 후손들은 태조(太祖)를 도와 조선개국에 공을 세워 남양백(南陽伯)에 봉해진 김약해(金躍海)를 일세조로 하고 남양(南陽)을 본관으로 하였다.
약해(躍海)의 아들 계(桂)는 성종 때 성균진사(成均進士)가 되었으나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평안도 정주(定州) 땅에 유배되어 후손들이 그곳에서 정착세거하게 되었다.
남양은 지금의 수원시와 화성군 일원을 포함한 지역의 옛 지명이다. 고구려 때 당성(唐城), 신라 때 당은(唐恩), 고려 초에 다시 당성(唐城)으로 불렀으며, 1310년(충선왕 2)에 남양(南陽)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소위장군(昭威將軍: 정4품 무관)에 오른 장유(長孺), 전적(典籍)을 역임한 종례(從禮), 선략장군을 지낸 계정(繼貞), 이조판서를 지낸 수연(秀淵), 어모장군(禦侮將軍)을 지낸 승업(承業),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낸 철원(哲元), 중추부사(中樞府事)를 지낸 성곤(聖坤)·진택(振澤)·정징(正徵)·종일(宗一)·태서(兌西) 오위장(五衛將)을 역임한 회직(懷稷)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 김씨는 파주시에 총 2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악 김씨(堂岳金氏)

당악 김씨(堂岳金氏)의 시조는 김인(金忍)이다.
경순왕의 셋째 아들 명종(鳴鍾)의 19세손인 그는,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副摠管)을 지내고 태종 때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전라도의 수영(水營)이 무안현 대굴포(務安縣大掘浦: 현 함평군 학고면 대곡리)에 있을 때 좌막(佐幕)으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20리쯤 올라온 나주시 마산면(馬山面) 귀업리(龜業里: 현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귀업마을)에 터를 잡아 세거지를 마련했다 한다.
그의 증조할아버지 김남보(金南寶)가 고려 말에 병부상서를 지내고 조선 개국 후 해남(海南)으로 은거하였기 때문에 본관은 당악(棠岳)이 되었다.
당악 김씨는 수군계(水軍系) 집안으로 큰 인물은 내지 못했다. 외손인 박순(朴淳)이 정승 자리에 14년간 있으면서 전남 선비들의 정계 진출에 크게 공헌했는데도 당악 김씨만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시조 인의 손자 종(琮)이 정언(正言)을 지냈는데, 사암(思菴) 박순의 외할아버지이다.
한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당악 김씨의 세거지인 귀업은 쑥밭이 되고 많은 인명 피해를 당했으며 원경(元慶)의 아들 준(浚)은 일본까지 끌려갔다. 이후 23년 만에 돌아와서 다섯 아들을 두어 이 집안의 중심을 이루었다고 한다. 원록(元祿)의 손자 만영(萬英)은 학문이 높아 남평(南平)의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지내고 죽은 후에 풍산사(楓山祠)에 제향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악 김씨는 파주시에 총 5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김씨(大邱金氏)

대구 김씨(大邱金氏)의 시조 김달(金達)이다.
경순왕의 후손 김방경(金方慶)의 넷째 아들인 김론(金惀)의 증손자인 그는, 그는 조선에서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지내고 대구 도화촌(道化村)에 거주하였으나,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함경도 길주(吉州)로 유배되었다. 그때 후손들이 따라가 그곳에 정착세거 하면서 전 세거지였던 대구(大邱)를 관향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후 길주명천파(吉州明川派)·서포파(西浦派)·광화파(光化派)·황주파(黃州派)·고령삭파(古寧朔派)·종성파(鍾城派) 등 크게 여섯 파로 나뉘었다.
대구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 때 달구화현(達丘火縣)·달불성(達弗城)으로 불리다가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대구(大丘)로 개칭되었다. 1750년(영조 26) 대구의 유생 이양채(李亮采)가 대성 공자의 휘(諱)가 구(丘)자라 하여 대구(大丘)가 대구(大邱)로 개칭해달라는 상소를 올렸으나, 왕의 윤허를 얻지 못했다가 정조 때부터 점차 쓰였다고 한다.
역사인물로는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에 책록된 태암(泰巖), 군수(郡守)를 지낸 득일(得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영홍(永弘), 병조참판을 지낸 취규(就奎), 어모장군(禦侮將軍)에 오른 연석(連碩), 중추부사(中樞府事)를 지낸 수택(壽澤),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른 화룡(化龍), 선략장군(宣略將軍)에 이른 진흥(振興), 부호군(副護軍)에 오른 의묵(宜默)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김씨는 파주시에 총 3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수 김씨(德水金氏)

덕수 김씨(德水金氏)는 해풍 김씨(海豊金氏)와 뿌리가 같은데, 시조는 김숭선(金崇善)이다.
그가 고려 때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올라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역임하고 해풍부원군(海豊府院君)에 봉해졌으므로 관향을 덕수(德水)로 하게 되었다. 후손들은 풍덕(豊德)에 세거하면서 조선)에서 병절교위(秉節校尉)에 오른 수연(壽延)을 일세조로 하였다. 이후 수연(壽延)의 아들 세형(世亨)과 세창(世昌)의 형제대(兄弟代)에서 가문(家門)이 크게 중흥하였다.
덕수는 경기도 개풍군(開豊郡)에 속해 있던 옛 지명으로, 고구려 때 덕물현(德勿縣)·인물현(仁物縣)으로 불리다가 통일신라 때 덕수현(德水縣)으로 개칭되고, 조선 세종 때 해풍군(海豊郡)과 합하여 풍덕부(豊德府)로 승격되었으며, 나중에 개성군(開城郡)의 개(開)자와 풍덕(豊德)의 풍(豊)자를 따라 개풍군(開豊郡)으로 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과 배천군수(白川郡守)를 지낸 희성(希聖), 전직을 역임한 춘(春), 직강을 역임한 추(秋), 효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낸 두익(斗翼), 수찬(修撰)과 호조참의를 역임한 광악(光岳)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덕수 김씨는 파주시에 총 15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강 김씨(道康金氏)

도강 김씨(道康金氏)의 시조는 김희조(金希祖)이다.
그는 경순왕의 후예로 고려 말에 문하시중(門下侍中)과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지낸 후 도성부원군(道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관향을 도강(道康)으로 삼았다. 그러나 소목(昭穆: 종묘나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을 정확하게 따져볼 수 없자, 사온서직장(司醞署直長) 원경(原卿)을 파조(派祖)로 하는 태인사정공파(泰仁司正公派), 사재감정(司宰監正) 을경(乙卿)을 파조로 하는 강진시직공파(康津侍直公派), 전공조사(典工曹事) 일(鎰)을 파조로 하는 강진조사공파(康津曹事公派), 팔도병사(八道兵使) 을상(乙祥)을 파조로 하는 인천병사공파(仁川兵使公派) 등 네 개 파로 나뉘어 대를 잇고 있다.
도강은 전라남도 강진(康津)의 옛 지명으로, 백제 때 도무(道武)라 불렸고, 신라 경덕왕 때 양무군(陽武郡)으로 하였다가, 고려에 와서 도강(道康)으로 고쳤다.
역사인물로는 조선의 개국일등공신(開國一等功臣) 회련(懷鍊), 연산군 때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지낸 남우(南佑), 1467년(세조 13) 이시애(李施愛)의 난(亂)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적개원종공신(敵愾原從功臣)이 된 서열(瑞說), 명종) 때 청백리에 오른 약묵(若默), 임진왜란 때 장성(長城)에서 의병을 일으켜 군량 보급에 앞장선 후진(後進),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사예(司藝)·이조참의(吏曹參議)·과천현감(果川縣監)을 거친 중우(重羽), 충청도병마우후(忠淸道兵馬虞候)를 지낸 지백(知白),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로서 평정에 공 세워 분무원종일등공신(奮武原從一等功臣)이 된 도언(道彦), 한말 한일합방이 되자 독립을 역설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군산(群山) 감옥에서 9일 단식 끝에 순절한 영상(永相), 한일합방이 되자 나라의 운명을 개탄하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다가 우물에 투신자결한 천술(天述)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강 김씨는 파주시에 총 24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장 김씨(茂長金氏)

무장 김씨(茂長金氏)의 시조는 김자무(金自武)이다.
사육신 박팽년(朴彭年)의 사위였던 그는, 1442년(세종 24)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단종조에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지내다가, 1456년(세조 1) 사육신이 화를 입을 때 연루되어 황해도 장연(長淵)에 은거하며 본관을 무장(茂長)으로 고쳤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관향을 무장으로 삼아 세계를 계승하여 왔다.
자무(自武)의 증손(曾孫) 유광(有光)이 아들 홍간(弘幹)·삼간(三幹: 선촌파)·직간(直幹: 서파)·윤간(允幹: 남파)·구간(球幹: 초동파) 5형제를 두었는데, 이들 다섯 파의 자손(子孫)으로 만명 김씨((萬名金氏)라 불렸다.
무장은 전라북도 고창군에 속해 있는 지명이다. 본래 백제 송미지현(松彌知縣)이었다가 조선에 와서 무장현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통헌대부(通憲大夫)에 오른 섭(涉), 성균진사(成均進士)를 지낸 옥석(玉石), 훈련원주부를 지낸 유광(有光),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의경(義慶), 성균진사를 지낸 예경(禮慶)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장 김씨는 파주시에 총 3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 김씨(茂朱金氏)

무주 김씨(茂朱金氏)의 시조는 김성(金晟)이다.
그는 김알지의 43세손으로, 공민왕(恭愍王)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조선이 개국 후 대제학(大提學)에 올라 무주백(茂朱伯)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관향을 무주(茂朱)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무주는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이다. 신라 때의 무산현(茂山縣)과 고려 때의 주계현(朱溪縣)이 합해진 지명이다.
역사인물로는 태종 때 문과에 급제한 후 형조참의(刑曹參議)·판결사(判決事)를 거쳐 부제학(副提學)에 오른 생려(生麗), 세종 때 등과(登科)하여 좌부승지(左副承旨)·예조참의·대제학에 이른 규(葵), 문종(文宗)으로부터 어린 단종의 뒷일을 부탁하는 '탁고지명(託孤之命)'을 받고, 후일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병자사건(丙子事件: 1456년 사육신이 화를 입은 사건)에 연루되어 아우 한지(漢之), 아들 유인(有仁)과 함께 화를 입은 선지(善之), 이조좌랑(吏曹佐郎)을 지낸 기종(起宗), 충청도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에 오른 숙(淑)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주 김씨는 파주시에 총 1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 김씨(密陽金氏)

밀양 김씨(密陽金氏)의 시조는 김승조(金承祖)이다.
그는 경순왕(敬順王)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12세손이며, 상장군(上將軍) 신우(信佑)의 맏아들이었다. 삼별초(三別抄)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우고 밀성군(密城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밀양을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
밀양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변한의 일부로 가락국(駕洛國)에 속하였으며, 법흥왕 때 신라에 병합되어 추화군(推火郡)이 되었다가 757년(경덕왕 16) 밀성군(密城郡)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에 와서 995년(성종 16)에 밀주(密州)로 하였고, 1390년(공양왕 2) 밀양부(密陽府)로 승격, 그 후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듭하다가 1895년 밀양군(密陽郡)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고려에는 문하부(門下府: 중앙최고행정관청)의 찬성사(贊成事)를 지낸 혁(赫), 검열(檢閱)·판관(判官)·병부사(兵部事) 등을 지낸 희천(禧天) 등이 있다.
조선에는 태종 때 통정대부(通政大夫)로 밀양부사(密陽府使)를 지낸 광석(廣碩)ㅡ평안남도 순천(順川) 및 개천파(介川派)와 함경북도(咸鏡北道) 경원파(慶源派)의 파조가 되었다.ㅡ, 의주부윤(義州府尹)을 역임한 문호(文虎),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을 지낸 광후(光厚), 이등공신(二等功臣)으로 병조판서를 역임한 홍준(弘濬)ㅡ충청남도 서산파(瑞山派)의 파조(派祖)가 되었다.ㅡ,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을 지낸 홍발(弘發), 진무일등공신(振武一等功臣) 경발(景發),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을 역임한 양선(亮善)ㅡ경기도 고양파(高陽派)의 파조가 되었다.ㅡ,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오른 덕령(德齡)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양 김씨는 파주시에 총 18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 김씨(扶安金氏)

부안 김씨(扶安金氏)의 시조는 김일(金鎰)이다.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맏아들인 그는 고려 때 부안(扶安)에 뿌리를 내렸다. 문헌에 의하면 태자 일(鎰)은 신라의 천년사직이 기울어지자 망국의 한을 간직하고 어머니 죽방왕후(竹房王后)와 부인 김씨(金氏)를 데리고 개골산(皆骨山: 금강산의 겨울철 별칭)으로 들어가 삼베옷(麻衣)를 입고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일생을 마쳐 세상 사람들이 그를 마의태자(麻衣太子)라고 불렀다 한다.
그의 증손(曾孫) 경수(景修)가 고려 선종(宣宗) 때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 문과에 급제하고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낸 후 부령(扶寧)에 정착하고, 그의 아들 춘(春)이 부령부원군(扶寧府院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경수(景修)를 일세조로 삼고 관향을 부안(扶安)으로 하게 되었다.
부안은 전라북도의 변산반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 개화현(皆火縣), 통일신라 때 부령현(扶寧縣)·계발(戒發)이라 하였으며, 1414년(태종 14)에 보안(保安)과 부령현(扶寧縣)을 합하여 부안현(扶安縣)으로 개칭되었다.
고려 때 부안 김씨를 빛낸 인물로는 1222년(고종 9)열 두 살의 어린 나이로 성균관 진사에 오른 구(坵)를 들 수 있다. 그는 고종(高宗)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정원부사록(定遠府司錄)과 제주판관(濟州判官)을 거쳐 원종(元宗) 때 예부시랑(禮部侍郞)으로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원(元)나라에 다녀와 『북정록(北征錄)』을 집필하고 40여 년간 벼슬을 역임하며 정치·외교·학문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구(坵)의 아들 4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냈는데, 그 중 장남 여우(汝盂)는 충렬왕(忠烈王)이 세자(世子) 때 원(元)나라에 4년 간 볼모(두나라 사이의 우호관계를 보증하기 위하여 사람을 담보로 잡아두는 일)로 가 있을 때 이를 호종한 공(功)으로 형부상서(刑部尙書)에 올랐고, 차남 종우(宗盂)는 수창궁(壽昌宮) 녹사(錄事)를 거쳐 전교시부령((典校寺副令)을 지냈으며, 셋째 숙우(叔盂)는 서도판관(西都判官), 막내 승인(承印)은 강릉존무사(江陵存撫使)와 대사성(大司成)을 역임하였다.
조선에는 명종 때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고, 승문원부제조(承文院副提調)·이조참판 등을 지낸 계(啓),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하여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이 된 해(垓), 인조 때 문과에 급제하고 예조정랑(禮曹正郞)에 올라 문명(文名)을 떨친 호(灝), 공조참판을 지낸 한익(漢益), 『서호별곡(西湖別曲)』을 짓고 국문학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상성(相誠)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안 김씨는 파주시에 총 39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 김씨(泗川金氏)

사천 김씨(泗川金氏)의 시조는 김부(金阜)이다.
그는 경순왕의 후손으로 공양왕 때 나라에 공을 세워 정남공신(靖難功臣)으로 사성부원군(泗城府院君, 사성은 사천의 다른 이름)에 봉해졌으므로 관향을 사천(泗川)으로 하였다. 사천 김씨는 구안동 김씨(舊安東金氏)에서 분적하였다.
사천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 때 사물현(史勿縣)·사수현(泗水縣), 고려 때 사주(泗州)로 불리다가 조선 때 사천(泗川)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고려에서는 평장사(平章事)를 지내고, 조선에서는 태종 때 집현전 태학사(集賢殿太學士)에 오른 사이(思頤),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지낸 유무(有武), 병조판서를 지낸 만서(晩緖),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를 지낸 세륜(世綸), 이조판서를 역임한 천우(天佑),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역임한 철수(哲洙)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천 김씨는 파주시에 총 4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 김씨(三陟金氏)

삼척 김씨(三陟金氏)의 시조는 김위옹(金渭翁)이다.
그는 경순왕(敬順王)의 여덟째 아들인 삼척군(三陟君) 김추(金錘)의 맏아들이다. 고려 때 어대부(御史大夫)·사농경(司農卿) 등을 지내고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상주국좌승상(上柱國左丞相)·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에 봉해졌으며, 뒤에 실직군왕(悉直郡王)에 추봉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삼척(三陟)을 관향으로 삼고, 위옹(渭翁)을 시조로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삼척은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실직국(悉直國)이었는데, 신라에 합병되고 만약(滿若)·파리(派利)로 불리다가 505년(지중왕 6) 실직주(悉直州)라 하였고, 639년(진덕여왕 8) 진주(眞珠)로 고쳤으며, 760년(경덕왕 19)에 지금의 삼척(三陟)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고려에는 삼중대광(三重大匡)을 거쳐 태사(太師)에 오른 자남(自男), 대사간(大司諫)을 역임한 득강(得江), 공조참판·한성판윤 등을 지낸 도남(圖南), 상장군(上將軍)을 역임한 중순(仲淳)·계순(季淳), 정국원종이등공신(靖國原從二功臣)에 책록된 난손(蘭孫) 등이 있다.
조선에는 태조 때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오른 천봉(天奉), 숙천부사(肅川府使)를 지낸 상(尙), 제주목사를 지낸 율(律),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하여 호성삼등공신(扈聖三等功臣)에 책록된 양보(良輔)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척 김씨는 파주시에 총 71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산 김씨(商山金氏)

상산 김씨(商山金氏)의 시조는 김수(金需)이다.
그는 경순왕의 후손으로 고려 때 보윤(甫尹)을 지내고, 후손이 누대에 걸쳐 상산(商山)에 살았으며, 그의 손자 식(湜)과 증손 희일(希逸)은 집사성(執事省)의 시중(寺中)을 지냈다. 현손(玄孫) 비궁(匪躬)은 찬성사(贊城事)를 역임한 후 상산부원군(商山府院君)에 , 9세손 일(鎰)은 대호군(大護軍)을 지내고 상락군(上洛君)에 봉해졌으며, 10세손 녹(祿)은 판사(判事)로 상성군(商城君)에 봉군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수를 시조로 하고 상산(商山)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상산은 경상북도 상주(尙州)의 옛 지명이다. 삼한시대에 진한의 영토였으며, 사벌국(沙伐國)·사불(沙弗)로 독립해오다가, 신라 첨해왕(沾解王) 때 상주(上州)라 하였다. 그 후 상락군(上洛郡) 사벌주(沙伐州)로 불리다가 경덕왕(敬德王)이 상주(尙州)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홍건적(紅巾賊)이 침입했을 때 서북면도지휘사(西北面都指揮使)로 이방실(李芳實)·안우(安祐) 등과 함께 이를 격퇴하고, 수충보절공신(輸忠保節功臣)에 책록되고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된 득배(得培), 삼별초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충(忠), 1353년(공민왕 2) 왜적(倭賊)이 침입했을 때와 홍건적의 난 때 공을 세워 판전의시사(判典義寺事)와 봉순대부(奉順大夫)에 각각 오른 운보(云寶)와 신보(臣寶) 형제, 세종 때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한 야인(野人)을 무찌르고 무용(武勇)을 떨친 사우(師禹), 세종 때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하고 공조판서·대사헌·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등을 지낸 광준(光準), 이조판서를 8번, 대제학을 6번 지내고 우의정에 이른 귀영(貴榮), 대사성(大司成)·대사간(大司諫)을 거쳐 춘천부사(春川府使) 등을 지낸 후 1636년(인조 14) 청백리에 녹선된 덕함(德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향방(鄕坊) 사우(士友)들과 '일심계(一心契)'를 조직하여 항거한 용구(容球)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산 김씨는 파주시에 총 68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흥 김씨(瑞興金氏)

서흥 김씨(瑞興金氏)의 시조는 김보(金寶)이다.
경순왕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6세손인 그는, 고려 중엽 금오위중랑장(金吾衛中郎將)을 지냈다고 한다. 보(寶)의 손자 천록(天錄)은 고려 때의 이름난 무장으로 삼별초의 난 때 김방경(金方慶)의 부장(副將)으로 이를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으며, 1274년(원종 15) 여원연합군(麗元聯合軍)이 일본 대마도를 정벌할 때도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워 1280년(충렬왕 6) 도첨의시랑 찬성사(都僉議侍郎贊成事)·상장군(上將軍)·판판도사사(判版圖司事)로 서흥군(瑞興郡)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서흥(瑞興)을 관향)으로 하여 대를 이어오고 있다.
서흥은 황해도에 위치한 지명이다. 한사군(漢四郡)과 고구려 시대에 오곡군(五谷郡)·우차탄홀(于次呑忽)이라 하였는데, 신라 때 오관군(五關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동주(洞州), 원종(元宗) 때 안태(安胎)로 부르다가 조선 태조 때 서흥(瑞興)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고려에는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낸 세구(世丘),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를 거쳐 대사성(大司成)에 오른 봉환(鳳還) 등이 있다.
조선에는 세종 때 예조판서를 지낸 중건(中乾), 예조참의를 지낸 중곤(中坤), 성균관 박사(博士)를 지낸 중인(中寅), 1489년(성종 20) 좌리이등공신(佐理二等功臣)에 오른 효인(孝仁), 조선 성리학의 구두 한훤당(寒暄堂) 굉필(宏弼),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를 지낸 언숙(彦塾),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낸 언상(彦庠), 선무랑(宣務郎)을 거쳐 동부참봉(東部參奉)에 오른 언학(彦學), 임진왜란 때 죽산(竹山)에서 의병을 모아 왜군과 싸워 공을 세운 뒤 아들 함(涵)과 함께 순절한 충수(忠守)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흥 김씨는 파주시에 총 18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산 김씨(善山金氏)

선산 김씨(善山金氏)의 시조는 김선궁(金宣弓)이다.
그는 김알지의 30세손이며, 문성왕(文聖王)의 8세손이다. 『선산김씨족보(善山金氏族譜)』에 의하면 그의 초휘(初諱)는 김선(金宣)이었는데, 고려 태조가 후백제를 정벌하려 남행(南行)하던 중 숭선(崇善)에 이르러 병사를 모집할 때, 그가 함께 종군할 것을 희망하니 태조가 기뻐하며 친히 활을 하사하고 선궁(先弓)으로 사명(賜名)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그는 태조 왕건을 도와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공을 세우고, 개국벽상공신(開國璧上功臣), 영문하시중(領門下侍中),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올랐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일선(一善)으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여 왔는데, 조선시대에 지명이 선산(善山)으로 개칭됨에 따라 관향을 선산(善山)으로 칭하였다.
선산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 눌지왕(訥祗王) 때 일선(一善), 경덕왕(景德王5) 때 숭선(崇善)·병정현(竝井縣) 등으로 불리다가, 995년(고려 성종 14) 선주(善州)로 고쳐졌고 1413년(태종 13) 지금의 선산(善山)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봉술(奉術), 삼사우윤(三司右尹)에 올라 크게 명성을 날리고 가문의 중흥을 일으킨 중추적인 기틀을 다진 봉문(奉文),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를 지낸 혁동(赫東)과 상장군(上將軍)을 지낸 임남(任南)·제용(濟用), 태자태사(太子太師)를 지낸 득충(得忠)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1419년(세종 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여 우정자(右正字)·교수(敎授), 현감(縣監),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 등을 역임한 후 세조)가 즉위하자 벼슬을 버리고 밀양(密陽)에 돌아가서 후진교육에 진력했고, 정주학(程朱學)을 발전시켜 조선 초기의 거유(巨儒)로 일컬어졌으며 이조판서에 추증된 숙자(叔滋)는, 학문과 문장에 뛰어나 영남학파(嶺南學派)의 종조(宗祖)가 되었으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55군을 증수(增修)한 점필재 종직(宗直),중종 때 호조(戶曹)를 제외한 5조(曹)의 판서를 역임하고 좌의정에까지 이른 응기(應箕), 퇴계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선조 때 동인(東人)의 영수(領袖)로 사림파(士林派)의 중심인물이 된 효원(孝元), 병자호란 때 70세의 노령으로 의병을 일으켜 이름을 날린 영(寧) 등이 있다.
선산 김씨는 지난날 일선 김씨(一善 金氏)·평성 김씨(坪城 金氏)라고도 불렸으며, 신라 원성왕(元聖王) 대의 김경신(金敬信)의 후손으로 좌복야(左僕射)를 지낸 김한충(金漢忠)을 시조로 하거나 신라 경순왕의 여덟째 아들이라는 김추(金錘)를 시조로 하는 후손들도 있는데 이들 계열을 들성 김씨라 한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산 김씨는 파주시에 총 1,07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성 김씨(雪城金氏)

설성 김씨(雪城金氏)의 시조는 김지선(金之宣)이다.
그는 경순왕의 다섯째 아들인 의성군(義城君) 김석(金錫)의 후손이며, 개성 김씨로 분적한 김용주(金龍珠)의 증손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고려 때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을 지내고 설성(雪城)에 세거하면서 가세가 크게 번창하였으므로, 후손들이 개성 김씨에서 분적하고 지선(之宣)을 일세조로 삼아 관향을 설성(雪城)으로 하게 되었다.
설성(雪城)은 충청북도 음성군과 경기도 이천시의 일부 지역에 걸쳐 있던 옛 지명이다. 고구려 때 노음죽현(奴音竹縣)이었는데, 신라에 와서 음죽(陰竹)으로 고쳐 개산(介山: 죽산군)에 속하게 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음죽군(陰竹郡)으로 승격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일부는 음성군에 속하고 나머지는 이천군에 합해졌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때 상장군으로 무훈을 세우고 문원(文元)이란 시호를 하사받은 원(源), 사재감정을 역임한 신주(臣株), 하여 부자가 함께 명성을 떨쳤다. 학문으로 유명했던 수항(壽抗), 판서(判書)를 지낸 훈(壎)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성 김씨는 파주시에 총 8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안 김씨(遂安金氏)

수안은 황해도에 위치한 지명이다. 한사군(漢四郡)을 거쳐 고구려 시대에는 장색현(璋塞縣)이었다가, 고려 초에 수안(遂安)·수주(遂州)로 불렸다. 이후 조선 초기에 지금의 수안(遂安)으로 개칭되었다.
수안 김씨(遂安金氏)의 시조는 김선(金愃)이다.
경순왕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9세손인 그는, 고려시대 삼별초와 왜구를 물리쳐 원충단력안사보정공신(元忠端力安社保定功臣)에 오르고, 전법판서(典法判書),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 상장군(上將軍) 등을 지낸 후 수안군(遂安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수안(遂安)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도첨의사사(都僉議司事)를 지낸 자(資), 전리판서를 역임한 위(爲)와 득남(得男), 현감을 지낸 성정(成鼎)과 정몽(正蒙), 판관(判官)을 지낸 욱(旭), 1719년(숙종 45)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여 병조낭중·해남현감(海南縣監)을 지낸 하구(夏九), 의병부장(義兵部將)으로 1896년(건양 1) 4월에 의병 300여 명을 규합하여 영덕(盈德)·영해(寧海)·청하(淸河) 등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순절한 노헌(魯憲)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안 김씨는 파주시에 총 3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김씨(水原金氏)

수원 김씨(水原金氏)의 시조는 김품언(金稟言)이다.
그는 경덕왕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손자이다. 고려 현종 때 거란군의 침입을 막는 데 공을 세워 충순적덕정난공신(忠順積德靖難功臣)으로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삼중대광보국(三重大匡輔國)에 올라 수성군(隨城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선조가 봉군(封君)된 수원(水原)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수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매홀(買忽), 통일신라 때 수성(水城), 고려 때 인주(仁州)·수주(水州)로 불리다 1310년(충선왕 2)에 수원(水原)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태자소보(太子少保)를 역임한 자이(子荑), 중서령(中書令)에 올라 명성을 떨친 순보(順輔), 중추원(中樞院)의 좌승선(左承宣)을 역임한 세익(世翊), 공부시랑(工部侍郞)을 지낸 인순(仁順), 평장사(平章事)에 이른 사경(仕境), 충목왕(忠穆王)때 적을 토벌한 공으로 일등공신에 책록되고, 공민왕 때 순성보절공신(純誠保節功臣)으로 수성군(隨城君)에 봉해진 한진(漢眞),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지낸 상려(尙旅), 1456년(세조 1) 문과에 급제하여 교수(敎授)와 교리(敎理)를 거쳐 인동부사(仁同府使)를 지낸 정(淀),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우고 호조참의에 오른 견룡(見龍), 이괄의 난 때 척후장(斥候將)으로 안령(鞍嶺)전투에서 전공을 세워 진무삼등공신(振武三等功臣) 올랐고, 정묘호란 때 평안남도 안주(安州)의 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여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에 추증되고 진흥군(晋興君)에 추봉된 양언(良彦)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 김씨는 파주시에 총 16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 김씨(順天金氏)

순천 김씨(順天金氏)의 시조는 김총(金摠)이다.
그는 경문왕의 아들로 태봉국(泰封國)을 세운 궁예의 손자라고 전한다. 문헌에 의하면 그가 신라에서 인가별감(引駕別監)을 지내고 평양군(平陽君, 평양은 순천의 옛 지명)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관향을 순천(順天)으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순천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에는 함평(咸平), 신라 때 승평(昇平), 996년(고려 성종 15)에 승주(昇州)로 불렀다가, 1310년(충선왕 2) 순천(順天)으로 개칭하였다. 순천은 평양(平陽)이라는 별호로 불리기도 했다.
역사인물로는 유정(惟精)이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정주목사(定州牧使)를 역임하고, 충순보조익위공신(忠純輔祚翊衛功臣)으로 여산군(麗山君)에 봉해졌다. 그의 아들 승주는 초명(初名)이 을보(乙寶)였으며, 1380년(우왕 6) 군기시소윤(軍器寺少尹)을 지내고, 창왕(昌王) 때 풍주(豊州)의 수령(守令)으로 나가 왜구(倭寇) 격퇴에 공(功)을 세워 조선(朝鮮)이 개국(開國) 한 후 정종(定宗) 때 추충익대좌명공신(推忠翊戴佐命功臣)에 올랐다. 이어 공조판서(工曹判書)와 평양부윤(平壤府尹) 등을 지냈으며, 태종(太宗) 때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이르러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에 봉해지고, 승주란 이름을 하사(下賜)받았다.
조선에서는 특히 조선에 와서 가문을 빛낸 인물로는 명신 종서(宗瑞)를 들 수 있다. 그는 1390년(공양왕 2) 지평(持平) 태영(台泳)의 손자(孫子)로 출생하여 16세 문과(文科)에 급제, 세종(世宗)이 즉위하자 사간원우정언(司諫院右正言)을 거쳐 여러 관직을 지낸 후 1433년(세종 15) 함길도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로 야인(野人)들의 변경침입을 격퇴했고, 육진(六鎭:동북방면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두만강 하류지역에 설치한 여섯 진)을 설치하여 두만강(豆滿江)을 경계로 국경선을 확정하며함길도 병마절제사를 겸직, 야인의 정세를 탐지하여 그 비변책(備邊策)을 건의했고, 형조(刑曹)와 예조(禮曹)의 판서(判書)를 지낸 후 1446년(세종 28) 우참찬(右參贊)에 올랐다. 1453년(단종 1) 왕위를 노리던 수양대군에 의해 두 아들 승규(承珪)·승벽(承璧), 손자(孫子) 만동(萬同)·조동(祖同)등과 함께 격살되고 그의 아우 종한(宗漢)도 화(禍)를 입었으며, 승규(承珪)의 막내아들만이 어머니를 업고 도망갔다.
그 외에는 임진왜란 때 신립(申砬)장군과 함께 충주 방어에 나섰다가 북상하는 적군을 막지 못하여 탄금대(彈琴臺)에서 강물에 투신 자결한 여물(汝泇), 인조반정의 공신으로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에 봉해지고 영의정(領議政)에 올라 영국일등공신(寧國一等功臣)으로 순천부원군(順天府院君)에 봉해진 류(瑬)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 김씨는 파주시에 총 55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 김씨(安東金氏)

안동 김씨(安東金氏)의 시조는 김숙승(金叔承)이다.
경순왕의 손자이며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둘째 아들인 그는 고려 때 공부시랑과 평장사를 역임하였다.
안동 김씨 본관에는 왕건을 도와 안동에서 견훤을 크게 물리친 공으로 고려 삼한벽상 삼중대광 태사 아부공신(高麗 三韓壁上三重大匡 太師 亞父功臣)에 봉해진 태사공(太師公) 김선평(金宣平)을 시조로 하는 본관도 있는데 김숙승을 시조로 하는 본관을 선(先) 안동 김씨, 김선평을 시조로 하는 본관을 신(新) 안동 김씨라 한다.
안동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대 창녕국(昌寧國)이었는데, 신라 때는 고타야국(古陀倻國)·고창군(古昌郡)으로 불렸고, 왕건이 견훤과 싸워 전공을 세움으로써 안동부로 승격되었다. 그 후 영가군(永嘉郡) 또는 복주(福州)로 개칭되었다가 1361년(공민왕 10)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로 승격되었다.
누대로 안동에 세거해 오던 안동 김씨는 숙승(叔承)의 7세손 방경(方慶)이 해동(海東)의 명장으로 고려사(高麗史)를 수(繡)놓았다. 그는 병부상서(兵部尙書)와 한림학사를 지내고 중서령(中書令)에 추봉된 효인(孝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16세에 음보(蔭補)로 양온서동정(良醞署同正)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나가 여러 관직을 역임한 후 1247년(고종 34) 서북면병마판관(西北面兵馬判官)이 되었다. 방경(方慶)의 아들 5형제 중 맏아들 선(愃)은 전법판서(典法判書)를 지냈다. 승용(承用 : 보문각대제학), 승택(承澤 : 중서시랑 평장사를 지내고 영창군에 봉해짐), 승우(承祐 : 상서)가 현달했다.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상락군(上洛君)에 봉해진 흔(忻 : 방경의 셋째 아들)과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올라 상락공(上洛公)에 봉해진 순(恂 : 방경의 셋째 아들)도 크게 명성을 떨쳐 가문을 빛냈으며, 순(恂)의 아들 영돈(永暾)과 영후(永煦) 형제가 조 적(曺 頔)의 난에 공을 세워 상락부원군(上洛府院郡)과 상락후(上洛候)에 각각 봉군되었다. 중시조(中始祖) 방경(方慶)의 넷째 아들인 논(惀)은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와 천우위대장군(千牛衛大將軍)에 이르렀다.
이외의 역사인물로는 고려 말 정주학(程朱學)의 거두이며 학식과 덕망으로 세인(世人)의 추앙을 받았던 구용(九容), 공민왕 때 내사사인(內史舍人)으로 신돈(辛旽)을 탄핵하다가 죽음을 당한 제안(齊顔), 학행으로 이름을 떨쳤고 효행이 뛰어나 부모상(父母喪)을 당하자 3년 동안이나 여막에서 시묘하여 나라에서 사액정려(賜額旌閭)를 받은 익정(益精)·익렴(益廉) 형제, 세조 때 호조좌랑(戶曹佐郞)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이전(吏典)'을 교정한 유(紐),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정국삼등공신(靖國三等功臣)으로 영안군(永安君)에 봉해진 수경(壽卿), 심하(深河) 전투에서 공을 세운 명장(名將) 응하(應河), 명종 때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을 했으며 김일손(金馹孫), 박은(朴訔)과 함께 '삼대문장'으로 일컬어졌던 홍도(弘度), 허난설헌(許蘭雪軒)의 남편으로 임진왜란 때 31세의 젊은 나이로 장렬하게 순절한 성립(誠立) 등이 있다.
한말에 와서는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수도방위를 담당했던 선필(善弼)이 유명했다. 자주독립(自主獨立)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민권투쟁(民權鬪爭)의 선봉장이었던 백범(白凡) 구(九)는 안동김씨(安東金氏)가 자랑하는 인물이다.
한편, 신 안동 김씨 종중의 역사인물로는 순조의 비인 순원왕후(純元王后), 헌종의 비인 효현왕후(孝顯王后), 철종의 비인 철인왕후(哲仁王后),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 영흥부원군(永興府院君) 김조근(金祖根), 영은부원군(永恩府院君) 김문근(金汶根), 좌의정을 지낸

김상헌(金尙憲), 우의정을 지낸 김수항(金壽恒), 영의정을 지낸 김창집(金昌集) 등을 비롯하여 많은 명신들이 있으며 한말 의병운동과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전개한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동 김씨는 파주시에 총 4,59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안동 김씨 안렴사공파는 김방경을 파시조(派始祖)로 하고 5대조 선조가 법원읍 직천리로 입향하여 오늘에 이른다. 금곡리와 월롱면, 광탄면 등에 300호 내외가 살고 있는데 월롱면에는 안동 김씨 화상공파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7일 선영이 있는 법원읍 직천리에서 시제를 지낸다. 직천리 종중 회장은 김태원이며 선산 5,000평을 종중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파주에 살고 있는 안동 김씨 칠정문중파는 토산공 심삼로를 파시조(派始祖)로 하고 김겸(金謙)을 입향조(入鄕祖)로 한다. 조선 후기에 파주로 입향하였다. 문산읍 선유리 칠정말에 30~40호 가량 살고 있다. 선영은 문산읍 선유리이다.

안산 김씨(安山金氏)

안산 김씨(安山金氏)의 시조는 김긍필(金肯弼)이다.
그는 경순왕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후손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1024년(고려 현종 15) 상서좌복야(尙書左僕야)·상주국(上柱國)·안산현 개국후(安山縣開國候)에 추봉되고 식읍(食邑) 1500호를 하사받아, 후손들이 안산에 정주하면서 관향을 안산(安山)으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안산은 경기도 시흥시 수암면(秀岩面)의 옛 지명이다. 고구려 때는 장구현(獐口縣)이었다가 고려 초에 안산(安山)으로 개칭되었는데, 191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흥에 병합되었다.
그의 아들 은부(殷傅)는 공주절도사(公州節度使)에 재임 시 1011년(현종2) 거란의 침입으로 왕이 공주(公州)로 피난 왔을 때 지성으로 시종하였고, 맏딸은 어의(御衣)를 지어 바친 인연으로 왕비(王妃: 원성왕후)가 되었으며, 차녀(次女)는 원혜왕후(元惠王后), 삼녀(三女)는 원평왕후(元平王后)가 되어 세도가문(勢道家門)으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그러나 그 후의 세계(世系)가 실전되어 상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고려 때 정난공신(靖難功臣)에 오른 충익공(忠翊功) 위(渭)를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고 있다.
역사인물 가운데 위(渭)의 증손(曾孫) 정경(正卿)은 조선 태조(太祖) 때 판예빈시사(判禮賓시事)를 지내고 정조사(正祖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00년(정조 2) 제2차 왕자(王子)의 난(亂) 때 공(功)을 세워 좌명사등공신(佐命四等功臣)으로 연성군(蓮城君)에 봉해졌고, 뒤에 이부 상서(吏部尙書)를 거쳐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이르렀다. 그의 다섯 아들 중 맏아들 지(沚)와 셋째 척(滌)은 별장(別將)을, 차남 관(灌)은 상호군(上護軍)을 지냈으며, 넷째 개(漑)는 1422년(세종4) 음보(蔭補)로 벼슬에 등용되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올랐고, 막내 한(澣)은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역임하여 가문에 크게 중흥시켰다.
그 외 역사인물로 호조참판을 지낸 휘(暉),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취길(就吉),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를 지낸 취의(就義), 대사간을 지낸 성옥(聲玉), 인조 때 화가로 인물과 수석(水石)을 잘 그린 명국(命國) 등이 있다. 한말에 와서는 경념(敬念)이 옥성(玉城)·흥명(興明)·선화(善化)등 여러학교를 설립하여 젊은 청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켰으며, 3·1운동에 참가한 후『독립신보(獨立新報)』발간하고, 해방 후에는 반탁(反託)운동에 참가했으며『대한독립사(大韓獨立史)』를 편찬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산 김씨는 파주시에 총 26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 김씨(安城金氏)

안성 김씨(安城金氏)의 시조는 내물왕의 후손 김재영(金再英)이다.
『안성김씨파보(安城金氏派譜)』에 의하면 그는 진덕왕(眞德王) 때 백제와 싸움에서 공을 세워 안성군(安城君)에 봉해졌다고 한다. 그의 후손 돈(暾)이 고려 고종 때 진사로 문과에 급제하여 예부시랑(禮部侍郞)·한림학사(翰林學士)를 거쳐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올라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선조(先祖)의 출신지인 안성(安城)을 관향으로 삼고, 돈(暾)을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안성은 경기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내혜홀(奈兮忽), 신라 때 백성군(白城郡)으로 부르다가, 고려 초에 안성현(安城縣)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1018년(고려 현종 9)에 수주(水州)에 속했다가 후에 천안부(天安府)에 이속되었다. 1362년(공민왕 11)에는 군으로 승격되었으며, 1413년(조선 태종 13)에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었고, 1914년 3월 안성(安城)·양성(兩性)·죽산(竹山)의 3개 군을 병합하여 안성군이라고 하였다. 1998년 안성시가 되었다.
역사인물로 고려시대에는 돈(暾)의 아들 유성(有成)이 있다. 1250년(고종 37) 15세의 나이로 문과(文科)에 장원급제하여 감찰어사(監察御使)·한림학사(翰林學士)등을 지내고, 양광(楊廣)·전라도(全羅道)의 어사(御使)를 거쳐 평리사사(評理司事)·태복시윤(太僕寺尹)에 올랐으며, 선유사(宣諭使 : 병란이 났을 때 임금의 명령을 받아 백성을 훈유하던 임시 벼슬)로 일본(日本)에 갔다가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자 왕이 애석하게 생각하여 문화평리(門下評理)·평장사(平章事)에 추증하고 보조공신(寶祚功臣)으로 책록하였다. 또한 추밀원사(樞密院使) 거쳐 충숙왕 때 동중서문 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이르러 좌정승(左政承)에까지 이른 익흥(益興)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이조참판 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지내고,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을 역임한 후 익대이등공신(翊戴二等功臣)으로 영국군(寧國君)에 봉군된 명수(命壽),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역임한 광철(光喆), 절도사(節度使)를 지낸 호일(好日)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성 김씨는 파주시에 총 1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악 김씨(安岳金氏)

안악 김씨(安岳金氏)의 시조는 김영(金塋)이다.
그는 김알지의 후예이며 조선개국공신에 책록되어 계림군(鷄林君)에 봉해진 균(稛)의 증손 김승경(金升卿)의 둘째 아들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단종 때 사옹원직장(司饔院直長)을 지내다가 단종이 영월(寧越)로 유배당할 때 호종하고 돌아와 세조의 혼탁한 정치의 와중에 강화(江華)로 귀양갔으나, 1464년(세조 9) 풀려나와 성종조에 안악군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영(塋)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안악(安岳)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안악은 황해도에 있는 지명이다. 한사군 때에는 소명현(昭明縣)이던 것을 고구려 때 양악군(楊岳郡)으로 고쳤다. 그 후 고려 초에 안악(安岳)으로 개칭하고, 1018년(현종 9) 풍주(豊州)에 편입시켜 예종(睿宗)이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1608년(선조 41)에 군(郡)으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별칭(別稱)으로 양산(楊山)이라고도 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찰방(察訪)을 지낸 윤조(胤祖), 병조좌랑을 역임한 농(曨),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지낸 응상(應祥), 공조참판을 역임한 수(秀), 평산부사(平山府使)와 안악군수(安岳郡守)를 역임한 양(陽), 승지를 지낸 종(宗), 중추부사(中樞府事)를 지낸 자약(自躍) 등이 있다. 한편, 홍찬(弘讚)은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이르러 강동파(江東派)의 파조(派祖)가 되었고,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악 김씨는 파주시에 총 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성 김씨(野城金氏)

야성 김씨(野城金氏)의 시조는 김취린(金就躪)이다.
경순왕(敬順王)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후손인 그는, 향직(鄕職)의 최고 벼슬인 호장중윤(戶長中尹)을 지냈고, 1217년(고려 고종 4) 거란군이 침입해 왔을 때 이를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워 시중시랑(侍中侍郞)에 오르고 야성군(野城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본관을 야성(野城)으로 삼았다.
야성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영덕군(盈德郡)의 옛 지명이다. 삼한시대에 야시홀(也尸忽)·우시국(于尸國)으로 불리다가 신라 문무왕(文武王) 때 야성현(野城縣)으로 고쳐졌고, 고려 초에 영덕(盈德)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취린의 아들 장문(長文)이 대표적이다. 그는 고려에서 봉익대부(奉翊大夫)로 좌사윤(左司尹)을 역임했다.
그 밖에 금오위별장(金吾衛別將)을 지낸 응제(應磾), 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을 지낸 균(鈞), 봉익대부(奉翊大夫)로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역임한 대헌(大獻),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오른 순량(純良)·광세(光世), 금오위별장(金吾衛別將)을 지낸 용화(用和), 정암 조광조(趙光祖)의 문하에서 글을 배우고 1504년(연산군 10)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여 성균관진사(成均館進士)를 지낸 응청(應淸),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낸 응빈(應瀕), 중추부사(中樞府事)를 지낸 응추(應秋)·천기(天機)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성 김씨는 파주시에 총 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 김씨(梁山金氏)

양산 김씨(梁山金氏)의 시조는 고려에서 통사사인(通事舍人)을 지낸 김연(金衍)이다.
그의 손자 맹(猛)이 목종(穆宗) 때 문과에 급제하여 좌습유(左拾遺)를 거쳐 이부시랑(吏部侍郎)·중추부사(中樞副使)등을 지내고, 의춘현(宜春縣: 양산의 옛 지명) 개국남(開國男)에 봉해진 후 중추원사(中樞院使)·태자소부·참지정사(參知政事) 등을 역임하고 크게 명성을 날렸으므로, 후손들이 김연(金衍)을 시조로 하고 양산(梁山)을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
양산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 때 삽량주(揷良州)라 하였다가 고려 때 양주(梁州)로 고쳤고, 조선에 와서 지금의 양산(梁山)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덕종(德宗) 때 음보(蔭補)로 벼슬에 등용되어 태자빈객(太子賓客)을 거쳐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에 이른 덕부(德符), 1496년(연산군 2) 문과에 급제하여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를 지낸 치현(致賢), 명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예조좌랑(禮曹左郞) 등을 지낸 응인(應寅), 가선대부로 호조참판을 지낸 경선(景善),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을 지낸 수남(秀南),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안선(安善)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산 김씨는 파주시에 총 1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 김씨(楊洲金氏)

양주 김씨(楊洲金氏)의 시조는 김원보(金元寶)이다.
경순왕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9세손인 그는, 고려 고종(高宗) 때 예부상서(禮部尙書)·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판추밀원사(板樞密院事) 등을 지내고 양주백(楊洲伯)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관향을 양주(楊洲)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양주는 경기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매성(買省)·창화(昌化), 신라 때 내소(來蘇), 고려 초에 견주(見州)로 부르다가, 1018년(현종 9) 양주(楊洲)로 개칭하였다.
양주 김씬느 후대로 내려오면서 밀직부사(密直副使) 지식(之植)을 파조(派祖)로 하는 평양파(平壤派), 대호군(大護軍)을 지낸 견(堅)을 파조(派祖)로 하는 개천파(价川派)로 크게 갈라져 대종(大宗)을 이루어 수원(水原)·서흥(瑞興)·황주(黃州)·봉산(鳳山)·대동(大同)·강동(江東)·강서(江西)·순천(順天)·철산(鐵山)·벽동파(碧潼派) 등으로 분파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공부시랑(工部侍郎)을 지낸 경백(敬伯), 이부상서(吏部尙書)에 오른 성달(誠達), 상호군(上護軍) 사의(思義), 중추부사(中樞府事)를 지낸 충로(忠老)·국로(國老) 형제, 훈련원주부(訓鍊院主簿)를 지낸 세창(世昌), 정묘호란 때 전공을 세워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른 복흥(復興), 올랐다. 1620년(광해군 12) 문과에 급제하여 나라에 공을 세워 분무일등공신(奮武一等功臣)에 책록된 경표(景杓)와 한말에 와서는 독립운동가로 이름난 성련(聖鍊)·관성(觀聲)·한영(漢永)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주 김씨는 파주시에 총 2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양 김씨(彦陽金氏)

언양 김씨(彦陽金氏)의 시조는 김선(金鐥)이다.
『언양김씨신유보(彦陽金氏辛酉譜)』와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의 기록에 의하면, 김선(金鐥)이 고려 때 언양군(彦陽君)에 봉군되었으므로, 후손들이 본관(本貫)을 언양(彦陽)으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언양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 때 거화현(居火縣)으로 불렀는데, 경덕왕(景德王)이 헌양(巘陽)으로 고쳤고, 고려에 와서 언양(彦陽)으로 바꿔 불렀다.
대표적 역사인물로는 시조 선(鐥)의 손자 정보(精寶)가 고려에서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냈고, 증손(曾孫) 경숙(鏡淑)은 대장군(大將軍)을 역임하여, 아들인 신호위별장(神號衛別將) 수(壽)와 함께 이름을 날렸으며, 수(壽)의 아들 언련(彦連)은 신호위중랑장(神號衛中郞將)을 지냈다.
한편, 언양 김씨가 자랑하는 취려(就礪)는 음보(蔭補)로 정위(正尉)에 임명되어 동궁위(東宮衛 때)를 거쳐 장군(將軍)으로서 동북계(東北界)를 진압한 후, 대장군(大將軍)이 되어 1216년(고종 3) 거란족의 침입을 물리치고, 1219년(고종 6) 국경 경비병 출신인 부방(副將) 다지(多知)의 반란을 평정하여 참지정사(參知政事)·판호부사(判戶部事)에 올랐다. 이어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태자태사(太子太師)로 특진한 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 이르렀으며, 평소 강직하고 청백한 성품으로 군기를 엄정히 하고 부하를 아꼈으며, 전장에서는 기발한 계교로 많은 공을 세웠다.
그 밖에 고려에서는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상장군(上將軍)·판리부사(判吏部事)에 오른 전(佺), 첨의중호(僉議中護)를 거쳐 찬성사(贊成事)에 올라 언양군(彦陽君)에 봉해진 문연(文衍), 찬성사(贊成事)를 거쳐 좌정승(左政丞)에 이르러 언양부원군(彦陽府院君)에 봉해진 윤(倫), 문하시중(門下侍中)·검교첨의찬성사(檢校僉議贊成事)를 지내고 언양백(彦陽伯)에 봉군된 경직(敬直) 등이 있다.
조선에서는 선천군수·병조판서 등을 지내고 언양군(彦陽君)에 봉해진 관(瓘), 임진왜란 때 나주(羅州)에서 고경명(高敬命)·박광옥(朴光玉)·최경회(崔慶會)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의 전투에 많은 공을 세웠으며, 진주성(晋州城)을 사수하다가 성(城)을 함락당하자 아들 상건(象乾)과 함께 남강(南江)에 투신자결한 천일(千鎰), 정묘호란 때 안주성(安州城)이 함락되자 처자와 함께 자결하여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된 준(浚)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양 김씨는 파주시에 총 64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 김씨(延安金氏)

연안 김씨(延安金氏)의 시조는 고려 명종(明宗) 때 사문박사(四門博士)를 지낸 김섬한(金暹漢)이다.

문헌에 의하면 신라에 김알지의 후예인 두 왕자가 왕에게 직간하다가 형 북빈경(北濱京: 지금의 강릉), 아우는 시염성(豉鹽城: 연안의 옛 지명)에 유배되었는데, 아우의 후손이 바로 김섬한(金暹漢)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선조(先朝)의 유배지인 연안(延安)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계승하였다.

연안은 황해도에 있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 동음홀(冬音忽)·시염성(豉鹽城)이라 부르다가 신라 때 해고군(海皐郡)으로 개칭하였다. 그 후 고려에서는 염주(鹽州)·영응현(永膺縣)·복주(復州)·석주(碩州)·온주(溫州) 등으로 부르다가, 충선왕(忠宣王) 때 연안부(延安府)로 하였으며, 1914년 이웃 백천군(白川郡)과 합하여 연백군(延白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공민왕 때 문과에 올라 전주사록(全州司祿)·정언(正言)을 거쳐 1371년 명나라 제과(制科)에 급제하여 동창부구현승(東昌府丘縣丞)에 오른 도(濤)가 있다. 그의 아들 4형제가 모두 현달하여 세도가문의 기틀을 다졌는데, 맏아들 자지(自知)는 조선 태종(太宗) 때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를 거쳐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역임하고 음양(陰陽)·천문(天文)·지리(地理)·음율(音律)·의약에 이르기까지 능통했다. 둘째 여지(汝知)는 1389년(창왕 1) 문과(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정언(正言)·예조좌랑(禮曹佐郎) 등을 역임하고 조선이 개국되자 판관(判官)·헌납(獻納)을 거쳐 태종 때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러 1416년(태종 16) 정조사(正朝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공조와 예조의 판서로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을 겸직했고, 셋째 치지(致知)는 예빈시윤(禮賓寺尹)을 지냈으며, 막내 학지(學知)는 해주목사(海州牧使)로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세조 때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되고 영의정에 증직된 원신(元臣), 성종이 즉위하자 호조참의(戶曹參議)에 발탁되고 뒤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른 우신(友臣),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글을 배우고 성종 때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 급제하여 검열(檢閱)·부교리(副校理)·직제학(直提學) 등을 거쳐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이른 흔(訢), 1520년(중종 15) 영의정에 오른 전(詮), 영의정에 오른 근사(謹思),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정국이등공신(靖國二等功臣)으로 연창부원군(延昌府院君)에 봉해진 감(勘), 중종 때의 명신으로 가문의 중흥을 가져온 중추적 인물 희락당(希樂堂) 안로(安老)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안 김씨는 파주시에 총 79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 김씨(靈光金氏)

영광 김씨(靈光金氏)의 시조는 김심언(金審言)이다.
그는 경순왕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郡) 김은열(金殷說)의 자손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김해군(金海君)에 봉해진 염(濂)의 셋째 아들로, 당대의 석학 최섬(崔暹)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성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우보궐(右補闕)로 기거주(起居注)를 겸했고, 990년(성종 9) '봉사이조(封事二條)'를 상소하여 성종의 정책 수행에 유일한 지침이 되게 하였다. 또 『육정육사론(六正六邪論)』과 『자사육조(刺史六條)』를 저술하여 후세의 정치사상과 제도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현종(顯宗)이 즉위하자 그는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에 승진되어 예부상서(禮部尙書)를 거쳐 내중시랑평장사(內中侍郞平章事)에 이르러 오성군(奠城君, 오성은 영광의 옛 지명)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관향을 영광(靈光)으로 하였다고 한다.
영광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 무호이군(武戶伊郡)이라 부르던 것을 통일신라 757년(경덕왕)에 무령군(武靈郡)으로 고쳤다, 이후 고려에 와서 영광(靈光)·정주(靜州)라고 하였다.
현손 극검(克儉)은 숙종조(肅宗朝)에 태자소사(太子小事)를, 6세손 영부(永夫: 극경의 아들)는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를 배출하여 판병부사(判兵部事)를 역임하는 등 많은 인물을 배출하여 크게 번성하였다. 특히 고려시대 중앙요직의 하나인 평장사(平章事)를 많이 배출하여 이 마을을 평장동(平章洞)이라 불렀다. 그러나 영광김씨는 중간계대(中間系代)가 실전되어 시조 심언(審言)의 맏아들 윤보(允輔)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경파(京派: 정부)·장흥파(長興派: 태용)·영광파(靈光派: 연)·무장파(茂長派: 효민)·양사파(良士派: 광찬)·용강파(龍岡派: 중보)·삼화파(三和派: 무수) 등으로 이어져 왔다. 한편 강계파(江界派)만은 차남 문경(文卿)의 후손으로 세계를 계승하여 왔다.
역사인물로는 충렬왕 때 금오위별장(金吾衛別將)을 역임한 정부(正父), 충숙왕이 원나라에 억류될 때 호종하고 돌아와 이등공신(二等功臣)으로 통화군(通化君)에 봉해진 천보(千寶), 공민왕 때 홍건적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워 병부상서(兵部尙書)에 올라 오산군(奠山君)에 봉해진 사순(思順),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좌명공신(靖社佐命功臣)에 책록된 영령(永齡)(이상 경파), 세종 때 문과 에 급제하여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과 이조참판을 각각 지낸 찬(瓚)과 필 형제(이상 장흥파), 세종 때 갑산병마절제사(甲山兵馬節制使)와 보공장군(保功將軍)을 겸하였으며, 대호군(大護軍)으로 대마도 정벌 때 순절하여 나라에서 '만장이절(輓章二絶)'과 '충절(忠節)'이란 시호(諡號)를 내린 해(該),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를 지낸 개(漑)(이상 영광파), 영조 때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이조 정랑(吏曺正郞)을 지낸 성헌(聖獻)(이상 무장파), 조선이 개국되자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을 지낸 호(浩), 지평(持平)을 지낸 학중(學中)(이상 양사파),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른 효흥(孝興), 희걸(禧傑),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오른 무지(武只)(이상 용강파), 부사과(副司果)를 지낸 보원(寶元),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지낸 서(恕), 공민왕 때 강계(江界)에 침입한 여진족을 토벌하여 크게 명성을 날린 장혁(長赫)(이상 강계파)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광 김씨는 파주시에 총 51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영광 김씨 경파는 김윤형(金胤亨)을 파시조(派始祖)로 하며 14대조 김율을 입향조(入鄕祖)로 한다. 약 420여 년 전인 조선시대에 파주로 입향하였다.
후손들은 탄현면 오금리에 예전에는 50여 호가 살았으나 현재는 15호 내외가 살고 있다.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 탄현면 오금리 신선산의 선영에서 시제를 지낸다.

영산 김씨(永山金氏)

영산 김씨(永山金氏)의 시조는 김영이(金令貽)이다.
그는 신라 신무왕(神武王)의 넷째 아들 광익(益光)의 후예로 전한다. 후손들은 영이(令貽)를 일세조로 하고 본관을 영산(永山)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영동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 때 길동군(吉同郡)이라 불렀는데, 경덕왕(景德王) 때 영동(永同)으로 고쳤다. 1018년(현종 9) 상주(尙州)에 예속되었는데, 1413년(태종 13) 경상도로부터 충청도에 이관되었다. 1895년(고종 32) 영동군(永同郡)이 되었다. 한때 영산(永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정종(定宗) 때 문과에 급제하고 우찬성(右贊成) 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거쳐 도총관(都摠管)을 지낸 종경(宗敬), 세종과 세조 때의 명신으로 많은 일화를 남긴 수온(守溫)이 있다. 1441년(세종 23) 문과에 오른 수온(守溫)은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로 있으면서 세종의 특명으로 집현전에서 『치평요람(治平要覽)』과 『의방유취(醫方類聚)』 편찬에 참여하였고, 부사직(副司直)에 올라 『석가보(釋迦譜)』를 증수(增修)하였다. 그 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올라 세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1471년(성종 2) 좌리공신(佐理功臣)으로 영산부원군(永山府院君)에 봉해졌다.
그 밖의 인물로는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천거되었던 곤(滾), 효행으로 감찰(監察)에 증직된 언건, 광해군 때 용궁현감(龍宮縣監)을 지낸 각(覺),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지낸 득진(得進)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산 김씨는 파주시에 총 14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 김씨(靈岩金氏)

영암 김씨(靈岩金氏)의 시조는 김숙(金淑)이다.
그가 고려 명종 때 호남염찰사(湖南廉察使)로 영암에 침입한 왜적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워 영암군(靈岩君)에 봉해졌으므로, 관향을 영암(靈岩)으로 삼게 되었다.
영암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에는 월내군(月奈郡)으로 불리웠고, 통일신라 때 영암군(靈岩郡)이 되었다. 995년(고려 성종 14)에 낭주군(郎州郡)이라 개칭되기도 하였으며, 1096년(고종 33) 다시 영암으로 복칭(複稱)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때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한 세정(世貞), 지후(祗侯)를 지낸 융(隆), 첨의평리(僉議評理)를 역임한 한빈(漢斌)한빈(漢斌), 조선개국공신에 오른 호묵(浩默), 공조좌랑(工曹佐郎)·교리(校理)를 거쳐 평안평사(平安評事)를 지낸 희련(希鍊)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암 김씨는 파주시에 총 1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 김씨(英陽金氏)

영양 김씨(英陽金氏)는 중국 봉양부(鳳陽府) 여남(汝南)에서 계출(系出)되었다고 한다. 『영양김씨세보(英陽金氏世譜)』에 의하면 당나라에서 형주자사(荊州刺史) 겸 안렴사(按廉使)를 지낸 김충(金忠)이 사신으로 일본에 가다가 심한 풍랑으로 신라의 영덕군 축산(丑山)에 표착하였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경덕왕(景德王)은 영양을 식읍으로 하사하고 남씨(南氏) 성을 주었으며, 그가 죽은 후 영의(英毅)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석중(錫中)은 본래의 성인 김(金)을 사용하며 영양(英陽)에 뿌리를 내리고, 그의 아들 원(源)으로 하여금 김씨의 혈통을 잇게 하였다.
그 후 세계가 실전되어 고려에서 상호군(上護軍)을 역임한 충황(忠晃)을 일세조로 하고 관향을 영양(英陽)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영양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본래 고은현(古隱縣)이라 불리다가 신라 말에 영양(英陽)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고려에서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을 역임한 상윤(商允),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원(原), 밀직부사를 지낸 예(銳) 등이 있다. 조선에서는 진도군수(珍島郡守)를 지낸 도생(道生), 전객시사(典客시事)를 지낸 이생(理生), 총랑(聰郎)을 지낸 의생(義生), 참판(參判)을 지낸 인배(仁裵), 냈고, 1477년(세종 29)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박사(成均館博士)를 지냈으며 청백리에 녹선된 극행(克行)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양 김씨는 파주시에 총 4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 김씨(永川金氏)

영천 김씨(永川金氏)는 관향이 같으면서도 시조를 달리하는 네 계통이 있으나 상계를 고증할 문헌이 전하지 않는다. 그중 영장(永長)을 시조로 하는 평산파(平山派)를 상고(詳考)한다. 시조 김영장(永長)은 조선에서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을 지내고, 갑자사화로 세상이 혼란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영천(永川)을 떠나 황해도 평산군(平山郡) 보산면(寶山面) 두무리(斗武里)에 은거(隱居)하였다고 한다.

영천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대 골벌국(骨伐國)이던 것을 신라 초기에 절야화군(切也火郡)으로 고쳤는데, 경덕왕(景德王) 때 임고(臨皐)로 하였다. 고려 초에 도동(道同)과 임천(臨川) 2현(縣)을 합하여 영주(永州)로 개칭하였고, 조선에 와서 영천군(永川郡)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군자감판관(軍資監判官)을 지낸 경업(敬業), 군수(郡守)를 지낸 태업(泰業)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천 김씨는 파주시에 총 2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안 김씨(禮安金氏)

예안 김씨(禮安金氏)의 시조는 고려 때 호장을 지낸 김상(金尙)이다. 보승낭장(保勝郞將) 김로(金輅)를 중시조로 하고 있다.

예안은 경상북도 안동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 매곡현(買谷縣)이던 것을, 신라 때 선곡(善谷)으로 고쳐서 불렀다. 고려 때 예안군(禮安郡)으로 승격되고, 충렬왕 때에 한때 선성(宣城)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413년(태종 13) 현(縣)으로 강등되었고, 고종 때 다시 군(郡)이 되었으나, 1913년 안동군(安東郡)에 편입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세종 때의 명신 담(淡)이 있다. 로(輅)의 손자인 그는 역수(歷數)와 관상(觀象)에 밝아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을 만들었으며 일영대(日影臺)와 천문지(天文誌)·전세(田稅)·구등(九等)에 관한 법을 모두 어명에 따라 선정(選定)하였다. 수손(首孫)은 숙량(叔良)의 손자로 성균관대사성과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며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에 참여했다.

그 외 인물로는 대사헌·이조참판 등을 지낸 늑(玏), 임진왜란 때 상주목사(尙州牧使)로 아들 경원(慶遠)과 함께 싸움에서 순절한 해(邂), 영조 때의 동부승지(同副承旨)를 지냈고 뛰어난 문장으로 『두암집(斗庵集)』을 남긴 약연(若鍊), 숙종 때 사간(司諫)으로 우암 송시열(宋時烈)을 탄핵했던 태일(兌一)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안 김씨는 파주시에 총 15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궁 김씨(龍宮金氏)

용궁 김씨(龍宮金氏)의 시조는 김존중(金存中)이다.
그는 경순왕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8세손이다. 전통적인 왕사(王師: 임금의 스승)의 가문에서 출생한 그는, 인종(仁宗) 때 대과(大科)에 급제하여 태자시학(太子侍學)이 되었다. 이후 태자소부(太子少傅)가 되어 한충내보공신(翰忠內輔功臣)으로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이부상서(吏部尙書)·정당문학(政堂文學) 등을 거쳐 수문전대학사(修文殿大學士)를 제수받고 용궁군(龍宮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김존중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용궁(龍宮)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용궁은 경상북도 예천군(醴泉郡)에 속한 지역이다. 신라 때 축산현(竺山縣)·원산현(園山縣)으로 불리다가, 고려 초에는 용주(龍州)라 하였고, 1012년(현종 3)에 용궁현(龍宮縣)으로 개칭되었다.
대표적인 역사인물로는 고려 신종(神宗) 때 예부전서(禮部典書)를 지낸 지철(之鐵),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한 지록(之錄) 형제와 대장군(大將軍) 우(祐)가 있다. 우(祐)의 아들 진(璡)은 1361년(공민왕 10) 형부상서(刑部尙書)로 상장군(上將軍) 이성계의 원군과 합세하여 박의(朴儀)의 모반군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민부전서(民部典書)에 올랐다.
조선에는 세종 때 창령현감(昌寧縣監)을 지낸 전(全), 판관(判官)을 지낸 직(直),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지낸 견호(堅浩), 원주목사(原州牧使)를 지낸 옥광(玉光), 임진왜란 때 순절하여 선무원종일등공신(宣武原從一等功臣)에 뽑힌 태백(太白)은, 임란이등공신(壬亂二等功臣)으로 병자호란 때 전사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공조참판(工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에추증된 황(璜) 등이 있다. 한말에는 독립운동가 홍권(弘權), 항일투사 국현(國鉉) 등도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궁 김씨는 파주시에 총 8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봉 김씨(牛峰金氏)

우봉 김씨(牛峰金氏)의 시조는 김오(金澳)이다.
경순왕의 셋째 아들 영분공(永芬公) 김명종(金鳴鍾)의 맏아들인 그는, 고려 성종(成宗) 때 시어사(侍御史)로 공을 세워 수지의후(首知衣候)에 봉해졌다가 다시 우잠군(牛岑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관향을 우봉(牛峰)으로 삼게 되었다. 오(澳)의 손자 항일(恒逸)이 고려 문종(文宗) 때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내고 보리공신(輔理功臣)으로 잠성군(岑城君)에 봉군됨을 시작으로, 그의 손자 원길(元吉)이 전공도위(典工都尉)로서 우봉군(牛峰君)에, 원갈의 아들 관의(寬毅)는 금성군(錦城君)에, 원길의 손자 질(櫍)은 우령군(牛嶺君) 에 봉해졌다.
우봉은 황해도 금천군(金川郡)의 옛 지명이다. 고구려 때에는 우잠(牛岑)이라 불리다가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우봉(牛峰)으로 고쳤으며, 1652년(효종 3)에 이웃 강음(江陰)과 합쳐 금천군(金川郡)으로 개칭하였다.
우봉 김씨는 조선조에서는 아홉 명의 판서와 다섯 명의 공신을 배출하여 문무를 겸한 문장도덕(文章道德)으로 가문(家門)의 중흥을 이룩하였는데, 세종 때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과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를 지내고 원종일등공신(原從一等功臣)에 오른 탁(鐸)이 유명했으며, 성종(成宗) 때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지낸 지복(之福)은 학행(學行)이 뛰어나 청백리에 녹선되어 명성을 떨쳤다.
한편 1536년(중종 31) 무과(武科)에 급제한 우서(禹瑞)가 갑산(甲山)·부령(富寧)·경원(慶源) 등지의 만호(萬戶)를 거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와 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를 지내고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이르렀으며, 도명(道鳴)은 숙종(肅宗) 대 온성부사(穩城府使)와 청주 영장(淸州營將)을, 정명(鼎鳴)은 여산(礪山)·상주(尙州) 등지의 영장(營將)을 역임하여 부호군(副護軍) 언기(彦基), 절충장군(折衝將軍) 언영(彦英) 등과 함께 유명했다. 현종(顯宗) 때 역과(譯科)에 급제한 지남(指南)은 일본과 청나라에 다녀와서 『신전자초방(新傳煮硝方)』과 『통문관지(通文館志)』를 편찬하여 대외관계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자료를 남겼으며, 경문(慶門)은 1712년(숙종 38년) 역관(譯官)으로서 백두산 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세울 때 통역을 맡았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봉 김씨는 파주시에 총 6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김씨(蔚山金氏)

울산 김씨(蔚山金氏)의 시조는 김덕지(金德摯)이다.
경순왕의 서자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935년(신라 경순왕 9) 10월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신라의 천년사직을 양위하려 하자 형인 일(鎰: 마의태자)과 함께 이를 극력 반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처자를 버리고 형과 함께 개골산(皆骨山)에 들어갔다고 한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와 『울산김씨족보(蔚山金氏族譜)』에는 그가 학성부원군(鶴城府院君)에 봉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세계가 실전되어, 덕지(德摯)의 14세손 환(環)이 고려에서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학성군(鶴城君)에 봉해지고 충숙왕(忠肅王) 때 문숙(文肅)이란 시호를 하사) 받았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울산(蔚山)으로 하게 되었다.
울산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굴아화촌(屈阿火村)인데 파사왕(婆裟王)이 현(縣)을 두었고 경덕왕(景德王)은 하곡(河曲)으로 개명(改名)하여 임관(臨關)의 영현(領縣)으로 삼았으며 고려 태조는 흥려부(興麗府)로 승격시켰다. 그 후 여러 변천을 거쳐 1397년(태조 6) 진(鎭)을 두었고 1413년(태종 13)에는 진(鎭)을 파(罷)하고 울산(蔚山)으로 개칭하여 지군사(知郡事)로 삼았다. 1599년(선조 32) 부(府)로 승격하였고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어 1931년 울산면이 울산읍으로 승격하였으며 1962년 읍이 울산시(蔚山市)로 승격하였다.
대표적인 역사인물로 환(環)의 아들 계흥(季興)이 봉익대부(奉翊大夫)로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냈으며, 증손(曾孫) 온(穩)은 1387년(우왕13)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를 지내고, 이성계를 따라 위화도(威化島)에서 돌아와 이조좌랑이 되었으며, 1395년(태조 4) 회군원종공신(回軍原從功臣)에 책록되고 밀양부사(密陽府使)를 거쳐 1400년(정종 2)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여산군(麗山君)에 봉해졌다.
조선에서는 성리학(性理學)의 대가(大家)인 하서 인후(麟厚)를 들 수 있다. 그는 일찍이 조선 전기의 명신 모재 김안국(金安國)의 제자로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을 연마하여 1540년(중종 35)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고 승문원의 정자(正字)에 등용되었다가 설서(說書)를 거쳐 부수찬(副修撰)에 올랐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신남(信男)은 운봉(雲峰)에서 전공(戰功)을 세워 선무공신(宣武功臣)에 책록되고 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천록(天祿)은 용맹과 지략이 출중하여 정유재란 때 여주판관으로 전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책록되고, 광양군(光陽郡) 옥곡(玉谷)에 정려가 세워졌다. 그 외 광해군 때 문과에 급제하여 부사(府使)를 역임한 종진(宗辰)과 승지(承旨)를 지낸 우휴(羽休),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경휴(敬休), 군수(郡守) 봉우(鳳祐), 교리(校理) 진우(鎭祐), 시독(侍讀) 동수(東洙) 등이 있다. 한말에 와서는 중추원(中樞院)의 의관(議官)을 지낸 대수(大洙), 군수(郡守) 기중(祺中), 법학자 병로(炳魯),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副統領)에 당선된 성수(性洙)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김씨는 파주시에 총 38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울산 김씨 백암공파(白巖公派)는 김덕지(金德摯)를 파시조(派始祖)로 하며 37대조가 파주에 입향하였다. 적성면 구읍3리에 2호가 살고 있다. 매년 10월 1~2일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적성면 마지리 9에 있다.

원주 김씨(原州金氏)

원주 김씨(原州金氏)의 시조는 김거공(金巨公)이다.
그는 경순왕 여덟째 아들 일선군(一善君) 김추(金錘)의 8세손이다. 그는 고려에서 서리(胥吏)와 내시(內侍)를 거쳐 이부상서(吏部尙書)와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판삼사사(判三司事) 등을 역임하고,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를 거쳐 호부상서(戶部尙書)에 이르러 원성백(原城伯)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원주지방에 세거하며 거공을 일세조로 하고 관향을 원주(原州)로 삼게 되었다.
원주는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평원군(平原郡)이라 불리다, 940년(고려 태조 23) 원주(原州)로 고쳤다. 그 후 일신현(一新縣)·정원도호부(靖原都護府)·익흥도호부(益興都護府)·성안부(成安府) 등으로 변천해 오다가 1353년(공민왕 2)에 원주목(原州牧)으로 하였다. 1895년(고종 32) 원주군(原州郡)이 되었으며 1955년 일부가 원주시(原州市)로 승격되고 나머지는 원성군(原城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11세손 연지(連枝)가 조선개국과 함께 명성을 떨쳤는데, 1413년(태종 13) 생원으로 벼슬길에 나가 형조정랑(刑曹正郞) 등 여러 관직을 지내고 세종 때 대사헌으로 봉조하(奉朝賀)에 이르렀으며, 그의 딸이 정종의 아홉째 아들 석보군(石保君) 복생(福生)과 혼인하였다. 충청도 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 말손(末孫)의 증손(曾孫)인 응남(應南)은 선조(宣祖) 때의 문장가(文章家)로 중국에 까지 이름을 떨쳤으며, 임진왜란 때 피난가는 선조를 호종(扈從)하고 돌아와 좌의정(左議政)에 오르고 1604년(선조 37) 호성2등공신(扈聖二等功臣)으로 원성부원군(原城府院君)에 추봉되었다.
그의 조카 두남(斗南)의 아들 준룡(俊龍)은 병자호란 때 근왕병을 이끌고 직산(稷山)을 경유, 용인의 광교산(光敎山)에 진을 치고 유격전을 벌여 청나라 태조(太祖)의 사위인 백양고라(白羊高羅) 장군을 포함한 많은 적병을 사살하는 전공을 남겼다. 준룡(俊龍)의 아들 경문(敬文)은 서예(書藝)에 일가(一家)를 이루었고, 손자(孫子) 덕원(德遠)은 숙종 때 우의정에 올라 폐비 민씨(民氏)의 복위운동을 반대했다.
그 외 덕원(德遠)의 아들 몽양(夢陽)이 대사간을 지냈으며, 후손 몽서(夢瑞)는 목사를, 조윤(曺潤)과 화제(華濟)는 군수를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주 김씨는 파주시에 총 15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 김씨(月城金氏)

월성 김씨(月城金氏)는 관향지(貫鄕地)를 달리하는 두 계통이 있다.
첫째 계통의 월성(月城)은 경상북도 경주의 옛 지명이다. 신라 개국 초기에 사로국(斯盧國)·서라벌(徐羅伐)이라 하였다가 후에 신라로 불려오던 중 65년(탈해왕 9)에 계림(鷄林)으로 고쳤다. 그 후 기림왕(基臨王) 때 다시 신라로 고쳐 불렀으나, 고려가 신라를 합병하여 경주(慶州)라 칭했다가 987년(성종 6)에는 동경(東京)이라 하였다. 1415년(태종 15)에 와서 경주부(慶州府)가 되었고, 1955년 경주시(慶州市)를 설치하면서 나머지 지역을 월성군(月城郡)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 계통은 경순왕의 셋째 아들 영분공(永芬公) 김명종(金鳴鍾)의 16세손 김남길(金南吉)의 아들 형제 중 장자인 김이진(金以珍)을 일세조로 하고 있다. 그는 누대로 월성에 세거하던 사족(士族)의 후예로, 벼슬을 지내며 명문으로서의 기틀을 굳건히 다져왔고, 그의 현손 세천(世天)이 훈련원 판관(訓鍊院判官)을 역임했다. 세천의 맏아들 응록(應錄)은 전서랑(典署郎)을 지냈다. 한편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전투에서 공을 세운 둘째 아들 응복(應福)은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으로 사복시정(司僕寺正)을 지내고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다른 한 계통의 월성(月城)은 조선 말기 황해도 토산(兎山)의 옛 지명이다. 고구려 때 오사함달현(烏斯含達縣)·월성현(月城縣)으로 불리다 통일신라 때 와서 토산현(兎山縣)이 되었다. 그 후 1895년(고종 32) 토산군(兎山郡)으로 승격하였으며 1914년 군(郡)을 폐하여 미원면(美原面)은 신계군(新溪郡)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지역은 금천군(金川郡)에 편입되었다.
이 계통의 시조는 김광우(金光佑)이다. 경순왕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15세손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세종 때 덕천군수(德川郡守)로 나가 있으면서 직간(直諫)을 하다가 평안도 성천(成川)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광우(光佑)를 중시조로 하고 조상의 연고지인 월성(月城)을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문헌에 따르면 평안도 성천군(成川郡) 통선(通仙)에 세거하던 토산 김씨(兎山金氏)의 후손들이 월성 김씨로 개관했다고 한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는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도첨의 찬성사(都僉議贊成事)를 지낸 김부윤(金富允)이 토산 김씨의 시조로 기록되어 있다. 『월성김씨무진보(月城金氏戊辰譜)』에 의하면 중시조 광우(光佑)는 문장과 학행으로 당대에 명성을 떨쳤고, 차남 계안(季安)과 손자(孫子) 거물(巨物)은 기자전 참봉(箕子殿參奉)을 역임하였다. 한편 어모장군(禦侮將軍) 중보(重寶)의 아들 지현(智賢)은 효성(孝誠)과 학행(學行)으로 이름을 떨쳐 세칭 '관서대현(關西大賢)'으로 일컬어졌으며 1615년(광해군 7)에 정려를 받아, 훈련원 봉사(訓鍊院奉事)를 재낸 자감(自堿)과 함께 가문을 빛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 김씨는 파주시에 총 35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 김씨(義城金氏)

의성 김씨(義城金氏)의 시조는 김석(金錫)이다.
그는 경순왕의 다섯째 아들인데, 고려 태조의 외손으로 의성군(義城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의성(義城)을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
의성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삼한 시대 조문국(召文國)이었다가, 신라에 병합되어 757년(경적왕 16) 문소(聞韶)로 개칭되었고, 고려 초에 지금의 의성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의성 김씨는 8세손 공우(公遇)의 아들 대에서 크게 번창하여 세도가문의 기틀을 다졌는데, 큰아들 용비(龍庇)가 태자첨사(太子詹事)를 지냈고, 작은아들 용필(龍弼)은 수사공(守司空)을, 막내 용주(龍珠)는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하여 명성을 날렸다. 그 외 고려에서 가문(家門)을 빛낸 인물(人物)로는 찬성사(贊成事)를 지낸 훤(暄)과 우왕(禑王) 때 도순문사(都巡問使) 광부(光富)가 유명했다. 공조전서(工曺典書)를 지내고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발문(跋文)을 적은 거두(居斗)와 정당문학(政堂文學) 거익(居翼),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춘(椿),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옥(玉), 평장사(平章事) 연(衍) 등이 명문(名門)의 대(代)를 이었다.
조선에 와서는 옥(玉)의 아들 현주(玄柱)가 찬성사(贊成事)와 대사간(大司諫)을 거쳐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이르렀고, 영렬(英烈)은 태종 때 추충분의좌명공신(推奮義佐命功臣)에 올랐다. 존성(存誠)의 아들 효손(孝孫)은 세종 때 병조참의(兵曺參議)를 거쳐 형조 및 예조의 참판을 지내고 대사헌을 역임했으며, 흠조(欽祖)는 중종반정 후에 검열(檢閱)을 거쳐 단양(丹陽)·제주(濟州) 등지의 목사를 역임한 후 판결사(判決事)에 이르렀으며, 윤석(潤石)은 중종 때 등과하여 청송부사(靑松府使)로 나갔다가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를 거쳐 대사성에 올랐다.
조선 중기 의성 김씨를 더욱 빛낸 인물은 모재(慕齋) 안국(安國)과 사재(思齋) 정국(正國)의 형제를 들 수 있다. 안국(安國)은 어려서부터 당대에 이름난 석학(碩學)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고, 연산군(燕山君) 때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어 부수찬(副修撰)과 부교리(副校理)·예조참의(禮曺參議)를 거쳐 경상도와 전라도의 관찰사로 나가 각 향교(鄕校)에 『소학(小學)』을 권장하고 『벽온방(辟瘟方)』, 『창진방(瘡疹方)』 등을 간인(刊印)하여 보급하였다. 그 후 대사헌·대제학·좌찬성(左贊成)을 역임하였으며, 『동몽선습(童蒙先習)』, 『모재가훈(慕齋家訓)』을 비롯한 많은 저서를 남겼다.
안국(安國)의 아우인 사재(思齋) 정국(正國)은 김굉필(金宏弼)의 문하에서 글을 읽고, 1509년(중종 4)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정랑(吏曺正郞)을 거쳐 관찰사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고, 병조·예조·형조의 참판을 지낸 후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시문(詩文)이 당대에 뛰어났고, 의서에 조예가 깊어 『성리대전절요(性理大全節要)』를 비롯한 훌륭한 저서를 많이 남겼다.
그 밖의 역사인물로는 내자시정(內資寺正)을 지낸 극일(克一), 찰방(察訪)을 지낸 수일(守一), 부제학(副提學)·나주목사(羅州牧使)를 역임하여 사성(司成)으로 통신부사(通信副使)가 되어 일본을 다녀온 성일(誠一), 선조 때 대사헌·병조참판 등을 역임한 우옹(宇顒), 대사성·부제학 등을 지낸 우굉(宇宏) 등이 있다. 한말에는 의병대장으로 무공을 세운 하락(河洛), 독립운동가 원식(元植)·동삼(東三)·창숙(昌淑)·붕준(鵬濬)·황(榥)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성 김씨는 파주시에 총 1,85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 김씨(積城金氏)

적성 김씨(積城金氏)의 시조는 김상환(金尙煥)이다.
그는 1669년(현종 10)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벼슬이 감찰(監察)에 이르렀다. 자는 문원(文院)이고 부친은 김몽입(金夢立)이며 평양에서 살았다. 적성 김씨는 1930년 평안북도 평원군 공독면 송매리에 21호, 의주시 탑산동에 10호가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문과 1명, 무과 2명 등 모두 3명의 과거급제자를 배출하였다.
2000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성 김씨는 전국에 208호 66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파주에는 3호 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김씨(全州金氏)

전주 김씨(全州金氏)의 시조(始祖)는 김태서(金台瑞)이다.
경순왕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9세손인 그는, 고려 고종(高宗) 때 문과에 급제하고 1232년(고종 19) 한림학사(翰林學士)를 거쳐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상장군(上將軍) 등을 지냈으며,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와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을 역임하였다. 1254년(고종 4) 식읍(食邑)인 경주가 몽골군에 의해 폐허가 되자 가족을 데리고 전주로 이거하였다. 그가 죽자, 나라에서는 완산군(完山君)에 추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후손들이 관향을 전주(全州)로 삼게 되었다.
전주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백제 때, 완선(完山)·비사벌(比斯伐)·비자화(比自火) 등으로 불리다가 555년(진흥왕 16)에 완산주(完山州)로 하였다. 그 후 경덕왕 때 완(完)을 의역(意譯)하여 전주(全州)로 고쳤고, 공민왕(恭愍王) 때 다시 완산부(完山府)가 되었다. 조선에서 태조의 선조(先祖)가 살았던 고향이라고 하여 완산유수부(完山留守府)로 개칭하였다가 1403년(태종 3) 다시 전주부(全州府)가 되었다.
전주 김씨는 시조 태서(台瑞)의 아들 3형제가 모두 현달하여 명문으로서의 기틀을 다졌다. 장남 약선(若先)은 당대의 세도가인 최우(崔瑀)의 맏사위이며 순경태후(順敬太后: 원종의 비)의 부친으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지냈고, 차남 기손(起孫)은 이부상서(吏部尙書)를 거쳐 원종(元宗)이 즉위하자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이르렀다. 막내 경손(慶孫)은 고종(高宗) 때의 명장(名將)으로 몽골군이 침입하자 정주분도장군(靜州分道將軍)이 되어 나가 싸워 귀주성(龜州城)을 지켰고, 1237년(고종 24) 전라도지휘사(全羅道指揮使)가 되어 이연년(李延年)의 난(亂)을 평정하였다.
그 밖의 역사인물로는 충렬왕의 총애를 받아 대장군(大將軍)에 오른 혼(琿), 충선왕 때 계림군(鷄林君)에 봉해진 자흥(子興), 조선 성종 때 여진정벌에 공을 세운 경(敬),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집하여 낙동강전투에서 공을 세운 치원(致遠), 인조 때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원종일등공신(原從一等功臣)에 책록된 응추(應秋)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 김씨는 파주시에 총 80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 김씨(珍島金氏)

진도 김씨(珍島金氏)는 시조는 김알지(金閼智)의 후예로 전하고 있으나, 상계를 고증할 문헌이 없다. 『신라김씨분종보(新羅金氏分宗譜)』에 의하면 고려에서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낸 김약흥(金奕興)의 후손인 김자경(金自敬)이 조선에서 선무랑(宣務郞)에 오르고 후손들이 진도(珍島)에 토착세거함으로써 본관을 진도(珍島)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와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등에서는 사용(司勇)에 오른 천손(千孫)을 일세조로 기록하고 있으며, 고려 때 삼정(三政)의 하나인 군정(軍政)에 일하던 김국빈(金國儐)을 일세조로 하는 문헌도 있다.

진도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섬으로 본래 백제 때 인진도군(因珍島郡)이었는데 신라에서 진도(珍島)로 개칭하고 무안군에 속하게 하였으며, 고려 때 와서는 나주(羅州)에 속하게 하였다. 1409년(조선 태종 9)에는 해남현(海南縣)과 합하여 해진군(海珍郡)이라 불렀으며, 1895년(고종 32년)에 진도군(珍島郡)으로 고쳤다.

역사인물로는 강도호장(江度戶長)을 지낸 영(榮), 대원수(大元帥)에 오른 일경(一敬), 중종 때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사예(司藝)를 역임한 윤(潤)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도 김씨는 파주시에 총 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위 김씨(振威金氏)

진위 김씨(振威金氏)의 시조는 김승경(金昇景)이다.
그는 조선에서 과의교위 행대호군(果毅校尉行大護軍)으로 함경도 단천에 입북하여 그곳에 정착함으로써 진위 김씨의 시조가 되었다. 『진위김씨세보(振威金氏世譜)』에 의하면 시조 승경은 원주(元柱)의 아들로 지금의 평택군 진위면에서 태어나 세종 때 대호군으로 함경도 단천에 파견되어그곳을 세거지로 굳히면서 조상의 세거지인 진위를 본관으로 삼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진위 김씨의 시조를 김승경의 5세손인 김기문(金起門)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까닭은 김기문이 진위 김씨로서 맨 처음 등과하면서 「과식시지(科式試紙)」에 6대조까지 세거했던 진위를 본향으로 적었고 또 그가 진위 김씨를 세상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진위 김씨가 기문(起門)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와전되었다고 보고 있다. 유일한 문과 급제자 김기문은 여(礪)의 아들로 자는 금숙(禁叔)이고, 1535년(중종 30)생으로 1567년(명종2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형조좌랑·정랑·명천현감 등을 거쳐 진성 도호부사를 지내고 진성군(眞城君)에 봉해졌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위 김씨는 파주시에 총 2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 김씨(晉州金氏)

진주 김씨(晋州金氏)는 동성동본이면서도 연원을 달리하는 두 계통이 있다.
첫째 계통의 시조는 김추(金錘)이다. 김알지(金閼智)의 후손으로 경순왕(敬順王)의 여덟째 아들인 그가 진성군(晋城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관향을 진주(晋州)로 삼았다.
다른 계통의 시조는 김유신(金庾信)의 둘째 아들인 김원술(金元述)이다. 그는 672년(문무왕 12) 당나라가 말갈군과 연합하여 신라를 침공했을 때 출전였는데, 격전 끝에 담릉(淡陵)의 만류로 후퇴했다. 그런데 이 후퇴가 왕명을 어기고 가훈을 더럽혔다고 여겨져,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태백산(太白山)에 들어갔다. 이후 675년(문무왕 15)에 매소성(買蘇城)에서 당군(唐軍)을 크게 섬멸하였으나 끝내 어머니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한탄하여 벼슬을 버리고 세상을 비관하며 진주(晋州)에서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진주(晋州)로 하게 되었다.
진주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 거열성(居烈城)이었는데, 신라 때 거열주(居烈州)라 불렀다. 995년(성종 14) 진주(晋州)라는 명칭으로 처음 불리게 된 뒤, 조선에 와서 진양도호부(晋陽都護府)가 되기도 했다. 이후 진주목(晋州牧)이 되었다.
계통별 역사인물을 살펴보면, 추(錘)의 후손에서 천서(天曙)의 아들 무진(茂珍)이 고려 충혜왕 때 여러 벼슬을 거쳐 집현전태학사(集賢殿太學士)를 역임하고 진양부원군(晋陽府院君)에 봉해져서 크게 명성을 떨쳤고, 그의 맏아들 태(台)는 좌찬성(左贊成)에 올랐다. 조선에서 호조참의를 지낸 중국(重國)과 호조참판을 역임하여 정랑(正郞) 선정(善貞), 찰방(察訪) 철완(鐵完) 등과 함께 가문을 일으켰다.
원술(元述)의 후손(後孫)에서는 암(巖)이 신라 때 당나라에 유학하여 음양학(陰陽學)을 연구하고 『둔갑법(遁甲法)』을 저술했으며 점복술(占卜術)과 은형술(隱形術)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또한 조선에서 감찰(監察)을 역임한 천우(天佑)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장련(長鍊)이 유명했고, 첨정(僉正) 덕수(悳秀)의 아들 양언(良彦)은 광해군(光海君) 때 아버지가 심하(深河)의 전투에서 전사하자 군사를 모아 변방수비에 공을 세웠고 정묘호란 때는 안주(安州)의 방어전에서 분전하다 장렬하게 전사하여 가문을 빛냈으며 뒤에 진흥군(晋興君)으로 추봉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 김씨는 파주시에 총 21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 김씨(鎭川金氏)

진천 김씨(鎭川金氏)의 시조는 김맹아(金孟雅)이다.
신라 태종무열왕 김춘추(金春秋)의 후손으로 전하는 그는, 명주군왕(溟洲郡王: 강릉 김씨의 시조) 김주원(金周元)의 22세손이며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김사혁(金斯革)의 증손이다.
진천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금물노군(今物奴郡)·만노(萬弩)·수지(首知)·신지(新知), 신라 때 흑양군(黑壤郡)·황양군(黃壤郡), 고려 초에 강주(降州)로 불리다가 진주(鎭州)로 개칭되었다. 1259년(고종 46) 창의현(彰義縣)으로 승격되었고, 1413년(태종 13)에 진천(鎭川)으로 고쳐졌다.
『진천김씨세보(鎭川金氏世譜)』에 의하면 진천 김씨는 맹아(孟雅)의 맏아들 빈(檳)의 계통(系統)에서 그의 아들 옥성(玉聲)이 어모장군(御侮將軍)으로 홍원파(洪原派)를 계승(系承)였고, 옥규(玉奎)는 어모장군(御侮將軍)으로 단천파(端川派)를 이루었으며, 맹아의 3남(三男) 봉(鳳)은 종성파(鍾城派)로, 4남(四男) 학(鶴)은 곡산파(谷山派)로 분파(分派)되었다. 그리고 맹아(孟雅)는 봉(鳳)·학(鶴) 두 아들과 옥성(玉聲)·옥규(玉奎) 두 손자를 데리고 입북(入北)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종성파(鍾城派)는 봉(鳳)으로부터 5대(五代)에 이르기까지 독자(獨子)로 이어지다가 상의(尙義)가 아들 3형제를 두어 장남 경인(敬仁)은 참판공파(參判公派)로, 차남 경례(敬禮)는 첨추공파(僉樞公派)로, 막내 경지(敬智)는 군자감공파(軍資監公派)로 하여 선조(先祖)들의 전세거지(前世居地)인 진천(鎭川)을 관향(貫鄕)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역사인물로는 옥성(玉聲)의 아들 휘(輝)가 직장(直長)을 지냈고, 옥규(玉奎)의 아들 숭백(崇伯)은 어모장군(御侮將軍)에 올랐으며, 손자 광조(廣祖)는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이조참의를 역임하였다. 옥규의 증손(曾孫) 응진(應珍)은 벼슬이 대제학에 이르고 창렬공신(彰烈功臣)에 책록되어, 통훈대부(通訓大夫)에 오른 아들 극례(克禮)와 함께 가문을 일으켰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천 김씨는 파주시에 총 2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김씨(昌原金氏)

창원 김씨(昌原金氏)의 시조(始祖)는 김을진(金乙軫, 초명은 광준)이다.
경순왕의 셋째 아들 영분공(永芬公) 김명종(金鳴鍾)의 18세손인 그는, 고려에서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올라 태자첨사(太子詹事)로 동궁(東宮)의 사무(事務)를 관장하였고, 공민왕 때 홍건적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워 회원군(檜原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창원(昌原)으로 하게 되었다.
창원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대에는 금관가야(金官伽倻)에 속했다. 『한국지명연혁고(韓國地名沿革考)』에 의하면 창원(昌原)은 본래 의창현(義昌縣)과 회원현(會原縣)의 합명(合名)이다. 의창(義昌)은 신라(新羅) 때 굴자군(屈自郡) 또는 의안군(義安郡)으로 불리다가 1282년(충렬왕 8)에 의창(義昌)으로 개칭되었고, 회원(회원)은 신라 때의 굴포현(屈浦縣)을 경덕왕(景德王)이 합포(合浦)로 고쳤다가 고려에 와서 회원(會原)으로 개칭하여 1413년(태종 13)에 이르러서 두 현(縣)을 합하여 창원부(昌原府)라 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을진(乙軫)의 아들 왈원(曰元)이 충혜왕 때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내고 상호군(上護軍)에 올라 피난 가는 왕(王)을 호종하여 일등공신의 호(號)를 받았으며, 충정왕(忠定王) 때 판삼사사(判三司事)로 나라에 공을 세워 의창부원군(義昌府院君)에 봉군되어 크게 명성을 떨쳤다.
왈원(曰元)의 손자로 참판을 역임한 갱(鏗)의 아들 3형제 중 장남 맹창(孟昌)이 군수(郡守)를 지내고, 그의 후선에서 부안파(扶安派)와 연천파(連川派)를 이루었으며, 차남 중창(仲昌)은 현감(縣監)을 역임하고 그의 후대에서 금천파(金川派)로 갈리었다. 막내 계창(季昌)은 1462년(세조 7) 문과에 급제하고 예종 때 부제학을 거쳐 이조참판을 지냈으며 후대에서 파주파(坡州派)·상주파(尙州派)·창원파(昌原派) 등으로 나누어졌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 김씨는 파주시에 총 7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도 김씨(淸道金氏)

청도 김씨(淸道金氏)의 시조는 김지대(金之岱)이다.
경순왕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8세손인 그는, 고려 고종과 원종 대의 명신이다. 1217년(고종 4) 거란이 침입하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웠다. 이듬해 문과에 급제하고 전주사록(全州司錄)을 거쳐 보문각교감(寶文閣校勘)에 제수되었으며 전라도안찰사(全羅道按察使)로 나갔다가 돌아와 비서소감(秘書少監)·지공거(知貢擧)·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거쳐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에 승진하였다 1258년(고종 45) 북변에 침입한 몽골군을 격퇴하고 민심을 잘 다스려 서북(西北) 40여 성(城)을 안정시킨 공훈으로 오산군(鰲山君, 오산은 청도의 옛 이름)에 봉해졌다. 원종이 즉위 후 정당문학(政堂文學)과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내고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청도(淸道)를 관향으로 삼았다.
청도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이서소국(伊西小國)의 땅이었으나 신라에 병합되었다가 구도성(仇刀城)의 경내(境內) 솔이산(率伊山)·경산(鷩山)·오도산(烏刀山)의 3성(城)을 합하여 대성군(大城郡)을 두었다. 경덕왕(景德王) 때 와서 구도(仇刀)를 오악현(烏岳縣)으로, 경산(鷩山)을 형산현(荊山縣)으로, 솔이산(率伊山)을 소산현(蘇山縣)으로 고쳐 밀성군(密城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가 고려 초 3성(三城)을 합하여 청도군(淸道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지대(之岱)의 아들 선장(善莊)이 1340년(충혜왕 복위1) 조적(曺頔)의 난(亂)으로 왕이 원나라에 불려갈 때 호종하여 일등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증손(曾孫) 한귀(漢貴)는 공민왕(恭愍王) 때 동경도병마사(東京道兵馬使)로 홍건적을 토벌한 공으로 최영(崔瑩)과 함께 일등공신에 책록되었다. 한귀(漢貴)의 아우 한룡(漢龍)은 홍건적의 침입 때 공민왕을 호종하고 흥룡사(興龍寺)로 갔다가 중신(重臣) 김용(金鏞)이 난을 일으켜 환관(宦官) 안도치(安都赤)와 우정승(右政丞) 홍언박(洪彦博) 등을 살해할 때 함께 순절한 절신이다.
조선에 와서는 세종 때 형조·호조판서를 역임한 점(漸) 세조 때 단종복위를 도모하다가 능주(綾州)의 천태산(天台山)에 은거(隱居)한 차산(次山)이 유명했으며,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한 난상(鸞祥)은 을사사화로 남해(南海)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와 선조 때 직제학(直提學)을 거쳐 대사성에 올랐다.
그 밖의 인물로는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임란공신에 책록된 몽룡(夢龍)과 희방(希邦)이 이름났고, 순조 때 성리학자(性理學者)로 유명한 응하(應夏)는 문하에서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한말에는 고산자(古山子) 정호(正浩)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학문(學問)에 진력하여 정밀한 지도 작성에 뜻을 두고 36여 년간 전국을 돌며 『청구도(靑丘圖)』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완성하여 우리나라 문화사상 불멸의 업적을 남겼다. 태인(泰麟)·태현(台鉉)·외득(外得) 등은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한 독립투쟁에 앞장섰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도 김씨는 파주시에 총 49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송 김씨(靑松金氏)

청송 김씨(靑松金氏)의 시조는 김정기(金正己)이다.
그는 경순왕의 14세손으로 조선 태조 때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역임하고 직간(直諫)을 하다가 태조의 비위에 거슬려 중산(仲山: 지금의 정평)으로 유배되었다. 그 후 청송(靑松)에서 중산부(仲山府) 세유면(細柳面) 세양리(細楊里)로 옮겨 살다가 일생을 마치니, 후손들이 정기(正己)를 일세조로 하고 관향을 청송(靑松)으로 삼아 세계를 계승하였다.
청송은 황해도 송화군(松禾郡)의 옛 지명이다. 고구려 때 마경이(麻耕伊)로 부르던 것을 고려 초 청송현(靑松縣)이라 고쳤다. 조선에 와서 태종이 청송(靑松)과 이웃 가화(嘉禾)를 합하여 송화군(松禾郡)으로 고쳤다.
역사인물로는 정기(正己)의 아들 옥형(玉衡)이 통훈대부로 사헌부 감찰을 역임했고, 손자 보중(寶重)은 통덕랑(通德郞)에 올랐다. 보중의 맏아들 치성(致誠)은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내고 장곡면(長谷面)으로 이거(移居)하였고, 차남 이성(以誠)은 공조의를 역임하였다. 한편 치성(致誠)의 아들 4형제 중 맏아들 계인(繼仁)은 오위(五衛)의 부사직(副詞直)을 지냈으며, 차남 계의(繼義)와 막내 계지(繼智)는 통덕랑(通德郞)에 올랐다. 그 외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 적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순절한 승빈(勝玭)과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한 명종(明宗)은, 사복시정(司僕寺正)을 지낸 대춘(大春)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송 김씨는 파주시에 총 5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김씨(淸州金氏)

청주 김씨(淸州金氏)는 김알지(金閼智)의 후손으로 본관을 같이하면서 시조를 달리하는 세 계통이 있다.

청주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원래 마한 땅이었다가, 백제 때 상당현(上黨縣), 일명 낭비성(娘臂城)·낭자곡(娘子谷)으로도 불렸다. 685년(신라 신문왕 5) 서원소경(西原小京)을 두었고 757년(경덕왕 16)에 서원경(西原京)이 되었으며, 940년(태조 23)에 청주(淸州)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 계통은 경순왕의 여섯째 아들 김정(金錠)의 후손인 보(甫)가 고려에서 금오위대장군(金吾衛大將軍)을 거쳐 상락백(上洛伯)에 봉해지고 청주(淸州)의 구봉산(九峯山) 밑에 은거하여 후손들이 그를 일세조로 계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순왕의 여섯째 아들은 강릉군(江陵君)에 봉해진 김건(金鍵)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확히 고증할 문헌이 없다. 다른 한 계통은 김방경(金方慶: 구안동 김씨 중시조)의 증손 천(蕆)의 아들 사의(士儀)가 고려 말에 벼슬을 버리고 지내다가 조선이 개국되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忠節)로 관직을 버리고 청주에 은거하였는데, 그의 후손 하통(夏通)이 함경도 함흥으로 이거하여 살면서 조상의 원향지(原鄕地)인 청주(淸州)를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마지막 계통은 경순왕의 일곱째 아들 언양군(彦陽君) 김선(金鐥)의 15세 사지(四知)가 연산군 때 참의(參議)를 지내다가 함경도 홍원(洪原)으로 유배되어 그곳에 살면서 조상의 전 세거지인 청주(淸州)를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세 계통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 김씨는 파주시에 총 33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풍 김씨(淸風金氏)

청풍 김씨(淸風金氏)의 시조는 김대유(金大猷)이다.
김알지(金閼智)의 후예인 대장군 김순웅(金順雄)의 12세손인 그는 고려 말에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내고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에 봉해진 후 청풍에 세거하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관향을 청풍(淸風)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청풍은 충청북도 제원군(堤原郡)에 있던 옛 지명이다. 고구려 때 사열이현(沙熱伊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청풍(淸風)으로 고쳤다. 청성(淸城)이라는 별호로도 불렸다.
역사인물로는 길통(吉通)이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호조판서에 올라 1471년(성종 2) 좌리공신(佐理功臣)으로 월천군(月川君)에 봉해지고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이르렀다. 그의 맏아들 순경(順敬)은 판사를 지냈고, 넷째 순명(順命)은 세조 때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하여 적개이등공신(敵愾二等功臣), 성종 때 좌리공신이 되어 청릉군(淸陵君)에 봉해졌다. 숙필(叔弼)의 아들 식(湜)은 현량과(賢良科)에 장원급제하여 부제학(副題學)을 거쳐 대사성이 되었으며, 정암 조광조, 모재 김안국 등과 함께 도학소장파(道學少壯派)를 이루어 제도개혁과 이상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애쓰다가 기묘사화로 유배되었다. 식(湜)의 손자 권(權)은 선조 때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호조참판에 올랐으며, 신국(藎國)은 광해군 때 익사공신(翼社功臣)으로 청릉군(淸陵君)에 봉해졌다. 광해군 때 급제한 시국(蓍國)은 인조 때 우승지(右承旨)·도승지(都承旨) 등을 지낸 후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육(堉)은 실학(實學)에 바탕을 둔 경제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좌명(佐明)은 대사헌·도승지를 거쳐 영의정으로 청릉부원군(淸陵府院君)에 추증되었다. 우명(佑明)은 자기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인 현종이 즉위하자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에 봉해지고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가 되었다.
그 밖에 공조판서에 오른 기후(基厚)·희화(熙華), 좌의정에 오른 약로(若魯), 예조판서에 오른 동헌(東獻)·학성(學性)·만식(晩植), 우참찬(右參贊)에 오른 경성(景善)·익문(益文)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풍 김씨는 파주시에 총 1,21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에 청풍 김씨 관련 유적으로 월롱면 능산리에 있는 청풍김씨열녀비가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충주 김씨(忠州金氏)

충주 김씨(忠州金氏)의 시조는 김남길(金南吉)이다.
경순왕의 셋째 아들 영분공(永芬公) 김명종(金鳴鍾)의 16세손인 그는, 고려에서 벼슬이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렀으며 나라에 공을 세워 충원군(忠原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관향을 충주(忠州)로 하게 되었다.
충주는 충청북도 중원군(中原郡)에 있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 국원성(國原城)·미을성(未乙省)·완장성(薀長城)·탁장성(託長城) 등으로 불리다가 신라에 병합되어 진흥왕 때 이곳에다 소경(小京)을 두었고 경덕왕이 중원경(中原京)으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가 충주(忠州)로 개칭하였다. 그 후 고종 때 국원경(國原京)으로 고쳐 불렀고, 1550년(명종 5) 유신현(維新縣)으로 부르다가 조선 선조 즉위년에 다시 충주(忠州)로 환원되었다. 그 후 1956년 충주면(忠州面) 일원으로는 충주시(忠州市)를 만들고 나머지는 중원군(中原郡)으로 고쳤다.
역사인물로 도민(道敏)은 1466년(세조 12) 문과에 급제하고 이조참의에 올라 직간(稙諫)을 하다가 평북(平北) 철산(鐵山)으로 유배되었고, 그 후 아우 운민(雲敏)은 함남 정평으로 이거하였으며, 도민(道敏)의 둘째 아들 양한(亮漢)은 평북(平北) 벽동(碧潼)으로, 셋째 양희(亮禧)는 평북(平北) 의주(義州)로 옮겨 살면서 후손들이 관서북 지방(關西北地方)에 많이 살게 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주 김씨는 파주시에 총 9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원 김씨(太原金氏)

태원 김씨(太原金氏)의 선계는 명나라라 신종(新宗) 때 등과하여 호부상서(戶部尙書)에 이르고 태원백(太原伯)에 봉해진 김학증(金學曾)의 후예로 전한다. 문헌에 의하면 학증(學曾)은 서기 1598년(명나라 신종 26) 복건성도어사(福建省都御史)로 조칙을 받들고 조선에 건너와 왜군과의 싸움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고 한다. 그의 아들 평(坪)은 희종(熹宗) 때 과거에 급제하여 예부낭중(禮部郞中)을 지내고 한림학사(翰林學士)에 이르렀으며, 1627년(인조 4) 동도(東渡)하여 김해(金海) 대종산(大宗山)에 정착함으로서 우리나라 태원 김씨(太原金氏)의 시원을 이루었다.

태원(太原)은 중국 산서성(山西省)의 성도(省都)이다. 고대 춘추시대의 진양(晋陽)에 해당된다.

역사인물로는 평(坪)의 아들 성손(性遜)이 군자감정(軍資監正)에 추증되었으며, 손자 민현(敏賢)은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에 추증되었다. 성정(成鼎)은 숙종 때 부사과(副司果)와 부호군(副護軍)을 거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겸 오위장(五衛將)을 지냈고, 그의 아우 구정(九鼎)은 통덕랑(通德郞)에 올랐으며, 막내 중정(重鼎)은 효행과 학덕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 외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른 두일(斗鎰)·두조(斗祚),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에 추증된 한성(漢城)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원 김씨는 파주시에 총 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천 김씨(通川金氏)

통천 김씨(通川金氏)의 시조는 김교(金較)이다.
경순왕의 태자 김일(金鎰: 마의태자)의 후손인 그는, 고려 광종(光宗) 때 나라에 공을 세워 통천군(通川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관향을 통천(通川)으로 하게 되었다.
통천은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휴양군(休壤郡)·금뇌군(金惱郡)으로 불리다가, 통일신라 때 금양(金壤)으로 고쳤고, 1285년(충렬왕 11)에 통천방어사(通川防禦使)로 승격되었으며 조선 태종 때 통천(通川)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교(較)의 아들 욱(昱)이 고려에서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를 지냈으며, 증손(曾孫) 위(渭)는 정난공신(靖亂功臣)으로 태사시중(太師侍中)에 올랐다. 위(渭)의 아들 원상(元祥)은 대제학(大提學)에 올라 크게 명성을 떨쳤으며, 그의 아들 수자(守雌)는 한림학사(翰林學士)와 이부시랑(吏部侍郎)을 거쳐 예주방어사(禮州防禦使)를 역임하며 가통(家統)을 이어 충성(忠誠)을 다했다. 한편 조선 선조 때 별시문과에 급제한 빙(憑)은 벼슬이 형조좌랑에 이르렀으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대관(臺官) 백유함(白惟咸)의 무고를 받아 죽임을 당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천 김씨는 파주시에 총 6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평 김씨(坡平金氏)

파평 김씨(坡平金氏)의 시조는 경순왕의 후손으로 전하나 고증할 문헌이 없다.
『파평김씨신해보(坡平金氏辛亥譜)』에 의하면 시조(始祖) 김장수(金長壽)는 염주인(鹽州人)으로 일찍이 당나라 명신 초은(樵隱) 이인복(李仁復)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아 지식이 해박하고 경술(經術)이 뛰어났으며, 1361년(공민왕 10) 상호군(上護軍)으로 홍건적을 격퇴하는 데 공을 세워 중랑장(中郎將) 겸 도지휘사(都指揮使)에 올랐다. 1363년(공민왕 12) 중신(重臣) 김용(金鏞)이 공민왕(恭愍王)이 흥왕사(興王寺)에 있음을 기회로 왕을 시해(弑害)하려고 하자 상장군(上將軍)으로 이를 평정(平定)하려 싸우다가 순절하였다. 난이 평정되자 왕이 그의 절의를 가상히 여겨 일등공신에 책록하고 봉익대부(奉翊大夫)로 개성윤(開城尹)에 추증하였으며 파평군(坡平君)에 추봉(追封)한 후 시호를 충간(忠簡)으로 하사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본관을 파평(坡平)으로 삼게 되었다.
파평은 경기도 파주시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 파해평사(波害平史)·액봉현(額蓬縣)이라 불리다가 경덕왕 때 파평(坡平)으로 고쳐져 내소(來蘇: 양주)의 영현이 되었다. 1398년(태조 7) 서원(瑞原)과 파평(坡平)을 합하여 원평군(原平郡)이라 하고, 1461년(세조 6) 파주목(坡州牧)으로 승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인기(仁奇)가 보승중랑장(保勝中郎將)을 거쳐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가 됨을 시작으로 하여 명문(名門)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장수(長壽)의 현손(玄孫) 효신(孝新)은 1453년(단종 1)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와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거쳐 안주 목사(安州牧使)로 나갔다가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 3형제가 뛰어났다.
맏아들 확(鑊)은 김종직(金宗直)의 문하(門下)에서 글을 읽고 장사랑(將仕郎)에 올랐으나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연루되어 울산(蔚山)에 유배, 중종(中宗) 때 풀려나 후릉 참봉(厚陵參奉)에 등용되었으나 사양했으며 선조(宣祖) 때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차남 석(錫)은 상서원직장(尙瑞院直長)을 지냈고, 막내 대(鐓)는 장사랑(將仕郎)에 올랐다. 파평 김씨는 확(鑊)·석(錫)·대(鐓) 3형제의 후대에서 크게 번성하여 인재공파(忍齋公派)·동향촌파(東向村派)·평양파(平壤派) 등 11파(派)로 나누어졌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평 김씨는 파주시에 총 1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산 김씨(平山金氏)

평산은 황해도에 있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의 대곡군(大谷郡)·다화실(多和悉)이던 것을 신라 때 영풍(永豊)으로 개칭하였으며, 고려 초에 평주(平州)로 고쳤다가, 조선 평산(平山)으로 개칭하였다.
평산 김씨(平山金氏)의 시조는 김승무(金承茂)이다.
그는 경순왕의 셋째 아들 영분공(永芬公) 김명종(金鳴鍾)의 14세손인 평장사(平章事) 궤(軌)의 아들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고려 고종조에 문과에 급제하고 사한(史翰)을 거쳐 시어사(侍御史)에 이르렀으며, 황해도 평산(平山)에 세거한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평산 김씨는 상계를 고증할 자료가 없어 중간계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산 김씨는 파주시에 총 1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 김씨(平壤金氏)

평양 김씨(平壤金氏)의 시조는 김대진(金大振)이다.
경순왕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慇說)의 후손인 그는 고려 때 향공진사(鄕貢進士)를 지내며 나라에 공을 세워 평양군(平壤君)에 봉해졌다. 그 후 중시조 환(環)이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안변도호부사(安邊都護府使) 겸 북청진관 병마절도사(北靑鎭官兵馬節度使)를 지내고 평강(平康)으로 낙향하여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 후손들은 유정파(喩井派)·문봉파(文峰派)·종광파(宗廣派)·광동파(廣洞派) 등 네 파(派)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通報)』에는 1411년(태종 11) 문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낸 김여하(金廬遐)를 평양 김씨의 선조로 기록하고 있다.
평양(平壤)은 평안남도에 있는 지역이다. 고려 태조 때 서경(西京)이라 부르다가 광종 때 서도(西都)로 개정하였고, 목종(穆宗) 때 와서는 호경(好景)이라 하였으나, 1369년(공민왕 18)에 만호부(萬戶部)를 두고 후에 평양부(平壤府)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예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통훈대부(通訓大夫)로 현감을 역임한 윤온(允溫)과 성종 때 등과하여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낸 권(權)이 유명했고, 조선에 와서는 안주교수(安州敎授)를 역임한 준걸(俊傑)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양 김씨는 파주시에 총 24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천 김씨(豊川金氏)

풍천 김씨(豊川金氏)의 시조는 김영주(金英柱)이다. 그는 여러 대에 걸쳐 풍천에 세거해 온 사족(士族)의 후예이다.

풍천은 황해도에 있던 옛 지명이다. 고구려 때 구을(仇乙)·굴철현(屈遷縣)이라 불렸는데, 고려 초에 풍주(豊州)로 고쳤고, 성종 때 도호부(都護府)로 승격하였다. 조선 태종(太宗)이 풍천(豊川)으로 고쳤다. 그 후 은율현(殷栗縣)과 합하여 풍율현(豊栗賢)으로 개칭하였다가 1895년(고종 32) 송화군(松禾郡)으로 합하였고, 별칭(別稱)으로 서하(西河)라 불리기도 하였다.

역사인물로 우석(禹錫)은 병자호란 때 자모산성(慈母山城)에 들어갔다가 인조가 굴욕적인 강화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후세의 충신들에게 좌우명이 되었던 척화시 아래 통곡하고 있는 우석(禹錫)의 목을 치려하자 그는 꿈적도 않고 앉아 있었으며, 그의 열 살 된 아들 응원(應元)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함께 우니 청장도 감동하여 죽이지 못했다고 한다. 인조는 우석(禹錫)의 충절을 기려 정표를 내렸고, 그의 아들 응원(應元)은 가장 어린 나이로 효의 정표를 받은 것으로 후세에 이름을 남겼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풍천 김씨는 파주시에 총 1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창 김씨(咸昌金氏)

함창 김씨(咸昌金氏)는 41년 김해(金海)의 구지봉(龜旨峯)에서 김수로왕(金首露王)과 함께 금합(金盒)에서 태어난 고령가야왕(古寧伽倻王)의 후손이다. 그러나 그 후의 세계를 알 수 없어 덕원군(德原君) 김종제(金宗悌)를 중시조(中始祖)로 하고, 선산군(宣山君) 세순(世珣)과 검교소감(檢校少監) 내(匂)를 각각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잇고 있다.

함창은 경상북도 상주군에 속해 있는 지명이다. 고대의 고령가야국(古寧伽倻國)인데 신라 초에 고동람·고릉군(古陵郡)으로 불렀고, 경덕왕이 고령군(古寧郡)으로 고쳤다가, 고려 광종 때 함녕군(咸寧郡)으로 고쳐 1018년(현종 9) 상주(尙州)에 속하게 하였다.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하였으며 뒤에 상주군(尙州郡)에 합해졌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때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낸 지(砥)와 이부상서(吏部尙書) 효안(孝安), 형부상서(刑部尙書) 효신(孝信) 형제가 뛰어났다. 찬성사(贊成事) 택(澤)의 아들 요(饒)는 공민왕(恭愍王)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문장(文章)과 절행(節行)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홍건적(紅巾賊)이 침입했을 때는 왕(王)을 호종(扈從)하여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찬성사(贊成事)에 올라 일등공신(一等功臣)으로 함녕군(咸寧君)에 봉해짐으로서 가문(家門)을 크게 중흥시켰다. 중서(重瑞)의 아들 이음(爾音)은 조선이 개국된 후 강원도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를 역임했고 효성이 지극하여 나라에서 정문(旌門)을 세웠다.

그 외 임진왜란 때는 격문을 지어 여러 고을에 돌린 융(隆), 숙종 때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명천군수(明川郡守)를 거쳐 울산부사(蔚山府使)로 나가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평정하다가 순절한 시빈(始鑌)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창 김씨는 파주시에 총 16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주 김씨(海州金氏)

해주 김씨(海州金氏)는 동성동본이면서도 시조를 달리하는 두 계통이 있다.
한 계통은 경순왕의 후손으로 고려 말에 안렴사(按廉使)를 지내고 고려가 망하자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켜 벼슬에서 물러나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했던 김사렴(金士廉)을 원조(遠祖)로 하고, 조선에서 전라도사(全羅都事)를 지낸 김문동(金文東)을 중조(中祖)로 하는 계통(系統)이다. 다른 계통은 조선 인조 때 김헌(金巘)이 병조판서로 남한산성을 축조할 때 직간(直諫)을 하다가 해주(海州)로 유배되어 그곳에 살았는데, 그의 7세손 맹(孟)이 평안도로 이거하여 조상의 세거지인 해주(海州)를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
해주는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조선 이후 대방군에 속하여 고죽(孤竹)으로 불렸고, 고구려 때에는 내미홀(內米忽)·지성(池城)·장지(長池) 등으로 불렸다. 통일신라 때 폭지군(瀑池軍)으로 고쳤고, 고려 태조가 해주(海州)라는 이름을 내렸다. 성종 때 와서는 별호로 대령(大寧)·서해(西海)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역사인물로는 문동(文東)의 아들 우한(佑漢)이 연산군 때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대동찰방(大同察訪)을 지냈고, 그의 손자 정(鼎)은 중종 때 등과하여 이조참판을 거쳐 이조판서에 올라 가문을 중흥시켰으며, 정두(鼎斗)는 현감을 역임하여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양호(良浩)와 함께 이름을 떨쳤다.
맹(孟)의 후손에서는 승의부위(承議副尉)에 오른 응(膺)의 아들 세광(世光)이 선무랑(宣務郞)에 올라 상호군(上護軍) 만겸(萬兼), 도정(都正) 계정(啓晶)과 함께 가문을 대표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주 김씨는 파주시에 총 5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평 김씨(海平金氏)

해평 김씨(海平金氏)의 시조는 김훤술(金萱述)이다.
그는 왕건을 도와 고려창업에 공을 세워 개국공신으로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올라 해평군(海平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관향을 해평(海平)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평김씨는 시조 훤술(萱述)에서부터 이후의 세계가 실전되어 고려 때 전직(殿直)을 역임한 태(兌)를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고 있다.
해평은 경상북도 선산군에 속해 있는 지명이다. 파징(波澄)이라고도 불렸는데, 신라 때의 병정현(竝井縣)을 고려 초에 해평군(海平郡)으로 고쳐서 복주(福州: 안동의 옛 이름)에 속하게 하였고, 후에 상주(尙州)와 선산(善山)으로 이속되었다가, 1415년(태종 15)에 해평현(海平縣)으로 강등된 후 선산군(善山郡) 해평면(海平面)이 되었다.
역사인물로 태(兌)의 9세손 수(銖)는 고려 말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대사간(大司諫)·직제학(直提學)·개성부윤(開城府尹) 등의 요직을 지냈으며, 공민왕 때 홍건적을 격퇴하는 데 공을 세워 해평군(海平君)에 봉해지고 조선이 개국되자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1624년(인조 2)에 진사(進士)로 문과에 급제한 주(輳)는 병조정랑(兵曹正郞)을 역임하였다. 성종 때 별시문과에 오른 맹성(孟性)은 정언(正言)을 거쳐 이조정랑(吏曹正郞)이 되었으며 학행(學行)으로 명성을 날렸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평 김씨는 파주시에 총 2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풍 김씨(海豊金氏)

해풍 김씨(海豊金氏)의 시조는 김숭선(金崇善)이다.
그가 고려에서 예부상서(禮部尙書)와 병부전서(兵部典書)를 지내고 해풍부원군(海豊府院君)에 봉해졌기 때문에, 후손들은 관향을 해풍(海豊)으로 하게 되었다.
해풍은 경기도 개풍군(開豊郡)의 옛 지명이다. 본래 고구려의 정주(貞州)를 고려 예종) 때 승천부(昇天府)로 고쳐 지주사(知州事)를 두었다가 1310년(충선왕 2) 해풍군(海豊郡)으로 개칭하였다. 그 후 1442년(세종 24) 이웃 덕수현(德水縣)과 합하여 풍덕(豊德)으로 고쳤으며, 1930년에 개성(開城)의 개(開)자와 풍덕(豊德)의 풍(豊)자를 따서 개풍군(開豊郡)으로 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아들 천일(天一)과 손자 대(岱), 증손(曾孫) 재인(在人)이 고려에서 명성을 떨쳤고, 대사헌 장(樟)의 맏아들 수종(壽宗)은 무과에 급제하고 길주목사(吉州牧使) 겸 길주진관 병마첨절제사(吉州鎭管兵馬僉節制使)를 역임하여 가통(家統)을 이었다. 효행이 '절효처사(節孝處士)'로 이름났던 시창(始昌)은 『삼강록(三綱錄)』에 올랐고 황간(黃澗)의 모현서원(慕賢書院)과 금산(金山)의 경렴서원(景濂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영(煐)은 무과에 급제하고 형조판서를 거쳐 금위대장(禁衛大將)에 올랐다. 건(鍵)은 철종 때 무과에 급제하고 1868년(고종 5) 정헌대부(正憲大夫)로 형조판서에 올라 어영대장(御營大將)을 겸임하였다. 한말에 와서는 연방(然昉)이 왜적에 항거하여 3·1운동에 앞장섰다가 장렬하게 순절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풍 김씨는 파주시에 총 13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천 김씨(熙川金氏)

선산 김씨(善山金氏)에서 갈려진 희천 김씨(熙川金氏)의 시조는 김우(金佑)이다.
경순왕의 여덟째 아들 일선군(一善君) 김추(金錘)의 셋째 아들인 그는, 고려 강종(康宗) 때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나라에 공을 세우고 신호위대장군(神虎衛大將軍)에 올라 온양군(溫陽君)에 봉해졌으므로 관향을 온양(溫陽)으로 하였다. 그러나 13세손 우(宇)가 조선에서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희천군(熙川君)에 봉군되었으므로 그를 중조로 하고 본관을 희천(熙川)으로 고쳤다.
희천은 평안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영토였으나 발해(渤海)를 거쳐 오랫동안 여진족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고려 초에 수복되어 청색진(淸塞鎭)이라 하였다. 1217년(고종 4) 서희(徐熙)가 거란의 침공을 막아 위주방어사(威州防禦使)로 승격되었는데 후에 서희의 이름을 따서 희주(熙州)로 고쳐 개주(价州: 개천) 현감이 겸하게 되었으나 1413년(태종13) 희천(熙川)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 우(佑)의 7세손 용(用)은 고려에서 광정대부(匡靖大夫)에 이르렀고, 백순(伯醇)은 1528년(중종 23)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친 후 외직으로 나가 수원군수(水原郡守)와 의주목사(義州牧使)를 역임하였다. 그 밖에 병조참의를 백균(百均)과 부사 낙(洛), 현감 엄(淹), 병조참의 서진(瑞震), 감찰 양수(養秀), 이조참의 익환(益煥), 호조판서(戶曹判書) 흥순(興順)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희천 김씨는 파주시에 총 2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성 나씨(錦城羅氏)

중국 고대 축융(祝融)의 후예 알려진 금성 나씨는 본래 운성(鄖姓)이었으나 기원전 759년에 나국(羅國)에 봉해진 후손들이 고을 이름을 따서 성(姓)으로 삼은 것이 나씨(羅氏)의 시초가 된다고 한다. 『금성나씨대동보(錦城羅氏大同譜)』에 의하면 축융의 후손 주공(珠公)이 한고조(漢高組) 때 나라에 공을 세우고 예장군(豫章君)에 봉해져서 예장 나씨(豫章羅氏)가 되었다가 그의 후손 지강(至强)이 당(唐)나라 태종(太宗) 때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로 고구려 정벌을 반대하다가 미움을 받자 동래(東來)하여 백제(百濟)의 땅인 발라현(發羅縣: 지금의 나주)에 정착(定着)한 것이 우리나라 나씨(羅氏)의 시원(始原)을 이루었다고 한다.
금성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 때 발라군(發羅郡)이었는데, 경덕왕이 금성(錦城: 일명 금산)으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가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주(羅州)로 개칭하였다. 1011년(고려 현종2) 거란의 2차 침입 때 현종(顯宗)이 이곳에 피난 갔다가 돌아와 목(牧)으로 승격되고 조선 세조 때 진(鎭)을 두었으며 1981년 7월에 영산읍과 나주읍을 통합하여 금성시(錦城市)로 승격되었다.
그런데 계보상(系譜上)에 나타난 금성 나씨의 시조는 고려 초에 삼한벽상일등공신(三韓壁上一等功臣)에 오른 나총례(羅聰禮)이며 그의 아들 은고(恩誥)가 자의대부(資義大夫)로 공빈승(貢賓丞)을 지내고 금산군(錦産君)에 봉해진 것을 시작으로 11세손에 이르기까지 3명이 대광(大匡)의 벼슬에 오르고 4명의 부원군(府院君)과 5명이 봉군(封君)되어 벌족(伐族)의 지위를 차지했다. 한편 판호부사(判戶部事) 득황(得璜)의 아들 유(裕)는 고려 원종(元宗) 때 김방경(金方慶)과 함께 삼별초를 토평했고 충렬왕 때 변경에 침입한 거란을 격퇴시켜 회원대장군(懷遠大將軍)의 호를 받아 가문을 크게 일으켰다.
역사인물로는 금성군(錦城君) 익희(益禧)의 손자 문규(文奎)가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서해도안렴사(西海道按廉使)로 나가 치적(治積)을 남겼으며, 상장군(上將軍) 수겸(守謙)의 9세손 계종(繼從)은 고려에서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을 지내다가 조선이 개국되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가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켰다. 조선 중종과 명종 대에 문명을 떨쳤던 세찬(世纘)은 당대의 권신(權臣)인 김안로(金安老)의 간악함을 탄핵하다가 여러 차례 장류(杖流)당했으나 김안로가 사사되자 호당에 뽑혀 사가독서를 한 후 이조참의를 거쳐 대사헌에 올랐다.
그 밖에 임진왜란 때 향병을 이끌고 이순신 장군의 막하로 들어가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 공을 세우고 장렬하게 순절한 치용(致用), 거북선과 해선(海船)을 제작하는 데 공을 세워 삼지창(三枝槍)과 청룡도(靑龍刀)를 하사받은 대용(大用), 평양성(平壤城) 방어에 공을 세운 승윤(承潤)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성 나씨는 파주시에 총 39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나씨(羅州羅氏)

고대 중국 백익(伯益)의 후예로 전하는 나주 나씨(羅州羅氏)의 시조는 나부(羅富)이다.
중국 강서성(江西省) 예장(豫章)으로부터 건너와 고려에서 정의대부(定議大夫)로 감문위상장군(監門衛上將軍)을 역임하고 나주(羅州)에 정착한 것이 시원을 이루었다. 그러나 상계가 실전되어 부(富)의 후손으로 영동정(令同正)에 오른 득규를 일세조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나주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 발라군(發羅郡)이었고, 경덕왕 때 금산군(錦山郡)으로 고쳤다. 후백제의 견훤이 이곳을 본거지로 삼았고 후에 왕건이 점령하여 나주(羅州)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 가운데, 일세조인 득규의 증손 수영(守永)의 아들 5형제가 모두 현달하여 가문의 중흥을 크게 이루었다. 수영(守永)의 맏아들 위(位)는 고려 때 일찍 출사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한 후 호조전서(戶曹典書)에 제수(除授)되었으나 당시 혼란한 정국을 개탄하며 벼슬을 버리고 나주에 은거자정(隱居自靖)하여 금양처사(錦陽處士)로 불렸으며, 아들 동길(東吉)이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를 지내고 증주목사(甑州牧使)로 나가 자손들이 그 곳에서 잉거(仍居)하면서 용강(龍岡)과 성주(成州) 등지로 이거하여 주로 관서북(關西北) 지방에 집중 세거하며 전서공파(典書公派)의 일족(一族)을 이루었다.
수영의 둘째 아들인 계(桂)는 고려에서 벼슬이 중서시랑(中書侍郞)에 이르렀고, 자손들이 주로 경기도(京畿道)에 세거하며 시랑공파(侍郞公派)를 이루었다. 금양군(錦梁君) 파조인 석(碩)은 고려 때 사온서 직장으로 나라에 공을 세워 금양군(錦陽君)에 봉해졌으며 학문(學問)이 뛰어났고, 나주로부터 김제(金堤)로 이거하여 자손들이 김제파(金堤派)라고도 하였다. 넷째 아들로 연안군파(延安君派)를 이룬 세(世)는 고려 말에 문과에 급제하고 전라도 상원수(全羅道上元帥) 겸 도안무사(都按撫使)를 거쳐 나라에 공을 세워 연안군(延安君)에 봉해졌으며 벼슬이 판도판서(版圖判書)에 이르렀다. 막내아들로 사온서직장(司醞署直長)을 지내고 나주에 세거했던 원(源)은 직장공파(直長公派)의 파조(派祖)가 되었다.
그 밖의 인물로는 세종 때 이조판서 겸 세자시강원찬선(世子侍講院贊善)을 지낸 득강(得康), 전농시정(典農寺正)으로 공을 세워 나성군(羅城君)에 봉해진 공언(公彦), 명종 때 사헌부감찰을 거쳐 청주판관(淸州判官)으로 나간 응허(應虛), 광주유수(廣州留守)를 지내고 판서에 추증된 치온(致溫), 영광군수(靈光郡守)를 거쳐 무장현감(茂長縣監)으로 선무원종일등공신(宣武原從一等功臣)에 책록된 덕신(德愼), 인조 때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진무원종일등공신(振武原從一等功臣)에 오른 덕헌(德憲)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 나씨는 파주시에 총 76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 남씨(固城南氏)

고성 남씨(固城南氏)의 시조는 남광보(南匡甫)이다.
원래 조상의 이름은 김충(金忠)이다. 김충은 당나라 하남성 봉양부 여남(汝南) 사람으로 형주자사를 지냈다. 755년 안염사(安廉使)가 되어 당의 사신으로 일본을 다녀오는 도중에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 신라 유린지(有隣地, 지금의 영덕군 축산면)에 도착하였다. 경덕왕이 영양군(지금의 경북 영양군)에 봉하고 남(南)씨 성을 하사받고 이름을 민(敏)으로 고쳤다고 한다. 남민의 7대손 남진용(南鎭勇)의 셋째 아들이 광보(南匡)이다.
고성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변한 시대에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고사포국(古史浦國)이었다가, 신라에 흡수되어 고자군(古自郡)으로 불렸고, 757년(경덕왕 16)에 고성군(固城郡)으로 바뀌었다. 고려 때 고주(固州)로 확장되었고 후에 철성부(鐵城府)로 승격되었다가, 1018년 현종 9) 고성현으로 강등되었다. 1896년 13도제 실시로 고성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충렬왕 때에 김충의 후손인 홍보·군보·광보 세 명의 형제가 공을 세워 남홍보(南洪甫)는 영양군, 남군보(南君甫)는 의령군, 남광보(南匡甫)는 칠성(고성)군에 봉해져서 각각 세 본관의 중시조가 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성 남씨는 파주시에 총 7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에 고성남씨는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만장산 아래에 고성남씨 9세손 금(琴)의 묘소 북단에 제단하고 고성남씨 참판공 종중에서 매년 음력 10월 1일에 제향을 받들고 있다.
광탄면 창만리 산39-2번지에는 고성남씨 남기와 남금 부자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남기는 고려말에 공안부윤(恭安府尹)을 역임하고 예조판서에 추증된 인물이다. 남금은 1382년(고려 우왕) 문과에 급제하고 1414년(태종14) 철원부사, 1418년(태종18) 병조참의, 이조참의를 거쳐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고 1419년(세종 원년) 경창부윤을 거쳐 1420년(세종2) 판광주목사(判廣州牧使)를 역임했다. 자는 계순이며 호는 도암(道庵)이다. 문장과 경학을 일생동안 닦아 명문석학의 선비들이 그 문하에서 배출되었다.

영양 남씨(英陽南氏)

영양 남씨(英陽南氏)의 시조는 남홍보(南洪甫)이다.
원래 조상의 이름은 김충(金忠)이다. 김충은 당나라 하남성 봉양부 여남(汝南) 사람으로 형주자사를 지냈다. 755년 안염사(安廉使)가 되어 당의 사신으로 일본을 다녀오는 도중에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 신라 유린지(有隣地, 지금의 영덕군 축산면)에 도착하였다. 경덕왕이 영양군(지금의 경북 영양군)에 봉하고 남(南)씨 성을 하사받고 이름을 민(敏)으로 고쳤다고 한다. 남민의 7대손 남진용(南鎭勇)의 첫째 아들이 홍보(洪匡)이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충렬왕 때에 김충의 후손인 홍보·군보·광보 세 명의 형제가 공을 세워 남홍보(南洪甫)는 영양군, 남군보(南君甫)는 의령군, 남광보(南匡甫)는 칠성(고성)군에 봉해져서 각각 세 본관의 중시조가 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양 남씨는 파주시에 총 44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령 남씨(宜寧南氏)

남씨(南氏) 성은 신라 경덕왕 14년 시조 영의공(英毅公) 민(敏)이 왕으로부터 남씨로 사성받은 것이 시초이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남씨는 영양, 의령, 고성 삼관(三貫)으로 나누어졌다. 의령 남씨의 관조(貫祖)는 고려 통헌대부(通憲大夫) 추밀원직부사(樞密院直副使) 남군보(南君甫)이다.

역사인물 중 고려 말에 자헌대부(資憲大夫) 참지문하부사(叅知門下府事)를 지낸 곡은 을진(乙珍)은 나라가 망하자 불사이군의 신념으로 감악산 암굴에 들어가 단식 순절한 절신(節臣)으로 후세의 추앙을 받고 있다. 조선조에는 충경공(忠景公) 재(在)와 강무공(剛武公) 은(誾) 형제가 조선 개국에 훈1등의 공을 세워 중앙 정계에 진출, 재(在)는 의정부 영의정이 되었고, 은(誾)은 증 좌의정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남덕우(南悳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많은 인재가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령 남씨는 파주시에 총 1,38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에 곰시마을의 의령 남씨는 노성공파로서 9대조 남덕훈(南德訓)이 18세기 전반에 파주로 입향 하였다. 입향조의 묘는 웅담리 남산에 있으며 현재 웅담리 곰시마을에 12호가 누대를 이어가고 있다.

함열 남궁씨(咸悅南宮氏)

남궁(南宮)씨는 중국의 주나라에서 기자(箕子)와 함께 건너온 남궁수(南宮修)의 후예로 전한다. 우리나라 남궁씨의 시조는 고려 성종(成宗) 때 대장군(大將軍)에 오른 남궁원청(南宮元淸)이다. 그는 본래 감물아현(甘勿阿縣) 출신으로 김행성(金行成) 등과 함께 송나라에 유학하여 국자감(國子監)에서 공부하고 대과(大科)에 급제했다. 귀국 후 대장군이 되어 여진족을 백두산 북방까지 몰아내는 등 많을 전공을 세워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로 감물아백(甘勿阿伯)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함열(咸悅)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면서 후손 득희(得禧)를 일세조로 계대하고 있다.

함열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속한 지역이다. 백제 때 감물아현(甘勿阿縣)이라 불렸는데, 신라 경덕왕이 함열(咸悅)로 고쳐서 임피군(臨陂郡: 지금의 옥구군 임피면)에 속하게 하였다. 조선 태종 때 이웃 용안(龍安)과 합하여 안열현(安悅縣)으로 고쳤고, 뒤에 다시 함열(咸悅)로 고쳤으나 1913년 익산군(益山郡)에 병합되어 함열면(咸悅面)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득희(得禧)의 아들 신(信)이 고려조에서 호군(護軍)으로 충혜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조적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벽상일등공신(壁上一等功臣)에 올랐다. 판도판서(版圖判書) 경(璟)의 아들 민(敏)은 충숙왕 때 문과에 장원하여 보문각직제학(寶文閣直提學)을 지내고 충목왕(忠穆王)때는 정치관(整治官)이 되어 왕에게 학문을 강론했다. 조선에 와서는 소윤(少尹) 우(祐)의 아들 계(啓)가 태종 때 좌명원종공신(左命原從功臣)에 책록되어 대호군(大護軍)에 올랐으며, 세종조에 정주목사(定州牧使)와 판의주목사(判義州牧使)를 거쳐 사은사(謝恩使)로 명(明)나라에 다녀와서 한성부윤(漢城府尹)·전라도도절제사(全羅道都節制使)를 지내고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에 이르렀다.

왕의 시강관(侍講官)으로 문명(文名)을 떨쳤던 찬(璨)은 군수(郡守) 치(致)의 손자(孫子)로 가문을 중흥시켰다. 1489년(성종 20) 문과(文科)에 급제한 그는 한림원(翰林院)의 여러 벼슬을 거쳐 부제학(副提學)에 올랐으며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나갔다가 연산군의 난정을 개탄하여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갔다. 그 후 무오사화 때 화를 입은 김종직(金宗直)을 비롯한 제현(諸賢)들의 억울함을 신구(伸救)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용안(龍安)에 유배되어 배소에서 죽었다. 찬은 슬하에 필(弼: 현감), 익(翼: 현령), 숙(淑: 지중추부사), 열(說 : 습독) 4형제를 두었는데 이들 모두가 관직을 역임하며 가문의 융성을 이루었다.

한말에는 천재시인으로 명성을 떨쳤던 벽(檗)과 무궁화 역사사건으로 유명한 억(檍)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열 남궁씨는 파주시에 총 25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에 살고 있는 함열 남궁씨는 법원읍 웅담리에 10여호가 살고 있다.

개성 내씨(開城乃氏)

개성 내씨(開城乃氏)는 북한의 개성시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 초에 고려 개성 왕씨 일족을 숙청할 때 화를 면하기 위하여 내씨로 성을 바꾸고 본관을 개성으로 하여 대를 이어 왔다고 전한다. 그러나 세계가 실전되어 조선 현종 때에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역임한 내득균(乃得均, 일명 내득선)을 1세조로 삼고 있다.

『삼국사기』와 『동사강목(東史綱目)』에 신라 소지왕(炤知王)의 비(妃)인 선혜부인(善兮夫人)이 이벌찬(伊伐飡) 내숙(乃宿)의 딸로 기록되어 있고, 『고려사』에는 충혜왕의 사부(師傅)가 내원(乃圓)이었다는 기록이 있어, 역사가 오래된 씨족으로 추정되나, 기록이 부족해 오늘날 내씨와의 관계는 정확히 고증할 수 없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성 내씨는 파주지역에는 모두 23호 5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파주지역에 개성 내씨들이 살고있는 마을은 교하 오도1리 큰마을로 10호가 살고 있다.

개성 내씨는 300여 년전 교하 오도리에 정착하여 오늘에 이른다. 오도리에 시조 내득균(乃得均)과 후손의 묘가 있다.

곡산 노씨(谷山盧氏)

곡산 노씨(谷山盧氏)는 도시조(都始祖) 노수(盧穗: 한림학사)의 아홉째 아들 노원(盧垣)이 고려 초기에 벼슬에 올라 곡산백(谷山伯)에 봉해지고, 후손 조(兆)가 충숙왕 때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하였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곡산(谷山)으로 삼아 원을 득관조(得貫祖)로 하고, 조(兆)를 일세조로 세계를 계승하여 왔다.

곡산은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십곡성(十谷城)이라 불렸는데, 신라 경덕왕 때 진서(鎭瑞)라 개칭하여 영풍군(永豊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초에 곡주(谷州)로 고쳐 성종 때 방어사(防禦使)를 두었다. 조선에 와서는 태조가 현비 강씨(顯妃康氏)의 고향이라고 하여 곡산(谷山)으로 개칭하고 부(府)로 승격하였으나, 태종은 다시 군(郡)으로 격하하였다. 1895년(고종 32) 곡산국(谷山郡)이 되어 개성부(開城府)에 속하였다. 이후 1914년 황해도에 속한 군(郡)이 되었다. 덕둔홀·고곡(古谷)·욕천(浴川)·곡성(谷城)·진서(鎭瑞)·상산(象山) 등의 별칭으로도 불렸다.

역사인물로는 3세손 인철(仁哲)이 예문관(藝文館)의 제학(提學)을 역임했고 그의 손자 중례(重禮)는 중추원 부사(中樞院府使)를 지냈다. 중종 때 별시문과에 급제한 경린(慶麟)은 부사과(副司果) 적(績)의 아들로 학유(學諭)를 거쳐 지평(持平)에 올랐으나, 사사로운 감정을 품었던 진복창(陳復昌)의 탄핵으로 좌천되었으며 성주목사(星州牧使)로 나가 서원(書院)을 세워 유학(儒學)을 장려했고, 숙천부사(肅川府使)로 선정(善政)을 베풀어 명성을 떨쳤다.

그 밖의 인물로는 내금위장(內禁衛將) 오(澳)와 판관(判官) 진(蓁), 감찰(監察) 발(潑), 훈련원정(訓鍊院正) 극제(克悌), 부사과(副司果) 극겸(克謙), 부호군(副護軍) 성린(成麟), 도정(都正) 병준(秉俊)·우현(禹鉉)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곡산 노씨는 파주시에 총 1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에 곡산노씨 관련 유적으로 법원읍 동문리에 있는 노경린(盧慶麟)의 딸로 율곡 이이선생의 부인인 곡산노씨묘가 이이 선생 묘소 후미에 자리잡고 있다.

광산 노씨(光山盧氏)

광산 노씨(光山盧氏)는 도시조(都始祖) 노수(盧穗)의 9형제 중 맏아들 노해(盧垓)가 당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아버지와 함께 건너와 신라에서 광산백(光山伯)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득관조(得貫祖)로 하고 광산(光山)을 관향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계대가 실전되어 광산백(光山伯) 해(垓)의 후손으로 고려 때 정승(政丞)을 지내고 광주군(光州君)에 봉해진 만(蔓)을 일세조로 하는 계통(系統)과 대호군(大護軍) 서(恕)를 일세조로 계대(繼代)하는 계통으로 갈리어 세계(世系)를 계승하고 있다.

광산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곳으로 백제의 무진주(武珍州)였는데, 757년(경덕왕 16)에 무주(武州)로 이름을 고쳤다. 이후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다가, 1935년 광주(光州)가 부(府)로 승격됨에 따라 광산군(光山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대호군(大護軍) 서(恕)의 증손 숭(嵩)이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고 지신사(知申事)를 비롯한 여러 관직을 거쳤고, 이성계를 도와 조선 창업에 공을 세워 개국원종공신에 책록되었으며 태종 때 우의정에 올랐다. 중종과 선조 대에 걸쳐 명신으로 유명했던 수신(守愼)은 1515년(중종 10) 활인서별제(活人署別提) 홍(鴻)의 아들로 태어나 과거에 장원급제 하고 청환요직(淸宦要職)을 역임했으나 간신의 무리들이 그 명성을 시기하여 귀양 보내졌다. 선조 때 다시 등용되어 높은 관직에 오르자 언관(言官)들이 유배지에서 악독하게 굴었던 홍인록을 공격하여 벼슬에서 물러나게 하였는데, 그가 극력 구해(求解)하여 마침내 풍천부사(豊川府使)로 임명받도록 하였다.

그 밖의 인물로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별제(別提)와 찰방(察訪)에 임명되었던 흠(欽), 임진왜란 때 곽재우(郭再祐) 휘하에서 참모로 활약하여 창녕(昌寧)의 화왕산성(化旺山城) 방어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극홍(克弘), 정묘호란 때 고성(固城)에서 의병을 모아 군량(軍糧) 조달에 앞장선 극복(克復),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왕을 호종하여 홍원목사(洪原牧使)를 역임한 준명(峻命)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산 노씨는 파주시에 총 31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노씨(廣州魯氏)

광주 노씨(廣州魯氏)의 시조는 노필상(魯弼商)이다.
그는 여러 대에 걸쳐 광주에 토착해온 사족(士族)의 후예로 조선에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필상(弼商)을 시조로 하고 관향을 광주(廣州)로 삼게 되다.
경기도에 위치한 광주는 마한의 일부였다. 371년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은 이곳을 한성(漢城)이라 불렀다. 553년 신라의 한산주(漢山州)가 되었다가 756년(경덕왕 15) 한주(漢州), 940년(고려 태조 23)에 지금의 광주(廣州)가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필상의 손자 국남(國男)이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돈령(敦寧)인 의관(儀官)과 함께 가문을 대표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노씨는 파주시에 총 73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의 광주 노씨는 조선 태종 때 우의정을 지낸 경평공(敬平公) 숭(嵩)의 후손으로 광주목사와 이조참판을 지낸 광주공(廣州公) 한문(漢文)을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후손들이다. 광주공은 1545년 을사사화 때 파주로 낙향하여 율곡 이이 등과 예학을 가르친 것으로 전하며 후손들은 5개 파로 나뉘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인물로는 경평공과 광주공을 비롯하여 형조정랑과 한산군수를 지낸 한산공(韓山公) 충민(忠民), 승정원 좌승지를 지낸 자장(自璋) 등이 있다.
광주 노씨는 파주의 법원읍 삼방리와 동문리 등에 살고 있으며 매년 11월 첫째주 일요일 동문리 56-7에 있는 율수제(聿修齊)에서 시제를 지낸다. 문중 회장은 노영식이며 부회장은 노영달이다.
광주 노씨 이천공파는 노수의를 파시조(派始祖)로 하며 입향조(入鄕祖)는 노자장이다. 파주에는 16세기 법원읍 가야리 샘재마을에 정착하여 오늘에 이른다. 현재 법원읍 샘재마을에 30여 호가 살고 있으며 파주지역 전체에 100여 호가 살고 있다. 법원읍 동문리 못말산에 입향조(入鄕祖) 노자장의 아들인 노한문의 묘가 있다.

교하 노씨(交河盧氏)

교하 노씨의 시조는 노오(盧塢)이다.
그는 도시조(都始祖) 노수(盧穗)의 둘째 아들로 신라 말에 아버지를 따라 건너와 교하백(交河伯)에 봉해졌다. 『교하노씨세보(交河盧氏世譜)』에 의하면 오(塢)의 후손 강필(康弼)이 신라 말에 기계(杞溪)에 세거하면서 학문이 현달하여 문명을 떨쳤고, 관향을 장산(章山)으로 이관하였다가 태조를 도와 고려 창업에 공을 세우고 통합삼한 개국공신으로 태자태사(太子太師)에 올랐으며 선성부원군(宣城府院君)에 봉해져서 교하(交河)로 복관(復貫)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관향을 교하(交河)로 삼고, 강필(康弼)을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교하는 경기도 파주시에 속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천정구현(泉井口縣)·굴화(屈火)·어을매관(於乙買串)이라 하였고, 신라 경덕왕 때 교하군(交河郡)이라 개칭하였으며, 1018년(고려 현종 9)에 양주(楊州)에 속하였다. 조선에 와서 교하현(交河縣)으로 강등되고 1687년(숙종 13)에 파주군(坡州郡)에 편입되었다가, 1733년(영조 9) 파주군에서 갈리어 교하군으로 승격되었다가 1895년(고종 32)에 다시 파주군에 편입, 그 후 한두 번의 변천을 거쳐 파주군 교하면(交河面)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2세손 안맹(安孟)이 동서면병마사(東西面兵馬使)를 역임했고, 그의 아들 영순(永醇)은 문하시중(門下侍中)과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후 감수국사(監修國史)에 올라 가문을 중흥시켰으며, 이부상서(吏部尙書) 영수(穎秀)의 아들 척(頙)은 경녕옹주(慶寧翁主: 평양공 현의 딸)와 혼인하고 충목왕(忠穆王) 때 좌정승(左政丞)으로 경양부원군(慶陽府院君)에 봉해졌다.
한편 창성군(昌城君) 진(稹: 척의 둘째 아들)의 손자 한(閈)은 임금의 장인인 민제(閔霽)의 딸과 혼인하여 태종(太宗)과 동서지간으로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고, 명나라 사신의 방자한 횡포를 저지시켜 명외교관으로 명성을 떨쳤다. 세종과 성종 대의 명신 사신(思愼)은 돈녕부사(敦寧府事) 물재(物載)의 셋째 아들이며, 상신(相臣) 한(閈)의 손자로 세조 때 익대좌리공신(翊戴左理功臣)으로 선성부원군(宣城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성종 때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가 되어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를 편찬했다. 그 밖에 형조좌랑(刑曹佐郎)을 거친 직(稙), 임진왜란 때 병조참판으로 왕을 호종한 직(稷)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하 노씨는 파주시에 170여 가구 총 77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교하 노씨 공숙공파(恭肅公派)는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으로 경기도관찰사와 한성부윤을 지낸 공숙공 한(閈, 1376~1443)을 파시조(派始祖)로 하며, 영의정을 지내고 『삼국사절 요(三國史節要)』를 편찬한 노사신(盧思愼, 1427~1498)을 파주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후손들로 맥금동 3호, 금촌 5호, 탄현면 대동리 2호, 만우리 3호, 교하동 송촌과 탄현면 법흥리 등에 모두 30호 가량이 살고 있다. 예전에는 교하읍 송촌리 새터골에 80여 호가 살았는데 공릉천 정비사업으로 파주관내로 흩어져 지금은 15호 정도가 살고 있다. 매년 10월 15일 맥금동 산 50 선영 묘역에서 시제를 지내는데 이 곳에는 교하노씨 150여기의 후손 묘가 모여 있다. 문중 회장은 노성남이다.

신창 노씨(新昌盧氏)

신창 노씨(新昌盧氏)의 시조는 노지유(盧智儒)이다.
교하 노씨의 일세조 노강필(盧康弼)의 증손인 그는, 공민왕 때 검교장군(檢校將軍)으로 나라에 무공을 세워 판도판서(版圖判書)에 오르고 신창군(新昌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교하 노씨에서 분적하여 지유(智儒)를 일세조로 하고 신창(新昌)을 본관으로 삼았다.
신창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속한 지역이다. 백제의 굴직현(屈直縣)을 경덕왕이 기량현(祁梁縣)으로 고쳐 온정군(溫井郡: 온양)에 속하게 하였으며, 고려 초에 신창현(新昌縣)으로 개칭하여 1018년(헌종 9)에 천안부(天安府)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그 후 1414년(태종 14)에 온수현(溫水縣)과 합하여 온창(溫昌)이라 하였다가 신창현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아산군(牙山郡)에 속하여 지금의 아산군 신창면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일세조 지유(智儒)의 아들 후(珝)가 고려에서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지냈다. 후(珝)의 손자 순(純)은 사마시(士林派)에 합격했으나 벼슬의 뜻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가 학문에만 진력하며 책을 지으며 일생을 마쳤다. 순(錞)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곽재우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군량 보급을 담당했으며, 이듬해 영변부사(寧邊府使)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고, 정(鋌)은 사재감정(司宰監正)을 역임하여 용양위부호군을 지낸 천익(天翼), 참의(參議) 희창(喜昌)과 함께 가통(家統)을 이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창 노씨는 파주시에 총 1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 노씨(安東盧氏)

안동 노씨(安東盧氏)의 시조는 노만(盧鏝)이다.
도시조(都始祖) 노수(盧穗)의 다섯째 아들인 그는, 고려에서 벼슬길에 올라 출사하여 안동백(安東伯)에 봉해졌고, 후손(後孫) 우(祐)는 고려 때 이부상서(吏部尙書)를 거쳐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한 후 안동(安東)에 세거하였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우(祐)를 일세조로 하고 관향을 안동(安東)으로 삼아 세계를 계승하여 왔다.
안동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대 창녕국(昌寧國)이었는데, 신라 때는 고타야국(古陀倻國)·고창군(古昌郡)으로 불렸고, 왕건이 견훤과 싸워 전공을 세움으로써 안동부로 승격되었다. 그 후 영가군(永嘉郡) 또는 복주(福州)로 개칭되었다가 1361년(공민왕 10)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로 승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일세조 우(祐)의 손자 영길(永吉)이 고려에서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내고 나라에 공을 세워 안동부원군(安東府院君)에 봉해졌다. 아들 숭(崇)은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역임하고 슬하에 아들 4형제를 두었는데 맏아들 원성(元成)은 도원수(都元帥)를, 셋째 원신(元信)은 감무(監務)를, 막내 원명(元明)은 사재감정(司宰監正)과 전서(典書)를 역임하였다. 원명(元明)의 맏아들 담(淡)이 조선에서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역임했고, 그의 아들 윤적(允迪)은 판서를, 손자 경(冏)과 수(秀)는 참판을 역임하였다.
그 밖에 판사평부사(判司平府事)를 지낸 징(澄), 도사(都事)를 지낸 결(潔), 대언(代言)을 지낸 담(湛), 형조참의를 지낸 윤정(允正), 현감을 지낸 인석(仁錫)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동 노씨는 파주시에 총 2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 노씨(長淵盧氏)

장연 노씨(長淵盧氏)의 시조는 노구(盧坵, 일명 점)이다.
도시조(都始祖) 노수(盧穗)의 넷째 아들인 그는, 고려에서 공을 세워 장연백(長淵伯)에 봉해졌고, 아들 안필(安弼)은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거란의 침입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장강군(長康君, 장강: 장연의 옛 지명)에 봉해졌으므로 관향을 장연(長淵)으로 하게 되었다.
장연은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장연(長淵)·장담(長潭)으로 불렸다. 고려 현종 때 옹진군에 속했으며, 1106년(예종 원년)에 처음으로 감무(監務)를 두었다. 그 후 1414년(태종 14) 지금의 목감면(牧甘面) 서쪽에 있던 영강현(永康縣)과 합하여 연강(淵康)으로 개칭하였으며, 후에 청송현(靑松縣: 지금의 신천군 용문면)으로 편입시켰던 해안현(海安縣)을 다시 합치고 장연으로 환원하였다. 1895년) 지방관제 개혁에 따라 군(君)으로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장연노씨을축세보(長淵盧氏乙丑世譜)』에 따르면 도시조 한림학사(翰林學士) 노수(盧穗)가 일세조이다.
역사인물로는 7세손 단(旦)이 고려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시어사(侍御史)·한림학사(翰林學士)를 거쳐 예부상서(禮部尙書)와 좌·우복야(左右僕射)를 지내고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렀다. 그의 후손에서 공민왕 때 일등공신으로 정승을 거쳐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 오른 명신(命臣)은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다. 명신의 맏아들 국주(國柱)는 충목왕조에서 이부판사(吏部判事)를 지내고 창녕(昌寧) 월미촌(月未村)으로 이거하였으며, 둘째 태주(台柱)는 호군(護軍)을 역임했다. 셋째 아들 성주(誠柱)는 삼한삼중대광보국벽상좌명공신(三韓三重大匡輔國壁上佐命功臣)으로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에 올라 크게 명성을 떨쳤으며, 그의 아들 찬(贊)이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으로 문하시중(門下侍中)과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를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연 노씨는 파주시에 총 3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천 노씨(豊川盧氏)

풍천 노씨(豊川盧氏)의 시조는 노지(盧址)이다.
도시조(都始祖) 노수(盧穗)의 셋째 아들인 그는, 고려에서 벼슬길에 올라 풍천백(豊川伯)에 봉해졌다. 그러나 세계가 실존되어 국자진사(國子進士)로 풍천에 세거한 후손 유(裕)를 일세조로 하고 관향을 풍천(豊川)으로 하였다.
풍천은 황해도에 있던 옛 지명이다. 고구려 때 구을(仇乙)·굴철현(屈遷縣)이라 불렸는데, 고려 초에 풍주(豊州)로 고쳤고, 성종 때 도호부(都護府)로 승격하였다. 조선 태종(太宗)이 풍천(豊川)으로 고쳤다. 그 후 은율현(殷栗縣)과 합하여 풍율현(豊栗賢)으로 개칭하였다가 1895년(고종 32) 송화군(松禾郡)으로 합하였고, 별칭(別稱)으로 서하(西河)라 불리기도 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세종 때 『치평요람(治平要覽)』의 편찬에 참여하여 문명을 떨친 숙동(叔仝)이 대사헌을 지내고 청백리에 녹선되었으며, 손자 우명(友明)은 정여창(鄭汝昌)에게서 학문(學問)을 배우고 형 우량(友良), 아우 우영(友英)과 함께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삼주(三珠)>로 불렸고,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의 추천으로 현릉 참봉(顯陵參奉)이 되었으나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되었다. 한편 우명(友明)의 아들 4형제 중 둘재 진(禛)은 30여 년 간 벼슬길에 있으면서도 청백하기로 이름났다.
그 밖에 임진왜란 때 동래성을 지키다가 순절한 개방(蓋邦), 인조 때 사림(士林)의 존경을 받아 '팔미군자(八美君子)'의 별호(別號)가 붙었던 형하(亨夏), 무과에 급제하고 함경북도병마절도사(咸鏡北道 兵馬節度使)를 지낸 전(銓), 호조참판을 지낸 광두(光斗)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풍천 노씨는 파주시에 총 24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주 노씨(海州盧氏)

해주 노씨(海州盧氏)는 광산백(光山伯) 해(垓)의 후손으로 광산 노씨의 일세조가 된 노서(盧恕)의 후손 시헌(時憲)이 조선 태종 때 해주로 이거하였으므로, 후손들이 광산 노씨에서 분적하고 시헌(時憲)을 일세조로 하여 해주(海州)를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
해주는 황해도에 있는 지역이다. 고조선 이후 대방군에 속하여 고죽(孤竹)이라 불렸고, 고구려 때는 내미홀(內米忽)·지성(池城)·장지(長池)라 불리다가, 통일신라 때 폭지군(瀑池郡)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에 와서 태조가 본군의 남쪽이 대해(大海)에 임하고 있다고 하여 해주(海州)라는 이름을 내렸다. 성종 때는 대령(大寧)·서해(西海) 등의 별호로 불리기도 했다.
역사인물로는 시헌(時憲)의 7세손 용수(龍壽)가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고, 후손 열지(悅之)는 현감을, 광협(光協)은 예조정랑(禮曹正郎)을 수(修)는 좌랑(佐郎)을, 계종(繼宗)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성지(性之)는 부사(府使)를 지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주 노씨는 파주시에 총 2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 노씨(江華魯氏)

강화 노씨(江華魯氏)의 시조는 노용신(魯龍臣)이다.
그는 고려 명종 때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내고, 고종 때 몽골군이 침입하여 강화로 천도할 때 강화현령(江華縣令)으로 공을 세워 강화군(江華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관향을 강화(江華)로 하였다.
강화(江華)는 경기도에 위치한 섬이다. 문헌에 의하면 아득한 옛날에는 갑비고차(甲比古次), 고구려 때에는 혈구군(穴口郡), 신라 때는 해구군(海口郡)으로 불렸다. 그 뒤 서기 940년(고려 태조 23) 현재의 지명인 강화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용신의 아들 유(維)는 고려조에서 상서(尙書)를 지냈고, 손주 충(种)은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를 역임하여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몽량(夢良)과 함께 대를 이어 가세를 중흥시켰다. 조선에 와서는 참의를 역임한 신손(伸遜)과 그의 아들 춘근(春根)이 유명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화 노씨는 파주시에 총 8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 노씨(咸平魯氏)

함평 노씨(咸平魯氏)의 시조는 노목(魯穆)이다.
그는 고려 인종 때 통훈대부(通訓大夫)로 삼가현감(三嘉縣監)이 되어 권신 이자겸)을 축출하는데 공을 세워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오르고 가수군(嘉樹君, 가수는 경남 합천군에 있었던 신라와 고려 때의 지명)에 봉해졌다가 함풍군(咸豊君)에 가봉(加封)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후손들이 함평(咸平)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계승하여 왔다.
함평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함풍(咸豊)과 모평(牟平) 두 2현(縣)의 이름을 합한 것이다. 함풍현(咸豊縣)은 본래 백제의 굴내현(屈乃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함풍현으로 고쳤고, 모평현(牟平縣)은 다지현(多只縣)을 다기현(多岐縣)으로 개칭하고 무안군(務安郡)에 이속되었다가 고려 태조 때 모평현(牟平縣)으로 하였다. 그 후 1409년(태종 9) 함풍현과 모평현을 병합하여 함평(咸平)으로 개칭되었다.
함풍군 신(愼)의 아들 3형제 대에서 크게 3갈래로 나뉘어 장자 성안(成顔)의 계통은 나주파(羅州派)로, 둘째 희안(希顔)의 후손들은 무안파(務安派), 막내인 유안(有顔)은 함평파(咸平派)로 갈렸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목(穆)의 증손 관도(貫道)가 고려 때 수문전 태학사(修文殿太學士)를 지내고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올랐고, 7세손 신(愼)은 공민왕 때 홍건적을 토벌하는 공을 세워 일등공신에 올랐으며, 1363년(공민왕 12) 김용(金鏞)의 반란을 평정하고 경성(京城)을 수복하는데 공을 세워 상장군(上將軍)이 되고 함풍군(咸豊軍)을 습봉하였다.
조선에 와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무공을 떨쳤던 인(認)이 일본에 포로가 되어 잡혀 갔다가 탈출하여 명나라 무이서원(武夷書院)에서 정주학(程朱學)을 강론하였는데, 명나라 신종(神宗)은 “충(忠)은 문천상(文天祥 : 송나라 말기의 충신)고 같고 절(節)은 소무(蘇武 : 한나라 때의 절신)와 같다”고 칭찬하며 말을 하사하여 본국에 돌아가게 하였다. 1599년(선조 32)에 귀국한 인(認)은 무과에 급제하고 옹진과 수원을 다스렸으며 『금계집(錦溪集)』을 남겼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막하에서 진영장(鎭營將)으로 무공을 세워 원종이등공신(原從李等功臣)에 책록된 홍(鴻)은 훈련원부정(訓鍊院副正)을 지냈으며, 정유재란 때는 당포(唐浦)에 침입한 왜적을 격퇴시켰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평 노씨는 파주시에 총 21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 당씨(密陽唐氏)

당씨(唐氏)는 중국 진양(晋陽)에서 계출(系出)된 성씨(姓氏)로서 본래 도당씨(陶唐氏: 제요를 일컫음)의 후예가 당나라 제후(諸侯)에 봉해져서 나라 이름을 성(姓)으로 삼은 것이 시초가 된다고 한다. 『밀양당씨세보(密陽唐氏世譜)』에 의하면 우리나라 당씨(唐氏)는 위(魏)나라 때 대부(大夫)였던 당저(唐雎)의 후손으로, 송나라 휘종조(徽宗朝)에서 승상(丞相)에 올랐던 당각(唐恪)의 7세손 당성(唐誠)이 절강성(浙江省) 명주(明州) 출신으로 원나라 말기에 건너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조선개국 초에 공조전서(工曹典書)로서 외교문서를 전담 관장하였고 개국원종공신 책록되어 녹권(錄券)과 상전(賞田) 15결(結)을 하사받았으며, 가선대부(嘉善大夫)로 개성 유수(開城留守)를 거쳐 공안부윤(恭安府尹)에 이르러 밀양(密陽)을 사적(賜籍) 받아 본적을 밀양으로 하게 되었다.

밀양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변한의 일부로 가락국(駕洛國)에 속하였으며, 법흥왕 때 신라에 병합되어 추화군(推火郡)이 되었다가 757년(경덕왕 16) 밀성군(密城郡)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에 와서 995년(성종 16)에 밀주(密州)로 하였고, 1390년(공양왕 2) 밀양부(密陽府)로 승격, 그 후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듭하다가 1895년 밀양군(密陽郡)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성(誠)의 맏아들 몽현(夢賢)은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중추원사(中樞院使)를 역임했고, 차남 몽량(夢良)은 가선대부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원사공(院使公) 몽현(夢賢)의 손자 유징(有徵)이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영광군수(靈光郡守)를 역임했고, 그의 맏아들 언우(彦佑)는 상호군(上護軍)을, 둘째 언필(彦弼)은 경원도호부사(慶源都護府使)를 역임했으며, 막내 언량(彦良)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무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

그 밖에 충좌위부사과(忠佐衛副詞果)를 지낸 효원(孝元), 통훈대부에 오른 적(勣),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과 봉상시정(奉常寺正)·사복시정(司僕寺正) 등을 진내 윤문(允文),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된 득흥(得興)·계흥(繼興), 대호군(大護軍)을 지낸 윤흥(胤興), 사재감첨정(司宰監僉正)을 지낸 호건(好健), 훈련원부정(訓鍊院副正)을 지낸 건(健)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양 당씨는 파주시에 총 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 도씨(星州都氏)

도씨(都氏)는 중국 여양(黎陽) 사람인 도계(都稽)가 한무제(漢武帝) 때 복파장군(伏波將軍)으로 여가(呂嘉)의 반란을 평정하여 도씨(都氏)로 수성(受姓)한 것이 시초가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도씨(都氏)는 도계(都稽)의 후손 도조(都祖)인데, 중국 전한의 왕인 성제(成帝) 때 고구려에 건너와서 동명왕의 맏아들 유리를 왕위에 오르게 하는 등 공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전고대방(典故大方)』과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의 문헌에는 백제 개루왕(蓋婁王) 때의 정승 도미(都彌)를 도씨(都氏)의 시조로 기록하고 있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도미에 대한 일화가 전해진다.
성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대 성산가야국(星山伽倻國)인데 신라가 멸망시켜 본피현(本彼縣)이라 하다가 757년(경덕왕 16) 산안현(新案縣)으로 개칭하여 성산군(星山軍)에 속하였다. 그 후 벽진군(碧珍軍)으로 고쳤고 940년(고려 태조 23) 경산부(京山府)로 개칭하였다가 경종(警鐘)이 강등하여 광평군(廣平郡)이 되었으나 995년(성종14) 대주도단련사(岱州都團練使)를 두었으며 현종 때 다시 경산부(京山府)로 승격하였다. 충렬왕 때 흥안도호부(興安都護府)로 승격한 후 성주(星州)로 고쳐 목(牧)을 두었고 충선왕이 다시 경산부로 강등하였으나 조선 태종이 어태(御胎)를 이곳의 조곡산(祖谷山)에 봉안하고 성주목(星州牧)으로 승격하였다. 1895년 성주군(星州郡)으로 개칭되었다.
고려 창업에 공훈을 세웠던 도진(都陳)이 정승에 올라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에 봉해지고 식읍으로 하사받은 성주(星州)에 세거하여 후손들이 성주(星州)를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한편 『성주도씨족보(星州都氏族譜)』에 의하면 고려 원종 때 전리상서(典理尙書)를 지낸 도순(都順)을 일세조로 하고, 전서공파(典書公派)·판서공파(判書公派)·중랑장공파(中郎將公派)·시승공파(侍丞公派)·찬성공파(贊成公派)·시중공파(市中公派)·봉차령공파(奉車令公派)등 크게 7파(派)로 갈라져서 세계(世界)를 계승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인물로는 고려에서 일세조 순(順)의 아들 충박(忠朴)이 전리상서(典理尙書)를 역임했고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지낸 유도(有道)와 종부시판사(宗簿寺判事)에 추증되어 성산군(星山君)에 봉해진 유덕(有德)을 아들로 두어 이들이 성주 도씨의 양대산맥을 이루었다. 순(順)의 현손인 홍정(洪正)은 고려 때 동양창판관(東陽倉判官)을 거쳐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추증되고 칠곡부원군(漆谷府院君)에 봉해진 효안(孝安)의 셋째 아들로 출생하여 공민왕 때 벽상공신(壁上功臣)으로 삼중대광보국문하시중(三重大匡輔國門下侍中)에 오르고 칠곡부원군(漆谷府院君)에 봉해져서 크게 명성을 떨쳤다.
그 밖에 우왕 때 왜구를 격퇴시켜 대광보국숭록대부로 문하첨의찬성사(門下僉議贊成事)에 오르고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에 봉해진 길부(吉敷), 두문동(杜門洞) 72현의 중심인물인 응(膺), 공민왕 때 왜구를 격퇴하고 상원수(上元帥)에 오른 흥(興), 조선 중종 때 현량과(賢良科)에 올라 호조·병조(兵曹)의 좌랑(佐郞)을 지낸 형(衡), 보성군수(寶城郡守)를 지낸 영성(永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을 역임한 석훈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주 도씨는 파주시에 총 28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천 동씨(廣川董氏)

광천은 중국의 화북성(華北省) 조강현(棗强縣)에 속한 지역으로 지금의 북경 근처이다. 동씨(董氏)의 연원은 기원전 2,250년경 황제의 6세손 류숙안(飂叔安)의 아들 보(父)가 순임금으로부터 동씨(董氏) 성을 하사받은 것이 시초가 되며, 계보는 전한(前漢)의 대학자(大學者) 동중서(董仲舒)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 동씨(董氏)는 동중서(董仲抒)의 43세손인 동승선(董承宣)이 고려 말에 명나라 접위사(接慰使)로 건너와 조선개국과 함께 출사한 후 나라에 공을 세워 영천군(榮川君, 영천: 지금의 경북 영주)에 봉록되고, 벼슬에서 물러나 함경도 북청(北靑)의 이곡(泥谷)에 세거하면서부터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특히 동씨는 처음에 승선(承宣)의 봉군지였던 영천(榮川)을 관향으로 쓰게 되었고 함경북도 명천(明川) 지방에 살던 후손들은 원주(原州)로 칭관(稱貫)하는 등 동원(同源)이면서도 관향을 달리하여 불렀다.

그 후 단종조에 이첩(移牒: 관청으로 보내는 통첩)으로 다시 영천이라 하였으나 정유재란 때 명나라 제독으로 원병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건너온 동일원(董一元)의 소장문서를 근거로 하여 시조 동중서(董仲抒)의 출생지인 중국 광천(廣川)을 본관으로 삼았다.

한편 승선의 아우 인선(印宣)은 명나라 홍무년간(洪武年間: 1368~1398)에 서달(徐達)의 천거로 태조조에 지휘사(指揮使)가 되어 전공을 세움으로써 이부상서(吏部尙書)에 올랐다.

그리하여 광천동씨(廣川 董氏)는 강도상(江都相) 동중서(董仲舒)를 시조로 삼고 영천군(榮川君) 승선(承宣)과 이부상서(吏部尙書) 인선(印宣)을 각각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동씨의 본관은 광천·광주(廣州)·영천(榮川)·풍천(豊川) 등 25본이 문헌에 전해지나 모두가 동원분파(同源分派)로 추정된다.

역사인물로는 공조시랑(工曹侍郞)에 오른 덕란(德蘭)은, 공조전서(工曹典書)에 오른 보하(寶夏)·상하(尙夏), 태자태보(太子太保)에 오른 학정(學政), 안주목사(安州牧使)를 지낸 창순(昌順), 이괄의 난 때 향병(鄕兵)을 일으켜 난을 평정하는 공을 세워 진무원종일등공신(振武原從一等功臣)에 책록된 응란(應蘭), 용양위부호군(龍衛副護軍)을 지낸 혜진(惠震),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을 역임한 정란(廷蘭)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천 동씨는 파주시에 총 2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 류씨(高興柳氏)

고흥 류씨(高興柳氏)의 시조는 류영(柳英)이다.
그는 고려 개국 후 흥양 지방의 호장(戶長)이었는데, 7세손 청신(淸臣)이 충선왕 때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를 거쳐 삼한삼중대광도첨의정승(三韓三重大匡都僉議政丞)에 올라 고흥부원군(高興府院君)에 봉해졌으므로 관향)을 고흥(高興)으로 하게 되었다.
고흥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려 초에 고이부곡(高伊部曲)이었는데, 1285년(충렬왕 11)에 고흥현(高興縣)이라 개칭하고 현감을 두었다. 조선 태조 때 보성군(寶城郡) 조양현(兆陽縣)으로 개편되었다가, 1441년(세종 23)에는 장흥부(長興府) 두원현(豆原縣)으로 바꾸고 보성군 남양현(南陽縣)을 분할 편입하여 흥양(興陽)이라 칭하고 현감을 두었다. 1914년 고흥군(高興郡)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청신의 손자 장(莊)과 탁(濯)·준(濬)이 유명했다. 장(莊)은 고려 말 어지러운 정국을 개탄하여 벼슬을 버리고 부모와 함께 천안(天安)으로 내려가 할아버지 청신이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얻어온 호도 번식을 적극 장려하였다. 고려 말에 기재(奇才)로 많은 일화를 남겼던 탁(濯)은 '장생포곡(長生浦曲)'을 지어 악부(樂府)에 올렸다. 조선 창업에 공을 세웠던 준(濬)은 조선이 개국되자 검교참찬 문하부사로 고흥백(高興柏)에 봉해졌으며 정종 때 판삼사사(判三司事)로 치사(致仕)하였다.
그 밖에 태종 때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오른 습(濕), 임진왜란 때 선무원종공신으로 책록된 충서(忠恕), 어영대장(御營大將)으로 구월산(九月山) 적을 토벌하여 형조판서에 오른 세웅(世雄), 『어우야담(於于野談)』으로 유명한 몽인(夢寅), 임진왜란 때 한산도(閑山島) 싸움에서 전사하여 선무원종일등공신에 책록된 의신(義臣) 등이 있다.
한말에는 고종 때 척양척왜(斥洋斥倭)를 강렬하게 주장했던 중교(重敎), 김홍집(金弘集)의 친일내각 구성에 항거했던 인석(麟錫), 하동(河東)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의 기관을 습격하다가 중상을 입고 체포되어 단식으로 옥사한 병우(秉禹), 철종 때 가재를 털어 흥호학교(興湖學校)를 설립했던 중권(重權), 의병대장으로 80여 명의 동지들과 은진(恩津) 왕성골에서 왜병을 크게 섬멸한 중화(重和)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흥 류씨는 파주시에 총 8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고흥 류씨는 운정 3동과 탄현면 일원에 살고 있으며 매년 10월 초 정일(丁日) 충남 천안시 광덕면 영밀골 부조묘에서 시제를 지낸다.
고흥 류씨 춘천파(부학공파)는 류숙을 파시조(派始祖)로 하며 100년 전쯤 선조 류화상이 춘천에서 금촌으로 옮겨와 정착하여 오늘에 이른다. 금촌 22길에 4호가 살고 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춘천 남면 가장리에서 시제를 지낸다.

문화 류씨(文化柳氏)

류씨(柳氏)는 황제 헌원씨(軒轅氏)의 후예(後裔)로 전한다. 문헌에 따르면 그의 후손들은 성과 이름을 여러 차례 바꿨다고 한다. 그러던 중 차무일(無一)의 33세손 승색(承穡)이 신라 애장왕(哀莊王) 때 좌상(左相)으로 국정(國政)을 다스리다가, 809년(헌강왕 1) 병부령(兵部令)으로 있던 왕의 숙부 언승(彦昇)이 난을 일으켜 애장왕을 죽이고 헌강왕(憲康王)이 됨으로 전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들 공숙(恭叔)과 함께 헌강왕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하자 황해도 구월산(九月山) 아래 묵방동에 은신하고 조모님의 성인 양씨(楊氏)를 모방하여 류(柳)로 고치고 이름을 색(穡), 아들은 숙(叔)으로 고쳤다.

역사인물로 색(穡) 6세손 해(海)가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할 때 여 고려 창업에 공을 세우고 익찬벽상공신(翊贊壁上功臣)에 올랐다. 태조 왕건은 '차달(車達)'이란 이름을 하사했다고 한다. 차달(車達)의 두 아들 증 장남 효전(孝全)은 본성(本姓)인 차씨(車氏)를 잇게 하여 종적(宗籍)을 연안(延安)으로 하게 했으며, 차남 효금(孝金)에게는 류씨(柳氏)를 계승하게 하고 본관을 유주(儒州)로 하였으나, 지명의 문화로 바뀌자, 본관도 같이 바뀌었다.

문화는 황해도 신천(信川)에 속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궐구현(闕口縣)으로 고쳐 부르다가, 고려 초에 유주(儒州)로 개칭하였고, 성종(成宗)이 시령(始寧)이라는 별호(別號)를 내렸다. 1018년(현종 9) 풍주(豊州)에 예속시켰다가 고종 때 문화현(文化縣)으로 승격하여 조선 때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1895년) 군(郡)으로 승격하였으나 후에 신천군(信川郡)에 편입 문화면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공권(公權)이 고려 명종 때 정당문학(正當文學)과 참지정사(參知政事)등을 지내고 문장과 글씨로 명성을 떨쳤다. 아들 언침(彦沉)과 택(澤)으로부터 크게 두 갈래로 갈라져서 문화 류씨의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되었다. 상장군(上將軍) 언침(彦沉)의 후손에는 판관(判官) 안택(安澤)의 아들 관(寬)이 유명했다. 1371년(공민왕 20) 문과에 급제한 그는 고려조에서 20년간 벼슬하였고, 조선이 개국된 후 4대의 왕조를 거치면서 35년간을 입사하여 도합 55년 동안 주요 관직을 지냈다. 관(寬)의 아들 중 계문(季聞)은 세종 때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와 형조판서를 거쳐 개성부유수(開城部留守)를 지냈다.]

그 밖에 참판을 지낸 권(瞡),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에 오른 담년(聃年), 위화도회군 때 공을 세우고 일등공신으로 찬성사에 오른 만수(曼洙), 영의정에 오른 정현(廷顯),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이듬해 저작랑(著作郎)이 되어 『의방유취(醫方類聚)』 편찬에 참여했으며 집현전학사(集賢殿學士)로 세종의 총애를 받고, 훗날 사육신으로 유명한 성원(誠原), 정조 때 북학파(北學派)에 속한 실학자로 박제가(朴齊家)·이서구(李書九) 등과 더불어 '한문신파사가(漢文新派四家)'로 불린 득공(得恭)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 류씨는 파주시에 총 52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문화 류씨 검한성공파는 류원현을 파시조(派始祖)로 하며 13대조 류시화(1564~?)를 입향조(入鄕祖)로 한다. 교하읍 동패3리에 3~15호가 살고 있으며 매년 10월초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동패리이다.

류만수를 파시조(派始祖)로 하는 좌상공파는 4대조 류원영(1882~1927)이 입향조(入鄕祖)이다. 탄현면 문지레에 10~13호, 교하읍 동패3리, 서패리, 목동리 송골에 2~10호가 살고 있으며 매년 10월 3~15일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탄현면 낙하리와 동패리 가좌동이다.

전주 류씨(全州柳氏)

전주 류씨(全州柳氏)는 문화 류씨에서 분적된 계통이다. 전주 류씨는 대승공(大丞公) 류차달(柳車達)의 9세손 상장군(上將軍) 순(淳)의 여섯째 아들 양자의 증손 습(濕)이 고려 말에 전주(全州)로 이거하여 봉정대부(奉正大夫)로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추증되고 완산백(完山伯)에 추봉되었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일세조로 하고 전주(全州)를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

전주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백제 때, 완선(完山)·비사벌(比斯伐)·비자화(比自火) 등으로 불리다가 555년(진흥왕 16)에 완산주(完山州)로 하였다. 그 후 경덕왕 때 완(完)을 의역(意譯)하여 전주(全州)로 고쳤고, 공민왕(恭愍王) 때 다시 완산부(完山府)가 되었다. 조선에서 태조의 선조(先祖)가 살았던 고향이라고 하여 완산유수부(完山留守府)로 개칭하였다가 1403년(태종 3) 다시 전주부(全州府)가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일세조 습의 둘째 아들 극서(克恕)가 고려에서 중현대부(中顯大夫)로 보문각직제학(寶文閣直提學)과 지제교(知製敎)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 빈(濱)과 손자 의손(義孫)이 크게 현달(顯達)하여 명문(名門)의 위치에 올랐다. 경손(敬孫)의 손자 숭조(崇祖)는 18년간 성균관(成均館)에 재직하는 동안 성리학을 깊이 공부하여 경사(經史)에 통달했으며 도학정치(道學政治)를 실현하려는 최초의 학자로서 문하(門下)에서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대학자를 배출하였다.

그 밖에는 정유재란 때 연안부사(延安府使)로 활약했던 영길(永吉), 정유재란에 공을 세워 호성이등공신(扈聖二等功臣)으로 전양부원군(全陽府院君)에 봉해지고 영의정(領議政)에 이른 영경(營慶), 임진왜란 때 진주성(晋州城)을 방어하다가 함락되자 투신자결한 복립(復立), 송설체(松雪體)로 유명한 심(諗), 정조 때 『춘관지(春官志)』와 『영희전지(永禧殿誌)』를 편찬하고 승지가 되어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를 내는 데 참여한 의양(義養) 등이 있다. 한말에는 홍산(鴻山)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3·1운동 때 독립만세 시위를 벌였던 준근(濬根), 협동학교(協東學校)를 설립한 인식(寅植)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 류씨는 파주시에 총 10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 류씨(晋州柳氏)

진주 류씨(晋州柳氏)의 시조는 류정(柳挺)이다.
그는 고려 때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중서령(中書令)을 지내고 좌우위상장군(左右衛上將軍)에 올라 진강부원군(晋康府院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진주(晋州)를 관향)으로 삼아 세계(世界)를 이어오고 있다. 2세 숙(淑)이 보승중랑장(保勝中郎將)으로 진녕부원군(晋寧府院君)에, 3세 돈식(敦植)은 상장군(上將軍)에 올라 진원부원군(晋原府院君)에, 4세 홍림(洪林)은 평장사(平章事)를 거쳐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로 진양부원군(晋陽府院君)에 봉해졌으며, 홍림의 아들 부(榑)는 진흥부원군(振興府院君), 손자 간(玕)은 진성군(晋城君)에 봉군되었다.
진주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 거열성(居烈城)이었는데, 신라 때 거열주(居烈州)라 불렀다. 995년(성종 14) 진주(晋州)라는 명칭으로 처음 불리게 된 뒤, 조선에 와서 진양도호부(晋陽都護府)가 되기도 했다. 이후 진주목(晋州牧)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세조 때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사간(司諫)을 거쳐 상주목사(尙州牧使)를 지낸 문통(文通), (仁淑)이 뛰어 났다. 정언(正言)에 올라 폐비윤씨(廢妃尹氏)의 추숭(追崇)을 반대하다가 회덕(懷德)으로 장류(杖流)되었으나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풀려나 대사성(大司成)에 오른 인귀(仁貴), 『대동시림(大東詩林)』과 『대동연주시격(大東聯珠詩格)』을 찬술한 희령(希齡), 임진왜란 때 왕을 평양으로 호종하여 세자익위사익위(世子翊衛司翊衛)가 된 조인(祖訒), 명종 때 등과하여 형조좌랑 등을 지낸 진(縉), 선조 때 호성이등공신(扈聖二等功臣)으로 진원부원군(晋原府院君)에 봉해진 근(根), 시문(詩文)으로 명성을 떨쳐 이조판서를 지낸 진혁(進赫)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 류씨는 파주시에 총 16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 류씨는 고양시 행신동에 먼저 정착을 하였으며 시윤공파로 나뉘면서 파주로 들어와 살았다. 교하 동패리에 집성촌이 있었는데 개발로 인해 거의 사라지고 없다. 매년 9월 둘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동패리 선영에서 시제를 지내왔는데, 동패리의 선영이 운정3지구 개발사업으로 보상으로 받아 법원읍 동문리로 옮겨갔다. 2~3천평의 동문리 선영과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진주 류씨 이판공파는 파시조(派始祖)가 류차달이며 입향조는 5대조인 류지선이다. 파주읍 파주6리 오가돈마을에 15~20호가 살고 있으며 매년 10월 1~17일 사이에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법원읍 금곡리이다.
진주 류씨 호은공파(시윤공파)는 파시조(派始祖) 이자 입향조(入鄕祖)가 10대조인 호운공 동량(棟梁, 1620~1687)이다. 동량은 호가 호운으로 이 곳 동패리의 유씨들은 호운공파로 분파했는데 동량이 교하지역으로 내려와 이 곳을 두일(斗溢)이라고 칭해 진주 유씨들은 그때부터 스스로 두일공파라고 칭했다고 한다. 동량은 이 곳 하천의 보를 막아 농토를 넓히고 벼농사를 지어 일가들이 풍족하게 살도록 하였다고 한다. 교하읍 동패4리 두일에 31~74호가 살고 있으며 매년 10월 8일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교하읍 동패리이다.

풍산 류씨(豊山柳氏)

풍산 류씨(豊山柳氏)의 시조는 류절(柳節)이다.
그는 고려 때 수주(樹州: 경기도 부평의 옛 지명) 호장(戶長)을 지냈다. 풍산 류씨가 문화 류씨에서 분적되었다는 일설도 있다.
풍산은 경상북도에 안동시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하지현(下枝縣)인데 경덕왕 때 영안(永安)으로 고쳐 예천군(醴泉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923년(고려태조 6)에 이곳 사람 원봉(元逢)이 귀순한 공으로 순주(順州)로 승격하였다. 후에 후백제 견훤에게 함락되어 다시 하지현이 되었으며, 풍산(豊山)으로 고쳐 현종 때 안동에 속하였다가 1172년(명종 2)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다시 안동에 속하여 지금의 안동군 풍산면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종개(宗介)가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아 태백산(太白山)을 근거지로 왜병과 싸우다가 봉화(烽火)의 소천(小川) 전피현(箭皮峴) 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고, 중영(仲郢)은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겸 병마수군절도사(兵馬水軍節度使)가 되어 토호(土豪)들의 횡포를 엄중히 다스렸으며 육영(育英) 기금을 마련하여 교학 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컸다. 성룡(成龍)은 선조조의 명상(名相)으로, 임진왜란을 맞아 고비에 처해 있는 나라의 위기를 수습하였다.
그 밖에 순조 때 대사간이 된 태좌(台佐)가 유명했고, 대원군(大院君)의 인재등용에 발탁되어 이조참판·공조판서 등을 지내고 좌의정에까지 오른 후조(厚祚) 등이 있다.
한말에는 한일합방의 울분으로 시(詩) 한 수를 짓고 자결했던 도발(道發)이 1962년 건국공로훈장 단장(單章)을 받았고, 신영(臣榮)은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문을 지어 보내고 음독자결을 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풍산 류씨는 파주시에 총 5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천·장흥 마씨(木川·長興馬氏)

마씨(馬氏)는 삼한 시대의 부족국가에서 발원된 우리나라 토착성씨로, 마한의 첫 군주인 마겸(馬謙)이 비조(鼻祖)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마씨대동보(馬氏大同譜)』에 의하면 백제 건국의 십제공신(十濟功臣)으로 좌보(左輔)의 벼슬을 역임한 마려(馬黎)가 시조라고 한다. 상계를 고증할 문헌이 전하지 않아 소목을 밝힐 수 없으므로 마육침(馬陸沉)을 일세조로 하여 계보를 잇고 있다. 그는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백제가 멸망하자 군사를 일으켜 옛 목지국(目支國)의 성거산(聖居山: 충남 직산)을 근거지로 백제 부흥전(復興戰)을 도모했던 장군이다.
그 후 마씨는 육침의 10세손 점중(占中)이 고려 문종(文宗) 때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내고 목성군(木城君)에 봉해졌으며, 그의 맏아들 현(鉉)이 목천파(木川派)로, 둘째 혁인(爀仁)은 장흥파(長興派)로 분관(分貫)하여 마씨(馬氏)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
목천은 충청남도 청원군에 속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대목악군(大木岳郡)을 신라 경덕왕이 대록군(大麓郡)으로 고쳤으며, 고려에서 와서 목주(木州)로 고쳤다가 조선 태종때 목천으로 개칭하였고, 1913년 천원군(天原郡)에 속한 면(面)이 되었다.
목천파(木川派)의 역사인물로는 천린(天麟)이 공민왕 때 홍건적이 침입하자 복주(福州: 지금의 안동)로 피난 가는 왕을 호종하여 보리일등공신(輔理一等功臣)에 책록되고 목안군(木安君)에 봉해졌다. 아들 경수(坰秀)는 신안군(新安君)에 봉군되어 고려 말 무신들의 방자함을 견제하다가 미움을 사서 유배되었다. 상원(尙遠)은 문장(文章)이 뛰어나 당시 '동방문사(東方文士)'로 일컫어진 차천로(車天輅) 형제와 함께 '양차일마(兩車一馬)'로 불렸다.
그 밖에 병자호란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오른 인호(仁浩), 영조(英祖) 때 직강(直講)을 지낸 지휘(之徽), 학유(學諭)를 역임한 맹하(孟河) 등이 있다.
한편, 고려 선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판개성윤(判開城尹)에 이르렀던 혁인(爀仁)이 뿌리를 내렸던 장흥(長興)은 전라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오차현(烏次縣)을 신라가 오아(烏兒)로 고쳐 보성군에 속하게 하였다. 이후 고려 때 영암에 소속되고 인종 때 장흥부(長興府)에 이어 회주목(懷州牧)으로 승격되었으나, 충선왕 때 다시 장흥부로 개칭되었다. 여러 번 변천을 거쳐, 1895년(고종 32)에 장흥군이 되었다.
장흥파(長興派)의 역사인물로는 관조(貫祖) 혁인의 손자 의유(義裕)가 고려 의종 때 문과에 오르고 홍주목사(洪州牧使)로 나가 선정(善政)을 베풀어 칭송을 받았다. 아들 희원(希願)은 희종) 때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하고, 보문각학사(寶文閣學士)를 지낸 지백(智伯 : 혁인의 7세손)과 함께 가문을 중흥시켰다.
그 밖에 사마봉시경(司馬奉寺卿)을 역임한 영(榮), 하고 귀향하여 조종(祖宗)이 쌓은 수령산성(遂寧山城)을 보수(保修)하여 왜구(倭寇)를 막는 한편 후학(後學)에 진력하다가 후에 곡성(谷城) 당상촌(堂上村)으로 이거(移居)하였고 만년에 수령군(遂寧君)에 추봉되었다. 제2차 왕자의 난 때 방원(芳遠)을 도와 좌명3등공신(佐命三等功臣)에 책록되고, 장흥부원군(長興府院君)에 봉해진 천목(天牧),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도우고 특전대를 조직하여 포위된 아군을 구출하려다가 장렬하게 순절한 하수(河秀), 남강(南江) 전투에서 순절한 인호(仁好)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천·장흥 마씨는 파주시에 총 3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목천 마씨가 37명, 장흥 마씨가 276명이다. 적성면 식현리에 선영이 있다.

신창 맹씨(新昌孟氏)

맹씨(孟氏)는 중국 평릉(平陵)에 연원을 두고 있다. 춘추시대 제나라 15대 임금인 환공(桓公)의 아들 경부(慶父)의 호(號)가 맹손(孟孫)이라서 맹(孟)자를 따서 성으로 삼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맹씨(孟氏)는 맹자의 40세손 맹승훈(孟承訓)이 888년(신라 진성왕 2) 당나라 한림원(翰林院)의 오경박사(五經博士)로 유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경전(經典)』을 가지고 건너온 것이 시초가 된다고 하나 기록이 분명하지 않다.

신창 맹씨(新昌孟氏)는 충렬왕 때 문과에 급제하고 예부시랑(禮部侍郎)을 거쳐 예부전서(禮部典書)에 오른 맹의(孟義)를 일세조로 삼는다. 당대에 학자로도 유명했던 의(儀)는 역신 조적(曺頔)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우고 충선와 때 신창백(新昌伯)에 봉해진 연유로 본관을 신창(新昌)으로 하게 되었다. 본관은 신창·온양(溫陽)·파주(坡州)·양주(楊州)·청주(淸州)·안읍(安邑)·천안(天安)·전주(全州) 등 32본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나 신창과 온양을 제외한 관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신창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속한 지역이다. 백제의 굴직현(屈直縣)을 경덕왕이 기량현(祁梁縣)으로 고쳐 온정군(溫井郡: 온양)에 속하게 하였으며, 고려 초에 신창현(新昌縣)으로 개칭하여 1018년(헌종 9)에 천안부(天安府)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그 후 1414년(태종 14)에 온수현(溫水縣)과 합하여 온창(溫昌)이라 하였다가 신창현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아산군(牙山郡)에 속하여 지금의 아산군 신창면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일세조 의(儀)의 아들 유(裕)가 고려에서 이부상서(吏部尙書)와 순창군수(淳昌郡守)를 역임했고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 충절을 지켰다. 유(裕)의 아들 희도(希道)는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어사(翰林御史)·수문전제학(修文殿提學)·한성판윤(漢城判尹) 등을 지냈다. 희도(希道)의 아들이 조선의 대표적인 명상으로 손꼽히는 사성(思誠)이다.

그 밖에 사헌부감찰을 지낸 귀미(歸美), 부사를 지낸 득미(得美),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하여 적개공신(敵愾功臣)으로 신창군(新昌君)에 봉해진 석흠(碩欽),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를 지내고 안동부사(安東府使)로 나간 주서(胄瑞), 관찰사와 대사간을 역임한 만택(萬澤), 고종 때 명성황후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군과 항전하다가 순절한 영재(英在)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창 맹씨는 파주시에 총 17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촉·연안 명씨(西蜀·延安 明氏)

서촉(西蜀)은 고대 중국의 진(秦)나라에 있던 지역이다. 1362년(공민왕 11) 사천성(泗川省) 성도(成都)에 도읍을 정하고 하(夏)나라를 세웠던 명옥진(明玉珍)의 아들 명승(明昇)은 1366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여 현군(賢君)으로 선정을 베풀었으나 1371년 명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의 세력에 굴복하고 이듬해 어머니 팽씨(彭氏)와 함께 가족 27명을 거느리고 고려에 귀화하였다. 그는 송도(松都)의 북부 이정리(梨井里)에 정착하고 총랑(摠郞) 윤희종(尹熙宗)의 딸과 혼인하여 살면서 아들 4형제를 낳아 우리나라 명씨(明氏)의 시원을 이루었다.
명씨(明氏)는 대하(大夏)의 왕인 명옥진(明玉珍)을 시조로 삼고, 선조의 원향지(原鄕地)인 서촉(西蜀)을 본관으로 하였고, 명승의 아들 자헌공(資憲公) 의(儀), 총랑공(摠郞公) 현(俔), 부사공(副使公) 준(俊), 시랑공(侍郞公) 신(信)의 후예들이 전국 각지에 분산 세거하면서 세계를 계승하였는데 서촉 명씨 계열과 연안 명씨 두 계열이 있다.
역사인물로는 6세손 진사(進士) 극겸(克謙)의 맏아들 광계(光啓)가 임진왜란 때 평택현감(平澤縣監)으로 창의(倡義)하여 중봉(重峰) 조헌(趙憲)의 의병과 합세 유명한 금산(錦山)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여 명성을 떨쳤으며, 후손 정구(廷耉)는 숙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예조좌랑(禮曹佐郞)과 보령현감(保寧縣監)을 지냈다. 한편 광계의 증손 천득(天得)은 통훈대부(通訓大夫)로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냈으며 그의 아들 자현(自賢)은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을 역임하였고, 치상(致庠)은 승정원좌승지를 거쳐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을 지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촉·연안 명씨는 파주시에 총 27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서촉 명씨가 84명, 연안 명씨가 190명이다.

함평 모씨(咸平牟氏)

모씨(牟氏)는 본래 중국 평양(平陽)에서 나왔다고 하며, 고대 축융(祝融)의 후예가 고을 이름을 성(性)으로 삼은 것이라 전한다. 우리나라 모씨(牟氏)의 연원은 중국 관서지방의 홍농(弘農) 출신인 모경(牟慶)이 고려에 귀화하여 뿌리를 내리면서부터이다. 『함평모씨세보(咸平牟氏世譜)』에 의하면 모경(牟慶)은 북송의 휘종(徽宗) 때 병부상서(兵部尙書) 겸 호북경서(湖北京西) 선무사(宣無使)를 거쳐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내고 북송의 마지막 왕조인 흠종(欽宗) 때 대사마 대장군(大司馬大將軍)에 올랐다.

고려에서 이자겸(李資謙)이 반역을 꾀하고 수차왕을 독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모경이 사신으로 왔다가 이 모반음모를 저지하고 일등공신에 서훈되었다. 그 후 귀국하여 홍농후(弘農侯)에 봉해졌으나 금(金)나라가 송경(宋京)을 침입하고 휘종과 흠종 두 황제를 납치해 가자 고려에 도움을 청하러 나왔다가 송나라가 패망하고 귀국길이 막히자 고려에 귀화하여 그대로 머무르게 되었다. 고려에서는 이자겸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모경을 후대하여 평장사(平章事)의 벼슬을 내리고 모평군(牟平君)에 봉하여 우리나라 모씨(牟氏)의 터를 이루게 하였다.

함평(咸平)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 굴내현(屈乃縣)과 다지현(多只懸)에 속하였고, 신라 경덕왕 때 굴내현을 함풍현(咸豊懸)으로, 다지현을 다기현(多岐懸)으로 고치고, 무안군에 이속하였다. 고려 태조 때 모평현(牟平縣)으로 바뀌었고, 함풍현과 모평현이 영광현(靈光縣)에 이속되었고 1409년(태종 9) 두 현(縣)을 합하여 함평(咸平)으로 개칭됐으며,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되였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경(慶)의 아들 4형제 중 장남 광정(光烶)이 고려 의종 때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역임했고, 광정의 맏아들 정린(挺麟)은 명종 때 전서(典書)를 지냈다. 한편 부자(父子) 평장사(平章事)로 이름을 떨쳤던 여장(汝長)은 정린의 증손(曾孫)이며 그의 아들 호(皓)가 1306년(충렬왕 32)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교관(敎官)을 지내고 삼군도총제부원수(三軍都摠制副元帥)가 되어 원나라 침공 때 많은 전공(戰功)을 세워 평장사(平章事)에 올랐다.

한편 함평모씨의 중흥 인물인 순(恂)은 1417년(태종 17) 문과에 급제하여 좌사간(左司諫)을 거쳐 합천군수(陜川郡守)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

그 밖에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왜병과 대적했던 정(禎)·극심(克諶)·수명(受明)·윤성(允誠), 무과에 급제하여 양덕현감(陽德縣監)을 지낸 유추(有秋), 언양현감(彦陽縣監)을 역임한 일성(一成), 흥양현감(興陽縣監)을 지낸 세무(世茂)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평 모씨는 파주시에 총 17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 목씨(泗川睦氏)

사천 목씨(泗川睦氏)의 시조는 목효기(睦孝基)이다.
그는 고려에서 낭장(郎將), 동정(同正)을 지냈다. 목씨(睦氏)는 본래 중국 조군(趙郡: 고대 조나라)에서 나온 성씨이다. 문헌에 전해지는 본관은 사천·수원(水原)·계양(桂陽: 부천 별호)·옥천(沃川)·전주(全州)·남평(南平)·태인(泰仁)·경주(慶州)· 다인(多仁: 경북 예천지방) 등 9본이 있는데, 현존하는 관향은 사천(泗川) 단본으로 알려졌다.
사천(泗川)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 때 사물현(史勿縣)·사수현(泗水縣), 고려 때 사주(泗州), 조선 때는 사천현(泗川縣)으로 불리다가, 현재 사천군에 이르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효기(孝基)의 아들 덕창(德昌)이 1269년(원종 10) 교위(校尉)로 역신 최탄(崔坦), 한신(韓愼), 이연령(李延齡) 등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하다가 영주성(靈州城: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에서 순절하였으며, 덕창(德昌)의 아들 준평(俊平)은 조봉대부(朝奉大夫)로 비서윤(秘書尹)을 지내고 보문각직제학(寶文閣直提學)에 이르렀다. 진사(進士) 충달(忠達)의 아들 인길(仁吉)은 공민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중랑장(中郎將)으로 시종하고 1359년(공민왕 8) 기철(奇轍)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하여 일등공신에 올랐다.
조선에서 첨(詹)은 명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참의(工曹參議) 등을 지냈고, 아들 4형제를 두었는데, 서흠(叙欽), 장흠(長欽), 대흠(大欽) 3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크게 현달했다. 행선(行善)은 인조 때 등과하여 대사성·대사간(大司諫)·승지(承旨) 등을 지냈다. 내선(來善)은 효종 초에 문과에 올라 대사헌·예조판서·병조판서를 지내고 좌의정에 올랐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천 목씨는 파주시에 총 20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에 살고 있는 사천 목씨는 법원읍 법원2리 삼성동 마을로 사천 목씨 괴산공파 후손들이다. 파시조는 목철경(睦哲慶, 1440~1471)으로 충북 괴산에서 군수를 하여 괴산공이라 불렀다. 파주에 들어와 뿌리를 내린 사람은 목성중(1701~1786)으로 개성에서 살다가 서울 방학동에 호조참판을 하던 지인이 있어 그 연고를 통해 파주 법원리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입향조 목성중의 묘는 장단군 이북땅에 있어 이쪽에서 제사만 지내고 있다. 법원2리 삼성동 마을에는 사천 목씨 11호가 누대를 이어가고 있다.

남평 문씨(南平文氏)

남평 문씨(南平文氏)의 시조는 문다성(文多省)이다.
그는 신라 자비왕(慈悲王) 때 사람인데, 신라 말에 남평에서 출생하였다고 하며, 출생에 관한 설화도 전해진다. 그는 대장군(大將軍)을 거쳐 삼중대광벽상공신(三重大匡壁上功臣)으로 남평백(南平伯)에 봉해져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관향을 남평(南平)으로 하게 되었다.
남평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백제의 미동부리현(未冬夫里縣)을 신라 경덕왕이 현웅현(玄雄縣)으로 고쳐 무주(武州: 광주의 옛 이름)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에서는 남평(南平)·영평(永平)으로 불렸고, 그 후 여러 차례 변천을 거쳐 1913년 나주군(羅州郡)에 합쳐져서 지금의 남평면(南平面)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중시조 익(翼)이 고려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좌·우찬성대부(左·右贊成大夫)를 지내고 급사중(給事中)과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를 거쳐 우산기상시(右散騎常寺)에 올라 상주국(上柱國)으로 풍산군(楓山君)에 봉해졌고, 익(翼)의 막내아들인 공유(公裕)는 예종과 의종 때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묘향산 보현사(普賢寺)의 창사 비문(創寺碑文)을 남겼다.
그 밖에 고종 때 참지정사(參知政事)와 판예부사(判禮部事)를 지낸 유필(惟弼), 의복혁명의 기수 삼우당(三憂堂) 익점(益漸), 목화에서 실을 뽑는 '물레'를 발명한 래(萊),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권율의 휘하로 들어가 공을 세웠던 위세(緯世), 진주성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자 최경회(崔慶會)와 함께 강물에 투신자살한 홍헌(弘獻), 광주목사(廣州牧使)를 지낸 희성(希聖), 병자호란에 왕을 호종하고 경상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한 재도(載道), 홍경래의 난 때 순절한 기호(基浩)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평 문씨는 파주시에 총 3,36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남평 문씨의 입향조(入鄕祖)는 문희원(文希元)으로 전남 보성에서 조선 중기 인조대에 파주로 들어 왔다. 파주의 남평 문씨들은 파주읍 백석1리 우건동 마을에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우건동 마을은 현재도 80% 정도가 남평 문씨 후손들이며 현재 45호 정도가 백석1리에 살고 있다. 매년 11월 첫째 일요일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우건동에 있으며 재실인 영모재에서 제사를 모신다.
영모재 옆으로는 파주시향토문화유산 제4호인 김석몽처남평문씨열녀문이 있다.
종중 회장은 문종열이다. 임야 2,500평과 답 900평을 종중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여흥 민씨(驪興閔氏)

민씨(閔氏)는 중국 농서현에서 나온 성씨로, 공자(孔子)의 10제자 중 한사람인 민손(閔損)의 후손 민칭도(閔稱道)가 고려 중엽에 사신(使臣)으로 왔다가 귀화하여 여흥(驪興)에 정착한 것이 우리나라 민씨(閔氏)의 시원이 된다. 민씨의 본관은 여흥·황려(黃驪)·영주(榮州)·여주(驪州)·대전(大田)·해남(海南) 등 32본이 있는 것으로 문헌에 전해지고 있으나 모두가 동조동근(同祖同根)으로 여흥 민씨(驪興閔氏)의 세거지명(世居地名)에 불과하다.

여흥은 경기도(京畿道) 여주시의 옛 지명이다. 본래 고구려의 골래근현(骨內斤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황효현(黃驍縣)으로 개명하여 기천군(沂川郡)의 영현이 되었으며, 고려 초에 황려현(黃驪縣)으로 고치고 1018년(현종 9) 원주에 속하였다가 고종 때 영의(永義)로 개칭되었다. 1305년(충렬왕 31) 여흥군(驪興郡)으로 승격한 후 조손 태종(太宗) 때 음죽현(陰竹縣)의 북부를 현입하여 여흥부(驪興府)로 승격되면서 관할이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변경 되었다. 예종 때 천녕현(川寧縣)을 병합하여 여주목(驪州牧)으로 하고 1501년 충주부(忠州府)의 관할하에 두었다가 1895년 충주부 여주군으로 칭하였으며, 1914년 경기도 여주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증손 영모(令謨)가 고려 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이부원외랑(吏部員外郞)을 지내고 명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벼슬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를 거쳐 태자태사(太子太師)에 이르렀고 신종 때 형부상서(刑部尙書)에 오른 아들 식(湜)과 판병부사(判兵部事)와 태자소보(太子小保)를 지낸 공규(公珪) 형제를 낳았다. 지(漬)가 충렬왕과 충선왕을 결쳐 원나라와의 외교에 공을 세웠고 충숙왕 때 수정승(守政丞)으로 여흥군(驪興君)에 봉해졌다. 여익(汝翼)은 조선 창업에 공을 세우고 개국3등공신에 올랐으며, 세종 때 호조판서로 여천부원군(驪川府院君)에 봉해졌다. 기(箕)는 선조 때 우의정에 올랐다. 시중(蓍重)은 현종 때 대사헌을 역임하였과, 이조판서(吏曹判書) 진주(鎭周)의 아들 응수(應洙)와 좌의정(左議政) 진원(鎭遠)의 손자 백상(百祥)은 우의정을 역임하였다. 명성황후는 16세 때 왕비로 뽑혀 한말의 격동기에 국내외의 정치적 거센 바람을 한 몸으로 감당하며 파란 많은 일생을 살았다.

한말의 순국열사 영환(泳煥)은 1877년(고종 14) 문과에 급제, 동부승지(同副承旨)·대사성(大司成)을 거쳐 한성판윤(漢城判尹) 등 여러 요직을 역임한 후 1905년(광무 9)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조병세(趙秉世)와 백관(百官)을 인솔하여 궁궐에 나가 이를 반대했으나 일본 헌병들의 강제 해산으로 실패하자 다시 종로 백목전도가(白木廛都家)에 모여 상소를 의논하던 중 이미 대세가 기울어짐을 보고 자결했다.

그 밖에 친일정권이 수립되자 상해(上海)로 망명한 영익(泳翊), 홍주(洪州)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종식(宗植), 상해임시정부와의 연락을 담당했던 강(橿), 의병장으로 강원·충청·경상도를 누비며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긍호(肯鎬), 대동단(大同團)에 가입하여 사재를 털어 임시정부 군자금을 조달했던 치도(致道), 신민회(新民會) 회원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형식(衡植), 대한민국청년단 재무부장 제호(濟鎬), 중국정부와 협의하여 무장 경위대를 조직하고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필호(弼鎬)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흥 민씨는 파주시에 총 1,69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여흥 민씨 문도공파는 민재를 파시조(派始祖) 로 하며 6대조 민역(閔逆)을 입향조(入鄕祖)로 한다. 입향조(入鄕祖) 민역의 묘는 법원읍 웅담리에 있다.

조선후기에 양주시 용암리 민무질 후손 일부가 적성으로 입향하였다.

여흥 민씨는 문산읍 문산4리, 탄현면 갈현리, 광탄면 방축리 검전리마을 등지에 살고 있는데 적성면 무건리에 한국전쟁 전까지 50여 호가 살았으며 탄현면 갈현리에 문인공파와 공록공파 후손 5호가 살고 있다.
광탄면 방축1리 검전리마을에 위양공파 후손 10호가 살고 있는데 이 곳으로 입향한 것은 24세 민명인, 민명신 형제와 민명행 때 부터이다. 현재 거주하는 후손은 32세손이다. 방축리 여흥 민씨 묘역에는 현재 거주하는 후손들로부터 위로 11대 민광로부터 10세 민구, 9세 민명행, 8세 민호, 7세 민유한의 묘역이 각각의 묘비 없이 합동제단 형태로 되어 있다. 예전에는 음력 10월 10일 시제날짜가 고정되어 있었지만 평일에 시제를 지내기가 어려워 지금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가까운 일요일로 정해 방축리 묘역에서 시제를 지낸다.

강릉 박씨(江陵朴氏)

강릉 박씨(江陵朴氏)의 시조는 박순(朴純)이다.
그는 신라 파사왕(破娑王)의 35세손이다. 『강릉박씨세보(江陵朴氏世譜)』에 의하면 그는 1174년(고려 명종 4)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1187년(명종 17) 남경유수(南京留守)로 병부상서(兵部尙書) 조원정(曺元正)과 상장군(上將軍) 석린(石隣)의 모반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책록되었으며 신종(神宗) 때는 좌복야(左僕射)를 거쳐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로 계림군(鷄林君)에 봉해져서 치사(致仕)하고 강릉으로 내려가 여생을 마치니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받들고 강릉(江陵)을 본관으로 삼았다고 한다.
강릉은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예국(濊國)의 도성지(都城地)였으며, 313년(고구려 미천왕 14)에 개칭하여 하서량(河西良)·하슬라(何瑟羅)라 하였다. 선덕여왕(善德女王) 때 소경(小京)으로 삼았다가 태종무열왕조(太宗武烈王朝)에 하서주(河西州)로 개편, 경덕왕(景德王) 때는 명주(溟州)로 고쳤고, 고려 태조가 동원경(東原京)이라 칭하고 940년(태조 23)에 다시 명주로 고쳤다. 이후 여러 번 명칭이 변경되다가 1896년 13도제 실시로 강원도 강릉군(江陵郡)이 되었고 1955년 강릉시(江陵市)가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희(希)가 고종(高宗)때 감찰어사(監察御使)를 지내고 원종조에서는 종성부사(鍾城府使)와 남경유수를 지냈고, 종태(從台)는 고종의 장사감무(長沙監務)와 남경판관(南京判官)을 거쳐 충렬왕 때 민부전서(民部典書)에 올라 크게 명성을 떨쳤다. 한편 순(純)의 현손(玄孫) 지계(之桂)는 공민왕 때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정몽주(鄭夢周)·박상충(朴尙衷) 등과 함께 정사를 의논했으며, 자검(自儉)은 세종 때 단천군사(端川郡事) 겸 안렴사(按廉使)를 지냈다.
그 밖에 갑산부사(甲山府使)를 지낸 공수(公遂),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낸 시룡(時龍), 판결사(判決事)를 역임한 인순(仁淳)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릉 박씨는 파주시에 총 10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박씨(慶州朴氏)

경주 박씨(慶州朴氏)는 신라 파사왕의 38세손인 앙(盎)을 일세조로 하고 있다. 『경주박씨세보(慶州朴氏世譜)』에 의하면 그는 고려 말에 예문관응교(藝文館應敎) 겸 국자직학(國子直學)을 역임한 자신(自信)의 아들로 1451년(조선 문종 1)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홍문관(弘文館)의 저작(著作)을 지냈으나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이를 개탄하여 벼슬의 뜻을 버리고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과 더불어 수양산(首陽山)으로 들어가 충정공(忠貞公) 박심문(朴審門) 등과 함께 도의(道義)를 강론하였으며 만년에 함안(咸安) 서쪽 평광리(平廣里) 백이산(伯夷山) 아래에 은거(隱居)하여 절의를 지켰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앙(盎)을 일세조로 하고 선조의 원향지인 경주(慶州)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었다.
경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기원전 57년 이곳에 6촌(村)이 연합하여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국호(國號)를 서라벌(徐羅伐)·사로(斯盧)·사라(斯羅)라 하였다. 65년(탈해왕 9) 시림(始林)에서 김씨(金氏)의 시조 김알지가 탄생하여 국호(國號)를 계림(鷄林)으로 고쳐 삼았다가 307년(기림왕 10)에 신라(新羅)로 하였다. 935년(태조 18)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등극한 후 처음으로 경주(慶州)라는 명칭이 생겼다. 987년(성종6) 동경(東京)으로 개칭하고 1008년(목종11) 별칭(別稱)으로 낙랑군(樂浪郡)이라 하다가 충렬왕 때 계림부(鷄林府)로 개칭하였고, 1413년(태종 13)에 와서 경주부(慶州府)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 제인(齊仁)은 선조 때 태릉참봉(泰陵參奉)과 왕자사부(王子師傅)에 천거되었으며 1599년(선조 32) 송라도찰방(松蘿道察訪)으로 나갔다가 2년 만에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그 후 형조좌랑과 군위현감(軍威縣監)을 거쳐 왕자사부가 되어 세자에게 『대학(大學)』을 강론했고, 제용감판관(濟用監判官)으로 퇴관하여 학문에만 진력하여 저서(著書)로 『황암집(篁嵓集)』을 남겼다. 한편 제인의 증손 임(恁)은 효종 때 무과에 급제하고 수문장(守門將)과 훈련원주부(訓鍊院主簿)를 거쳐 전라우도우후(全羅右道虞侯)를 지냈다.
그 밖에 함평현감(咸平縣監)을 지낸 완(琓), 공조참판(工曹參判)을 지낸 태휘(泰輝), 한성부윤(漢城府尹) 겸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을 역임한 내유(來維)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주 박씨는 파주시에 총 16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박씨(高靈朴氏)

고령 박씨(高靈朴氏)의 시조는 고양대군(高陽大君) 박언성(朴彦成)이다.
그는 신라 왕족 후예로 박혁거세의 29세손인 경명왕(景明王)의 둘째 아들이다. 그의 후대로 내려와 어사공(御史公) 섬(暹), 부창정공(副倉正公) 환(還), 주부공(主簿公) 연(連)을 각각 기일세(起一世)하여 관향을 고령(高靈)으로 삼았다.
고령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대가야국(大伽倻國)의 중심지로서 562년(신라 진흥왕 23)에 신라에 병합되었다. 그 후 757년(경덕왕 16) 고양(高陽)으로 불리다 1018년(고려 현종 9)에 영천현(靈川縣)이 되었고, 조선 태종 때 고양(高陽)의 고(高)자와 영천(靈川)의 영(靈)자를 따서 고령(高靈)으로 칭하게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담손(聃孫)의 아들 은(誾)은 조선 5백 년의 으뜸가는 한시인(漢詩人)으로 일컬어졌졌다. 은(誾)의 장남 인량(寅亮)은 참판을 역임했고, 둘째 공량(公亮)은 중종 때 별시문과로 급제하여 명종 때 황해도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공조참판을 거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으며 『중종실록(中宗實錄)』과 『인종실록(仁宗實錄)』 편찬에 참여했다. 문수(文秀)는 강직한 성품으로 바른 말을 잘했으며 흑백이 분명하여 불의와 타협을 철저히 배제하였다. 경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영조조에 암행어사로 나가 숱한 일화를 남겼으며 탐관오리를 징계하고 민생(民生)을 구제하는 데 많은 치적을 남겼다. 문수의 현손(玄孫) 영보(永輔)는 공조판서를 지냈으며, 처륜(處綸)은 성종 때 등과하여 춘추관(春秋館)의 기사관(記事官)으로 『세조실록(世祖實錄)』과 『예종실록(睿宗實錄)』 편찬에 참여하고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올랐다. 근대에는 제3·4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정희(正熙)가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 박씨는 파주시에 총 44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 박씨(固城朴氏)

고성 박씨(固城朴氏)는 신라 경명왕의 넷째 아들 죽성대군(竹城大君) 언립(彦立)의 11세손인 박서(朴犀)를 중시조로 받들고 있다.
고성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변한 시대에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고사포국(古史浦國)이었다가, 신라에 흡수되어 고자군(古自郡)으로 불렸고, 757년(경덕왕 16)에 고성군(固城郡)으로 바뀌었다. 고려 때 고주(固州)로 확장되었고 후에 철성부(鐵城府)로 승격되었다가, 1018년 현종 9) 고성현으로 강등되었다. 1896년 13도제 실시로 고성군이 되었다.
문헌에 의하면 서(犀)는 1231년(고려 고종 18) 8월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있을 때 몽골 장수 살리타이가 쳐들어와 철주(鐵州)를 함락하고 이어 귀주(龜州)를 공격하자 김중온(金仲溫)·김경손(金慶孫) 등과 함께 귀주의 성을 사수하여 1개월간의 격전 끝에 마침내 이를 물리쳤다. 귀주에서 물러난 몽골군이 개성을 먼저 함락하고 고종의 항복을 받은 후 군세를 가다듬어 귀로에 다시 귀주를 공격하자 이를 대파하여 몽골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때 왕명으로 지병마사(知兵馬使) 최임수(崔林壽)와 감찰어사(監察御使) 민 희(閔曦) 등이 와서 항복할 것을 권유하자 끝내 거부하다가 왕명을 어기지 못해 항복하지 않고 성문만 열어주자 일찍 항복하지 않고 어명(御命)을 거역했다고 하여 조정(朝廷)에 입조(入朝)하지 못하고 죽주(竹州)로 귀향하였다. 그 후 서(犀)의 현손 혁충(奕忠)이 고려조에서 이조전서(吏曹典書)와 한림원 시강(翰林院侍講)·태자첨사(太子詹事)를 지내고 서의 행장(行裝)과 사적(事蹟)을 갖추어 조정에 제출하여 그 공적이 높이 평가되자 서가 평장사(平章事)에 추증되고 철성백(鐵城伯)에 추봉되었으며 혁충에게도 철성(鐵城)을 세습하게 하여 부원군(府院君)에 봉하게 되자 후손들이 서(犀)를 중시조(中始祖)로 하여 세계를 잇게 되었다.
그러나 『죽산박씨족보(竹山朴氏族譜)』에 의하면 서의 아들로서 한림학사(翰林學士)와 지태자첨사(知太子詹事)를 지낸 실(實)로부터 고성박씨가 분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역사인물로는 보로(寶老)가 고려 우왕 때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서해도부원수(西海道副元帥) 겸 도체찰사(都體察使)가 되어 수차에 걸쳐 왜구를 토벌했으며 1378년(우왕 4) 문하평리(門下評理)로서 안주상원수(安州上元帥) 겸 서북면도체찰사(西北面都體察使)에 이렀다. 희고(希古)는 춘추관(春秋館)의 수찬관(修撰館)을 거쳐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 및 지제교(知製敎)를 지냈으며, 전고(專古)는 조선조에 황주목사(黃州牧使)를 지냈다. 세조 때 원종공신(原綜功臣)에 올랐던 취신(就新)은 합천군사(陜川郡事) 등을 역임했다.
그 밖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고성현령 조응도(趙凝道)와 함께 여러 차례 왜적을 격파하여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오른 애상(愛祥), 현종 때 현감을 역임한 내경(來慶)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성 박씨는 파주시에 총 4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산 박씨(龜山朴氏)

구산 박씨(龜山朴氏)의 시조는 천(蕆: 일명 석보)이다.
그는 밀성대군(密城大君) 언침(彦忱)의 15세손이며, 대제학(大提學) 광후(光厚)의 둘째 아들이다. 『박씨원류사보(朴氏原流史譜)』에 의하면 그는 고려(高麗) 우왕(禑王) 때 정국군(靖國君)에 봉해진 형 위(葳)와 함께 대마도 정벌에 공을 세우고 영의정에 올라 구산군(龜山君)에 봉해졌으며, 의흥현(義興縣: 지금의 군위군 의흥면)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 4개 면을 식읍으로 하사받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밀양에서 분적하여 천(蕆)을 시조로 받들고 관향을 구산(龜山)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구산(龜山)은 경상북도 군위군의 옛 이름이다. 신라 경덕왕 때 적라현(赤羅縣)으로 개칭되어 숭선군(崇善郡: 지금의 선산군)에 속했다가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의흥(義興)으로 병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천(蕆)의 아들 인해(仁海)가 조선 초에 안동판관(安東判官)을 지내고 슬하에 아들 4형제를 낳아 가문을 크게 중흥시켰으며, 손자 후의(厚義)는 조산대부(朝山大夫)로 주부(主簿)를 역임했다. 공조좌랑 만룡(萬龍) 아들 간(艮)이 통정대부로 공조참의를 지냈다. 진(震)은 공조판서에 올랐다.
그 밖에 첨정(僉正)을 지내고 이등공신에 책록된 봉상(鳳祥), 예조정랑을 지낸 화덕(和德),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곽재우와 함께 화왕산성(火旺山城) 수비에 공을 세워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에 오른 경장(景章)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산 박씨는 파주시에 총 3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 박씨(軍威朴氏)

군위 박씨(軍威朴氏)의 시조는 박헌(朴軒)이다.
그는 신라 경명왕의 셋째 아들 속함대군(速咸大君) 언신(彦信)의 후손으로, 고려 우왕 때 문과에 급제하고 이성계를 도와 조선창업에 공을 세워 개국원종공신에 책록되었고, 가선대부로 공조전서에 올라 군위군(軍威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함양 박씨에서 분적하여 헌(軒)을 시조로 받들고 군위(軍威)를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군위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의 노동멱현(奴同覓縣: 일명 여두멱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군위(軍威)로 고쳤다. 남쪽에 적라산(赤羅山)이 있기 때문에 한때 적라현(赤羅縣)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895년 군위현(軍威縣)을 군(郡)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헌(軒)의 아들 4형제 중 맏아들 무양(茂陽)이 세종 때 전라좌수사로 오랑캐 정벌에 나갔다가 전장에서 순절하였으며, 둘째 봉양(鳳陽)은 진사를 지냈고, 셋째 흥양(興陽)은 태종 때 정사공신(定社功臣)에 올라 좌찬성에 이르렀으며, 막내 재양(載陽)은 생원을 지냈다. 그 후 크게 4파(派)로 갈라져서 후손들이 홍원(洪原)·함흥(咸興)·의흥(義興)·개성(開城) 등지로 산거하게 되었다. 흥양의 아들 성인(成仁)은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참판을 역임했다. 그의 아들 응(膺)이 영흥부사(永興府使)를, 손자 숙옹(肅雝)은 병조좌랑을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위 박씨는 파주시에 총 2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천 박씨(沔川朴氏)

면천 박씨(沔川朴氏)의 시조는 박득의(朴得宜)이다.
신라 파사왕의 원손(遠孫)인 그는, 고려에서 삼중대광(三重大匡)·대승(大丞)에 이르렀으며, 그의 아들 술희(述熙)는 조선 초에 태사 삼중대광(太師三重大匡)으로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득의를 시조로 하고 관향을 면천(沔川)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박씨원류사보(朴氏原流史譜)』에 의하면 술희는 어려서부터 호협하고 용맹스러워 18세에 궁예의 호위병으로 있다가 왕건을 도와 고려창업에 공을 세웠다고 한다. 태조는 승하할 때 그를 내전(內殿)으로 불러 『훈요십조(訓要十條)』를 친히 주며 태자(太字: 혜종)를 잘 보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한다. 그 후 면천 박씨는 신기도령(神騎都令) 주(柱: 술희의 손자)를 중조(中祖)로 받들고 기일세(起一世)하여 왔다.
역사인물로는 공조판서를 지내고 상의원판사(尙衣院判事)를 역임한 유(攸), 병조참판을 거쳐 훈련원정(訓鍊院正)에 오른 효순(孝順), 성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참판 겸 오위도총부부총관을 역임한 삼길(三吉) 했으며, 임진왜란 때는 의병을 일으켜 전공을 세워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해주(海州)의 방현서원(傍賢書院)에 제향된 여룡(汝龍)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천 박씨는 파주시에 총 2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 박씨(務安朴氏)

무안 박씨(務安朴氏)의 시조는 박진승(朴進昇)이다.
그는 신라 경명왕의 여섯째 아들인 완산대군(完山大君) 언화(彦華)의 5세손이다. 고려에서 문과에 급제하여 국자제주(國子祭酒)를 지냈으며 나라에 공을 세워 무안(務安)을 식읍으로 하사받았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무안(務安)을 관향으로 삼았다.
무안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의 물아혜군(勿阿兮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무안군(務安郡)으로 개칭하였고, 994년(고려 혜종 1) 물량군(勿良郡)으로 고쳤으며 성종(成宗) 때는 다시 무안으로 고쳐 나주에 소속시켰다. 1895년에 군(郡)이 되었으며 1897년 무안부(務安府)로 승격, 1914년 목포부(木浦府)를 독립시키고 나머지 지방은 무안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진승의 아들 섬(暹)이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으로 왕이 남쪽으로 피난갈 때 남행하는 현종을 호종하여 호종공신이 되었으며 거란군이 물러간 뒤 사행경(司幸卿)을 거쳐 장작감(將作監)을 지내고 후에 상서좌복야(尙書佐僕射)에 올랐으며, 섬의 6세손 상서공(尙書公) 문연(文衍), 금성군 문오(文晤)는 정승에 올랐다.
승중(昇中)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상안부녹사(常安府錄事)를 거쳐 중서주서(中書注書)가 되었다. 후에 한림시독학사(翰林侍讀學士)가 되어 양정관 예시를 정했다. 추밀원사(樞密院使), 참지정사(參知政事)를 거쳐 수태위중서시랑평장사(守太尉中書侍郎平章事)가 되었다. 한편 현감(縣監) 세렴(世廉)의 아들 의장(毅長)은 임진왜란 때 경주부윤(慶州府尹)으로 50여 회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었다. 그의 아우 홍장(弘長)은 대구부사(大邱府使)로 황신(黃愼)과 더불어 일본에 사신으로 가 갖은 굴욕을 받으면서도 죽기를 결심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던 현신(賢臣)이었다. 현령(縣令) 인호(仁豪)의 아들 인(璘)은 임진왜란 때 왕을 평양에 호종하여 의주(義州) 행재소(行在所)의 군기시판관(軍器寺判官)을 지냈으며, 숙종 때 시인으로 학명(學名)이 높았던 창하(昌夏)는 많은 고율시(古律詩)를 남겼다.
그 밖에 숙종 때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을 지낸 징(澄), 군수를 지낸 도욱(道郁)·경행(敬行)과 한말에 한글 점자를 창안한 두성(斗星)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안 박씨는 파주시에 총 94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박씨(文義朴氏)

문의 박씨(文義朴氏)의 시조는 박의중(朴宜中)이다.
그는 신라 경명왕의 맏아들인 밀성대군 언침(彦忱)의 17세손이다. 『문의박씨대동보(文義朴氏大同譜)』에 의하면 그는 공민왕 때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대사성과 직제학(直提學)을 역임한 후 나라에 공을 세워 문의군(文義君)에 봉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전북 김제로 내려가 절의를 지켰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의중(宜中)을 시조로 받들고, 밀양 박씨에서 분적하여 관향을 문의(文義)에 삼았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맏아들 연(衍)이 공민왕 때 등과하여 정당문학(政堂文學)과 대제학을 지냈고, 둘째 행(行)은 고려 때 우상(右相)을 역임했다. 또 영(寧)이 고려 말에 공조전서를 지냈으나 조선이 개국되자 두문동에 들어가 절의를 지켰고, 문덕(文德)은 세조 때 홍문관제학에 올랐다. 한편 선조 때 군수였던 인정(仁定)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령(鳥嶺: 문경세재) 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고 순절하였으며, 의병으로 활약했던 난(蘭)은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그 밖에 영조 때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찰방(察訪)을 역임한 성순(性淳), 판관을 지낸 무환(武煥), 군수를 지낸 한필(漢弼), 감찰(監察)을 지낸 기태(基泰), 호조좌랑을 지낸 계운(啓運)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의 박씨는 파주시에 총 5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문의 박씨 정지공파는 23대손을 파시조(派始祖)로 하며 파주에는 1962년에 들어와 살았다. 법원리에 문의 박씨 납골묘가 있다.

밀양 박씨(密陽朴氏)

밀양 박씨(密陽朴氏)는 신라 시조왕 박혁거세의 29세손인 경명왕(景明王)의 8대군 중 세자인 박언침(朴彦忱)을 중시조(中始祖) 삼고 있다. 언침(彦忱)이 밀성대군(密城大君)에 봉해진 연유로 해서 본관을 밀양(密陽)으로 하게 되었다.

밀양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변한의 일부로 가락국(駕洛國)에 속하였으며, 법흥왕 때 신라에 병합되어 추화군(推火郡)이 되었다가 757년(경덕왕 16) 밀성군(密城郡)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에 와서 995년(성종 16)에 밀주(密州)로 하였고, 1390년(공양왕 2) 밀양부(密陽府)로 승격, 그 후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듭하다가 1895년 밀양군(密陽郡)으로 개칭하였다.

밀양 박씨는 문하시중공파(門下侍中公派: 8세손 언부), 도평의사공파(都評議事公派: 8세손 언상), 좌복야공파(左僕射公派: 8세손 언인), 밀직부사공파(密直副使公派: 8세손 양언), 판도공파(版圖公派: 8세손 천익), 좌윤공파(左尹公派: 8세손 을재), 동정공파(同正公派: 13세손 원광), 밀직부원군파(密直府院君派: 15세손 중미), 정국공파(靖國公派: 15세손 위), 규정공파(糾正公派: 16세손 현) 등 크게 12파로 나누어졌다.

역사인물로는 언부(彦孚)가 고려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문하시중과 도평의사(都評議事)를 거쳐 밀성부원군(密城府院君)에 봉해졌고, 의중(宜中)은 공민왕 때 문과에 장원하고 우왕 때 대사성과 밀직제학을 거쳐 뒤에 공신에 올랐다. 조선 문종 때 경흥부사(慶興府使)로 재직 중 야인 토벌에 전공을 세웠던 거겸(居謙)은 때 좌리사등공신(佐理四等功臣)으로 밀산군(密山君)에 봉해졌다.

충목왕(忠穆王) 때 문과에 급제한 중미(中美)는 공민왕 때 홍건적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우고 보리공신(輔理功臣)으로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 올라 밀직부원군(密直府院君)에 봉해졌다.

정종의 사위로 지돈녕부사(知敦寧附事)에 오른 갱(賡)의 7세손 정원(鼎元)이 문과에 급제하여 평안도사(平安都事)를 역임했고 그의 종손(宗孫) 신규(信圭)는 호조판서를 지냈다. 노(魯)는 정묘호란 때 순검사 종사관으로 왕을 강화에 호종한 공으로 장악원정(掌樂院正)에 올랐다.

심문(審問)은 세종조에 김종서(金宗瑞)가 육진을 개척할 때 종사관(從事官)으로 야인에 대한 안무책(安無策)을 건의했고, 계유정난으로 김종서가 살해되자 벼슬에서 물러나 사육신과 더불어 단종복위를 모의했다. 성원(聖源)은 영조 때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간관(諫官)을 거쳐 참판에 올랐고, 문장에 뛰어나 『예의류집(禮疑類集)』·『돈녕록(敦寧錄)』·『겸재집(謙齋集)』 등의 저서를 남겼다.

난계(蘭溪) 연(堧)은 우리나라 '삼대악성(三大樂聖)'으로 손꼽힌다. 그는 즉위하자 악학별좌(樂學別坐)에 임명되어 당시 불완전한 악기의 조율(調律) 정리와 악보찬집(樂譜撰集)의 필요성을 상소하여 편경(編磬) 12매를 제작, 자작한 음률(音律)로 연주케 했고, 조정의 조회(朝會)때 사용하던 향악(鄕樂)을 폐하고 아악(雅樂)의 사용을 건의하여 실행케 하는 등 궁정 음악을 전반으로 개혁했다.

그 밖에 세종 초에 좌군병마사로 대마도 정벌에 나갔다가 전사한 홍신(弘信), 연산군 때 간관(諫官)이 되어 직언(直言)을 하다가 무오사화에 능지처참을 당한 한주(漢柱), 임진왜란 때 이름난 명장 진(晋), 조선 실학의 태두이며 『북학의(北學議)』를 쓴 제가(齊家)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양 박씨는 파주시에 총 23,96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밀양 박씨 도사공파 입향조(入鄕祖)는 박정원으로 월롱면 덕은 4리 덕고개 마을에 정착하였고, 규정공파 입향조(入鄕祖)는 박희(朴曦,1571~1651)로 탄현면 오금리에 정착하였으며 사문진사공파 입향조(入鄕祖)는 박만영으로 광탄면 창만리 두만이 마을에 정착하였다.
청제공파 입향조는 박심문으로 18세기 중반 양주 백석면에서 광탄면 용미1리 양짓말로 입향하여 그 후손들이 살았다.
현재 밀양 박씨는 탄현면 오금리에 44호, 광탄면 두만이 마을에 16호, 월롱면 덕은리에 10호 등이 살고 있다.
탄현면 오금 2리의 밀양 박씨 규정공파 후손들은 매년 10월 3일 시제를 지내는데 선영은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이다. 또 다른 밀양 박씨 규정공파 후손들은 매년 11월 광덕면 원덕리에서 시제를 지낸다. 월롱면 덕은4리에 살고 있는 밀양 박씨들은 대부분 도사공파로 입향조는 정원(楨元, 1541~1616)으로 16세기에 입향했다. 묘는 덕은4리에 있다.

반남 박씨(潘南朴氏)

반남 박씨(潘南朴氏)의 시조는 박응주(朴應珠)이다.
신라 왕족의 후예인 그는 고려에서 반남호장(潘南戶長)을 역임하였다. 6세손 은(誾)이 조선 태종 때 익대동덕좌명공신(翊戴東德佐命功臣)에 올라 반남군(潘南郡)에 봉해졌다가 금천부원군(錦川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온 반남((潘南)을 본관으로 삼았다.
반남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반내부리현(半奈夫里縣 : 일명 반나부리현)인데 신라 경덕왕 때 반남군(潘南郡)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고려 때 현(縣)으로 강등되어 나주에 속하였고 현재 나주시 반남면(潘南面)에 이르고 있다.
1353년(공민왕 2) 문과에 급제한 상충(尙衷)은 시조의 현손으로 경사(慶史)와 역학(易學)에 능통하고 문장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이후 참판공파(參判公派 : 예조참판 규)·세양공파(世襄公派 : 금천군 강)·경주공파(慶州公派 : 경주부윤 원)·지후공파(祗侯公派 : 예문지후 인)·교위공파(校慰公派 : 창신교위 귀근)·감찰공파(監察公派 : 감찰 여해) 군사공파(郡事公派군사 진창)·정자공파(正字公派 : 교서정자 충)·사정공파(司正公派 : 영사정 문부)·동정공파(同正公派 : 영동정 상질)·직장공파(直長公派 : 직장 송생) 등 11개 파(派)로 크게 갈라져 후대로 내려오면서 다시 여러 지파(支派)로 나누어졌다.
역사인물로 은(誾)은 조선 초 두 차례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방원(芳遠을 도와 공신으로 좌의정에 이르렀고, 아들 3형제와 더불어 가문의 발상(發祥)을 이루어 오늘날 후손들이 중시조(中始祖)로 받들고 있다. 특히 그는 상신(相臣)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조밥을 먹고 살았으리 만큼 청빈하였고, 하직에 있었을 당시 그를 무척 구박했던 계림군(鷄林君) 류양(柳亮)이 후에 국법(國法)을 어겨 이를 다스리면서도 복수는커녕 오히려 구명해 주었을 정도로 도량이 넓었다고 한다. 은(誾)의 맏아들 규(葵)도 세종 때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거쳐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 올랐고, 차남 강(薑)은 계유정난에 수양대군을 도와 좌익삼등공신(左翼三等功臣)으로 금천군(錦川君)에 봉해져서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아우 훤(萱)과 함께 이름을 떨쳤다.
그 밖에 딸이 세자빈(世子嬪 : 인종 비)으로 간택되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올라 금성부원군(錦城府院君)에 추봉된 용(墉),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과 사재감정(司宰監正)을 역임한 응천(應川), 선조의 장인이었으나 청렴결백하게 생활한 응순(應順), 명종 때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6조의 참의와 참판을 지낸 후 대사헌을 거쳐 도승지에 이른 응남(應男), 『조선실록(朝鮮實錄)』 편찬에 참여한 동망(東望), 임진왜란 때 병조좌랑으로 왕을 의주(義州)에 호종하여 호성이등공신으로 금계군(錦溪君)에 봉해진 동량(東亮), 조선 예학(禮學)의 거두(巨頭)로 동국18현(東國十八賢)의 한 사람으로 추앙되어 문묘(文廟)에 배향된 세채(世采), 조선 실학파(實學派)의 대가(大家)이며 『열하일기(熱河日記)』의 저자로 유명한 지원(趾源), 고종 때 대제학과 공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으며 최익현(崔益鉉) 등과 함께 강력한 척화(斥和)를 주장한 규수(珪壽 : 지원의 손자)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남 박씨는 파주시에 총 1,40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반남 박씨 양찬공파는 반남 박씨 시조의 14대손인 박엽 장군을 파시조(派始祖)로 한다. 파시조(派始祖) 의 묘는 양주시 남면에 있다. 파주에는 후손들이 월롱면에 많이 살고 있으며 적성면 객현리에도 살고 있다.

반남 박씨 대종파의 선영은 월롱면의 LG필립스 자리에 있었는데 문산읍 당동리로 이장하였다.
조선 전기의 좌명공신인 반남 박씨 평도공(平度公) 박은(朴訔) 묘가 문산읍 당동2로 74-16번지에 위치하며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제25호로 지정되었다.

비안 박씨(比安朴氏)

비안 박씨(比安朴氏)의 시조는 박우(朴瑀)이다.
그는 신라 파사왕의 후손에서 갈려진 계통으로, 고려에서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내고 병산군(屛山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월성 박씨에서 분적하여 관향을 비안(比安)으로 삼게 되었다.
비안은 경상북도 의성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본래 비옥(比屋)과 안정(安貞) 두 현(縣)의 합명(合名)인데, 조선 세종 때 두 현을 합해서 비안현(比安縣)이라 하였다.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하였으며 그 후 현서면(縣西面)은 예천군에 속하고 나머지는 의성군에 병합되어 지금은 의성군 비안면(比安面)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우(瑀)의 아들 일(逸)이 고려에서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냈으며, 증손 징(徵)은 공부전서(工部典書)를 역임하고 슬하에 아들 형제를 두어 그중 맏아들 원(遠)이 대제학(大提學)을, 둘째 규(逵)는 현감(縣監)을 지냈다. 고려 말에 보승중랑장(保勝中郞將)에 올랐던 점(漸)은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었으며, 그의 아들 서생(瑞生)이 태종 때 별시문과(別試文科)와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하고 병조좌랑을 거쳐 세종조에 이조참판과 대사헌에 올랐다. 효원(孝元)은 세조 때 등과하여 예종이 즉위하자 수찬(修撰)으로 춘추관(春秋館)의 기사관(記事官)이 되어 『세조실록(世祖實錄)』의 편찬에 참여했고, 성종 때는 사간으로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밖에 형종(亨宗)이 개천군수(价川郡守)를 지냈으며, 종악(宗岳)은 이천찰방(利川察訪)을 거쳐 숙종 때 좌승지를 역임했고, 계인(繼仁)은 선교랑(宣敎郞)에 올랐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안 박씨는 파주시에 총 2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 박씨(三陟朴氏)

삼척 박씨(三陟朴氏)의 시조는 박원경(朴元鏡)이다.
신라 파사왕의 원손(遠孫)인 그는, 고려 공민왕 때 감찰(監察)을 거쳐 개성부윤(開城府尹)으로 홍건적의 침입 때 복주(福州: 지금의 안동)로 왕을 호종했고, 군사를 모집하여 개경(開京)을 수복하는 데 공을 세워 호종이등공신(扈從二等功臣)에 책록되었다. 그 후 1365년(공민왕 14)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삼척부원군(三陟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원경(元鏡)을 시조로 받들고 삼척(三陟)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삼척은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실직국(悉直國)이었는데, 102년에 신라에 합병되었다. 505년(지증왕 6)에 실직주(悉直州)라 하였고, 경덕왕 때 삼척(三陟)으로 개칭되어 여러 차례 변천을 거듭한 후 1895년 지금의 삼척군(三陟郡)이 되었다.
세종(世宗) 때 통훈대부(通訓大夫)로 부호군(副護軍)을 지낸 방실(邦實: 시조 원경의 현손)의 아들 3형제 대(代)에서 크게 3계통으로 갈라졌다. 방실(邦實)의 아들 3형제 중 맏아들 염(廉)은 조선 성종 때 등과하여 정헌대부(正憲大夫)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올라 정헌공파(正憲公派) 파조가 되었으며, 둘째 자천(自芊)은 성종 때 이조참의를 역임하고 효성(孝誠)이 지극하여 고종 때 정려가 내려졌으며, 후손들이 그의 아호(雅號)를 따서 성재공파(省齋公派)로 세계를 잇고 있다. 셋째 아들인 간(澗)도 성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병조참의에 올라 후손들이 참의공파(參議公派)의 파조로 받들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성종 때 등과하여 청주 병마절제사(淸州兵馬節制使)를 지낸 산두(山斗), 중종 때 과거에 급제하고 승사랑(承仕郞)으로 제용감봉사(濟用監奉事)를 역임한 응성(應星), 광해군 때 순충보조공신(純忠補助功臣)으로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 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에 증직(贈職)되고 척흥군(陟興君)에 봉해진 현좌(賢佐),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겸 춘추관(春秋館)의 기사관(記事官)을 거쳐 예·병·형 3조의 좌랑과 사헌부지평 등을 지내고 광해군 때 자헌대부로 이조판서 겸 홍문관대제학으로 증직되어 척성군(陟城君)에 봉해진 여랑(汝樑),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을 역임한 윤종(胤宗)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척 박씨는 파주시에 총 3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 박씨(尙州朴氏)

상주 박씨(尙州朴氏)의 시조는 박언창(朴彦昌)이다.
신라 경명왕의 둘째 아들인 그는, 사벌대군(沙伐大君)에 봉해지고 사벌주(沙伐州)를 식읍(食邑)으로 하사받아 문호가 열렸다.
상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삼한시대에 진한의 영토였으며, 사벌국(沙伐國)·사불(沙弗)로 독립해오다가, 신라 첨해왕(沾解王) 때 상주(上州)라 하였다. 그 후 상락군(上洛郡)·사벌주(沙伐州)로 불리다가 경덕왕(敬德王)이 상주(尙州)로 개칭하였다. 상산은 상주의 옛 지명이다.
역사인물로는 언창(彦昌)의 아들 욱(昱)이 고려에서 개국공신에 책록되고 예부상서(禮部尙書)와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냈고, 욱의 증손 원작(元綽)이 1040년(고려 정종6) 서면병마도감사(西面兵馬都監使)로 수질구궁노(繡質九弓弩 : 화살이 잇달아 나가게 한 장치)를 비롯한 혁거(革車), 등석포(騰石砲) 등 독창적인 무기를 제작하였다. 그의 아들 성걸(成傑)은 문종(文宗) 때 검교태위(檢校太尉)를 거쳐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올랐다.
조선에서는 태종 때 문과에 올라 벼슬이 평안감사(平安監司)에 이른 이창(以昌), 세종조에 군자감부정(軍資監副正)을 지낸 사화(士華), 척암(惕庵) 김근공(金謹恭)의 제자였으며 주역(周易)에 능통하여 학명이 높았던 수(受), 양주목사(楊州牧使)를 역임한 의(宜), 부사(府使)를 지낸 은생(殷生)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주 박씨는 파주시에 총 14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상주 박씨는 조선시대말 오산리 종중산 묘지기로 김포에서 파주로 옮겨왔다. 입향 초기에는 봉일천에 살았으며 후에 식현리로 옮겨와 살았다.
파주의 상주 박씨 정절공파는 박광우를 파시조(派始祖)로 하고 15대조 박린을 입향조(入鄕祖)로 한다. 조리읍 오산리에 1호가 살고 있으며 매년 10월 1~5일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오산리에 있다가 청주로 옮겨갔다.

순창 박씨(淳昌朴氏)

순창 박씨(淳昌朴氏)의 시조는 고려에서 순창군(淳昌君)에 봉해진 박제세(朴濟世)의 후손으로 전해지나 상계가 실전되어 조선 때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을 역임한 두간(斗幹)을 일세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선조의 봉군지(封君地)인 순창(淳昌)을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
순창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의 도실군(道實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순화군(淳化郡)이라 고쳤다. 고려 때는 순창현(淳昌縣)으로 고쳐져, 남원부(南原府)에 속하였다가, 1314년(충숙왕 원년)에 군(郡)으로 승격되어 조선에서도 계속 순창군(淳昌郡)으로 남원부에 속하였다. 그 후 1895년 남원부에서 독립하고, 1914년 군면 통폐합 때 임실군과 남원군의 일부가 편입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낸 천복(天福), 통정대부에 오른 학례(鶴禮) 부자, 판결사(判決事)를 역임한 구대(球大), 첨정(僉正)을 지낸 효겸(孝謙)·지원(枝元), 고종 때 83세로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병조참의를 거쳐 가선대부로 용양위호군을 역임한 문규(文逵)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창 박씨는 파주시에 총 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 박씨(順天朴氏)

순천 박씨(順天朴氏)의 시조는 박영규(朴英規)이다.
그는 신라 경명왕의 일곱째 아들인 강남대군(江南大君) 언지(彦智)의 아들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후백제 견훤의 사위로 왕건을 도와 고려 창업에 공을 세워 개국공신에 책록되고 삼중대광으로 좌승(左丞)에 올라 승주군(昇州君)에 봉해졌으며, 후손 난봉(蘭鳳)은 평양부원군(平陽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영규(英規)를 시조로 받들고 본관을 순천(順天)으로 삼아 세계를 계승하여 왔으나, 그 후의 계대가 실전되어 고려 충숙왕 때 보문각대제학을 지낸 숙정(淑貞)을 일세조로 계대하고 있다.
순천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에는 함평(咸平), 신라 때 승평(昇平), 996년(고려 성종 15)에 승주(昇州)로 불렀다가, 1310년(충선왕 2) 순천(順天)으로 개칭하였다. 순천은 평양(平陽)이라는 별호로 불리기도 했다.
순천 박씨는 일세조 숙정이 슬하에 아들 5형제를 두어 가문이 크게 융성하기 시작했는데 맏아들 원룡(元龍)은 시랑(侍郞)을 역임했고 막내 원상(元象)은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지냈으며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오른 천상(天祥 : 원료의 아들)의 아들 가흥(可興 : 좌정승)·가실(可實 : 판계림윤)·가권(可權 : 개성판윤) 3형제가 크게 현달(顯達)했다. 조선에 와서는 가흥의 아들 석명(錫命)이 태종(太宗)때 명신(名臣)으로 유명했다. 그는 정종(定宗), 태종(太宗)과 더불어 이불을 같이 덮고 잤을 만큼 절친한 사이였으며 고려 공양왕(恭讓王)의 아우인 왕우(王瑀)의 사위이기 때문에 조선이 개국되자 화(禍)를 피하기 위하여 7년간이나 은거(隱居)하다가 태종 때 좌명삼등공신(佐命三等功臣)으로 평양군(平壤君)에 봉해졌다.
역사인물로 석명(錫命)의 손자가 세조(世祖) 때 이시애(李施愛)의 난(亂)을 토평하던 중선(仲善)이며 목사(牧使) 안생(安生)의 아들 중림(仲林)은 1423년(세종 5) 식년문과에 이어 중시(重試)에 급제하고 집현전학자(集賢殿學者)로 선임되었으며 단종 때 공조참판에 올라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대사헌을 거쳐 이조판서에 올랐으나 세조(世祖)가 왕위(王位)를 찬탈하자 사육신(死六臣)과 더불어 단종복위(端宗復位)를 도모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아들 팽년(彭年)·인년(引年)·기년(耆年)·대년(大年)·영년(永年) 5형제와 손자 헌(憲)·순(珣) 등과 함께 참화를 당했다. 1434년(세종 16)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한 팽년은 성삼문과 함께 세종의 극진한 총애를 받았으며 경학(經學)·문장(文章)· 필법(筆法) 등에 빼어난 석학으로 세조 때 형조참판에 올라 사육신과 함께 단종복위를 도모하다가 화(禍)를 입었다. 중종반정의 주역인 원종(元宗)은 영의정을 지냈는데 무과 출신으로 영의정에 오르기는 신경진(申景禛)과 함께 역사상 두 사람뿐이다. .
그 밖에 광해군 때 대사성·대사간을 지내고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했다가 삭탈관직된 이장(而章), 숙종 때 왕자의 스승을 지내고 『손재집(遜齋集)』, 『진호문답(晋湖問答)』, 『나소판무(羅疏誣)』 등의 저서를 남긴 광일(光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에 오른 충후(忠後), 정조 때 등과하여 병조참판을 지낸 기정(基正)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 박씨는 파주시에 총 66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 박씨(驪州朴氏)

여주 박씨(驪州朴氏)의 시조는 박지석(朴之碩)이다.
그는 신라 경명왕의 맏아들인 밀성대군(密城大君)의 20세손으로 전한다. 문헌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환(奐)이 여주에 살다가 함경남도 함흥으로 이거하였으며, 그는 고려 말에 문과에 급제하고 중훈대부(中訓大夫)로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을 재냈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밀양 박씨에서 분적하여 선조의 본향지인 여주(驪州)를 본관으로 삼고 지석(之碩)을 시조로 받들게 되었다.
여주는 경기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골래근현(骨內斤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황효현(黃驍縣)으로 개명하여 기천군(沂川郡)의 영현이 되었으며, 고려 초에 황려현(黃驪縣)으로 고치고 1018년(현종 9) 원주에 속하였다가 고종 때 영의(永義)로 개칭되었다. 1305년(충렬왕 31) 여흥군(驪興郡)으로 승격한 후 조손 태종(太宗) 때 음죽현(陰竹縣)의 북부를 현입하여 여흥부(驪興府)로 승격되면서 관할이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변경 되었다. 예종 때 천녕현(川寧縣)을 병합하여 여주목(驪州牧)으로 하고 1501년 충주부(忠州府)의 관할하에 두었다가 1895년 충주부 여주군으로 칭하였으며, 1914년 경기도 여주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조선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던 성장(聖章)·영수(榮秀) 부자, 판결사(判決事)를 역임한 인열(仁悅), 부호군(副護軍)을 지낸 흥원(興元), 참의를 지낸 세만(世萬),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낸 의우(義佑), 공조참의를 지낸 휘잠(輝岑), 한성부윤을 지낸 팽로(彭老), 중추부사(中樞府事)를 지낸 재세(載世)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주 박씨는 파주시에 총 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 박씨(靈岩朴氏)

영암 박씨(靈岩朴氏)는 박항(朴恒)을 중시조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고 있다.
신라 경명왕의 큰아들인 밀성대군(密城大君) 언침(彦忱)의 10세손인 그는 고려에서 좌상(左相)을 지냈다. 문헌에 의하면 중시조 항(恒)의 아들 통(通: 초명은 천흘)이 고려 명종 때 관직을 지내며 나라에 공을 세워 영암군(靈岩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밀양 박씨에서 분적하여 영암(靈岩)을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밀양박씨족보(密陽朴氏族譜)』와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의 문헌에는 항의 자손으로 고려 고종(高宗) 때 시위장군(侍衛將軍)에 오르고 영암군(靈岩君)에 봉해진 성제(成濟)를 영암 박씨의 관조(貫祖)로 기록하고 있다.
영암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에는 월내군(月奈郡)으로 불리웠고, 통일신라 때 영암군(靈岩郡)이 되었다. 995년(고려 성종 14)에 낭주군(郎州郡)이라 개칭되기도 하였으며, 1096년(고종 33) 다시 영암으로 복칭(複稱)되었다.
역사인물로는 5세손 기(璣)가 충숙왕 때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냈으며, 그의 손자 위(偉)가 우왕 때 문과 급제하여 운봉군(雲峰君)에 추봉되고, 증손 성좌(成佐)는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사위로 고려 말에 좌참찬(左參贊)을 지냈으나 조선이 개국하자 벼슬을 마다하고 불사이군의 충절로 절의를 지켰다.
성좌(成佐)의 증손으로 성종 때 문과에 급제한 세보(世甫)는 함길도관찰사(咸吉道觀察使)와 호조판서지냈고, 통훈대부로 우봉현령(牛峰縣令)을 지낸 숭산(崇山)은 세보(世甫)의 손자이자 감찰(監察) 휴(休)의 아들로 황주진관 병마절제사(黃州鎭管兵馬節制使)를 역임하고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다. 이들 모두 크게 현달하여 가문을 중흥시켰다. 맏아들인 진(榛)이 진력부위로 내금위 대장(內禁衛大將)을 거쳐 훈련원도정(訓練院都正)을 지냈다. 둘째 추(楸)는 황해도사(黃海都事)를, 막내 율(栗)은 통덕랑(通德郎)으로 학정(學正)을 역임했다. 선조(宣祖) 때 어모장군(禦侮將軍)으로 내금위대장(內禁衛大將)을 지낸 희길(希吉)은 임진왜란에 공을 세워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로 이등공신(二等功臣)에 책록되었으며, 대길(大吉)은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으로 공신에 올랐다.
그 밖에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낸 상춘(尙春), 공조참의를 지낸 기영(起榮, 한일합방이 되자 포천에서 항일투쟁에 앞장선 영식(永植)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암 박씨는 파주시에 총 8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해 박씨(寧海朴氏)

영해 박씨(寧海朴氏)의 시조는 박제상(朴堤上)이다.
그는 신라 파사왕의 5세손인 파진찬(波珍飡) 물품(勿品)의 아들이다. 삽량주 태수로 있던 제상(堤上)이 왜국에 인질로 잡힌 눌지왕의 동생 미사흔을 구하여 신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왜왕(倭王)에게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전하는데, 눌지왕은 그의 충절을 치하하기 위해 대아찬(大阿飡)의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그 후 제상의 26세손 명천(命天)이 고려 때 전법판서(典法判書)를 지내고 삼중대광벽상공신(三重大匡壁上功臣)으로 예원군(禮原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영해(寧海)를 본관(本貫)으로 하여 제상(堤上)을 시조로 하고 명천(命天)을 중시조(中始祖)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영해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의 우시군(于尸郡)을 통일신라때 유린군(有隣郡)으로 고쳤고, 고려 초에 예주(禮州)로 하였다가 1259년(고종 46) 덕원소도호부(德原小都護府)로 승격하였다. 그 후 예주로 다시 고치고 1310년에 영해부(寧海府)로 개칭하였으며 1895년에 군(郡)이 되었으나 1913년 영덕군에 통합되어 일부지역은 영해면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 신라 자비왕(慈悲王) 때 명신인 문량(文良)은 제상의 아들로 천성이 청렴결백하여 항상 가난 속에서 청빈(淸貧)하게 살았으며 거문고(彈琴)를 즐겼고 의복(衣服)이 남루하여 백군데나 기운 누더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백결선생이라 불렀다.
고려 때 인물로는 중시조 명천(命天: 예원군)의 아들 윤(論)이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 상주국(上柱國)에 올라 평장사(平章事)를 지내고 판병부사(判兵部事)에 이르렀으며 그의 손자 선(宣)이 문종(文宗) 때 진국공신(鎭國功臣)으로 태자태사(太子太師)를 지내고 단양부원군(丹陽府院君)에 봉해졌다. 그 후 경창공주(慶昌公主)와 혼인하여 영성군(寧城君)에 봉해진 태고(太古:선의 아들)의 아들 용재(用才)와 용량(用良)의 형제가 크게 현달(顯達)하였다.
그 밖에 세조의 왕위찬탈을 개탄하여 김시습(金時習)·조상치(曺尙治) 등과 함께 김화(金化) 초막동(草幕洞)에 은거(隱居)하여 단종복위를 도모했던 도(渡)·제(濟) 형제, 규손(奎孫)·효손(孝孫)·천손(千孫) 형제, 당대에 문장(文章)으로 이름을 떨친 치안(致安), 순조 때 통례원인의(通禮院引儀)와 감찰(監察)을 지낸 명벽(命壁)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해 박씨는 파주시에 총 2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봉 박씨(雲峰朴氏)

운봉 박씨(雲峰朴氏)의 시조는 박중화(朴仲華)이다.
신라 경명왕의 맏아들인 밀성대군(密城大君) 언침(彦沈)의 11세손인 그는, 고려 말에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를 지냈으며, 그의 현손 종우(從愚)가 조선 태종의 장녀 정혜옹주(貞惠翁主)와 혼인하여 운성군(雲城君)에 봉해지고 세종 때 이조판서를 거쳐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으며 계유정난에 세조 도와 정난 1등공신으로 운성부원군(雲城府院君)에 진봉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밀양 박씨에서 분적하여 중화(仲華)를 시조로 받들고 운봉(雲峰)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계승하여 왔다.
운봉은 전라북도 남원군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의 무산현·아영성(阿英城)·아막성(阿莫城)이었는데 경덕왕 때 운봉현(雲峰縣)으로 고쳐 천령군(天嶺郡)의 속현이 되었다가 고려 때 남원부(南原府)에 속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운봉군이 되었으나 1914년 남원군에 합해져 지금은 남원시 운봉면에 이르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조선 태조부터 세종에까지 4대에 걸쳐 명신으로 이름났던 신(信), 효행으로 명성을 떨친 익래(翼來), 충훈부도사(忠勳府都事)를 역임한 흥래(興來), 강릉참봉(康陵參奉)을 지낸 서래(瑞來), 명릉참봉(明陵參奉)을 지낸 태륜(泰崙)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봉 박씨는 파주시에 총 1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박씨(蔚山朴氏)

울산 박씨(蔚山朴氏)는 신라 경명왕의 막내아들인 국상공(國相公) 교순(交舜)의 7세손 윤웅(允雄)을 중조(中祖)로 받들어 기일세하여 왔다. 『울산박씨세보(蔚山朴氏世譜)』에 의하면 그는 고려 문종(文宗) 때의 국감(國監) 경목(慶穆)의 손자이며 평장사(平章事) 형립(亨立)의 둘째 아들로 울산현 교동(蔚山縣 校洞)에서 태어나, 1099년(고려 숙종 4) 동여진(東女眞)의 10만 대군이 침공해 왔을 때 이를 물리쳤고 예종(睿宗) 때 재침한 여진족을 윤관(尹瓘)·오연총(吳延寵) 장군과 더불어 격퇴시켜 대장군(大將軍)에 올라 흥려백(興麗伯)에 봉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울산(蔚山)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면서 후대로 내려와 종파(宗派)인 용당파(龍塘派)를 비롯하여 20개 파로 갈라졌다.

울산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굴아화촌(屈阿火村)인데 파사왕(婆裟王)이 현(縣)을 두었고 경덕왕(景德王)은 하곡(河曲)으로 개명(改名)하여 임관(臨關)의 영현(領縣)으로 삼았으며 고려 태조는 흥려부(興麗府)로 승격시켰다. 그 후 여러 변천을 거쳐 1397년(태조 6) 진(鎭)을 두었고 1413년(태종 13)에는 진(鎭)을 파(罷)하고 울산(蔚山)으로 개칭하여 지군사(知郡事)로 삼았다. 1599년(선조 32) 부(府)로 승격하였고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어 1931년 울산면이 울산읍으로 승격하였으며 1962년 읍이 울산시(蔚山市)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중시조 윤웅(允雄)의 아들 우(祐)가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내고 증손 연(演)은 봉의랑(奉儀郞)으로 합문지후(閤門祗候)를 역임하였다. 고려 말 감무(監務)를 지내고 한림(翰林)의 벼슬로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절의(節義)를 지켰던 유(愈)는 봉상시정(奉常寺正) 길우(吉佑)의 아들로 후에 예산대흥(禮山大興)으로 옮겨 살면서 다시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으며 대제학(大提學) 천익(天翼)의 아들 인량(寅亮)은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냈다.

조선의 인물로는 임진왜란 때 합천(陜川)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이문(而文), 전쟁에서 순절한 영정(英挺),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좌도수군절도사(慶尙佐道水軍節度使)로 문경새재·평양(平壤)·평산(平山) 등지에서 적의 선봉을 맞아 싸워 패했으나 집요하게 저항하였으며 선조를 평양으로 호종한 홍(泓), 현종 때 은산현감(殷山縣監)을 거쳐 장령(掌令)에 이른 율(橘), 숙종 때 목사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내고 당시 조정의 정책과 사회의 제도를 문답식으로 날카롭게 풍자한 『요로원야화기(要路院夜話記)』를 저술한 두세(斗世) 등이 있고, 한말에 와서는 학행이 고명한 학자로 이름을 떨쳤고 『신암집(新庵集)』을 남긴 응한(應漢)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박씨는 파주시에 총 19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 박씨(月城朴氏)

월성 박씨(月城朴氏)의 시조는 박언의(朴彦儀)이다.
그는 신라 경명왕의 8형제 중 막내였는데, 월성대군(月城大君)으로 봉군(封君)되었으므로 후손들이 관향을 월성(月城)으로 하게 되었다.
월성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개국하여 사로국(斯盧國), 즉 서라벌(徐羅伐)이라 하였다가 후에 신라로 불려오던 중 65년(탈해왕 9)에 계림(鷄林)으로 개명되었고 기림왕(基臨王) 때 다시 신라로 고쳤으나 고려 때 경주(慶州)로 개칭하였다. 987년(성종 7)에는 동경(東京)이라 하고 목종(穆宗)때 낙랑군(樂浪郡)으로 강등하였다가 현종(顯宗) 때 다시 경주라 하였으며 이후 안동대도호부 경주목 등으로 변천 해오다가 충렬왕(忠烈王) 때 계림부(鷄林府)로 고쳐 불렀다. 1415년(태종 15) 경주부로 다시 고치고 1895년(고종 32)에 경주군(慶州郡)이 되었으며 1955년 8월 경주시를 설치하면서 종전의 경주군의 나머지 지역을 월성군(月城郡)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역사인물로는 공조전서를 지낸 겸형(兼亨)의 손자 귀(龜)가 고려 말에 중군사정(中軍司正)·부령을 지냈으나 고려가 기울자 벼슬을 버리고 인천(仁川)에 있는 산중에 은거하였다. 구례현감(求禮縣監)을 역임하고 영남(嶺南) 의흥(義興)으로 낙향했던 옹(雍)의 증손 민수(敏樹)는 효성(孝誠)이 뛰어나 부상(父喪)을 당하자 3년 동안 여막(廬幕)에서 시묘(侍墓)하여 공조참의에 추증되었으며, 민수의 둘째 아들인 응상(應祥)은 임진왜란이 일어나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70세의 병든 몸으로 전장에 뛰어들어 장렬하게 순절하여 명성을 떨쳤다.
그 밖에 임진왜란 때 화왕산성(火旺山城) 방어에 공을 세워 병조정랑(兵曹正郎)과 평안도절제사(平安道節制使) 겸 순무사(巡撫使)가 된 종남(從男), 선조 때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여 병조좌랑을 거쳐 경주부윤(慶州府尹)에 오른 홍미(弘美), 영조 때 효행으로 이름난 천우(天祐)·종석(宗碩), 을사보호조약의 울분으로 바다에 몸을 던져 순절한 능일(能一)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 박씨는 파주시에 총 10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박씨(陰城朴氏)

음성 박씨(陰城朴氏)의 시조는 박서(朴犀)이다.
그는 신라 경명왕의 넷째 아들인 죽성대군(竹城大君) 언립(彦立)의 11세손이다. 문헌에 의하면 고려 고종 때 몽골의 장수 살리타이가 쳐들어와 철주(鐵州)를 함락하고 이어 귀주(龜州)를 공격하자 그가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이를 물리쳐서 몽골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으며, 후에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올라 음성백(陰城伯)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죽성 박씨에서 분적하여 서(犀)를 시조로 하고 관향을 음성(陰城)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음성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진한의 영토였으나 고구려 장수왕 때 잉홀현(仍忽縣)이라 하였고, 553년(진흥왕 14)에 신라의 영토가 되어 경덕왕이 음성현(陰城縣)으로 고쳐서 흑양군(黑壤郡: 진천)에 속하게 하였다. 그 후 고려 성종 때 충주부(忠州府)에 속하였으나, 1413년(태종 13)에 와서 현감(縣監)을 두었고, 선조 때 청안(淸安)에 속하였으며 1618년(광해군 10)에 다시 음성현이 되었다. 고종 때 군으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서(犀)의 아들 재(梓)가 고려에서 공부상서(工部尙書)를 역임했고, 손자 현계(玄桂)는 충숙왕 때 전리총랑(典理摠郞)과 평해부사(平海府使)를 거쳤으며, 조적(曹頙)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이등공신에 책록되었다. 슬하의 아들 3형제 중 맏아들 문서(文瑞)는 강화부사(江華府使)를, 차남 문길(文吉)은 지군사(知郡事)를 거쳐 문하시랑(門下侍郞)에 올랐다. 조선창업(朝鮮創業) 때 이성계를 도와 개국공신으로 상장군(上將軍)에 올랐던 순(淳)은 문길(文吉)의 아들이다. 순(淳)의 아우 정(淨)은 세종 때 직제학과 예조판서를 거쳐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고, 순(淳)의 아들 소(昭)는 좌승지로 단종복위를 도모했다가 형을 받았다.
순(淳)의 손자 숙진(叔秦)은 대사헌을, 숙무(叔楙)는 세종 때 나주목사(羅州牧使)를, 숙달(叔達)은 성종 때 이조정랑과 집의(執義)를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을 도왔던 광옥(光玉)은 참봉(參奉) 자회(子回)의 손자였다.
그 밖에 광해군 때 이이첨 일당의 전횡을 탄핵했던 지성(至誠), 영조 때 효행으로 이름난 호원(浩遠), 아산현감(牙山縣監)을 지낸 정규(廷珪),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을 역임한 종언(宗彦), 『목도서설(木圖書說)』의 저자(著者) 준흠(俊欽)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성 박씨는 파주시에 총 9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흥 박씨(義興朴氏)

의흥(義興)은 경상북도(慶尙北道) 군위군(軍威郡)에 속해있는 지명(地名)으로 본래 고구려(高句麗)의 의흥군(義興郡)을 고려(高麗) 현종(顯宗) 때 안동부(安東府)에 속하게 하였고, 공양왕(恭讓王) 때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조선(朝鮮) 태종(太宗) 때 현(縣)이 되었다가 1895년(고종 32)에 군(郡)으로 승격되고, 1914년에 군위군(軍威郡)에 속한 의흥면(義興面)이 되었다.

의흥 박씨(義興朴氏)의 시조(始祖) 박을규(朴乙規)는 본성(本姓)이 왕씨(王氏)로 고려의 왕족(王族)이었다. 『의흥박씨세보(義興朴氏世譜)』에 의하면 그는 고려 말에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지냈고 조선이 개국(開國)되자 화(禍)를 피하기 위하여 춘성 거의동(春城 車衣洞)에 둔거하였다가 태종(太宗) 때 외가(外家)의 성(姓)인 박씨(朴氏)로 따랐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을규(乙規)를 시조로 받들고 관향(貫鄕)을 의흥(義興)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계승하였으나, 56년간의 중간 계대(系代)가 실전(失傳)되어 후손 득서(得瑞)로부터 대(代)를 이었다.

가문을 빛낸 대표적인 인물(人物)로는 득서(得瑞)의 아들 근(瑾)이 1447년(세종 29)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단종(端宗)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1455년(세조 원년) 주부(主簿)에 올라 한확(韓確), 정인지(鄭麟趾), 최항(崔恒), 황수신(黃守身) 등과 더불어 좌익공신(佐翼功臣)에 책록되었고, 1464년(세조 10) 충주판관(忠州判官)을 거쳐 성종 때 교하현감(交河縣監)과 나주목사(羅州牧使)를 지내고 영암군수(靈岩郡守)로 나갔으며, 그의 아들 지홍(之洪)은 성종(成宗) 때 어모장군(禦侮將軍)으로 사과(司果)를 지냈다.

한편 중종(中宗) 때 충좌위부사직(忠佐尉副司直)을 지낸 언성(彦誠:교위 질의 아들)의 아들 승종(承宗)은 통덕랑(通德郞)으로 학문(學文)과 효성(孝誠)이 뛰어났으며, 임진왜란 때가 대가(大駕)를 호종(扈從)했다. 경심(景諶)의 아들 수검(守儉)은 일찍이 조서윤(趙錫胤)의 문하(門下)에서 문장(文章)과 글씨를 배우고 우암 송시열(宋時烈)에게 수학(修學)하여 현종(顯宗) 때 문과(文科)에 올랐으며,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제천(提川)에 돌아갔다가 뒤에 다시 관직에 올라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를 지낸 후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에 추증되어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을 역임한 양신(良愼)과 함께 이름을 떨쳤고, 양후(良后)는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으로 가문을 빛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흥 박씨는 파주시에 총 3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산 박씨(竹山朴氏)

죽산 박씨(竹山朴氏)의 시조는 박기오(朴奇悟)이다.
그는 신라 경명왕의 넷째 왕자인 죽성대군(竹城大君) 언립(彦立)의 아들이다. 『죽산박씨족보(竹山朴氏族譜)』에 의하면 죽성대군 언립(彦立)의 아들 기오(奇悟)가 왕건을 도와 고려창업에 공을 세우고 태조(太祖) 때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삼중대광태보(三重大匡太保)에 올라 죽주백(竹州伯)에 봉해지고 식읍(食邑)으로 죽산(竹山)을 하사받아 후손들이 죽산(竹山)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죽산은 경기도 용인시과 안성시 일부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개차산군(皆次山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개산군(介山郡)으로 고쳤다가 고려 초에 죽주(竹州)로 고치고, 995년(성종 1)에 단련사(團鍊使)를 두어 음평(陰平) 또는 연창(延昌)이라 하였으며 현종(顯宗) 때 광주(廣州)로 속하였다. 1413년(태종 13)에 죽산(竹山)으로 개칭하여 감무(監務)를 두었고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었다가 1913년 원일면(遠一面)과 근삼면(近三面) 일부는 용인군에 합해지고 나머지 지역은 안성군에 합해졌다.
역사인물로 7세손 정유(挺莪)는 고려 예종과 인종 대에 걸쳐 20여 년간 대간(臺諫)으로 있으면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우부승선(右副承宣)을 거쳐 추밀원부사(樞密院 副使) 겸 태자좌빈객(太子左賓客)에 이르렀다. 형부원외랑(刑部員外郞) 육화(育和)의 아들로(騎士) 기사(騎射)에 능했던 인석(仁碩)은 명종(明宗) 초에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여 북원(北原)에 은거했다가 선종(宣宗)이 즉위 하자 감찰어사(監察御史)와 형부원외랑을 지내고 초토판관(招討判官)으로 경주(慶州)의 초적(草賊)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워 호부상서(戶部尙書)에 이르렀따. 전법판서(典法判書) 휘(暉)의 아들 전지(全之)는 외교(外交)와 정치이론에 밝아 원나라에까지 명성을 떨치고 충선왕(忠宣王)이 복위(復位)하자 연흥군(延興君)에 봉해졌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안성(安性)의 후대에서는 광해군 때 좌의정을 지낸 홍구(弘耉)가 유명했다.
그 밖에 인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권지중군(權知中軍)으로 용만(龍灣) 전투에서 순절한 신룡(信龍), 정유재란에 공을 세워 정난이등공신 책록되고 연창군(延昌君)에 봉해진 명현(名賢),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幸州大捷)에 공을 세웠고 정유재란에는 구례 전투에서 순절한 계성(繼成), 영조 때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오른 종유(宗儒), 고종 때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주현(周鉉), 평안북도 선천(宣川)에서 항일운동에 공헌했던 치조(治祚)·치의(治義)·건채(健采)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죽산 박씨는 파주시에 총 43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원 박씨(珍原朴氏)

진원 박씨(珍原朴氏)의 시조는 박진문(朴進文)이다.
그는 박혁거세의 42세손으로 알려져 있다. 『진원박씨대동보(珍原朴氏大同譜)』에 의하면 시조 진문(進文)이 고려에서 대장군을 역임했고 그의 현손 첨(瞻)은 순충론도동덕좌명공신(純忠論道同德佐命功臣)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오르고 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 춘추관사(春秋館事) 등을 역임한 후 익양백(益陽伯: 지금의 경북 영천)에 봉해졌다. 8세손 희중(熙中)이 조선 태종 때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고 지제교(知製敎)와 기주관(記主官)을 거쳐 회례사(回禮使)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김제(金堤)의 벽골제(碧骨提)를 축조하는데 공(功)을 세워 백성들이 제방위에 비(碑)를 세워 은혜의 뜻을 표시했다. 집현전제학(集賢殿提學)으로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었으며 1423년(세종 5) 예문관직제학(藝文館直提學)을 지낸 후 벼슬을 버리고 향리(鄕里)인 진원(珍原)으로 돌아가 후진양성에 진력하였다. 특히 그는 글씨에 능하여 필적이 '해동명필(海東名筆)'에 실려 있다. 그로부터 후손들은 밀양 박씨에서 분적하여 진문(進文)을 시조로 받들고 진원(珍原)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진원은 전라남도) 장성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백제의 구사진혜현(丘斯珍兮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진원현(珍原縣)으로 고쳐서 갑성군(岬城郡: 장성군의 옛 지명)에 속하게 하였고, 고려 명종 때 나주에 이속되어 감무(監務)를 두었고 조선 선조 때 장성(長城)에 속하여 진원면(珍原面)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역사인물로는 14세손 광전(光前)이 선조 때 감찰(監察)과 함열현감(咸悅縣監)을 거쳐 회덕현감(懷德縣監)으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는 의병을 일으켜 전쟁에 공을 세워 보성(寶城)에 제향되었다. 그의 맏아들 근효(根孝)는 아우 근제(根悌)와 함께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최경회(崔慶會)의 막하에서 무공을 세웠다.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을 역임한 원효(元孝)와 첨사(僉使) 지추(之樞)의 아들 응삼(應參), 생원(生員) 세린(世麟)의 아들 응호(應虎), 진사 이건(而建)의 아들 광현(光玄) 등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무명을 떨쳤다.
그 밖에 병자호란 때 의병활동을 하고 화의(和議)가 된 후에 낙향하여 후진양성에 전념한 춘수(春秀), 남한산성이 함락되자 고향에서 저술에 힘써 『산양지(山陽誌)』를 남긴 춘장(春長), 성리학에 정통하였고 『금호집(琴澔集)』을 저술한 정최(挺最) 사천현감(泗川縣監)을 지낸 정영(挺榮) 등이 있다.
한말에 와서는 한일합방이 되자 가산을 털어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남현(南鉉)과 학자로 명망이 높았던 용주(鎔柱), 신학문(新學問)의 기수 우용(佑龍)이 유명했고, 문용(文鎔)은 상해임시정부의 요인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약하여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원 박씨는 파주시에 총 20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박씨(昌原朴氏)

창원 박씨(昌原朴氏)의 시조는 박영(朴齡)이다.
그는 신라 경명왕의 맏아들 밀성대군(密成大君) 언침(彦忱)의 17세손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감문위대호군(監門衛大護軍)과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한 유화(有華)의 증손으로 공민왕 때 창원도호부사(昌原都護府使)를 지내고 나라에 공을 세워 창원군(昌原君)에 봉해짐으로서 후손들이 밀양 박씨에서 분적하여 그를 일세조로 받들고 창원(昌原)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창원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대에는 금관가야(金官伽倻)에 속했다. 『한국지명연혁고(韓國地名沿革考)』에 의하면 창원(昌原)은 본래 의창현(義昌縣)과 회원현(會原縣)의 합명(合名)이다. 의창(義昌)은 신라(新羅) 때 굴자군(屈自郡) 또는 의안군(義安郡)으로 불리다가 1282년(충렬왕 8)에 의창(義昌)으로 개칭되었고, 회원(회원)은 신라 때의 굴포현(屈浦縣)을 경덕왕(景德王)이 합포(合浦)로 고쳤다가 고려에 와서 회원(會原)으로 개칭하여 1413년(태종 13)에 이르러서 두 현(縣)을 합하여 창원부(昌原府)라 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영(齡)의 아들 손(蓀)이 부사(府使)를 역임했고, 조선에 와서는 진사 동지(東智)의 아들 3형제 중 맏아들 유원(由元)이 참의(參議)를, 둘째 유정(由貞)은 참판(參判)을 지냈으며, 막내 유창(由昌)은 승지(承旨)에 이르렀다. 유원의 아들 태수(泰首)와 유창(由昌)의 아들 태계(泰桂)는 판관(判官)을 지냈으며, 언석(彦碩)은 대사헌에 올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한 유엽(有燁)·숭엽(崇燁)과 함께 명성을 떨쳤다.
그 밖에 부제학(副提學)을 지낸 경(璟), 부사(府使)를 지낸 이장(而章), 참찬관(參贊官)을 지낸 상신(尙臣), 부총관(副總管)을 지낸 성은(聖殷)·상희(尙希), 대사간을 지낸 사문(師文)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 박씨는 파주시에 총 8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 박씨(春川朴氏)

춘천 박씨(春川朴氏)는 의 시조는 박항(朴恒)이다.
그는 신라 경명왕의 일곱째 아들인 강남대권(江南大君) 언지(彦智)의 11세손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고려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원(翰林院)에 보직되고, 이어 충주(忠州牧使)로 나가 많은 치적을 남겼으며 충렬왕 때 승선(承宣)을 거쳐 동지밀직사(同知密直使)에 올라 왕을 호종하고 원라에 다녀와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록되고 춘성부원군(春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그 후 참문학사(參文學士)와 찬성사(贊成事)에 이르렀고, 문장(文章)에 뛰어났으며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명망이 높았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춘천(春川)에 세거하면서 항(恒)을 일세조로 하고 춘천(春川)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춘천은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맥국(貊國)의 땅이었던 것을 선덕여왕 때 우수주(牛首州)·우두주(牛頭州)라 불렀고, 673년(문무왕 13)에 수약주(首若州)·조근내(鳥斤乃)·수차약(首次若)으로 개칭하였으며, 경덕왕 때 삭주(朔州)로 고쳤다가 뒤에 광해주(光海州)로 하였다. 940년(고려 태조 23) 춘주(春州)로 고치고 성종 때, 단련사(團練使)를 두어 안변부(安邊府)에 예속시켰다가 안양도호부(安陽都護府)가 되었으며, 1413년(태종 13) 춘천군(春川郡)으로 고쳤다. 그 후 여러 번 바뀌다가 광복 후에 춘천군(春川郡)을 춘성군(春城郡)으로 고치고 춘천읍(春川邑)을 시(市)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역사인물로는 항(恒)의 맏아들 원굉(元宏)이 고려에서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했고, 그의 아우 원비(元庇)는 판서를 지냈으며, 손자 안구(安具)는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조선에서는 안구의 손자 의공(義公)이 병조판서를 지냈으며, 시중(侍中) 영기(英奇)의 맏아들 충간(忠幹)은 목사를 역임했다.
그 밖에 현감을 지낸 은혁(恩赫), 정랑(正郞)을 지낸 명정(命鼎), 감찰(監察)을 역임한 명익(命益),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근징(根徵), 참의(參議)를 지낸 이검(履儉), 좌승지(左承旨)를 지낸 세영(世泳)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춘천 박씨는 파주시에 총 14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 박씨(忠州朴氏)

충주 박씨(忠州朴氏)는 신라 경명왕의 다섯째 아들인 사벌왕(沙伐王) 언창(彦昌)의 11세손 박영(朴英)을 중시조로 받들고 있다. 『충주박씨세보(忠州朴氏世譜)』에 의하면 중시조 영(英)은 고려에서 첨의정승(僉議政丞)에 오른 원정(遠挺)의 둘째 아들로 벼슬이 부정(副正)에 이르렀고 당시 중원경(中原京)에 세거하였으므로 본관을 충주(忠州)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충주는 충청북도 중원군(中原郡)에 있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 국원성(國原城)·미을성(未乙省)·완장성(薉長城)·탁장성(託長城) 등으로 불리다가 신라에 병합되어 진흥왕 때 이곳에다 소경(小京)을 두었고 경덕왕이 중원경(中原京)으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가 충주(忠州)로 개칭하였다. 그 후 고종 때 국원경(國原京)으로 고쳐 불렀고, 1550년(명종 5) 유신현(維新縣)으로 부르다가 조선 선조 즉위년에 다시 충주(忠州)로 환원되었다. 그 후 1956년 충주면(忠州面) 일원으로는 충주시(忠州市)를 만들고 나머지는 중원군(中原郡)으로 고쳤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말에 권신 임견미(林堅味)의 전횡(專橫)을 탄핵했던 8세손 광리(光理)가 개성소윤(開城少尹)을 세 번이나 역임하고 청렴으로 명성을 떨쳤다. 사헌부감찰을 거쳐 진해(鎭海)·직산(稷山) 감무(監務)를 지냈던 진(秦)과 은산군사(殷山郡事)를 역임한 소(蘇) 형제가 어지러운 정국(政局)을 피하여 충청도 덕진현(德津縣: 지금의 대전시 가장동)으로 은거하였다.

조선에서는 청간재(聽澗齋) 효함(孝諴)이 청주목사(淸州牧使)를 지내며 선정(善政)을 베풀어 강릉대도호부사(江陵大都護府使)에 이르렀다. 일찍이 석학(碩學) 이퇴계(李退溪)가 '고풍탁식(高風卓識)의 완인(完人)'이라고 극찬했던 상(祥)은 성격이 간략하고 높아서 악(惡)을 미워함이 천성에서 우러나왔다고 『병진청사록(丙辰丁巳錄)』에 기록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고 여러 번 외직으로 나갔다. 상(祥)의 아우 우(祐)는 중종 때 우승지(右承旨)를 지내다가 권신 김안로(金安老)가 권세를 부리자 자청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로 나갔고 뒤에 도승지(都承旨)에 올랐으나 탄핵으로 공주목사(公州牧使)로 좌천되었다가 파면당하기도 했으나 다시 기용되어 해주목사(海州牧使)·대사성(大司成)을 거쳐 명종 대 전주부윤(全州府尹)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그 밖에 임진왜란 때 호남에서 의병을 일으켜 무공을 세원 희수(希壽)가 대가를 호종하여 원종3등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이룡(以龍)은 능성현령(陵城縣令)으로 나갔다가 황간(黃磵)에서 창의하여 전쟁에 공을 세웠다. 병자호란에 소모사(召募使)로 활약한 지효(之孝)는 금산(錦山)에서 칠백의사(七百義士)와 순절한 사진(士振), 성리학자(性理學者) 사삼(事三)과 함께 이름을 떨쳤고, 진영(震英)은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통정대부로 승정원좌승지에 추증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주 박씨는 파주시에 총 23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 박씨(泰安朴氏)

태안 박씨(泰安朴氏)의 시조는 박원의(朴元義)이다.
그는 신라 경명왕의 맏아들 밀성대군(密城大君) 언침(彦忱)의 13세손이다. 『태안박씨족보(泰安朴氏族譜)』에 의하면 그는 고려 때 삼사좌윤(三司左尹)을 지낸 을재(乙材)의 현손(玄孫)으로 광록대부(光祿大夫)에 올라 상서좌복야(尙書左僕야)를 역임하고 나라에 공(功)을 세워 태안부원군(泰安府院君)에 봉해졌으며 9형제 중 다섯째인데, 슬하에 아들이 없어 백형(伯兄)인 세흥군(世興君) 원효(元孝 : 좌정승을 지냄)의 넷째 아들 희문(喜文)을 사자(嗣子)로 맞아 대(代)를 잇게 하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원의(元義)를 일세조로 받들고 밀양 박씨에서 분적하여 태안(泰安)을 관향으로 삼았다.
태안은 충청남도 서산시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백제 때 성대혜현(省大兮縣)·성대호현(省大號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소태(蘇泰)로 고치고 뒤에 소주(蘇州)로 개칭하여 부성군(富城郡: 서산군)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 현종 때 연주(蓮州)에 예속시켰으며 충렬왕 때 태안(泰安)으로 고쳤고 1416년(태종 16) 군(郡)으로 승격시켰다가 1913년 서산군(瑞山郡)에 병합되어 면(面)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2세 희문(喜文)이 고려에서 좌정승(左政丞)을 지내고 태원부원군(泰原府院君)에 봉해졌다. 그 후 희문의 아들 보규(甫圭)가 봉익대부(奉翊大夫)로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했고, 그의 아들 학(謔)은 신호위 보승중랑장(神虎衛保勝中郎將)을, 손자 유(蕤)는 신호위 상장군(神號衛上將軍)을 지냈다. 한편 문과에 장원급제한 문거(文巨)는 봉상대부(奉常大夫)로 총랑(摠郎)을 거쳐 지곡주사(知谷州事)를 지냈으며 홍건적을 토벌하다가 순절하여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로 순성부원군(蓴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고려 말에 문과에 급제한 비(斐)는 고흥감무(高興監務) 겸 권농병마단련판관(勸農兵馬團鍊判官)을 지내고 고려가 망하자 처자(妻子)를 데리고 청산현 동면 대동리에 은거했다.
그 밖에 연천현감(漣川縣監)을 지낸 안종(安宗), 청풍군수(淸風郡守)를 지낸 안방(安邦),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아 진주성(晋州城) 방어에 공을 세웠으나 성이 함락되자 여러 장수들과 남강(南江)에 투신, 순절하여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추록되고 진주의 충민사(忠愍祠)에 제향된 안도(安道)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안 박씨는 파주시에 총 5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산 박씨(平山朴氏)

평산 박씨(平山朴氏)는 고려 초에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공신에 책록되어 시중(侍中)에 오른 박지윤(朴智胤)을 중시조(中始祖)로 받들고 있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본래 평주(平州) 출신으로 딸과 손녀가 왕건의 비(妃)가 되어 고려 초기에는 세도가문(勢道家門)으로서의 지위(地位)를 굳혔다고 한다. 지윤의 차남 수경(守卿)은 후백제(後百濟)가 고려에 침공해 왔을 때 장군(將軍)으로 조물군(曹物郡) 전투에서 크게 공을 세워 원보(元甫)에 올라 평주군(平州君)에 봉해지고 토지 200결(結)을 하사받았다. 그 후 후손들이 그곳에 살면서 평산(平山)을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

평산은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대곡군(大谷郡)·다화실(多和悉)이었던 것을 신라 경덕왕이 영풍(永豊)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평주(平州)로 하였고, 1272년(원종 13) 부흥군(復興郡)에 합쳤다가 충렬왕 때 복구였다. 1413년(태종 13)에 평산으로 바꾸고 도호부(都護府)로 승격하였으며 고종(高宗) 때 군(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 문종(文宗) 때 문과에 급제한 인량(寅亮)은 밀직부사(密直府使) 성충(成忠)의 아들로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역임한 후 예부시랑(禮部侍郞)이 되어 송나라에 사신으로 들어가 문명(文名)을 떨쳤으며 한림학사(翰林學士)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내고 숙종조에 우복야(右僕射)를 거쳐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렀다. 인량의 아들 3형제 중 장남 경인(景仁)이 1107년(예종 2)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병마부사(兵馬副使)를 겸하여 윤관(尹瓘)과 함께 여진정벌에 출정했으며, 4조(四曹)의 상서(尙書)와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내고 수국사(修國史)·낭중(郞中)을 거쳐 상서(尙書)에 오른 아우 경백(景伯), 막내 경산(景山)과 함께 가문(家門)을 중흥시켰다.

그 밖에 고려에서는 전객시사(典客寺事)를 지낸 조열(祖烈), 좌찬성을 역임한 열(說), 인종(仁宗) 때 문과에 급제하여 교감(校勘)과 우정언(右正言)·지제고(知制誥)의 등을 거친 소(愫), 명종(明宗) 때 정중부(鄭仲夫)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뒤에 벼슬이 문하성시랑(門下省侍郞)에 이른 종현(宗賢) 등이 있다. 조선에서는 참의(參議)를 지낸 윤홍(允弘), 통덕랑(通德郞)을 지낸 대진(大震), 도사(都事)를 지낸 영수(英秀)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산 박씨는 파주시에 총 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 박씨(咸陽朴氏)

함양 박씨(咸陽朴氏)는 경명왕의 셋째 아들 언신(彦信)이 속함대군(速咸大君)에 봉해져 문호가 열리게 되었고, 속함(速咸)이 함양(咸陽)으로 개칭됨에 따라 관향을 함양으로 삼게 되었다. 그 후 중시조 선(善)의 현손(玄孫) 신유(臣蕤)가 고려 고종 때 김경손(金經孫)과 더불어 나주(羅州)에서 이연년(李延年)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응천군(凝川君)에 봉해졌다. 슬하에 6형제를 두었는데, 소감공파(少監公派: 지문)·문원공파(文元公派: 지빈)·함양군파(咸陽君派: 지량)·밀직부사공파(密直副使公派: 지수)·어사공파(御史公派: 지온)·중랑장공파(中郎將公派: 지영) 등으로 갈라져서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함양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의 속함군(速含郡)인데 경덕왕이 천령군(天嶺郡)으로 고쳤다. 고려 현종(顯宗) 때 함양군(咸陽郡)이 되어 합주(陜州: 합천)에 속하였다가 함(含)을 함(咸)으로 고쳐서 함양(咸陽)이 되었다. 1172년(명종 2) 함양현(咸陽縣)으로 강등되었으며 조선 태조 때 군(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함양부원군(咸陽府院君) 장(莊)의 아들 충좌(忠佐)가 고려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하고 전라도안렴사(全羅道按廉使)로 나가 폐신(嬖臣) 박연(朴連)의 비행을 탄핵하다가 도리어 무고를 당해 해도(海島)에 유배되었다. 뒤에 풀려나와 개성부윤(開城府尹)을 거쳐 충목왕 때 찬성사(贊成事)에 올라 왕에게 『정관정요(貞觀政要: 중국 당태종과 신하의 문답이나 군신사적을 분류 편찬하여 위정자의 참고로 했던 책)』를 시강(侍講)했고, 당대의 석학 역동(易東) 우탁(禹倬)과 쌍벽을 이루었던 역학(易學)의 대가(大家)로 명망이 높았다.

고려 말 포은 정몽주(鄭夢周)의 문인(門人)으로 불교의 배척을 상소했던 초(礎 : 문량공이의 손자)는 조선(朝鮮)이 개국되자 이조판서(吏曹判書)와 대제학(大提學)을 지내고 세종(世宗) 때는 북변에 여진(女眞)의 잦은 침입으로 경원부(慶源府)를 남쪽 용성(龍城)으로 옮기려 하자 이를 반대하여 국토(國土)가 좁아드는 것을 막았다. 중추원사(中樞院事) 신(信)의 아들 안(安)은 창왕(昌王) 때 원수(元帥)로서 대마도(對馬島)에 잡혀 있던 고려인 100여 명을 구출하는 데 공(功)을 세웠으며 조선 태종(太宗) 때 경기도 수군도체찰사에 이르렀다.

실(實)은 세종 때 전라도 수군처리사(水軍處理事)와 도총제(都摠制)를 역임했고, 세무(世茂)는 중종 때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헌납(獻納)을 거쳐 마전군수(麻田郡守)로 나갔으며, 명종 때는 내섬시정(內贍寺正)과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역임했고 글씨에 일가를 이루었으며 『동몽선습(童蒙先習)』을 저술하여 크게 이름을 떨쳤다. 돈녕부정(敦寧府正) 세영(世榮)의 아들 대립(大立)은 중종 때 식년문과에 급제,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와 판돈녕부사를 지내고 좌찬성(左贊成)이 되었다.

그 밖에 이인좌의 난에 공을 세워 분무공신(奮武功臣)에 올랐던 내정(乃貞), 감찰어사(監察御使)를 지낸 득겸(得謙), 군자감판관(軍資監判官)을 지낸 승운(承運) 등이 있다. 한말에는 한일합방 후 광복운동에 앞장섰다가 함경북도 안변(安邊)에서 순절한 기봉(基鳳), 학자 의병장으로 유명했던 기대(基大), 봉천감옥(奉天監獄)에서 순절한 찬희(燦熙), 일본 천황을 죽이려 했던 열(烈)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양 박씨는 파주시에 총 1,09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 반씨(居第潘氏)

반씨(潘氏)는 중국 형양(滎陽)에서 나온 성씨로, 주나라 문왕(文王)의 여섯째 아들 필공(畢公) 고(高)의 아들 계손(系孫)이 반(潘) 땅에 봉해져서 식읍으로 하사받은 땅이름을 성(姓)으로 삼았다고 한다. 반씨(潘氏)는 송나라 출신인 반부(潘 阜)가 이종(理宗) 때 문과(文科)에 장원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를 거쳐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내고 몽고정벌(蒙古征伐)을 간청했다. 그런데 간신(奸臣) 가사도(賈似道)가 그를 미워하여 몽고에 사신으로 보내어 은밀히 죽이게 하였으나, 원(元)의 세조(世祖)는 문무를 겸비한 그의 재주를 가상히 여겨 죽이지 않고 벼슬을 내려 부하로 삼으려 하였다. 그는 사양한 후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충렬왕비가 됨)를 배종(陪從)하고 넘어와서 고려 원종(元宗)과 충렬왕 때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내고, 명장(名將) 김방경(金方慶)을 따라 일본정벌(日本征伐)에 공(功)을 세워 시중(侍中)에 오르고 기성부원군(岐城府院君)에 봉해졌으며 65세에 벼슬을 사직하고 거제(巨濟)로 내려가 정사(精舍)를 짓고 여생을 마쳤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반씨(潘氏)의 문호(門戶)가 열리게 되었다.
거제(居第)는 경상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소가야국(小伽倻國)의 일부였던 독로국(瀆盧國)에 속했다가 신라 문무왕 때 상군(裳郡)이라 하였고, 757년(경덕왕 16)에 거제로 개칭되었다. 조선에 와서는 거창(巨創)과 합하여 제창현(濟昌縣)으로 불리다가 1422년(세종 4)에 거제현(巨濟縣)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부(阜)의 증손(曾孫) 익순(益淳)이 우왕 때 문하평리(門下評理)를 거쳐 좌시중(左侍中)을 역임했고 그의 아들 덕해(德海)와 복해(福海)가 현달하여 명문(名門)의 기틀을 마련했다. 복해(福海)의 아들 자건(自建)은 시중(侍中) 배극렴(裵克廉)의 사위로 조선(朝鮮)이 개국된 후 태종조에서 이조판서와 좌찬성을 역임하고 영평군(永平君)에 봉해졌으나, 손자 충(忠)도 조선 창업에 공을 세워 개국원종좌명일등공신(開國原從佐命一等功臣)으로 해양군(海陽君)에 봉해졌다가 광주백(光州伯)에 추봉되었다. 세칭 절효선생(節孝先生)으로 불리웠던 유(儒)는 판도판서(版圖判書) 덕해(德海)의 손자(孫子)로서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자 여막(廬幕)에서 3년 동안 시묘(侍墓)하여 나라에서 정려(旌閭)가 내려졌고, 이조정랑(吏曹正郞) 호(號)의 손자 효손(孝孫)은 세조 때 황주목사(黃州牧使)와 이조참판을 거쳐 회령부사(會寧府使)로 나갔다.
그 밖에 중종반정(中宗反正)에 참여하여 정국4등공신(靖國四等功臣)으로 이성군(李城君)에 봉해졌으며, 대사헌(大司憲)과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을 지내고 기성군(岐城君)에 개봉(改封)된 우형(佑亨), 중종 때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주요 내외직을 두루 역임한 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른 석평(碩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창의하여 조령에서 공을 세워 한산해전(閑山海戰)에서 순절한 중인(仲仁)·중경(仲慶) 형제, 고종 때 한일합방의 비분으로 할복 자결한 하경(夏慶: 일명 학영)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제 반씨는 파주시에 총 18명이 살고 있는 나타났다.

남양 방씨(南陽房氏)

방씨(房氏)는 중국 청하(淸河)에서 나온 성씨로 요임금의 아들 단주(丹朱)가 방후(房侯)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지명을 성(姓)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방씨는 당나라 양공(梁公) 방현령(房玄齡)이 634년(고구려 영류왕 17) 고구려의 주청(奏請)으로 건너와 남양(南陽)에 사적(賜籍)한 것이 시초가 된다. 그 후 상계가 실전되어 후손들은 고려조에서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삼중대광보국공(三重大匡輔國公)에 오른 방계홍(房季弘)을 일세조(一世祖)로 하고 선조의 사적지(賜籍地)인 남양(南陽)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남양은 지금의 경기도 수원과 화성군(華城郡) 일원을 포함한 지역의 옛 지명이다. 고구려 때 당성군(唐城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당은군(唐恩郡)으로 개칭하였고, 1018년(고려 현종 9) 수주(水州 : 수원)와 인주(仁州 : 인천)에 편입되기도 했으나 1310년(충선왕 2)에 남양부(南陽府)가 되었다. 조선 말기에 남양군(南陽郡)이 되어 인천부(仁川府) 관할이 되었다가 1913년 군을 폐지하고 그 땅을 나누어 영흥면·대부면은 부평군에 편입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수원군에 합하였다. 그 후 수원면이 수원읍(水原邑)으로 승격되었으며 후에 수원읍 이외의 땅은 화성군(華城郡)으로, 수원읍은 수원시로 승격되었다.

방씨(房氏)의 관향(貫鄕)은 남양(南陽)을 비롯하여 수원(水原)·남원(南原)·온양(溫陽)·밀양(密陽)·양산(梁山) 등 23본까지 문헌에 전해지나 모두가 남양방씨의 세거지명(世居地名)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인물로는 계홍(季弘)의 아들 의강(儀康)이 고려 때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평장사(平章事)를 지냈으며, 손자 진유(珍儒)는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거쳐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냈다. 한편 상호군(上護軍) 주(柱)의 아들 사량(士良)은 공양왕(恭讓王)때 직제학(直提學)을 거쳐 전의시승(典醫寺丞)을 지냈다. 그의 아들 3형제 중 장남 구행(九行)은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차남 구달(九達)은 군자감부정(軍資監副正)을 역임하여 대(代)를 이어 가세(家勢)를 일으켰다. 사량(士良)의 증손 귀원(貴元)과 옥정(玉精)이 유명했다. 특히 계문(戒文)의 아들 귀온(貴溫)은 조광조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중종조에 효행(孝行)으로 천거되어 참봉과 사간원의 정언(正言)이 되었으나 기묘사화로 스승이 사사되자 벼슬을 버리고 학문에만 진력했으며, 남명 조식에게 글을 배운 응현(應賢)은 선조 때 농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실학자로 명망이 높았다.

그 밖에 원진(元震)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웠고 광해군 때는 난정을 개탄하여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가 인조반정 후에 찰방(察訪)에 천거되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사계 김장생의 휘하에서 소모사(召募使)로 활약했으며, 복령(復齡)은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선조로부터 '가히 대장부'라는 칭찬을 받고 공신에 책록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 방씨는 파주시에 총 22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양 방씨(溫陽方氏)

방씨(方氏)는 중국 하남성(河南省) 낙양현(洛陽縣)에서 나온 성씨이며 주(周)나라 때 대부(大夫) 방숙(方叔)의 후예로 전한다. 온양 방씨(溫陽方氏)는 중국 산동(山東) 사람인 방지(方智)가 당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서기 669년(신라 문무왕 9)에 나당동맹(羅唐同盟)의 문화사절(文化史節)로 건너와 설총(薛聰)과 함께 『구경(九經)』의 '회통(會統)'을 국역(國譯)하여 불교의 전성시대인 신라에서 유학의 체계를 수립하였고 장씨(張氏)와 혼인하여 가유현(嘉猷縣: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에 뿌리를 내렸다. 그 후 그의 6세손으로 전하는 운(雲)이 고려 태조를 도와 후백제를 정벌하는 데 공을 세웠고, 고려 창업에서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60여 년간 6대의 왕을 섬기면서 무훈을 세워 온수군(溫水君)에 봉해지고 온양(溫陽)·신창(新昌)·아산(牙山) 3읍을 식읍으로 하사받았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사패지(賜牌地)인 온양지방에 살면서 방지(方智)를 시조로 하고 운(雲)을 일세조로 하여 온양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계승하였다.
온양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탕정군(湯井郡)을 신라 문무왕이 주(州)로 승격시켜 총관(摠管)을 두었다가 후에 군(郡)으로 삼았으며 고려 초에 온수군(溫水郡)으로 고치고 현종 때 천안부(天安府)에 속하게 하였다. 1172년(명종 2) 현(顯)으로 강등되고 조선 태종 때 신창현(新昌縣)과 합하여 온창(溫昌)이라 하다가 다시 온수현(溫水縣)이라 하였으며 세종 때 온양군(溫陽郡)이 되었다. 1913년 아산군에 속한 온양면(溫陽面)이 된 후 지금의 온양읍에 이르고 있다.
방씨(方氏)의 본관은 온양(溫陽)을 비롯하여 상주(尙州)·군위(軍威)·신창(新昌)·개성(開城)·강화(江華)등 26본이 문헌에 전해지나, 모두가 동조동근(同祖同根)이며 근대에 와서는 온양으로 단일화(單一化)하고 있다. 온양 방씨는 12세에 이르러 문정공(文定公) 우선(于宣)과 그의 아우 우번(于蕃), 목사(牧師) 득세(得世)의 아들 대(代)에서, 장암공(莊岩公) 서(曙)를 파조(派祖)로 하는 판서공파(判書公派), 간의대부(諫議大夫) 현(玄)을 파조로 하는 간의공파(諫議公派), 안렴사(按廉使) 훤(喧)을 파조로 하는 안렴사공파(按廉使公派), 군위군(軍威君) 적(迪)을 파조로 하는 태상경공파(太常卿公派), 우번(于蕃)을 파조로 하는 대장군공파(大將軍公派), 평장사(平章事) 신제(臣悌)를 파조로 하는 광록대부공파(光祿大夫公派),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신우(臣佑)를 파조로 하는 상락부원군파(上洛府院君派)로 분파(分派) 되었으나 안렴사공파 훤(喧)과 상락부원군파 신우(臣佑)는 절손되었고 현재는 다섯 파만 세계가 이어진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목종 때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을 지낸 중탁(仲鐸)과 현종 때 중랑장으로 강감찬 장군의 휘하에서 무공을 떨쳐 온양군(溫陽君)에 봉해진 휴(休)가 유명했으며, 휴(休)의 증손 유(裕)는 숙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추밀원직학사(樞密院直學士)를 거쳐 문하시랑(門下侍郞)에 이르러 대호군(大護軍)을 지낸 아들 재(宰), 대제학(大提學)에 오른 증손 희진(曦進) 등과 함께 가통(家統)을 이었다.
조선에서는 유영(有寧)이 중종조에서 대사헌을 거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지냈으며, 우고(祐固)와 옹(翁)은 의병장이 되어 여러 전투에서 무공을 떨쳤다. 순조조에서 홍경래(洪景來)가 난을 일으키자 우정(禹鼎) 서정군(西征軍)의 좌초관(左哨官)으로 정주성(定州城) 함락에 공을 세웠다. 소파(小波) 정환(定煥)은 일제강점기 민족사상 혁명의 선구자로서 짧은 일생을 나라를 위해 바쳤다. 특히 그는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신문』을 인쇄하여 빨래 광주리에 숨겨 돌리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고, 일본으로 유학하여 아동문학에 전심 『사랑의 선물』, 『어린이』 등의 잡지를 창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색동회'를 조

직하여 아동문학의 정수를 이루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양 방씨는 파주시에 총 81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온양 방씨는 1775년 무렵 교하면 야당리 운정에 입향한 후손들로 교하 운정과 금촌, 문산 등에 20호가 살고 있다. 매년 10월 15일 고양시 벽제동의 선영에서 시제를 지낸다.

곤양 배씨(昆陽裵氏)

곤양 배씨(昆陽裵氏)의 시조는 배맹달(裵孟達)이다.
그는 세종 때 내금위 사용(內禁衛司勇)을 거쳐 1454년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1467년 만포진첨절제사(滿浦鎭僉節制使)로 이시애의 난을 토벌한 공로로 정충포의적개공신(精忠布義敵愾功臣)에 서훈되었으며, 가정대부(嘉靖大夫) 행 호분위 상호군(行虎賁衛上護軍)에 올랐다. 이후 경상도·충청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역임하였으며, 곤산군(昆山君)에 봉(封)해졌다. 이를 계기로 후손들이 본관을 곤양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곤양은 경상남도 사천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고려 때 곤명현(昆明縣)이라 하였고, 1018년(현종 9) 진주에 속하였다가 세종 때 남해현(南海縣)과 합하여 곤남군(昆南郡)이 되었으며, 1437년(세종 19)에는 다시 나뉘고 진주의 금양부곡(金陽部曲)과 합하여 곤양(昆陽)으로 고쳤다. 1895년(고종 32) 사천(泗川)에 속하였다가 곧 회복하여 군(郡)이 되어 진주부 관할이 되었고, 1913년 군을 폐하고 서면(西面), 금양면(金陽面)은 하동(河東)에 소속되었으며 그 나머지는 사천에 병합되어 곤양면(昆陽面), 곤명면(昆明面)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 배맹달의 맏아들 배숙흥(裵叔興)은 조선시대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거쳐 진주 병마절도사를 지냈으며, 둘째 배사종(裵嗣宗)은 양지 현감을 역임했으나 연산군의 난정이 계속되자 벼슬의 뜻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갔다. 배숙흥의 손자 배언구(裵彦矩)는 주부(主簿)를 지냈고, 그의 아우 배언손(裵彦孫)은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임진왜란 때 순절한 배치례(裵致禮)의 아들 배언필(裵彦弼)은 선전관을 역임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곤양 배씨는 파주시에 총 4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성 배씨(達城裵氏)

달성(達城)은 현재 대구광역시 일원의 옛 지명으로 별호로 삼한시대에는 달구화(達句火) 또는 달구벌(達句伐)이라 불렸다. 영조 때에 대구(大丘)를 대구(大邱)로 변경하였으며,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정으로 대구부 대구군이 되었다가 1914년 군면 폐합으로 대구부의 시가지 부분인 대구면이 대구부로 독립하고 옛 대구부의 일부와 현풍군의 일부가 통폐합되어 달성군이 되었다. 1938년 달성군의 일부가 대구부로 편입되었고, 1949년에는 대구시로 개편되었다. 1981년에 대구직할시로 승격되었고, 1988년에 달서구가 신설되었다. 1995년 대구광역시로 개편하면서 달성군을 통합하였다.

달성 배씨(達城裵氏)의 시조는 고려시대에 대호군(大護軍)에 추증된 배손적(裵孫迪)으로 집안은 고려시대에 대대로 대구(大邱)지방의 향리(鄕吏)를 역임하였다고 한다. 그의 증손 배정지(裵廷芝)가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역임하였고, 정지의 아들 배천경(裵天慶)이 판추밀원사(判樞密院事)를 거쳐 동경윤(東京尹)을 역임하였으며, 고려 공민왕 때 달성군(達城君)에 봉해졌다. 이를 계기로 후손들이 본관을 달성(대구)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배씨는 고려 개국공신 배현경에서 나뉜 것으로 인식되고 배씨 종사 보감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배현경의 원래 이름은 백옥삼(白玉衫)으로 원래 성씨가 없었지만, 고려 개국공신이 되자 고려 태조에게 배씨 성을 사성받았다.

실질적인 배씨의 시원은 사로 6촌(斯盧六村)의 하나인 금산가리촌(金山加利村) 촌장 지타(祇陀 또는 只他)이다. 신라 유리왕 9년에 금산 가리촌이 한지부로 개칭되면서 배씨 성을 사성 받았다. 신라 성덕왕 때 상대등을 지낸 휘 배부(裵賦)가 처음으로 역사서에 등장한다. 나말여초기에는 배씨 후손들이 지방 호족으로 그리고 각층의 부류에서 고려 건국에 공을 세웠던 기록들이 사적으로 고증된다. 먼저 성산 적산 수동 유산 본피 일대에서 고려 태조의 삼한 통합을 도와 그 일대를 경상부로 승격하고 삼중대광 벽상공신에 봉해진 배최언(裵崔彦), 배신예(裵申乂)가 있었고, 고려개국 2등 공신 배운태(裵運泰), 고려개국 3등 공신 배웅, 고려통합 2등 공신 배선, 그리고 궁예 휘하의 장수 배총규(裵悤規) 등이다. 그러나 이들을 시조로 하는 배씨 계파는 없다. 누가 실질적으로 달성 배씨의 조상인지 근원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양공 휘 지타 이후 배씨의 세계를 밝힐 문헌이 실전되고 유구한 역사로 인해 서로 다른 파를 이루고 있는 배문이 오늘날처럼 무열공 휘 현경의 단일후손으로 인식된 발단은 1740년 조선조 영조대왕의 경신수교로 인하여 전 배씨 일동이 경신수교의 수혜를 받고자 대동합보 운동이 태동되어 그동안 각 배씨 계파에서 수보되지 않았던 무열공 배현경을 중시조로 한 경주 배씨 대동보인 갑신합보(1764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달성 배씨는 파주시에 총 20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성 배씨(盆城裵氏)

분성 배씨(盆城裵氏)의 시조는 배원룡(裵元龍)이다.
그의 할아버지 배헌(裵軒)은 고려 말엽에 평장사를 지냈는데, 그의 아들 배사혁(裵斯革)은 가락군(駕洛君)에 봉해졌다. 사혁의 아들 원룡이 공민왕 때 벼슬길에 올라 전라도 안렴사 겸 병마사, 홍주 목사를 거쳐 우왕 때 계림부윤을 지내고 도병마사 평장사를 거쳐 분성군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그를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분성(盆城)은 경상남도 김해의 고려 때 지명이다. 본래 가락국(駕洛國)이었는데 신라에 병합되어 법흥왕(法興王) 때 금관국(金官國)이 되었다가 경덕왕 때 김해(金海)로 고쳤다. 고려 태조가 부(府)로 강등시켜 뒤에 임해현(臨海縣)이 되었으나 성종 때 금주(金州)로 개칭되고 원종조에 와서 김녕도호부(金寧都護府)가 되었다가 충선왕(忠宣王) 때 다시 김해로 고쳐 부(府)로 하였다. 조선에 와서는 태종이 도호부(都護府)를 설치했고, 세조 때 진(鎭)을 두기도 했으며 고종 때 군(郡)으로 승격, 1906년 양산군의 2개면을 병합하고, 1981년 시(市)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 윤검(允儉)의 아들 극부(克富)는 야은(冶隱) 길재(吉再)와 도의상교(道義相交)하며 학문으로 명성을 떨쳐 도덕(道德)과 문장(文章)의 가통을 세웠다. 교수(敎授) 상금(尙錦)의 장남인 문보(文甫)는 중종(中宗) 때 고성 군수(高城郡守)를 지내고 청백리(淸白吏)로 명성을 떨쳐 그가 죽자 왕이 제문(祭文)을 내려 공적(功績)을 치하했으며, 직장(直長) 유흥(有興)의 아들 진(縉)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내고 문장과 필법이 탁월하여 아들 맹후(孟厚)와 함께 이름을 떨쳤다. 1462년(세조7) 별시문과에 급제한 맹후는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쳐 여러 관직을 역임한 후 성종 때 사신(使臣)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되어 조정의 기강(紀綱)을 바로잡아 왕으로부터 포상이 내려졌다. 그의 아우 중후(仲厚)는 문장과 도학(道學)으로 사림(士林)의 추앙을 받았으며, 숙후(叔厚)는 연산군 때 이조정랑(吏曹正郞)을 지냈고, 계후(季厚)는 경주 판관(慶州判官)과 칠원 현감(漆原縣監)을 거쳐 선산 도호부사(善山都護府使)를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의사(義士) 박경전(朴慶傳)과 함께 운문협에서 회맹(會盟)했던 원우(元祐)는 전쟁에 나가 무훈(武勳)을 세워 선무이등공신(宣武二等功臣)에 책록되었으며, 명원(明遠)은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로 성(城)을 지키다가 순절하여, 원종이등공신(原從二等功臣)에 책록된 아우 형원(亨遠)과 더불어 의절(義節)의 가맥을 지켰다. 응남(應男)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숙부 원우(元佑)와 함께 하양사(河陽祠)에 배향되었다.
그 밖의 문장과 행의(行誼)로 추앙을 받은 사오당(四吾堂) 양옥(良玉), 정묘호란 때 장현광(張顯光)의 휘하에서 의병을 모집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절한 홍우(弘祐), 숙종 때 효행으로 동몽교관(童夢敎官)에 임명되었던 여경(汝慶)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성 배씨는 파주시에 총 20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 배씨(星州裵氏)

성주 배씨(星州裵氏)의 시조는 배위준(裵位俊)이다.
그는 고려 때 벼슬하여 공(功)을 세우고 삼중대광 벽상공신에 올랐다. 배위준의 5세손 배인경(裵仁敬)이 고려 충선왕 때 추밀원사(樞密院事)를 지낸 후 흥안부원군(興安府院君: 성주의 옛 지명)에 봉해졌다. 후손들은 배위준을 시조로 하고 성산(성주)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성산(星山)은 경북에 위치한 위치한 성주의 옛 지명이다. 성주(星州)는 고대 성산가야국(星山伽倻國)인데 신라가 멸망시켜 본피현(本彼縣)이라 하다가 757년(경덕왕 16) 신안현(新安縣)으로 개칭하여 성산군(星山郡)에 속하였다. 그 후 벽진군·경산부·광평군·흥안도호부·성주 등 여러 차례 변천을 거쳐 1895년(조선 고종 32) 성주군으로 개칭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주 배씨는 파주시에 총 50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해 배씨(興海裵氏)

흥해 배씨(興海裵氏)의 시조는 배경분(裵景分)이다.
그는 고려 때 검교장군(檢校將軍)을 역임했으며, 그의 6세손 배전(裵詮)이 충혜왕 때 호군(護軍)을 거쳐 군부판서(軍簿判書)로 조적(曺頔)의 난 때 왕을 호종한 공으로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 삼중대광첨의평리(三重大匡僉議評理)에 책록되고 흥해군(興海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배경분을 시조로 하고 흥해(興海)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흥해는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일대의 옛 지명이다. 삼한시대에 다벌국이 있었다고 한다. 신라 때에는 퇴화군(退火郡)이라 불렀다가,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의창군(義昌郡)으로 개칭하였고 신라 말기에는 남북미질부성(南北彌秩夫城)이라고도 불렸다. 930년(고려 태조 13)에 남북미질부성을 다시 합쳐 흥해군(興海郡)으로 고쳤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흥해 배씨는 파주시에 총 40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의 흥해 배씨는 입향조 배용택(裵龍澤)이 수문장 벼슬을 하게 되어 320여년 전 경상도 봉화에서 올라와 파시조의 묘가 있는 조리읍 오산리에 정착 하게 되었다.
흥해 배씨의 파시조 배전(裵詮, 1311~1361)은 고려때 무신으로 1339년(충숙왕 8) 조돈의 난이 일자 왕을 호종한 공으로 성근선력익대공신(誠勤宣力翊戴功臣) 1등이 되어 흥해군에 봉해졌다. 파시조 배전의 묘는 조리읍 오산리 산63번지에 있다. 현재 조리읍 대원리에 약 50여 호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

수원 백씨(水原白氏)

백씨(白氏)는 고대 황제 헌원(軒轅)의 후예로 중국 풍익(馮翊)에서 계출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백씨의 연원은 『백씨대동보(白氏大同譜)』에 황제의 16세손 백을병(白乙丙: 진나라 때 대부를 지냄)의 후손 백우경(白宇經)이 소주(蘇州)에서 출생하여 당나라 때 이부상서(吏部尙書)에 이르렀으나 간신들의 모함을 받자 780년(신라 선덕왕 원년) 신라에 건너와 자옥산(紫玉山: 지금의 월성군 안강읍 옥산동) 밑에 정착한 것이 시초가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후 우경(宇經)이 그곳에다 영월당(迎月堂)과 만세암(萬歲庵)을 짓고 학문보급에 진력하였고, 만세암을 찾아온 선덕왕은 정혜사(淨惠寺)로 개명하고 영월당의 현판에 어필(御筆)로 '경춘(景春)'이라 쓰고 아울러 사운시(四韻詩)를 지어 함께 하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계가 불분명하며 경덕왕(景德王) 때 중랑장을 지내고 상장군에 증직된 창직(昌稷)을 중시조(中始祖)로 받들어 기일세하며, 창직의 증손, 휘(揮)가 고려 목종 때 대사마대장군(大司馬大將軍)으로 수원군(水原君)에 봉해졌다. 9세손 천장(天藏: 임평부원군 원정의 아들)은 원나라에서 이부상서를 거쳐 우승상(右丞相)을 지내고 귀국하여 충선왕 때 수성백(隨城伯)에 봉해져 후손들이 수원(水原)을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수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매홀(買忽), 통일신라 때 수성(水城), 고려 때 인주(仁州)·수주(水州)로 불리다 1310년(충선왕 2)에 수원(水原)으로 개칭되었다.
백씨(白氏)의 본관은 수원(水原)을 비롯하여 180여 본이 문헌에 전해지나 모두가 수원 백씨의 동원분파(同源分派)임이 분명하여, 『갑자대동보(甲子大同譜)』 발간 당시 각 파의 대표들이 회합(會合)하여 관향(貫鄕)을 수원(水原)으로 단일화(單一化)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백씨는 중시조 창직(昌稷)의 후대로 내려오면서 선정공파(禪亭公派)·인주공파(仁州公派)·오산군파(鰲山君派) 등 29개 파로 갈라져서 세계를 이어왔다.
역사인물로 육조(六朝)에 걸쳐 주요 관직을 지내며 나라의 모든 문장(文章)을 지어낸 간미(簡美)는 만년에 영해(寧海)로 낙향(落鄕)한 후 수차에 걸친 문종(文宗)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그의 아우 행미(行美)는 형부시랑(刑部侍郞)을 역임했고, 막내 가미(可美)는 판삼사(判三司)를 거쳐 태자사부(太子師傅)에 올랐다. 특히 고려조에서 가문을 반석(盤石) 위에 올려놓은 인물은 문간공(文簡公) 문절(文節)의 아들 이정(頤正)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주자학(朱子學)의 거봉인 안향의 제자였던 그는 충렬왕 즉위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을 따라 연경(燕京)에 가서 10년간 체류하면서 주자학을 깊이 연구하고 돌아와 우리나라 정주성리학(程朱性理學)의 꽃을 피웠다.
민수(民秀)는 경서(經書)와 성리학(性理學)에 조예가 깊은 학자였으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문위세(文緯世)와 함께 의병을 모아 장수(長水) 지역에서 적을 대파시켰으며 정유재란 때도 문위세와 합세하여 용담(龍潭) 등지에서 적을 크게 무찌른 명장으로 유명했다. 광홍(光弘)이 명종조에 평안도평사(平安道評事)를 사직하고 돌아올 때 우리 말로 쓴 가사(歌辭) 『관서별곡(關西別曲)』으로 유명하며 그의 아우 광훈(光勳)은 시서(詩書)에 현달하여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 고곡(菰谷) 이달(李達)과 함께 '삼당(三唐)'으로 일컬어졌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 백씨는 파주시에 총 3,04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수원 백씨는 15세기에 파주에 입향하였는데 문경공파 입향조(入鄕祖)는 휴암 백인걸(白仁傑,1497~1579)이며, 곡산공파는 휴암의 증손인 백홍일(白弘一)이다.

수원 백씨는 파주읍 부곡1리 가마울에 문경공파 후손들이 많을때는 35호가 있었으나 지금은 15호 가량이 살고 있다. 시제는 월롱면 덕은리 재실에서 지내며 선영은 파주읍 부곡1리 샘말, 월롱면 덕은3리에 있다. 임야 6만평, 전답 1,200평을 종중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월롱면 덕은3리 산46-1에는 중시조 백창직의 19세손이며 휴암 백인걸의 증손인 통정대부곡산부사(通政大夫谷山府使) 백홍일과 배위(配位) 등 27위를 봉안하고 추원제를 2004년부터 지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15일 향사를 봉행한다.

금성 범씨(錦城范氏)

범씨(范氏)는 중국 고평(高平)에서 계출된 성씨이다. 원나라에서 예부시랑(禮部侍郞)을 지낸 범승조(范承祖)가 충렬왕비인 제국대장공주를 배행(陪行)하고 건너와 나주(羅州)에 터를 잡은 것이 우리나라 범씨의 시초가 된다. 그는 성리학에 정통한 학자로서 북송(北宋)의 대학자 정이천(程伊川)이 지은 『역전(易傳』과 주자(朱子)의 『사서집주(四書集註)』, 『백가예설(百家禮說)』 등 많은 문헌을 가지고 들어와 널리 보급했으며, 그의 아들 유수(有脽)가 충숙왕 때 문하시랑(門下侍郞)으로 여진 정벌에 공을 세워 금성군(錦城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관향을 금성(錦城)으로 삼게 되었다.

금성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발라군(發羅郡)을 경덕왕이 금성(錦城: 일명 금산)으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가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주(羅州)로 개칭하였다. 1011년(고려 현종 2) 거란의 2차 침입 때 현종이 이곳에 피난 갔다가 돌아와 목(牧)으로 승격되고 조선 세조 때 진(鎭)을 두었으며 1981년 7월에 영산읍과 나주읍을 통합하여 금성시(錦城市)로 승격되었다. 1986년 나주시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범씨의 본관은 금성(錦城)·광주(光州)· 안주(安州)등 3본이 문헌에 전해지나 모두가 동원(同源)이므로 현재는 금성 범씨 단본(單本)으로 하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증손 세동(世東)이 고려의 국운이 기울고 조선이 개국되자 불사이군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두문동으로 들어가 절의를 지키다가 나주로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조선에서는 세종의 6세손 가용(可容)·가종(可鍾) 형제와 전창(傳昌)·천배(天培) 부자(父子)가 성리학에 정통했고 뛰어난 학문과 고명한 인품으로 호남 일대에서 명성을 떨쳤다.

천배(天培)의 손자 기생(起生)과 기봉(起鳳) 형제는 임진왜란 때 김천일·최경회(崔慶會)·고종후(高從厚)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진주성(晉州成) 싸움에서 장렬하게 순절하여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으로 이조참의와 좌승지로 추증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성 범씨는 파주시에 총 2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계 변씨(草溪卞氏)

변씨(卞氏)는 중국 천수(天水)에서 계출된 성씨이며, 주나라 문왕의 여섯째 아들인 숙진탁(叔振鐸)이 조후(曹侯)에 봉해지고 식읍으로 변읍을 하사받아 지명을 따서 성(姓)으로 삼은 것이 시초가 된다. 우리나라 변씨는 당나라 천보 연간(天寶年間: 742～755)에 예부상서를 지낸 변원(卞源)이 743년(경덕왕 2) 왕명을 받들어 8학사의 한 사람으로 『효경(孝經)』을 가지고 건너와 신라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린 것이 시초이다. 이후 세계가 실전되어, 고려 성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문하시중으로 팔계군(八溪君)에 봉해진 변정실(卞庭實)을 시조(始祖)로 받들고 본관을 초계(草溪)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초계는 경상남도 합천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초팔혜현(草八兮縣)인데 경덕왕이 팔계(八溪)로 고쳐서 강양군(江陽郡: 합천)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때 초계(草溪)로 개칭하였고 1018년(현종 9) 합주(陜州)에 속했다. 명종 때 감무를 두었으며 1316년(충숙왕 3) 지군사(知郡事)로 승격하였고, 1913년 합천군(陜川郡)에 병합하여 지금은 합천군에 속한 초계면(草溪面)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장파(長派)에서는 시중(侍中) 광(光)의 8세손 남룡(南龍)이 조선이 개국되자 한성판윤에 제수되었으나 불취하고 직산(稷山)에 은거한 후 절의를 지켰다. 그 후 그의 아들 7형제가 현달했는데 고려 말에 문과(文科)에 급제했던 장남 혼(緷)은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를 역임했고, 둘째 순(純)은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를 거쳐 연안부사(延安府使)로 나가 장흥부사(長興府使)였던 아우 타(紽), 참판(參判) 굉(紘)과 함께 이름을 떨쳤으며, 다섯째 아들인 효문(孝文)은 태종(太宗) 때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 직제학(直提學)을 거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일본(日本)에 다녀왔고,『오례의주(五禮儀注)』를 상정(詳定)했으며『신주무원록(新譸無寃錄)』을 편찬했다.

시조 정실의 둘째아들 요(耀)의 후손인 중파(仲派: 밀양변씨)에서는 공양왕 때 호(戶)·병(兵)·이조(吏曹)의 판서(判書)를 지내고 이성계를 도와 개국원종공신으로 검교판중추원사(檢校判中樞院事)에 올랐던 옥란(玉蘭)의 아들 3형제가 대표적이다. 조선 초에 이조판서를 역임한 맹량(孟良: 옥란의 맏아들)의 아들 필상(必祥)은 좌승지(左承旨)를 지냈다.

시조 정실의 셋째 아들 진사(進士) 휘(輝)의 후손인 계파(季派)에서는 생원(生員) 거(琚: 휘의 8세손)의 아들 효량(孝良)이 세종 때 중직대부(中直大夫)로 송라찰방(松羅察訪)을 지냈다 판도판서(版圖判書) 우성(遇成)의 손자 몽량(夢良)은 태종 때 제주판관(濟州判官)을 역임하여 성리학자로 유명했던 옥희(玉希: 첨정 명훈의 아들), 효행으로 정문이 세워진 상동(尙東) 부자와 함께 이름을 떨쳤다.

한말에 와서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의병운동에 앞장섰던 상태(相泰)가 한일합방의 울분으로 '대붕회(大鵬會)'를 조직하여 항일투쟁에 진력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계 변씨는 파주시에 총 28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 변씨(原州邊氏)

원주 변씨(原州邊氏)는 황주 변씨(黃州邊氏)에서 분적된 계통으로 고려 말의 절신(節臣)인 변안렬(邊安烈)을 시조로 한다. 『원주변씨족보(原州邊氏族譜)』에 의하면 그의 조부(祖父)인 순(順)이 1268년(고려 원종 9) 원나라 사신 탈타아(脫朶兒)를 수행하여 원나라에 가서 원세조(元世祖)를 알현하고 심양(瀋陽)의 장수(將帥)로 있다가 천호후(天戶候)에 봉작을 받았고, 안렬(安烈)은 조카 숙(肅)과 함께 공민왕과 왕비인 노국공주를 배종하고 환국하여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을 격퇴시켜 이등공신으로 판소부감사(判小府監事)에 올랐다. 이후 여러 공을 세웠는데, 그러나 위화도회군으로 왕을 쫓아낸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고 쫓겨난 우왕을 복위시키려다가 김저(金佇)와 함께 순절하였다. 원주 원씨(原州元氏) 원이(元顗)의 딸과 혼인하여 사적지(賜籍地)인 원주에서 터를 잡아 살게 되었으므로 후손들은 원주(原州)를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원주는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평원군(平原郡)이라 불리다, 940년(고려 태조 23) 원주(原州)로 고쳤다. 그 후 일신현(一新縣)·정원도호부(靖原都護府)·익흥도호부(益興都護府)·성안부(成安府) 등으로 변천해 오다가 1353년(공민왕 2)에 원주목(原州牧)으로 하였다. 1895년(고종 32) 원주군(原州郡)이 되었으며 1955년 일부가 원주시(原州市)로 승격되고 나머지는 원성군(原城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 면천군수(沔川郡守) 계윤(季胤)의 아들 협(協)은 공조판서와 포도대장에 이르렀고 주역(周易), 천문(天文), 지리(地理), 수학(數學)에도 정통하였으며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연산군 때 난정을 개탄하여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로 있던 사촌 동생 희리(希李)와 함께 안동군(安東郡) 서후면(西後面) 금계리(金溪里)로 낙향했던 희예(希乂)의 아들 광(廣)은 학행으로 이름났고, 그의 아들 영청(永淸)은 명종 때 식년문과 급제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로 나가 선정을 베풀어 임금으로 부터 표리(表裏: 은사나 헌상하는 옷의 겉감과 안감)와 안마(鞍馬)를 하사받았다.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한 양걸(良傑)은 임진왜란 때 강화(江華)를 방비하는 데 공을 세우고 명나라 낙오병들의 반란을 재치로 진압하여 훈련대장이 되었다. 경회(慶會)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여러 전투에서 많은 훈공을 세웠으며,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한 흡(翕)은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헌하여 진무이등공신으로 원흥군(原興君)에 봉군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주 변씨는 파주시에 총 48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 변씨(長淵邊氏)

장연 변씨(長淵邊氏)의 시조는 변유영(邊有寧)이다.
그는 주(朱)나라 문하습비후(門下習秘候) 대아찬(大阿飡) 변경(邊鏡)의 증손이다. 『장연변씨갑오보(長淵邊氏甲午譜)』에 의하면 그는 1138년(고려 인종 16) 중문지후(中門祗候)로 연성부원군(淵城府院君)에 봉해지고 장연(長淵)에 정착 세거하면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그를 일세조로 하고 관향을 장연(長淵)으로 하여 세계를 잇고 있다.
장연은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부터 장연으로 불렸는데, 1018년(고려 현종 9)에 옹진(甕津)에 속하였고 조선에 들어와 여러 변천을 거친 후 태종 때 영강현(永康縣)과 합하여 연강(淵康)으로 개칭하였다. 1416년에는 전에 왜구로 인하여 청송현(靑松縣)으로 편입시켰던 해안현(海安縣)을 다시 합치고 이름도 장연으로 환원하였으며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혁에 따라 군(郡)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유영의 7세손 영인(永仁)이 고려에서 판전의사(判典醫事)를 지냈다. 그의 손자 처후(處厚)는 조선개국 초에 춘장문과(春場文科)에 급제하여 태종 때 소윤(少尹)을 지내고 세종조에 중추원부사에 올랐다. 처후의 아들 대해(大海)는 관찰사를 역임하고 슬하에 곤(崑)과 윤(崙)의 형제를 두었는데 이들이 교하현감(交河縣監)과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를 각각 지내면서 명성을 떨쳤으며 곤의 증손 사정(士貞)은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워 변응정(邊應井: 원주 변씨)·변이중(邊以中: 황주 변씨)과 더불어 임란의 '삼변충장(三邊忠壯)'으로 일컬어졌다. 사정(士貞)은 1592년(선조 25) 임란이 일어나자 순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진주(晉州) 싸움에 파병하고 전라도 산간 지방에서 20일 동안에 왜병 2천 명을 사살하는 등 빛나는 전공을 올려 '적개의병장(敵愾義兵將)'으로 불렸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연 변씨는 파주시에 총 1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 변씨(黃州邊氏)

황주 변씨(黃州邊氏)의 시조는 변려(邊呂)이다.
중국 농서(隴西) 사람인 그는 북송(北宋)이 망하자 바다를 건너와 황주에 세거하였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관향을 황주(黃州)로 하였다. 『황주변씨세보(黃州邊氏世譜)』에 의하면 변려(邊呂)는 1232년(고려 고종 19) 몽골병이 송경(宋京)을 침입하자 강화(江華)로 피난 간 고종을 시종하는 데 공을 세워 상장군(上將軍)으로 태천백(泰天伯)에 봉해지고 식읍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황주는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동홀(冬忽)·동어홀(冬於忽)이었는데, 신라 헌덕왕 때 취성군(取城郡)으로 개칭하였고, 고려 초에 황주(黃州)라 하였다. 983년(성종 2) 목(牧)을 두었고 그 후 절도사(節度使)를 두었으며 천덕군(天德郡)이라 하여 관내도(關內道)에 속하였다. 1012년(현종 3) 안무사(安撫使)를 두었다가 또 목(牧)으로 고쳐 서해도(西海道)에 속하였으며 고종 때 지고령군(知高寧郡)으로 강등 후에 다시 황주목(黃州牧)으로 환원되었다. 1269년(원종 10) 원나라의 동녕부(東寧府)에 속하고 1290년 서북면에 이관되었으며 공민왕 때 다시 서해도에 이관, 조선 세조 때에 진(鎭)을 두어 2도호부, 6군, 5현 등을 관할하여 오다가 1895년에 황주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려(呂)의 아들 윤(允)이 고려 원종 때 서해도안찰사(西海道安察使)로 원수(元帥) 김방경(金方慶)과 제주도에서 삼별초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우고 판추밀원사(判樞密院事)에 올랐으며, 9세손 정(靜)은 중군사정(中軍 司正)을 지냈다.
조선에 와서는 이중(以中)이 임진왜란 때 소모사(召募使)로 병마(兵馬)와 군기(軍器)를 수습했으며 뒤에 조도사(調度使)가 되어 화차(火車) 300량(輛)을 제조하여 순찰사(巡察使) 권율을 도와 행주대첩(幸州大捷)을 이루게 하였다. 경윤(慶胤)은 광해군 때 이조좌랑을 지내고 학행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폐모론(廢母論)에 대의(大意)를 세워 반대하다가 삭직되자 두문불출하고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
그 밖에 숙종 때 학행으로 지평(持平)에 천거된 휴(烋), 영조 때 이름난 학자였던 괄(佸), 한성우윤(漢城右尹)과 공조판서를 지낸 치명(致明), 정조 때 예조·병조·이조의 판서를 역임한 후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에 오른 득양(得讓)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주 변씨는 파주시에 총 9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천 복씨(沔川卜氏)

면천 복씨(沔川卜氏)의 시조는 복지겸(卜智謙)이다.
그는 고려창업의 주역으로 본래는 태봉국(泰封國)의 마군장수(馬軍將帥)로 있다가 궁예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민심이 어지러워지자 신숭겸(申崇謙)·배현경(裵玄慶)·홍유(洪儒) 등과 함께 왕건을 추대하여 고려를 세웠다. 그 후 장군 환선길(桓宣吉)과 임춘길(林春吉) 등의 반역 음모를 적발하여 이를 평정시켰으며, 벼슬이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고 혜성부원군(槥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복지겸(卜智謙)을 시조로 받들고 본관을 면천(沔川)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면천은 충청남도 당진군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백제 때에는 혜군(槥郡)·지비(智非)라 부르던 것을 신라 경덕왕이 혜성군(憓城郡)으로 개칭하였고, 고려 현종 때 운주(運州: 홍주의 옛 지명)에 속하였다. 후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조선 태종 때 와서 면천군(沔川郡)으로 고쳤으나 1913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당진군(唐津郡)에 속한 면천면(沔川面)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역사인물로는 규(奎)가 1291년(충렬왕 17) 원나라 태종의 둘째 아들 합단(哈丹)이 침입했을 때 원주 방호별감(原州防護別監)으로 이를 격퇴시켜 크게 무명을 날렸으며 그의 아우 기(箕)는 지주사(智州事)을 역임하여 가문을 일으켰다. 위룡(渭龍)은 공양왕 때 사온서직장(司醞暑直長)으로 정몽주·이색(李穡) 등과 함께 친교를 맺어 교유했으며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홍주(洪州) 여수동(麗水洞)으로 돌아가 은거하며 절의를 지켰다.
그 밖에 남원부사(南原府使)를 거쳐 도승지(都承旨)에 오른 승원(承元),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을 지낸 승형(承亨),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역임한 승리(承利), 예조참의와 황해감사를 역임한 승정(承貞)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천 복씨는 파주시에 총 4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음 봉씨(河陰奉氏)

하음 봉씨(河陰奉氏)의 시조는 봉우(奉佑)이다.
그는 고려 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정당문학(政堂文學)과 위위시경(衛尉寺卿)을 지내고 좌복야(左僕射)에 올라 하음백(河陰伯)에 봉해져서 식읍을 하사받았다. 『하음봉씨을축세보(河陰奉氏乙丑世譜)』에 그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서기 1106년(고려 예종 1) 어느날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江華郡 河岾面 長井里) 하음산 기슭의 연못가에 눈부신 광채가 비치더니 이어 석함(石函)이 떠올랐다. 마침 물을 길러 왔던 한 노파가 이상히 여기며 살펴보니 그 속에 용모가 뛰어난 사내아이가 들어 있었다. 노파가 이 아이를 왕(王)에게 바쳤더니 임금은 궁중(宮中)에서 양육하라는 명(命)을 내린 후 노파가 봉헌(奉獻)했다고 하여 성(姓)을 봉(奉)이라 하고 이름을 우(佑)로 하사(下賜)했다. 그로 인하여 봉씨(奉氏)의 연원을 이루게 되었으며 후손들은 봉우(奉佑)를 시조로 받들고 하음(河陰)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계승하여 왔다.
하음은 경기도 강화군에 있던 옛 지명이다. 고구려 때 동음내현(冬音奈縣)·아음현(芽音縣)으로 불렸는데, 통일신라 시대에 호음현(沍音縣)으로 고쳐 해구군(海口郡)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 때 하음현(河陰縣)으로 고쳐 개성(開城)에 속하였으나, 1413년(조선 태종 13) 강화군(江華郡)에 이속되어 현(縣)을 폐하고 강화군에 병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우(佑)의 7세손 천우(天祐)가 고려 때 우부대언(右副代言)으로 원나라에 피난 가는 충숙왕을 호종하는 데 공을 세워 일등공신의 호를 받고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에 올라 하음부원군(河陰府院君)에 봉해졌다. 그의 맏아들 질(質)은 전객령(典客令)을 거쳐 합문지후(閤門祗侯)와 판도판서(版圖判書)을 역임하였다. 천우의 손자로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한 유례(由禮)는 나라일로 상소(上疏)를 올려 극간(極諫)을 했으나 실행되지 않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鄕里)로 돌아가 학문(學問)을 연구하며 후진양성에 진력했으며 성리학(性理學)에 정통했고, 정몽주·이색 등과 교유하며 ‘도학(道學)의 지종(之宗)’으로 일컬어졌다.
조선에서는 세종 때 종부시소윤(宗簿寺少尹) 여(礪)의 딸이 왕세자비(王世子妃: 문종의 비인 순빈)가 되었고, 형조를 비롯한 4조(曹)의 참판(參判)을 거쳐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이르렀으며 그의 아우 즙(楫)은 세종조에서 병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여해는 학문이 뛰어나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처남, 매부간인 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과 더불어 단종복위를 도모하다가 순절하여 공주의 숙모전(肅慕殿)에 배향되었다.
그 밖에 성종 때 감찰(監察)을 거쳐 강원도도사(江原道都事)을 역임한 원효(元孝), 세조 때 정난이등공신으로 강성군(江城君)에 봉해졌던 석주(石柱),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운 종한(宗翰)·진한(震翰)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음 봉씨는 파주시에 총 5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 적성면 마지1, 2리 하음 봉씨는 강성군파로서 지조를 봉우(奉佑)로 한다. 하음 봉씨가 처음 파주에 들어 온 것은 약 300여 년 전 명징(命徵)이 봉안국, 봉석주의 묘소 관리를 위해서 양주시 진건면에서 들어온 때부터라고 한다. 지금은 군부대가 들어선 적성 마지리 퇴골마을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는데 지금은 마지 1, 2리에 1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다.

제주 부씨(濟州夫氏)

제주 부씨(濟州夫氏)의 시조는 부을나(夫乙那)이다.
『탐라개국설화(耽羅開國設話)』의 기록에 의하면 옛날 탐라(耽羅)에는 본래 사람과 만물(萬物)이 없었는데 한라산 북쪽 모흥혈(毛興穴)에서 세 사람과 신인(神人)이 용출(湧出)하였으니, 이들이 곧 부을나(夫乙那)·고을나(高乙那)·양을나(良乙那)이다. 이들 삼신인(三神人)은 후에 벽랑국(碧浪國)으로부터 오곡(五穀)의 종자(種子)와 6축(六畜)을 가져온 세 사람의 미녀(美女)를 맞아 각각 아내로 삼고, 각기 활을 쏘아 화살이 맞닿는 곳에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니 처음으로 탐라의 역사가 시작되어 문화(文化)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문호(門戶)가 열리게 된 부씨(夫氏)는 탐라국 삼도(三徒)를 지배하여 오면서 왕자(王子)였던 부계량(夫繼良)이 신라 무열왕 때 안무사(按撫使)로 신라를 예방하여 외교에 길을 트고 왕으로부터 작록을 받았으며, 탐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부여계(夫麗季)는 탐라를 항복받기 위하여 침입한 신라군과의 싸움에서 애석하게 순절하였다. 그러나 부씨(夫氏)는 상계가 실전되어 조선 초에 진용부위(進勇副尉)로 별장(別將)을 지낸 부언경(夫彦景)을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제주는 한반도의 남서 해상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의 섬이다. 도이(島夷)·주호(州胡)·탐모라(耽牟羅)·섭라(涉羅)·탁라(乇羅)·탐라(耽羅)·제주(濟州)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다. 신라의 속국이었던 탐라국(耽羅國)은 938년(태조 21) 고려의 속국이 되었고, 숙종 때는 군(郡)을 설치하여 직접 다스리다가 1153년(의종 7) 군을 현으로 고쳤으며 1211년(희종 7)에 탐라를 제주라고 개칭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고, 1946년 도제(道制) 실시로 전라남도 관할하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현재 2시 2군 6읍 5면의 행정구역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언경(彦景)의 증손 삼로(三老)가 세종 때 통훈대부에 올랐다. 그의 아들 형제 중 맏아들 유렴(有廉)은 어모장군(禦侮將軍)로 선조가 뿌리를 내린 제주도를 지켰고, 막내 유성(有成)이 육지로 건너가 경기도 연천(漣川) 지방에 자리 잡아 가세(家勢)를 일으켰다. 한편 유렴(有廉)의 아들 세영(世榮)은 어모장군(禦侮將軍)로 슬하에 각(恪)·협(協)·열(悅)·신(愼)·픽·홍(弘)등 6형제를 낳아 이들이 제주6파(濟州六派)의 파조가 되었다.
그 밖에 어모장군으로 사과(司果)을 지낸 응호(應豪), 절충장군으로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을 역임한 승일(承日), 보공장군(保功將軍)로 겸사복정(兼司僕正)을 지낸 상필(尙弼), 절충장군으로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한 진운(進雲), 절충장군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올랐던 만원(萬元), 통정대부 만겸(萬謙), 예조정랑을 거쳐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오른 종인(宗仁)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부씨는 파주시에 총 4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빈씨(大邱彬氏)

빈씨(彬氏)는 중국의 성씨로, 청나라 덕종(德宗)때 몽골 출신으로 원외랑(員外郞)을 지낸 빈문(彬文)이 조선 고종 때 우리나라에 건너와 대구(大邱)에 정착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전해지는 본관은 대구(大邱)와 담양(潭陽) 2본이다. 그러나 상계를 고증 문헌이 전하지 않아 소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대구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 때 달구화현(達丘火縣)·달불성(達弗城)으로 불리다가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대구(大丘)로 개칭되었다. 1750년(영조 26) 대구의 유생 이양채(李亮采)가 대성 공자의 휘(諱)가 구(丘)자라 하여 대구(大丘)가 대구(大邱)로 개칭해달라는 상소를 올렸으나, 왕의 윤허를 얻지 못했다가 정조 때부터 점차 쓰였다고 한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빈씨는 파주시에 총 1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사씨(靑州史氏)

사씨(史氏)는 중국 경조(京兆) 계출된 성씨로, 주나라 사람인 사질(史佚)의 후예가 관직의 이름을 따서 성으로 삼은 것이 시초가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씨(史氏)는 산동성 청주(山東省 靑州) 출신인 사요(史 繇)가 명나라 개국공신으로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올랐으나 세자와 함께 반역을 꾀했다는 모함을 받자 장남 중(重)을 데리고 1372년(공민왕 21) 고려에 망명하여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葦田里)에 정착한 것이 시초가 된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사요(史繇)를 시조로 받들고 그의 출신지인 청주(靑州)를 본관(本貫)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사씨의 본관은 청주 외에도 거창(居昌)·경주(慶州)·파주(波州)·청송(靑松)·충주(忠州) 등 16본이 있는 것으로 문헌에 전해진다.
청주는 중국 화북(華北)지방에 인접한 지역으로, 고대 중국을 아홉으로 나누었던 구주(九州)의 하나였으며 지금의 산동성(山東省) 일대이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아들 중(重)이 세종 때 경상좌도관찰사(慶尙左道觀察使)를 지내고 1429년(세종 11) 대마도 정벌에 출정했다가 장렬하게 순절하여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그의 아들 극명(克明)은 장례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를 역임하여 평택현감(平澤縣監)을 지낸 의담(義淡)과 함께 가문(家門)의 기반을 다졌다.
그 밖의 인물로는 감찰(監察)을 지낸 득손(得孫), 도사(都事)를 지낸 기린(麒麟), 주부(主簿)를 지낸 학수(鶴壽), 공조참의를 지낸 원훈(遠勳), 형조좌랑을 역임한 맹련(孟連), 사헌부감찰을 지낸 용(龍),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손동(遜東)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 사씨는 파주시에 총 38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청주 사씨는 중국 명나라 개국공신이나 반역의 모함으로 고려 때 귀양을 와 귀화하여 월롱면 위전리에 터를 잡은 사씨 집성촌은 극명의 장자와 차자 후손이 터를 잡아 중시조부터 25대손에 이르기까지 600여 년을 넘게 대를 이어오고 있다. 월롱면 위전2리 선산에 분묘와 비석들이 있었으나 최근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묘역 전체를 법원읍 동문리 산 114-3번지로 이장하였다. 현재에도 위전리에는 청주 사씨들이 50여 호 살고 있다.

효령 사공씨(孝令司空氏)

사공씨(司空氏)는 중국 돈구(頓丘)에서 계출된 성씨이다. 진(晋)나라 때 가신(賈辛)이란 사람이 사공(司空)의 벼슬을 지내고 왕으로부터 벼슬 이름을 성으로 하사받은 것이 시초가 된다. 우리나라 사공씨의 연원은 당나라 희종(僖宗) 때 예부시랑을 지낸 사공도(司空圖)가 897년(신라 효공왕 원년) 8학사의 한사람으로 건너와 동방의 거유 문창후(文昌侯)·최치원(崔致遠)과 교유하며 당문화(唐文化) 보급에 앞장섰고 그 후 귀화하여 사공씨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의 계대가 불명하고 상계를 고증할 문헌이 전하지 않아 고려 충숙왕 때 봉익대부(奉翊大夫)로 판의시사(判儀시事)를 지내고 나라에 공을 세워 효령군(孝令君)에 봉해진 사공중상(司空仲常)을 중조(中祖)로 받들고 봉군 지명인 효령(孝令)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효령은 경상북도 군위군(軍威郡)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신라의 모혜현(芼兮縣)인데 경덕왕 때 효령(孝靈)으로 고쳐 숭선군(崇善郡: 선산군)에 속하게 하였고, 고려 현종 때 상주(尙州)에 속하였다가 1143년(인종 21) 일선군(一善郡: 선산)에 환속하였으며, 공민왕 때 군위(軍威)에 합해져 군위군 효령면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중상(仲常)의 아들 실(實)이 한림박사(翰林博士)로 문장과 덕행을 떨쳐 『동방명현록(東方名賢錄)』에 수록되었으며, 그의 아들 민(敏)은 공민왕과 창왕 대에 걸쳐 사복시정(司僕시正)과 삼사부윤(三司府尹)을 지내고 숭록대부(崇祿大夫)로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렀으나 고려의 국운이 기울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가 절의를 지켰다. 조선에서는 주(周)가 자헌대부로 성균관사(成均館事)에 올랐으나 세조가 왕위찬탈의 음모를 꾸미자 낙향하여 세조가 있는 북쪽을 향해 앉지도 않았다고 한다. 발(發)은 문종 때 통훈대부에 올랐으나 강직(剛直)한 성품으로 직간(直諫)을 하다가 미움을 받자 벼슬을 버리고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진력했으며,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어 이들이 종파(宗派)·중파(仲派)·계파(季派)로 갈라졌다.
그 밖에 형조정랑(刑曹正郞)을 지낸 양(亮),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을 역임한 기(琦), 숙종(肅宗) 때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을 역임한 지(祉),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우(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균(均), 순조 때 병마절제사를 지낸 현(鉉)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효령 사공씨는 파주시에 총 1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천 상씨(木川尙氏)

상씨(尙氏)는 본래 중국 상당(上黨)에서 계출된 성씨로 당나라 덕종(德宗) 때 병마사(兵馬使)를 지낸 상가고(尙可孤)의 후예(後裔)로 전한다. 우리나라 상씨(尙氏)의 시조(始祖)는 고려 초에 목천호장(木川戶長)을 지낸 상국진(尙國珍)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목천상씨갑자대동보(木川尙氏甲子大同譜)』의 기록에 의하면 태조 왕건이 삼한(三韓)을 통합한 후 고려를 개국하자 백제의 유민들이 목천 상왕산(尙王山)에 웅거하여 백제 재건을 위해 수차에 걸쳐 반기를 들자 화가 난 태조는 이를 미워하여 가축의 이름인 우(牛)·마(馬)·상(象)·돈(豚)·장(獐)으로 사성(賜姓)하였다.

이후 국진의 아들 득유(得儒)가 고려 문종(文宗) 때 문하시중(門下侍中) 최충(崔冲)이 설치한 구재(九齋)의 하나인 대빙재(待聘齋)에서 수학(修學)하면서 향역(鄕役)을 면하게 되었고, 본래의 성(姓)인 상씨(尙氏)로 회복하였다고 한다. 그 후 3세손 원(愿)이 급사(給事)를 지내며 임지(任地)를 따라 주거(住居)를 임천(林川)으로 옮겨 10대를 세거하면서 조상(祖上)의 원향지인 목천(木川)을 본관(本貫)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으며, 후대로 내려와 후손들이 풍덕(豊德). 원주(原州)·부여(扶餘) 등지에 산거(散居)하면서 파(派)를 이루게 되었다.

목천은 충청남도 천원군(天原郡)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대목악군(大木岳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대록군(大麓郡)으로 고쳤고, 고려 때는 목주(木州)로 개칭하였다가 조선 태종 때 목천(木川)으로 고쳐 1913년에 천원군에 속한 면(面)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8세손 천석(天錫)이 고려 말에 감문위대호군(監門衛大護軍)을 지냈다. 그의 손자 효충(孝忠)은 조선 초에 충청도 수군우후(忠淸道水軍虞侯)를 지내고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 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使)에 추증되었다. 조선 중기 명상(明相)으로 이름난 범허재(泛虛齋) 진(震)은 1519년(중종 14)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관찰사·4조(四曹)의 판서 등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한 후 명종이 즉위하자 우·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그 밖에 군자감판관(軍資監判官)을 지낸 시손(蓍孫), 공조참판을 역임한 자산(子産) 부자, 선전관(宣傳官)과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을 거쳐 화량진첨절제사(花梁津僉節制使)에 이른 득용(得容)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천 상씨는 파주시에 총 3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성 서씨(達城徐氏)

달성 서씨(達城徐氏)는의 시조는 서진(徐晋)이다.
고려에서 봉익대부(奉翊大夫)로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낸 그는, 아들 기준(奇俊)과 손자 영(穎)에 이르기까지 3대가 달성군(達城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달성(達城)을 관향으로 하였다. 후대로 내려와 현감공파(縣監公派), 학유공파(學諭公派), 판서공파(判書公派), 감찰공파(監察公派), 진사공파(進士公派), 생원공파(生員公派), 진사공파(進士公派), 참판공파(參判公派), 종사랑공파(從仕郎公派) 등 9파로 갈라졌다.
달성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삼한시대에 달구화(達句火)·달구벌(達句伐)이라 불렀고, 757년(경덕왕 16)에 대구현(大丘縣)으로 개칭하여 수창군(壽昌郡)에 속하였다. 조선 영조조에 구(丘)를 구(邱)로 고쳐 대구(大邱)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 가지를 이룬 전역이 대구부(大邱府)로 독립되고 외곽지 전부와 현풍군을 폐합하여 달성군(達城郡)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증손 균형(鈞衡)이 1360년(공민왕 9) 문과에 급제하여 간관으로 있으면서 신돈(莘旽)의 방탕한 횡포를 탄핵하는 직언을 서슴지 않았고 잦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한 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그의 아들 침(沉)은 조선이 개국한 후 조봉대부(朝奉大夫)로 전의소감(典醫少監)을 지냈다. 침(沉)의 아들 3형제 중 장남 문한(文翰)은 승사랑(承仕郎)으로 광흥창부승(廣興倉副丞)을 거쳐 문과에 급제하여 현감(縣監)을 지냈으며, 차남 문간(文幹)은 중시(重試)에 올라 역시 현감을 역임했고, 막내 문덕(文德)은 숙부 송화부사(松禾府使) 습(渶)에게 출계(出系)하여 이조정랑(吏曹正郎)과 만경현감(萬頃縣監)을 지냈다. 대사간 충(衷)의 증손 한정(翰廷)은 세종 때 진사로 태학(太學)에서 학문을 연구하였고, 1455년(세조 1)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이를 개탄하여 벼슬의 뜻을 버리고 가족을 모두 데리고 영주시 이산면 한성동으로 내려가 은거하였다.
이순신의 막하에서 선봉수문장으로 임명되었던 수천(壽千)은 대나무로 뗏목을 만들어 노량해전(露粱海戰)에서 무공을 떨쳤다. 한말(韓末)에 와서는 서화(書畵)에 탁월하여 '팔능(八能)'으로 일컬어졌던 병오(丙五)와 독립운동가로 대동청년당(大東靑年黨)을 조직하여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상일(相日), 영친왕 결혼식에 참석했던 총독부 요인과 이완용(李完用) 등의 살해를 기도하다 피체되었던 상한(相漢)이 명성을 떨쳤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달성 서씨는 파주시에 총 2,62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서씨(大丘徐氏)

대구 서씨(大丘徐氏)의 시조는 서한이다.
그는 오랫동안 대구에 정착세거해 온 사족(士族)의 후예로 고려조에서 군기소윤(軍器少尹)을 역임하여 후손들이 대구(大丘)를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 1702년(숙종 28)에 간행된 『대구서씨세보(大丘徐氏世譜)』에 의하면 대구 서씨는 이천 서씨(利川徐氏)의 시조 아간공(阿干公) 서신일(徐神逸)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와 『동국만성보(東國萬姓譜)』 등의 문헌에도 이천 서씨에서 분적한 것으로 적고 있으나 계대를 고증할 수 없다.
대구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 때 달구화현(達丘火縣)·달불성(達弗城)으로 불리다가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대구(大丘)로 개칭되었다. 1750년(영조 26) 대구의 유생 이양채(李亮采)가 대성 공자의 휘(諱)가 구(丘)자라 하여 대구(大丘)가 대구(大邱)로 개칭해달라는 상소를 올렸으나, 왕의 윤허를 얻지 못했다가 정조 때부터 점차 쓰였다고 한다.
역사인물로는 뛰어난 학덕문장(學德文章)과 예지(叡智)로 조선 초기의 법치덕화(法治德化)에 기여한 사가정(四佳亭) 거정(居正)과 약봉(藥峯) 성(渻)을 들 수 있다. 거정(居正)은 세종과 성종 대에 걸쳐 전후 45년간 벼슬길에 있으면서 육조(六曹)의 판서(判書)를 거쳐 두 번이나 대사간(大司諫)에 올랐으며, 문형(文衡)을 26년간이나 맡아 선비를 23방(榜)이나 뽑아 훌륭한 인재를 많이 등용시켰다. 선조 때 별시문과에 급제했던 약봉(藥峯) 성(渻)은 5도의 관찰사(觀察使)와 3조(三曹)의 판서(判書)를 거쳐 인조(人祖) 때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올랐으며, 그의 후손에서 3대 상신(相臣: 宗泰·命均·志修), 3대 대제학(大提學: 有臣·榮輔·箕淳), 3대 문장(文章: 命膺·浩修·有榘)이 배출되었다.
성(渻)의 장남 경우(景雨)는 인조조에 우의정으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그의 아들 원리(元履)가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과 호조참판을 거쳐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를 역임했고, 손자 문중(文重)은 숙종 때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러 기로소에 들어갔다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었다. 종태(宗泰)는 숙종 때 이조판서와 좌·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고, 그의 아들 명균(命均)은 부제학(副提學)으로 실록청 도청당상(實錄廳都廳堂上)을 겸하여 『경종실록(景宗實錄)』 편찬에 참여하고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을 지냈으며, 영조와 정조 대에 걸쳐 북학파(北學波)의 비조로 일컬어진 명응(命膺)은 역학(易學), 실학(實學)을 깊이 연구하여 명망이 높았고 역대 국악의 악보(樂譜)를 집대성한 『대악전·후보(大樂前·後譜)』를 간행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백과 전서인 『임원경제십육지(林園經濟十六志)』를 저술한 유구(有榘)는 농정에 관한 경론 및 상소문을 써서 영농법 개혁을 누차 역설했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유예지(遊藝志)』를 저술하여 오늘날 국악사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서씨는 파주시에 총 71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대구 서씨 도위공파는 안주목사를 지내고 달천부원군(達川府院君)에 추봉(追封)된 서미성(徐彌性, 1383~1429)을 파시조(派始祖)로 하는데, 주요 인물로는 문정공(文靖公) 서명응(徐命膺, 1716~1787), 검열(檢閱)을 지낸 서유구(徐有榘, 1764~1845) 등이 있으며 광탄면 용미2리에 18호가 살고 있다.
광탄면 신산리 31-11 경모재(敬慕齋)에서는 음력 2월 14일 정신옹주(貞信翁主)의 불천위 봉향이 있으며 음력 10월 1일에서 16일 사이 광탄면 신산1리 시궁굴산에 있는 선영에서 10세 언

양공(彦陽公) 거광(居廣)과 11세 장령공(掌令公) 팽소(彭召), 12세 승사랑(承事郎) 구(久), 13세 장원공(掌苑公) 금(嶔), 17세 청송공(靑松公) 문징(文徵), 군위공(軍威公) 문환(文渙)의 시제를 지낸다.

부여 서씨(扶餘徐氏)

부여 서씨(扶餘徐氏)의 시조는 서융(徐隆)이다.
그는 백제 의자왕의 셋째 아들이다. 『부여서씨세보(扶餘徐氏世譜)』에 의하면 660년(백제 의자왕 20) 백제가 멸망되자 의자왕은 태자 등 2,000여 명과 함께 당나라 무장 소정방(蘇定方)에 의해 압송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니, 당제(唐帝)는 의자왕에게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의 품계를 내리고 의자왕의 아들 융(隆)에게는 서씨(徐氏)의 성을 하사하였으며 웅진도독(熊津都督)에 임명하여 본국으로 보냈다고 한다.
그리하여 부여 서씨의 문호(門戶)가 열리게 되었으나 그 후의 세계가 실전되어 융의 원손(遠孫)으로 고려에서 병부상서를 지내고 태원군(太原君)에 봉해진 존(存)을 일세조로 받들고 부여(扶餘)를 본관(本貫)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부여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소부리(所夫里: 일명 사비)인데 538년(성왕 16)에 웅진(熊津: 현재의 공주)에서 이곳으로 천도하였다. 그 후 660년(의자왕 20) 백제가 멸망하고 신라 문무왕 때 부여도독부가 설치되었고, 경덕왕 때 부여현(扶餘縣)으로 개칭되었다. 고려 때는 공주(公州)와 병합하여 감무를 두고 다스리다가 1413년(태종 13) 독립하여 부여현이 되었으며 1914년 부여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익(益)이 1569년(선조 2)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내고 종부시첨정(宗簿寺僉正)으로 순문관(巡問官)이 되어 북방 경비를 맡았으며, 의주목사(義州牧使)로 탄핵받은 이율곡(李栗谷)을 구제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같이 화(禍)를 입었고, 시조(時調)를 잘하여 명망이 높았다. 익(益)의 장남 용갑(龍甲)은 선조 때 영양현감(英陽縣監)과 덕천군수(德川郡守)을 지내고 광해군 때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넷째 아우인 양갑(羊甲)과 함께 화(禍)를 입었고 뒤에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현종(顯宗) 때 직간(直諫)을 잘하여 만암(晩菴) 이상진(李尙眞)과 더불어 '오직(五直)'으로 불렸던 필원(必遠)은 9세 때 부친 운기(雲驥)를 여의고 심한 고생 속에서 신독재(愼獨齋) 김집(金 集)과 기암(畸菴) 정홍명(鄭弘溟)을 찾아가 글을 배우고 창릉참봉(昌陵參奉)에 천거되어 사옹원봉사를 지냈다. 1648년(인조 26)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효종 때 정언(正言)을 거쳐 충청도(忠淸道)와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지내고 현종 때는 형조판서에 올랐다.
그 밖에 목사를 지낸 경조(敬祖),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지낸 정훈(正勳), 사헌부감찰을 지낸 계훈(啓勳), 돈녕부도정을 지낸 운휘(雲輝)·석조(錫祚)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여 서씨는 파주시에 총 18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산 서씨(連山徐氏)

연산 서씨(連山徐氏)의 시조는 서준영(徐俊英)이다. 이천 서씨의 시조인 서신일(徐神逸)의 후손으로 오랫동안 세거해 온 연산(連山)을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나, 고증할 문헌이 없다. 그 후 연산 서씨는 준영(俊英)의 아들 보(寶)의 후대에서 세계가 실전되어 조선에서 참군(參軍)을 지낸 의민(義敏)을 일세조로 받들고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연산은 충청남도 논산군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황산군(黃山郡)으로 고쳤고, 고려 초에 연산(連山)으로 고쳐 현(縣)이 되었으며 1018년(현종 9) 공주(公州)에 이속시켜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태종 때 현감을 두었고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어 공주부(公州府)의 관할이 되었다가 1914년 논산군에 합해져 지금은 논산시에 속한 연산면(連山面)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 연(憐)은 현감 종수(宗秀)의 아들로 19세 때 무과(武科)에 장원하여 제주판관(濟州判官)로 나가 10대 명관(名官)으로 명성을 떨쳤다. 당시 제주도에는 한라산(漢拏山) 석굴에 큰 뱀이 있어 풍우조화(風雨造化)를 부린다고 하여 사신(蛇神)을 숭배하는 관습이 있었다. 심지어는 사신을 모시지 않으면 불행이 닥친다고 하여 시집까지 꼭 신주(神主)를 옮겨다가 모시곤 하여 폐해가 극심하였다. 그는 제주판관으로 나가 이 사신당(蛇神堂)을 두들겨 부수고 민심(民心)을 안정시켜 도민(島民)들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그 후 연(憐)의 아들 천령(千齡)과 증손 후적(後積)도 현감을 역임하였다.

그 밖에 부사로 나갔던 택선(宅善)·윤박(潤璞),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지낸 간세(幹世), 판관(判官)을 지낸 병덕(秉德) 등이 있다. 한말에 와서는 독립운동가로 이름났던 승태(承台)가 철종 때 의병들의 군량을 조달했고, 광천(廣川)에 덕명학교(德明學校)를 설립하여 육영사업(育英事業)에 헌신했으며, 기환(基煥)은 의병을 일으켜 민종식(閔宗植)과 함께 홍주성(洪州城) 전투에 참가했다가 접전중 순절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산 서씨는 파주시에 총 5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 서씨(利川徐氏)

이천 서씨(利川徐氏)의 시조는 서신일(徐神逸)이다.
그는 신라 효공왕(孝恭王) 때 아간대부(阿干大夫)를 지내다가 국운(國運)이 다함을 예견하고 벼슬에서 물러나 이천(利川)의 효양산(孝養山) 기슭에 희성당(希聖堂)을 짓고 은거하면서 스스로 처사(處士)라 칭하고 후진훈도(後進訓導)에 여생을 바쳤다.
이천은 경기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남천현(南川縣: 일명 남매현)인데, 신라 경덕왕이 황무현(黃武縣)으로 개칭하여 한주(漢州: 지금의 광주)에 속하게 하였다. 이후 고려 태조가 후백제를 정벌할 당시 한때 이천군(利川郡)이라 하였다. 1257년(고종 44) 영창현(永昌縣)이라 개칭하였고 공양왕 때 남천군(南川郡)으로 승격하였다가 조선에 와서 다시 이천현으로 격하되었으며, 1444년(세종 26) 도호부(都護府)로 승격, 후 여러 차례 변천을 거듭하다가 1895년 충주부(忠州府) 이천군으로 되었고, 1896년에 경기도 이천시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국만성보(東國萬姓譜)』와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의하면 그는 신라 창업의 원훈(元勳)으로, 아성대장군(阿城大將軍)을 지낸 서두라(徐豆羅)의 후손으로 천품(天稟)이 인자중후(仁慈重厚)하여 화살을 맞고 사냥군에게 쫓기는 사슴을 구해주었는데, 그날 밤 꿈속에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감사의 말을 전하기를 "낮에 당신이 구해준 사슴은 나의 자식으로, 사냥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될 것을 다행히 당신의 은덕(恩德)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으니 당신의 자손대대로 재상(宰相)이 되게 하리라" 하고 사라졌다. 나이 80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던 그는 그로부터 부인의 몸에 태기가 있어 아들을 얻으니, 그가 바로 고려 초기에 국기(國紀)를 확립(確立)했던 서필(徐弼)이다. 고려 광종(光宗) 때 대광내의령(大匡內議令)이었던 필(弼)은 항상 솔직한 간언(諫言)으로 왕(王)을 보필하여 두터운 신임(信任)을 받았다.
고려 성종(成宗)때 뛰어난 외교관(外交官)이자 정략가(政略家)로 유명했던 희(熙)는 필(弼)의 아들로, 거란의 침입을 탁월한 화술(話術)로 굴복시켜 물러가게 했으며 한민족의 생활권을 압록강의 자연적인 경계로 확정짓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국사상(國史上) 괄목할 업적을 남겼다.
희(熙)의 아들은 덕종(德宗) 때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내사령(內史令)에 임명되고 자손에게 영업전(永業田)이 하사(下賜)된 눌(訥)과 우복야(右僕射)를 지낸 유걸(惟傑), 유위(惟偉 : 장야서령), 주행(周行) 등으로 그중에서 유걸(惟傑)과 유위(惟偉)의 인맥이 두드러진다. 선종(宣宗) 때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상주국(上住國)이 되었던 정(靖)은 우복야(右僕射) 유걸의 아들이며, 그의 손자 순(諄 : 좌복야 균의 맏 아들)이 판비서성사(判秘書省事)에 올라 강직(剛直)하기로 유명했다. 유위의 현손 견(甄)은 절신(節臣)으로 이름났다. 1369년(공민왕 18) 문과(文科)에 급제한 견(甄)은 고려 말에 장령(掌令)을 지냈으나 고려의 국운이 기울어지자 금천(衿川)에 숨어 살며 평생을 조선(朝鮮) 임금이 사는 북쪽을 바라보지 않고 절의를 지켰으며, 고려의 망국을 읊은 시조(時調)가 전해진다.
조선에 와서는 선(選)이 태종 때 서자(庶子)의 차별대우를 주장했고 세종 때 좌군도총제(左軍都摠制)를 거쳐 우의정에 추증되었다. 강(崗)은 단종 때 춘추관(春秋官)의 기사관(記事官)이 되어 『세종실록』과 『문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임진왜란 때 복병전술로 함흥(咸興)과 홍원(洪原)에서 대첩을 거두었던 경충(敬忠)은 정유재란(丁酉再亂)에도 전공을 세워 충무위좌부장(忠武衛左部將)에 올랐다.
그 밖에 장례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를 지낸 사근(思近),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낸 효행(孝

行), 공조참의를 지낸 지관(志寬), 종성부사(鍾城府使)를 지낸 호(號), 동래부사(東來府使)를 지낸 경천(慶千),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을 지낸 상국(相國)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천 서씨는 파주시에 총 1,69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의 이천 서씨는 문산읍, 광탄면, 금촌동, 교하 운정 등지에 살고 있다.

장성 서씨(長城徐氏)

장성 서씨(長城徐氏)의 시조는 서능(徐稜)이다.
아간공(阿干公) 서신일(徐神逸)의 10세손인 그는 고려 고종 때 시중(侍中)을 지내고 나라에 공을 세워 장성군(長城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능(稜)을 일세조로 받들고 이천 서씨에서 분적하여 식읍으로 하사받은 장성(長城)을 본관으로 삼았다.
장성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고시이현(古尸伊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갑성군(甲城郡)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때 현재의 명칭인 장성(長城)으로 고쳐 영광(靈光)에 속하였으며 조선조에서 현감(縣監)을 두었다. 1895년 군(郡)이 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진원군(珍原郡)을 병합하였고 1936년 장성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능의 아들 준(俊)이 고려에서 대장군을 역임했고, 손자 민경(敏敬)은 검교 상장군(檢校上將軍)이 되었따. 고려 말에 진안감무(鎭安監務)를 역임했던 식(湜)은 효성(孝誠)이 극진하여 부모상(父母喪)을 당하자 6년 동안이나 여막(廬幕)에서 시묘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으며, 굉(肱)은 조선 초기에 승정원 좌승지를 역임하였다.
고려 말 절신으로 유명했던 중보(仲輔)는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들어가 절의를 지켰다. 1588년(선조 21) 무과에 급제한 응두(應斗)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김천일의 막하로 들어가 진주성 싸움에서 성이 함락되자 김천일, 최경창 등과 함께 남강(南江)에 투신 자결하여 호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홍련(鴻連)은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지냈다.
그 밖에 비서원승(秘書院丞)을 지낸 인식(寅植), 돈녕부도정을 지낸 규연(奎衍), 의금부도사를 지낸 행근(行根)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성 서씨는 파주시에 총 11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음 서문씨(安陰西門氏)

서문씨(西門氏)는 본래 중국 양국(梁國)에서 계출된 성씨이다. 춘추시대 정(鄭)나라 대부(大夫)가 살고 있던 지명을 따서 성으로 삼았다. 우리나라 서문씨는 원나라 하남성 출신으로 진사를 지낸 서문기(西門記)가 1351년(고려 충정왕 3) 공민왕의 비인 노국대장공주를 배종하고 건너와 안음군(安陰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안음(安陰)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안음은 경상남도 함양군과 거창군의 일부 지역을 관장하였던 조선 초기 행정구역명이다. 고려 때 이안현(利安縣)과 감음현(感陰縣)을 1415년(태종 15)에 합쳤다. 그 후 1728년(영조 4)에 와서 안의현(安義縣)으로 개칭하였고,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하였다. 1913년 군을 폐하고 함양군과 거창군에 갈라 편입하여 지금은 함양군 안의면(安義面)으로 남아 있다.
서문씨의 본관은 안음 외에도 청주(淸州)·감음(感陰: 안음의 옛 지명)·동주(東州: 철원지방) 등 3본이 있는 것으로 문헌에 전해지나 모두가 동원(同源)으로 추정되며 안음을 제외한 관향에 대해서는 미상(未詳)하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아들 존(尊)이 조선에서 부사(府使)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 사(師)가 정랑(正郞)을 역임하였다. 그 밖에 군수를 지낸 식(湜), 검상(檢詳)을 지낸 질(秩)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음 서문씨는 파주시에 총 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 석씨(月城昔氏)

월성 석씨(月城昔氏)의 시조는 신라 4대 왕인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이다. 『삼국사기』의 <신라본기(新羅本紀)>에 탈해왕(脫解王)의 탄생 신화가 전해진다. 그가 4대 왕이 된 이후 석씨(昔氏)는 9대 벌휴왕(伐休王), 10대 내해왕(奈解王), 11대 조분왕(助賁王), 12대 첨해왕(沾解王), 14대 유례왕(儒禮王), 15대 기림왕(基臨王), 16대 흘해왕(訖解王)까지 신라 58대 왕 가운데, 8명이 왕위에 올랐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석탈해왕을 시조로 받들고 월성(月城)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그 후의 계대가 실전되어 고려에서 교서랑(校書郞)을 지낸 석재흥(昔載興)을 일세조로 계대하고 있다. 월성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개국하여 사로국(斯盧國), 즉 서라벌(徐羅伐)이라 하였다가 후에 신라로 불려오던 중 65년(탈해왕 9)에 계림(鷄林)으로 개명되었고 기림왕(基臨王) 때 다시 신라로 고쳤으나 고려 때 경주(慶州)로 개칭하였다. 987년(성종 7)에는 동경(東京)이라 하고 목종(穆宗)때 낙랑군(樂浪郡)으로 강등하였다가 현종(顯宗) 때 다시 경주라 하였으며 이후 안동대도호부 경주목 등으로 변천 해오다가 충렬왕(忠烈王) 때 계림부(鷄林府)로 고쳐 불렀다. 1415년(태종 15) 경주부로 다시 고치고 1895년(고종 32)에 경주군(慶州郡)이 되었으며 1955년 8월 경주시를 설치하면서 종전의 경주군의 나머지 지역을 월성군(月城郡)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때 병부령(兵部令)을 지낸 시종(時宗)과 밀직사(密直使) 운니(運尼)의 부자가 유명했으며, 좌복야(左僕射) 한일(漢一)의 아들 정민(貞敏)은 예의시랑(禮儀侍郞)을 거쳐 평장사(平章事)에 올라 크게 명성을 떨쳤다.

조선에서는 부사 상률(相律)과 판관 용진(龍眞), 부호군 광국(光國), 오위장 병권(炳權)이 뛰어났으며 봉혁(鳳爀)은 감찰(監察)을 지냈고, 건민(鍵民)과 우성(羽盛)은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 석씨는 파주시에 총 1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 석씨(忠州石氏)

석씨(石氏)는 본래 중국 무위(武威)에서 계출된 성씨이다. 문헌에 전해지는 본관은 85본(本)이다. 충주 석씨(忠州石氏)의 시조 석린(石粼)은 1174년(고려 명종 4) 두경승(杜景升)과 함께 조위총(趙位寵)의 반란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상장군(上將軍)에 오르고 동서북면 병마사(東西北面兵馬使)가 되어 예성군(藥城君)에 봉해졌다. 그 후로 후손들은 석린을 시조로 받들고 봉군지(封君地)인 충주(忠州)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충주는 충청북도 중원군(中原郡)에 있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 국원성(國原城)·미을성(未乙省)·완장성(薉長城)·탁장성(託長城) 등으로 불리다가 신라에 병합되어 진흥왕 때 이곳에다 소경(小京)을 두었고 경덕왕이 중원경(中原京)으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가 충주(忠州)로 개칭하였다. 그 후 고종 때 국원경(國原京)으로 고쳐 불렀고, 1550년(명종 5) 유신현(維新縣)으로 부르다가 조선 선조 즉위년에 다시 충주(忠州)로 환원되었다. 그 후 1956년 충주면(忠州面) 일원으로는 충주시(忠州市)를 만들고 나머지는 중원군(中原郡)으로 고쳤다.

역사인물로 6세손 양선(良善)은 부인 최씨(崔氏)가 이태조(李太祖)의 이모인 관계로 조선이 개국되자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에 추봉되고, 양선의 아들 천을(天乙)은 중랑장(中郎將)을 역임한 후 슬하에 아들 수명(壽明)과 여명(汝明)을 두어 이들이 충주 석씨의 양대산맥을 이루게 되었다. 천을(天乙)의 맏아들 수명(壽明)은 조선에서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내고 홍주(洪州)로 분관하였으며, 그의 아우 여명(汝明)은 조선이 개국한 후 태종이 집현전제학(集賢殿提學)을 내렸으나 불취하고 학문연구에 전심하니 태종이 그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숭록대부(崇祿大夫)로 좌찬성(左贊成)을 추증하였다.

또한 통정대부로 태천군수(泰川郡守)를 지낸 관(瓘)과 증 좌찬성(贈 左贊成) 여명(汝明)의 아들 문수(文守: 자헌대부로 예조참판을 역임), 문현(文賢: 이천현감을 역임), 문성(文成: 직제학을 역임) 3형제가 크게 현달(顯達)했다 한편 직제학(直提學) 문성(文成)의 맏아들로 세조 때 판서를 지낸 인정(仁正)은 예원군(藥原君)에 봉해지고, 차남 의정(義正)은 예조참의을 역임하여 정산현감(定山縣監)을 역임한 예정(禮正),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을 지낸 지정(智正), 한림원학사(翰林院學士) 신정(信正)과 함께 명성을 떨쳤다.

그 밖에 선전관(宣傳官)을 지낸 옥점(玉玷), 첨정(僉正)을 역임한 옥진(玉瑧), 형조정랑과 횡성현감(橫城縣監)을 거쳐 강화교수(江華敎授)를 지내고 효종 때 『오행귀감(五行龜鑑)』을 편찬한 지형(之珩), 한말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청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성국(成國), 속리산(俗離山) 전투에서 선봉으로 싸웠던 창문(昌文)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주 석씨는 파주시에 총 23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 선씨(寶城宣氏)

선씨(宣氏)는 중국 시평(始平)에서 계출된 성씨로, 노나라 대부(大夫) 선백(宣伯)의 후예로 전한다. 우리나라 선씨는 명나라 때 문연각학사(文淵閣學士)인 선윤지(宣允祉)를 시초로 보고 있다. 그는 1382년(우왕 8) 사신으로 고려에 왔다가 귀화하여 전라도안렴사(全羅道按廉使)로 나가 해안지방에 침입하여 우거하는 왜구를 섬멸하고 민생을 안정시켰으며, 조선이 개국되자 벼슬을 버리고 전라남도 보성(寶城)에 은거하였다고 한다. 그 후 선윤지(宣允祉)는 유교의 진흥에 앞장섰고 인재 양성에 진력하며 보성(寶城)에 터를 잡아 살게 되었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받들고 보성(寶城)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계승하게 되었다.
보성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복홀군(伏忽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보성군(寶城郡)으로 고쳤고, 고려 태조는 삼양군(三陽郡)이라 하였으며, 996년(성종 15)에 패주(貝州)로 개칭하였다가 1668년(현종 9) 전라도에 소속되면서 다시 보성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아들 안혁(安赫)이 태종(太宗) 때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역임했고, 증손 화(和)는 태종 때 여산군수(礪山郡守)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 군수 화(和)의 아들 형(炯)은 형조참판에 올라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 공을 세워 적개삼등공신(敵愾三等功臣)에 책록되었으며 성종이 즉위할 때 무공을 세워 좌리사등공신(左理四等功臣)으로 유성군(楡城君)에 봉해졌다. 문종 때 순무사(巡撫使)를 지낸 청유(淸裕)의 아들 국충(國忠)은 세조 때 대사성(大司成)에 이르렀고, 형(炯)의 증손 거이(居怡)는 문무를 겸비한 '비장(飛將)'으로 크게 명성을 떨쳤다. 약해(若海)는 사신으로 심양(瀋陽)에 다녀와 『심양일기(瀋陽日記)』를 남겼으며 병자호란 때 의롭게 순절하였다. 세강(世綱)은 병자호란 때 광주쌍령(廣州雙嶺)에서 적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순절하여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극례(克禮)는 임진왜란 때 경상좌도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로 왜군 섬멸에 전공을 세웠으나 잔적을 소탕하다가 아깝게 전사하여 선무원종일등공신(宣武原從一等功臣)에 책록되었다. 여경(餘慶)은 임진왜란 때 선전관(宣傳官)으로 대가(大駕)를 호종하였고 평양전투에서 순절하여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성 선씨는 파주시에 총 31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원 선우씨(太原鮮于氏)

우리나라 선우씨(鮮于氏)는 기자가 주(周)나라 무왕(武王) 때 건너와 기자조선(箕子朝鮮)을 세우고, 그의 맏아들 송(松)이 2대 장혜왕(莊惠王)으로 즉위하면서 아우인 중(仲)을 우(于) 땅에 봉하여 나라를 세우게 하였으므로, 조선의 '선(鮮)'자와 '우(于)'자를 따서 선우씨로 삼았다고 하며, 기자가 식읍으로 하사받은 태원(太原)을 본관으로 삼았다고 한다.

8대왕인 원왕(元王)에게 아들 3형제 가운데, 양(諒)이 평안남도 용강군(平安南道 龍岡郡)이 오석산(烏石山)으로 들어가 성(城: 황룡산성)을 쌓고 창도(創都)하여 나라 이름을 황룡(黃龍)이라 하며 선우씨(鮮于氏)의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그러나 양(諒)의 10세손 병(柄)이 301년 고구려 미천왕(美川王)에게 나라를 빼앗겨 서민(庶民)으로 선우씨의 세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상계를 고증할 문헌이 전하지 않아 후손들은 고려 고종 때 중서주서(中書注書)를 지낸 정(靖)을 일세조 받들어 계세하고 있다.

태원은 중국 산서성(山西省)에 위치한 지역으로, 본래 기자(箕子)가 상(商)나라 때 식읍으로 하사받았던 땅이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신종(神宗) 때 중직대부(中直大夫)로 서운관정(書雲觀正)을 거쳐 죽주부윤(竹州府尹)을 지낸 석(碩)과 그의 손자 당(襠), 증손 수(守)가 유명했다. 한편 부윤 수(守)의 아들 적(迪)은 공민왕(恭愍王) 때 중정대부(中正大夫)로 소부시윤(小府시尹)을 지내고 태천(泰川)에 정착하여 슬하에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장남 경(景)이 조선 태조조에 신호위중령별장(神虎衛中領別將)을 지내고 태천파(泰川派)를 이루었으며, 차남 현(賢)은 보승중랑장(保勝中郎將)을 역임한 후 용천(龍川)에 별거(別居)하여 용천파(龍川派)의 파조가 되어, 이들 형제가 태원 선우씨의 양대산맥을 이루었다.

협(浹)은 1588년(선조 21) 숭인전감(崇仁殿監) 식(寔)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나 22세 때 김태좌(金台佐)에게 시·서·역·춘추 등을 배우고 학명(學名)을 떨쳤다.

그 밖에 군자감정(軍資監正)·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등을 지낸 금석(金奭), 김구(金九)·여운형(呂運亨)·이광수(李光洙) 등과 함께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을 조직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교통차관(交通次官)과 임시의정원 의원(臨時議政院議員)을 역임한 혁(爀)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원 선우씨는 파주시에 총 3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설씨(慶州偰氏)

설씨(偰氏)는 위구르(回鶻) 사람이 설련하(偰輦河)에 세거하면서 성을 설(偰)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원(元)나라 태부(太傅) 설극직(偰克直)의 6세손 설문질(偰文質)이 원조(元朝)에서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냈고, 설문질의 손자 설손(偰遜)이 원나라 순제(順帝) 때 학문과 문장으로 명성을 떨치고 단본당정자(端本堂正字)로 있으면서 황태자에게 『경전(經典)』을 강론했으나 승상(丞相)의 비위에 거슬려 단주유수(單州留守)로 좌천되었다가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여 대령(大寧)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 후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피하여 1358년 고려에 망명하자 공민왕은 원나라에 있을 때부터 친히 사귄 친구 사이므로 그를 부원후(富原侯)에 봉하고 논과 밭을 내려주어 우대하였다.

경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기원전 57년 이곳에 6촌(村)이 연합하여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국호(國號)를 서라벌(徐羅伐)·사로(斯盧)·사라(斯羅)라 하였다. 65년(탈해왕 9) 시림(始林)에서 김씨(金氏)의 시조 김알지가 탄생하여 국호(國號)를 계림(鷄林)으로 고쳐 삼았다가 307년(기림왕 10)에 신라(新羅)로 하였다. 935년(태조 18)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등극한 후 처음으로 경주(慶州)라는 명칭이 생겼다. 987년(성종6) 동경(東京)으로 개칭하고 1008년(목종11) 별칭(別稱)으로 낙랑군(樂浪郡)이라 하다가 충렬왕 때 계림부(鷄林府)로 개칭하였고, 1413년(태종 13)에 와서 경주부(慶州府)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장수(長壽)가 1362년(공민왕 11) 문과에 급제,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한 후 공양왕 때 정난공신(定難功臣)으로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올라 지공거(知貢擧)를 겸했으며, 정몽주(鄭夢周)가 화(禍)를 입을 때 그 일당으로 몰려 유배되었다. 그러나 태조에 의해 풀려 나와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에 복직, 연산부원군(燕山府院君)에 봉해지고 계림(鷄林)을 사적(賜籍)받아 후손들이 본관(本貫)을 경주(慶州)로 하게 되었다.

18세로 문과에 급제한 미수(眉壽)는 태종 때 호조와 병조(兵曹)의 전서(典書)를 거쳐 전후 다섯 차례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로 둔전제(屯田制)의 실시를 건의하여 실시토록 했고, 여러 조(曹)의 판서(判書)를 지내고 검교우참찬(檢校右參贊)에 이르렀다. 순(循)은 세종 때 인동현감(仁同縣監)을 지내고 왕명으로 『효행록(孝行錄)』을 증수(增修)했으며 집현전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편수했다.

그 밖에 유(猷)가 동래부사(東萊府使)을 지냈으며, 침(琛)은 군수(郡守)을 역임하였고, 종한(宗漢)은 장사랑(將仕郎)에 올랐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주 설씨는 파주시에 총 1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설씨(慶州薛氏)

경주 설씨(慶州薛氏)의 시조는 설거백(薛居伯)이다.
그는 신라건국의 원훈(元勳)으로 지금의 월성군 천북면 화산(花山)·물천(勿川)·동산리(東山里)와 안강읍(安康邑) 일대인 명활산 고야촌(明活山高耶村)을 다스렸던 촌장(村長)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는 기원전 57년 다른 5부(五部)의 촌장들과 함께 알에서 태어났다는 박혁거세를 초대 왕으로 추대하여 신라를 세웠다고 하며, 서기 32년 봄 3대 유리왕(儒理王) 때 고야촌이 습비부(習比部)로 개칭되면서 설씨(薛氏)의 성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설씨는 설거백(薛居伯)을 시조로 받들고 경주(慶州)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경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기원전 57년 이곳에 6촌(村)이 연합하여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국호(國號)를 서라벌(徐羅伐)·사로(斯盧)·사라(斯羅)라 하였다. 65년(탈해왕 9) 시림(始林)에서 김씨(金氏)의 시조 김알지가 탄생하여 국호(國號)를 계림(鷄林)으로 고쳐 삼았다가 307년(기림왕 10)에 신라(新羅)로 하였다. 935년(태조 18)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등극한 후 처음으로 경주(慶州)라는 명칭이 생겼다. 987년(성종6) 동경(東京)으로 개칭하고 1008년(목종11) 별칭(別稱)으로 낙랑군(樂浪郡)이라 하다가 충렬왕 때 계림부(鷄林府)로 개칭하였고, 1413년(태종 13)에 와서 경주부(慶州府)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신라시대에 불유사상(佛儒思想)의 양대산맥을 이루었던 사(思: 원효대사)와 총(聰: 본명 설총지) 부자가 설씨가 자랑하는 인물(人物)로 민족사에 남긴 찬란한 업적으로 후세에 추앙받고 있다.
고려 때 대대로 의술을 가업으로 이어온 집안에서 태어난 경성(景成)은 의술에 정통하여 처음에 상약의좌(尙藥醫佐)에 보임되었다가 거듭 승진해 군부총랑(軍簿摠郞)이 되고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로 승진했으며 지도첨의사사(知都僉議司事)로 전임한 후 벼슬에서 물러났다. 경성의 아들 문우(薛文遇)는 과거에 급제해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까지 지냈다.
경주 설씨는 조선시대 무과 급제자 10명, 생원·진사 7명을 배출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주 설씨는 파주시에 총 45명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 설씨(淳昌薛氏)

순창 설씨(淳昌薛氏)의 시조는 설거백(薛居伯)이다.
그는 신라건국의 원훈(元勳)으로 지금의 월성군 천북면 화산(花山)·물천(勿川)·동산리(東山里)와 안강읍(安康邑) 일대인 명활산 고야촌(明活山高耶村)을 다스렸던 촌장(村長)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는 기원전 57년 다른 5부(五部)의 촌장들과 함께 알에서 태어났다는 박혁거세를 초대 왕으로 추대하여 신라를 세웠다고 하며, 서기 32년 봄 3대 유리왕(儒理王) 때 고야촌이 습비부(習比部)로 개칭되면서 설씨(薛氏)의 성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설씨는 설거백(薛居伯)을 시조로 받들고 경주(慶州)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다가 36세손 자승(子升)이 고려 인종(仁宗) 때 예부시랑(禮部侍郎)을 지내고, 순화백(淳化伯: 순창의 옛 지명)에 봉해진 연유로 본관을 순창(淳昌)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순창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의 도실군(道實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순화군(淳化郡)이라 고쳤다. 고려 때는 순창현(淳昌縣)으로 고쳐져, 남원부(南原府)에 속하였다가, 1314년(충숙왕 원년)에 군(郡)으로 승격되어 조선에서도 계속 순창군(淳昌郡)으로 남원부에 속하였다. 그 후 1895년 남원부에서 독립하고, 1914년 군면 통폐합 때 임실군과 남원군의 일부가 편입되었다.
역사인물로 고종 때 도병마녹사(都兵馬錄事)로 문과에 급제한 공검(公儉)은 예부낭중(禮部郎中)과 군기감(軍器監)을 거쳐 충렬왕 때 밀직부사(密直副使)과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찬성사(贊成事)를 지냈고, 그의 아우 인검(仁儉)은 평장사(平章事)을 역임했다. 한편 공검(公儉)의 아들 지충(之沖)은 충숙왕 때 찬성사(贊成事)를 거쳐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영의정에 올랐으며, 그의 아들 봉(縫)은 병부시랑(兵部侍郎)을 역임하였다.
조선에서는 세종 때 만경현령(萬頃縣令)을 거쳐 대사성에 오른 위(緯)가 시와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고, 창덕궁직장(昌德宮直長) 훈(纁)의 맏아들 효조(孝祖)는 목사(牧使)를 거쳐 호조참판을 지냈으며, 그의 아우 계조(繼祖)는 계유정난에 공 세워 정난삼등공신(靖難三等功臣)으로 옥천군(玉川君)에 봉해졌다.
그 밖에 임피현령(臨陂縣令)을 지낸 주(柱), 옥구현감(沃溝縣監)을 지낸 초(礎),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남원(南原)·거제(巨濟)·옥포(玉浦) 등지에서 전공을 세웠으며 의주(義州)로 피난 가는 선조을 호종하여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으로 훈련원정(訓鍊院正)에 이른 우범(禹範),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분무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으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오른 창후(昌垕)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창 설씨는 파주시에 총 25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녕 성씨(昌寧成氏)

창녕 성씨(昌寧成氏)의 시조는 성인보(成仁輔)이다.
그는 고려 때 향직(鄕職)의 우두머리인 호장중윤(戶長中尹)을 역임하였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명종 때 사람으로 고종 때 창성(創姓)한 것으로 전한다. 일화에 따르면 어느 해 그가 정월 초에 송경(松京)의 하례 모임 참석 중 병사하였는데, 아들 성송국(成松國)이 시신을 업고 창녕으로 돌아오다가, 현풍현(玄風縣)에 이르러 현 창녕군 대지면(大地面) 모산리(牟山里) 맥산(麥山)에 안장하였다고 한다. 시조의 가계는 창녕의 호족으로 대대로 번성하여 창녕을 관향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후 시조의 손자 공필(公弼)·한필(漢弼) 대(代)에서 크게 두 계통으로 갈라져서 6세에 내려와 기(紀)를 파조로 하는 판서공파(判書公派)를 포함하여 13파로 분파(分派)되어 세계를 이어왔다.창녕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비자화군(比自火郡)·비사벌(比斯伐)이었는데, 555년(진흥왕 16) 하주(下州)라 칭하고 경덕왕 때 화왕군(火王郡)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태조때 창녕(昌寧)으로 고치고 1018년(현종 9) 밀성군(密城郡)에 귀속되었다가 인조 때 현(縣)으로 복귀하였으며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었고, 1914년 영산군(靈山郡)의 일부를 병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현손 여완(汝完)이 공민왕 때 민부상서(民部尙書)를 거쳐 검열(檢閱)을 지내고 우왕 때 정당문학(正當文學)으로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에 봉해졌으나, 1392년(태조 1) 충신 정몽주가 살해되자 고려의 국운이 기울어졌음을 알고 포천(抱川)의 왕방산(王方山) 아래에 은둔하고 스스로 왕방거사(王方居士)로 불렀다. 이성계와 옛 친구로 조선창업에 공을 세웠던 석린(石璘)은 정종 때 평양부윤(平壤府尹)을 거쳐 문하 우정승(門下右政丞)이 되고 창녕백(昌寧伯)에 봉해졌으며, 태종 때 좌명삼등공신(左命三等功臣)으로 창녕부원군에 진봉되어 영의정에 올랐다. 대제학 석용(石瑢)의 아들 달생(達生)은 세종 때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거쳐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를 지냈고, 그의 아들 승(勝)은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을 거쳐 단종 때 의주목사(義州牧使)에 이르렀다. 승의 맏아들 삼문(三問)은 홍주(洪州) 노은동(魯隱洞) 외가(外家)에서 태어났는데, 출생할 때 “났느냐” 하는 소리가 세 번 들렸기 때문에 이름을 삼문(三問)으로 지었다고 한다. 그는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장원급제한 후 집현전에서 학사(學士)·수찬(修撰) 등을 역임하며 신숙주(申叔舟)와 함께 『예기대문언독(禮記大文諺讀)』을 편찬하였다. 또한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성종 때 좌참찬(左參贊)을 거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使)을 역임했던 임(任)은 특히 율시(律詩)에 뛰어났고, 글씨는 촉체(蜀體: 중국 촉나라 조맹부의 글씨 체)에 능하여 해서(楷書)·초서(草書)·예서(隸書)에 일가를 이루었다. 정암 조광조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했던 수침(守忱)은 학문으로 크게 현달했고, 그의 아우 수종(守琮)은 문장이 뛰어나 독특한 경지를 이루었다. 희안(希顔)은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정국일등공신(靖國一等功臣)으로 창산부원군(昌山府院君)에 봉해지고 영의정에 올랐다.
한말에는 의익(義益)의 아들 기운(岐運)이 주일공사(駐日公使)와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중추원부의장(中樞院副議長) 등을 지내고 훈일등팔괘장(勳一等八卦章)을 받았다. 재한(載翰)은 의병을 일으켜 홍주성(洪州城)을 지키다가 일본군의 기습으로 성이 함락될 때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녕 성씨는 파주시에 총 1,94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신(乙臣)을 파시조(派始祖)로 하는 창녕 성씨 검교공파(檢校公派)는 파주읍 파주리에 후손들이 살고 있다.
석연(石珚)을 파시조(派始祖)로 하는 창녕 성씨 상곡(정평)공파(桑谷公派)는 성혼의 조부인 16대 성세순(成世純, 1463~1514)이 파평면 율곡리에 입향하여 사숙공파를 분관하였으며, 18대 성엄(成揜)과 19대 성염조(成念祖)가 문산읍 내포리에 입향하여 공도공파를 분관하였다. 사숙공파는 파평면 율곡2리(빙곡동)에 17호가 살았고, 공도공파는 문산읍 내포4리에 30호 살았으며, 진일재 성간의 후손은 문산읍 당동2리 널다리마을에 20호가 살았다. 사숙공파는 매년 10월 1~12일에 성현 재실에서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문산읍 내포리와 파주읍 향양리에 있다.
석용(石瑢)을 파시조(派始祖)로 하는 창녕 성씨 회곡(문숙)공파(檜谷公派)는 파평면 두포리, 법원읍 금곡리, 파평면 눌노리 등지에 후손들이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3일 파평면 두포리 파평재(坡平齋)에서 시제를 지낸다. 1984년 후손들이 파평면 두포리에 성석용, 성개, 성희, 성담수 4대와 배(配) 4위를 합부한 묘단을 설치하고 향사를 올리고 있다. 법원읍 금곡리에 성달생(成達生)의 묘가 있다. 회곡공 종중은 두포리에 전 790평, 대지 298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수헌공 파종중은 두포리에 전 681평, 대지 45평, 답 1,532평, 잡종지 1,115평, 임야 62,195평과 눌노리 답 1,638평을 소유하고 있다.
파평면 두포리 파평재 인근에 성석용, 성달생(장남), 성개(차남) 3기 신도비를 2007년 10월 27일 수립 준공하여 10월 31일 제막하며 고유제를 음력 10월 3일 지냈다. 성달생의 원래 신도비는 묘소가 위치한 법원읍 금곡리에 있다. 파평면 두포리 임진강변에 성담수의 정자(亭子) 몽구정터가 있다.
파주시 창녕 성씨 관련 유적으로는 성혼 선생묘(경기도기념물 제59호), 용재 성현 묘(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0호), 성임 묘 및 신도비(파주시향토문화유산 제17호) 등이 있다.

진주 소씨(晋州蘇氏)

소씨(蘇氏)는 풍이(風夷)의 후손 적제축융(赤帝祝融)이 기원전 4241년 풍주 배곡(風州倍谷)에 도읍을 정하고 전 국토에 무궁화(蘇: 부소나무)를 심어 소(蘇)를 성으로 삼고, 이름을 복해(復解)라 한 것이 시초(始初)가 된다고 한다. 그 후 복해(復解)의 61세손 소풍(蘇豊)이 기원전 2392년 소성(蘇城)의 하백(河伯)에 봉해졌고, 그의 69세손 소백손(蘇伯孫)이 신유(申有)·진기(陳岐)등과 더불어 진한을 세웠으며, 백손(伯孫)의 29세손 알천은 신라 진덕왕(眞德王) 때 상대등(上大等)을 지내고 660년(태종 무열왕 7) 3월 진주 구시동(九柿洞: 지금의 상대동)에 이거(移居), 경(慶)으로 개명(改名)하고 진주 소씨(晋州蘇氏)의 문호(門戶)를 열었다.

소씨(蘇氏)의 본관은 진주(晋州)·남원(南原)·진강(鎭江: 강화지방) 등 12본이 있는 것으로 문헌)에 전해지나 모두가 진주 소씨의 세거지명에 불과하다. 진주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 거열성(居烈城)이었는데, 신라 때 거열주(居烈州)라 불렀다. 995년(성종 14) 진주(晋州)라는 명칭으로 처음 불리게 된 뒤, 조선에 와서 진양도호부(晋陽都護府)가 되기도 했다. 이후 진주목(晋州牧)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손자 복서(福瑞)가 신라 효소왕(孝昭王) 때 청주총관(靑州摠管)을 지냈으며, 그의 아들 억자(億滋)는 성덕왕(聖德王) 때 한주총관(漢州摠管)을 역임했고, 11세손 격달(格達)이 고려 초에 대장군(大將軍)에 올랐다. 청주도독(靑州都督)을 지낸 목(穆)은 문장이 뛰어나 『역대제왕고(歷代帝王考)』, 『유소국사(有蘇國史)』, 『유당견문기(有唐見聞記)』, 『동이 씨족원류(東夷氏族源流)』를 저술했고, 그의 아들 은(恩)은 당나라에 유학하여 웅주도독(熊州都督)을 지내고 저서로 『진한세가(辰韓世家)』, 『삼소변설(三蘇辨說)』 등을 남겨 문(汶: 은의 아들)과 함께 '소씨삼대문장(蘇氏三代文章)'으로 일컬어졌다.

광보(光輔)와 경보(景輔)는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역임했고, 경보의 아들 세린(世麟)은 인종(仁宗)에게 '선무팔조(先務八條)'를 상소하여 백성들에게 충신효제(忠信孝悌)와 예의렴치(禮義廉恥)를 가르치도록 건의했다.

그 밖에 상원군수(祥原郡守)로 부임하여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었던 세영(世榮), 임진왜란 때 성주(星州)의 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상진(尙眞), 진주성(晋州城)에서 순절한 제(濟), 청북어사(淸北御史)와 경주부윤(慶州府尹)을 거쳐 효종 때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를 역임한 동도(東道), 정묘호란에 순절한 응무(應武)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 소씨는 파주시에 총 34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손씨(慶州孫氏)

경주 손씨(慶州孫氏)는 신라의 전신(前身)인 서라벌(徐羅伐) 무산대수촌장(茂山大樹村長) 구례마(俱禮馬)가 서기 32년(신라 유리왕 9) 봄, 왕으로 부터 손씨의 성을 하사받은 것이 시초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상계가 실전되어 신라 흥덕왕(興德王) 때 살신성효(殺身成孝)의 주인공인 국효(國孝) 손순(孫順)을 손씨의 시조(始祖)로 받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보상에는 고려 때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를 역임한 경원(敬源)으로부터 세계가 이어진다.
경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기원전 57년 이곳에 6촌(村)이 연합하여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국호(國號)를 서라벌(徐羅伐)·사로(斯盧)·사라(斯羅)라 하였다. 65년(탈해왕 9) 시림(始林)에서 김씨(金氏)의 시조 김알지가 탄생하여 국호(國號)를 계림(鷄林)으로 고쳐 삼았다가 307년(기림왕 10)에 신라(新羅)로 하였다. 935년(태조 18)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등극한 후 처음으로 경주(慶州)라는 명칭이 생겼다. 987년(성종6) 동경(東京)으로 개칭하고 1008년(목종11) 별칭(別稱)으로 낙랑군(樂浪郡)이라 하다가 충렬왕 때 계림부(鷄林府)로 개칭하였고, 1413년(태종 13)에 와서 경주부(慶州府)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판밀직사사 경원(敬源)의 증손 사성(士晟)이 세종(世宗) 때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에 참여하고 계성군(鷄城君)에 봉해졌다. 그의 아들 욱(旭)과 소(昭) 형제는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다. 탁월한 문장과 경륜에 밝았던 중돈(仲暾)은 소(昭)의 둘째 아들로 1489년(성종 20) 식년문과에 급제,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를 시작으로 여러 청환직(淸宦職)과 양산군수(梁山郡守)를 지낸 후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올랐다. 군자감(軍資監)의 봉사(奉事)를 지낸 윤원(潤源)은 임진왜란 때 참전하여 창암(倉巖) 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세우고 장렬하게 순절하였다. 하여 의절(義節)의 가통(家統)을 세웠으며, 영곤(永坤)은 효행(孝行)으로 이름을 떨쳤다. 종로(宗老)는 병자호란 때 병마절도사 허완(許完)의 막하로 들어가 이천(利川)의 쌍령(雙嶺) 싸움에서 적과 대전하다가 순절하여 훈련원정(訓鍊院正)에 추증되었고, 정조 때 왕명으로 충신정문이 세워졌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주 손씨는 파주시에 총 44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 손씨(密陽孫氏)

밀양 손씨(密陽孫氏)는 서라벌 육부촌장의 한 사람인 무산대수촌장(茂山大樹村長) 구례마(俱禮馬)의 원손(遠孫)으로 효자보응(孝子報應)의 주인공인 국효(國孝) 손순(孫順)을 시조로 받들고 있다. 시조 순(順)의 손자 익감(翼減)이 신라에서 관직을 지내며 나라에 공을 세워 응천군(凝川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관향을 밀양(密陽)으로 하게 되었다.밀양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변한의 일부로 가락국(駕洛國)에 속하였으며, 법흥왕 때 신라에 병합되어 추화군(推火郡)이 되었다가 757년(경덕왕 16) 밀성군(密城郡)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에 와서 995년(성종 16)에 밀주(密州)로 하였고, 1390년(공양왕 2) 밀양부(密陽府)로 승격, 그 후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듭하다가 1895년 밀양군(密陽郡)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7세손 긍훈(兢訓)이 고려 태조와 함께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공을 세워 보국숭록대부(輔國崇錄大夫)에 오르고 광리군(廣理君)에 봉해졌다. 또 고려 때 천안부판관(天安府判官)과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지내고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오른 변(抃)과 평장사(平章事) 효려(孝麗)가 유명했으며 충렬왕 때 문과에 급제한 빈(贇)은 병부상서에 올라 변방에 침입한 여진족을 격퇴하였고, 조적(曺頔)의 반란 때는 이부상서로 이를 평정하여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집현전태학사(集賢殿太學士)와 정당문학(正堂文學), 상장군(上將軍) 등을 거쳐 사도(司徒)에 오르고 밀성군(密城君)에 봉해졌다.
책(策)은 고려 말의 절신(節臣)으로 조선개국에 항거하다가 처형되었으며, 충혜왕을 원나라에 호종했던 수경(守卿)은 추성선력익대정원공신(推誠宣力翊戴定遠功臣)으로 의창부원군(義昌府院君)에 봉해지고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에 이르렀다.
조선에서는 서륜(叙倫)이 집현전박사(集賢殿博士)가 되어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1457년(세조 3) 순흥(順興)에 유배중인 금성대군(錦城大君) 및 장인인 순흥부사(順興府使) 이보흠(李甫欽)과 함께 단종복위(端宗復位)를 꾀하는 격문을 돌리다가 죽음을 당했다. 비장(比長)은 성종 때 등과하여 시무사조(時務四條)를 왕에게 상소했으며 서거정(徐居正) 등과 함께 『동국통감(東國通監)』을 찬진하였다. 홍록(弘祿)은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全州史庫)의 실록(實錄)을 보존케 하는 공을 세웠다.
그 밖에 이순신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안골포(安骨浦) 전투에서 순절한 응록(應祿), 숙종 때 학행과 효성으로 명망이 높았던 상륭(尙隆) 등이 있다.
한말에는 33인의 민족대표를 주도하여 3·1운동에 참여했던 병희(秉熙)가 동학(東學)을 천도교(天道敎)로 개칭하고 제3대 교주(敎主)가 되어 구한말(舊韓末)과 일제의 암흑기로 이어지는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망국(亡國)의 민족혼(民族魂)을 혁신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선교사이자 항일투사인 정도(貞道)는 만주로 건너가 종교활동과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3·1 운동 후에는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안창호(安昌浩)의 흥사단(興士團)에 참여하여 차이석(車利錫)·주요한(朱耀翰) 등과 함께 『흥사단보(興士團報)』를 간행했으며 만주 길림(吉林)에서 독립운동으로 일생을 바쳤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양 손씨는 파주시에 총 2,22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직 손씨(一直孫氏)

일직 손씨(一直孫氏)는 안동 손씨(安東孫氏)라고도 칭(稱)하며, 선계)는 고려 때 중국 송나라의 난세를 피하여 우리나라에 귀화해 온 손응(孫凝)을 시조로 받들고 있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본성이 순씨(荀氏)였으나, 고려 현종(顯宗)의 이름이 순(詢)이어서 음(音)이 같다고 하여 손씨 성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의 세계가 실전되어 후손들은 고려 때 장군(將軍)을 지낸 간(幹)을 중시조(中始祖)로 하여 본관을 일직(一直)으로 삼게 되었다.일직은 경상북도 안동시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일직현(一直縣)인데 경덕왕이 일녕(一寧)을 고쳐서 고창군(古昌郡)의 영현으로 삼았다가 고려 초에 다시 일직이라 하고, 1018년(현종 9) 안동(安東)에 편입하여 지금도 안동군에 속한 일직면(一直面)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중시조 간(幹)의 6세손 홍량(洪亮)이 1287년(충렬왕 13) 일직에서 출생하여 6대의 왕조(王朝)를 거치면서 벼슬이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이르렀고 복주부원군(福州府院君)에 봉해졌다. 득수(得壽)는 정순대부(正順大夫)로 밀직사 좌대언(密直司左代言) 등을 지내고 고려가 망하자 초계군수(草溪郡守)를 지낸 아들 웅발(雄發)과 함께 벼슬을 버리고 종적을 감추었으며, 득령(得齡)은 봉익대부(奉翊大夫)로 전공판서(典工判書) 겸 진현관대제학(進賢館大提學)을 지냈다.

조선에서는 관(寬)이 진성 현감(眞城縣監)을 지내고 밀양(密陽)의 용평리(龍坪里)로 이거(移居)하여 그 곳에서 뿌리를 내려 오늘날 밀양군 산외면 다원리를 비롯한 영천(永川)·김해(金海) 등지에 취락을 이루게 되었다. 조서(肇瑞)는 1435년(세종 17)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검열(檢閱)과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병조정랑(兵曹正郎) 등을 거쳐 봉산군수(鳳山郡守)로 나갔다가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이 단종복위를 꾀하다가 순절하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 은거하였다.

그 밖에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아 왜적과의 싸움에서 눈부신 훈공을 남긴 처눌(處訥), 인조반정 후 단성현감(丹城縣監)을 지내고 정묘호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인(遴), 숙종 때 선전관(宣傳官)과 진도군수(珍島郡守)를 지내고 영조 때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경상좌도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에 승진한 명대(命大)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직 손씨는 파주시에 총 6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손씨(淸州孫氏)

청주 손씨(淸州孫氏)는 밀양 손씨에서 분적하였는데, 도시조(都始祖) 손순(孫順)의 25세손 손필영(孫弼榮)을 일세조로 받들고 있다. 『밀양손씨족보(密陽孫氏族譜)』에 의하면 그는 고려 원종(元宗) 때 광록대부(光祿大夫)에 오른 찬(贊)의 6세손 덕기(德基)의 아들로 전하며, 고려에서 관직을 지내며 나라에 공을 세워 개성군(開城君)에 봉해졌다가 후에 청성군(淸城君)에 개봉(改封)되었으므로 후손들이 청주(淸州)를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청주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원래 마한 땅이었다가, 백제 때 상당현(上黨縣), 일명 낭비성(娘臂城)·낭자곡(娘子谷)으로도 불렸다. 685년(신라 신문왕 5) 서원소경(西原小京)을 두었고 757년(경덕왕 16)에 서원경(西原京)이 되었으며, 940년(태조 23)에 청주(淸州)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일세조 필영(弼榮)의 아들 취(就)가 고려 때 영녕군(永寧君)에 봉해졌고, 손자 희(僖)는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를 역임하여 찬성사(贊成事)를 거쳐 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을 지낸 원렬(元烈)과 함께 가세를 크게 일으켰다. 한편 고려 말에 문과에 급제했던 채(採)는 고려의 국운이 기울고 조선이 개국하자 불사이군의 충절로 진천(鎭川)에 낙향하여 절의를 지켰으며 뒤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고, 그의 증손 근종(謹宗)은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 손씨는 파주시에 총 1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해 손씨(平海孫氏)

평해 손씨(平海孫氏)는 밀양·경주·청주 손씨와 동원으로 신라 흥덕왕 때의 국효(國孝)인 손순(孫順)을 시조로 받들고, 순(順)의 손자 익담(翼淡)이 평해군(平海君)에 봉해진 연유로 익담을 일세조로 하여 본관을 평해(平海)로 삼아 세를 이어왔다. 그 후 익담의 아들 경상(景尙)이 고려조에서 나라에 공을 세워 월성군(月城君)에 봉해지고, 손자 술조(術祖)가 병부상서(兵部尙書)로 평해군(平海君)에 봉군되어 가세(家勢)가 융성하게 되었으며, 도진(道津)의 아들 기정(起貞)이 병부상서를 거쳐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에 이르러 크게 명성을 떨쳤다.
평해는 경상북도 울진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근을어현(斤乙於縣)인데 고려 초에 평해(平海)로 고치고 현종 때 에 예주(禮州: 영해)에 속하였다가 충렬왕 때 군(郡)으로 승격하였다. 1913년 울진군에 병합하여 지금은 울진군에 속한 평해면(平海面)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원종(元宗) 때 임연(林衍)의 난을 평정해 기성후(箕城侯)에 봉해진 인량(仁亮)이 뛰어났으며, 득부(得富)의 아들 영(永)은 충숙왕 때 가정대부(嘉靖大夫)로 형조참판을 지내고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에 추증되어, 정선군수(旌善郡守)를 역임하고 의정부좌찬성에 추증된 밀(密)과 함께 이름을 떨쳤다. 한편 군수(郡守) 밀(密)의 맏아들 인효(仁孝)는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이를 개탄하여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며 절의를 지키니 세상 사람들은 그를 '동방청절사(東方淸節士)'라 불렀다. 그의 아우 순효(舜孝)는 세조 때 중시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전한(典翰) 겸 집의(執義)에 올라 17개 항목의 정책을 상소하고 형조참판 등에 이르렀다.
그 밖에 인물로는 군수(郡守)를 지낸 부(溥), 호조참판을 지낸 식(軾), 참의를 지낸 윤선(胤善), 지제교(知製敎)에 이르렀으며 시문이 탁월하여 당대에 이름난 시인으로 명망이 높았던 필대(必大)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해 손씨는 파주시에 총 12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 송씨(瑞山宋氏)

서산 송씨(瑞山宋氏)의 시조는 송자영(宋自英)이다.
그는 충렬왕 때 봉익대부 판도판서(奉翊大夫 版圖判書)를 지냈고 서산군(瑞山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서산(瑞山)을 관향로 삼게 되었다. 그의 아들 송문익(宋文翊)은 광록대부이조전서(光祿大夫吏曹典書)를 지냈고, 손자 송대경(宋大慶)이 광록대부수태전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光祿大夫守太傳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증손 송성익(宋成益)이 보리공신벽상삼한삼중대광문하부좌정승찬성사(輔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門下府左政丞贊成事)의 벼슬에 오름으로서 문중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서산은 충청남도 서산시 일월의 옛 지명으로 백제 때에는 기군(基郡)이다. 1896년에 충청남도 서산군이 되었다. 1914년 군면 폐합으로 태안(泰安)·해미(海美)를 서산에 통합하였고, 1989년에 서산읍이 시로 승격되어 분리되고 태안군이 복원되어 분리되었다. 1995년에는 서산군이 서산시에 통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말기에 찬성사(贊成事)를 지낸 송광미(宋光美)가 위화도회군 때 최영과 더불어 고려 왕실을 지키다 순절하였다. 조선에서는 사헌부감찰과 춘천부사 등을 지낸 송거(宋秬), 현신교위(顯信校尉) 송이석(宋而碩),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송옥(宋玉) 등이 대를 거듭하여 다시 벼슬길에 올랐다. 송대립(宋大立)은 공조·형조·호조의 좌랑과 정랑)을 두루 역임하고 사헌부지평에 올랐다.
그 밖에 선전관(宣傳官)·도총부도사(都總府都事)·경력(經歷)·훈련부정(訓練副正) 등을 역임한 송명(宋溟), 학문이 깊고 효심이 지극하여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추증(追贈)된 송인상(宋麟祥)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산 송씨는 파주시에 총 2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산 송씨(礪山宋氏)

여산 송씨(礪山宋氏)의 시조는 송유익(宋惟翊)이다.
그는 고려 때 진사(進士)로 나라에 훈공을 세워 여산군에 봉해졌으며 은청광록대부(銀靑光錄大夫)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에 추증되었다. 문헌에 의하여 그의 선계는 중국 경조(京兆)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낸 송주은(宋柱殷)의 후손 자영(自英)이다. 그는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장남 유익(惟翊)은 여산 송씨(礪山宋氏), 둘째 천익(天翊)은 은진 송씨(恩津宋氏), 막내 문익(文翊)은 서산 송씨(瑞山宋氏)의 시조가 되어 우리나라 모든 송씨의 연원(淵源)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여산은 전라북도 익산(益山)에 속해 있는 지명이다. 여량(礪良)과 낭산(朗山) 두 현(縣)의 합명이다. 여량현(礪良縣)은 본래 백제의 지량초현(只良肖縣)을 신라 경덕왕이 여량으로 고찬 곳아더, 낭산현(朗山縣)은 본래 백제의 알지산현(閼地山縣)인데 경덕왕이 야산(野山)으로 고치고 고려 때 낭산으로 하였다. 1401년(정종 3) 두 현을 합하여 여산현(礪山縣)으로 칭하고 세종 때 군(郡)으로 승격, 1699년(숙종 25) 부(府)가 되었다가 1895년 다시 여산군이 되고, 1913년 익산군(益山郡)에 병합되어 일부 지역은 여산면(礪山面)으로 남아 있다.
여산 송씨는 시조의 아들 숙문(淑文)이 고려 원종(元宗)때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역임했고, 증손 송례(松禮)는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로 원나라 도원수(道元師) 홀돈(忽敦), 부원수(副元師) 다구(茶丘)와 함께 일본정벌에 참전한 후 충렬왕 때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상중대광(三重大匡) 문하시중(門下侍中)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에 올라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에 봉해져서 명문의 기초를 다졌다. 그의 손자 대에 와서 운(惲)을 파조로 하는 원윤공파(元尹公派), 방영(邦英)을 파조로 하는 밀직공파(密直公派), 원미(元美)를 파조로 하는 소윤공파(少尹公派), 인(璘)을 파조로 하는 지신공파(知申公派), 서(瑞)를 파조로 하는 정가공파(正嘉公派) 등 크게 다섯 파로 갈라져서 세계를 이어왔다.
역사인물로는 세종과 단종 대에 걸쳐 형조참판을 지냈고, 계유정난으로 단종이 영월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인 여산을 눌러 앉아 두문불출한 간(侃), 임진왜란 때 조방장(助防將) 양사준(梁士俊)의 선봉으로 나가 공을 세우고 성주판관(星州判官)이 되었으며, 뒤에 함창(咸昌)의 싸움에서 화살을 다 쏘고 북배한 다음 장렬하게 순절한 건(建), 성종 때 형조참판과 황해도 관찰사를 지내고 이조판서에 이른 천희(千喜), 명종이 즉위하자 위사삼등공신(衛社三等功臣)으로 대사헌과 호조판서를 거쳐 이조판서에 오른 세형(世珩),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따라 종군하여 한산도 싸움에서 무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으로 경상좌도 수군우후(慶尙左道水軍虞侯)를 지낸 여종(汝悰), 조선 중기의 거유(巨儒)로 율곡 이이·우계 성혼 등과 교유하며 성리학과 예학에 통달했으며, 이산해(李産海)·최경창(崔慶昌)·백광홍(白光弘)·최입(崔岦)·이순인(李純仁)·윤탁연(尹卓然)·하응림(河膺臨) 등과 함께 '팔문장가(八文章家)'의 한 사람으로 손꼽힌 익필(翼弼:사련의 아들),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고 아산진(阿山鎭)에서 적장을 사살하여 '동방(東邦)의 비장군(飛將軍)'으로 불리던 순례(純禮), 임진왜란 때 동래성(東萊城)에서 순절한 상현(象賢) 등이 있다.
한편 수만(秀萬)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산림 개발권을 요구하자 '보안회(保安會)'를 조직하여 이를 철회시켰으며 을사조약 후에는 항일운동에 헌신하였고, 양섭(良燮)은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산 송씨는 파주시에 총 2,543명이 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여산 송씨 충정공파(忠靖公派)는 조선전기 우군도총제(右軍都摠制)를 지내고 여산부원군(礪山府院君)에 봉해진 거신(居信, 1369~1447)을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후손들로 조리읍 장곡리와 능안리 등에 60호 정도가 살고 있다. 매년 11월 첫째 일요일에 광탄면 신산리 산 19의 선영에서 시제를 지낸다. 문중회장은 송건섭이다.
광탄면 신산리 산 19-1번지에는 여산 송씨 시조 송유익의 7세손 송호산부터 14세손까지 35기의 묘소가 있으며 광탄면 신산리 166-8번지에는 여산 송씨 원윤공파 충정공 종친회사무실과 종친회 소유의 상가 건물이 있어 임대료 수익으로 시제와 묘역관리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적성면 마지1리에는 원윤공파(元尹公派) 후손들이 정착하였다.

은진 송씨(恩津宋氏)

은진 송씨(恩津宋氏)는 중국 경조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낸 송주은(宋柱殷)의 후예로 전한다. 그의 7세손 송순공(宋舜恭)의 후손 자영(自榮)이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맏아들 유익(惟翊)은 여산 송씨의 시조가 되었고, 둘째 아들 천익(天翊)이 은진 송씨의 연원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선계를 고증할 문헌이 없어 고려에서 판원사(判院事)를 지내고 나라에 공을 세워 은진군(恩津君)에 봉해진 송대원(宋大原)으로부터 세계를 잇게 되었다. 은진은 충청남도 논산시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덕은(德恩)·시진(市津) 두 현의 합명이다. 덕은현은 본래 백제의 덕근군을 신라 경덕왕이 덕은으로 고치고 고려 초에 덕은으로 개칭하였다. 시진현(市津縣)은 본래 백제의 가지내현(加知奈縣)인데 경덕왕이 시진으로 고치고 덕은군의 영현이 되었다가 1018년(현종 9)에 덕은과 시진을 모두 공주에 편입시켰으며, 1397년(태조 6)에 덕은(德恩)·시진(市津)을 합쳐 덕은으로 하고 감무를 두었다. 세종 때 은진(恩津)으로 개명하고 1895년(고종 32) 군이 되었다가 1913년 논산시에 병합하여 은진면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대원(大原)의 증손 명의(明誼)가 1362년(공민왕 11) 문과에 급제하고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를 거쳐 사헌부집단(司憲府執端)에 이르렀는데 고려가 망하자 불사이군의 충절로 충남 대덕군 동면 신촌리에 낙향하여 절의를 지켰다. 그의 아들 극기(克己)는 젊은 나이에 성균관진사(成均館進士)에 선발되어 개성에서 살았는데 단명하였다. 쌍청당(雙淸堂) 유(愉)의 증손여해(汝諧)가 1494년(성종 25)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며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성종의 자문에 응했다. 그의 맏아들 세충(世忠)은 군수(郡守)와 장령(掌令)을 지냈으며 선비들이 이상으로 삼았던 '십불고생(十不顧生)'을 몸소 실천한 학자로도 명망이 높았다. 세충(世忠)의 아들 기수(麒壽)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진력하여 '제자백가'에 정통했고 윤원형(尹元衡)과 함께 을사사화를 일으켜 도승지로 위사삼등공신(衛社三等功臣)에 책록되었으며, 4조(朝)의 임금을 섬기며 대사헌·이조판서를 역임했다.

임진왜란 때 현감 한명윤(韓明胤)과 의병을 모집했던 방조(邦祚)는 1606년(선조 39)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한 후 전적(典籍)이 되어 영남지방의 향시(鄕試)를 관장했고, 병조좌랑(兵曹佐郞)과 고산도마승(高山道馬承)을 거쳐 평안도 마평사(平安道兵馬評事)를 지냈다. 그의 아우 갑조(甲祚)는 광해군 때 성균관의 유생(儒生)으로서 인목대비의 유폐를 반대하다가 유적에 삭제되었고, 인조반정으로 강릉참봉(江陵參奉)에 천거되었으며, 이괄의 난 때 왕을 공주로 호종했다. 그의 아들 우암(尤庵) 시열(時烈)이 조선조에서 주자학의 거유로 당대에 명망이 높았다. 시열은 평소 강직한 성품으로 벼슬에 있는 동안 많은 정적(政敵)을 가졌으나, 뛰어난 학문으로 문하에서 많은 학자를 길렀고, 학문으로 노론(老論)의 쌍벽을 이루었다.

그 밖에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목매어 순절한 시영(時榮), 학문이 뛰어나 우암·동춘당과 함께 '삼송'으로 일컬어졌던 규렴(奎濂), 영조 때 묘향산에서 학행으로 명성을 떨쳤던 능상(能相), 이조판서와 우찬성을 지내고 『성담집』을 저술했던 환기(煥箕), 철종 때 승지를 거쳐 이조참의를 역임했던 달수(達洙), 고종 때 좌의정으로 개화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근수(近洙) 형제 등, 1926년 순종의 죽음을 조상하러 오는 일본 총독 사이토오를 암살하려 했던 학선(學先)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진 송씨는 파주시에 총 1,51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은진 송씨 추파공파(秋坡公派)는 형조참판을 지낸 추파(楸坡) 송기수(宋麒壽, 1507~1581)를 파시조로 하며 파주 입향조(入鄕祖)는 송도제(宋道濟, 1641년생)이며 입향시기는 17세기 중반이다. 입향조의 묘는 야동동에 있으며 야동동과 금촌동 등에 50여호가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10~20일 사이에 야동동 산78의 선영에서 시제를 지낸다.

진천 송씨(鎭川宋氏)

진천 송씨(鎭川宋氏)는 당나라 호부상서(戶部尙書) 송주은(宋柱殷)의 7세손 송순공(宋舜恭: 신라 때 대아찬을 역임)의 후손으로 전하나 계대가 불명하여 고려 때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후손 송인(宋仁)을 일세조로 받들고 있다. 이후 후손들은 진천(鎭川)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었다.

진천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금물노군(今勿奴郡)·만노(萬弩)·수지(首知)·신지(新知) 등으로 불리다가 신라 때 흑양군(黑壤郡)·황양(黃壤)이라 하였다. 고려 초에 와서 강주(降州)로 개칭되고, 뒤에 진주(鎭州)로 하였다가 창의현(彰義縣)으로 승격하여 현령(縣令)을 두었고, 1895년(고종 32)에 진천군(鎭川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 인(仁)의 아들 원겸(元謙)이 타고난 재질로 학업에 정진하며 지덕을 닦아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국운을 바로 잡는 데 공(功)을 세웠다. 벼슬이 은자광록대부(銀紫光錄大夫)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중서문하평장사(中書門下平章事)·상주국(上柱國)에 이르러 명재상으로 명망이 높았다. 그 후 인(仁)의 손자 순(恂)이 평장사(平章事)를, 희(憘)는 전리판사(典理判書)를 역임하여 가세를 일으켰고, 순의 아들 언기(彦琦)는 고종 때 등과하여 금주현령(金州縣令)과 도병마녹사(都兵馬錄事)·감찰어사(監察御史) 등을 지내며 명어사로 이름을 떨쳤으며 몽고와의 강화 교섭에 명외교관으로 활약하여, 방어별감(防禦別監)과 대장군(大將軍)을 지낸 아우 언상(彦庠)과 함께 가통을 지켰다. 전리판사(典理判書) 희(憘)의 아들 형제 중 장남 유의(由義)는 충렬왕 때 안동부사(安東府使)를 거쳐 합문지후(閤門祗侯)를 지냈으며, 차남 유신(由信)은 밀직사대언(密直司代言)을 지내고 합문 지후(閤門祗侯)를 역임하였다.

조선에서는 반(盤)이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빈시 소윤(禮賓寺少尹)을 지내고 세조가 즉위하자 회양부사(淮陽府使)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으며, 익(翼)은 개성도사(開城都事)를 거쳐 군수를 역임하여 크게 명성을 떨쳤다. 중종 때 식년문과에 급제했던 찬(贊)은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와 우찬성(右贊成)을 역임하고 중종·인종·명종·선조의 4왕조에 걸친 중신으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使)에 이르렀다. 광해군 때 필선으로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던 영구(英狗)는 풍신이 뛰어나고 성품이 강직하여 30여년에 이르는 벼슬길을 서서 항상 권세와 대항해서 싸우는 것으로 일관했다.

그 밖에 인조반정의 삼등공신 영망(英望), 임진왜란 때 아들과 더불어 순절한 주빈(周賓), 정묘호란 때 포위된 안주성에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남이흥(南以興), 목사(牧使) 김준(金浚)이 몸에 불을 질러 자결하자 최후의 결전을 결심하고 성 위에 우뚝 서서 적과 맞서 싸우다가 온몸에 빈틈없이 화살이 꽂힌 채 성첩(城堞)을 베개 삼아 순절하여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안주 충민사에 제향된 도남(圖南), 이괄의 난에 공을 세워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보성군수(寶城郡守)를 지낸 입(笠), 사헌부감찰을 지낸 순현(順鉉)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천 송씨는 파주시에 총 3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강 시씨(浙江施氏)

시씨(施氏)는 중국 오흥(吳興)에서 계출된 성씨로 주(周)나라 경왕(敬王) 때 공자(孔子)의 제자였던 시지상(施之常)의 후예로 전한다. 우리나라 시씨(施氏)의 연원은 정유재란 때 조선을 돕기 위해 명군(明君)의 유격종군(遊擊從軍)으로 참전했던 무장 시문용(施文用)이 전쟁이 끝나고 명군이 철수될 때 어깨의 큰 부상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경북 성주(星州)에 정착한 것이 시초가 된다.

그 후 문용(文用)은 창녕 장씨(昌寧張氏)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슬하에 아들 영건(永建)과 영달(永達)을 낳아 절강시씨(浙江施氏)의 양대산맥을 이루게 하였고, 본향지(本鄕地)인 중국 절강을 관향(貫鄕)으로 삼게 되었다. 광해군 때 당시 영의정이였던 정인홍(鄭仁弘)의 추천으로 첨지중추부사에 올랐으나 인조반정이 일어나 정인용이 실각되자 성주(星州)로 돌아와 학문연구에 전력했다. 특히 문용은 의학과 병법에 조예가 깊어 『병학기정(兵學奇正)』, 『의복결유(醫卜訣有)』, 『감여지남(堪輿指南)』 등의 저서를 남겼다.

역사인물로는 영조 때 훈련원주부를 지낸 유정(有鼎), 선전관을 역임한 유영(有榮), 정조 때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원첨정에 오른 한익(漢翼), 문장으로 명망이 높았던 치황(致璜)·정석(廷錫)·영석(暎錫)·민식(敏植)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강 시씨는 파주시에 총 1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 신씨(居昌愼氏)

신씨(愼氏)는 중국 천수(天水)에서 계출된 성씨이다. 우리나라 신씨는 1068년(고려 문종 22) 개봉부(開封府) 출신인 신수(愼修)가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왔다가 정착한 것이 시초가 된다. 그 후 수(修)는 고려에서 문과에 급제하여 수사도(守司徒)와 좌복야(左僕射)를 지내고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렀으며, 그의 7세손 집평(執平)이 고종조에 몽골군의 내습으로 강화에 천도할 때 신호위대장군(神虎衛大將軍)에 올라 서해의 외딴섬인 죽도(竹島)에서 몽골군에 대항하다가 장렬하게 순절했다.

집평(執平)의 외아들 성(成)은 아버지가 죽자 정든 개경(開京)을 떠나 남쪽지방인 거창(居昌)으로 내려가 살면서 거창 신씨(居昌愼氏)의 시원을 이루었다.

거창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거열군(居烈郡)인데 경덕왕이 거창(居昌)으로 고쳤고, 1018년(현종 9) 합주(陜州: 합천)에 속하였다가 조선 태종 때 거제현(巨濟縣)과 합하여 제창현(濟昌縣)이 되었다. 후에 다시 거창이 되어 성종 때 군(郡)이 되었다가 중종 때 현으로 강등, 1658년(효종 9) 안음(安陰)에 편입시켰으며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1895년(고종 32)에 거창군(居昌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판이주현사(判利州縣事)를 지낸 이충(以衷)이 숭록대부로 의정부우찬성에 증직되고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이들이 거창 신씨의 백파(伯派: 제1파)·중파(仲派: 제2파)·계파(季派: 제3파)의 파조가 되었다. 이충(以衷)의 장남 기(幾)는 조선조에서 문과에 급제하여 충청도사와 이조정랑을 거쳐 성주목사(星州牧使)를 지내고 전라도관찰사에 이르렀고, 가선대부로 호조참판 겸 보문각제학에 추증되었다. 차남 언(言)은 서령(誓令)을 지냈다. 셋째 전(詮)은 전주판관(全州判官)과 예조정랑을 거쳐 호조참의·황해도관찰사 등을 지내고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에 책록되었으며 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되고 거창부원군(居昌府院君)에 추봉(追封)되었다. 세종의 셋째 아들인 임영대군(臨瀛大君)의 딸과 혼인한 승선(承善)은 이·공·병조의 참판을 거쳐 익대삼등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거창군(居昌君)에 봉해졌다.

연산군의 처남이자 중종의 장인이기도 했던 수근(守勤)은 좌의정에 이르렀다. 자건(自健)은 성종 때 상의원 직장(尙衣院直長)을 거쳐 강원도관찰사를 지내고 교하(交河)로 내려가 서예(書藝)에 전심하여 필명(筆名)을 떨쳤으며, 특히 왕희지(王羲之)의 필법을 깊이 연구하였고, 창덕궁(昌德宮)의 '요금문(曜金門)' 3자를 썼다. 희복(希復)은 명종 때 여러 관직을 지내고 우참찬에 올라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성수침(成守琛)·김안국(金安國) 등과 교유하여 당대의 대학자로 명망이 높았다.

그 밖에 숙종 때 학행으로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천거되었던 이의(爾儀), 이인좌의 난에 의병을 규합하여 성초현(省草峴)에서 전사한 명익(溟翊),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수이(守彛), 종성부사(鍾城府事)를 역임한 의학(宜學), 순조 때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을 지낸 상흠(尙欽), 문천군수(文川郡守)를 지낸 시휘(施徽),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를 지낸 규성(奎成)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창 신씨는 파주시에 총 69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거창 신씨는 교하의 산남리와 서패리(돌곶이), 파주읍 봉암리, 금촌의 쇠재(현 금릉동) 등이 거창 신씨의 3대 집성촌으로 현재 130여 가구 400여 명이 살고 있다.

교하 산남리에는 참판공(參判公) 기(幾)의 후손으로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16세 자건(自建,

1443~1527)이 관직에서 물러나 이곳 심학산 기슭의 산남리에 터를 잡아 살면서 후손들이 정착하였다. 산남리에는 덕장재라는 재실이 있으며 매년 4월 둘째 일요일 시제를 지낸다.
파주읍 봉암리에는 참판공 기(幾)의 후손이며 동추공(同樞公) 선경(先庚, 1420~1488)의 둘째 아들로 김포현령과 장흥부사를 지낸 판서공(判書公) 계원(繼源, 1445~1507)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다. 봉암리에는 2002년 봉암재를 건립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일요일 동추공 이하 26세조까지 시제를 지낸다.
금촌에는 황해도관찰사를 지낸 양장공의 후손으로 황해도 용강현령을 지낸 23세 용강공(龍岡公) 구중(龜重, 1682~1774)이 관직에서 물러나 살며 이후 후손들이 정착하여 살았는데 금촌의 거창 신씨 집성촌이었던 쇠재마을이 택지지구 개발사업으로 사라지면서 지금은 아파트촌이 들어서 있다. 이 곳에 있던 선대 묘역들은 광탄면 발랑리 산 20-2 및 50-10 일원으로 이장하여 용강공 종중묘역으로 조성하였으며 금병재(金屛齋)를 건립하여 매년 11월 셋째 일요일 시제를 지낸다. 거창 신씨 파주 종중 회장은 신정제이다.

고령 신씨(高靈申氏)

고령 신씨(高靈申氏)의 시조는 신성용(申成用)이다.
그는 본래 신라 공족(公族)의 후예로 고려에서 지방 향리(鄕里)인 호장(戶長)이 되고 고종(高宗) 때 문과에 급제하여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에 올랐다. 그로 인하여 후손들은 고령(高靈)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고령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대가야국(大伽倻國)의 중심지로서 562년(신라 진흥왕 23)에 신라에 병합되었다. 그 후 757년(경덕왕 16) 고양(高陽)으로 불리다 1018년(고려 현종 9)에 영천현(靈川縣)이 되었고, 조선 태종 때 고양(高陽)의 고(高)자와 영천(靈川)의 영(靈)자를 따서 고령(高靈)으로 칭하게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덕린(德鄰)이 고려 말에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지내고 우왕 때 시학(侍學)을 거쳐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와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이르렀다. 태종(太宗)과 동방(同榜)으로 문과에 급제했던 아들 포시도 역시 글씨에 능하여 아버지와 더불어 필명을 떨쳤고, 조선조에 불사하여 절의를 지켰다.
나주(羅州)에 살다가 태종 때 문과에 급제한 장(檣)은 직제학과 부제학을 공조참판에 올랐다. 평(枰)은 세종 때 춘장문과(春場文科)에 급제하여 사간원의 정언(正言)을 역임했고, 제(梯)는 사헌부감찰을 지냈다.
고령 신씨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인맥(人脈)을 형성한 장의 아들 맹주(孟舟)·중주(仲舟)·숙주(叔舟)·송주(松舟)·말주(末舟) 5형제는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나가 그들의 후손에서 삼정승(三政丞)·삼문형(三文衡)을 비롯한 91명의 대과(大科) 급제자를 낳았다. 조선 초기의 상신(相臣)으로 세종 때 화려한 문치(文治)를 이루게 했던 숙주(叔舟)는 한국 강토를 늘리는 북관정책에 명외교관으로 활약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며, 6대 왕조를 거치면서 대제학과 병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까지 올라 조선조의 기반을 굳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명상(名相)으로 추앙되었다.
항(沆)은 성종의 딸 혜숙옹주(惠淑翁主)와 혼인하여 고원위(高原尉)에 봉해지고 연산군 때 부총관(副摠管)을 지냈다. 항(沆)의 아우가 시·서·화에 모두 뛰어나 '삼절(三絶)'로 불린 잠(潛)이다. 용개(用漑)는 좌의정에 이르렀고, 광한(光漢)은 이조판서와 홍문관제학)을 지냈다. 해박한 학문으로 실학사상에 의한 고증학적 방법으로 지리학(地理學)을 개척했던 경준(景濬)은 1770년(영조 46) 『문헌비고(文獻備考)』를 편찬할 때 〈여지고(輿地考)〉를 담당하였고 〈팔도지도(八道地圖)〉와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를 완성했으며 『훈민정음운해(訓民正音韻解)』를 지어 한글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첫 업적을 남겼다.
역사가이자 언론인이며 독립운동가로서 이름난 채호(采浩)는 우리 역사를 처음으로 바로 세워 옛 한국의 참모습을 밝혀 골격을 세우는데 개척자로서의 업적을 남겼으며, 순수한 민족주의적 사관으로 당시 식민주의적인 일체의 학설을 배격하고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적인 지도자로 우리나라 언론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홍식(洪植)은 침략에서 받은 민족적 굴욕을 신앙과 독립운동으로 승화시켜 인천(仁川)과 원주(原州) 등지에서 종교운동과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 신씨는 파주시에 총 1,01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고령 신씨는 검산동에 많이 살고 있으며 검산동 조음발동에는 고령 신씨 파시조인 신장의 묘와 사당이 있다.

검산동과 조음발동의 유래는 신장의 묘소를 찾을 때 시주승의 바라 소리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유래된 지명이기도 하다.

아주 신씨(鵝州申氏)

아주 신씨(鵝州申氏)의 시조는 신익휴(申益休)이다.
그는 고려 때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문하시랑(門下侍郎)에 오르고 나라에 공을 세워 아주군(鵝州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익휴(益休)를 시조로 받들고 평산 신씨에서 분적하여 아주(鵝州)를 본관으로 삼았다.
그런데 조선 순조 때 도와(陶窩) 신정주(申鼎周)가 저술한 『호서기행(湖西紀行)』에 의하면 1817년(순조 17) 공주(公州)의 김노정(金魯定)이 『만성보(萬姓譜)』를 만들 때 신익휴라는 가공적 인물을 평산 신씨의 시조인 신숭겸(申崇謙)과 연계시켜 위조했다고 하며, 영조 때 편찬된 『문헌비고(文獻備考)』와 1924년에 발행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를 비롯한 아주신씨의 가첩(家牒)에는 고려 때 아주현의 권지호장(權知戶長)인 신영미(申英美)가 시조(始祖)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본보(本譜)에는 『아주신씨을해대동보(鵝州申氏乙亥大同譜)』에 기준하여 장절공(壯節公) 신숭겸의 12세손으로 기록된 익휴를 일세조로 하여 계대를 상고하였다.
아주는 경상남도 거제군에 속했던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거로현(居老縣)인데 청주(菁州: 진주)에 속하였고, 경덕왕 때 아주(鵝州)로 고쳐서 거제에 속하였다.
역사인물로는 호장(戶長) 영미(英美)의 현손 우(祐)가 고려 말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과 전라도안렴사(全羅道按廉使)를 역임했고, 우(祐)의 7세손 원록(元祿)은 이황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고 교수(敎授)를 지냈다.
군기시정(軍器寺正) 광귀(光貴)의 장남 희신(希信)은 통훈대부로 단양군수(丹陽郡守)를, 차남 희충(希忠)은 하동현감(河東縣監)을 지냈고, 막내 희경(希敬)은 어모장군(禦侮將軍)에 올랐다. 그 밖에 정략장군(定略將軍)으로 충무위 사직(忠武衛司直)을 역임한 개보(介甫), 광해군 때 창녕부사(昌寧府事)로 나가 도적을 토평하고 민심을 안정시켰던 지제(之悌), 송시열의 문인으로 학문이 뛰어나 『사서제요(四書提要)』, 『천명태주도(天命太柱圖)』 등의 저서를 남긴 응태(應泰)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주 신씨는 파주시에 총 15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산 신씨(平山申氏)

평산 신씨(平山申氏)의 시조는 신숭겸(申崇謙)이다.
그는 고려의 개국공신으로 벽상공신(壁上功臣) 삼중대광 태사(三重大匡太師)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문헌(文獻)에 의하면 그의 초명은 능산(能山)이었다. 태봉의 장군으로 있다가 918년(고려 태조 원년) 배현경·홍유·복지겸 등과 궁예를 폐하고 왕건을 추대하여 고려가 창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고려개국원훈(高麗開國元勳)으로 대장군(大將軍)에 올랐다. 태조(太祖) 왕건에게 평산에서 신씨 성을 받았다.
평산은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 때 대곡군(大谷郡)·다화실(多和悉)이던 것을 신라 경덕왕이 영풍(永豊)으로 고쳤으며, 고려 초에 평주(平州)로 하였다. 1272년(원종 13) 부흥군(復興郡)에 합쳤다가 충렬왕 때 다시 복구하였다. 1413년(태종 13)에 평산으로 바꾸고 도호부(都護府)로 승격하였으며, 고종(高宗) 때 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 집(諿)은 고려에서 전리판서(典理判書)와 수문전대제학(修文殿大提學)을 지냈으며, 그의 아우 군평(君平)은 공민왕 때 좌대언(左代言)과 어사대부(御史大夫)에 올라 당세에 대학자(大學者)로 추앙되었던 막내 현(賢)과 함께 명성을 떨쳤다.
한편 대제학 집(諿)의 셋째 아들 안(晏)은 고려 말에 봉선고판관(奉先庫判官)을 거쳐 종부시령(從簿寺令)에 이르렀으나 고려가 망하자 평산(平山)의 황의산(黃儀山)에 들어가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켰으며 그의 아들 개(槩)가 뛰어났다. 국초 이래 명간관(名諫官)이라고 태종이 극찬했던 개(槩)는 태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檢閱)을 지내고 태종 때 이조정랑·참의·충청도관찰사 등을 거친 후 세종 때는 이조판서가 되어 북변을 자주 침입한 야인토벌에 공헌했다. 그 후 우참찬(右慘贊)으로 『고려사(高麗史)』 수찬에 참여했으며, 좌의정에 올랐다.
개(槩)의 아우로 태종(太宗) 때 문과(文科)에 급제한 효(曉)는 우정언(右正言)을 거쳐 세종 때 교수관(敎授官)을 지냈다. 명인의 아들 익(翌)은 명종 때 무에 급제하여 함평현감(咸平縣監)으로 나가 치적(治績)을 쌓았고, 선조 때 제주목사·전라도병마절도사·순천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선조 때 명장(名將)으로 유명했던 립(砬)은 1583년(선조 16) 온성부사(穩城府使)가 되어 북면에 침입해 온 니탕개(尼湯介)를 격퇴시키고 두만강을 건너가 야인들의 소굴을 소탕하고 개선했으나,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彈琴臺)에 배수진을 치고 적군과 대결하다 참패하자 부하장수 김여물(金汝岉)과 함께 강물에 투신 자결했다.
흠(欽)은 인조 때 영의정에 올라 정주학자(程朱學者)로 문명(文名)을 떨쳤으며, 익성(翊聖)은 선조의 딸 정숙옹주(貞淑翁主)와 혼인하여 동양위(東陽尉)에 봉해지고 광해군 때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전리(田里)에 방축되었다가 인조반정 후에 재등용되어 병자호란에 남한산성으로 왕을 호종하여 청군(靑軍)과 계속 싸울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화의가 성립된 후에도 계속 척화를 주장한 '척화오신(斥和五臣)'의 한 사람으로 심양(瀋陽)에 붙잡혀 갔다. 최(最)는 『인조실록(仁祖實錄)』 편찬에 참여했다.
그 밖에 어영대장(御營大將)을 거쳐 공조참판을 지낸 대겸(大謙), 헌종 때 대제학을 역임한 재식(在植), 고종 때 지중추원사에 오른 명순(命淳), 좌의정에 오른 응조(應祖),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를 지낸 헌(櫶) 등이 있다.
현대에 제헌국회 의원에 당선되어 초대 부의장(副議長)을 지내고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 최고위원과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야달을 영도했던 익희(翼熙)가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산 신씨는 파주시에 총 4,945명이 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평산 신씨는 16세기 후반 법원읍 금곡리에, 17세기 후반 탄현면 법흥3리에, 18세기 중반 광탄면 용미4리 진따배기 마을에 세 차례에 걸쳐 입향 하였다.
법원읍 금곡리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평산 신씨는 15세 사간공(思簡公) 신호(申浩)를 파시조(派始祖)로 한다. 파주로의 입향은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화당 신민일(申敏一,1576~1650)은 법원읍 금곡리에, 21세 풍천공파 신경리(豊川公 申景禮)는 탄현면 법흥3리와 축현리에, 정언공파는 광탄면 용미4리 진대마을에, 제정공파는 교하 상지석리에 각각 입향하여 오늘에 이른다. 전에는 법원읍 금곡리에 35호, 탄현면 법흥리에 10호, 광탄면 용미4리에 10호가 살았으며 현재 교하 상지석리에 9호가 살고 있다. 매년 10월 1일 법원읍 금곡리에서 신민일 시제를 지내고 10월 10일에는 검산동 산92-3에서 풍천공 시제를 지낸다. 입향조(入鄕祖) 묘는 검산동에 있다.

영산 신씨(靈山辛氏)

신씨(辛氏)는 고려 중엽에 중국 8학사(八學士)의 한 사람인 신경(辛鏡)이 건너와 1138년(인종 16)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라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이르렀으며, 자신이 살았던 중국 강서성 대유현(江西省大庾縣)에 있는 천축산(天竺山)과 산세가 비슷한 지금의 창녕 영취산(靈鷲山) 아래에 뿌리를 내린 것이 우리나라 신씨(辛氏)의 시원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시조 경(鏡)이 처음 정착한 영산(靈山)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영산은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서화현(西火縣)인데 경덕왕이 상약(尙藥)으로 고쳐서 밀성군(密城郡: 밀양)의 영현으로 삼았고, 고려 때 영산(靈山)으로 개칭하여 감무(監務)를 두었다가 조선 초에 현감(縣監)을 설치했다.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하였는데, 1913년에 군을 폐하여 길곡면 사촌리(吉谷面 射村里)는 함안군(咸安郡)에, 나머지 지역은 창녕군에 병합하여 영산면(靈山面)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인거(引裾)가 충숙왕 때 정순대부(正順大夫)로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와 경주판관(慶州判官)을 거쳐 충목왕 때 정당문학을 역임했다. 경행(景行)은 정언과 병조좌랑을 거쳐 한산군수(韓山郡守)로 나갔다가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청난삼등공신(淸難三等功臣)으로 영성군(靈城君)에 봉해졌다. 예(裔)는 충혜왕 때 좌정언(左正言)과 지신사(知辛事)·첨의평리(僉議評理) 등을 지내고 충목왕 때 취성부원군(鷲城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예(裔)의 아우 부(富)는 홍건적의 난 때 함종(咸從) 전투에 출정하여 장군(將軍) 이견(李堅)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했다. 인손(引孫)은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문신 도승지·판한성부사·형조판서(刑曹判書) 등을 지낸 후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이르렀다.

경진(慶晋)은 병조좌랑으로 진주사(陳奏使) 한응인(韓應寅)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체찰사(體察使) 류성룡(柳成龍)의 휘하에서 종사관(從事官)으로 전공을 세우고 이조참의 등을 역임했다. 거(琚)는 충혜왕 때 등과하여 광정대부(匡靖大夫)로 지문하찬성사(知門下贊成事)에 이르렀고, 한의 7세손 보안(保安)은 세종 때 선공판사(繕工判事)와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역임했다. 사천(斯蕆)은 고려 말에 전공판서(典工判書)를 지내고 고려의 국운이 기울자 곡강(曲江)으로 낙향하여 절의를 지켰다. 초(礎)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집하여 창녕의 화왕산성(火王山城)에 주둔한 곽재우의 막하로 들어가 전공을 세우고, 현풍현감(玄風縣監)으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

그 밖에 평안도사(平安都事)를 역임한 경연(景衍), 교리(校理)와 사간을 지낸 광업(光業), 예조정랑을 거쳐 파주목사(坡州牧使)를 역임한 응망(應望), 판관을 지낸 응명(應命), 현감을 지낸 필형(必馨)·번(蕃)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산 신씨는 파주시에 총 58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영산 신씨는 조선전기에 병조판서를 지낸 공숙공(恭肅公) 인손(引孫, 1384~1445)을 입향조(入鄕祖)로 하며 파주 입향 시기는 15세기 초이다.

공숙공의 묘는 광탄면 신산리에 있다. 주요 인물로는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광탄면 신산리에 묘가 있는 영희(永禧, 1442~ 1511), 대사간과 홍문관부제학을 지낸 백록(白麓) 응시(應時, 1532~1585), 신응시의 아들로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문인이며 이조참의와 충주목사를 지낸 용석(用錫) 경진(慶晉, 1554~1619) 등이 있다.

매년 음력 10월 15일 시제를 지내고 있으며 영산 신씨 후손들은 금촌동, 운정동 등지에 살고 있다.

영월 신씨(寧越辛氏)

영월 신씨의 원조는 신라 때 사신으로 왔다가 귀화한 것으로 전하며, 시조는 고려 예종 때 문하시중(門下侍中)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신경(辛鏡)이다. 9세에 이르러 상장군파(上將軍派), 영산파(寧山派)[덕재공파(德齋公派), 초당공파(草堂公派)], 영월파(寧越派)[부원군파(府院君派), 판서공파(判書公派)] 등으로 크게 나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월 신씨는 파주시에 총 85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영월 신씨 부원군파는 1750년 무렵 영월부원군(寧越府院君) 신온(辛蘊)을 파조로 하는 부원군파 후손이 파주읍 봉서리와 백석리로 입향 하였다.
입향조는 태동(泰東)으로 파주목사로 왔다가 정착 하게 되었다. 입향조 묘는 문산읍 이천리 산 95-2에 있다. 파주읍 봉서리와 법원읍 직천2리 등에 후손들이 살고 있다.
매년 10월 15일경 파주읍 봉서리와 법원읍 직천2리 선영에서 시제를 지낸다.

삼척 심씨(三陟沈氏)

삼척 심씨(三陟沈氏)의 일세조는 심동로(沈東老)이다.
초명은 한(漢)이었던 그는, 고려 말엽에 중서사인(中書舍人)과 예의판서(禮儀判書)·집현전제학(集賢殿提學) 등을 지내고 지제고(知制誥)에 올라 진주군(眞珠君)에 봉해졌다. 1361년(공민왕 10)에 이르러 노령으로 벼슬에서 물러나니 왕이 죽서루(竹西樓)에 나와 칙명(勅命)으로 동로(東老)라는 이름을 하사하며 식읍을 내렸다고 한다.
문헌(文獻)에 의하면 그는 고려 문종조에서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문림랑(文林郞)으로 군기시주부(軍器寺主簿)를 역임한 심척충(沈迪沖)의 후손으로 전하나 계대가 불명하여 후손들은 동로(東老)를 일세조로 하여 삼척으로 창본하라는 유언을 만들어 본관을 삼척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삼척은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실직국(悉直國)이었는데, 102년에 신라에 합병되었다. 505년(지증왕 6)에 실직주(悉直州)라 하였고, 경덕왕 때 삼척(三陟)으로 개칭되어 여러 차례 변천을 거듭한 후 1895년 지금의 삼척군(三陟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세조 때 문과에 급제한 가보(家甫)가 양구(楊口)와 흡곡현령(翕谷縣令)을 지냈고, 그의 아들 희전(希佺)은 중종 때 병조좌랑을 거쳐 홍원(洪原)과 흡곡현령을 역임하여, 춘추관(春秋官)의 기주관(記注官)을 거쳐 지제교(知製敎)를 지내고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된 준(濬)과 함께 이름을 떨쳤다.
특히 조선조에서 가문을 빛낸 인물로는 좌랑 준(濬)의 아들 언경(彦慶)과 언광(彦光)의 형제를 들 수 있다. 1516년(중종 11) 문과(文科)에 급제한 언경은 여러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역임하고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와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을 거쳐 의정부좌찬성에 이르렀으며, 그의 아우 언광(彦光)은 호당(湖當)에 뽑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던 수재였다.
일찍이 이황이 “시재에는 내가 따를 수 없다”고 극찬했던 장원(長源)은 언광(彦光)의 손자로 ‘불의한 것은 티끌만 한 것도 취하지 않는다’는 자계훈(自戒訓)을 지켜 평생을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야인으로 살며 강릉(江陵)에서 낚시와 화죽(花竹)을 심는데 일생을 보냈고, 고서화(古書畵)를 많이 모아 어디선지 이서(異書)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멀다 않고 달려가 사거나 베껴서 모았다고 하며 시문(詩文) 수십 권을 남겨 문명(文名)을 떨쳤다.
그 밖에 언광(彦光)의 아들로 문집을 남긴 운(雲), 합천에서 출천지효자(出天之孝子)로 일컬어졌던 일삼(日三), 홍원현감(洪原縣監)을 지낸 보영(寶永)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척 심씨는 파주시에 총 10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송 심씨(靑松沈氏)

청송 심씨(靑松沈氏)의 시조는 심홍부(沈洪孚)이다.
그는 충렬왕 때 문림랑(文林郞)으로 위위시승(衛尉寺丞)을 지냈는데, 그의 증손 덕부(德符)가 우왕 때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이르러 청성부원군(靑城府院君)에 봉해졌다가 청성충의백(靑城忠義伯)에 진봉되어 후손들이 청송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그 후 덕부(德符)는 이성계를 도와 조선창업에 공을 세우고 청성백(靑城伯)에 봉해졌으며 판문하부사(判門下府使)와 영삼사사(領三司事)를 거쳐 정종 즉위년에 좌정승(左政丞)에 이르렀다.
청송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명이다. 청송군 파천면 일부는 고구려 말에 청기현(靑杞縣)이었는데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적선현(積善縣)으로 개칭되어 야성군(野城郡: 영덕)의 영현이 되었다. 적선현은 고려 초에 부이(扶伊)·운봉(雲鳳)으로 불리다가 986년(성종 5) 청부현(靑扶縣)으로 개칭되어 예주군(禮州郡: 영덕군)에 속하였다가 1018년(현종 9)에 예주(禮州: 영해)의 속현으로 병합되었다. 이후 주변 지역과 분리와 병합을 계속하다가 청송도호부(靑松都護府)가 되었다. 1979년 5월 청송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 세종의 장인이면서도 상왕(上王)인 태종의 비위에 거슬려 끝내 왕명으로 죽임을 당했던 온(溫)은 청성군 덕부(德符)의 다섯째 아들이다.
통원(通源)은 좌의정(左議政)을 지내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강(鋼)이 명종비(明宗妃)인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아버지로 활인서별좌(活人署別坐)를 거쳐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영돈녕부사 겸 오위도총부도총관을 역임했다. 그의 아들 의겸은 서인의 거두로서 선조 때 좌부승지(左副承旨)와 대사간(大司諫)·이조참의(吏曹參議)를 지내는 동안 사림의 명망이 높았으며, 아우 충겸(忠謙)은 임진왜란 때 호성이등공신(扈聖二等功臣)으로 청림군(靑林君)에 추봉되었다. 한편 중겸의 아들 열(悅)은 인조 때 경제에 능한 정치가로 명망이 높았으며 좌·우의정과 영의정을 거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使)에 이르렀고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다. 동지돈녕부사 봉원의 손자 희수(喜壽)는 선조 말에 이조판서(吏曹判書)와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 좌·우찬성(左·右贊成)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일등공신(靖社一等功臣)으로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에 봉해졌던 기원(器遠)이 좌의정을 역임하여, 정조 때 좌의정에 오른 환지(煥之)와 함께 명성을 떨쳤으며, 예조참판 염조(念祖)의 아들 상규(象奎)는 순조 때 영의정을 지내고 문장과 필법이 뛰어나 당시의 제1인자로 손꼽혔다.
그 밖에 구한말에 한성부판윤과 대사헌·예조판서 등을 지낸 경택(敬澤), 형조판서를 지낸 의면(宜冕), 공조판서를 거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의원(宜元), 고종 때 영의정에 올라 청·일 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국의 갖가지 어려운 정치적 고비를 겪었던 순택(舜澤), 예조판서를 지낸 이택(履澤),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를 지낸 상학(相學), 『상록수』를 쓴 농촌문학의 선구자인 훈(薰: 본명 대섭)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송 심씨는 파주시에 총 2,36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청송 심씨 공숙공파는 심회(沈澮,1418~1493)를 파시조(派始祖) 로 하며 입향조(入鄕祖)는 청원군 심종(沈悰)으로 조선 전기인 14세기 후반 파주에 입향 하였다.
월롱면 도내리, 광탄면 신산리 등지에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월롱면 도내리에는 많이 살았을 때는 100여호가 살았으나 현재는 20여호가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15일 월롱면 영태리

산34 공숙공 사당에서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월롱면 도내리, 광탄면 마장리, 신산리, 분수리에 있다. 문산읍 사목리에 부마(駙馬)로 경선공주의 남편인 심종 묘가 있다.
월롱면 영태리와 도내리에 살고 있는 청송 심씨는 공숙공파로 심종(沈淙)의 형인 심온(沈溫)의 둘째 아들 공숙공(恭肅公) 심회(沈澮)다.
광탄면 마장리 산433-4번지에는 판관공 심원을 비롯한 심종명, 심도순의 묘와 판관공 재실이 있으며 마장리 산49-2에는 심유의 묘갈과 심억, 심약한, 심유, 심수현, 심육 등 한 집안 5대에 걸친 묘역이 있다. 또한 광탄면 부수리 258-5에는 심지원 일가의 묘역이 있는데 1992년 12월 31일 경기도기념물 제137호로 지정된 심지원 묘 및 신도비를 비롯해 심종침, 심설, 심익상, 심익선, 심익창, 심익성, 심익현, 심정최등의 일가 묘역이 자리잡고 있다.
신산리 35-20에는 이경공 심한과 호양공 심순경의 재실이 있다.

풍산 심씨(豊山沈氏)

풍산 심씨(豊山沈氏)의 시조는 심만승(沈滿升)이다.
중국(中國) 오흥(吳興) 출신인 그는 110년(예종 5) 동료 호종단(胡宗旦)·유재(劉載)·안신지(安愼之) 등과 함께 상선을 타고 건너와 태백산(太白山) 아래인 풍산현(豊山縣)에 정착하였다. 문장과 덕행이 뛰어나 예종(睿宗)의 총애를 받았으며 청환직(淸宦職)에 발탁되어 상서봉어(尙書奉御)를 거쳐 태자첨사부첨사(太子詹事府詹事)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풍산(豊山)에 세거하면서 만승(滿升)을 시조로 받들고 본관(本貫)을 풍산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풍산은 경상북도에 안동시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하지현(下枝縣)인데 경덕왕 때 영안(永安)으로 고쳐 예천군(醴泉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923년(고려태조 6)에 이곳 사람 원봉(元逢)이 귀순한 공으로 순주(順州)로 승격하였다. 후에 후백제 견훤에게 함락되어 다시 하지현이 되었으며, 풍산(豊山)으로 고쳐 현종 때 안동에 속하였다가 1172년(명종 2)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다시 안동에 속하여 지금의 안동군 풍산면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만승의 8세손 승경(承慶)이 고려 말에 전농시사(典農寺事)와 상호군(上護軍)을 지내고 난정이 날로 심해지자 이를 개탄하여 벼슬을 버리고 향리(鄕里)로 돌아와 시서(詩書)로 자오(自娛)하며 여생을 마쳤고, 그의 아들 귀령(龜齡)이 조선 초기에 크게 현달하여 가세(家勢)를 일으켰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에 대장군(大將軍)으로 방원(芳遠)을 도와 박원길(朴元吉)과 삼봉 정도전(鄭道傳)을 제거하는 데 공을 세웠던 귀령은 제2차 왕자의 난에도 방원에게 가담하여 태종이 즉위하자 좌명사등공신(佐命四等功臣)으로 풍천군(豊川君)에 봉해졌으며, 1408년(태종 8) 조전절제사(助戰節制使)로 전라도 연안에 침입한 왜구를 격파하여 크게 무명(武名)을 떨쳤다. 귀령(龜齡)의 장남 보(寶)는 관찰사를, 차남 실(實)은 군수를, 막내 치(寘)는 목사를 역임하였다.
실의 아들로 백부(伯父)인 보에게 출계(出系)한 주(州)는 절의(節義)가 뛰어났다.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거쳐 이조참판에 올랐던 주(州)는 수양대군이 단종을 왕위를 찬탈하자 개탄하여 벼슬을 버린 수 김포(金浦)로 은거, 두견가(杜鵑歌)를 부르며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목사 치(寘)의 둘째 아들 응(膺)은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적개이등공신(敵愾二等功臣)으로 풍산부원군(豊山府院君)에 봉해지고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다.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삼등공신(靖國三等功臣)으로 풍창군(豊昌君)에 봉해졌던 형(亨)과 좌의정(左議政)에 올랐던 정(貞)의 형제는 풍산부원군 응의 아들로서 소격서령(昭格署令)을 역임한 아우 의(義)와 함께 명성을 떨쳐 가문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 밖에 우승지를 지낸 노(魯), 부사를 지낸 제(齊), 부총관(副摠管)을 지낸 연(延), 첨지중추부사를 역임한 익한(翊漢), 감찰을 지낸 운식(雲植)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풍산 심씨는 파주시에 총 14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안씨(廣州安氏)

광주 안씨(廣州安氏)의 도시조(都始祖) 안원(安援)은 본래 당(唐)나라 종실(宗室)인 이씨(李氏)였는데, 807년 신라로 건너와 개성 송악산(松岳山) 아래에 정착해 살면서 아들 지춘(枝春)·엽춘(葉春)·화춘(花春) 3형제를 두었다. 그 후 경문왕 때 갑신란(甲申亂)이 일어나자 이들 3형제가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나라에서는 편안할 안(安)자로 성(姓)을 내리게 되었다. 맏아들 지춘(枝春)이 안방준(安邦俊)으로 개명(改命)하고 죽산군(竹山君)에 봉해져서 죽산안씨(竹山安氏)의 시조가 되었고, 둘째 엽춘(葉春)은 안방걸(安邦傑)로 광주군(廣州君)에 봉해져서 광주안씨의 시조가 되었으며, 셋째 화춘(花春)은 죽성군(竹城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광주를 본관(本貫)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었다.

경기도에 위치한 광주는 마한의 일부였다. 371년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은 이곳을 한성(漢城)이라 불렀다. 553년 신라의 한산주(漢山州)가 되었다가 756년(경덕왕 15) 한주(漢州), 940년(고려 태조 23)에 지금의 광주(廣州)가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공민왕 때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하여 봉현대부(奉顯大夫)로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를 영임한 기(器)의 아들 성(省)이 우왕 때 문과에 급제, 보문각직제학(寶文閣直提學)을 거쳐 상주판관(尙州判官)이 되어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으며, 조선이 개국(開國)한 후 태조(太祖) 때 봉상시소경(奉常寺小卿)을 지냈다. 그는 태종조에 강원도도관찰사를 역임한 후 청백리에 녹선되었고 평양백(平壤伯)에 봉해졌다.

한편 진주목사(晋州牧使)와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지내며 청간(淸簡)한 정치로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었던 처선(處善)의 아들 3형제가 모두 현달하여 가문을 중흥시켰다. 맏아들 여경(余慶)은 세종(世宗) 때 지평감무(砥平監務)를 거쳐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역임했으며, 그의 아우 엄경(淹慶)은 세종(世宗)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충주목사(忠州牧使)와 호조참판(戶曹參判)을 거쳐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이르렀다.

용안현감(龍安縣監) 극변(克辯)의 아들 윤손(潤孫)은 성종 때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과 수찬(修撰)·교리(校理) 등을 역임하고 형조참판에 올랐다. 팽명(彭命)은 1471년(성종 2)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정랑과 장령(掌令)을 지냈고 사간(司諫)을 거쳐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을 역임했다.

그 밖의 효행과 글씨에 뛰어났던 담(曇), 명종 때 청빈(淸貧)하여 임금이 낙산(洛山) 밑에 집을 지어 주었던 사웅(士雄), 선조 때 학행으로 감찰(監察)에 천거되어 대흥(大興)과 아산(牙山)의 현감을 역임하고 필명(筆名)을 떨쳤던 민학(敏學), 정조 때 목천현감(木川縣監)을 지낸 정복(鼎福),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를 저술한 종화(鍾和)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안씨는 파주시에 총 24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문산읍 내포2리 오목동 마을에 살고 있는 광주 안씨는 안성(安省, 1351~1421)을 파시조로 하는 사간공파(思簡公派)로 이 마을에 들어 온 시기는 17세기 중반이다. 입향조(入鄕祖)는 10대조인 시윤(1614~1661)이며 묘는 문산읍 내포2리에 있다.

광주 안씨는 현재 파주에 43호가 살고 있으며 매년 10월 2~9일 내포리 선영에서 시제를 지낸다.

순흥 안씨(順興安氏)

순흥 안씨(順興安氏)의 시조는 안자미(安子美)이다.
그는 광주군(廣州君) 안방걸(安邦傑)의 후손으로, 고려 신종(神宗) 때 흥위위보승별장(興威衛保勝別將)을 역임하고 신호위상장군(神號衛上將軍)에 추증되었으며 순흥현(順興縣)에 정착세거하면서 후손들이 광주 안씨에서 분적하여 관향을 순흥(順興)으로 삼게 되었다.
순흥은 경상북도 영주시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급벌산군(及伐山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급산군(岌山郡)으로 고쳤고, 고려 초에 흥주(興州)라 하였다가 성종 때 순정(順政)으로 개칭하였다. 충목왕 때 승격하여 순흥부가 되었으며 1457년(세조 3)에 풍기(豊基)·영천(榮川)에 나누어 편입시켰고, 숙종 때 다시 부(府)로 복구하였다가 1895년 군(郡)으로 강등, 1914년 군을 없애고 봉화(奉化)와 영주(榮州)에 각각 편입시켜 영풍군에 속한 순흥면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우리나라 주자학의 거봉으로 사림의 존망을 받았던 향(珦)은 상호군(上護軍) 영유(永儒)의 손자로, 1260년(원종 1) 18세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교서랑(校書郞)과 감찰어사(監察御使)·상주판관(尙州判官)을 비롯한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 했고, 충렬왕(忠烈王) 복위 때 판판도사사(判版圖司事)가 되어 ‘섬학전(贍學錢)’이라는 육영재단(育英財團)을 설치, 후진양성에 진력하여 유학(儒學)의 학풍(學風)을 일으켰다. 향(珦)의 아들로 1282년(충렬왕 8) 문과에 급제한 우기(于器)는 우부승지와 밀직부사를 역임하고 충숙왕이 즉위하자 지밀직(知密直)으로 새로 구입한 경적(經籍) 1만 8백 권을 검열했으며, 대사헌을 거쳐 검교찬성사(檢校贊成事)와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 등을 지낸 후 순평군(順平君)에 봉해졌다.
1324년(충숙왕 11) 원나라 제과(制科)에 급제한 축(軸)은 충혜왕 때 강릉도(江陵道)를 존무(存撫)했으며 『관동와주(關東瓦注)』라는 문집(文集)을 저술했다. 그는 경기체가(景幾體歌)인 『관동별곡(關東別曲)』과 『죽계별곡(竹溪別曲)』을 남겨 문명(文名)이 높았고 흥녕군(興寧君)에 봉해졌다. 그의 아우 보(輔)는 19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공민왕 때 동지공거(同知貢擧)와 정당문학(政堂文學)을 거쳐 동경유수(東京留守)를 역임했다. 경공(景恭)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창업에 공을 세워 흥녕군에 봉해졌다가 태종 때 부원군(府院君)에 진봉되었으며, 그의 아들 순(純)이 세종 때 명신으로 유명했다. 순흥부원군(順興府院君) 문개(文凱)의 손자 천보(天保)는 세종비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외조부로 세종 때 좌의정에 이르렀다. 위(衛)는 거제현령(巨濟縣令)이 되어 통제사 이순신을 도와 벽파진(碧波鎭)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선조로부터 『무경칠서(武經七書)』를 하사받았다.
한말에서 도산(島山) 창호(昌浩)는 ‘독립신문(獨立新聞)’을 창간하여 임시정부 육성과 민족 계몽운동에 진력했다. 진사 태훈(泰勳)의 아들 중근(重根)은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고 “장부는 비록 죽을지라도 마음이 쇠와 같고, 의사는 위태로움에 임할지라도 기운이 구름 같도다”라는 유시(遺詩)를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익태(益泰)는 애국가를 작곡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흥 안씨는 파주시에 총 4,65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순흥 안씨들이 처음으로 정착하게 된 게기는 고려말, 조선초기에 안목, 안원 등이 임진강 유역을 개간하여 농장을 크게 경영하면서 별서를 두고 후손들이 정착하면서 퍼져나간 경우로 볼 수 있다.

이후 월롱면 덕은리와 위전리 일대에 1680년경 입향하였으며 입향조(入鄕祖)는 안임이다. 월롱면 덕은리에는 순흥 안씨들이 300여 호 살고 있으며 선영과 재실이 있다. 매년 음력 10월 5일 덕은리 재실에서 시제를 지낸다. 종중 규약이 있으며 임야와 전답, 원룸 5동, 상가건물 1동 등을 종중재산으로 가지고 있다.

순흥 안씨 찬성공파는 안경을 파시조(派始祖) 로 하고 안시건을 입향조(入鄕祖)로 하며 탄현면 축현리 상골에 5호가 살고 있다. 매년 10월 30일 시제를 지내며 선영은 탄현면 축현리 태봉이다.

순흥 안씨 참판공파는 안욱(安頊)을 파시조(派始祖) 로 하며 약 400년 전 군포에서 연천 살골 짜기로 당쟁의 화를 피해 들어왔다가 둘째 아들때부터 파주 적성 장현리에 뿌리를 내렸다. 예전에 많을 때는 30여호가 살았는데 지금은 외지로 나가고 4호만이 살고 있다.

원주 안씨(原州安氏)

원주 안씨(原州安氏)의 시조는 안중경(安仲敬)이다.
그는 조선 예종 원년(1468) 충정난익대공신(忠定難翊戴功臣)에 오르고 가선대부 원성부원군에 봉작되었다. 원래는 죽산(竹山)을 본관으로 하였는데, 안중경이 원성부원군에 봉작된 후 죽산에서 강원도 원주(原州)로 분적하여 원주 안씨를 이루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주 안씨는 파주시에 총 4,65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원주 안씨의 파주 입향 시기는 15세기 무렵이며 현재 문산읍과 연천군 등지에 후손들이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첫째주 일요일 탄현면 법흥리의 선영에서 시제를 지낸다.

죽산 안씨(竹山安氏)

죽산 안씨(竹山安氏)는 시조(始祖)를 안방준(安邦俊)으로 하는 구(舊) 죽산 안씨와, 안원형(安元衡)을 시조로 신(新) 죽산 안씨가 있다.

죽산은 경기도 용인시과 안성시 일부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개차산군(皆次山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개산군(介山郡)으로 고쳤다가 고려 초에 죽주(竹州)로 고치고, 995년(성종 1)에 단련사(團鍊使)를 두어 음평(陰平) 또는 연창(延昌)이라 하였으며 현종(顯宗) 때 광주(廣州)로 속하였다. 1413년(태종 13)에 죽산(竹山)으로 개칭하여 감무(監務)를 두었고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었다가 1913년 원일면(遠一面)과 근삼면(近三面) 일부는 용인군에 합해지고 나머지 지역은 안성군에 합해졌다.

구(舊) 죽산 안씨의 시조 안방준은 당나라에서 건노온 이원(李瑗)의 장남으로, 본래의 이름은 이지춘(李枝春)이었으나 두 아우와 함께 모반(謀反)을 평정하여 죽산군(竹山君)에 봉해졌고 안씨(安氏)의 성을 하사받아 방준(邦俊)으로 개명하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방준을 시조로 받들고 죽산(竹山)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을 이어왔다. 후 시조의 맏아들 국보(國輔)가 고려조에서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냈으며, 둘째 국필(國弼)은 문하시랑(門下侍郞)을 역임하여 죽산 안씨의 양대 인맥을 이루었다.

역사인물로는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를 거쳐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에 봉해졌던 한평(漢平)과 벽상공신(壁上功臣)으로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판호조사(判戶曹事)에 올라 죽산부원군(竹山府院君)에 봉해진 사경(社卿) 부자가 있다. 사경의 맏아들로 공민왕의 국구(國舅)가 되었던 극인(克仁)은 삼중대광으로 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을 거쳐 죽성군(竹城君)에 봉해졌다. 문하시랑 국필(國弼)의 후손에서는 손자 만생(晩生)이 중서령(中書令)을 역임했고, 8세손 영의(令儀)가 상서좌복야(尙書左僕야)에 올라 감찰어사(監察御使)를 지낸 손자 홍상(洪祥)과 함께 이름을 떨쳤다.

조선에서는 찰리사(察理使) 숙로(叔老)의 아들 맹담(孟聃)이 세종의 딸 정의공주(貞懿公主)와 혼인하여 죽성군(竹城君)에 봉해졌다가 연창군(延昌君)에 이어 연창위(延昌尉)로 개봉(改封)되고 세조 등극에 공을 세워 원종일등공신(原從一等功臣)에 책록되었다. 지고성군사(知固城郡事) 계인(季仁)의 아들로 1447년(세종 29)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한 초(迢)는 세조 때 이조정랑(吏曹正郞)으로 경기도암행어사(京畿道暗行御史)가 되어 도정을 순찰하고 돌아와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거쳐 형조참의(刑曹參議)와 안동부사(安東府使)를 지낸 후 형조 및 호조의 참판(參判)을 역임했다.

한편 중종 때 식년문과에 급제한 방경(方慶)은 승문원(承文院)의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와 검열·동부승지·공조참의 등을 지냈고, 영조(英祖) 때 등과한 윤행(允行)은 대사간·형조판서를 거쳐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에 이르렀다.

그 밖의 인물로는 영조 때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던 표(杓), 정조 때 형조참판을 지낸 억(檍), 순조 때 예조판서를 역임한 광직(光直), 한말에 독립협회(獨立協會)의 회장(會長)을 역임한 경수(駉壽)가 있다.

한편, 신(新) 죽산 안씨의 시조는 안원형(安元衡)이다.

광주군(廣州君) 안방걸(安邦傑)의 17세손이며, 순흥 안씨(順興安氏)의 시조(始祖) 안자미(安子美)의 7세손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공민왕 때 대제학을 지내고 순흥군(順興君)에 봉해진 목(牧)의 셋째 아들로, 1341년(충혜왕 복위 2)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사사(密直司使)를 거쳐 금자

광록대부로 정당문학을 지낸 후 벽상삼한삼중대광보국에 올라, 문하시중 평장사를 역임하면서 나라에 공을 세워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록되어 죽성군(竹城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그를 시조로 하고 순흥 안씨에서 분적하여 죽산(竹山)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원형(元衡)의 아들 면(勉)이 금자광록대부로 정당문학을 지냈고 대승상(大丞相)에 올라 흥녕군(興寧君)에 봉해졌으며, 그의 아들 노생(魯生)과 정생(廷生)이 관찰사(觀察使)와 직제학(直提學)을 각각 역임하였다.

조선에서는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참판을 역임한 철손(哲孫)과 단종 때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지낸 신손(信孫)이 유명했고, 추조(追祖)는 군수를 역임하여 참의를 지낸 승(勝), 형조좌랑 구(矩), 감찰양보(良輔) 등과 함께 가세를 일으켰다. 한편 중종 때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충달(忠達)은 창평 현감(昌平縣監)으로 나가 여근(汝謹)은 명종 때 무과에 올라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를 지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천일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싸우다가 진주에서 장렬하게 순절하여 선무원종일등공신에 책록되었다.

그 밖에 정묘·병자호란 때 때 의병을 일으켰던 방준(邦俊)이 공조참의를 역임했고, 효종 때 승문원정자를 역임한 여지(汝止)는 숙종조에 현령(縣令)과 예조의 정랑(正郞)을 지낸 민유(敏儒), 찰방(察訪) 절(節)과 함께 가문을 대표했다. 한말(韓末)에 와서는 규홍(圭洪)이 의병(義兵)을 일으켜 광양(光陽)의 백운산(白雲山)을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죽산 안씨는 파주시에 총 82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죽산 안씨 송암공파는 안종수(1758~1811)를 파시조(派始祖) 로 하고 11대조인 안여징(1567~1611)을 입향조(入鄕祖)로 하고 있다. 17세기 무렵 광탄면 창만리 소래울마을로 입향하여 오늘에 이른다. 현재 광탄면 창만리 송라동(소래울)에 10여 호가 살고 있으며 많을때는 20여 호 이상 모여 살았던 죽산 안씨 집성촌이다. 파주지역 전체에 99호에 350여명 가량이 살고 있다. 매년 10월 4일 이후 첫째 일요일에 창만리 숭모사당(崇慕祠堂)에서 시제를 지낸다.

숭모사당 뒤편 창만리 산 82-2에는 죽산 안씨 묘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안사현, 안여징, 안백돈 등의 묘소가 있다. 입향조(入鄕祖)인 안여징의 묘는 파주읍 부곡리에 있다가 광탄면 창만리로 옮겼다.

탐진 안씨(耽津安氏)

탐진은 전라남도 강진군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동음현(冬音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탐진현(耽津縣)으로 고치고, 고려 때 영암(靈岩)·장흥(長興) 등으로 이속되었다가 1417년(태종 17) 도강현(道康縣)과 합하여 강진으로 고쳤으며, 1895년(고종 32) 강진군(康津郡)이 되었다.

탐진 안씨(耽津安氏)의 시조는 안원린(安元璘)이다.

그는 공민왕 때 대제학을 지내고 순흥군(順興君)에 봉해진 문숙공(文淑公) 목(牧)의 넷째 아들이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고려에서 정당문학과 검교중추원사를 역임하고 나라에 공을 세워 탐진군(耽津君)에 봉해져, 후손들이 순흥 안씨에서 분적하고 탐진(耽津)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 왔다고 한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원린의 아들 우(祐)가 공민왕 때 군부판서(軍簿判書)와 상호군(上護軍)·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등을 거쳐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 전공을 세웠다. 찬성(贊成) 사종(士宗)의 아들 지(止)는 조선 태종 때 명신으로 유명했다. 시문(詩文)에 능하고 해서(楷書)에 일가를 이루어 당대의 명필로 명망이 높았고, 세종 때는 정인지 등과 함께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지어 왕에게 바쳤으며, 태종(太宗)을 위하여 『금자법화경(金子法華經)』을 썼다.

그 밖에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냈고 임진왜란 때 의병장(義兵將) 곽재우(郭再祐) 휘하로 들어가 유곡(柳谷) 싸움에서 공(功)을 세웠던 기종(起宗), 공조참의를 지낸 용(慵), 한말에 군수를 지낸 효제(孝濟), 독립운동가로 이름난 희제(熙濟)·창제(昌濟)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탐진 안씨는 파주시에 총 7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원 안씨(太原安氏)

태원 안씨(太原安氏)의 시조는 안만세(安萬世)이다. 본래 원(元)나라 태원(太原) 출신으로, 1351년 공민왕비(恭愍王妃)인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함께 배행하고 건너와, 공민왕조에서 예부상서를 역임했고 정착 세거하였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그의 고향인 중국 태원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 왔다.
태원은 중국 산서성(山西省)에 위치한 지역으로, 본래 기자(箕子)가 상(商)나라 때 식읍으로 하사받았던 땅이다.
역사인물로는 태원의 아들 우(祐)가 공신에 올랐고, 8세손 인지(仁智)가 슬하에 아들 맹손(孟孫)과 중손(仲孫) 형제를 두어 가문을 중흥시켰으며, 맹손의 맏아들 봉(鳳)이 부사(府使)를, 차남 곡(鵠)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하여 명성을 떨쳤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원 안씨는 파주시에 총 1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 양씨(南原梁氏)

남원 양씨(南原梁氏)의 시조는 양을라(良乙那)이며 중조 양탕(良宕)의 후손 우량(友諒)이 757년(경덕왕 16)에 공을 세워 남원백(南原白)에 봉해졌으므로 제주 양씨에서 분적하여 본관을 남원(南原)으로 하였다. 그러나 문헌의 실전으로 선계를 상고할 수 없어, 능양(能讓) 병부공계, 주운(朱雲) 용성군계, 수정(水精) 대방군계, 능길(能吉) 예성군계를 각각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남원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고룡군(古龍郡)인데 후에 대방군(帶方郡)으로 고쳤고, 신라 신문왕 때 소경(小京)을 두었다가 경덕왕 때 남원소경(南原小京)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태조 때 남원부로 삼았다가 다시 대방군으로 하였으며, 후에 남원군으로 고치고 1360년(공민왕 9) 부(府)로 승격, 1739년(영조 15) 일신현(一新縣)으로 하였고 다시 부로 복구, 1895년(고종 32) 남원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때 견(堅)이 광정대부(匡靖大夫)에 책록되어 정당문학을 거쳐 진현관대제학(進賢冠大提學)을 역임하였으며, 동국(東國)의 백이숙제(伯二叔薺)라 불렸던 우(祐)가 판도판서(版圖判書)와 집현전대제학(集賢殿大提學)에 올라 가문(家門)을 중흥시켰다.

조선에서는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눌재 성지(誠之)가 유명했는데, 세조 때 대사헌·대제학을 거쳐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그의 손자 연(淵)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이르렀고, 증손 구신(久信)이 임진왜란 때 많은 공을 세우고 순절하였다.

그 밖에 희(喜)가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으로『명종실록』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구국전선에 앞장선 대박(大樸)·홍주(弘澍)·몽열(夢說)·황(榥),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어영대장(御營大將)과 공조판서를 역임한 헌수(憲洙) 등이 있다. 한말에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의병장 상기(相基)·한규(漢奎), 독립운동가로 광복군사령부(光復軍司令部)의 총사령관을 역임한 세봉(世奉)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원 양씨는 파주시에 총 2,40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남원 양씨 문양공파(文襄公派)는 홍문관대제학을 지낸 문양공 양성지(梁誠之, 1415 ~1482)를 파시조(派始祖)로 하는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교하면 야당리 하우고개에 정착한 양계성(1937년생)씨가 처음 파주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현재 금촌동과 광탄면 등에 5호가 살고 있다.

파주에 살고 있는 남원 양씨 병부공파는 능양(能襄)을 파시조로 하며 1830년대 김포에서 파주로 옮겨왔다. 현재 금촌동 일대에 30호가 살고 있다. 선영이 금촌동 가나무골에 있었는데 택지개발로 이장하였으며 매년 한식일에 시제를 지낸다.

제주 양씨(濟州梁氏)

제주 양씨의 종파로는 크게 성주공파(星主公派), 유격공파(遊擊公派), 대방군파(帶方君派), 용성군파(龍城君派), 병부공파(兵部公派) 등이 있다.
제주에 살고 있는 양씨는 대부분 성주공파 후손들로서 파시조는 성주공(星主公) 양구미(梁具美)이다. 성주공의 12세손인 사직공(司直公) 양유침(梁有琛)을 중시조로 하는 파를 더럭파라 칭하고, 12세손 천호공(千戶公) 양중덕(梁仲德)을 중시조로 하는 파를 천호공파, 일명 가령파라 하기도 한다. 또 다른 12세손 양홍(梁鴻)을 중시조로 하는 파는 중랑장공파, 일명 명월파라 칭한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양씨는 파주시에 총 84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제주 양씨 성주공파의 파주 입향은 1900년 초 무렵이며, 주요 인물로는 성혼(成渾)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때 김천일(金千鎰)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진주(晋州)에서 싸우다 죽었으며 나주의 정렬사(旌烈祠)와 진주의 충민사(忠愍祠)에 배향된 충민공(忠愍公) 양산숙(梁山璹, 1561~1593), 거창현감과 석성현감을 지냈으며 장성(長城)의 필암서원(筆巖書院)에 배향된 양자징(梁子徵, 1523~1594) 등이 있다. 제주 양씨 성주공파 후손들은 금촌동, 운정동, 광탄면 등에 살고 있다.

남원 양씨(南原楊氏)

남원 양씨(南原楊氏)의 시조는 양경문(楊敬文)이다.
『남원양씨족보(南原楊氏族譜)』에 의하면 경문(敬文)은 고려에서 지영월군사(知寧越郡事)를 역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후손들은 조상들의 토착 세거지인 남원(南原)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남원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고룡군(古龍郡)인데 후에 대방군(帶方郡)으로 고쳤고, 신라 신문왕 때 소경(小京)을 두었다가 경덕왕 때 남원소경(南原小京)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태조 때 남원부로 삼았다가 다시 대방군으로 하였으며, 후에 남원군으로 고치고 1360년(공민왕 9) 부(府)로 승격, 1739년(영조 15) 일신현(一新縣)으로 하였고 다시 부로 복구, 1895년(고종 32) 남원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조선 때 집의(執義)를 역임한 자유(子由)와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호조정랑을 지낸 공준(公俊), 그리고 산림은일(山林隱逸)로 당대의 명사들과 이름을 나란히 한 백운거사(白雲居士) 공말(公抹)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외에도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을 거쳐 부사(府使)를 역임한 홍(洪), 경사(經史)에 능통하였으며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의병을 일으켜 구국전선에 나섰던 사형(士衡),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한 회영(會榮) 및 의병활동을 하다가 옥사한 영(泳)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원 양씨는 파주시에 총 15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화 양씨(中和楊氏)

중화 양씨(中和楊氏)의 시조는 양포(楊浦)이다.
그는 고려 고종(高宗) 때 정승을 역임하고 당악군(唐岳君)에 봉해졌는데, 후손들이 중화(中和)를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중화는 평안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가화압(加火押)인데 신라 헌덕왕이 당악현(唐嶽縣)이라 하였고, 고려 초에 서경(西京)에 편입시켰다가 인종 때 9촌(村)을 합하여 중화현을 만들고 영(令)을 두어 서경의 속현이 되었다. 1322년(충숙왕 9) 군(郡)으로 승격하였으며 공민왕 때 다시 지군사(知郡事)로 승격, 임진왜란 때 부(府)가 되었고, 1895년(고종 32) 군이 되었으며 1914년에 상원군(祥原郡)을 합쳤다.
역사인물로는 포(浦)의 아들 동무(東茂)가 간의대부(諫議大夫)로 이부상서(吏部尙書)를, 경무(慶茂)가 문하시중(門下侍中)을, 견무(堅茂)가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하였고, 5세손 원격(元格)이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8세손 희지(熙止)는 성종 때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뽑혔고 대사간·관찰사·도승지를 거쳐 한성부우윤에 올랐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화 양씨는 파주시에 총 4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양씨(淸州楊氏)

양씨(楊氏)는 중국에서 나온 성씨이며, 원나라에서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 올라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에 이른 양기(楊起)가 황제(皇帝)의 명(命)을 받고 제국대장공주(薺國大長公主: 충령왕비)를 배종하여 고려 원종(元宗) 때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양씨(楊氏)의 시초이다. 그 후 삼한창국공신(三韓昌國功臣)으로 상당백(上黨伯)에 봉해졌고 관적(貫籍)을 하사받아서 후손들이 본관을 청주(淸州)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청주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원래 마한 땅이었다가, 백제 때 상당현(上黨縣), 일명 낭비성(娘臂城)·낭자곡(娘子谷)으로도 불렸다. 685년(신라 신문왕 5) 서원소경(西原小京)을 두었고 757년(경덕왕 16)에 서원경(西原京)이 되었으며, 940년(태조 23)에 청주(淸州)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기(起)의 아들 지수(之壽)가 광정대부(匡靖大夫)에 올라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를 지내고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손자 백연(伯淵)이 동강도지휘사(東江都指揮使)와 서강부원수(西江副元帥)로서 왜구를 격퇴하여 찬성사(贊成事)가 되어 정방제조(政房提調)를 겸했고, 증손 영수(英秀)가 밀직부사(密直副使)와 상장군(上將軍)을 역임하였다.

조선의 무신으로 무예에 뛰어났던 정(汀)은 세조 때 좌익공신(左翼功臣)으로 양산군(楊山君)에 봉해졌고 공조판서(工曹判書)와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거쳐 평안도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에 이르렀다. 또한 안평대군(安平大君)·김구(金絿)·한호(韓濩)와 더불어 조선(朝鮮) 전기(前期)에 사대명필(四大名筆)로 일컬어졌던 사언(士彦)은 명종 때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강릉부사(江陵府使)와 함흥부윤(咸興府尹)을 지냈으며 시문(詩文)에도 뛰어났다.

그 밖에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응춘(應春), 호종공신(扈從功臣)으로 이조판서를 지내고 홍농군(弘農君)에 봉해진 순민(舜民), 서예에 뛰어났던 만고(萬古)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 양씨는 파주시에 총 30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 어씨(忠州魚氏)

충주 어씨(忠州魚氏)의 시조는 어중익(魚重翼)이다.
본래의 성은 지씨(池氏)였으나 태어날 때부터 체모(體貌)가 기이하고 겨드랑에 세 개의 비늘(鱗)이 있어 고려 태조가 어씨(魚氏)로 사성(賜姓)했다고 한다. 그 후 후손 승진(升震)이 고려 말에 성균진사(成均進士)가 되었고, 그의 증손(曾孫) 유소(有沼)가 조선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토벌하는 데 좌대장(左大將)으로 공을 세워 적개일등공신(敵愾一等功臣)에 책록되고 예성군(藥城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승진(升震)을 일세조로 받들고 본관을 충주(忠州)로 삼게 되었다.
충주는 충청북도 중원군(中原郡)에 있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 국원성(國原城)·미을성(未乙省)·완장성(薉長城)·탁장성(託長城) 등으로 불리다가 신라에 병합되어 진흥왕 때 이곳에다 소경(小京)을 두었고 경덕왕이 중원경(中原京)으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가 충주(忠州)로 개칭하였다. 그 후 고종 때 국원경(國原京)으로 고쳐 불렀고, 1550년(명종 5) 유신현(維新縣)으로 부르다가 조선 선조 즉위년에 다시 충주(忠州)로 환원되었다. 그 후 1956년 충주면(忠州面) 일원으로는 충주시(忠州市)를 만들고 나머지는 중원군(中原郡)으로 고쳤다.
역사인물로 17세 때 내금위(內禁衛)에 들어갔다가 1456년(세조 2) 무과에 장원급제했던 유소(有沼)는 백 근 짜리 무거운 활을 지고 다니며 북변의 야인정벌에 공을 세운 치장(治將)으로 유명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주 어씨는 파주시에 총 1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종 어씨(咸從魚氏)

어씨(咸從魚氏)는 중국에서 나온 성씨이다. 풍익현(馮翊縣) 출신인 어화인(魚化仁)이 남송(南宋) 때 난을 피하여 건너와 강원도 강릉부에 뿌리를 내린 것이 시초이다. 그 후 다시 평안도 함종현(咸從縣: 지금의 강서군)으로 옮겨 살았으므로 후손들이 고려 명종 때 인장동정(仁長同正)을 지낸 어화인(魚化仁)을 시조로 하고 함종(咸從)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함종은 평안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 땅이었는데,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것을 고려 때 때 아선성(牙善城)을 설치하였고 후에 함종(咸從)이라 개칭하여 현령을 두었다. 조선에서도 현으로 계속되다가 경종(景宗) 때 부(府)로 승격되었으며 1895년 군(郡)이 되었고, 1914년에 강서군(江西郡)과 합하여 지금은 강서군에 속한 함종면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 변갑(變甲)은 현령을 지낸 연(淵)의 다섯 아들 중 맏아들로 세종 때 명신으로 이름났다. 성균관주부(成均館主簿)를 거쳐 좌정언(左正言)·우헌납(右獻納)을 역임했으나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함안으로 돌아가 노모 봉양에 진력했다. 변갑(變甲)의 아들 효첨(孝瞻)은 1429년(세종 11)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검열을 거쳐 집현전교리가 되어 젊은 학자로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1446년(세종 28) 집현전응교로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이 되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짓는 데 참여했다. 세조 때 이조판서에 오른 그는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거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치사(致仕)하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효첨(孝瞻)에게는 세겸(世謙)·세공(世恭)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세겸(世謙)은 세조와 연산군 대에서 각 조(曹)의 판서를 두루 역임했다.
세공(世恭)의 10세손 유봉(有鳳)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거유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으며, 문하에서 이천보(李天輔)·홍상한(洪象漢)·윤득관(尹得觀)등 훌륭한 학자를 배출시켜 경종의 국구(國舅)인 아우 유귀(有龜)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 밖에 정조 때 도총관(都摠管)을 거쳐 공조판서에 이른 석정(錫定), 훈련원주부·판관·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한 재연(在淵), 한말의 개화파 대신(開化派大臣) 윤중(允中), 독립운동에 몸 바친 윤희(允姬)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종 어씨는 파주시에 총 13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월 엄씨(寧越嚴氏)

영월 엄씨(寧越嚴氏)의 시조는 엄임의(嚴林義)이다.
그는 한(漢)나라 시인 부양(富陽)의 후예이며 당(唐)나라 상국(相國) 화음(華陰)의 일족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당나라 현종이 새로운 악장(樂章)을 만들어 이를 인근의 여러 나라에 전파하기 위해 보낸 파락사(波樂使)로 신라에 건너왔다가, 본국에 정변이 일어나자 돌아가지 않고 지금의 영월 땅인 내성군(奈城郡)에 안주하였다고 한다. 그 후 고려에서 그를 내성군(奈城君)에 추봉(追封)하고 후손들에게 영월(寧越)을 식읍으로 하사하자, 후손들이 그곳에 살면서 영월(寧越)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 왔다.
영월은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내생군(奈生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내성군(奈城郡)으로 고치고, 고려 초에 영월로 고쳐서 원주(原州)에 편입시켰다가 공민왕 때 군(郡)으로 승격하였다. 조선 숙종 때 부(府)로 승격하고 1895년(고종 32) 영월군(寧越郡)이 되었다.
엄씨는 시조의 아들 3형제 대(代)에 와서 장남 태인(太仁)이 고향을 지키며 군기공파(軍器公派)를 이루었고, 차남 덕인(德仁)은 한양(漢陽)으로 이주(移住)하여 복야공파조(僕야公派祖)가 되었으며, 3난 처인(處仁)은 함경도(咸鏡道)로 이주하여 문과공파조(文科公派祖)가 되어 현재 그의 후손들이 북한에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대(代)를 거듭하면서 참봉공계(參奉公系)·교수공계(敎授公系) 등 37계통으로 갈라졌다.
역사인물로는 11세손 유온(有溫)이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가선대부에 올라 동지총제(同知總制)를 역임했고, 흥도(興道)는 죽음을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좋은 일을 하고 화를 당하면 달게 받겠다(爲善被禍 吾所甘心)”라는 말을 남긴 후 영남지방으로 피했다. 후에 그의 충절이 재평가되어, 증손 한례(漢禮)에게 호역(戶役)을 면해 주고 단종릉인 노산묘(魯山墓)를 수호하게 하였다. 현종 때 송시열의 건의로 비로소 그 후손들이 세상에 나와 벼슬에 등용되었다. 영조 때 정문(旌門)이 세워졌고 공조참판에 추증되었고, 순조 때 자헌대부로 공조판서에 가자되었으며 시호(諡號)가 충의(忠毅)로 내려져 사육신과 더불어 영월 창절사(彰節祠)와 공주 동학사(東鶴寺) 숙모전(肅慕殿)에 배향되었다.
시조의 16세손 흔(昕)은 중종 때 급제하여 수찬·이조좌랑을 거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보덕(輔德)을 지냈다. 흔(昕)의 현손 집(緝)은 도승지·예조판서를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고 장희빈(張禧嬪)의 처벌을 주장했으며 청렴결백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그 밖에 광해군 때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검열(檢閱)을 지냈으며 폐모론(廢母論)에 유생(儒生)을 이끌고 반대하는 상소(上疏)를 올렸다가 파직 당한 성(惺), 효종 때 영흥부사(永興府使)로 나갔던 황(愰), 한석봉(韓石峯) 이후의 명필로 이름났으며 고금의 서법(書法)을 집대성한 『집고첩(集古帖)』과 『만향제시초(晩香薺詩抄)』를 남긴 한명(漢明),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나라에 갔다 와서 『연행록(燕行錄)』을 간행한 숙(璹)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월 엄씨는 파주시에 총 97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산 여씨(星山呂氏)

성산 여씨(星山呂氏)는 여어매(呂御梅) 이전의 선계를 병란으로 인한 문헌의 실전으로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고려 때 삼중대광에 오른 여양유(呂良裕)를 시조로 하며, 성산(星山)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성산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성주(星州)의 옛 지명이다. 본래 육가야국의 하나인 성산가야국(星山伽倻國)인데 신라가 멸망시켜 본피현(本彼縣)이라 하다가 757년(경덕왕 16)에 신안현(新安縣)으로 개칭하여 성산군(星山郡)에 속하였다. 그 후 벽진군(碧珍郡)으로 고쳤고 940년(고려 태조 23) 경산부(京山府)로 개칭하였다가 경종(景宗)때 강등하여 광평군(廣平郡)이 되었으나, 995년(성종 14) 대주도단련사(岱州都團練使)를 두었으며 현종 때 다시 경산부(京山府)로 승격하여 1군 14현을 영속하였다. 충렬왕 때 흥안도호부(興安都護府)로 승격한 후 성주(星州)로 고쳐 목(牧)을 두었고, 충선왕이 다시 경산부로 강등하였으나 조선 태종 때 성주목(星州牧)으로 승격하였다. 1895년(고종 32) 성주군(星州郡)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양유의 아들 위현(渭賢)이 고려에서 판도판서를 지냈으며, 문장이 뛰어났던 손자 극회(克誨)가 조선에서 공조판서를, 5세손 문승(文承)이 사복시정을 역임하였다. 중종 때 학자로 왕자사부(王子師傅)를 지냈던 희림(希臨)은 현량과(賢良科)에 합격되었으나 응하지 않고 성주(星州)에서 정주학(程朱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으며, 선조 때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낸 대로(大老)는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그 밖에 조선 말 의병장으로 임실군의 대운치(垈雲峙) 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세운 주목(柱穆), 북간도(北間島)에서 이동녕(李東寧)·이상설(李相卨)과 함께 서전의숙(瑞甸義塾)을 세워 후진 교육에 힘쓴 독립운동가 준(準)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산 여씨는 파주시에 총 4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령 여씨(宜寧余氏)

여씨(余氏)는 본래 중국에서 나온 성씨(姓氏)이다. 우리나라 여씨(余氏)의 연원은 조(趙)·송(宋)나라 때 이르러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오른 여선재(余善才)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고려에서 의춘군(宜春君)에 봉해지고 의령 땅을 식읍으로 하사받으면서 부터이다. 그 후 후손들이 그곳에 정착 세거 하면서 선재(善才)를 시조로 하고 본관을 의령(宜寧)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극러나 상계가 실전되어 고려 때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역임한 현경(玄景)을 일세조로 하여 계대하고 있다.
의령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장함현(獐含縣)인데 경덕왕 때 의령으로 고쳐서 함안군(咸安郡)에 속했으며, 고려 때 진주(晋州)에 편입되었다가 공양왕 때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때 현(縣)으로 승격된 뒤 1895년(고종 32)에 의령군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직유(稷蕤)가 고려에서 성균관진사·검교장군(檢校將軍)을 역임하였고, 그의 손자 정(廷)이 군기감(軍器監)을, 정(廷)의 5세손 중엄(仲淹)이 가선대부에 올라 예부전서(禮部典書)를 역임하였다.
그 밖에 조선 때 황해도 수군절도사(黃海道水軍節度使)를 지낸 흥열(興烈), 통정대부로 안주진병마절도사(安州鎭兵馬節度使)를 역임한 원경(元暻), 강원도관찰사를 지낸 건(健)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령 여씨는 파주시에 총 12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산 연씨(谷山延氏)

연씨(延氏)는 중국 남양(南陽)에서 나온 성씨이다. 고려 때 홍농(弘農) 출신 연계령(延繼苓)의 7세손 연수창(延壽菖)이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를 배종하고 고려에 들어와 곡산(谷山)에 정착한 된 것이 우리나라 연씨(延氏)의 시원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11세손 주(柱)가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삼사좌사(三司左使)에 올라 조선 태종 때 곡성군(谷城君)에 봉해졌으며, 주(柱)의 아들 사종(嗣宗)은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거쳐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를 역임하고 곡산부원군(谷山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계령(繼苓)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곡산(谷山)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곡산은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십곡성(十谷城)이라 불렸는데, 신라 경덕왕 때 진서(鎭瑞)라 개칭하여 영풍군(永豊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초에 곡주(谷州)로 고쳐 성종 때 방어사(防禦使)를 두었다. 조선에 와서는 태조가 현비 강씨(顯妃康氏)의 고향이라고 하여 곡산(谷山)으로 개칭하고 부(府)로 승격하였으나, 태종은 다시 군(郡)으로 격하하였다. 1895년(고종 32) 곡산국(谷山郡)이 되어 개성부(開城府)에 속하였다. 이후 1914년 황해도에 속한 군(郡)이 되었다. 덕둔홀·고곡(古谷)·욕천(浴川)·곡성(谷城)·진서(鎭瑞)·상산(象山) 등의 별칭으로도 불렸다.

역사인물로는 수창(壽昌)의 아들 경(鏡)은 충숙왕 때 삼중대광문하시중과 태사(太師)를 역임한 명신(名臣)이었으며, 당대의 문장가(文章家)로 이름을 날렸다. 조선 숙종 때 문장가로 유명하였던 최적(最績)은 송시열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1682년(숙종 8) 증광문과에 올라 사헌부감찰에 이르렀으나 당쟁이 격화되자 벼슬에서 물러나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였다.

근대에 와서는 1907년 군대가 해산되자 덕물포(德物浦)와 삭녕(朔寧) 등지에서 많은 전공을 세운 의병대장(義兵大將) 기우(基羽), 상해임시정부의 중심인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병호(秉昊)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곡산 연씨는 파주시에 총 22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 염씨(坡州廉氏)

파주 염씨(坡州廉氏)의 시조는 염형명(廉邢明)이다.
중국 교목세가(喬木世家)의 후손인 그는, 후당(後唐)의 국정이 어지러움을 개탄하여 신라에 들어와 봉성(峰城)에 자리 잡은 뒤 대사도(大司徒)를 지내면서 뿌리를 내렸다. 그 후 고려 때 후손 한(漢)이 문종 때 동해(東海)에 침입해 온 해구를 격퇴하였고, 북변(北邊)을 침범한 동번족(東蕃族)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워 병부상서(兵部尙書)·상주국(上柱國)을 역임하였다. 그의 현손(玄孫)으로 전하는 신약(信若)은 명종 대에 명신이었다.
충렬왕 때 도첨의중찬(都僉議中贊)을 지낸 승익(承益)의 손자 제신(悌臣)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원나라에 가서 평장사(平章事)로 있는 고모부 말길(末吉)의 집에서 수학하며 원나라 태정황제(泰定皇帝)의 총애를 받아 정동성낭중(征東省郞中)의 벼슬을 받고 돌아와 충숙왕의 신임을 받았으며 뒤에 여러 벼슬을 거쳐 1354년(공민왕 3) 좌정승에 올랐다. 그 후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이 되어 권신 신돈(辛旽)과 김흥경(金興慶) 등의 모함을 받았으나, 공민왕은 끝까지 그를 신임했고, 우왕이 즉위하자 영삼사사(領三司事)와 영문하부사(領門下府事)를 지냈으며 곡성부원군(曲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제신(悌臣)을 일세조로 하고 본관을 처음에는 봉성(峰城)으로 하였다가 곡성(曲城)으로 개관하였으나, 곡성현(曲城縣)이 서원(瑞原)으로 개칭됨에 따라 다시 서원(瑞原)을 본관으로 삼았다. 연산군 때 와서 서원이 다시 파주(坡州)로 개칭됨에 따라 현재의 파주(坡州)를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파주는 경기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475년(장수왕 63)에 파주사현(坡州史縣)이라 칭하였고, 1398년(태조 7)에는 서원군(瑞原郡)과 파평현(坡平縣)을 병합하여 원평군(原平郡)이라 하였으며, 1415년(태종 15) 교하현(交河縣)을 폐지시켜 이에 병합하여 도호부(都護府)로 승격, 뒤에 교하현을 다시 복구시켰으나 도호부는 그대로 두었다. 1461년(세조 7)에 파주목(牧)으로 승격하였으며, 1504년(연산군 10)에 본주(州)를 유행지소(遊幸之所)로 삼고 나머지 땅은 인접 고을에 소속시켰다가 1506년(중종 1) 파주목으로 복귀, 1895년 파주군(坡州郡)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교하군을 폐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제신(悌臣)의 아들 3형제가 뛰어났는데, 맏아들 국보(國寶)가 공민왕 때 대제학을 지낸 후 서성군(瑞城君)에 봉해졌고, 둘째 흥방(興邦)도 충목왕 때 서성군(瑞城君)에 봉해진 후 삼사좌사(三司左使)가 되었으며, 특히 학문에 뛰어나 여러 번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었다. 막내인 정수(廷秀)는 1371년(공민왕 20) 벼슬이 동지밀직(同知密直)·대제학(大提學)에 이르렀다.
조선에는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지낸 증(憎), 서산군수(瑞山郡守)·단천부사(端川府使)를 역임한 상항(尙恒), 상호군(上護軍) 종항(從恒) 등이 뛰어났고,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우고 선무이등공신에 책록된 걸(傑)과 서(瑞) 등도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주 염씨는 파주시에 총 50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파주 염씨 동정공파는 고려조에 문하시중을 지낸 염제신(廉悌臣)의 2자 염흥방(廉興邦,1304~1382)을 파시조(派始祖)로 하며 입향조(入鄕祖)는 조선조에 적성면 어유지리 봉화촌에 입향한 14세 염의만(廉義萬,1730~1801), 19세기 말 문산읍 운천1리 대덕골로 입향한 23세 염수동(1899~1968)이 있다. 파주 염씨는 문산읍 당동리 집성촌이 있었으나 현재는

흩어졌으며 문산읍 선유리에 2호, 적성면 어유지리에 4호, 문산읍 운천1리에 3호 등이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17일 당동리 입향조(入鄕祖) 묘소에서 시제를 지내며 적성 어유지리에서는 음력 10월 15일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적성면 어유지리, 문산읍 당동리, 문산읍 운천1리, 법원읍 동문리 등에 있다. 장단군에 염제신 신도비가 있으며 문산읍 당동리에 염수동의 묘가 있다.

의흥 예씨(義興芮氏)

의흥 예씨(義興芮氏)의 시조는 예락전(芮樂全)이다.
문장과 덕망이 뛰어난 석학으로 고려 인종(仁宗) 때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를 지냈으며, 부계군(缶溪君, 부계는 의흥의 옛 지명)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의흥(義興)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예씨(芮氏)는 중국에서 왔다고 하나 정확한 문헌이 없어 선계를 알 수 없다.
의흥(義興)은 경상북도(慶尙北道) 군위군(軍威郡)에 속해있는 지명(地名)으로 본래 고구려(高句麗)의 의흥군(義興郡)을 고려(高麗) 현종(顯宗) 때 안동부(安東府)에 속하게 하였고, 공양왕(恭讓王) 때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조선(朝鮮) 태종(太宗) 때 현(縣)이 되었다가 1895년(고종 32)에 군(郡)으로 승격되고, 1914년에 군위군(軍威郡)에 속한 의흥면(義興面)이 되었다.
역사인물로 락전(樂全)의 8세손 승석(承錫)은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한성부우윤을 거쳐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고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그의 아들 충년(忠年)은 1475년(성종 6)에 문과에 올라 경주부윤(慶州府尹)을 거쳐 성균관대사성을 역임하였다. 이외에도 훈련원판관을 역임한 인상(仁祥)과 한성부우윤을 지낸 몽진(夢辰),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흥래(興來)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흥 예씨는 파주시에 총 6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 오씨(高敞吳氏)

고창 오씨(高敞吳氏)의 시조는 오학린(吳學麟)이다.
그는 고려 정종(靖宗) 때 문과에 급제하고 한림원학사(翰林院學士)를 지냈으며, 외적을 토벌한 공으로 고창(高敞)을 식읍)으로 하사받았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고창(高敞)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고창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 모량부리현(毛良夫里縣)이라 하다가 신라 때 현재의 이름으로 하여 무령군(武靈郡)을 관할했고, 고려 때는 고부군(古阜郡)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에 고창현이 되고, 조선 말에 고창군으로 바뀌었으며, 1916년에 대산면·공음면·상하면의 일부가 영광군에 편입되고, 영광군의 대마면(大馬面)·홍농면(弘農面)·진량면(陳良面)의 일부가 고창군에 편입되었다. 1935년에 17개 면(面)이 14개 면으로 폐합되었다가 1955년 고창면(高敞面)이 읍(邑)으로 승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아들 질(質)이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역임하고, 질(質)의 아들 세문(世文)은 승보시(陞補試)에 장원한 후 동각시학(東閣侍學)에 이르렀다. 세문(世文)의 형 세공(世功)과 동생 세재(世才)도 당대의 이름난 학자였는데 시와 서예에 조예가 깊었던 세재(世才)는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으로 이인로(李仁老) 등과 교우관계를 두터이 하며 학문의 깊이를 더하였다.
세문(世文)의 증손인 계유(季孺)는 충숙왕 때 좌리공신(佐理功臣)으로 삼중대광도첨의찬성사(三重大匡都僉議贊成事)를 지내고 모양군(牟陽君)에 봉해졌으며, 계유(季孺)의 손자 엄(淹)이 조선 태종 때 경기도수군절도사(京畿道水軍節度使)와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를 역임하였으며, 엄(淹)의 손자 원찬(原纘)은 상장군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던 운(澐)은 정유재란 때도 커다란 공을 세워 통정대부에 올라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공조참판에 이르렀다.
근대에는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선 화영(華英)은 목사(牧師)로 신앙부흥운동과 민족정신함양에 노력하였으며 조선민족당(朝鮮民族黨) 당수(黨首)와 한중협회(韓中協會) 회장(會長) 등을 지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창 오씨는 파주시에 총 16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고창 오씨는 황해도 해주 목단면 아현리 153번지를 원세거지로 하고 있다. 파주에는 검산동에 3대째 후손들이 살고 있다. 이천시 호국원에 선영이 있다.

군위 오씨(軍威吳氏)

군위 오씨(軍威吳氏)의 시조는 오숙귀(吳淑貴)이다.
현좌(賢佐)의 둘째 아들인 그는 고려에서 군위군(軍威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군위(軍威)에 정착 세거하며 동복 오씨(同福吳氏)에서 분적하고 본관을 군위(軍威)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군위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의 노동멱현(奴同覓縣: 일명 여두멱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군위(軍威)로 고쳤다. 남쪽에 적라산(赤羅山)이 있기 때문에 한때 적라현(赤羅縣)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895년 군위현(軍威縣)을 군(郡)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숙귀(淑貴)의 7세손 광계(光桂)가 고려에서 부위(副尉)를 역임했다. 광계(光桂)의 아들 경안(景安)이 천호(千戶)를 지냈다. 조선에서 성(晟)은 어모장군(禦侮將軍)으로 용맹을 떨쳤고, 석효(錫孝)가 통정대부에 이르렀으며, 도환(道桓)이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그 밖에 어모장군을 지낸 도태(道泰)·명기(命夔),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른 재운(在運)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위 오씨는 파주시에 총 6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오씨(羅州吳氏)

『나주오씨세보(羅州吳氏世譜)』에 의하면 시조는 고려 중엽에 진사를 지낸 오숙규(吳淑珪)로 전하며, 중랑장(中郎將)을 역임한 언(偃)을 일세조로 하여 선조들의 정착 세거지인 나주(羅州)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나주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백제 때 발라(發羅)라고 불렸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는 금산(錦山)으로 고쳤으며, 고려(高麗) 태조가 여기를 점령하고 나주(羅州)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 언(偃)의 5세손인 자치(自治)는 1467년(세조 13)에 일어난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적개공신(敵愾功臣)에 책록된 뒤 병조참판을 지냈고 나성군(羅城君)에 봉해졌다. 선조 때 우의정에 오른 겸(謙)은 별시문과에 급제한 후 남원부사(南原府使)를 거쳐 전라도관찰사에 이르고 금양군(金陽君)에 봉해졌으며, 이어 예조판서·대사헌을 거쳐 우찬성(右贊成)에 올라 궤장(几杖)을 하사받았으며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가 되어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밖에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全州史庫)의 실록을 병화로부터 잘 보존하는데 공이 큰 희길(希吉), 학행이 뛰어났던 효석(孝錫)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 오씨는 파주시에 총 10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안 오씨(樂安吳氏)

낙안 오씨(樂安吳氏)의 시조는 오사룡(吳士龍)이다.
그는 고려 때 삼사좌윤(三司左尹)을 지내고 외적을 토벌한 공으로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고 낙안군(樂安郡)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낙안(樂安)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낙안은 전라남도 승주군(昇州郡)에 속하는 지역이다. 본래는 백제 때 분차군(分嵯郡)·분사군(分沙郡)인데, 신라 경덕왕 때 분령군(分嶺郡)으로 개명하였으며, 고려 시대에 낙안군으로 개칭하여 나주에 속하게 하였다. 1172년(명종 2)에 현(縣)으로 승격되었는데, 선조 때 군(郡)이 되었다가 1908년(융희 2)에 순천군과 보성군 두 군데 갈라서 편입되었다.
역사인물로는 8세손 척지(陟之)가 세종 때 사마시에 합격한 뒤 경연관(經筵官)을 역임하였다. 척지(陟之)의 아들 백안(伯顔)이 세조 때 문과에 급제하고 이조참판·홍문관대제학 등을 역임하였으며, 손자 원로(元老)가 통훈대부에 올라 광주목(光州牧)의 교수(敎授)를 지냈다.
그 밖에 정헌대부에 올라 병조판서에 추증된 철검(哲儉), 통정대부에 오른 경홍(景弘)·경의(景毅) 형제와 희기(喜麒),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석성군(石城君)에 봉해진 연(連), 훈련참군(訓鍊參軍)을 지낸 흡(洽), 통훈대부로 칠원현감(漆原縣監)을 역임한 시준(時俊), 가선대부로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한 덕근(德根)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안 오씨는 파주시에 총 7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복 오씨(同福吳氏)

동복 오씨(同福吳氏)의 시조는 오녕(吳寧)이다.
그는 고려 고종 때 거란을 토벌한 공으로 동복군(同福君)에 봉해졌다. 그 후 후손들이 동복(同福)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동복은 전라남도 화순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백제 때 두부지현(豆夫只縣)인데 신라 경덕왕 때 동복현(同福縣)으로 개명하였고, 고려 초에는 보성에 편입시켰다가 후에 다시 설치하였다. 1394년(태조 3)에 화순(和順)에 편입시켰고, 1405년(태종 5)에 복순(福順)으로 개칭하였다가 1416년(태종 16)에는 현으로 복구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쳐 지금은 동복면으로서 화순군(和順郡)에 편입되어 있다.
역사인물로는 녕(寧)의 손자 대승(大陞)이 원종 때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시중(侍中)에 이르렀으며, 증손 광찰(光札)이 대장군(大將軍)을, 5세손 선(璿)이 판판도낭사(判版圖郞事)를 거쳐 상호군(上護軍)을 역임했고, 6세손 잠(潛)이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거쳐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로 귀성군(龜城君)에 봉해졌다.
조선에서는 세현(世賢)의 아들 억령(億齡)과 백령(百齡) 형제가 유명하였는데, 억령(億齡)은 선조(宣祖) 대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호당(湖當)에 뽑히고 대사헌 5회, 형조판서를 3회나 역임하였다. 동생 백령(百齡)도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광해군때 동부승지로 복천군(福川君)에 봉해지고 인조 때 도승지·대사헌을 거쳐 이조참판·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억령(億齡)의 세 아들 익(翊)·정(靖)·전이 모두 문과 에 급제하여 문한가(文翰家)로 이름을 날렸다. 뿐만 아니라 백령(百齡)의 맏아들 준(竣)이 효종 때 예조판서로 지춘추관사(知春秋官事)가 되어 『인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했다. 둘째 아들 단(端)은 인평대군(麟平大君)의 장인(丈人)으로 장령·전주부윤(全州府尹)을 거쳐 황해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정일(挺一)은 도승지(都承旨)로 『효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정위(挺緯)도 우참찬에 이르러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정창(挺昌)은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백령(百齡)의 증손들도 뛰어나 정일(挺一)의 아들인 시만(始萬)은 대사간에 올랐다. 정원(挺垣)의 아들 시수(始壽)가 우의정을 지냈으며, 정규(挺奎)의 아들인 시복(始復)도 이조판서를 역임하였으며 글씨에 능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복 오씨는 파주시에 총 45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동복 오씨 승지공파(承旨公波)는 고려말에 승지를 지내고 귀성군(龜城君)에 봉해진 오잠(吳潛)을 입향조(入鄕祖)(入鄕祖)로 하는 후손이다. 주요 인물로는 이조정랑과 사간원집의를 지낸 오억령(吳億齡, 1552~1618) 등이 있다.

보성 오씨(寶城吳氏)

보성 오씨(寶城吳氏)의 시조는 오현필(吳賢弼)이다.
오수권(吳守權)의 셋째 아들인 그는 고려 명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고종 때 형인 현보(賢輔)·현좌(賢佐)와 함께 거란을 토평한 공으로 보성군(寶城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보성(寶城)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보성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복홀군(伏忽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보성군(寶城郡)으로 고쳤고, 고려 태조는 삼양군(三陽郡)이라 하였으며, 996년(성종 15)에 패주(貝州)로 개칭하였다가 1668년(현종 9) 전라도에 소속되면서 다시 보성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손자 한경(漢卿)이 삼사우사(三司右使)를 거쳐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를 지냈고, 6세손 사충(思忠)이 공민왕(恭愍王)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대사성(大司成)과 좌상시(左常侍)를 역임하였다. 조선이 개국하자 사충은 좌명개국삼등공신(佐命開國三等功臣)이 되었고 영성부원군(寧城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이어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와 정당문학(政堂文學)을 거쳐 판사평부사(判司平府事)를 지냈다. 현필(賢弼)의 7세손 천복(天福)도 문하시랑평장사를 역임하고 보성부원군(寶城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천복(天福)의 아들 점(漸)이 조선)에서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고려 말에 대장군을 지내고 이성계를 추대하는데 공을 세운 몽을(蒙乙)은 개국공신에 책록되었고, 강원도도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 보성군(寶城君)에 봉해졌다.
자경(子慶)은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적개이등공신으로 보성군(寶城君)에 봉해졌으며,
그 밖에 대제학을 지낸 천을(天乙), 이조판서를 지낸 연찰(延札), 한성판윤에 이른 집(執), 형조판서에 오른 성(誠)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성 오씨는 파주시에 총 51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오씨(蔚山吳氏)

울산 오씨(蔚山吳氏)의 시조는 오연지(吳延祉)이다.
『울산오씨족보(蔚山吳氏族譜)』에 의하면 그는 고려 때 군기감(軍器監)을 지내고 중서시랑평장사를 역임하였다. 동남 변경에 출몰한 왜구를 토평하여 학성군(鶴城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울산(蔚山)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울산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굴아화촌(屈阿火村)인데 파사왕(婆裟王)이 현(縣)을 두었고 경덕왕(景德王)은 하곡(河曲)으로 개명(改名)하여 임관(臨關)의 영현(領縣)으로 삼았으며 고려 태조는 흥려부(興麗府)로 승격시켰다. 그 후 여러 변천을 거쳐 1397년(태조 6) 진(鎭)을 두었고 1413년(태종 13)에는 진(鎭)을 파(罷)하고 울산(蔚山)으로 개칭하여 지군사(知郡事)로 삼았다. 1599년(선조 32) 부(府)로 승격하였고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어 1931년 울산면이 울산읍으로 승격하였으며 1962년 읍이 울산시(蔚山市)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손자 수천(受天)이 고려에서 정의대부(正義大夫)로 좌부대언(左副代言)을 지냈으며, 증손 식(湜)이 조선 태종 때 형조참의·전라도도관찰사를 거쳐 경주부윤 겸 병마절도사에 이르렀다.
5세손 흠로(欽老)는 세종 때 사마시에 급제하여 제용판관(濟用判官) 및 황주판관(黃州判官)을 지냈다. 또한 이괄의 난 때 왕을 호종한 공으로 진무공신(振武功臣)에 책록된 도남(道男)과 장사랑(將仕郞) 적남(迪男), 그리고 현감(縣監)을 지냈으며 경사(經史)에 깊은 조예가 있어 덕망(德望)이 높았던 탁(琢) 등이 유명하였다.
그 밖에 가선대부로 한성부판윤을 지낸 환(瓛), 첨지중추부사에 이른 필제(必濟),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오른 찬웅(贊雄), 동지돈녕부사를 역임한 병규(炳奎)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오씨는 파주시에 총 2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 오씨(長興吳氏)

장흥 오씨(長興吳氏)의 시조는 오천우(吳天佑)이다.
보성 오씨의 시조 장현필(長賢弼)의 6세손인 사충(思忠)의 둘째 아들인 그는 조선에서 병마절도사를 역임했다. 그 후 후손들이 장흥(長興)에 정착 세거하면서 보성 오씨에서 분적하여 장흥(長興)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장흥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의 오차현(烏次縣)인데 신라 때 오아(烏兒)로 개칭되어 보성군에 속해 있다가 고려 때 영암(靈岩)에 소속되고, 인종 때 장흥부(長興府)로 승격되었다. 1265년(인종 6)에 회주목(懷州牧)으로 승격되었다가 1310년(충선왕 2)에 다시 장흥부가 되었다. 그 이후 많은 변천을 거쳐 1895년에 장흥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조선에서 대제학을 역임한 섭의(燮宜), 목사를 지낸 신언(愼言),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낸 신행(愼行)이 있다. 또 어모장군(禦侮將軍)으로 용맹을 떨친 계은(繼殷), 중추부사(中樞府事)를 역임한 린(麟)·언신(彦信) 등도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흥 오씨는 파주시에 총 4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해 오씨(平海吳氏)

평해 오씨(平海吳氏)의 시조는 오극중(吳克中)이다.
『평해오씨세보(平海吳氏世譜)』에 의하면 오극중은 고려에서 문하시중을 역임하고 동지중추원사에 추증되었다고 한다. 그 후 후손들은 선조(先祖)의 세거지인 평해(平海)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평해는 경상북도 울진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근을어현(斤乙於縣)인데 고려 초에 평해(平海)로 고치고 현종 때 에 예주(禮州: 영해)에 속하였다가 충렬왕 때 군(郡)으로 승격하였다. 1913년 울진군에 병합하여 지금은 울진군에 속한 평해면(平海面)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 극중(克中)의 아들 종인(宗仁)은 고려에서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 문하성사(門下省事)를 지냈으며, 손자 경(璥)은 조선에서 상호군(上護軍)·이부상서(吏部尙書)를 역임하였고, 5세손 시의(時義)는 단종 때 자선대부로 이조참판을 지냈다.
그 밖에 보문각직제학(寶文閣直提學)을 지낸 문서(文瑞), 부호군(副護軍)을 지낸 문경(門慶),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역임한 득령(得齡), 어모장군(禦侮將軍)에 오른 언록(彦祿), 절충장군에 이른 이화(以華), 호조참판을 지낸 희팔(希八)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해 오씨는 파주시에 총 2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 오씨(咸陽吳氏)

함양 오씨(咸陽吳氏)의 시조는 오광휘(吳光輝)이다.
그는 고려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좌복야(左僕射)를 지냈고 명종조에 흥위위상장군(興威衛上將軍)으로 명주(溟州)에 출몰한 외적을 격퇴시킨 공으로 추충정란광국일등공신(推忠靖亂匡國一等功臣)에 책록되었다. 이어 삼중대광·금자광록대부에 오르고 함양부원군(咸陽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보성 오씨에서 분적하여 본관을 함양(咸陽)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함양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의 속함군(速含郡)인데 경덕왕이 천령군(天嶺郡)으로 고쳤다. 고려 현종(顯宗) 때 함양군(咸陽郡)이 되어 합주(陜州: 합천)에 속하였다가 함(含)을 함(咸)으로 고쳐서 함양(咸陽)이 되었다. 1172년(명종 2) 함양현(咸陽縣)으로 강등되었으며 조선 태조 때 군(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아들 홍예(洪芮)가 정의대부(正義大夫)에 올라 함양군(咸陽君)에 봉해졌으며, 손자 유(裕)가 호부상서를, 증손 세룡(世龍)이 조선에서 대사성을 역임하였다. 또한 세룡(世龍)의 아들 중원(仲元)이 이조판서를 지냈고, 손자 엄(儼)이 대사헌과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양 오씨는 파주시에 총 21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 오씨(咸平吳氏)

함평 오씨(咸平吳氏)의 시조는 오잠(吳岑)이다.
오현보(吳賢輔)의 넷째 아들인 그는, 고려 원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은자광록대부(銀紫光祿大夫)에 올라 문하시중평장사를 지냈으며, 삼중대광·검교·태자태사를 역임하였고 좌명공신으로 함풍군(咸豊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함평(咸平)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함평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함풍(咸豊)과 모평(牟平) 두 2현(縣)의 이름을 합한 것이다. 함풍현(咸豊縣)은 본래 백제의 굴내현(屈乃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함풍현으로 고쳤고, 모평현(牟平縣)은 다지현(多只縣)을 다기현(多岐縣)으로 개칭하고 무안군(務安郡)에 이속되었다가 고려 태조 때 모평현(牟平縣)으로 하였다. 그 후 1409년(태종 9) 함풍현과 모평현을 병합하여 함평(咸平)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잠(岑)의 아들 진후(進厚)가 문과에 급제하고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올라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냈으며, 손자 사총(思摠)은 은자광록대부(銀紫光祿大夫)로 좌복야(左僕射)를 역임하였고, 사총의 아들 공요(公孝)는 군기감 직장(軍器監直長)을 역임하였다.
그 밖에 주부(主簿)를 지낸 손계(孫啓),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서(瑞), 효행이 뛰어났던 영(齡)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평 오씨는 파주시에 총 1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주 오씨(海州吳氏)

해주 오씨(海州吳氏)의 시조(始祖)는 오인유(吳仁裕)이다.
그는 본래 송나라 때 이름 높았던 대학사(大學士)였는데, 984년(성종 3) 고려에 들어와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을 역임하였고 황해도 해주(海州)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해주(海州)를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해주는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조선 이후 대방군에 속하여 고죽(孤竹)으로 불렸고, 고구려 때에는 내미홀(內米忽)·지성(池城)·장지(長池) 등으로 불렸다. 통일신라 때 폭지군(瀑池軍)으로 고쳤고, 고려 태조가 해주(海州)라는 이름을 내렸다. 성종 때 와서는 별호로 대령(大寧)·서해(西海)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역사인물로 고려에서는 1107년(예종 2)에 윤관(尹瓘)과 함께 여진족을 토벌하여 용맹을 떨쳤던 명장 연총(延寵)이 이부상서(吏部尙書)를 거쳐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에 올랐으며, 찬성사(贊成事)에 이른 한경(漢卿), 그리고 광정(光庭)이 공조전서를 역임하였다.
조선에서는 윤겸(允謙)이 인조반정 후 노서(老西)의 영수(領袖)가 되어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그의 조카 달제(達濟)는 병자첨화삼학사(丙子斥和三學士)의 한 사람으로 병자호란 때 청과의 화의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심양(瀋陽)으로 이송되어 살해되었으며,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도일(道一)은 병조판서를 지냈으며, 현손 명항(命恒)은 병조판서를 역임한 후 분무일등공신(奮武一等功臣)에 올라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에 봉해졌고 우찬성에 이르렀다. 태주(太周)는 현종(顯宗)의 부마로 해창위(海昌尉)에 봉해졌고, 원(瑗)은 대제학에 이르렀다. 재순(載純)도 학문으로 당대에 뛰어났고 양관 대제학(兩館 大提學)을 역임하여 부자(父子) 대제학(大提學)으로 이름이 났다.
근대 인물로는 조선 말 개화의 선각자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 등의 소장 정치인들에게 개화사상을 고취시켰고, 금석학(金石學)과 서예에 일가를 이룬 경석(慶錫),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었던 세창(世昌),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을 조직하여 무장항일운동을 벌이다 붙잡혀 옥사한 동진, 한국 의학(醫學)의 개척자요 사회사업에 진력하여 많은 공을 세운 긍선(兢善), 『폐허(廢墟)』 동인으로 문단에 나와 초창기 시단(詩壇)의 선구자였던 공초 상순(相淳)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주 오씨는 파주시에 총 3,90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해주 오씨 입향조(入鄕祖)는 경기도관찰사와 형조판서 등을 지낸 충정공(忠貞公) 두 인(斗寅, 1624~1689)으로 파주의 풍계사(豊溪祠), 광주(光州)의 의열사(義烈祠), 양성(陽城: 지금의 경기도 안성)의 덕봉서원(德峰書院), 의성(義城)의 충렬사(忠烈祠)에 배향되었다.
주요 인물로는 임진왜란 당시 겪은 일상을 기록한 희문(希文, 1539~1613)의 『쇄미록(瑣尾錄)』은 보물 제1096호로 지정되었다. 탄현면, 당하동, 금촌동, 운정동 등 파주 전역에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매년 시제는 안성시 양성면 선비마을 덕봉마을의 경모재에서 지낸다. 선영은 탄현면 갈현리와 당하동에 있는데 당하동 선영은 연천으로 옮겨갔다.

화순 오씨(和順吳氏)

화순 오씨(和順吳氏)의 시조는 오원(吳元)이다.
보성 오씨의 시조 오현필(吳賢弼)의 셋째 아들인 그는 화순(和順)에 세거하였다. 후손들이 보성 오씨에서 분적하여, 본관을 화순(和順)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화순은 전라남도에 위치는 지역이다. 백제 잉리아현(仍利阿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여미(汝湄)로 고치고 능성군(綾城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으며, 고려 초에 화순(和順)으로 고쳐 나주에 속했다가 후에 능성(綾城)에 편입시켰고, 공양왕 때 다시 설치하였다. 이후 여러 번 변천하다가, 1611년(광해군 3) 화순현을 설치하였으며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되었다. 1914년 능주·동복의 양군을 합하였고 1963년 화순면이 화순읍으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원(元)의 7세손 순공(順公)이 고려에서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를 거쳐 동정(同正)을 지냈고, 조선에서는 상린(尙麟)이 영조 때 정시문과(庭試文科)에 합격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성균관전적을 역임하였고, 그의 아들 사충(思忠)이 1404년(태종 4) 삼맹훈신(三盟勳臣)으로 보국숭록대부에 올라 영성군(寧城君)에 봉해졌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순 오씨는 파주시에 총 2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령 옥씨(宜寧玉氏)

옥씨(玉氏)는 중국에서 나온 성씨이다. 우리나라 옥씨(玉氏)의 연원은 고구려의 요청에 의해 당나라에서 파견된 8재사(八才士) 중의 한 사람인 옥진서(玉眞瑞)가 신라에서 국학교수(國學敎授)를 역임하고, 의춘군(宜春君, 의춘은 의령의 별칭)에 봉해져 의령(宜寧)에 정착 세거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문헌의 실전으로 선계를 상고할 수 없다. 후손들은 본관을 의령(宜寧)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고려 때 창정(倉正)을 지낸 옥은종(玉恩宗)을 일세조로 하는 계통과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한 옥여(玉汝)를 일세조로 하는 계통으로 나뉘어졌다.
의령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장함현(獐含縣)인데 경덕왕 때 의령으로 고쳐서 함안군(咸安郡)에 속했으며, 고려 때 진주(晋州)에 편입되었다가 공양왕 때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때 현(縣)으로 승격된 뒤 1895년(고종 32)에 의령군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규(珪)가 고려에서 평장사를 역임하였으며, 학문이 깊고 청렴결백했던 고(沽)는 조선 정종 때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학사(集賢殿學士)·정언(正言)·교리(校理) 등을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령 옥씨는 파주시에 총 8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구 온씨(金溝溫氏)

온씨(溫氏)는 고구려 평원왕(平原王) 때 평강공주(平岡公主)와 혼인하여 평원왕의 사위가 된 온달로부터 혈통이 시작된다. 고구려 보장왕 때 온사문(溫沙門) 장군은 당나라 설인귀가 이끄는 침공군을 횡산에서 물리쳤다.
금구는 전라북도 김제시에 속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구지산현(仇知山縣)인데, 신라 경덕왕 때 금구현(金溝縣)으로 개명되어 전주(全州)의 관할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금구군으로 개편되었으나, 1914년 금구면(面)으로 축소되어 김제군에 통합되었다.
금구 온씨의 시조는 온신(溫信)이다.
그는 우부시랑(右部侍廊)으로 공민왕 15년에 신돈(辛旽)의 전횡을 탄핵하다 거야(巨野)에 유배되었다. 온신의 7세손 온효진이 함경도 북청군에 살면서 호적의 오기로 청주 온씨로 분관이 되었으며, 온선과 온신의 14세손 온희영이 경주에 살면서 경주로 분관이 되었다.
함경남도 북청군을 본관으로 하는 청주 온씨(淸州溫氏)는 온의득(溫儀得)·온창봉(溫昌奉)이 1784년(정조(正祖) 8년) 무과에 급제하였는데 거주지는 함경도 홍원(洪原)과 북청(北靑)이었다.
그 외에 단양 온씨, 온양 온씨 등이 있으나 모두 같은 혈손이라며 온달을 도시조로 하고 온씨중앙종친회를 구성하였다.
금구 온씨는 조선시대 무과 급제자 2명, 생원·진사 4명을 배출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구 온씨는 파주시에 총 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 왕씨(開城王氏)

개성 왕씨(開城王氏)는 누대에 걸쳐 송악지방에 세거해 온 호족(豪族)의 집안으로서, 고려 때 원덕대왕(元德大王)에 추존된 국조(國祖)를 시조로 하고 있다. 그의 증손으로 후삼국을 평정하고, 500년 고려왕조의 문호를 연 이가 태조(太祖) 왕건(王建)이다.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475년 동안 왕조를 유지하다가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으로 왕업(王業)이 무너지면서 잔인한 정치적인 보복에 멸족(滅族)의 참변을 당하여 전(全)·옥(玉)·금(琴)·전(田)씨 등으로 변성(變姓)하고 혈맥(血脈)을 유지하였다. 조선 정조 때 와서 왕씨로 환성(還姓)하고 송악의 옛 지명인 개성(開城)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개성은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려의 수도로 처음에는 송악(松岳)·송도(松都)·개경(開京)·부소갑(扶蘇岬)·동비홀(冬比忽)·촉막군(蜀莫郡) 등으로 불렸다. 919년(고려 태조 2) 1월 수도를 철원(鐵原)에서 이곳 송악산(松岳山) 남쪽으로 옮긴 후 개주(開州)라 불렀고, 960년(광종 11)에 황도(皇都)로 고쳤다가, 995년(성종 14) 개성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교서감(校書監)을 지낸 미(亹)부터 뼈저린 수난의 역경을 딛고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흥(興)은 선비(善妃: 우왕의 비)의 아버지로 우왕 초에 전공판서(典工判書)를 지냈으며, 조선 개국 후 문하평리(門下評理)를 거쳐 상의문하부사(商議門下府事)에 이르렀다. 단종 때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지낸 방연(邦衍)은 폐위된 상왕(上王) 노산군(魯山君: 단종)을 강원도 영월까지 호송하고 돌아왔으며, 인조 때 부제학(副提學)에 오른 희걸(希傑)은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고 그림에도 일가를 이루었고, 의성(義成)은 선조 때 의병을 일으켜 청주(淸州) 전투에서 공을 세워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한말의 독립운동가인 재일(在一)은 광주고보(光州高普)에 다니면서 비밀단체인 성진회(醒進會)를 조직하여 광복운동에 앞장섰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성 왕씨는 파주시에 총 22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천 용씨(洪川龍氏)

홍천은 강원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벌력천현(伐力川縣)인데, 신라 때 녹효(綠驍)로 고쳐 삭주(朔州)의 영현(領縣)이 되었다가 1018년(현종 9)에 홍천이라 개칭하고 삭주에 그대로 예속시켰으며, 1143년(인종 2)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1413년(태종 13)에 홍천현이 되었다가 1895년(고종 32)에 춘천부(春川府) 홍천군이 되었으며, 1896년 13도제(道制) 실시로 홍천군이 되었다.

홍천 용씨(洪川龍氏)의 시조는 용득의(龍得義)이다.

그는 고려 때 시어사(侍御史)를 거쳐 1241년(고종 28) 문하시중에 올라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불사(佛事)를 총지휘하였으며,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에 용수사(龍遂寺)를 창건하여 불전(佛典) 전수와 불교(佛敎) 전파에 여생을 바쳤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홍천(洪川)에 정착 세거하면서 홍천(洪川)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역사인물로는 득의(得義)의 6세손 희수(希壽)가 이성계 잠저 시(潛邸時)에 오랫동안 시종한 공으로 조선이 개국하자 개국공신이 되었고 공조·예조판서를 역임하였으며, 그의 아들 천기(天奇) 역시 개국공신으로 정종 때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또한 진충호종공신(盡忠扈從功臣)으로 공조판서를 역임한 서연(瑞衍)과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를 지낸 맹손(孟孫),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역전의 무공을 세운 협(協), 호종원종공신(扈從原從功臣)에 책록된 운(雲)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천 용씨는 파주시에 총 13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 우씨(丹陽禹氏)

단양 우씨(丹陽禹氏)의 시조는 우현(禹玄)이다.
문헌에 따르면 우씨는 단양(丹陽)지방의 거대한 호족 세력의 후예로 고려조에 이르러 득성(得姓)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현(禹玄)은 단양에 정착 세거하면서 고려 현종 때 진사로 등과하여, 정조(正朝)·호장(戶長) 등을 지내고, 문하시랑평장사에 추증되었다.
단양은 충청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고구려의 적산현(赤山縣)이었는데 신라 때 내제군(奈堤郡)의 영현(領縣)으로 만들어졌다가 고려 초에 단산현(丹山縣)으로 고쳤다. 현종(顯宗) 9년 원주(原州)에 속하였다가 뒤에 충주에 붙였고 이때에 현인(縣人)의 충의(忠義)가 능히 홍건적(紅巾賊) 난을 물리쳐 그 포상으로 감무(監務)를 두었다. 충숙왕 5년에 지금 이름으로 고쳐 군으로 승격되어 지단양군사(知丹陽郡事)가 파견되었으며 조선태종 때 단양군으로 되었고, 1914년 영춘군(永春郡)을 합해 오늘에 이르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양 우씨는 파주시에 총 1,97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단양 우씨 정평공파의 파시조(派始祖)는 10세 정평공(靖平公) 우인열(禹仁烈, 1337~1403)을 분파시조로 하는 정평공파 후손들이며 파조 우인열의 증손 우연(禹埏)의 종손파가 34세 이상 탄현면을 중심으로 세거 했다.
21세 우식(禹湜, 1632~1666)이 17세기에 탄현면 만우리로 분가하여 정착하였으며 우식의 묘는 만우리 보현산에 있다. 만우리에는 한때 단양 우씨가 70호 이상 거주하던 집성촌이었으나 현재는 30여 호 이내가 거주하고 있다..
정평공파 후손들은 법원읍 법원4리 초리골에도 15호 내외가 살고 있으며 문산읍 내포리에 당륜 낙원 우능이 자리 잡고 있다.
양주시 백석면에서 들어 온 단양 우씨 안정공파 후손들은 광탄면 신산 1, 2리 동골이와 양수원마을에 10여 호 살고 있으며 매년 10월 10일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양주시 백석면이다.

원주 원씨(原州元氏)

원씨(元氏)는 중 하남(河南)에서 나온 성씨로 주(周)나라 양왕(襄王) 때 위대부(衛大夫)에 봉해진 원훤(元咺)의 후예로 전한다. 우리나라 원씨(元氏)의 시조는 643년(보장왕 2) 당나라 태종(太宗)이 고구려에 문화사절로 파견한 8학사(八學士)중의 한 사람인 원경(元鏡)이다.
원주는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평원군(平原郡)이라 불리다, 940년(고려 태조 23) 원주(原州)로 고쳤다. 그 후 일신현(一新縣)·정원도호부(靖原都護府)·익흥도호부(益興都護府)·성안부(成安府) 등으로 변천해 오다가 1353년(공민왕 2)에 원주목(原州牧)으로 하였다. 1895년(고종 32) 원주군(原州郡)이 되었으며 1955년 일부가 원주시(原州市)로 승격되고 나머지는 원성군(原城郡)이 되었다.
원주(原州)를 단본으로 하는 원씨는 동원(同源)이면서도 계보를 달리하는 운곡공계(耘谷公系: 원경을 시조로 함)·원성백계(原成伯系: 원성백 원극유를 시조로 함)·시중공계(侍中公系: 시중 원익겸을 시조로 함) 등 크게 세 계통으로 갈라져서 계대하고 있다. 상호군(上護軍)을 지낸 원충갑(原沖甲)을 시조로 하는 충숙공계(忠肅公系)가 있었으나 최근에 그가 원성백계(原城伯系) 극유(克猷)의 11세손임이 밝혀져 합보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운곡공계(耘谷公系)에서는 호장(戶長) 극부(克富)의 7세손 천석(天錫)이 유명했다. 그는 고려 말에 이성계(李成桂)일파의 득세로 조정이 혼란해지자 고향인 원주(原州) 치악산(雉岳山)에 들어가 이름을 감추고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봉양했다. 학문과 문장이 당세에 유명하여 방원(芳遠)을 가르친 스승이었으나 절의를 지켰던 고려의 충신이었다. 아들 진해(振海)는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내고 글씨에 뛰어나 필명(筆名)을 떨쳤다.
고려개국공신으로 원성백(原城伯)에 봉해졌던 극유(克猷)의 후손에서는 부(傅)가 고려 원종 때 추밀원부사를 거쳐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長事)를 지냈으며, 충렬왕 때는 감수국사(監修國史)로서 『고금록(古今錄)』의 편찬에 참여하고 첨의중찬(僉議中贊)에 이르렀다. 송수(松壽)는 홍건적의 난 때 왕을 호종하여 피난한 공으로 일등공신에 올랐으며, 공민왕 때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신돈의 미움을 받아 파직되어 그 울분으로 병사했다.
시중공계(侍中公系)에서는 별장(別將) 헌(憲)의 아들 호(昊)가 유명했다. 1423년(세종 5) 식년문과에 급제했던 그는 수양대군(首陽大君)의 왕위(王位) 찬탈 음모가 무르익어 가자 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으로 있다가 병을 핑계하고 벼슬을 버린 후 원주(原州) 남송촌(南松村)에 은거하였다. 호(豪)는 1567년(명종 22) 무과(武科)로 진출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구미포(龜尾浦)·마탄(馬灘)·운무(雲霧) 등지의 작전에서 전공을 올려 적진을 여주에서 완전히 봉쇄했던 지장(知將)이었다. 여주목사 겸 경기·강원도방어사가 되어 북로(北路)의 왜군 토벌 임무를 맡고 김화(金化)로 진군 도중 적의 복병을 만나 포위되어 깊은 산 낭떠러지 끝으로 몰리게 되자 투신하였다.
호(豪)의 아들 유남(裕男)은 1583년(선조 16) 무과에 급제하여 일찍부터 용력(勇力)으로 이름을 떨쳤고,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3등공신(政社三等功臣)으로 원계군(原溪君)에 봉해졌다. 그 밖에 경하(景夏)가 영조(英祖)때 이조 및 병조의 판서(判書)를 지내고 판돈녕부사(判敦寧副事)로 치사(致仕)하여 봉조하(奉朝賀)가 되었고, 그의 아들 인손(仁孫)은 우의정을 역임하였고, 계손(繼孫)은 시(詩)·서(書)에 뛰어났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주 원씨는 파주시에 총 1,25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원주 원씨 시중공파는 파주읍 연풍리에 세거하고 있으며 원주원씨 시중공파 족보를 소장하고 있다.

장흥 위씨(長興魏氏)

위씨(魏氏)는 중국 주(周)나라 혜왕(惠王) 때 진헌공(晋獻公)에 봉해진 필만(畢萬)의 후손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 위씨의 시초는 당나라 관서(關西) 홍농(弘農) 사람인 위경(魏鏡)인데, 그는 신라 태종(太宗)때 대광공주(大光公主)를 배종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경(鏡)의 동래설(東來設)은 또 다른 설(設)이 있는데, 신라 왕이 도예지사(道藝之士)를 청했을 때 당나라 태종(太宗)이 파견한 8학사 중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 왔다고도 한다. 경(鏡)은 신라에서 문하습비후(門下拾非候)·아찬(阿飡)·상서시중(尙書侍中)을 역임하고 회주군(懷州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관향을 장흥(長興)으로 하였다. 그러나 문헌의 실전으로 세계를 상고할 수 없어 신라 말에 대각관시중(大覺官侍中)을 역임한 위창주(魏菖珠)를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장흥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의 오차현(烏次縣)인데 신라 때 오아(烏兒)로 개칭되어 보성군에 속해 있다가 고려 때 영암(靈岩)에 소속되고, 인종 때 장흥부(長興府)로 승격되었다. 1265년(인종 6)에 회주목(懷州牧)으로 승격되었다가 1310년(충선왕 2)에 다시 장흥부가 되었다. 그 이후 많은 변천을 거쳐 1895년에 장흥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창주(菖珠)의 5세손 계정(繼廷)이 고려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이부상서(吏部尙書)·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문하시중(門下侍中)을 역임하였고, 원개(元凱)가 한림학사(翰林學士)와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10세손 온(溫)이 문하시중과 평장사를 역임하여 가문을 중흥시켰다.

조선에서는 덕의(德義)가 임진왜란 때 선조(宣祖)의 의주(義州)로 몽진 소식을 듣고 석 달을 걸어 의주까지 찾아가 왕을 모시는 충성을 보였다. 또한 임진왜란 때 고경명·김천일 등과 함께 전공을 세우고 형조참의에 제수된 대용(大用)과 이순신 휘하의 조전장(助戰將)으로 율포(栗浦)·목포(木浦) 등지에서 왜적을 무찔러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에 이른 대기(大器), 그리고 영조 때 호조참의를 역임한 창조(昌祖) 등이 있다.

그 밖에 백규(佰圭)는 당대의 석학으로 이름났다. 그는 자신의 독자적인 경세철학(經世哲學)을 체계화했으며 90여 권의 책을 저술하여 백과전서격 학문을 집대성하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보다 91년이나 앞서 조선전도(朝鮮全圖)를 그렸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흥 위씨는 파주시에 총 17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유씨(杞溪兪氏)

기계 유씨(杞溪兪氏)는 신라 때 아찬(阿飡)을 역임한 유삼재(兪三宰)를 시조로 받들고, 그의 후손 유의신(兪義臣)이 신라가 망하자 고려조에 불복하자 태조가 기계호장(杞溪戶長)을 삼으니 후손들이 기계(杞溪)를 본관으로 삼았다. 기계유씨는 의신(義臣)의 종파인 동정공파(同正公派)·월성군(月城君) 승추(承樞)의 계통인 월성군파(月城君派)·동정(同正) 진적(晋迪)의 계통인 장사랑공파(將仕郞公派) 등 크게 열다섯 파로 갈라져서 세계를 이어왔다.

기계는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모혜현(芼兮縣)인데 경덕왕 때 기계현으로 개명하여 의창군(義昌郡)에 예속시켰으며 1018년(현종 9)에 경주(慶州)에 속했다가 후에 폐현(廢縣)이 되었고 현재는 영일군에 편입된 기계면(杞溪面)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사재감주부(司宰監主簿) 여해(汝諧)의 후손인 전서(典書) 현(顯)의 아들 효통(孝通)이 태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세종 때 대사성과 집현전직제학을 지냈다. 그는 문장에 능하고 의약에 정통하여 전의감정(典醫監正) 노중례(盧重禮)와 함께 약용식물(藥用植物)을 정리한 『향약채집월령(鄕藥採集月令)』과 의서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을 편찬, 문명을 떨쳤다.

사육신의 한 사람의 유명한 응부(應孚)는 기계유씨가 자랑하는 인물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세종과 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평안도병마절제사(平安道兵馬節制使)를 거쳐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에 이르렀으나 성삼문·박팽년 등과 더불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화를 입었다.

참판(參判) 해(解)의 아들인 기창(起昌)은 연산군 때 만포진첨제절사(滿浦鎭僉節制使)가 되었으나 직간(直諫)을 하다가 다른 동료 세 사람과 함께 거제도에 유배되었다. 기창의 아들 여림(汝霖)과 여주(汝舟)는 신진 사류인 정암 조광조(趙光祖)의 기묘현량(己卯賢良)으로, 형인 여림은 예조판서를 지냈으나 아우 여주는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자 한산(韓山)에 임벽당(林碧堂)을 짓고 독서와 서예(書藝)로 일생을 마쳤으며 글씨에 뛰어나 명필(名筆)로 일컬어졌다.

여림의 아들 강(絳)은 중종 때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동부승지(同副承旨)와 대사간(大司諫)·대사헌(大司憲) 등을 거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청(淸)나라를 다녀왔으며 병조참판과 한성부판윤, 공조조판서를 지냈다.

그 밖에 정조 때 우의정에 올랐던 언호(彦鎬), 서예(書藝)에 능했던 한지(漢芝), 조선 말기의 성리학자(性理學者) 신환(莘煥), 고종 때 경상도관찰사를 지내고 판서에 오른 치선(致善), 한말에 한성부민회장(漢城府民會長)을 지낸 길준(吉濬), 새 정부 수립을 위한 헌법을 기초한 진오(鎭午)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계 유씨는 파주시에 총 1,09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기계 유씨는 진사공파가 뿌리를 내렸다. 파시조를 대숙(大叔, 1526~1581)으로 하고 14대조 병덕(炳德)을 입향조(入鄕祖)로 한다. 교하 하지석리 썩은밤이에 2~3호가 살고 있으며 매년 10월 12일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탄현면 금승리 산 45이다.

무안 유씨(務安兪氏)

그는 고려 때 삼중대광으로 검교소부소감(檢校小府少監)을 역임하고 공을 세워 장사군(長沙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장사(長沙)를 본관으로 하였다. 그 후 증손 천우(千遇)가 정당문학(政堂文學)·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에 오르고 충렬왕 때 찬성사(贊成事)를 역임하였으며 사후(死後)에 무안부원군(務安府院君)에 추봉됨으로써 후손들이 이적(移籍)하여 본관을 무안(務安)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무안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의 물아혜군(勿阿兮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무안군(務安郡)으로 개칭하였고, 994년(고려 혜종 1) 물량군(勿良郡)으로 고쳤으며 성종(成宗) 때는 다시 무안으로 고쳐 나주에 소속시켰다. 1895년에 군(郡)이 되었으며 1897년 무안부(務安府)로 승격, 1914년 목포부(木浦府)를 독립시키고 나머지 지방은 무안군이 되었다.

무안 유씨(務安兪氏)의 시조는 유순직(兪舜稷)이다.

역사인물로는 천우(千遇)의 아들 영원(永元)이 은자광록대부(銀紫光祿大夫)에 올라 이부상서(吏部尙書)와 좌복야(左僕射)·전공시랑(典工侍郎) 등을 지냈으며, 손자 윤수(允粹)도 은자광록대부(銀紫光祿大夫)로 문하시랑평장사와 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을 역임하였다.

조선에서는 천의 증손인 희익(希益)이 성균관대사성에 올랐고, 인지의(印地儀)와 도성측량을 최초로 발명하는 등 지대한 공을 세웠다. 희익의 증손 세호(世豪)는 홍문관제학을 지냈고 학파 대립을 피하여 사화를 면하게 되었고 당쟁의 소용돌이도 피해가는 선견지명이 있었다.

환방(煥邦)은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으로 있을 때 경술국치를 당하자 항일조직인 애국단 충남 도단장을 지내면서 아들 경재(暻在)와 함께 항일투쟁을 벌이다 투옥되기도 했다. 국가에선 이들 부자에게 건국공로표창을 추서하고 청양 저운리에 의사비를 세워주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안 유씨는 파주시에 총 3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동 유씨(仁同兪氏)

인동 유씨(仁同兪氏)의 시조는 유승단(兪升旦)이다.
그는 고려 고종 때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거쳐 사부(師傅)를 역임하고, 인동백(仁同伯)에 봉해졌다 그러나 이후의 세계를 잃어 후손들이 고려에서 예부시랑(禮部侍郞)을 역임한 유승석(兪承碩)을 중시조로 받들고, 본관을 인동(仁同)으로 해 세계를 이어왔다.
인동은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신라 초에는 사동화현(斯同火縣)·수동현(壽同縣)이라 하다가 삼국통일 후에 인동현으로 고쳤다. 고려 때에는 경산부(京山府)·약목현(若木縣) 등에 예속되었다가 조선 선조 때 인동부(仁同府)로 승격되고 1895년 인동군이 되었으며, 1914년 군이 폐지되고 그 일부 지역은 인동면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유성렬의 증손 유면(兪勉)이 인동의 이웃 고을 선산 부근 봉황장원장(鳳凰壯元場)에 살았음이 보서(譜書)에 기록돼 있다.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던 5세손 유사철은 벼슬이 경상도관찰사에 이르렀다. 9세손 유진(兪鎭)은 조선 성종 때 홍문관의 부제학을 거쳐 경연, 참찬관, 춘추관의 수찬관(修撰官)을 역임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동 유씨는 파주시에 총 3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유씨(昌原兪氏)

창원 유씨(昌原兪氏)의 시조는 유섭(兪涉)이다.
그는 고려에서 정순대부(正順大夫)로 보문각직제학(寶文閣直提學)을 역임하였는데, 선계(先系)는 문헌의 실전으로 상고할 수 없다. 그 후 후손들은 창원(昌原)에 정착 세거하면서 본관을 창원(昌原)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창원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대에는 금관가야(金官伽倻)에 속했다. 『한국지명연혁고(韓國地名沿革考)』에 의하면 창원(昌原)은 본래 의창현(義昌縣)과 회원현(會原縣)의 합명(合名)이다. 의창(義昌)은 신라(新羅) 때 굴자군(屈自郡) 또는 의안군(義安郡)으로 불리다가 1282년(충렬왕 8)에 의창(義昌)으로 개칭되었고, 회원(회원)은 신라 때의 굴포현(屈浦縣)을 경덕왕(景德王)이 합포(合浦)로 고쳤다가 고려에 와서 회원(會原)으로 개칭하여 1413년(태종 13)에 이르러서 두 현(縣)을 합하여 창원부(昌原府)라 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창원군이 되었다. 1973년 정부의 중화학공업 시책에 따라 창원군의 상남면과 웅남면, 창원면의 일부를 마산시(馬山市)에 편입시키고 1980년에는 창원시가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섭(涉)의 아들 경(冏)이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냈고, 증손 귀생(貴生)이 조선초(朝鮮初)에 공부전서를, 현손 상지(尙智)가 직제학을, 그리고 상지의 아들 조(造)는 봉상시정(奉常寺正)을 역임하였다.
명종 때 효자로 명성을 떨쳤던 언겸(彦謙)은 문화현령(文化縣令)으로 나가 선정을 베풀어 청백리에 녹선되었고, 호조참판과 개성부유수를 지낸 창(瑒)과 그의 아들 득일(得一)은 대사헌·형조판서에 이르렀으며, 경종(景宗) 때, 형·공조판서(形·工曹判書)를 역임하고 기로소에 들어간 집일(集一)등이 당대에 뛰어났다.
그 밖에도 장령을 거쳐 필선을 지낸 신일(信一), 영조 때 사마양시에 장원급제하여 관찰사를 거쳐 대사헌에 오른 숭(崇)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 유씨는 파주시에 총 26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 유씨(江陵劉氏)

강릉 유씨(江陵劉氏)는 거창 유씨에서 분적된 계통으로 도시조(都始組) 유전(劉荃)의 9세 손 유승비(劉承備)를 시조로 받들고 있다.
고려 말에 문과에 급제했던 그는 벼슬이 누진하여 좌복야로 치사했고, 그의 증손 창(敞)이 조선개국2등공신(朝鮮開國二等功臣)에 책록되어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에 봉해져서 후손들이 본관을 강릉(江陵)으로 삼게 되었다.
강릉은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예국(濊國)의 도성지(都城地)였으며, 313년(고구려 미천왕 14)에 개칭하여 하서량(河西良)·하슬라(何瑟羅)라 하였다. 선덕여왕(善德女王) 때 소경(小京)으로 삼았다가 태종무열왕조(太宗武烈王朝)에 하서주(河西州)로 개편, 경덕왕(景德王) 때는 명주(溟州)로 고쳤고, 고려 태조가 동원경(東原京)이라 칭하고 940년(태조 23)에 다시 명주로 고쳤다. 이후 여러 번 명칭이 변경되다가 1896년 13도제 실시로 강원도 강릉군(江陵郡)이 되었고 1955년 강릉시(江陵市)가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창(敞)이 조선 태종(太宗)이 즉위하자 승녕부윤(承寧府尹)이 되어 소요산(逍遙散)에 들어간 태조를 찾아가 귀경을 권유했으며, 대제학·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 등을 역임한 후 세자이사(世子貳師)에 이르러 궤장을 하사받았다. 창(敞)의 증손 한량(漢良)은 임진왜란 때 무장현감(茂長縣監)으로 창의하여 진주성 방어에 참전, 왜적과 싸우다가 화살이 떨어지자 죽창(竹槍)으로 대전했으나 성(城)이 함락되자 남강(南江)에 몸을 던져 순절했으며, 창(敞)의 현손 세분(世玢)은 진원현령(珍原縣令)으로 나가 청백한 정사로 소문났다.
그 밖에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전투에 나갔던 덕문(德文), 전주(全州)에서 유효자(劉孝子)로 유명했던 경달(景達)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릉 유씨는 파주시에 총 2,08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강릉 유씨 병사공파는 유승비를 파시조(派始祖)로 하고 중시조는 유창이다. 경북 예천에서 파주로 옮겨와 현재 70호 가량이 파주에 살고 있다. 예전에는 문산읍에 많이 살았다. 매년 10월 15일 서울 상일동에서 시제를 지낸다.

거창 유씨(居昌劉氏)

유씨(劉氏)는 중국에서 계출된 성씨로 우리나라 유씨(劉氏)의 연원(淵源)은 유방(劉邦)의 41세손 유전(劉銓)이 송나라에서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지내고 8학사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북 영일군에 정착 세거하면서부터이다. 전(銓)은 장남 견규(堅規), 차남 견구(堅矩), 3남 견익을 두었다. 맏아들인 유견규(劉堅規)가 거타군(居陀君, 거타는 거창의 옛 지명)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거창(居昌)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거창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거열군(居烈郡)인데 경덕왕이 거창(居昌)으로 고쳤고, 1018년(현종 9) 합주(陜州: 합천)에 속하였다가 조선 태종 때 거제현(巨濟縣)과 합하여 제창현(濟昌縣)이 되었다. 후에 다시 거창이 되어 성종 때 군(郡)이 되었다가 중종 때 현으로 강등, 1658년(효종 9) 안음(安陰)에 편입시켰으며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1895년(고종 32)에 거창군(居昌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견규의 동생 견구(堅矩)가 대사헌을 지냈으며, 견구(堅矩)의 아들 웅열(雄悅)이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로 아림군(娥林君)에 봉해졌고, 견구(堅規)의 손자 성(成)이 추밀원부사와 대장군을, 증손 찬(贊)이 대사헌을 역임하여 가문을 중흥시켰다.

그 밖에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을 지낸 한작(漢灼), 집현전대제학(集賢殿大提學)을 역임한 해(海), 어모장군(禦侮將軍)에 이른 귀손(貴孫), 고려조에 장원 급제 후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 왕조를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서운관원으로 한양의 궁터를 잡은 한우(旱雨), 의금부 도사를 지낸 우삼(友參), 인조시대에 태어나 숙종 시대에 명성을 떨친 경남 산청의 전설적인 명이 이태(以泰)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창 유씨는 파주시에 총 13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천 유씨(白川劉氏)

배천 유씨(白川劉氏)의 시조는 유국추(劉國樞)이다.
도시조(都始祖) 유전(劉筌)의 8세손인 그는 고려에서 도첨의평리(都僉議評理)를 지내며 나라에 공을 세워 문하시중평장사에 추증되고 배천군(白川君)에 추봉(追封)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국추(國樞)를 시조로 받들고 거창 유씨에서 분적하여 본관을 배천(白川)으로 하게 되었다.
배천은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 도랍현(刀臘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구택(雊澤)으로 고쳐 해고군의 영현으로 삼았고, 고려 초에 배천(白川)으로 고쳤으며 현종 때 평주(平州)에 속했다가 의종 때 다시 배주로 하여 해주(海州)에 속하게 하였다. 고종 때 부흥군(復興郡)으로 승격되었으나 공민왕 때 배주로 고쳤고, 1413년(태종 13)에 배천군으로 개칭되어 경기도로부터 황해도로 옮겼고, 1526년(중종 21)에는 현(縣)으로 강등시켰다.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 1914년 연안(延安)에 병합되어 연백군(延白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국추의 아들 승(升)이 고려 명종(明宗) 때 좌복야를 역임한 후 은천군(銀川君)에 봉해졌으며, 손자 현(賢)은 진현관 대제학(進賢館大提學)을 역임하여 명망을 떨쳤다. 대제학 현(賢)의 맏아들 시준(時俊)은 예부상서를 역임한 후 부흥군(復興君)에 봉해졌고, 그의 아들 보국(補國)과 서(瑞)의 형제가 뛰어났으며, 현(賢)의 막내아들로 상장군에 올랐던 여준(汝俊)이 유명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천 유씨는 파주시에 총 12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송 유씨(茂松庾氏)

유씨(庾氏)는 본래 중국 계통의 성씨이다. 한(漢)나라 말기와 진(晋)나라 초기에 유순유(庾筍悠)가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건너와 정착하여 살면서부터 유씨(庾氏)의 시원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 후 후손 유금필(庾黔弼)이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도통대장군(都統大將軍)을 역임하면서 고려개국에 공 세워 삼중대광 통합삼한익찬공신(三重大匡統合三韓翊贊公臣)으로 태사(太師)에 추증되고 식읍을 하사받았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조상의 세거지인 평산(平山)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그 후 금필(黔弼)의 5세손 녹숭(祿崇)이 고려 숙종 때 추밀원사(樞密院使)겸 태자빈객(太子賓客)·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를 거쳐 무송부원군(茂松府院君)에 봉해지고 후손들이 무송(茂松)에 세거하게 되자 무송(茂松)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무송은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茂長面)에 두었던 통일신라 때의 행정구역명이다. 본래 백제의 송미지현(松彌知縣)인데, 신라 경덕왕 때 무송현으로 개명하였으며, 1417년(태종 17) 장사현(長沙縣)과 합하여 무장현(茂長縣)이라고 일컫다가 몇 차례의 변천을 거쳐 고창군(高敞郡)에 편입되었다.

역사적 인물로는 금필(黔弼)의 손자 방(方)이 고려 성종 때 거란군의 침입을 격퇴하여 전공을 세우고 현종 때 병부상서(兵府尙書) 겸 상장군(上將軍)을 거쳐 문하시랑평장사를 역임하였으며, 문하시중에 올랐다. 예종 때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오른 녹숭(祿崇)의 아들 필(弼)이 판이부사(判吏部事)를 지냈고 손자 응규(應奎)가 군기감(軍器監)을 거쳐 공부낭중(工部郞中)에 올랐다. 응규의 아들 자량(資諒)은 고종 때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를 역임하여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를 지낸 석(碩), 우승선(右承宣) 경현(敬玄) 등과 함께 가문을 중흥시켰다.

조선에서는 검교한성부윤(檢校漢城府尹)을 지낸 귀산(龜山)과 태종 때 관찰사를 역임한 오산(鰲山), 이조판서를 지낸 득시(得時), 그리고 좌참찬을 역임한 순도(順道) 등이 유명하였다.

그 밖에 시인(詩人)이자 바둑 국수(國手)였던 찬홍(纘洪), 독립운동가로 대한광복단을 조직하여 국권회복을 도모한 광복투사 장순(昌淳)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송 유씨는 파주시에 총 10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 육씨(沃川陸氏)

육씨(陸氏)는 중국 하남성(河南省) 평원반군(平原般郡) 육향(陸鄕)의 지명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옥천육씨대동보(沃川陸氏大同譜)』와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의하면 옥천 육씨(沃川陸氏)의 시조 육보(陸普)는 중국 절강성(浙江省) 사람으로 서기 927년 당나라 명종이 문학전례지신(文學典禮之臣)을 뽑아 신라에 선교사(宣敎師)로 보낼 때 홍은열(洪殷說)·정한(鄭僩) 등과 함께 8학사의 한 사람으로 건너와 뛰어난 공적을 쌓아 경순왕의 사위가 되었고 관성군(管城君, 관성은 옥천의 옛 지명)에 봉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육보(陸普)를 시조로 하고 옥천(沃川)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중간 계대를 실전하여 충렬왕 때 주부(主簿)를 역임한 인단(仁端)을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여 왔다.
옥천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 초기에 고시산군(古尸山郡)이라 불렸는데, 통일 이후 경덕왕 때에 관성군(管城君)으로 고쳤고, 고려 현종 때에는 경산부(京山府)에 예속되었다가 인정 때에 현(縣)이 되었다. 1181년(명종 12)에 일시 폐현되기도 하였으나 1313년(충선왕 5) 주(州)로 승격, 옥주(玉主)라 했고 경산부의 소속인 이원(伊源)·안읍(安邑)·양산(陽山) 3현을 받아들였다. 1413년(태종 13)에는 옥천(沃川)으로 개칭하고 관할도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변경하였다. 1895년(고종 32)에는 군이 되었고, 1914년에는 신라시대에 굴산현(屈山縣)·기산(耆山)으로 불리던 청산군(靑山郡)을 병합하고 학산면(鶴山面)·용화면(龍化面)· 산면(陽山面)은 영동군(永同郡)에 이관하였다. 1929년에는 이내(伊內)·이남(伊南) 두 면을 합하여 이원면(伊院面)으로 하고 청서(靑西)·청남(靑南) 두 면을 합하여 청성면(靑城面)으로 개편하였으며 1949년에는 옥천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 일세조 인단(仁端)의 손자 거원(巨遠)이 고려 말에 정랑장(中郎將)을 역임하고 슬하에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이 모두 명성을 떨쳐 가문을 크게 중흥시켰다.
맏아들 려(麗) 덕곡공파(德谷公派), 둘째 항(沆)은 공주목사공파(公州牧使公派), 셋째 비(埤)는 순찰사공파(巡察使公派), 넷째 수(綏)는 낭장공파(郎將公派)로 크게 갈라졌고, 막내인 태귀(台貴)는 손자 대에서 후손이 끊겼다.
덕곡공파(德谷公派) 려(麗)는 고려 말에 도순찰사(都巡察使)로 왜적(倭賊)을 격퇴하는 데 공을 세워 크게 이름을 날렸으며, 조선이 개국하자 절개를 지켜 벼슬을 버리고 충남 공주(忠南公州) 덕리(德里)에 은거하였다. 그의 손자 명산(命山)은 대장군을 역임했다.
목사공파(牧使公派) 항(沆)의 맏아들 진(晉)의 후손에서는 부위(副尉)를 지낸 저(渚)와 제주목사(濟州牧使) 한(閑), 동래현감(東萊縣監) 세영(世英), 조선 정조 때 유학자 상지(相贄) 등이 있고, 둘째 상(常)의 후손으로는 동지중추부사 춘수(春秀), 만호(萬戶) 석(碩)과 선조 때 훈련원 판관 성우(成禹) 등이 있다.
순찰사공파(巡察使公派)는 비(埤)의 아들 애(涯)가 참판을 지냈으며, 그의 두 아들 지(輊)와 헌(軒)의 대에서 다시 두 파로 갈라졌다. 낭장공파(郎將公派)는 조선 명종 때 장사랑(將仕郎)을 지낸 한종(漢宗)과 선조 때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역임한 붕(鵬)이 대표적이며, 숙종 때 학자 홍(鴻)은 문장과 덕행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저서로 『석정유고(石亭遺稿)』를 남겼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옥천 유씨는 파주시에 총 13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 윤씨(南原尹氏)

남원 윤씨(南原尹氏)의 시조는 윤위(尹威)이다.
그는 파평 윤씨의 시조 윤신달(尹莘達)의 8세손으로, 1176년(고려 명종 6) 문과에 급제하여 국자박사(國子博士)를 거쳐 기거랑(起居郞)·이부낭중(吏部郞中)·예빈소경(禮賓少卿) 등을 지냈고, 1200년(신종 3) 남언에서 일어난 복기남(卜奇男)의 반란을 평정하여 남원백(南原伯)에 봉해졌다. 그 후 남원(南原) 땅을 식읍으로 하사받아 후손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파평 윤씨에서 분적하여 남원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 왔다.
한편 이규보(李奎報)가 쓴 『국자사업윤공애사(國子司業尹公哀辭)』에 의하면, 윤위(尹威)는 문하시중(門下侍中) 윤관(尹瓘)의 후손으로 덕과 인품과 문장을 갖추었으며, 술을 몇 말씩 먹는 호주가인데도 허튼 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경유수(西京留守)로 있다가 죽었는데 남원 사람들이 그의 공을 생각하여 장례비를 모아 남원 땅에 묻히게 하여 후손들이 남원에 살면서 시적(始籍)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원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고룡군(古龍郡)인데 후에 대방군(帶方郡)으로 고쳤고, 신라 신문왕 때 소경(小京)을 두었다가 경덕왕 때 남원소경(南原小京)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태조 때 남원부로 삼았다가 다시 대방군으로 하였으며, 후에 남원군으로 고치고 1360년(공민왕 9) 부(府)로 승격, 1739년(영조 15) 일신현(一新縣)으로 하였고 다시 부로 복구, 1895년(고종 32) 남원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아성(牙城)의 전란에 순절한 극민(克敏)과 문하시중에 올라 함안백(咸安伯)에 봉해진 돈(敦) 부자가 유명했으며, 시조의 현손으로 평리(評理)를 지낸 수균(守均)의 아들 황(璜)은 고려 말에 전서(典書)를 지냈으나 조선개국에 두문불사하여 충절을 지켰다.
현령(縣令) 신을(莘乙)의 현손인 효손(孝孫)은 어릴 때부터 효행이 뛰어나 그의 할아버지가 효손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효손(孝孫)은 영의정의 사위로 문과중시(文科重試)를 거쳐 좌참찬(左參贊)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때 상주성(尙州城)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순절한 섬(暹)은 광국이등공신(光國二等功臣)으로 용성부원군(龍城府院君)에 추봉되었고, 그의 손자 계(棨)·집(集)·유(柔) 3형제가 크게 현달(顯達)했다.
그 밖에 임진왜란 때 도망치는 감사(監司)를 욕하고 성(城)을 사수한 기(祈), 병자호란에 순절한 형지(衡之), 정묘호란에 척화로 절의(節義)를 세운 형준(衡俊)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원 윤씨는 파주시에 총 29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송 윤씨(茂松尹氏)

무송 윤씨(茂松尹氏)의 선대는 계대가 실전되어 알 수 없었는데, 고려 예종 때 윤양비(尹良庇)가 보승낭장(保勝郎將)을 역임하여 무장현호장(茂長縣戶長)의 택호를 받게 되자 양비(良庇)를 시조로 하고 무송(茂松)을 관향으로 하여 계대하고 있다.
무송은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茂長面)에 두었던 통일신라 때의 행정구역명이다. 본래 백제의 송미지현(松彌知縣)인데, 신라 경덕왕 때 무송현으로 개명하였으며, 1417년(태종 17) 장사현(長沙縣)과 합하여 무장현(茂長縣)이라고 일컫다가 몇 차례의 변천을 거쳐 고창군(高敞郡)에 편입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양비(良庇)의 증손인 문정공(文貞公) 택(澤)이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한 후 정당문학(政堂文學)과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를 역임하였다. 택(澤)의 손자 소종(紹宗)은 공민왕 때 문과에 장원한 뒤 조선에서 병조전서(兵曹典書)를 지낼 때 『고려사』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회군삼등공신(回軍三等功臣)에 올랐다. 소종(紹宗)의 아들인 회(淮)는 태종 때 문과에 급제한 후 세종 때 맹사성(孟思誠)·신장(申檣)과 함께 『팔도지리지(八道地理誌)』를 편찬하였으며, 병조판서와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회(淮)의 손자 자운(子雲)은 병조와 형조의 판서를 역임했으며,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을 지내고 무송부원군(茂松府院君)에 봉해졌다. 또한 자운(子雲)의 5세손 형(泂)은 선조 때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광국이등공신(光國二等功臣)에 책록되어 호조판서와 판중추부사에 이르렀고, 임진왜란 때 왕을 호종한 공으로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올랐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송 윤씨는 파주시에 총 12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천 윤씨(醴泉尹氏)

예천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수주현(水酒縣)을 신라 때 예천군(醴泉郡)으로 고치고 935년(태조 18)에 보주(甫州)로 개칭하였다. 1018년(현종 9)에 안동부(安東府)에 편입되었다가 1172년(명종 2)에 태자의 태(胎)를 이 고을에 묻었다고 하여 기양현(基陽顯)으로 승격되었고, 1204년(신종 7)에 남도초토사(南道招討使) 최과의(崔光義)가 이 고을에서 동경적(東京賊)을 크게 토벌하였으므로 보주(甫州)로 승격되었다.1413년(태종 13)에 보천(甫川)으로 고쳤다가 1416년(태종 16)에 다시 예천으로 바꾸었다.
예천 윤씨(醴泉尹氏)의 시조는 윤충(尹忠)이다.
그는 고려에서 추밀부사(樞密府使)를 지내고 예빈시소윤(禮賓寺小尹)에 추증(追贈)되었다. 그 후 후손들이 예천(禮泉)에 정착 세거하면서 예천(醴泉)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역사인물로 충(忠)의 아들 신서(臣瑞)는 조선에서 호조참의를 역임하였으며, 충의 손자 상(祥)이 태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정랑·사예(司藝)를 거쳐 대사성에 올랐다.
그 밖에 군기감정(軍器監正)을 지낸 창문(昌文),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한 이흥(以興), 참판을 역임한 계후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천 윤씨는 파주시에 총 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원 윤씨(漆原尹氏)

칠원 윤씨(漆原尹氏)의 시조는 윤시영(尹始榮)이다.
그는 신라 무열왕 때 태자태사(太子太師)를 지냈다. 그러나 영(始榮)의 아들 황(璜) 이후의 세계가 실전되어 고려에서 호장(戶長)을 지낸 거부(鉅富)를 중시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그 후 17세손 길보(吉甫)가 삼중대광 첨의찬성사(三重大匡僉議贊成事)를 역임하였고 귀성군(龜城郡)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칠원(漆原)에 정착 세거하면서 본관을 칠원(漆原)으로 하였다. 정경공(貞景公) 저(抵)는 조선이 개국되자 상장군에 이르렀으며 제2차 왕자의 난 때 태종을 도와 좌명삼등공신(佐命三等功臣)에 책록되었으며 찬성사(贊成事)에 올라 칠원군(漆原君)에 봉(封)해졌다.
칠원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위치했던 지역이다. 본래 신라 철토현(漆吐縣)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칠제(漆隄)로 고쳐서 의안군(義安郡: 지금의 창원)에 예속시켰으며, 고려 초에 칠원(漆原)으로 고쳤고 1018년(현종 9) 김해에 속하게 하였다. 조선 선조 때 창원(昌原)에 속하였다가 광해군 때 현(縣)이 되었고 1895년(고정 32) 군(郡)으로 승격하였으며, 후에 함안군에 병합되었다.
역사인물로 성종 때 문과에 급제한 석보(碩輔)는 호당(浩當)에 뽑혔고 관찰사·부제학을 역임하였으며 청백리에 녹선(錄選)되었다. 현령 이(伊)의 아들 탁연(卓然)은 명종 때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으로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형조·이조판서를 거쳐 종계변무(宗系辨誣)하여 광국삼등공신으로 칠원군(漆原君)에 봉해졌다.
그 밖에 임창(任敞)·이의연(李義淵)과 함께 신임(辛任)이 삼포의(三布衣)로 이름난 지술(志述), 숭록대부에 오른 사국(師國)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칠원 윤씨는 파주시에 총 36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칠원 윤씨는 금촌동, 운정동, 문산읍 등지에 살고 있다.

파평 윤씨(坡平尹氏)

파평 윤씨(坡平尹氏)의 시조는 윤신달(尹莘達)이다.
『조선씨족통보』와 『용연보감(龍淵寶鑑)』 등의 문헌에 의하면 신달은 경기도 파주 파평산(坡平山) 기슭에 있는 '용연지(龍淵池)'라고 못 가운데 있던 옥함(玉函)속에서 출생했다고 하며, 그가 옥함(玉函)에서 나올 때 겨드랑이에 81개의 비늘과 발에는 7개의 검은 점이 있었고, 손바닥에는 윤(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성(姓)을 윤(尹)으로 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는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벽상삼한익찬2등공신(壁上三韓翊贊二等功臣)으로 삼중대광태사(三重大匡太師)의 관작을 받아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받들고 본관을 파평(坡平)으로 삼았다.
파평은 경기도 파주시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 파해평사(波害平史)·액봉현(額蓬縣)이라 불리다가 경덕왕 때 파평(坡平)으로 고쳐져 내소(來蘇: 양주)의 영현이 되었다. 1398년(태조 7) 서원(瑞原)과 파평(坡平)을 합하여 원평군(原平郡)이라 하고, 1461년(세조 6) 파주목(坡州牧)으로 승격되었다. 1895년 군(郡)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교하현을 폐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신달의 현손 문숙공 관(瓘)이 고려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선종 때 합문지후(閤門祗候)와 좌사낭중(左司郞中)을 지냈다. 1107년(예종 2) 여진정벌 원수가 되어 17만 대군을 이끌고 동북계에 출전, 함주(咸州)와 영주(英州)등 9지구에 성(城)을 쌓아 침범하는 여진을 평정하고 개선했으며, 뒤에 벼슬이 수태보문하시중판병부사상주국감수국사(守太保門下侍中判兵部事上柱國監修國史)에 이르렀다.
한편 판도판서(版圖判書) 승례(承禮)의 아들 정정공 번(璠)이 세조의 국구(國舅)가 되어 대사헌·우참찬 등을 거쳐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에 이르렀으며 뒤에 영의정에 추증,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에 추봉되었다. 번(璠)의 맏아들 사분(士盼)이 우의정을 지냈고, 둘째 아들 사윤(士昀)은 예조판서(禮曹判書)와 대제학(大提學)을 지내고 정난공신(靖難功臣)으로 영평군에 올랐으며, 셋째 아들 사흔(士昕)은 좌리공신(佐理功臣)으로 우의정에 올랐다.
곤(坤)은 제2차 왕자의 난 때 방원을 도와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록되고 파평군(坡平君)에 봉해졌으며 1408년(태종 8) 사은사(謝恩使)로 명(明) 나라에 다녀온 후 세종(世宗)때 우참찬(右參贊)을 거쳐 이조판서에 올랐다. 호(壕)는 성종비(成宗妃) 정현왕후(貞顯王后)의 아버지로 영원부원군(鈴原府院君)에 봉해진 뒤 영돈녕부사를 거쳐 우의정을 역임하였다. 성종 때 영의정에 올랐던 필상(弼商)은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우참찬에 특진되고 적개일등공신(敵愾一等功臣)에 책록되었으며 파평군(坡平君)에 봉해졌다.
필상(弼商) 증손 현(鉉)은 『종중실록』 편찬에 참여한 뒤 호조판서·돈녕부사에 이르렀다. 세종 때 좌찬성과 영중추부사를 지낸 사로(師路)는 정현옹주(貞顯翁主)와 결혼하여 영천군(鈴川君)에 봉해졌다. 헌주(憲注)는 숙종 때 문과에 장원급제한 후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파평 윤씨는 이조판서 지내고 기로소에 들어간 강(絳)과 그의 다섯 아들 지미(趾美)·지선(趾善)·지완(趾完)·지경(趾慶)·지인(趾仁) 형제가 크게 명성을 날렸다. 강문8학사(江門八學士)〉의 한사람으로 추앙받았다.
그 밖에 인종 때 영의정을 역임하고 위사일등공신(衛社一等功臣)에 오른 인경(仁鏡), 영조 때 대사간·이조판서 등을 지내고 영의정에 이른 동도(東度), 한말에 독립운동가로 이름난 준희(俊熙)·창석(昌錫)·기섭(기燮)·해(海)·애경(愛卿)·석구(錫求)·현진(顯振), 한인애국단 소속으로 일본군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 대장 등을 폭사시킨 의사 봉길(奉吉)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평 윤씨는 파주시에 총 7,97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파평 윤씨 정정공파(貞靖公派)는 공조판서를 지냈으며 영의정에 추증되고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에 봉해진 번(璠, 1384~1448)을 입향조(入鄕祖)로 하며 입향 시기는 조선초기인 15세기 초반 무렵이다. 주요 인물로는 입향조(入鄕祖) 번을 비롯하여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에 책록되고 파원부원군(坡原府院君)에 책봉되고 돈녕부판사에 오른 여필(汝弼, 1466~1555) 등이 있다. 교하동, 운정동, 당하동, 문산읍 선유리 등지에 후손들이 800호 가량 살고 있다. 매년 10월 3~10일 사이에 당하동 4번지의 선영에서 시제를 지낸다. 당하동에 정정공파 교하종중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종중 회장은 윤훈덕이다.
당하동과 다율동 일대에 파평 윤씨 정정공파 교하종중의 선산에 조성된 묘역이 있는데 그 면적은 약 635.381㎡에 이른다. 이곳에는 조선 제7대 왕인 세조의 비(妃) 정희왕후의 아버지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 정정공을 비롯하여 중종의 비인 장경왕후의 아버지 파원부원군(坡原府院君), 중종의 둘째 계비(繼妃)인 문정왕후의 아버지 파산부원군(坡山府院君) 지임(之任, ?~1534) 등 정정공파 후손들 묘가 600여기에 달한다. 묘역에 있는 석물, 각종 묘비 등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보이는 특징이 약간씩 다르며 역사적, 묘제적, 미술사적인 의미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분묘의 형태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 가치가 있다. 2002년 9월 16일 파평윤씨 정정공파 96기의 묘에 대해 경기도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받았다.
파평 윤씨 소정공파는 윤승례의 형 윤승순의 아들인 윤곤(尹坤, ?~1421)의 후손들로 윤곤의 묘는 파주읍 연풍리에 위치하며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소정공파 후손들은 문산읍 운천리 대덕골을 비롯해 광탄면 용미4리에 후손들이 10여 호가 거주하고 있다.

함안 윤씨(咸安尹氏)

함안 윤씨(咸安尹氏)의 시조는 윤희보(尹希輔)이다.
그는 태사공(太師公) 윤신달(尹辛達)의 8세손으로 남원백(南原伯)에 봉해진 윤위(尹威)의 손자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고려 때 흥위위주부(興威衛主簿)를 지내고 함안(咸安)에 정착 세거하면서 관향을 함안으로 하게 되었다.
함안은 경상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변한 땅이었고, 6가야 중 아나가야(阿那伽倻)의 영역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함안군(咸安郡)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995년(고려 성종 14)에 함주(咸州), 1018년(현종 9)에 함안군, 1172년(명종 2)에 함안현, 1374년(공민왕 22)에 함안군, 조선 때인 1505년(연산군 10)에 함안도호부(咸安都護府), 1506년(중종 1)에 함안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희보의 아들 기(頎)가 의랑(議郞)을 지냈다. 그의 아들로 제학(提學)을 지낸 희(禧)와 상시(常侍)를 역임한 당 형제가 가문을 중흥시켰다.
희(禧)의 증손(曾孫)인 기견은 조선 세종 때 문과에 올라 문종 때 집현전부교리(集賢殿副校理)로서 기주관(記注官)이 되어 『세종실록』 편찬에 참여했으며, 연산군 때 부원군(府院君)에 추봉되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각(慤)은 진사 익상(翊商)의 아들로 숙종 때 무과에 급제하여 함경도병마절도사로서 청나라 사신과 함께 백두산의 경계를 사정(査定)하고, 삼군수군통제사(三軍水軍統制使)를 거쳐 총융사(摠戎使)를 지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 윤씨는 파주시에 총 5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 윤씨(海南尹氏)

해남 윤씨(海南尹氏)의 시조는 윤존부(尹存富)이다.
고려 중기 때 사람으로 알려졌으나, 그의 출생과 상계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다. 그 후 7세손까지의 소목(昭穆)도 미상하여 공민왕 때 사온직장(司醞直長)을 지내다가 고려의 국운이 기울자 아들 단봉(丹鳳)·단학(丹鶴) 형제를 데리고 해남(海南)으로 은둔하여 그곳에 정착 세거한 8세손 광전(光琠)을 중시조로 받들고 본관을 해남(海南)으로 삼게 되었다.
해남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색금현(塞琴縣)인데 신라 때 침명(浸溟)으로 고쳐 양무군(陽武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때 해남(海南)으로 고쳐 영암군(靈岩郡)에 예속시켰다가, 1409년(태종 9) 진도현(珍島縣)과 합하여 해진현(海珍縣)이라 했으며, 1895년(고종 32)에 현(縣)을 폐지하고 해남군(海南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사람으로 명망이 높았던 구(衢)는 1516년(중종 11)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호당에 뽑히고 주서(注書)에 어어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가 되었으나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삭직당해 영암(靈岩)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와 복관(復官)되었고, 문장에 능하여 윤선도(尹善道)·류희춘(柳希春)·최부(崔溥)·임억령(林億齡) 등과 더불어 해남오현(海南五賢)으로 일컬어졌다. 그의 아들 의중(毅中)도 명종조에 사가독서를 한 뒤 직제학과 예조참의·승지·대사성 등을 거쳐 이조참판으로 동지춘추관사(冬至春秋館事)를 겸직했고,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고산(孤山) 선도(善道)는 혼조의 치열한 당쟁으로 일생을 거의 유배지와 은거지에서 생활하며 시가(詩歌)의 미답지를 개척하고 우리말의 새로운 뜻을 창조하여 많은 문학작품을 남겼으며, 특히 그의 시조는 정철(鄭澈)의 가사와 더불어 조선 시가에서 쌍벽을 이루었고 우리나라 국문학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그 밖에 정유재란 때 전장에 나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순절하여 화암사(花巖祠)에 제향된 신(神), 시문과 그림에 능통하여 심사정(沈師正)·정선(鄭歚) 등과 더불어 삼재(三齋)로 불린 두서(斗緖), 말(馬)과 신선(神仙)을 잘 그려 아버지인 두서(斗緖)과 함께 '쌍절'로 일컬어진 덕희(德熙) 등이 있다.
한말에는 정약용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했고 경사(經史)와 문장에 정통했으며 송나라 미불(米芾)의 서체를 터득한 글씨로 필명을 떨친 정기(廷琦), 고종 때 중추원의관을 지내다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항일운동에 앞장선 주찬(柱瓚)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남 윤씨는 파주시에 총 45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평 윤씨(海平尹氏)

해평 윤씨(海平尹氏)의 시조는 윤군정(尹君正)이다.
근느 고려 고종 때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수사공(守司空)·상서좌복야·판공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 뒤 아들 만비(萬庇)가 충렬왕 때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와 상호군(上護軍)을 지냈고 후에 일등공신이 되었으며, 손자 석(碩)은 충숙왕 때 충근절의동덕찬화보정공신(忠勤節義同德贊化保定功臣)으로 우정승(右政丞)·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 등을 지내고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에 봉군되어 원나라로부터 진국상장군(鎭國上將軍)·고려도원수(高麗都元帥)의 직위(職位)를 받았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해평(海平)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해평(海平)은 경상북도 선산군(善山君)에 있는 지명으로 파징(波澄)이라고도 불렸다. 신라 때 병정현(竝井縣), 고려 때 해평군(海平郡)으로 불리다가, 1415년(태종 15) 해평현(海平縣)으로 강등된 후 선산군 해평면(海平面)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충혜왕 때 좌정승(左政丞)을 지낸 석(碩)의 아들 지표(之彪)가 문하평리(門下評理)가 되어 원나라에 다녀와 해평군(海平君)에 봉해졌으며, 아들 진(珍)이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로 해평군(海平君)에 봉군되어 가문을 빛냈다. 대호군 보(寶)의 아들 가관(可觀)은 우왕 때 경상도부원수(慶尙道부元帥)로 함양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여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에 올라, 통정대부로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를 지낸 창(彰)과 함께 현달하여 이름을 떨쳤다.
조선에서는 첨정을 지낸 훤(萱)의 아들 은보(殷輔)가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성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교검(校檢)으로 춘추관(春秋館)의 기사관(記事官)을 겸직,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1537년(성종 32) 영의정에 올랐다. 명종 때 문과에 오른 두수(斗壽)는 1590년(선조 23) 종계변무(宗系辯誣)의 공으로 광국이등공신(光國二等功臣)에 책록되어 대사헌·호조판서· 등을 지내고 영의정(領議政)에 올랐다. 맏아들 방(昉)은 인조 때 영의정에 올라 부자영상(父子領相)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 밖에 판돈녕부사를 역임한 이지(履之), 선조의 부마로 병자호란 때 소모대장(召募大將)으로 공을 세운 신지(新之), 예조판서·대제학을 지낸 순지(順之), 글씨가 뛰어나 윤상서체(尹尙書體)란 독특한 서체를 이룬 급(汲), 정조 때 여러 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이른 기동(耆東), 『성종실록』·『연산군일기』 등의 편찬에 참여한 은보(殷輔), 이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을 역임하여 승훈(承勳) 등이 있다.
한말에는 개화당(開化黨) 내각(內閣)에서 군부대신(軍部大臣)을 지낸 웅렬(雄烈), 그의 아들 치호(致昊)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평 윤씨는 파주시에 총 41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해평 윤씨 충간공파(忠間公派) 후손들은 아동동, 금촌동, 운정동 등지에 살고 있다.

행주 은씨(幸州殷氏)

은씨(殷氏)는 중국 당나라 출신으로 신라의 주청에 의해 850년(신라 문성왕 12) 8학사 중 한 사람인 은홍열(殷洪悅)이 건너와서 뿌리를 내린 것이 시초이다. 행주 은씨(幸州殷氏)의 시조인 은홍열(殷洪悅)은 신라왕조에서 벼슬이 태자태사(太子太師)·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에 이르렀고 덕양에 정착 세거하였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행주(幸州)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행주는 경기도 고양의 옛 지명이다. 본래 고구려의 개백현(皆伯縣)인데, 신라에서 우왕(禑王) 또는 왕봉(王逢)이라 하였고, 고려 초에 행주(幸州)로 개칭하여 성종(成宗) 때 고봉(高峰)·덕양(德陽) 등으로 불리다가 1413년(태종 13) 고양군(高陽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정(鼎)이 고려 문종 때 시중(侍中)을 역임하였다. 학문이 뛰어나 사숙(私塾)을 열어 많은 후진을 길러냈으며, 조선에서 예조참의를 역임한 장손의 아들인 여림(汝霖)은 1396년(태조 5) 문과에 급제하여 우헌납(右獻納)·경력(經歷) 등을 거쳐 이조판서에 올라 가문을 더욱 유명하게 하였다. 통헌대부에 오른 현(顯)과 해주판관을 지낸 보 형제가 가문을 중흥시켰고, 그 외 현종과 숙종 대의 학자로 이름난 정화(鼎和)는 최서림(崔瑞琳)의 문하(門下)에서 학문을 닦아 일명 '상계선생(相溪先生)'으로 불렸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주 은씨는 파주시에 총 1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산 음씨(竹山陰氏)

음씨(陰氏)는 본래 중국 시평(始平)에서 나온 성씨(姓氏)이다. 죽산 음씨(竹山陰氏)의 시조 음준(陰俊)은 원나라 예부시랑(禮部侍郞)으로 공민왕비(恭愍王妃)인 노국공주(魯國公主)를 배종(陪從)하고 고려에 들어와 죽산군(竹山君)에 봉해졌으므로 이때부터 우리나라 음씨(陰氏)의 연원을 이루었으며, 후손들이 죽산(竹山)에 세거하면서 관향을 죽산으로 삼게 되었다고 『죽산음씨족보(竹山陰氏族譜)』에 기록되어 있다.

죽산은 경기도 용인시과 안성시 일부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개차산군(皆次山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개산군(介山郡)으로 고쳤다가 고려 초에 죽주(竹州)로 고치고, 995년(성종 1)에 단련사(團鍊使)를 두어 음평(陰平) 또는 연창(延昌)이라 하였으며 현종(顯宗) 때 광주(廣州)로 속하였다. 1413년(태종 13)에 죽산(竹山)으로 개칭하여 감무(監務)를 두었고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었다가 1913년 원일면(遠一面)과 근삼면(近三面) 일부는 용인군에 합해지고 나머지 지역은 안성군에 합해졌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아들 철(澈)이 조선의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으로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절(文節)이란 시호를 받았으며, 철(澈)의 아들로 소경(少卿)을 지낸 곤(崑)과 판사를 역임한 윤(崙)의 대에서 가문이 크게 번창하였다.

그 밖에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낸 기남, 병조판서에 추증된 희철, 부호군(副護軍)을 지낸 도광(道光), 공조참의를 지낸 성석(聖惜), 참봉을 지낸 인수(仁洙)·인성(仁星)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죽산 음씨는 파주시에 총 12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 이씨(加平李氏)

가평 이씨(加平李氏)의 시조는 이인보(李仁輔)이다.
그는 신라 때 완산호장(完山戶長)을 지냈는데, 그의 8세손 기문(起文)이 조종(朝宗: 가평의 옛 지명)에 이거하여 본관을 조종(朝宗)으로 삼았다. 그 후 29세손인 춘계(椿桂)가 고려에서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하고, 그의 증손 형손(亨孫)이 조선 세조 때 병마절도사로 이시애의 난을 토평한 공으로 가평군(嘉平郡)에 봉해졌으며, 지명의 변천으로 조종(朝宗)이 가평(加平)으로 개칭됨에 따라 본관 가평(加平)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그러나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는 형손(亨孫)의 8대조로 호장(戶長)을 지낸 진수(珍守)를 시조로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은 고구려 때는 근평군이었으나 신라 경덕왕 때 부근의 조종현(朝宗縣)과 합하여 가평으로 개칭하였으며 고려 때는 강원도 춘천에 속하였다. 1507년(중종 2) 이곳에 중종의 태(胎)를 묻어 군으로 승격되었으며 1895년(고종 32) 다시 경기도에 속하면서 한성부(漢城府)에 속하기도 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춘계(椿桂)의 손자 다림(多林)과 증손인 윤손(允孫)·형손(亨孫) 형제가 유명했다. 다림(多林)은 조선 때 무과에 급제한 후 동지중추원사·부총관에 이르렀으며, 윤손(允孫)은 정종 때 등과하여 문종조에 병조판서를 지냈으며, 형손(亨孫)은 1447년(세종 29) 무과에 급제하여, 전라도부절제사(全羅道副節制使) 겸 전주부윤(全州府尹)이 되고 1492년(성종 23) 우림위장(羽林衛將)에 이어 부총관(副摠管)을 겸임했다.
그 밖에 병조참판을 지낸 장생(長生), 현감을 지낸 장경(長卿), 임진왜란 때 부호군을 역임한 명백, 경종 때 학자로 이름난 제태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평 이씨는 파주시에 총 8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 이씨(康津李氏)

강진 이씨(康津李氏)의 시조는 이완(李完)이다.
그는 신라 남해왕(南海王) 때의 사람으로 전하고 있으나 상계가 실전되어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리하여 충렬왕 때 문과에 급제하고, 광정대부(匡靖大夫)로 검교첨의찬성사(檢校僉議贊成事)에 오른 진(珍)을 일세조로 하고, 강진(康津)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강진은 전라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도강(道康)과 탐진(眈津)의 합명(合名)인데, 도강현(道康縣)은 백제의 도무군(道武郡)으로 신라 경덕왕 때 양무군(陽武郡)으로 개칭하고, 고려시대에 도강으로 고쳐서 영암(靈岩)에 속하게 했다. 탐진현(眈津縣)은 원래 백제의 동음현(冬音縣)인데, 신라 경덕왕 때에 탐진으로 고쳐서 양무군에 예속시켰으며, 고려시대에는 영암에 속하게 했다가 뒤에 장흥(長興)으로 이속시켰다. 1417년(태종 17)에 각 병마절도사영을 도강 구치(舊治)에 이설(移設)하고 양 현을 합쳐서 강진군을 설치하여, 탐진에 치소(治所)를 두었다. 1895년에 나주부의 관할하에 들어갔고, 1936년 강진면이 강진읍(康津邑)으로 승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진(珍)의 아들 석(碩)이 고려 충목왕 때 산원동정(散員同正)을 지냈고, 손자 영기(英奇)는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에 이르렀으나 고려가 망하자 은거하였다.
계유정난 때 공을 세운 터(攄)는 진(珍)의 증손으로 공신에 책록되어 목사에 올랐으며, 그의 아들 인문(人文)은 감찰을 역임했다. 부제학(副提學) 만균(萬鈞)은 중종 때 문과에 올라 경연관찬관(經筵官參贊官)을 거쳐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을 지냈고, 통정대부에 추증되었다. 근대에 와서는 봉수(鳳洙)가 독립운동가로 가문을 빛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진 이씨는 파주시에 총 1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 이씨(開城李氏)

개성 이씨(開城李氏)의 시조는 이차감(李次瑊)이다.
그는 고려 충숙왕 때 녹사(綠事)·영동정(令同正) 등을 역임하고, 개성부윤(開城府尹)을 지냈다. 이후에 후손들이 개성에 정착 세거해왔다. 그 후 덕시(德時)가 고려에서 벼슬이 통훈대부(通訓大夫)에 이르렀고, 조선개국에 공을 세워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되어 자헌대부로 호조판서에 추증되었으므로 후손들은 덕시(德時)를 일세조로 하고 개성(開城)을 본관으로 삼아 청주 이씨에서 분적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개성은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려의 수도로 처음에는 송악(松岳)·송도(松都)·개경(開京)·부소갑(扶蘇岬)·동비홀(冬比忽)·촉막군(蜀莫郡) 등으로 불렸다. 919년(고려 태조 2) 1월 수도를 철원(鐵原)에서 이곳 송악산(松岳山) 남쪽으로 옮긴 후 개주(開州)라 불렀고, 960년(광종 11)에 황도(皇都)로 고쳤다가, 995년(성종 14) 개성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덕시(德時)의 아들 등(登)이 계천위(啓川尉)에 봉해졌고 1422년(세종 4) 개성군(開城郡)에 개봉되었다. 세종 때 과거에 오른 선(宣)은 덕시의 손자로 판서를 역임했고, 그의 아들 광세(匡世)는 세종 때 통훈대부로 현령을 지냈다.
그 밖에 화가로 이름난 명기(命基)는 사과(司果)를 역임한 종수(宗秀)의 아들로 특히 초상화에 뛰어나 1796년(정조 20) 왕의 초상화를 그려 더욱 유명해졌으며, 환후(瓛垕)는 감찰을 역임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성 이씨는 파주시에 총 5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 이씨(京山李氏)

경산 이씨(京山李氏)의 시조는 이덕부(李德富)이다.
그는 고려 정종 때 악거부정(樂居副正)을 지냈는데, 계림(鷄林)에서 경산(京山)으로 이거하였으므로 후손들이 경산(京山)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경산은 경상북도 성주군에 있던 옛 지명이다. 본래 신라의 본피현(本彼縣)이었는데 경덕왕 때 신안(新安)으로 개명하여 성산군(星山郡)의 속현(屬縣)이 되었으며, 후에 벽진군(碧珍郡)이라 개칭하였다. 940년(태조 23) 경산부라 하였다가 981년(경종 6) 광평군(廣平郡)으로 격하되었고, 995년(성종 14)에 대주(岱州)로 개칭하여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 1012년(현종 3)에 단련사 제도를 폐지하였고, 1018년(현종 9)에 경산으로 고쳐 지부사(知府事)를 두었다가, 1295년(충렬왕 21)에 흥안도호부(興安都護府)로 승격하였다. 1308년(충렬왕 34)에 다시 성주목(星州牧)으로 승격하였으며, 1311년(충선왕 3)에 격하되어 경산부가 되었다. 조선 태종(太宗) 때 성주목으로 다시 승격, 그 후 1895년(고종 32) 성주군으로 개칭하고 군수를 두었다.
역사인물로는 덕부(德富)의 5세손 호(祜)가 고려에서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졌으며, 호(祜)의 손자 합(玲)이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하였다. 성유(成裕)의 아들 감(瑊)과 미(瑂)도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갔는데 장남 감(瑊)은 부윤을 지냈다. 흥문(興門)은 조선에서 대사헌을 역임했으며, 엽(曄)은 중랑장(中郎將)을, 형천(亨天)은 병조좌랑을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산 이씨는 파주시에 총 3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이씨(慶州李氏)

경주 이씨(慶州李氏)는 신라건국의 모체(母體)인 사로(斯盧)의 6부(六部) 중 알천양산촌(閼川楊山村)을 다스렸던 표암공(瓢巖公) 이알평(李謁平)을 시조로 받들고, 신라 말에 소판(蘇判) 벼슬을 지낸 진골(眞骨) 출신의 이거명(李居明)을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여 왔다.
경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기원전 57년 이곳에 6촌(村)이 연합하여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국호(國號)를 서라벌(徐羅伐)·사로(斯盧)·사라(斯羅)라 하였다. 65년(탈해왕 9) 시림(始林)에서 김씨(金氏)의 시조 김알지가 탄생하여 국호(國號)를 계림(鷄林)으로 고쳐 삼았다가 307년(기림왕 10)에 신라(新羅)로 하였다. 935년(태조 18)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등극한 후 처음으로 경주(慶州)라는 명칭이 생겼다. 987년(성종6) 동경(東京)으로 개칭하고 1008년(목종11) 별칭(別稱)으로 낙랑군(樂浪郡)이라 하다가 충렬왕 때 계림부(鷄林府)로 개칭하였고, 1413년(태종 13)에 와서 경주부(慶州府)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소판공 거명의 9세손 총섬(寵暹)이 고려 성종 때 문하시중을 지냈고 목종이 즉위하자 오인유(吳仁裕)·남궁원청(南宮元淸)·이윤관(李允貫) 등과 더불어 오묘(五廟: 제후의 묘)와 사직(社稷)을 건립하였으며 국자감(國子監)에 과거제도를 설립하였다. 총섬(寵暹)의 7세손 핵(翮)의 아들 인정(仁挺)·진(瑱)·세기(世基) 3형제와 손자 5형제가 모두 문과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하고 서사(書史)와 문장(文章)으로 이름을 떨쳤다.
특히 충숙왕이 즉위하자 검교첨의정승(檢校僉議政丞)으로 임해군(臨海君)에 봉해진 진(瑱)은 제자백가와 시문에 뛰어났다. 제현(齊賢)은 우리나라 정주학(程朱學)의 기초를 확립했으며, 원나라 조맹부의 서체를 도입하여 이를 널리 유행시켰고, 그의 저서(著書) 『익재난고(益齋亂藁)』의 소악부(小樂部)에 칠언절구 한시(漢詩)로 번역하여 실은 17수(首)의 민간가요는 오늘날 고려가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조선에서는 세조 때 좌리3등공신(佐理三等功臣)으로 월성군(月城君)에 봉해졌던 철견(鐵堅), 선정을 베풀어 청백리에 녹선되었던 을규(乙奎)가 뛰어났다.
정형(廷馨)은 좌승지로 선조의 피난을 수행하다가 개성(開城)의 성거산(聖居山)에서 적의 북진을 저지함으로서 많은 전과를 올렸고 남도와 행재소(行在所)간의 연락 및 교통을 보장했다. 특히 정형(廷馨)은 사문(史文) 학자로서도 재질이 뛰어나 『동각잡기(東閣雜記)·『황토기사(黃兎記事)』·『수춘잡기(壽春雜記)』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세조 때 정난공신(靖難功臣)으로 이조참판을 거쳐 판서에 오른 승상(升商)과 흥상(興商)도 유명했다.
개립(介立)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훈공을 세워 무명 떨쳤다. 임진왜란 때 '육전의 충무공'으로 명성을 떨쳤던 수일(守一)은 장군이면서도 사병과 함께 먹고 자서 사병들에게 정신적인 숭앙을 받았고 전투를 하기 전에 정보와 첩보를 선행시켜 백전백승의 전과를 올렸다.
1580년(선조 13)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여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를 시작으로 벼슬길에 나선 항복은 임진왜란 때 다서 차례나 병조판서로 병권(兵權)을 장악하여 국난을 수습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라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에 봉해졌고 이어 호성일등공신(扈聖一等功臣)에 책록되었다.
규(揆)는 고려 때 찬성(贊成)을 역임한 후 충혜왕(忠惠王)의 묘정(廟廷)에 배향되었다. 규(揆)의 현손으로 성종 때 문과에 급제한 종준(宗準)은 호당(湖堂)에 뽑혔고, 문장(文章)과 글씨·그림에 모두 뛰어났다.
한말에는 고종 때 총융사(摠戎使)를 거쳐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와 어영대장을 지낸 현직(顯

稷)과 평안도 암행어사를 지내고 교정청(校正廳) 당상(堂上)에 올랐던 유승(裕承)이 유명했다.
시영(始榮)은 한일합방이 되자 만주로 망명하여 유하현(柳河縣)에서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를 설립, 독립군 양성에 힘썼으며,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승만의 비민주적 통치에 반대하여 부통령을 사퇴했다.
그 밖에 '광복단(光復團)'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순국한 시영(始榮)과 해방 후에 상해(上海)에서 교포의 보호에 진력했던 상정(相定)이 용맹을 떨쳤으며, 신한독립당 감찰위원장을 역임한 규채(圭彩)는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회영(會榮)·상용(相龍)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주 이씨는 파주시에 총 9,92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경주 이씨 국당공파(菊堂公派)는 이거명(李居明, 1636~?)을 파시조(派始祖)로 하며 입향조(入鄕祖)는 29대조 이언(李焉,1705~?)으로 병자호란 때 파주에 입향하였다.
입향조 이언의 묘는 교하 산남리 심학산에 있으며 교하 문발리에 예전에는 70여호가 살았으나 지금은 50여호가 살고 있다. 이외에도 탄현면 축현1리 헌덕마을에 후손들이 살고 있다.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 탄현면 축현리 태봉에 있는 입향조(入鄕祖) 묘에서 시제를 지낸다.

고부 이씨(古阜李氏)

고부 이씨(古阜李氏)의 시조는 이경조(李敬祖)이다.
그는 고려 문종 때 최충(崔沖)이 설립한 사학의 효시인 구재학당(九齋學堂) 출신으로 한림학사(翰林學士)를 거쳐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에 올랐다. 문종에서 숙종에 이르기까지 5대를 섬긴 공으로 추충보정공신(推忠輔靖功臣)에 녹훈되어 여산군(礪山君)에 봉해지고 벼슬이 검교좌정승(檢校左政丞)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그의 전(前) 세거지인 고부(古阜)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고부는 전라북도 정읍군에 속해 있던 옛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고사부리군(古沙夫里郡)을 신라 경덕왕이 고부로 고쳤다. 고려는 936년(태조 19), 이 지역을 영주(瀛州)라 칭하고 관찰사를 두었으며, 광종 때에는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를 두는 등 중요한 행정구역의 하나를 이루었다. 현종 때 고부군으로 이름을 다시 고치고, 충렬왕 때 잠시 영광군에 병합되었다가 곧 복구되어 조선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1914년 백산면(白山面)·거마면(巨麻面)·덕림면(德林面)은 부안군에 속하고 나머지 지역은 정읍군에 병합되어 그 일부 지역만 고부면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경조(敬祖)의 손자 양빈(陽賓)이 서북병마사(西北兵馬使)로서 예종 때 윤관(尹瓘)과 함께 여진족을 토벌했으며, 그의 동생 양승(陽升)은 고려 명종 때 상장군으로서 연주(延州)에 침입한 거란병을 격파하고 위주성(渭州城)에서 순절한 충신이다. 대장군 의(儀)는 경조(敬祖)의 5세손이며 직제학을 지낸 시경(時卿)의 아들로 고려 강종 때 도병마사(都兵馬使)를 지냈으며 대장군에 이르렀다.
그 밖에 사헌규정(司憲糾正)을 거쳐 감찰대부를 겸한 연종(衍宗)은 공민왕 때 직간(直諫)으로 왕의 위신(威信)을 바로잡았으며, 학자 원곤(源坤)은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 병환 때 손가락을 잘라 병구완을 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부 이씨는 파주시에 총 9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 이씨(固城李氏)

『이씨추원록(李氏追遠錄)』에 의하면 고성 이씨(固城李氏)는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 사람인 이반(李槃)의 24세손 이황(李璜)을 시조로 받들고 있다. 그는 고려 덕종(德宗) 초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부사를 역임하고, 1033년(덕종 2) 거란이 침입했을 때 공을 세워 문종 때 호부상서(戶部尙書)에 올라 철령군(鐵嶺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그를 일세조로 하고 본관을 고성(固城)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고성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변한 시대에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고사포국(古史浦國)이었다가, 신라에 흡수되어 고자군(古自郡)으로 불렸고, 757년(경덕왕 16)에 고성군(固城郡)으로 바뀌었다. 고려 때 고주(固州)로 확장되었고 후에 철성부(鐵城府)로 승격되었다가, 1018년 현종 9) 고성현으로 강등되었다. 1896년 13도제 실시로 고성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7세손으로 고려 충렬왕 때 판밀직사사 지낸 존비(尊庇)와 그의 아들 우(瑀)가 유명했다. 충숙왕 때 전주(全州)와 진주(晋州)의 목사를 지냈고, 문장과 덕행이 높아 공신에 녹훈되었던 그는 나라에 공을 세워 철성부원군에 봉해졌다. 1313년(충선왕 5) 문과에 급제한 암(嵒)은 충정왕 때 우정승(右政承)을 지냈고 글씨에 뛰어나 동국(東國)의 조자앙(趙子昻)으로 불렸다. 동생 교(嶠)는 공민왕 때 형부상서(刑部尙書)를 거쳐 어사대부(御史大夫)에 올라 전선(銓選)을 관장했다.

조선에서 암(嵒)의 아들 4형제 중 장남 인(寅)은 고성군(固城君)에 봉해졌다. 차남 숭(崇)은 조선이 개국되자 태조 때 검교시중(檢校侍中)에 올라 대제학을 지낸 후, 서예(書藝)로 필명을 떨쳤던 아우 강(岡: 암의 막내아들)과 함께 가세를 일으켰다. 강(岡)의 아들 원(原)은 고려 말에 예조좌랑과 병조정랑을 지낸 후 태종 때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이어 병조판서와 우의정을 거쳐 세종이 즉위하자 좌의정에 올랐다.

그 밖에 이조참판과 대사헌을 거쳐 지중추부사에 이른 칙(則), 명종 때 병조판서를 지내고 판돈녕부사를 지낸 명규(名珪), 예조참판에 이르러 필명을 떨쳤던 택(澤), 한말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를 조직하여 민중계몽과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기(沂), 독립운동가로 이름났던 덕수(德秀), 상 임시정부의 국무령(國務領)을 지낸 상의(象義)·상룡(相龍)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성 이씨는 파주시에 총 75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고성 이씨 사암공파(思菴公派)는 사암공 이지(李墀, 1420~1486)를 파시조(派始祖)로 하며 이채(李埰, 1558~1624)를 입향조(入鄕祖)로 한다.

입향조 채는 경기도 광주읍에서 이곳 장단에 있는 선대조 암의 묘역을 관리하기 위해 조선중기에 파주로 입향 하였다. 파주읍 봉서1리부터 4리까지 고성 이씨 70여 가구가 뿌리를 내리며 살아 왔는데 지금은 15호 정도가 남아 세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읍 직천리 설원마을에도 5가구 정도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13일 법원읍 직천리 산11번지에서 시제를 지낸다. 입향조(入鄕祖) 묘는 파주읍 봉서리에 있다.

공주 이씨(公州李氏)

공주 이씨(公州李氏)의 시조는 신라 때 사람 이천일(李天一)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기원전 53년(박혁거세 5)에 문명이 뛰어나 중국 한(漢)나라에 들어가 18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대장군(大將軍)이 되어 흉노적 정벌에 공을 세워 요동백(遼東伯)에 봉군되어 신라로 돌아와 공산군(公山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본관을 공주(公州)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공주는 충청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백제의 옛 도성이었던 공주의 이름은 웅진(熊津)이었다가, 신라 신문왕(神文王) 때 웅천주(熊川州)로, 940년(고려 태조 23) 공주(公州)로 개칭하였다. 이후 변천을 하다가 현재의 공주시가 되었다.
공주 이씨의 세계는 사손(思孫)의 두 아들 엽(曄)과 서(曙)의 대(代)에서 7파로 갈리어, 전공판서(典工判書) 엽(曄)의 여섯 아들은 경력공파(經歷公派: 명선)·어사공파(御史公派: 명성)·공숙공파(恭肅公派: 명덕)·지평공파(持平公派: 명보)·참의공파(參議公派: 명윤)·현감공파(縣監公派: 명의)로, 참지의정부사 서(曙)의 아들은 강양공파(剛襄公派)로 분파(分派)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경력공파(經歷公派) 명선(明善)의 10세손 기수(麒壽)·붕수(鵬壽) 형제가 임진왜란 때 정문부(鄭文孚)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전공을 세우고 옥탑평(玉塔平) 싸움에서 순절하여 형은 부제학(副提學), 아우는 지평(持平)에 추증되었다. 원배(元培)는 명선(明善)의 18세손인데, 경서와 학행으로 이름나 정조 임금 앞에서 구경(九經)에 대한 질문 62조를 적절하게 답변하여 많은 포상을 받고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고 학문에만 전념했다. 공숙공파(恭肅公派)의 파조인 명덕(明德)은 태조 때 등과하여 세종 때 이조참판·대사헌을 역임하고, 중추원부사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또한 그의 8세손 정견(廷堅)·정헌(庭憲) 형제가 선조 때 함께 무과에 급제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창의하여 무공을 세워 명성을 날렸다. 강양공파 부(敷)는 조선개국삼등공신으로 흥원군(興原君)에 봉해졌으며, 그의 11세손 도(棹)가 숙종 때 부총관(副摠管)을 지냈다.
그 밖에 3·1운동 민족대표인 필주(弼柱)와 정조 때 한성부판윤을 지낸 응거(應擧)가 이름났고, 현감공파 명의(明義)의 후손인 병덕(秉德)은 순조 때 현감을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주 이씨는 파주시에 총 49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 이씨(光山李氏)

광산 이씨(光山李氏)는 송악(松嶽)에서 태봉국(泰封國)을 세웠던 궁예(弓裔)의 6세손 이종금(李宗金)을 시조로 받들고 있다. 문헌에 의하면, 종금(宗金)은 1010년 거란의 40만 대군이 내침하여 송도(松都)와 주읍(州邑)이 허물어지고 왕이 남천(南遷)하는 혼란 속에서 강감찬 장군의 휘하로 들어가 대소전투(大小戰鬪)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1018년(현종 9) 3차로 재침해 온 거란의 10만 정예군을 맞아 휘하의 주군을 이끌고 강화성을 굳게 지켜 나라의 귀중한 재화를 보전시킨 공적으로 1032년(덕종 2) 광산군(光山君)에 봉해지고 이종금(李宗金)이라는 성명을 하사받아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받들고 광산군(光山君) 일원에 세거하면서 본관을 광산(光山)으로 삼게 되었다.

광산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곳으로 백제의 무진주(武珍州)였는데, 757년(경덕왕 16)에 무주(武州)로 이름을 고쳤다. 이후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다가, 1935년 광주(光州)가 부(府)로 승격됨에 따라 광산군(光山郡)이 되었다.

시조 종금(宗金)의 8세손 각(慤)이 고려에서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지냈고 슬하에 아들 순백(珣白)·숙백(叔白)·승백(升白) 3형제를 두었는데, 이들이 모두 현달하여 광산 이씨의 3대 인맥을 형성하였다. 맏아들 순백(珣白)은 1320년 원나라 환관 빠앤투그스(伯顔禿古思)의 참소로 토번(吐蕃)에 귀양 가는 충선왕을 호종하였다가 3년 만에 돌아와 상서좌복야에 오르고 충장(忠莊)으로 추시(追諡)되었으며, 그의 아우 숙백(叔白)은 1328년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원직제학(翰林院直提學)에 올랐고, 막내 승백(升白)도 등과하여 벼슬이 직제학(直提學)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후손들이 이들 3형제를 중시조로 봉안(奉安)하고 기일세하여 세계(世系)를 계승하여 왔다.

역사인물로는 상서공(尙書公) 순백의 아들 기(奇)가 고려 때 상호군(上護軍)을 역임했고, 증손 일영의 둘째 아들 선제(先齊)는『태종실록』편찬에 참여했고, 정인지(鄭麟趾)와 더불어『고려사(考慮史)』개찬을 관장했다.

한림공(翰林公) 숙백(淑白)의 계통에서는 그의 아들 순(順)이 1374년(공민 왕23) 문과에 그제하여 헌납(獻納)을 거쳐 풍해 안렴사(豊海按廉使)를 지냈으며, 그의 맏아들 초(椒)는 조선(朝鮮)이 개국한 후 대사성을, 차남 매(枚)는 영광교도(靈光敎導)를 거쳐 참판을 역임했다.

그 밖에 숙종 때 부령부사(副寧府使)와 증산현령(甑山縣令)을 거쳐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를 역임한 두망(斗望), 서산현감(瑞山縣監)을 지낸 태창(泰昌), 영해부사(寧海府使)를 지낸 징하(徵夏), 예조좌랑을 지낸 중빈(重彬), 고종 때 선전관을 지내고 통정대부에 가자된 필현(弼鉉)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산 이씨는 파주시에 총 3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이씨(廣州利氏)

광주 이씨(廣州利氏)의 시조는 신라 내물왕 때 내사령(內使令)을 지낸 이자성(李自成)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본래 칠원(漆原)에 세거해 온 호족의 후예로, 신라에서 벼슬을 세습해오다가 경순왕에 이르러 고려에 손국(遜國)하자 이에 불복하고 절의를 지켰으므로 고려 태조가 강계(降階)하여 회안호장(淮安戶長)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본관 회안(淮安) 삼았는데, 940년(태조 23) 지명이 광주(廣州)로 개칭됨에 따라 광주를 관향으로 삼았다. 그 후 이자성으로부터의 소목(昭穆)이 실전되어 고려 말에 현달했던 현조(懸祖)를 각각 일세조로 하여 수보(收譜)를 하게 되었다.

경기도에 위치한 광주는 마한의 일부였다. 371년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은 이곳을 한성(漢城)이라 불렀다. 553년 신라의 한산주(漢山州)가 되었다가 756년(경덕왕 15) 한주(漢州), 940년(고려 태조 23)에 지금의 광주(廣州)가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율정공파(栗亭公派)의 중시조(中始祖) 관의(寬義)는 청백리 지공(知公)의 맏아들로 세종 때 누차에 걸쳐 생원시(生員試)에 응시하였으나 합격(合格)하지 못하여 자신의 불운함을 느끼고 황야에 은거(隱居)하여 성리학(性理學)을 탐구하다가 후에 다시 송정(松亭) 김반(金泮)의 문하로 들어가 수학(修學)하여 학문에 정통했고, 덕행이 뛰어나 정여창(鄭汝昌)·손순효(孫舜孝)·남효온(南孝溫) 등과 같은 훌륭한 석학(碩學)을 배출시켰다.

율정공 관의(寬義)의 맏아들 점(坫)은 성종(成宗)초에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477년(성종 8)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와 집의(執義)·사성(司成)을 역임한 후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올랐다. 초명(初名)이 원령(元齡)인 집(集)은 고려 충목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해박한 학문과 고상한 지절로 명망을 떨쳤으며, 여말 삼은(三隱()과 같은 명현들과 더불어 문교를 나누며 존경을 받았다. 극배(克培)는 성종 때 좌리3등공신으로 좌참찬을 지내고 영중추부사를 거쳐 영의정에 오르고 광릉부원군(廣陵府院君)에 봉해졌다.

세조 때 좌익3등공신으로 이조참의에 올랐던 극감(克堪)은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어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수찬했으며 『북정록(北征錄)』을 찬진하여 필명을 떨쳤다. 우정승 인손의 셋째아들 극증(克增)은 예종 즉위하자 익대2등공신(翊戴二等功臣)으로 광천군(廣川君)에 봉해졌다. 준경(浚慶)은 1558년(명종 13) 우의정에 이어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領議政)에 올랐다.

한음(漢蔭) 덕형(德馨)은 좌의정 극균(克均)의 현손(玄孫)으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오른 민성(民聖)의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뛰어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31세 때 학자 관직으로서는 가장 영예로운 대제학(大提學)에 초탁(超擢)되었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진주사(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영의정으로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처형과 폐모론(廢母論)을 반대했다가 삭직되고 양근(陽根)으로 내려가 53세로 생을 마쳤다.

광주 이씨의 또 다른 인맥으로 지군사공(知郡事公) 희령(希齡)의 아들 지강(之剛)이 태종 때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을 거쳐 한성부윤을 지내고 의정부참찬 겸 대사헌을 지냈으며, 그의 아우 지유(之柔)는 성주 목사(星州牧使)를 역임했다.

그 밖에 조선조 '팔문장(八文章)'의 한 사람으로 손꼽혔던 휴징(休徵) 부자, 임진왜란 후 조정의 해이한 기강을 바로잡는 데 공헌했던 윤우(潤雨), 숙종 때 영남의 대기근을 구제하여 전설에 오르기까지 한 담명(聃命)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이씨는 파주시에 총 1,48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평 이씨(廣平李氏)

광평 이씨(廣平李氏)의 시조는 이무재(李茂材)이다. 그는 성산에 토착세거한 사족으로 고려 말에 사재동정(司宰同正)을 지냈는데, 그의 증손(曾孫) 능(能)이 나라에 공을 세워 광평군(廣平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광평(廣平)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지금은 본관을 성산(星山)으로 쓰고 있다.

광평은 성주(星州)의 고려 때 이름이다. 성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인데, 신라 본피현(本皮縣)이었던 것을 757년(경덕왕 16)에 신안현(新安縣)으로 개칭하여 성산군(星山郡)에 속하게 하였다. 그 후 벽진군(碧珍郡)으로 개칭하고 치소(治所)를 지금의 성주읍(星州邑)에 두었다. 고려 940년(태조 23)에 경산부(京山府)로 개칭하였다가 981년(경종 6) 광평군(廣平君)으로 강등한 바 있었으나, 995년(성종 14) 대주(岱州)라 칭하여 도단련사(都團練使)를 두었다. 1012년(현종 3) 단련사(團練使)를 폐하고 1018년(현종 9)에 경산부(京山府)로 승격, 1308년(충렬왕 21)에는 성주목(星州牧)으로 하였으나 1310년(충선왕 2)에는 경산부(京山府)로 강등하였다. 조선 태종(太宗)때 성주목으로 다시 승격, 그 후 1895년(고종 32) 성주군(星州郡)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호성(好誠)이 세종 때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에 이르렀으며, 옥포만호(玉浦萬戶)를 지낸 희조(希祖)는 호성의 손자로 부모 봉양을 위해 벼슬을 사양했으며, 조부(祖父: 호성)를 위해 동산정(東山亭)을 세웠다. 순조는 문무를 겸비하여 성종조에 무과에 급제하고, 사헌부감찰에 이르렀으나 연산군(燕山君)의 폭정을 개탄, 벼슬을 버리고 은거했다.

그 밖에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전장에서 순절한 통정대부·이조참의에 추증된 령(伶),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를 지냈으며 정유재란 때와 이괄의 난 때 공훈이 있어 훈권(勳券)을 두 차례나 받은 명신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평 이씨는 파주시에 총 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이씨(羅州李氏)

나주 이씨(羅州李氏)의 시조는 이철우(李哲祐)이다.
그는 오랫동안 나주에 토착세거한 사족의 후손으로 조선 세조 때 가선대부에 올랐고, 평남(平南) 개천군(价川郡) 마장(馬場)으로 이거(移居)하였다.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선조의 전세거지인 나주(羅州)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나주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백제 때 발라(發羅)라고 불렸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는 금산(錦山)으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太祖)가 여기를 점령하고 나주(羅州)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철우(哲祐)의 증손 의성(義聖)이 중종 때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의성의 막내아들 지만(枝蔓)이 용양위첨지중추부사(龍驤衛僉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그 밖에 지영(枝榮)의 아들 4 형제 중 맏아들인 기정(起正)이 1507년(중종 2) 초시(初試)에 올라 1546년(명종 1)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을 역임한 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러 가문을 빛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 이씨는 파주시에 총 2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서 이씨(隴西李氏)

농서 이씨(隴西李氏)는 성주 이씨(星州李氏)와 동원이지만 원래의 성주 이씨와는 달리 중국계 귀화족이라 할 수 있다. 성주 이씨의 중시조 이장경(李長庚)의 손자 승경(承慶)이 원나라의 요양성 찬지정사로 큰 공을 세우고 본인은 물론 할아버지 장경까지 선칙(宣勅)으로 농서군공에 봉함을 받았다. 그래서 성주 이씨를 농서 이씨라고도 한다.
그 후 승경의 아들 이영(李英)이 중국에 귀화, 아버지의 봉지인 농서를 본관으로 삼고 대대로 높은 벼슬에 올라 벌족을 이루었다. 널리 알려진 임진왜란 때의 명장 이여송(李如松)·여매(如梅) 형제는 영의 5대손으로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의 총지휘관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평양성을 탈환하는 등 전세를 역전시키고 난이 끝난 뒤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명나라가 망하자 이여송의 손자 이응조(李應祖)와 이여매의 손자 이명조(李明祖)가 조상의 모국인 우리나라로 건너와 정착하면서 중국에서의 본관 농서를 그대로 쓰고, 성주 이씨의 중시조 이장경을 시조로 하여 세계를 잇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여송의 셋째아들 이천충(李天忠)은 뒤에 거제도 아주(鵝洲)로 옮겨가 살면서 일족을 이루어 농서 이씨의 거제도 입조 중시조가 되었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 성주 이씨와 통합, 대동보까지 간행하였는데도 그 계통을 분류하기 위해 농서 이씨로 부르고 있다. 중시조 이천충(李天忠)의 묘소는 경남 거제시 장승포읍 관송촌에 있고,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향사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서 이씨는 파주시에 총 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성 이씨(丹城李氏)

단성 이씨(丹城李氏)의 시조는 이현(李峴)이다.
그는 고려에서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했는데, 그의 선계는 문헌이 실전되어 상고할 수 없다. 그 후 후손 원발(元發)이 태자첨사(太子詹事)를 지냈으며 원발(元發)의 7세손 영보(永寶)가 조선에서 호조판서를 역임하고, 문공서원(文公書院)의 원장(院長)으로 단성(丹城)에 정착 세거하면서부터 후손들이 원발(元發)을 일세조로 삼고 관향을 단성(丹城)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단성은 경상남도 산청군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단계(丹溪)·강성(江城)의 두 현(縣)이 합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다. 강성현은 본래 신라의 궐지현(闕之縣)인데, 경덕왕 때 궐성군으로 개명하였으며, 고려시대 초기에 강성군(江城郡)으로 개칭하였다. 공양왕 때 강성현으로 강등시켜 감무(監務)를 두어 다스렸으며, 조선시대에 일시 명진현(溟珍縣)과 합하여 진성현(珍城縣)이라 칭하기도 하였으나, 후에 다시 복구되었다. 단계현은 본래 신라 전기의 적촌현(赤村縣)인데, 경덕왕 때 단읍현(丹邑縣)으로 고쳤으며, 고려 초기에 단계현으로 개명하였으나, 세종 때에 단계·강성의 두 현을 합하여 단성현으로 개칭하였고,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되었다가, 1914년 군(郡)을 폐하여 산청(山淸)으로 합했다.
역사인물로는 고려에서 대호군(大護軍)을 지낸 원발의 아들 유거(惟擧)와 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을 지낸 그의 아들 숭간(崇幹)이 유명하였으며, 우부승선(右副承宣) 종(棕)은 동정(同正)을 역임한 계인(桂仁)의 아들로 그의 아들 승민(承敏: 직제학을 역임)과 함께 가문을 중흥시켰다. 그 밖에 조선에서는 작(綽: 예조참판을 역임)·윤(稐: 감찰을 역임)·체(棣: 동부승지를 역임)·매(枚: 공조참판을 역임) 등이 뛰어났고, 현감(縣監) 백형(伯亨)과 공조참의에 오른 철주(鐵柱) 등도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성 이씨는 파주시에 총 2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 이씨(丹陽李氏)

단양 이씨(丹陽李氏)의 시조 이배환(李盃換)이다.
그는 고려 태조를 도와 삼한을 통합하는 데 공을 세워 삼한공신(三韓功臣)에 책록되고 벼슬이 문하시중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후의 세계가 실전되어 고려에서 내시진전직(內寺眞殿直)을 지낸 그의 10세손 이방규(李方揆)를 중시조(中始祖)로 하여 계대해 오고 있다. 배환의 14손인 판서 거경의 아들 무(茂)가 공민왕 때 문과에 올라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를 지내고, 조선개국 후 왕자의 난 때 방원을 도와 정사일등공신(定社一等功臣)에 녹훈되고 단산부원군(丹山府院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단양(丹陽)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단양은 충청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고구려의 적산현(赤山縣)이었는데 신라 때 내제군(奈堤郡)의 영현(領縣)으로 만들어졌다가 고려 초에 단산현(丹山縣)으로 고쳤다. 현종(顯宗) 9년 원주(原州)에 속하였다가 뒤에 충주에 붙였고 이때에 현인(縣人)의 충의(忠義)가 능히 홍건적(紅巾賊) 난을 물리쳐 그 포상으로 감무(監務)를 두었다. 충숙왕 5년에 지금 이름으로 고쳐 군으로 승격되어 지단양군사(知丹陽郡事)가 파견되었으며 조선태종 때 단양군으로 되었고, 1914년 영춘군(永春郡)을 합해 오늘에 이르렀다.
역사인물로 겸(謙)은 집의(執義)를 역임한 맹지(孟智)의 아들로 중종 때 문과에 올라 장령(掌令)·사성(司成) 등을 지내고, 기묘사화 때 조광조를 변호하다가 파직되었으나 영조 때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지시(之詩)는 선조 때 무과에서 장원하고 훈련원정(訓鍊院正)이 되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용인(龍仁)의 전투에서 전사하여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의병장 입(立)은 임진왜란 때 소사싸움에서 공을 세워 훈련판관(訓鍊判官)이 되어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에 올랐으며 정묘호란 때는 의병을 일으켜 오랑캐를 무찔러 공을 세워 명나라로부터 상을 하사받았다. 죽은 후에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양 이씨는 파주시에 총 22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흥 이씨(大興李氏)

대흥 이씨(大興李氏)의 시조는 이연계(李連桂)이다.
그는 고려에서 예문관제학을 지내고 이부상서에 올랐다. 연계는 태조가 용흥(龍興)으로 가려는 것을 만류하다 양양(襄陽)으로 유배되었는데 1403년(태종 3) 태종이 이를 특별히 사면하고 대흥군(大興君)에 봉했으며 전주 이씨(全州李氏)로 환원하라는 전교를 내렸으나 본관을 대흥(大興)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대흥은 충청남도 예산군에 속한 지역이다. 원래 백제의 임존성(任存城)인데, 신라 경덕왕 때 임성군(任城郡)으로 개칭하였고, 고려 초에 대흥으로 개칭한 것을 조선 태종 때 군(郡)으로 승격시켰다가 다시 현감을 두었다.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었다가 1934년 대흥면(大興面)으로서 예산군에 편입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연계(連繫)의 아들 3형제 중에 맏아들 손귀(孫貴)가 용주부사(龍州府使)를 지냈으며, 막내 손현(孫賢)은 이부시랑(吏部侍郎)을 거쳐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다. 대사성 맹선(猛船)은 연계(連繫)의 증손이며 종수(縱囚)의 아들로 대사간을 지낸 흥춘(興春)은 대사성을 역임한 석화(碩華), 참판을 역임한 규영(圭永), 전서(典書)를 지낸 세정(世情) 등과 함께 고려에서 가문을 중흥시킨 인물이다.
조선에서는 인로(引路)가 첨절제사(僉節制使)를, 그의 동생 인종(仁宗)은 감찰을 지냈으며, 후손 기(榿)는 판서를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흥 이씨는 파주시에 총 2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산 이씨(德山李氏)

덕산 이씨(德山李氏)의 시조는 이존술(李存述)이다.
그는 고려 명종 때 덕풍호장(德豊戶長)을 지냈다. 그의 아들 언후(彦厚)와 손자 극보(克甫), 그리고 증손 핵(翮)이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을 지내며 명문의 기틀을 다졌으므로 후손들이 덕산(德山)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그 후 5세손 유실(瑜實)이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 그의 아들 겸(謙)이 비서교서랑(祕書校書郞)을 역임하고 겸의 아들 사목(思牧)은 집현전의 대제학(大提學)에 올랐다.
덕산은 충청남도 예산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덕풍(德豊)·이산(離山) 두 현(縣)의 합명인데, 덕풍현(德豊縣)은 백제의 금물현(今物縣)을 신라 경덕왕 때 금무(今武)로 개명하고 고려 때 덕풍으로 고쳤다. 이산현(李山縣)은 본래 백제의 시산군(尸山郡)인데 경덕왕 때 이산군으로 개명하였으며, 1405년(태종 5) 두 현을 합하여 덕산현(德山縣)을 만들었고, 1847년(현종 13) 군(郡)으로 승격하였다가 1913년 일제강점기에 덕산면이 되어 지금은 예산군 덕산면(德山面)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 판도판서(版圖判書) 영(英)은 존술(存述)의 8세손으로 그의 아들 3형제 중에 장자 유(愉)가 조선 때 직제학(直提學)을 지냈으며 차남 조(造)는 관직에 재직 중 대간의 모함을 받아 두 차례나 유배를 당한 후 풀려 나와 이조의랑(吏曹議郞)을 거쳐 이조판서에 올랐다. 사맹(師孟)은 유(愉)의 아들로 태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병조참판 등을 거쳐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편 순(純)은 문과에 급제하여 장령(掌令)·봉상시정(奉常侍正)을 거쳐 예조정랑을 지냈고 규문(奎文)은 참판을 지냈다.
그 밖에 근대에 가문을 빛낸 상만(尙萬)의 아들 종원(宗原)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안창호(安昌浩)·이승만(李承晩) 등과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망국의 한을 안고 자결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덕산 이씨는 파주시에 총 4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수 이씨(德水李氏)

덕수 이씨(德水李氏)의 시조는 이돈수(李敦守)이다.
그는 고려 때 신호위중랑장(神號衛中郎將)을 지냈는데, 그의 아들 양준(陽俊)은 조산대부(朝散大夫)로 흥위위보승장군(興威衛保勝將軍)을 역임하고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어사대부(御史大夫)·이부상서(吏部尙書) 등에 추증 되었다. 그 후 양준(陽俊)의 아들 소(劭)가 고려 고종 때 남성시(南省試)에 급제하여 통의대부로 전법판서(典法判書)와 지삼사사(知三司事)·세자내직랑(世子內直郞) 등을 역임하였다.
소(劭)의 아들 형제 중 장자(長子)인 윤온(允溫)이 판도판서(版圖判書)와 상호군(上護軍)을 역임하며 나라에 공을 세워 선충경절공신(宣忠勁節功臣)에 책록되고 벽상삼한삼중대광으로 첨의정승(僉議政丞)·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에 추증되어, 덕수부원군(德水府院君)에 추봉되었다. 그로부터 후손들은 중랑장 이돈수(李敦守)를 시조로 받들고 세거해 온 덕수(德水)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덕수는 경기도 개풍군(開豊郡)에 속해 있던 옛 지명으로, 고구려 때 덕물현(德勿縣)·인물현(仁物縣)으로 불리다가 통일신라 때 덕수현(德水縣)으로 개칭되고, 조선 세종 때 해풍군(海豊郡)과 합하여 풍덕부(豊德府)로 승격되었으며, 나중에 개성군(開城郡)의 개(開)자와 풍덕(豊德)의 풍(豊)자를 따라 개풍군(開豊郡)으로 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말에 참지문하정사(參知門下政事)를 지내고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수사공주국(守司空柱國)에 올라 낙안백(樂安伯)에 봉해졌던 천선(千善: 윤온의 아들)이 뛰어났고, 도사(都事) 윤번(允蕃)의 증손(曾孫) 변(邊: 수사재시사 공진의 아들)이 유명했다. 1419년(세종 1) 문과에 급제했던 변(邊)은 승문원박사(承文院博士)와 부교리(副校理)를 거쳐 대제학과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를 지내고 궤장을 하사받았으며, 성종이 즉위한 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이르렀다.
변(邊)의 손자 거(琚)는 이조정랑과 장악원정(掌樂院正)을 지내고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이 되어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이(珥)는 조선 유학계의 거봉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기호학파(畿湖學派)의 학자로, 장구(章句)의 분석적인 해설보다 근본 원리를 자유롭게 통찰함을 학문 연구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이황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에 대해서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設)을 근본 사상으로 한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하였다. 또한 율곡(栗谷)은 학문을 민생 문제와 직결시켰고, 당쟁의 조정, 10만 대군의 양성 및 대동법(大同法)과 사창(社倉)의 실시에 노력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글씨와 그림에도 모두 능했다.
충무공 순신(舜臣)은 1545년(인종 1) 한양(漢陽)에서 정(貞)의 셋째 아들로 출생한 순신(舜臣)은 1579년(선조 9)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벼슬은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에 이르렀고 선무1등공신(宣武一等功臣)으로 덕풍부원군(德豊府院君)에 봉해졌다.
한성판윤(漢城判尹) 광하(光夏)의 아들 집이 영조 때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이 되고 실록청 총재관(實錄廳總裁官)으로 『경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병모(秉模)는 순조 때 영의정에 올랐고, 문장과 글씨가 뛰어나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와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를 편찬했다.
한말에는 춘영(春英)이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안승우(安承禹)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단양(丹陽) 등지에서 일본군)을 격파했고, 내금위장(內禁衛將) 민하(敏夏)의 아들 세영(世榮)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모집하여 항일운동을 주도했으며, 민화(敏華)와 일영(鎰永)도 항일투쟁에서 혁혁한 훈공을 세웠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덕수 이씨는 파주시에 총 7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덕수 이씨는 이명신(李明晨)을 파시조(派始祖)로 하며 파주에 입향하게 된 시기는 율곡 이이의 6대조 할아버지인 이양(李楊)때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위로는 묘소가 개풍군에 있고 이양에 이르러서 파주 파평면 두포리에 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율곡 이이가 16세기 중반에 살았으니 파주 입향조인 6대조는 14세기 중반쯤으로 보인다.

이처럼 덕수 이씨들이 오래 전에 파주에 입향했지만 후손들은 파주에 뿌리를 내려 세거하기보다는 주로 외지로 퍼져 나간 듯하다. 파평면 율곡3리에 덕수 이씨가 8호 살고 있는데 대부분 해방 이후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파주관련 덕수 이씨의 주요 인물로는 화석정이라 명명한 이의석(李宜碩), 율곡 이이(李珥) 등이 있다. 선영은 파평면 두포리와 율곡리, 법원읍 동문리 등이다. 율곡 이이 선생의 종손 이천 용씨가 고양시에 거주한다. 파주의 덕수 이씨 관련유적으로는 법원읍 동문리의 파주 이이 유적이 국가 사적 제525호로 지정되었으며 파평면 율곡리 화석정이 경기도유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었다.

덕은 이씨(德恩李氏)

덕은 이씨(德恩李氏)는 경주 이씨에서 분적한 자영(自英: 진위 이씨 시조)의 5세손 이전(李荃)을 시조로 한다. 그는 한성부우윤을 거쳐 덕은군(德恩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덕은(德恩)을 본관으로 삼아 진위 이씨에서 분적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덕은은 충청남도 노산군 은진면(恩津面)의 일부를 이루는 지역의 옛 지명이다. 본래 백제의 덕근군(德近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덕은군(德恩郡)으로 개명하였다. 고려 초에는 덕은(德恩)으로 고쳤다가 1017년(현종 9) 공주에 속하였고, 1406년(태종 6)에 시진현(市津縣)과 합하여 감무를 두었으며 1419년(세종 1) 은진(恩津)으로 고치고 현감을 두었다.

역사인물로는 운생(芸生)이 전(荃)의 아들로 조선개국 후 가선대부로 형조참판에 이르렀으며, 덕진군(德津君)에 봉해졌다. 한편 선조 때 부제학을 역임한 기수(麒壽)는 형손(亨孫)의 아들로 가선대부에 올라 홍문관부제학·판중추부사에 이르렀고, 그의 형 인수(麟壽)는 명종 때 과거에 급제, 훈련원참봉을 거쳐 사헌부감찰·진해현감(鎭海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덕은 이씨는 파주시에 총 1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 이씨(東城李氏)

동성 이씨(東城李氏)의 선대는 중국 농서(隴西)의 분파로 사천(泗川)에 세거하였다. 시조 이식(李軾)은 충렬왕 때 국자진사(國子進士)로 송악군수(松岳郡守)를 역임했으며, 그의 6세손 자가 담양교도(潭陽敎導)를 지낼 때까지 모두 6대에 걸쳐 진사를 지냈고, 후손들이 사천(泗川)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사족으로 토착 세거하며 동성(東城)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동성은 경상남도 사천(泗川)의 옛 지명이다. 본래 신라의 사물현(史物縣)이던 것을 경덕왕이 사수(泗水)로 고쳐 고성군 영현(領縣)으로 삼았으며 고려 때 사주(泗州), 조선 태종 때 사천(泗川)으로 고쳤고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정(楨)이 일찍이 당대에 이름난 성리학의 대가 송인수(宋麟壽)의 문하에서 글을 읽고, 중종 때 별시문과에 장원하여 삼사(三司)의 벼슬을 거쳐 경주부윤(慶州府尹)이 되었다. 그 후 선조 대에 이르기까지 4조(朝)에 걸쳐 나라에 많은 공적을 남겼으며, 벼슬이 대사간을 거쳐 부제학에 이르렀다. 그는 성리학(性理學)에도 밝아 퇴계 이황과 친교가 있었으며 『성리유편(性理遺篇)』을 저술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 이씨는 파주시에 총 1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 이씨(密陽異氏)

밀양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변한의 일부로 가락국(駕洛國)에 속하였으며, 법흥왕 때 신라에 병합되어 추화군(推火郡)이 되었다가 757년(경덕왕 16) 밀성군(密城郡)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에 와서 995년(성종 16)에 밀주(密州)로 하였고, 1390년(공양왕 2) 밀양부(密陽府)로 승격, 그 후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듭하다가 1895년 밀양군(密陽郡)으로 개칭하였다.
이씨(異氏)는 중국 당(唐)나라 덕종(德宗) 때 운남왕(雲南王) 이모심(異牟尋)의 후손으로 전(傳)한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의하면 이씨(異氏)의 본관(本貫)은 밀양(密陽) 외에 동성(童城: 통진지방)·청양(靑陽)·남원(南原)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시조와 연원에 대한 설명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현종 때 좌복야(左僕射)를 지낸 이응보(異膺甫)와 그의 후손으로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역임한 이유충(異惟忠), 문종 때 형부상서(刑部尙書)와 안서도호부사(安西都護府使)를 지낸 이선정(異善貞)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양 이씨는 파주시에 총 4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벽진 이씨(碧珍李氏)

벽진 이씨(碧珍李氏)의 시조는 이총언(李悤言)이다.
신라 말 벽진군(碧珍郡) 태수였던 그는 왕건을 도와 고려창업에 훈공을 세워 삼중대광으로 벽진장군(碧珍將軍)에 올랐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이총언을 시조로 받들고 본관을 벽진(碧珍)으로 삼게 되었다. 벽진장군 총언(悤言)의 아들 영(永)도 18세로 왕건을 도와 고려 개국에 공을 세웠으므로, 왕건이 대광(大匡) 사도귀(思道貴)의 딸과 혼인하게 하고 식읍을 하사했다. 그 후 영(永)은 대제학(大提學)과 지경산부사(知京山府使)를 역임했고, 그의 아들 방회(芳淮)는 추밀원사(樞密院使)를 역임하였다.
벽진은 경상북도 성주군(星州郡)의 통일신라 때 행정구역명이다. 본래 성산가야국(星山伽倻國)을 신라가 멸망시키고 이를 본피현(本彼縣)이라 하다가 757년(경덕왕 16)에 신안현(新安縣)으로 개칭하여 성산군(星山郡)에 속하게 하였다. 통일신라 때 벽진군(碧珍郡)으로 개칭하고 치소(治所)를 지금의 성주읍에 두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쳐 1895년(고종 32) 성주군으로 개칭되어 벽진면(碧珍面)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총언(悤言)의 10세손으로 공부사(工部事)를 지낸 옹(雍)의 맏아들 견간(堅幹)이 충렬왕부터 충숙왕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주요 관직을 역임하였고, 병조판서 심지(審之)의 아들 맹전(盟專)은 승문원정자(丞文院正字)와 사간원우정언(司諫院右正言)을 거쳐 거창현감(巨創縣監)으로 나가 선정을 베풀어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다. 맹전(盟專)의 아우 계전(季專)은 경기관찰사와 병조판서를 역임한 후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참판 신지(愼之)의 손자 승언(承彦)은 성종 때 한성참군(漢城參軍)을 지냈다.
1585년(선조 18) 식년문과에 급제했던 상길(尙吉)은 광주목사(光州牧使)로 나가 선정을 베풀어 명성을 떨쳤으며, 광해군이 즉위하자 회양부사(淮陽府使)와 안주목사I安住牧使)를 지냈고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광해군의 난정을 개탄하여 벼슬에서 물러났다가 인조반정 후에 병조참의를 지내고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상길(尙吉)의 아우 상급(尙伋)은 임금을 호종하고 남한산성에 들어갔다가 적과 대전 끝에 장살되었다.
그 밖에 구한말에 척화양이지론(斥和攘夷之論)의 국수적 이론으로 가장 의로운 인맥을 형성한 화서(華西) 항로(恒老),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오적신(五賊臣)'의 처형을 강력하게 상소했던 우면(愚冕), 기미독립운동 때 유림(儒林)에서 궐기하여 파리장서사건으로 투옥되었던 덕후(德厚)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벽진 이씨는 파주시에 총 52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산 이씨(鳳山李氏)

봉산 이씨(鳳山李氏)의 시조는 이수(李隨)이다.
그는 태조 때 생원시에 장원하고 태종이 인재를 구할 때 성균관의 천거로 뽑혔으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사퇴하였고, 이듬해 충녕대군(忠寧大君)의 사부가 되었다. 그 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의정부참찬을 거쳐 병조판서에 이르렀으나 취중에 말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특히 그는 문장과 덕행이 높았고, 봉산(鳳山)의 토지를 하사받아 후손들이 그곳에서 정착 세거하면서 본관을 봉산(鳳山)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봉산은 황해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 때 휴암군(鵂巖君)·조파의(租坡衣)·휴류성(鵂鶹城) 등으로 불리다가 통일신라 때 서암군으로 고쳤고, 고려 초에 봉주로 개칭하여 방어사(防禦使)를 두었으나 현종 때 폐하고 황주(黃州)에 속하게 되었다. 그 후 충렬왕 때 봉양군(鳳陽君)으로 고쳐 지사(知事)를 두었다가 후에 다시 봉주로 개칭하였으며, 조선 태종이 봉산군(鳳山郡)으로 고쳐 오늘에 이르렀다.
역사인물로는 수(隨)의 아들 4형제 중 맏아들 귀종(龜從)이 세종 때 태학(太學)에 천거되어 통훈대부·사헌부지평 겸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지냈고, 차남 서종(筮從)은 호조좌랑을 역임하였다. 삼남 복종(福從)은 평산부사(平山府使)를, 막내인 길종(吉從)은 참봉을 역임하였다.
그 밖에 현령을 지낸 즙(楫), 병마사를 역임한 팽구(彭丘), 경차관(敬差官)을 지낸 영(坽)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봉산 이씨는 파주시에 총 4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 이씨(富平李氏)

부평 이씨(富平李氏)의 시조는 이희목(李希穆)이다.
그는 고려에서 삼중대광벽상공신에 올랐고, 증손 정공(靖恭)이 문하시중·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로 치사(致仕)하여 부평백(富平伯)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부평(富平)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부평은 경기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원래 고구려의 주부토군(主夫吐郡)이라 불리다가 통일신라 시대에 장제군(長堤郡)으로 개칭하여 그 관할하에 4개 현(縣)을 두었다. 고려 성종 때에 수주(樹州), 문종 때에 안남(安南)·부평(富平)이라 불렀다. 1413년(태종 13)에 도호부(都護府)가 되었으며, 1914년 군부(郡府) 폐합령에 따라 넓은 지역이 인천부(仁川府)에 속하게 되었고, 나머지 지역과 주변 일부지역을 합쳐서 부천군으로 발족하였다. 그 후 인천과 서울의 팽창에 따라 주읍(主邑)인 부평이 인천에, 9개 리(里)가 서울에 편입되어 소사(素砂) 1읍과 9면을 관할하에 두었다가 1973년 부천군이 폐지되면서 9면이 옹진군·시흥군·김포군에 이관되고,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정공(靖恭)의 맏아들 도(燾)는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냈고, 차남 위(瑋)는 고려 선종(宣宗)때 수태보(守太保)·문하시중(門下侍中)·판상서부사(判上書部事)에 오르고 계양군(桂陽郡) 개국백(開國伯)에 봉해져, 뒤에 광국공신(光國功臣)·진정공신(鎭定功臣)의 호를 받아 계양공(桂陽公)에 봉해졌다. 셋째 아들인 순(珣)은 고려 때 양광도도순문사(都巡問使)로 홍건적을 물리쳐 일등공신에 올라, 뒤에 삼사좌사(三司左使)를 지냈다.
정공(靖恭)의 16세손인 세화(世華)는 조선에서 관찰사를 역임하고 호조판서,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겸 지경연사(知經筵事)를 지냈고 청백리에 녹선되었으며, 공조·형조·병조·이조 등의 판서를 거쳐 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평 이씨는 파주시에 총 9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부평 이씨 통덕공 세구파는 이세구(李世龜)를 파시조(派始祖)로 하며 21대조 이홍원을 입향조(入鄕祖)로 한다. 19세기 전반에 파주로 입향하였다. 문산읍 선유4리 새능에 7호가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2일~3일 선영이 있는 문산읍 선유4리 새능마을 풍계사에서 시제를 지낸다. 쌍백당(雙栢堂) 이세화 선생 묘가 경기도기념물 제60호로 지정되었다.

상주 이씨(尙州李氏)

상주 이씨(尙州李氏)의 시조는 이민도(李敏道)이다.
원래 중국 하간(河間) 사람으로 원나라 경원로총관(慶元路摠管) 공야의 아들이다. 그는 동지탁주사를 지내다가 원나라 말기에 나라 안이 어지럽자 고려의 사신 성회득(成淮得)·장사성(張士誠) 등이 원나라에 왔다가 귀국할 때 따라와 서운부정(書雲副正)이 되고 자혜부윤(慈惠府尹)겸 판전의시사(判典醫寺事)에 이르렀다. 이성계가 잠저에 있을 때 은밀히 왕으로 추대할 뜻을 밝힌 공으로 조선개국 후 벼슬이 상의찬성사(商議贊成事)에 올랐으며, 개국공신 2등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처의 고향이 상주(尙州)인 까닭으로 상주군(尙州君)에 봉해졌다. 그래서 후손들이 상주를 본관으로 삼았다.
상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삼한시대에 진한의 영토였으며, 사벌국(沙伐國)·사불(沙弗)로 독립해오다가, 신라 첨해왕(沾解王) 때 상주(上州)라 하였다. 그 후 상락군(上洛郡)·사벌주(沙伐州)로 불리다가 경덕왕(敬德王)이 상주(尙州)로 개칭하였다. 상산은 상주의 옛 지명이다.
역사인물로 시조 민도의 아들인 진(秦)은 세종 때 청주목사(淸州牧使)를 지냈고 진의 아들 창윤(昌胤)은 세종 말에 대호군을 지냈는데 단종 때 황보인·김종서 등과 뜻을 같이하여 단종을 섬기다가 계유정난 때 연안으로 유배당했다. 청풍당(淸風堂) 성임(聖任)은 선조 때 진사에 급제, 청도(靑道)·진산(珍山)·진도(珍島) 등 여러 군의 군수를 지냈다. 그가 청도군수로 있을 때 모친상을 당했으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기복(起復) 종군하여 왕의 어필(御筆)로 청풍당(靑風堂)이란 호를 받았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주 이씨는 파주시에 총 3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조의 묘소는 경기도 파주시 천현면 오현리에 있고, 매년 음력 10월 3일에 향사하고 있다.

서림 이씨(西林李氏)

서림은 충청남도 서천군(舒川郡)의 옛 지명이다. 백제시대에 설림군(舌林郡)·남양(南陽)으로 불렀는데 신라 경덕왕 때 서림군(西林郡)으로 고치고, 1008년(현종 9) 가림현(嘉林縣)에 예속시켰다가 후에 다시 설치하였다. 1314년(충숙왕 1) 서천으로 고쳐 군으로 하였고 1913년 비인군(庇仁郡)·한산군(韓山郡)을 병합하였다. 1938년 서남면(西南面)과 마동면(馬東面)의 일부가 장항읍(長項邑)으로 승격되었고 1979년 서천면은 서천읍으로 승격되었다.

서림 이씨(西林李氏)는 문충공(文忠公) 이익존(李益存)을 원조(元祖)로 하고, 서림군(西林君)에 봉해진 효사공(孝思公) 세공(世公)의 손자이며 악존의 18세손인 언충(彦忠)을 일세조로 하고 있다. 언충은 충숙왕 때 밀직부사(密直副使)·좌우정승(左右政丞)을 역임하고, 공신으로 서주군(西州君, 서주는 서천의 별호)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본관을 서림(西林)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역사인물로는 당림(唐林)과 호정(戶靖)·강(剛)·자춘(子春)을 들 수 있다. 당림(唐林)은 언충(彦忠)의 아들이며 추충여절이익위공신(推忠勵節翊衛功臣)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봉익대부(奉翊大夫)·지밀직사(知密直事) 겸 대장군(大將軍)을 지냈고, 언충의 손자인 호정(戶靖)은 벼슬이 호조판서에 이르렀다. 자춘(子春)은 언충(彦忠)의 증손(曾孫)으로 대제학을 지냈으며, 자춘의 아들 강(剛)은 봉정대부(奉正大夫)와 예빈첨정(禮賓僉正)을 지냈다. 조선에서 이조좌랑을 지낸 세헌(世憲)은 언충(彦忠)의 10세손이며, 후손 봉명(鳳鳴)은 병조좌랑을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림 이씨는 파주시에 총 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 이씨(瑞山李氏)

서산 이씨(瑞山李氏)의 시조는 이영모(李永謨)이다.
그는 고려 때 금자광록대부(金紫光錄大夫)로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를 지냈으나, 문헌이 실전되어 그의 선계와 득관유래(得貫由來)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서산은 충청남도 서산시 일월의 옛 지명으로 백제 때에는 기군(基郡)이다. 1896년에 충청남도 서산군이 되었다. 1914년 군면 폐합으로 태안(泰安)·해미(海美)를 서산에 통합하였고, 1989년에 서산읍이 시로 승격되어 분리되고 태안군이 복원되어 분리되었다. 1995년에는 서산군이 서산시에 통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아들 덕원(德源)이 고려 때 우복야(右僕射)를 지냈고, 손자 공환(公環)과 증손 규서(圭瑞), 규서의 손자 맹상(盟祥)이 모두 상서(尙書)를 역임하였다.
조선에서는 만호를 거쳐 첨절제사를 역임한 맹(盟)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여러 차례 전공을 세우고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하였으며, 응운(應運)은 병자호란 때 아들과 함께 참전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그 밖에 항일운동의 선봉자로서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진룡(鎭龍)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산 이씨는 파주시에 총 1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산 이씨(星山李氏)

성산 이씨(星山李氏)의 시조는 이능일(李能一)이다.
그는 누대에 걸쳐 경산지방에 토착 세거해온 사족이었다.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할 때 공을 세워 태조로부터 삼한통일에 크게 기여했다는 뜻으로, 처음의 이름 능(能)자에 일(一)자를 더해 능일(能一)로 사명(賜名)받았으며, 개국벽상좌명공신(開國壁上佐命功臣)에 녹훈되어 대광사공(大匡司功)에 봉해졌다.
성산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성주(星州)의 옛 지명이다. 본래 육가야국의 하나인 성산가야국(星山伽倻國)인데 신라가 멸망시켜 본피현(本彼縣)이라 하다가 757년(경덕왕 16)에 신안현(新安縣)으로 개칭하여 성산군(星山郡)에 속하였다. 그 후 벽진군(碧珍郡)으로 고쳤고 940년(고려 태조 23) 경산부(京山府)로 개칭하였다가 경종(景宗)때 강등하여 광평군(廣平郡)이 되었으나, 995년(성종 14) 대주도단련사(岱州都團練使)를 두었으며 현종 때 다시 경산부(京山府)로 승격하여 1군 14현을 영속하였다. 충렬왕 때 흥안도호부(興安都護府)로 승격한 후 성주(星州)로 고쳐 목(牧)을 두었고, 충선왕이 다시 경산부로 강등하였으나 조선 태종 때 성주목(星州牧)으로 승격하였다. 1895년(고종 32) 성주군(星州郡)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고려에서는 대경(大卿)을 지낸 능일의 5세손 견수(堅守)와 정당문학을 지낸 우당(宇唐), 판서(判書)를 역임한 영(英), 강원도안렴사(江原道按廉使)를 지낸 여량(汝良) 등이 있다.
조선에서는 우(友)가 세종 때 진주목사(晋州牧使)를 지냈고, 세인(世人)은 중종 때 대사간을 거쳐 이조참의에 올랐다. 항(沆)은 연산군 때 등과하여 이조·예조·병조판서를 지낸 후 좌찬성에 이르렀으며, 그의 현손 복(馥)은 효종 때 이조참의를 거쳐 동부승지에 올랐다.
그 밖에 석구(碩九)는 군자감정(軍資監正)과 집의(執義)를 지냈고, 석문(碩文)은 장헌세자(莊獻世子)가 변을 당할 때 선전관(宣傳官)으로서 세자를 업고 극간(極諫)한 충신(忠臣)이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산 이씨는 파주시에 총 53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 이씨(星州李氏)

성주 이씨(星州李氏)의 시조는 이순유(李純由)이다.
그는 신라 경순왕 때 재상을 지냈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아우 돈유(敦由)와 더불어 기울어져 가는 신라의 마지막을 지켜본 충신으로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고 손위하자 마의태자와 함께 민심을 수습하고 천년 사직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국의 방책을 기도하였으나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성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대 성산가야국(星山伽倻國)인데 신라가 멸망시켜 본피현(本彼縣)이라 하다가 757년(경덕왕 16) 산안현(新案縣)으로 개칭하여 성산군(星山軍)에 속하였다. 그 후 벽진군(碧珍軍)으로 고쳤고 940년(고려 태조 23) 경산부(京山府)로 개칭하였다가 경종(警鐘)이 강등하여 광평군(廣平郡)이 되었으나 995년(성종14) 대주도단련사(岱州都團練使)를 두었으며 현종 때 다시 경산부(京山府)로 승격하였다. 충렬왕 때 흥안도호부(興安都護府)로 승격한 후 성주(星州)로 고쳐 목(牧)을 두었고 충선왕이 다시 경산부로 강등하였으나 조선 태종이 어태(御胎)를 이곳의 조곡산(祖谷山)에 봉안하고 성주목(星州牧)으로 승격하였다. 1895년 성주군(星州郡)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 문열공(文烈公) 조년(兆年)은 충혜왕 때 정당문학을 거쳐 예문관대제학에 올라 성산군(星山君)에 봉해졌으며, 그의 아들 포(鮑)는 광정대부(匡正大夫)로 도첨의평리(都僉議評理)를 역임했다. 1326년(충숙왕 13) 19세로 문과에 급제했던 인복(人復)은 공민왕 때 정당문학 겸 감찰대부가 되고 성산군(星山君)에 봉해졌다.
이성계를 도와 조선창업에 공을 세웠던 직(稷)은 개국 3등공신(開國三等功臣)으로 성산군(星山君)에 봉해졌고, 제2차 왕자의 난 때 방원(芳遠)을 도와 좌명4등공신(左命四等功臣)이 되었으며, 대제학을 거쳐 판사평부사로서 왕명을 받아 주자소(鑄字所)를 설치, 동활자(銅活字)인 계미자(癸未字)를 만들었다. 순충좌명개국일등공신(純忠佐命開國一等功臣)으로 흥안군(興安君)에 봉해졌던 제(濟)는 이성계의 셋째 딸인 경순공주(慶順公主)와 혼인했고, 왕자의 난 때 태조비 신덕왕후의 구명 소청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했다. 항(恒)은 일찍부터 무사가 되는 것일 꿈이어서 무예를 익히다가, 백부(伯父)의 꾸지람을 들은 것을 계기로 각성하고 30세에 이르러 박영(朴英)의 문하로 들어가 학문을 닦아 조선 중기의 대학자로 명망이 높았으며 '호남오현(湖南五賢)'의 으뜸으로 추앙받았다. 대사헌 언충(彦忠)의 증손 광적(光迪)은 삼조(효종·현종·숙종)에 걸쳐 60년간이나 입사했던 명신으로 90세에 숭정대부)에 올랐다. 한말에는 조선 이학(理學)의 6대가로 불렸던 한주(寒州) 진상(震相)이 3·1운동 때 만국평화회의에 연판장을 찍어 그의 문인(文人) 김창숙(金昌淑)으로 하여금 해외에 부치게 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제국신문사 기자를 지낸 종일(種一)은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손수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였다고 옥고를 치렀고, 조선국문연구회(朝鮮國文硏究會) 회장이 되어 한글 맞춤법 연구에 이바지한 공으로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주 이씨는 파주시에 총 1,38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안 이씨(遂安李氏)

수안 이씨(遂安李氏)의 시조는 이견웅(李堅雄)이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의하면, 그는 고려 태조를 도와 개국공신으로 삼중대광태사에 이르렀으며, 후손 연송(連松)이 충숙왕 때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하고 수안군(遂安君)에 봉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수안(遂安)을 식읍으로 하사받아 후손들이 그곳에 정착 세거하면서 본관을 수안(遂安)으로 삼아 세계를 계승하여 왔다.
수안은 황해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원래 고구려의 장색현(璋塞縣)이었는데, 신라 때 서암군(栖巖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 초에는 수안현(遂安縣)이 되었다가 현종 때 곡주(谷州)에 속하였으며, 후에 다시 현령(縣令)을 두었다. 충선왕 때는 원(元)의 환관 이대순(李大順)이 청하여 수주(遂州)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조선 초에 현재의 지명인 수안군(遂安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견웅(堅雄)의 손자 빈(彬)이 사공(司空)을 지냈다. 충렬왕 때 판례빈시사(判禮賓寺事)를 거쳐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역임한 연송(連松)은 추충보정공신(推忠輔靖功臣)으로 삼중대광태사평장사에 이르렀고 수안군(遂安君)에 봉해졌다. 판삼사사(判三司事) 수산(壽山)의 아들인 염(恬)은 고려에서도 벼슬을 지냈고 조선이 개국한 후에는 삼사우복야(三司右僕射)를 거쳐 정당문학으로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정한(廷翰)의 아들 시항(時恒)은 성품(性品)이 고결(高潔)하여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고, 『화은집(和隱集)』을 저술하여 명성을 날렸다. 한말에 준식(俊植)은 독립운동가로 크게 활약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안 이씨는 파주시에 총 27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이씨(水原李氏)

수원 이씨(水原李氏)의 시조는 이자송(李子松)이다.
공주 이씨의 시조 문무공(文武公) 이천일의 34세손으로 전하는 그는, 공민왕 때 도찰리사(道察理使)를 거쳐 전법판서(典法判書)로 원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와 밀직부사가 되고, 단성보조공신(端誠輔祚功臣)에 녹훈되었다. 그 후 우왕 때 개경유수(開京留守)로 왕의 방탕함을 간(諫)하다가 한 때 파직되기도 했으나 다시 등용되어 공산부원군(公山府院君)에 봉해졌다가 사망 후 수성부원군(隨城府院君, 수성은 수원의 별호)으로 개봉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자송(子松)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수원(水原)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수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매홀(買忽), 통일신라 때 수성(水城), 고려 때 인주(仁州)·수주(水州)로 불리다 1310년(충선왕 2)에 수원(水原)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여러 변천을 거쳐 1895년(고종 32) 한 때 인천부(仁川府) 관할의 수원군(水原郡)으로 되었다가 1949년 수원군을 분할하여 수원시(水原市)로 승격시키고 수원군은 화성군(華城郡)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자송(子松)의 아들 장길(長吉)이 조선에서 대제학을 지냈으며, 손자 인기(仁奇)가 판밀직사(判密直事)를, 증손 인수(仁壽)는 이조판서를 역임했다.
그 밖에 호조참판을 지낸 효신(孝信), 공조참의를 지낸 령(嶺), 판서에 이른 원휘(元輝), 동지중추부사에오른 영석(永碩)·징명(徵明), 호조판서를 역임한 휘백(輝白)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 이씨는 파주시에 총 5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 이씨(順天李氏)

순천 이씨(順天李氏)의 시조는 이사고(李師古)이다.
그는 고려에서 문하시중으로 승평백(昇平伯)에 봉해졌으며, 후손들이 순천에서 정착 세거하면서 본관을 순천(順天)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순천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에는 함평(咸平), 신라 때 승평(昇平), 996년(고려 성종 15)에 승주(昇州)로 불렀다가, 1310년(충선왕 2) 순천(順天)으로 개칭하였다. 순천은 평양(平陽)이라는 별호로 불리기도 했다.
역사인물로는 사고(師古)의 아들 양소(陽昭)가 일찍이 정몽주(鄭夢周) 문하에서 글을 배워 문과에 급제, 사예(司藝)를 거쳐 군수(郡守)를 역임했다. 특히 그는 이방원과 곡산(谷山) 청룡사(靑龍寺)에서 함께 학문을 닦아 교분이 두터웠으며 조선이 개국하자 태조가 여러번 불렀으나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하여 거절했다. 태종은 옛 벗인 그의 의절(義節)을 가상히 여겨 그가 은거(隱居)해 있는 산을 청화산(淸華山)이라 부르고 저택을 하사했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장지(葬地)까지 지정해 주었다고 한다.
양소(陽昭)의 아들 두 형제도 모두 벼슬에 나갔는데, 맏아들 극문(克文)은 부사(府使)를, 차남 극충(克忠)은 현령(縣令)을 지냈으며, 손자 눌(訥)과 성(誠)도 명문의 대(代)를 이었다.
그 밖에 정조(鼎祚)·영복(永福)·영기(永祺)가 현감(縣監)을 역임했고, 덕구(德耉)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使)를, 태진(泰鎭)은 참판(參判)을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 이씨는 파주시에 총 2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평 이씨(新平李氏)

신평 이씨(新平李氏)는 백제 때 신평호장(新平戶長)을 지낸 이인수(李仁壽)의 후손으로 고려에서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낸 덕명(德明)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신평(新平)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신평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속했던 지역이다. 본래 백제 사평현(沙平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신평(新平)으로 고쳐서 혜성(槥城: 면천)의 영현으로 삼았다가 1018년(고려 현종 9) 홍주(洪州)에 편입되었다. 세종 때 진(鎭)을 두었으며 뒤에 홍양현(洪陽縣)으로 강등되었다가 1914년 홍성군(洪城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덕명(德明)의 아들 환(桓)이 좌복야(左僕射)를 역임했으며, 그의 맏아들 임(稔)은 시중(侍中)을, 차남 비(秘)는 시랑(侍郞)을 지냈다. 덕명(德明)의 7세손인 첨(詹)은 공민왕 때 문과에 올라 조선이 개국한 후 대제학에 이르렀고, 문장에 능하여 『저생전(楮生傳)』과 『삼국사략(三國史略)』을 저술하였다.

중국어에 정통했던 거(遽)는 승문원박사(承文院博士)로 있을 때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書將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형조참의·동지중추부사를 거쳐 관찰사에 이르렀다. 원로(元老)는 조선 인조 때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으로 신양군(新陽君)에 봉해져 녹권(錄券)을 받았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평 이씨는 파주시에 총 37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이씨(牙山李氏)

아산 이씨(牙山李氏)의 시조는 이주좌(李周佐)이다.
소판공(蘇判公) 이거명(李居明: 경주 이씨의 시조)의 5세손인 그는, 고려 때 평장사를 역임한 승훈(承訓)의 둘째 아들이다. 주좌(周佐)는 고려에서 형부상서(刑部尙書)·판어사대사(判御史臺事)를 지냈고 사공(司空)에 추증되었으며, 그의 후손 서(舒)가 원종 때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벽상공신삼중대광)으로 아주백(牙州伯)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아산(牙山)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아산은 충청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 때 아술현(牙述縣)인데 통일신라 때 음봉(陰峰, 일명 陰岑)·온정군령(溫井郡嶺)이라 하였고, 고려 초기에 인주(仁州)로, 그 후 아주(牙州)로 고쳐 감무를 두었다. 1413년(조선 태종 13) 아산으로 고쳤고 온양·평택·신창의 3읍으로 분속되었다가 1476년(성종 7) 아산현이 되었으며 1895년 군이 되었고 1914년 온양·신창 두 군을 편입하여 지금의 아산군에 이르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옹(邕)이 문하시중을 지냈고, 옹의 맏아들 천계(天桂)가 감찰을, 차남 천기(天杞)가 감정을 역임하였다. 또한 천계(天桂)의 아들로 대사간을 지낸 원생(原生)과 정언을 역임한 원명(原明)·원항(原恒) 3형제가 유명했고, 손자 종신(宗信)은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를 역임하였다. 용(聳)의 맏아들 효반(孝盤)은 도첨의(都僉議)에 이르렀고, 차남 시반(時盤)은 중훈대부(中訓大夫)에 올랐다.
그 밖의 석번(碩蕃)이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냈으며, 홍(泓)과 대춘(大春)은 절제사(節制使)를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 이씨는 파주시에 총 12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 이씨(安山李氏)

안산 이씨(安山李氏)의 시조는 이희적(李希勣)이다.
그는, 1231년(고종 18) 몽골 원수 살리타이(撒禮塔)가 군사를 거느리고 함신진(咸新鎭)을 거쳐 철주성(鐵州城)을 침략할 때, 판관(判官)으로 성(城)을 지키다가 순절(殉節)한 용장(勇壯)이었다. 후손들이 누대에 걸쳐 안산(安山)에서 정착 세거하면서 본관을 안산(安山)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역사인물로는 희적(希勣)의 7세손 보림(寶林)이 지제고(知制誥)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 익룡(翼龍)은 간의대부(諫議大夫)를 역임하였고, 경흠(敬欽)은 정언(正言)을 지냈다.
그 밖에 판관을 지낸 후적(厚績), 부정(副正)을 역임한 인석(仁碩), 참판을 지낸 난중(蘭仲) 등이 있다. 화가로 이름난 의양(義養)은 특히 산수화(山水畵)에 능하여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와 ‘강남우후도(江南雨後圖)’를 남겼다. 군수를 지낸 한철(漢喆)은 아버지 의양(義養)의 대를 이어 산수(山水)·화조(花鳥)·인물(人物) 등 그림에 능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산 이씨는 파주시에 총 4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 이씨(安城李氏)

안성은 경기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내혜홀(奈兮忽), 신라 때 백성군(白城郡)으로 부르다가, 고려 초에 안성현(安城縣)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1018년(고려 현종 9)에 수주(水州)에 속했다가 후에 천안부(天安府)에 이속되었다. 1362년(공민왕 11)에는 군으로 승격되었으며, 1413년(조선 태종 13)에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었고, 1914년 3월 안성(安城)·양성(兩性)·죽산(竹山)의 3개 군을 병합하여 안성군이라고 하였다. 1998년 안성시가 되었다.
안성 이씨(安城李氏)의 시조는 이중선(李仲宣)이다.
그는 고려에서 경군호장(京軍戶長)을 지냈고 장민(長民)의 공으로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에 올라 벼슬이 삼중대광·태사에 이르렀으며 백하군(白夏君, 백사는 안성의 옛 이름)에 봉해졌다. 상계가 실전되어 정확한 계대는 알 수 없으나 후손들은 본관을 안성(安城)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역사인물로 중선(仲宣)의 아들 영(永)은 과거에 올라 사관(史館)의 대간(臺諫)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나갔다. 1122년(예종 17) 이자겸(李資謙)이 한안인(韓安仁)을 죽일 때 영(永)이 매부였던 관계로 연좌(緣坐)되어 진도(珍島)로 귀 양갔다가, 어머니와 자식들이 노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한 말이나 마셔 분사(憤死)했다고 하며, 이자겸이 쫓겨난 뒤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에 추증되었다.
희(禧)는 공민왕때 명경과에 급제하였으며 양광도안무사(楊廣道按撫使)로 왜구방어에 큰 공을 세웠고 후에 이부시랑(吏部侍郞)에 올랐으며, 우왕 때 삼중대광문하시중(三重大匡門下侍中)으로 평왜대장군(平倭大將軍)이 된 경(坰)은 왜병(倭兵)을 격파한 공으로 추충정난보조공신(推忠靖難補祚功臣)에 오르고 안성부원군(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그 밖에 좌사낭중(左司郞中) 극엄(克儼), 병부상서(兵部尙書) 유(裕), 밀직부사(密直副使) 유인(惟仁)과 함께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 숙번(叔蕃) 등이 있다. 숙번(叔蕃)은 경(坰)의 아들로 1393년(태조 2) 문과에 올라 여러 벼슬을 거쳐 제1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 정사공신(正社功臣)에 올랐고, 뒤에 안성부원군(安城府院君)에 봉해졌으며, 항혁(恒赫)은 학자(學者)로 이름을 날렸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성 이씨는 파주시에 총 18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악 이씨(安岳李氏)

안악 이씨(安岳李氏)의 시조는 이진(李震)이다.
그는 중국 농서(隴西) 사람으로 기원전 108년(한무제 원봉 3) 위만조선(衛滿朝鮮)의 우거왕(右渠王)이 한(漢)에 불공(不貢)하여 무제(武帝)가 무장(武裝) 공손수(公孫遂)를 시켜 왕검성(王儉城)을 토평할 때 부장(部將)으로 출전하여 공을 세워서 대장군에 올라 낙랑후(樂浪候)에 봉해지고 낙랑태수(樂浪太守)로 한사군(漢四郡) 설치의 대명(大命)을 완수했다. 그 후 그의 증손 천보(天寶)는 한나라 선기사대장군(善騎射大將軍)으로 흉노 토벌에 공을 세워 양산후(楊山候)로 봉해져서 낙랑태수(樂浪太守)를 지냈으므로 양산이씨(楊山李氏)로 칭관(稱貫)하였다.
그 뒤 낙랑(樂浪)이 망하자 후손들은 고구려·신라 등지로 이거하며 대를 이어오다가 후손 극규(極奎: 중시조)가 고려개국공신으로 양산백(楊山伯)에 봉해지고 안악(安岳)을 식읍으로 하사받았으므로 그곳에서 정착 세거하면서 본관을 안악(安岳)으로 하여 세계를 계승해왔다.
안악은 황해도에 있는 지명이다. 한사군 때에는 소명현(昭明縣)이던 것을 고구려 때 양악군(楊岳郡)으로 고쳤다. 그 후 고려 초에 안악(安岳)으로 개칭하고, 1018년(현종 9) 풍주(豊州)에 편입시켜 예종(睿宗)이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1608년(선조 41)에 군(郡)으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별칭(別稱)으로 양산(楊山)이라고도 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극규(極奎)의 10세손 위(魏)가 고려 때 삼중대광문하시중(三重大匡門下侍中)으로 양산백(楊山伯)에 봉해졌고, 후손 견(堅)은 고려 공민왕(恭愍王)때 홍건적(紅巾賊)의 난이 일어나자 상장군(上將軍)으로 출정하여 분전하다가 장렬하게 순절하였다.
관(灌)의 아들 계을(桂乙)이 고려 말에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를 역임한 후 고려가 망하자 울분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그의 아들 신(晨)은 두문동에 들어가 절의를 지켰다. 세종 때 안악군수(安岳郡守)를 지낸 구관(九寬)은 뒤에 벼슬이 예조참판에 이르렀다.
그 밖에 중종반정 공신에 오른 심(沁)이 하원군(河原君)에 봉해졌고, 희순(希舜)은 남원부사(南原府使)를 역임한 수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을 거쳐 호당(湖堂)에 들어가 문명(文名)을 떨쳤으나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화(禍)를 입었다. 임진왜란 때 옥천(沃川)에서 왜적을 격파했던 잠(潛)은 김천일과 함께 진주성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순절했으며, 응순(應順)은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하여 호성공신(扈聖功臣)에 책록되고 오위도총관(五衛都摠管)에 올라 익흥군(益興君)에 봉해졌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악 이씨는 파주시에 총 4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 이씨(梁山李氏)

고려 말에 문과에 오른 그는, 조선이 개국한 후 이조판서를 지냈고 인천백(仁川伯)에 봉해졌다. 그의 아들 전생(全生)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역임하고 양산(梁山)에 정착 세거했으며, 손자 징석(澄石)·징옥(澄玉)·징규(澄圭) 3형제 중 징석(澄石)이 무과(武科)에 장원하여 상호군(上護軍)을 거쳐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와 좌익3등공신(左翼三等功臣)에 올라 양산부원군(梁山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러므로 후손들은 본관을 양산(梁山)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양산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 때 삽량주(揷良州)라 하였다가 고려 때 양주(梁州)로 고쳤고, 조선에 와서 지금의 양산(梁山)으로 개칭하였다.
양산 이씨(梁山李氏)의 시조는 이만영(李萬英)이다.
역사인물로는 징석(澄石)의 동생 징규(澄圭)가 병조판서를 지냈고, 징석의 아들 팔동(八仝)은 현령을 역임했다.
그 밖에 부사직(副司直)을 역임한 윤조(胤祖), 금산군사(金山郡事)를 지낸 윤환(胤環),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를 지낸 종(種), 부호군(副護軍)을 지낸 성춘(聖春)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산 이씨는 파주시에 총 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 이씨(陽城李氏)

양성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 사복홀(沙伏忽)을 신라 경덕왕이 적성현(赤城縣)으로 고치고, 1175년(고려 명종 5)에 양성현(陽城縣)으로 개칭하였다. 1895년에는 군(郡)으로 승격하였으나 1914년 군(郡)을 폐하여 안성군(安城郡)에 병합, 그 일부 지역만이 양성면으로 남아있다.

양성 이씨(陽城李氏)의 시조는 이수광(李秀匡)이다.

그는 송나라에서 금오위대장군 상주국(今吾衛大將軍上柱國)에 특진되고 고려에서 삼중대광보국으로 양성군(陽城郡)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그를 시조로 받들고 본관을 양성(陽城)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아들 신정(臣靖)이 고려조에서 이부상서(吏部상書)를 역임했고, 손자(孫子) 원의(元義)는 승지동정(承旨同正)에 올랐다. 충렬왕 때 밀직부사를 지내고 밀직사사에 올라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원나라에 다녀왔던 영주(英柱)의 아들 천(梴)은 충숙왕 때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금오위대장군(金吾衛大將軍)과 첨의평리(僉議評理)를 지내고 개성윤(開城尹)에 올라 양성군(陽城郡)에 봉해졌으며, 그의 아들 5형제가 현달(顯達)하여 가문을 중흥시켰다. 양성군(陽城郡) 천(梴)의 맏아들 수방(守邦)은 도첨의평리(都僉議評理)와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를 지내고 상호군(上護軍)을 거쳐 양성군(陽城郡)에 봉해졌고, 그의 아우 수인(守仁)은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로 절의를 지켰다. .

병조참판을 지낸 한(澣)의 아들 맹상(孟常)은 병조판서이 이르렀으며, 슬하에 아들 5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오자등과(五子登科)'의 영예를 누렸다. 한편 해주목사(海州牧使) 사근(思謹)의 아들 온(葐)은 수양대군 왕위를 찬탈하자 이를 개탄하여 벼슬을 버리고 해주(海州)에 은거하며 충절을 지키니 세인들이 '화산처사(花山處士)'로 일컬었고, 그 후 순충보조공신(純忠輔祚功臣)으로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고 적성군(赤城君)에 추봉되었다.

휘(徽)는 단종 때, 이조좌랑을 지내고 좌익3등공신(左翼三等功臣)에 책록되었으며, 공조참의로 단종복위를 도모했다가 사육신과 함께 순절하였고, 진사 백근(百根)의 아들 정영(廷英)은 음죽현감(陰竹縣監)을 역임한 후 선무원종2등공신에 책록되었다.

성종 때 천재라고 일컬어졌던 승소(承召)는 세조 때 왕명으로 『명황계감(明皇誡鑑)』을 한글로 옮겼고, 예학(禮學)·병학(兵學)·음양(陰陽)·율력(律曆) 등 여러 방면에 조예가 깊어 당대의 명문장가(名文章家)로 이름이 높았다.

그 밖에 이순신의 휘하에서 나대용(羅大用)과 함께 거북선 제작에 참여하고 노량해전에서 순국한 설(渫),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약했던 광익(光翼)·광주(光宙), '낙중팔현(洛中八賢)'으로 불린 몽길(夢吉) 등이 있다.

한말에는 신유박해 때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희영(喜英), 송산정사(松山精舍)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겸산집(謙山集)』과 『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을 저술한 병수(炳壽)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성 이씨는 파주시에 총 53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 이씨(驪州李氏)

여주 이씨(驪州李氏)는 고려에서 인용교위(仁勇校尉)를 지낸 이인덕(李仁德)을 시조로 하는 파(派), 낭중(郎中) 이윤수(李允綏)를 시조로 하는 파, 진사 이세정(李世貞)을 시조로 하는 파 등 3파가 있다.

여주는 경기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골래근현(骨內斤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황효현(黃驍縣)으로 개명하여 기천군(沂川郡)의 영현이 되었으며, 고려 초에 황려현(黃驪縣)으로 고치고 1018년(현종 9) 원주에 속하였다가 고종 때 영의(永義)로 개칭되었다. 1305년(충렬왕 31) 여흥군(驪興郡)으로 승격한 후 조손 태종(太宗) 때 음죽현(陰竹縣)의 북부를 현입하여 여흥부(驪興府)로 승격되면서 관할이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변경 되었다. 예종 때 천녕현(川寧縣)을 병합하여 여주목(驪州牧)으로 하고 1501년 충주부(忠州府)의 관할하에 두었다가 1895년 충주부 여주군으로 칭하였으며, 1914년 경기도 여주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고려의 문인 백운거사(白雲居士) 규보(奎報)를 비롯하여 조선 초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언적(彦迪)이 유명했다. 또한 실학의 중조격인 학자 익(瀷), 종교운동에 헌신하다가 신유박해(辛酉迫海) 때 순교한 가환(家煥), 지리학의 선구자로서 한국의 지리서인 『택리지(擇里志)』, 일명 『팔역지(八域志)』를 저술한 중환(重煥) 등이 있다.

그 밖에 공양왕 때 예문관대제학을 거쳐 이조판서를 지낸 행(行), 세조 때 병조판서·지중추원사를 지낸 몽가(蒙哥), 선조 때 형조·예조판서·대사간·우참찬을 지내고 청백리에 녹선된 우직(友直)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주 이씨는 파주시에 총 55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여주 이씨 학사공파는 고려시대 한림학사를 지낸 이고(李皐, 1339~1420)를 파시조(派始祖)로 하며 13대조로 영흥부사를 지낸 이추(李錘, 1533~?)를 입향조(入鄕祖)로 한다. 16세기에 파주로 입향하였다. 법원읍 갈곡리 칡울에 후손들이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15일 법원읍 갈곡리 산28에 있는 선영에서 시제를 지낸다.

연안 이씨(延安李氏)

연안 이씨(延安李氏)의 시조는 이무(李茂)이다.
그는 본래 당나라 출신으로, 당 고종(高宗) 때 중랑장 지내다가 660년(신라 태종무열왕 7) 나당연합군 대총관 소정방(蘇定方)의 부장이 되어 신라에 들어와 백제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연안후(延安侯)에 봉해졌고, 그 후 신라에 귀화하여 살았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받들고 식읍으로 하사받은 연안(延安)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상계가 실전되고 정확한 계대를 알지 못하여 후손들은 태자첨사공파(太子詹事公派) 습홍(襲洪), 판소부감공파(判少府監公派) 현려(賢呂), 대장군공파(大將軍公派) 원주(元柱), 통례문사공파(通禮門使公派) 지(漬), 예부상서공파(禮部尙書公派) 핵(核), 이부시랑공파(吏部侍郎公派) 분양(汾陽), 전법판서공파(典法判書公派) 방(昉), 밀직부사공파(密直副使公派) 득량(得良), 판도정랑공파(版圖正郎公派) 백연(伯衍), 영광군사공파(靈光郡事公派) 계연(季衍)을 중시조(中始祖)로 하여 각각 기일세하고 있다.
연안은 황해도에 있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 동음홀(冬音忽)·시염성(豉鹽城)이라 부르다가 신라 때 해고군(海皐郡)으로 개칭하였다. 그 후 고려에서는 염주(鹽州)·영응현(永膺縣)·복주(復州)·석주(碩州)·온주(溫州) 등으로 부르다가, 충선왕(忠宣王) 때 연안부(延安府)로 하였으며, 1914년 이웃 백천군(白川郡)과 합하여 연백군(延白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태자첨사공파(太子詹事公派) 습홍(襲洪)의 현손으로 상호군(上護軍)을 역임했던 정공(靖恭)의 아들 원발(元發)이 고려 말에 전공판서(典工判書)를 지냈는데, 고려의 국운이 기울고 조선이 개국하여 태조가 원천석(元天錫)과 함께 상신(相臣)으로 불렀으나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켰으며, 그의 아들 귀령(貴齡)과 귀산(貴山)이 세종 때 좌의정과 관찰사를 각각 역임하였다.
판소부감공파(判少府監公派) 현려(賢呂)의 후손에서는 9세손 석형(石亨)이 뛰어났다. 나이 26세에 생원·진사와 문과 초시(初試)에 모두 장원하였고 다음해 잇달아 삼장(三場)에 장원하여 정언(正言)을 지내고, 세조(世祖)의 총애를 받아 한성부윤(漢城府尹)·호조참판(戶曹參判)·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등을 지낸 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거쳐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올라 좌리4등공신(佐理四等功臣)으로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에 봉해졌다.
통례문사공파(通禮門使公派) 지(漬)의 후손에서는 그의 현손 보정(補丁)과 말정(末丁) 형제가 뛰어났다. 말정(末丁)의 아들 숙기(淑琦)와 숙함(淑瑊) 형제는 이시애의 난과 건주위(建州衛) 정벌에 공을 세웠다.
그 밖에 『삼조보감(三朝寶鑑)』의 찬집당상(纂輯堂上)을 지내고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던 약우(若愚), 석농체(石農體)의 독특한 필체를 이루었던 종우(鐘愚), 한일합방의 소식을 듣고 비분하여 자결한 현섭(鉉燮),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양의약 교육기관을 세우게 했던 도재(道宰),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매국 5적신(五賊臣)의 처형을 상소했던 설(偰),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국무총리가 되어 국무총장을 겸한 후 대통령 대리를 한 동녕(東寧)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안 이씨는 파주시에 총 1,62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연안 이씨 삼척공파(三陟公派)는 조선후기 삼척부사(三陟府使)를 지낸 17대조 이말(李抹)을 입향조(入鄕祖)로 하며 14대조인 이지남(李至男, 1529~1577)을 입향조(入鄕祖)로 한다. 15세기 전반, 16세기 중반 2차례 파주로 입향 하였다. 조리읍 뇌조리 선여울마을,

탄현면 축현리, 적성면 마지리, 법원읍 동문리, 조리읍 봉일천리 등에 200호 정도가 살고 있다. 시제는 매년 음력 10월 15일은 조리읍 뇌조리 산 1-20 일대의 선영에서 시제를 지내고, 10월초에 적성면 마지리 선영에서 시제를 지내며 음력 12월 19일에는 탄현면 축현리 산 103-16 일대의 선영에서 시제를 지낸다. 연안 이씨 삼척공파의 종중규약이 있다.
적성면 마지리에는 연안 이씨 첨사공파(僉使公派)와 장령공파(掌令公派)의 정려(旌閭)가 있다.
광탄면 발랑리 184번지 연안 이씨 세장지에는 광국공신에 녹훈되어 불천위에 오른 청련공 이후백(李後白, 1520~1578)의 사당 청련사(靑蓮祠)와 연안 이씨 문장공 이숙함을 비롯해 이후백의 배위 남양홍씨, 충의공 이유길, 함종현령을 지낸 이정길의 묘가 있다. 그리고 인근 발랑리 산49번지에 이후백의 묘와 이조판서에 추증된 조부 이세문, 사복시정에 증직된 아들 이선경 등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한편 발랑리 연안 이씨 세장지내에 있는 종가에는 연안 이씨 청련공파의 종손 이봉규(77세)씨가 거주하며 종가 담장옆 이유길 의마총은 2019년 파주시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되었다.
연안이씨 대장군파 종중회장은 적성면 적암리의 이규석이다.

영천 이씨(永川李氏)

영천 이씨(永川李氏)의 시조는 이문한(李文漢)이다.
그는 고려 때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했다. 그의 후손 대에 와서 신호위 대장군(神虎衛大將軍)을 지내고 영양군(永陽君)에 봉해진 대영(大榮: 시호는 문정), 울산군사(蔚山郡事) 중영(仲榮), 영동정(令同正) 박(磚)을 각각 파조로 하는 3계통으로 나뉘었다.
영천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대 골벌국(骨伐國)이던 것을 신라 초기에 절야화군(切也火郡)으로 고쳤는데, 경덕왕(景德王) 때 임고(臨皐)로 하였다. 고려 초에 도동(道同)과 임천(臨川) 2현(縣)을 합하여 영주(永州)로 개칭하였고, 조선에 와서 영천군(永川郡)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때 인(仁)과 당(瑭)이 좌우위 상장군(左右衛上將軍)을, 국보(國寶)가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역임했다.
조선에서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한 종검(宗儉)은 한림·직제학·대사간을 역임하고 청백리에 올랐으며, 보흠(甫欽)은 세종 때 문과에 급제, 집현전박사(集賢殿博士)를 지내고 단종 손위 후에는 순흥부사(順興府使)로 있으면서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했다. 현보(賢輔)는 연산군 때 문과(文科)에 급제, 교서관(校書館)의 벼슬을 지냈으며 호조참판(戶曹參判)을 거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천 이씨는 파주시에 총 82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해 이씨(寧海李氏)

영해 이씨(寧海李氏)의 시조는 이연동(李延東)이다.
신라 때 사공을 지낸 전주이씨(全州李氏) 이한(李翰)의 후손인 그는, 고려 때 문하시랑을 지냈으며, 공이 있어 영해군(寧海君)에 봉해졌다.
영해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의 우시군(于尸郡)을 통일신라때 유린군(有隣郡)으로 고쳤고, 고려 초에 예주(禮州)로 하였다가 1259년(고종 46) 덕원소도호부(德原小都護府)로 승격하였다. 그 후 예주로 다시 고치고 1310년에 영해부(寧海府)로 개칭하였으며 1895년에 군(郡)이 되었으나 1913년 영덕군에 통합되어 일부지역은 영해면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을년(乙年)이 고려 때 문과에 급제하여 중현내부령(中顯內府令)을 거쳐 정당문학을 지냈으며, 조선에서는 성무(成茂)가 이름을 떨쳤고, 언량(彦良)은 임진왜란 때 무장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해 이씨는 파주시에 총 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안 이씨(禮安李氏)

예안은 경상북도 안동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 매곡현(買谷縣)이던 것을, 신라 때 선곡(善谷)으로 고쳐서 불렀다. 고려 때 예안군(禮安郡)으로 승격되고, 충렬왕 때에 한때 선성(宣城)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413년(태종 13) 현(縣)으로 강등되었고, 고종 때 다시 군(郡)이 되었으나, 1913년 안동군(安東郡)에 편입되었다.

예안 이씨(禮安李氏)의 전의 이씨에서 분적된 계통(系統)으로 시조는 태사공(太師公) 이도(李棹)이다.

도(棹)의 7세손인 천(仟)의 아들 3형제 중 둘째인 혼(混)이 고려 원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첨의정승(僉議政丞)을 지내고 예안백(禮安伯)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중시조로 하고 있다. 그 후 혼(混)의 손자 익(翊)이 보문각제학(寶文閣提學)으로 예안군(禮安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예안(禮安)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역사인물로는 조선에서 무관(武官)이며 과학자였던 천(蕆)이 화포와 자격루 등을 제작하였고, 개량활자를 만들어 우리나라 인쇄술 발달에 공헌을 했다. 청백리에 녹선된 명(莫)은 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라 궤장을 하사받고 좌의정이 되었다가 영중추부사가 되었다.

그 밖에 임진왜란 때 많은 공을 세운 경룡(慶龍), 이괄의 난 때 공을 세워 진무공신(振武功臣)이 된 경정(慶禎), 3·1운동 때 왜적과 싸운 준영(準永)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안 이씨는 파주시에 총 12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양 이씨(溫陽李氏)

온양 이씨(溫陽李氏)의 시조는 이흥서(李興瑞)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옥천군수(沃川君守)로 항전(抗戰)하다가 순국한 인물이다. 그의 선계는 문헌이 실전되어 알 수 없었고, 손자 만립(萬立)이 난중향기(亂中嚮記)에서 조부의 행적(行蹟)을 알았으나 역시 선대를 알 수 없어 흥서(興瑞)를 시조로 하고 관향을 온양(溫陽)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온양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탕정군(湯井郡)을 신라 문무왕이 주(州)로 승격시켜 총관(摠管)을 두었다가 후에 군(郡)으로 삼았으며 고려 초에 온수군(溫水郡)으로 고치고 현종 때 천안부(天安府)에 속하게 하였다. 1172년(명종 2) 현(縣)으로 강등되고 조선 태종 때 신창현(新昌縣)과 합하여 온창(溫昌)이라 하다가 다시 온수현(溫水縣)이라 하였으며 세종 때 온양군(溫陽郡)이 되었다. 1913년 아산군에 속한 온양면(溫陽面)이 된 후 지금의 온양읍에 이르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조선 숙종 때 태귀(泰貴)와 헌종(憲宗) 때 흥엽(興燁)은 효성(孝誠)이 지극하여 정려와 삼효문(三孝門)이 세워졌고 의친왕의 친필(親筆)로 '온양이씨 삼효문(溫陽李氏三孝門)'이라 쓴 비(碑)가 세워졌다.
그 밖에도 항일·구국운동에 앞장선 응선(應善)과 경선(景善)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양 이씨는 파주시에 총 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이씨(龍仁李氏)

용인 이씨(龍仁李氏)의 시조는 이길권(李吉卷)이다.
그는 고려에서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삼중대광(三重大匡) 태사(太師)로 구성백(駒城伯)에 봉해졌다.
용인은 경기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용인은 용구현(龍句縣)과 처인현(處仁縣)의 합명이다. 용구현은 본래 고구려의 구성현(駒城縣)으로 고려 초에 용구로 개칭되었으며 현종 때 광주(廣州)에 속했다가 명종 때 현(縣)으로 되었다. 처인현은 본래 수원부의 처인부곡(處仁部曲)으로 1397년(태조 6)에 현이 되었다. 1413년(태종 13) 용구(龍句)·처인(處仁)의 두 현을 합하여 용인(龍仁)으로 고치고 1886년(고종 32) 군이 되었다가 1914년 양지군 일원과 죽산군(竹山郡)의 일부를 편입하여 내사면(內四面)·외사면(外四面)·원삼면(遠三面)의 3개 면을 증설하였고 다시 1963년 고삼면(古三面)을 안성군에 편입시켰다.
역사인물을 보면 세백(世白)이 숙종 때 예조판서·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으며, 숙종 때 예조판서, 영조(英祖) 때 양관대제학·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오른 의현(宜顯)은 세백의 아들인데, 이들은 부자 정승으로 유명하다.
그 밖에 영조 때 이인좌의 난을 토평하고 뒤에 공조판서를 지낸 보혁(菩赫), 정조 때 좌의정과 영의정을 지낸 재협(在協), 영조 때 대사성·예조판서를 지낸 의철(宜哲), 정조 때 형조판서를 역임한 재학(在學), 철종 때 예조판서에 이른 삼현(參鉉), 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원명(源命)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인 이씨는 파주시에 총 37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계 이씨(羽溪李氏)

우계는 강원도 강릉에 위치했던 지역인데, 신라 때 지명이다. 본래 고구려의 우곡현(羽谷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우계(羽溪)로 고쳐서 삼척군에 속했고, 1018년(현종 9)에 강릉에 속하였다.

우계 이씨(羽溪李氏)의 시조는 이양식(李陽植)이다.

그는 알평(謁平)의 후손으로 고려 때 중서사인(中書舍人)을 거쳐 좌복야를 지냈다. 그의 아들 순우(純祐)는 의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부상서·한림학사를 거쳐 대사성에 이르렀으며, 경주에서 우계(羽溪)로 이거하였다. 그 후 양식(陽植)의 5세손으로 예빈경(禮賓卿)을 지낸 구(球)에 이르러 경주 이씨에서 분적하여 본관을 우계(羽溪)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역사인물로는 구(球)의 현손인 광식(光軾)이 조선에서 참판을 역임했으며, 광식(光軾)의 아들 감(戡)이 대사헌을 지내 가문을 중흥시켰다. 전의 손자 복남(福男)은 무과에 급제하여 나주판관(羅州判官)·남원부사(南原府事) 등을 지내고 전라도병마절도사에 이르러 정유재란 때 많은 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또한 감(戡)의 손자 명남(命男)은 참판을 역임하였으며, 경항(慶恒)의 아들 서우(瑞雨)는 시문에 뛰어났고 명필로 이름이 높았다.

그 밖에 상우(商雨)가 찰방(察訪)을, 경제(慶薺)가 병조좌랑(兵曹佐郎)을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계 이씨는 파주시에 총 14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봉 이씨(牛峰李氏)

우봉 이씨(牛峰李氏)의 시조는 이공정(李公靖)이다.
고려 때 사람인 그는 문하시중으로 잠성부원군(岑城府院君)에 봉해졌고 우봉(牛峰)·잠성(岑城) 등을 식읍으로 하사받아 그곳에 세거하면서 관향을 우봉(牛峰)으로 했다.
우봉은 황해도 금천군(金川郡)의 옛 지명이다. 고구려 때에는 우잠(牛岑)이라 불리다가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우봉(牛峰)으로 고쳤으며, 1652년(효종 3)에 이웃 강음(江陰)과 합쳐 금천군(金川郡)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 재(縡)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영조 때 노론(老論)의 한 사람으로 대제학·이조참판 등을 지냈으며, 그의 저서 『사례편람(四禮便覽)』은 근세의 대표적인 명저로서 오늘날에도 상사(喪事)나 제례(祭禮)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재(縡)의 손자 채(采)는 순조 때 호조참판을 지냈으며 지례현감(知禮縣監)으로 있을 때 그 고장에 처음으로 둑을 쌓아 농사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그 둑을 가리켜 '이공제(李公堤)'라 불렀다 한다.
그 밖에 휘정(輝正)이 대사헌·이조판서 등을 역임했고, 광문(光文)이 형조·공조·이조의 판서를 거쳐 우찬성에 이르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봉 이씨는 파주시에 총 27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우봉 이씨는 병조판서를 지낸 17대 이순을 입향조(入鄕祖)로 한다. 현재 파주에 우봉 이씨 관련 선대 묘역은 없다.

울산 이씨(蔚山李氏)

울산 이씨(蔚山李氏)의 시조는 이철(李哲)이다.
그는 고려 고종 때 삼중대광으로, 문하시중·판전리사사에 올랐으며 나라에 공을 세워 학성군(鶴城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울산(蔚山)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울산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굴아화촌(屈阿火村)인데 파사왕(婆裟王)이 현(縣)을 두었고 경덕왕(景德王)은 하곡(河曲)으로 개명(改名)하여 임관(臨關)의 영현(領縣)으로 삼았으며 고려 태조는 흥려부(興麗府)로 승격시켰다. 그 후 여러 변천을 거쳐 1397년(태조 6) 진(鎭)을 두었고 1413년(태종 13)에는 진(鎭)을 파(罷)하고 울산(蔚山)으로 개칭하여 지군사(知郡事)로 삼았다. 1599년(선조 32) 부(府)로 승격하였고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어 1931년 울산면이 울산읍으로 승격하였으며 1962년 읍이 울산시(蔚山市)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때 사재주부(司宰主簿)를 지낸 순광(淳匡)과 형부전서(形部典書)를 지내고 도첨의평리(都僉議平理)에 추증된 운림(雲林)이 있으며, 조선에서는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과 대사간을 지낸 의(誼), 그리고 군수를 지낸 희신(希信)과 통훈대부(通訓大夫)로 현감(縣監)을 지낸 장은(長誾)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이씨는 파주시에 총 4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 이씨(原州李氏)

원주 이씨는 구(舊) 원주 이씨와 신(新) 원주 이씨 두 계열이 있다.
구(舊) 원주 이씨의 연원은 중국 중원(中原) 출신인 성명 미상의 선조가 한나라 고조(高祖) 때 진란(秦亂)을 피하여 건너와 진한(辰韓)에 정착한 것이다. 그 후 후손 이진민(李眞民)이 신라 흘해왕(訖解王) 때 관직을 역임했고, 그의 28세손 춘계(椿桂)가 고려 의종 때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지낸 후 원주(原州)에 정착 세거하였으므로 후손들이 춘계(椿桂)를 시조로 받들고 본관(本貫)을 원주로 삼게 되었다.
신(新) 원주 이씨는 시조가 이신우(李申佑)로, 그는 진한 양산촌장(楊山村長) 표암공(瓢巖公) 이알평(李謁平)의 원손(遠孫)이며 소판공(蘇判公) 어거명(李居明: 경주 이씨 일세조)의 12세손으로 1004년(고려 목종 7) 문과에 급제하였다. 문종 때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지내고 나라에 공을 세워 경흥군(慶興郡)에 봉해졌다. 그로 인하여 후손들은 신우(申佑)를 시조로 받들고 경주 이씨에서 분적하여 본관을 원주(原州)로 삼았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판도공파(版圖公派)·월성군파(月城君派)·대장군공파(大將軍公派: 종파)·시랑공파(侍郎公派: 뒤에 경원군공파와 강릉공파로 분파됨) 등 크게 네 계통으로 갈라져서 세계를 잇게 되었다.
원주는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평원군(平原郡)이라 불리다, 940년(고려 태조 23) 원주(原州)로 고쳤다. 그 후 일신현(一新縣)·정원도호부(靖原都護府)·익흥도호부(益興都護府)·성안부(成安府) 등으로 변천해 오다가 1353년(공민왕 2)에 원주목(原州牧)으로 하였다. 1895년(고종 32) 원주군(原州郡)이 되었으며 1955년 일부가 원주시(原州市)로 승격되고 나머지는 원성군(原城郡)이 되었다.
구(舊) 원주 이씨의 역사인물로는 시조 춘계의 현손 겸(謙)이 고려 때 호장(戶長)을 지내고 예의판서(禮義判書)에 이르렀으면, 겸의 증손(曾孫) 희백(希伯)은 남부부령(南部副令)을 역임하고 가세를 일으켜 중흥조(中興祖)로 받들고 있다. 한편 정순대부(正順大夫)로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를 지낸 녹규(祿圭)의 둘째 아들 인(璘)이 '동국군자(東國君子)'로 불려 두문동 모현사(慕賢祠)에 배향되었으며, 통사랑(通仕郞) 몽호(夢虎)의 아들 윤남(胤男)은 조선 인조 때 횡성(橫城)의 반적(叛賊) 인거(仁居)를 토벌하는데 공(功)을 세워 소무3등공신(昭武三等功臣)으로 원성군(原城君)에 봉해졌다.
무과에 급제하여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한 욱(旭)의 아들 응순(應順)과 응인(應寅) 형제는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갈 때 안주(安州)에 있는 청천강(淸川江)을 무사히 건너게 해준 공으로 호성3등공신(扈聖三等功臣)에 책록되고 익흥부원군(益興府院君)에 각각 봉해졌다.
그 밖에 무과에 급제하여 강원도병마절도사를 지낸 침(琛)과 재령현령(載寧縣令)을 역임한 방진(邦珍), 무산절제사(茂山節制使)를 지낸 덕립(德立), 목사를 지낸 덕의(德義)·성준(成俊), 군수를 지낸 석조(碩祚), 병조판서를 지낸 강중(剛中) 등이 있다.
신(新) 원주 이씨의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13세손 반계(攀桂)가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 신호위영중랑장(神虎衛領中郞將)을 지내고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올랐으나 고려의 국운이 기울자 망국의 한을 안고 두문동에 들어가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키다가 끝내 견디지 못하고 고려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을 따라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과 같이 강원도 치악산으로 은거하였다.
반계(攀桂)의 아들 견(肩)은 정산현감(定山縣監)으로 나가 선정(善政)을 베풀어 고을 백성들이

그의 청백(淸白)한 치적(治積)을 영원하게 기리기 위하여 '영사불망철비(永思不忘鐵碑)'를 세웠다. 영화(永華)는 세종 때 무과에 급제하고 감찰(監察)·직산현감(稷山縣監)을 거쳐 단종 때 강릉대도호부사(江陵大都護府使)로 나갔으나 수양대군이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개탄하여 벼슬을 버린 후 홀로 천 리 길을 남행하여 해남의 무진산(無塵山)에 산막(山幕)을 짓고 세상을 등지며 은거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주 이씨는 파주시에 신구 계열 모두 합쳐 총 64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 이씨(益山李氏)

익산 이씨(益山李氏)의 시조는 이문진(李文眞)이다.
그는 577년(고구려 평원왕 19)에 출생하여 영양왕 때 대학박사(大學博士)·문부전서(文部典書)·오경박사(五經博士)로 공신후(功臣侯)가 되었고, 백제의 공주(公主)와 혼인하여 백제로부터 익주(益州)를 식읍(食邑)으로 하사받았다. 그러나 상계가 실전되어 정확한 계대를 상고할 수 없어 고려의 개국공신으로 태위(太尉)를 지낸 후손 이의(李誼)를 일세조로 하고 본관을 익산(益山)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익산은 전라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신라 때 금마군(金馬郡), 고려 때 익주(益州)라 하였고, 조선 때 오산면·이리시·춘포면·왕궁면 등을 익산군이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여산군·함열현·용안현을 병합하였다. 1949년 이리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17개 면을 관할하다가, 1963년에는 황하면이 충남 논산군으로 이관되어 16개면이 되었다. 1973년이 만경강 하도가 고정됨에 따라 김제군 백구면(白驅面) 일부가 춘포면에 편입되었고 오산면의 일부가 김제군 공덕면(孔德面)으로 이관되었다. 1974년 이리지역의 확장으로 북일면(北一面)이 이리시에 편입된데 이어 1979년 에는 함열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함열읍으로 이전하였다. 한편 1983년 팔봉면(八峰面) 일원과 춘포면 석탄리(石灘里)가 이리시로 이관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의(誼)의 증손 주연(周衍)이 고려 인종 때 형부시랑(刑部侍郞)으로 김부식과 함께 송나라에 가서 흠종(欽宗)의 등극을 축하했으며, 묘청의 난 때는 우장군(右將軍)으로 출전하여 공을 세웠다.
그 밖에 공수(公遂)는 고려 때 첨이평리(僉議評理)·찬성사(贊成事) 등을 역임하고 익산부원군(益山府院君)에 봉해졌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익산 이씨는 파주시에 총 4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이씨(仁川李氏)

인천 이씨(仁川李氏)의 시조는 본래 가락국 수로왕자(首露王子)로 모후(母后)의 성을 따라 허씨(許氏)였다. 그런데 후손 기(奇)가 신라 경덕왕 때 아찬(阿飡)으로 사신(使臣)이 되어 당나라에 공을 세워 현종(玄宗)으로부터 이씨(李氏)의 성을 사성받았다. 그 후 그의 17세 허겸(許謙)이 상서좌복야(尙書左僕寺)를 지내고 상주국(上住國)에 올라 소성백(邵城伯)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이허겸(李許謙)을 시조로 받들고, 그가 식읍으로 하사받았던 인천(仁川)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을 이어왔다.

인천은 원래 경기도에 위치하는 지역이었다. 원래 매소홀현(買召忽縣)이었는데 경덕왕 때 소성(邵城)으로 개칭, 율진군(栗津郡: 지금의 시흥군)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1018년(고려 현종 9) 수주(樹州)에 속하였으며 숙종 때 경원군(慶源郡), 인종 때 인주(仁州), 1390년(공양왕 2)에 경원부(慶源府)로 계속 승격되었다. 조선시대 때 1392년(태조 원년) 인주로 환원, 1413년(태종 13)에 인천군(仁川郡)이 되었으며 1460년(세조 6)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었으나 숙종 때는 현으로 강등, 1698년 다시 환원하였다. 1914년 인천의 관할구역이 구(舊) 제물포를 중심으로 한 인천항의 신시가지로 축소되고 구(舊) 인천읍과 부평이 통합되어 부천군(富川郡)이 되었다.1949년 인천시(仁川市)로 개칭되고 1963 년 부천군(富川郡) 작약도(芍藥島)를 편입하였으며 1968년부터 구제(區制)가 실시되었다. 1981년 7월 1일 직할시로 승격, 경기도에서 분리 독립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자연(子淵)이 문종 때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지내고 공신에 올랐으며, 뒤에 개부의동삼사태사(開府儀同三司太師) 겸 중서령감수국사상주국(中書令監修國史上柱國)으로 경원군개국공(慶源郡開國公)에 이르렀고, 그의 맏아들 호(顥)는 선종(宣宗)의 장인으로 문종 때 호부낭중을 지낸 후 경원백(慶源伯)에 추봉되었다.

조선에서는 태종 때 형조참판과 함길도도체찰사(咸吉道都體察使)를 지낸 관(灌)과 대제학과 예조판서를 걸쳐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에 이르러 영의정에 추증된 문화(文和)가 유명했으며, 효상(孝常)은 지돈녕부사에 올랐다. 성동(成童)은 직제학과 대사간을 지내고 중종 때 형조참의에 올랐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 일파로 몰려 파직되기도 했다.

그 밖에 휴복(休復)이 곽재우(郭再祐)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왜병과의 싸움에서 전공을 세웠으며, 이괄(李适)의 난 때는 관군의 별장(別將)으로 안현(鞍峴)에서 공을 세워 진무3등공신(振武三等功臣)으로 인원군(仁原君)에 봉해졌다.

한말에는 간계(間溪) 동영(東英)이 자기 창고를 털어 빈민구휼(救恤)에 앞장섰고, 독립운동가로 이름났던 변연(采然)은 원모(元模)·각연(恪然)·진국(鎭國) 등과 함께 조국광복운동에 진력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이씨는 파주시에 총 53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 이씨(長水李氏)

장수 이씨(長水李氏)의 시조는 이임간(李林幹)이다.
경주 이씨의 시조 알평(謁平)의 52세손인 그는, 충선왕 때 정승(政丞)으로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에 봉해졌고, 손자 을진(乙珍)이 공민왕 때 정승을 지냈고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助功臣)에 책록되어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장수(長水)를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장수는 전라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우평(雨平)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고택(高澤)이라 하여 장계군에 속하였다가 고려 이후 장수현이 되어 남원부(南原府)에 소속되었고 1905년(고종 32) 군(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 종무(從茂)는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걸쳐 왜구를 물리치고, 정종 때 상장군으로 2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워 좌명공신(佐命功臣)이 되었다. 이어 세종 때 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로 대마도를 정벌하여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올랐으며,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에 봉해졌다.
선조 때의 명현 희급(希伋)은 문과에 급제하여 함양현감(咸陽縣監)을 지내던 중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최후까지 싸워 적을 격퇴한 공으로 선무이등공신이 되었다.
그 밖에 한국의 천재 화가 중섭(仲燮)도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수 이씨는 파주시에 총 8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 이씨(長興李氏)

장흥 이씨(長興李氏)의 시조는 이다조(李多祚)이다.
그는 당나라 황족으로 그의 조상이 농서군왕(隴西郡王)에 봉해졌기에 본관을 농서(隴西)라 하였다. 당나라 현종 때 말갈의 난을 평정하고, 고종(高宗)때 장이지(張易之)·장창종(張昌宗) 형제의 전횡을 다스린 공으로 요양군왕(遼陽郡王)에 봉해졌다. 후손 관진(冠軫)이 송나라 철종조에 이부상서(吏部尙書)로 있을 때 큰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를 평정하지 못하여 참소를 당해 고구려로 도피해 왔으며 그 후 병부상서 겸 정벌장군(征伐將軍)으로 여진을 무찌르다 전사했다. 관진의 9세손 처유(處柔)는 공양왕 때 이부상서(吏部尙書)에 이르렀는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여 부르자 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장흥으로 유배되었는데 이때부터 후손들이 장흥(長興)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면서 이다조(李多祚)를 시조로, 관진(冠珍)을 중조로, 처유(處柔)를 이관조(移貫組)로 받들고 있다.
장흥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의 오차현(烏次縣)인데 신라 때 오아(烏兒)로 개칭되어 보성군에 속해 있다가 고려 때 영암(靈岩)에 소속되고, 인종 때 장흥부(長興府)로 승격되었다. 1265년(인종 6)에 회주목(懷州牧)으로 승격되었다가 1310년(충선왕 2)에 다시 장흥부가 되었다. 그 이후 많은 변천을 거쳐 1895년에 장흥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현손(玄孫)이 무과에 급제하여 부사를 지내고 병조참판에 증직되었으며, 난(蘭)과 인서(麟瑞)가 각각 부서과(副書果)를 역임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흥 이씨는 파주시에 총 1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령 이씨(載寧李氏)

재령은 황해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식성(息城: 일명 漢城·乃忽·漢忽)군인데, 신라 경덕왕이 중반군(重盤郡)이라 했고, 고려 태조 때 안주(安州)로 고쳤다. 995년(성종 14)에 방어사를 두었다가 현종 초에 방어사를 폐하고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에 예속시켰으며, 예종 때 감무를 두었고, 1217년 (고종 4) 거란병의 침공을 막은 공으로 재령(載寧)으로 고치고 현으로 승격하였다. 1397년(태조 6) 풍주(豊州) 관하의 삼지현(三知縣)을 합하고, 1415년(태종 15) 1천호 이상의 고을을 군(郡)으로 할 때 군수관(郡守官)으로 승격하여 지금에 이른다.
재령 이씨(載寧李氏)의 시조는 이우칭(李禹稱)이다.
소판공(蘇判公) 거명(居明: 경기 이씨 중시조)의 후손인 그는, 고려에서 보조공신(補祚功臣)에 책록되고 문하시중을 지낸 후 재령군(載寧軍)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우칭(禹稱)을 시조로 받들고, 그가 식읍으로 하사받은 재령(載寧)을 본관으로 삼아 경주 이씨(慶州李氏)에서 분적(分籍)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우칭의 후손 원영(元英)이 고려에서 공부상서(工部尙書)를 역임했다. 그의 후손 소봉(小鳳)은 공민왕의 사위로 순성보조공신(純誠補祚功臣)에 오르고 상장군(上將軍)을 역임하였다. 그의 아들 일상(日祥)과 일선(日善)의 형제가 청덕(淸德)으로 명성을 떨쳤다. 사재령 일선(日善)의 맏아들 신(申)은 고려 말에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사헌부시사(司憲府詩史)를 거쳐 공양왕 때 지평(持平)에 올라 간관(諫官) 김진양(金震陽) 등과 함께 정도전(鄭道傳)·남은(南誾)·조준(趙俊) 등의 전횡을 탄핵했으며, 이성계의 추대를 극론하다가 유배되어 가던 도중에 숨졌다. 일선의 둘째 아들인 술(戌)은 사정(司正)을 역임했고, 셋째 축(丑)은 고려의 국운이 쇠망하자 신조(新朝: 조선)의 벼슬을 마다하고 아우 오(午)와 함께 절의(絶義)를 지켰다.
공민왕 때 성균진사시(成均進士試)에 합격했던 모은(茅隱) 오(午)는 기울어져가는 고려의 국운을 개탄하여 제현(諸賢)과 더불어 개성두문동(開成杜門洞)에 은거, 만국의 한을 달래다가 경남 함안군 모곡리(茅谷里)로 내려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종신토록 절개를 지켰으며 조선(朝鮮)이 개국된 후 태종(太宗)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히 모곡리에 은거하면서 집 주변에 담장을 쌓고 담 밖은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영토이지만 담안은 고려왕조(高麗王朝)의 유민이 거주한다는 뜻에서 마을 이름을 고려동(高麗洞)이라 불렀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혁혁한 훈공을 세워 공신(功臣)에 책록되었던 인물로는 붕(鵬)과 백신(白身) 부자(父子)가 유명했고, 함(函)은 대형(大亨), 사의(司儀) 광훈(光勛), 진사(進士), 번(蕃)·분(賁)의 형제와 더불어 창의하여 대소전투에 전공을 세웠다. 임진왜란을 승전으로 이끌었던 운룡(雲龍)은 이순신(李瞬臣)의 수군(水軍)을 경상수영과 합세시켜 옥포대첩·당항포대첩·한산대첩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국난을 타개하고 삼도수군절도사(三道水軍節度使)를 지내고 선무3등공신(宣武三等功臣)에 올랐다.
숙종(肅宗) 때 '백의판서(白依判書'로 정치와 학문에 위업을 남긴 갈암(葛菴) 현일(玄逸)은 퇴이황의 학통을 계승한 영남학파(嶺南學派)의 거두로, 당시 격렬했던 당쟁 속에서 우암 송시열 중심인 기호학파와 대결했던 실학자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령 이씨는 파주시에 총 29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 이씨(全義李氏)

전의 이씨(全義李氏)의 시조는 고려 개국공신 이도(李棹)이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의하면 그는 초명(初名)이 치(齒)로, 고려 태조(太祖)가 견훤(甄萱)을 정벌(征伐)하고자 남하(南下)하여 금강(錦江)에 도착했을 때 강물이 범람하자 태조를 도와 무사히 건너게 해주었으므로 태조가 도(棹)라고 이름을 하사(下賜)하고, 통합삼한삼중대광 태사익찬 공신(統合三韓三重大匡太師翊贊功臣)으로 벼슬을 내리고 전의후(全義侯)에 봉했다. 그후 그는 전의(全義) 이성산(李城山) 아래로 이거(移居)하여 정착 세거하였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전의(全義)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후에 문의공(文義公) 언충(彦沖)·효정공(孝靖公) 정간(貞幹)·문장공(文莊公) 혼(混)의 후손에서 인물이 많이 나와 3대 인맥을 이루었다.
전의는 충청남도 연기군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백제의 구지현(仇知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금지현(金地縣)으로 개칭하고 고려에 들어 전의현으로 고쳐 청주(淸州)에 속하게 되었다. 1414년(태종 14) 연기현(燕岐縣)과 합하여 전기현(全岐縣)이라 하다가 뒤에 다시 분리하였고, 1895년(고종 32) 전의군으로 승격하였으나 1914년 군(郡)이 연기군(燕岐郡)에 합병되고 일부는 전의면(全義面)으로 남아있다.
역사인물로는 혼(混)은 시조 도(棹)의 8세손으로 충선왕 때 첨의정승(僉議政丞)을 지냈으며, 언충(彦沖)은 고려 고종 때 장군 천(仟)의 손자로 충렬·충선·충숙·충혜왕의 4대에 걸쳐 벼슬한 명신이며, 정당문학·예문관대제학·지춘추관사 등을 지냈다. 정간(貞幹)은 천(仟)의 현손으로 노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으며, 세종 때 강원도관찰사를 지냈으며 충추원사(中樞院使)에 임명되었고 왕으로부터 궤장을 하사받았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의 이씨는 파주시에 총 1,52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전의 이씨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해수(李海壽, 1536～1599)를 파시조(派始祖)로 하며 17대조인 이웅(李熊, 1472~1532)을 입향조(入鄕祖)로 한다. 입향조 이웅의 묘는 교하 목동리에 있다.
교하 송촌리에는 예전에 30여 호가 살았으나 지금은 11호가 거주하고 있다. 이외에 적성면 어유지리 봉화촌, 월롱면 덕은리 등지에 후손들이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8일 월롱면 덕은리 선영(전의 이씨 재실 인경재)에서 시제를 지내며 어유지리 선영에서는 음력 10월 15일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교하 목동리 산26, 적성면 어유지리 산28-4에 있다.
전의 이씨 대사성공파 내의 도절제사공파 이공량(李公亮), 이준민(李俊民), 이창호(李昌鎬), 이방수(李邦綏)의 묘가 광탄면 영장리 산46-6번지와 산42-1번지에 있다. 또한 청강공파 이사관(李士寬)과 그의 아들 이서장(李恕長)의 묘가 광탄면 마장3리 산36-5번지에 위치한다.

전주 이씨(全州李氏)

전주 이씨(全州李氏)의 시조는 이한(李翰)이다.
『선원록(璿源錄)』에 의하면 이한은 신라 태종무열왕 10세손인 군윤(軍尹) 김은의(金殷義)의 딸과 결혼하고, 통일신라 문성왕 때 사공(司空)을 지냈다고 한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이한의 22세손이라고 한다. 이성계의 고조부인 이안사(李安社) 이전의 사적(事蹟)은 역사 기록에 전해지지 않는다. 전주 이씨의 분파는 이안사(李安社) 선계에서 갈라진 파와 그 이후 갈라진 파를 합해 모두 123파이다.
전주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백제 때, 완선(完山)·비사벌(比斯伐)·비자화(比自火) 등으로 불리다가 555년(진흥왕 16)에 완산주(完山州)로 하였다. 그 후 경덕왕 때 완(完)을 의역(意譯)하여 전주(全州)로 고쳤고, 공민왕(恭愍王) 때 다시 완산부(完山府)가 되었다. 조선에서 태조의 선조(先祖)가 살았던 고향이라고 하여 완산유수부(完山留守府)로 개칭하였다가 1403년(태종 3) 다시 전주부(全州府)가 되었다.
이성계의 가계가 역사상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1170년(의종 24)경부터이다. 무신란을 주도한 이의방(李義方)이 1174년(명종 4) 피살되자 동생 이린(李隣)이 고향인 전주로 낙향했다. 이린의 손자 이안사(李安社)가 전주에서 지주(知州)의 비위에 거슬리자 처벌을 받을 것을 피해 가솔을 거느리고 강원도 삼척(三陟)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지주가 그곳 안렴사(按廉使)로 부임하자 1253년(고종 40) 경 다시 일행을 거느리고 해로를 통해 덕원부(德源府)로 옮겼고 원나라의 다루가치[達魯花赤]가 되었다. 이안사의 아들 이행리(李行里), 손자 이춘(李椿)도 두만강 지방의 천호(千戶)로서 원나라에서 벼슬했고, 이춘의 아들 이자춘(李子春)도 원나라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의 천호를 지냈다. 이자춘의 몽골 이름은 '울루스부카'다. 이자춘은 공민왕의 북강(北疆) 회수운동에 응하여 쌍성 함락에 결정적인 공을 세워 이 지방의 만호(萬戶) 겸 병마사(兵馬使)로 임명되었다.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가 고려에서 벼슬을 지내고, 조선을 개국하였다. 조선의 왕 26명과 종묘배향공신 16명을 배출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 이씨는 파주시에 총 27,91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읍 등원리에 30호 내외가 살고 있는 전주 이씨는 매년 11월 마지막 일요일 시제를 지내며 선영은 조리읍 내조리 산5번지에 있다.
법원읍 동문리에 살고 있는 전주 이씨는 매년 10월 8일~10일 시제를 지내며 선영은 광탄면 발랑리에 있다.
세종의 막내아들인 담양군(潭陽君) 이거(李渠, 1553~1577)를 파시조(派始祖) 이자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전주 이씨 담양군파는 16세기 중반에 파주로 입향하였다. 파주로 입행한 담양군은 파평산 아래에 정착하였는데 담양군이 일찍 죽어 세종의 아들 중 후처인 신빈김씨 아들(6명) 중 첫째를 양자로 삼아 파평산 아래에서 지금껏 대를 이어 살고 있다. 파평면 금파1리 새마을 마을에 60호 가량이 살고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1일 파평산 금파리의 담양군사당에서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파명면 금파리 능안산 26-1이다. 종중 총무는 이환용이 대행하고 있다.
조선 제2대 정종의 8남인 임언군(林偃君) 이녹생(李祿生)을 파시조(派始祖) 이자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전주 이씨 임언군파는 후손들이 월롱면 도내1리에 20호 가량 살고 있다. 장단 진동면 초리 내장동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다가 한국전쟁으로 월롱면 도내리에 들어와 정착하여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10일 임언군 사우에서 시제를 지낸다.

조선 제2대 정종의 10남인 덕천군(德泉君) 이후생(李厚生, 397~1465)을 파시조(派始祖)로 하고 조선시대에 파주로 입향해온 전주 이씨 덕천군파는 후손들이 법원읍 동문리에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8~10일 광탄면 발랑리 선영에서 시제를 지낸다.
조선 제9대 성종의 4남인 완원군(完原君) 이수(李遂, 1480~1509)를 파시조(派始祖)로 하고 8대조 이한필(李漢弼)이 선시대에 파주로 입향해온 전주 이씨 완원군파는 후손들이 광탄면 신산5리에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10일 광탄면 마장2리 완원군 묘역에서 시제를 지낸다.
조선 제9대 성종의 9남인 익양군(益陽君) 이회(李懷, 1488~1552)를 파시조(派始祖)로 하는 전주 이씨 익양군파는 조리읍 장곡리에 익양군 이회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조선 제9대 성종의 서자(庶子) 봉안군(鳳安君) 이봉(李犎, 1482~1505)을 파시조(派始祖)로 하고 5대조가 조선시대에 파주로 입향해온 전주 이씨 봉안군파는 후손들이 교하 하지석리에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4일~11월 10일 하지석리 산5-2에 있는 입향조(入鄕祖) 묘소에서 시제를 지낸다.
조선 제11대 중종의 2남인 해안군(海安君) 이희(李峿, 1511~1573)를 파시조(派始祖)로 하고 9대조 이정우(李廷宇, 1700~1748)가 조선시대에 파주로 입향해온 전주 이씨 해안군파는 후손들이 교하 연다산리 거문동, 조리읍 등원리에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13일~15일 맥금동의 입향조(入鄕祖) 묘에서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맥금동 산16, 조리읍 뇌조리 산 5번지이다.

정선 이씨(旌善李氏)

정선 이씨(旌善李氏)의 시조는 이양혼(李陽焜)이다.
그는 송나라 안남국(安南國) 남평왕(南平王) 건덕(乾德)의 셋째 아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시원(始原)은 그가 북송(北宋) 휘종(徽宗) 때 국난을 피하여 우리나라의 경주(慶州)에 정착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9세손 우원(遇元)이 국자생원(國子生員)으로 상서좌복야에 추봉되어, 정선(旌善)으로 이거하였으므로 후손들이 정선(旌善)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정선은 강원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잉매현(仍買縣)인데, 라 경덕왕 때 정선이라 개칭하여 명주(溟洲)의 영현(領縣)이라 하였고, 1018년(고려 헌종 9) 그대로 명주의 속현으로 하였다가 군(郡)으로 승격시켰다. 1895년(조선 고종 32) 5월 지방관제 개편에 따라 충주부(忠州府) 정선군이 되었고, 1896년 도제(道制) 실시에 따라 다시 강원도 정선군으로 환원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우원의 아들 형규(亨奎)가 18세에 등과하여 충렬왕 때 수문전 태학사(修文殿太學士)에 올랐으며, 후손 자생(自生)이 군기시윤(軍器시尹)을 지냈다.
그 밖에 대호군을 지낸 희성(希聖)과 부호군을 역임한 의(誼)가 뛰어났고, 득량(得良)은 부사(府使)를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선 이씨는 파주시에 총 3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 이씨(貞州李氏)

정주는 황해도 개풍군(開豊郡)의 옛 지명이다. 본래 고구려 때에는 정주(貞州)라 불렀다. 1018년(고려 현종 9) 정주가 개성현에 속하게 되었으나 1108년(예종 3) 승천부(昇天府)로 승격되었다가 1310년(충선왕 2) 해풍군(海豊郡)으로 강등되었다. 1398년(태조 7)에 덕수현이 병합되었고, 1413년(태종 13) 다시 개성부에 합속되었다가, 1418년에 환원되었다. 1442년(세종 24) 덕수현(德水縣)과 합하여 풍덕군(豊德郡)으로 개편되었고, 1649년(효종 1)에는 도호부가 설치되었다. 1823년(순조 23) 개성에 병합되었다가, 1866년(고종 3)에 다시 복구되었다. 1914년 군면 폐합으로 풍덕군은 폐지되어 개성군에 통합되었다. 1930년 개성군 송도면이 개성부로 승격되면서 나머지 지역은 개성과 풍덕이 합쳐서 개풍군으로 개편되었다.
정주 이씨(貞州李氏)의 시조는 이세화(李世華)이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고 다방(茶房)·내시(內侍)에 이어 1217년(고종4) 정융분도원수(定戎分道元帥) 조충(趙沖)의 막하로 있다가 그의 천거로 대영서승(大盈署丞)이 되고 백령진장(白翎鎭將)이 되었으며 처음으로 향교를 창설하여 자제를 가르쳤다. 뒤에 신호위녹사(神虎衛綠事)로 도병마사를 겸하고 우사간(右司諫)·지제고(知制誥)를 거쳐 남원부사(南原府使)·동주목사(東州牧使)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었다. 1232년(고종19) 광주안무사(廣州按撫使)로서 몽골의 침입을 격퇴했고, 뒤에 예부시랑(禮部侍郎)·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보문각직학사(寶文閣直學士)·지제고에 올라 전공으로 상을 받았다. 뒤에 이부시랑(吏部侍郎)에 전임, 이어 간의(諫議)를 겸했고, 1237년(고종24) 청주산성을 지키고 돌아와 사재경(司宰卿)이 되어 다시 간의를 겸했다. 아들 수진(守眞)·수평(守平)·수심(守深) 3형제가 있다. 그리고 고려 숙종조에 이인실(李仁實)이 등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주 이씨는 파주시에 총 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 이씨(眞成李氏)

진성 이씨(眞成李氏)는 진보 이씨(眞寶李氏)라고도 하는데 시조는 이석(李碩)이다.
그는 누대로 진보현(眞寶縣)에 토착해온 호족의 후예로 충렬왕 때 진보현의 아전으로 있다가 생원시에 합격했고, 그의 맏아들 자수(子修)가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1362년(공민왕 11)에 일어난 홍건적의 난 때 전공을 크게 세워 안사공신(安社功臣)으로 송안군(松安君)에 봉해졌으므로 그 귀(貴)로 인하여 시조 석(碩)은 봉익대부(奉翊大夫)로 밀직사(密直使)에 증직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이석(李碩)을 시조로 받들어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진보는 경상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신라 초기에는 칠파화협(漆巴火縣)이라 하다가 경덕왕 때 진보현으로 고치고 고려 초에 진안현(鎭安縣)과 합쳐 보성부(輔成府)로 개편하였다. 고려 현종 때 예주(禮州)에 편입시켰는데, 조선 태조 때 현(縣)을 설치하고, 세종 때 청부(靑鳧)를 합하여 청보군(靑寶郡)이라 하다가 다시 진보로 고쳐 현(縣)으로 삼았다. 1474년(성종 5) 청송(靑松)에 편입했다가 1478년(성종 6) 복귀하였으며 1894년(고종 32)에 군(郡)이 되었다. 1914년 군을 폐하고 동면과 북면은 영양군(英陽郡)에 병합되고 나머지는 청송군(靑松郡)에 편입되었는데 그 중심 지역은 진보면(眞寶面)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풍산현(豊山縣) 망천(輞川)에 터를 잡았던 송안군(松安君) 자수(子修)의 아들 운구(云具)와 운후(云候) 대(代)에서 중흥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에 공조참의를 역임했던 운구(云具)는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군수(郡守)를 역임했던 차남 양검(養儉)과 주부(主簿)를 지낸 막내 양호(養浩)가 유명했다. 한편 송안군 자수의 둘째 아들로 부정(副正)을 지내고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증직된 운후(云候)의 아들 정(禎)은 선산도호부사(善山都護府使)를 역임한 후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증직(贈職)되었고, 슬하에 아들 우양(遇陽)·흥양(興陽)·계양(繼陽)이 현달(顯達)하였다.
계양(繼陽)의 둘째 아들 우(堣)는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정국4등공신(靖國四等功臣)으로 청해군(靑海君)에 봉해졌다. 진사(進士) 식(埴)의 아들 6형제 중 넷째인 해(瀣)는 도승지·대사헌·대사간 등을 역임했다.
특히 퇴계(退溪) 황(滉)은 주자학(朱子學)을 집대성한 대 유학자(大儒學者)로 율곡(栗谷) 이이(李珥)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으며, 시문(詩文)과 글씨에도 뛰어났고 겸허(謙虛)한 성격의 대학자로 중종(中宗)·명종(明宗)·선조(宣祖)의 지극한 존경을 받았다. 사후 조정에서는 영의정(領議政)에 추증하고 1품(一品)의 예(禮)로써 장사지냈다.
그 밖에 한일합방을 개탄하여 단식 끝에 순사한 중언(中彦), 애국지사 명우(命羽)가 있고, 육사(陸史) 활(活)은 신석초(申石艸)·윤곤강(尹崑崗) 등과 함께 동인지인 『자오선(子午線)』을 발행하면서 '청포도(靑葡萄)', '교목(喬木)' 등 목가풍(牧歌風)의 시(詩)를 발표했고, 『육사시집(陸史詩集)』을 발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성 이씨는 파주시에 총 60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 이씨(鎭安李氏)

진안 이씨(鎭安李氏)의 시조는 이특룡(李特龍)이이다.
그는 진안(鎭安)에서 정착 세거하며 진사에 올랐는데, 시정(時政)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차례 상소를 하여 조정의 미움을 받아 안화(安化)로 유배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안화(安化)에 정착하여 문호를 열고, 선조의 전 세거지인 진안(鎭安)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진안은 전라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진아(珍阿)인데 신라 경덕왕이 진안(鎭安)으로 고쳐서 장계군(長溪郡)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 초에는 전주(全州)에 속하다가 조선시대 이후 다시 장계군에 속하였다. 1914년 용담군(龍潭郡)과 진안군이 통합되어 진안군(鎭安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득룡(特龍)의 손자 득림(得霖)이 조선에서 직장(直長)을 역임했고, 득림(得霖)의 손자로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한 승영(承榮), 참봉을 지낸 승복(承馥), 시정을 역임한 승빈(承彬)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안 이씨는 파주시에 총 3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위 이씨(振威李氏)

진위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 때의 부산(釜山: 古淵達部曲·釜山·松村活達縣)인데, 신라 경덕왕 때 진위현으로 고치고, 1398년(조선 태조 7)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었다. 1895년(고종 32) 군으로 승격되었고 1914년 충청남도 평택군에 폐합되어 그 일부 지역은 진위면(振威面)으로 남아 있다.

진위 이씨(振威李氏)의 시조는 태자태보(太子太保)를 지낸 이방(李方)이다. 방(方)의 5세손 자영(自英)은 고려에서 예의판서(禮儀判書)를 지냈고, 나라에 공을 세워 진위군(振威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본관을 진위(振威)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역사인물로는, 자영(自英)의 아들 중육(仲育)이 고려에서 태사(太師)를 역임했고, 손자 옹(邕)이 밀직사(密直使)를 지냈다. 조선에서는 지(至)가 승지(承旨)를 지냈으며, 참군(參軍)을 지낸 종(鐘), 좌랑(佐郎)을 지낸 즙(楫)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위 이씨는 파주시에 총 15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 이씨(晋州李氏)

진주 이씨(晋州李氏)의 시조는 이군자(李君梓)이다.
소판공(蘇判公) 거명(居明: 경주 이씨의 시조)의 18세손인 군자(君梓)는 조선 태조 때 이조판서로 왕에게 직간을 하다가 성천(成川)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정착 세거하며, 대제학을 사임하고 고향인 진주(晋州)로 내려가 있는 형 영자(永梓)를 생각하며 본관을 진주(晋州)로 삼았다고 한다.
진주는 경상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거열성(居烈城)인데 신라 문무왕 때 신라의 영토가 되어 거열주(居烈州)라 하였고, 757년(경덕왕 16) 9주 5소경제의 실시와 함께 강주(康州)로 고쳤다가 뒤에 청주(菁州)로 개칭되었다. 고려초에 다시 강주로 환원하였고, 995년(성종 14)에 진주(晋州)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뒤 조선에 와서는 진양도호부(晋陽都護府)가 되기도 하였으나 진주목(晋州牧)으로서 서부 경남 일대를 관할하였다. 그 후 여러 변천을 거쳐 1949년에 진주시(晋州市)가 되었다.
역사인물로 군자(君梓)의 아들 영실(英實)이 감찰(監察)을 역임했고, 증손(曾孫) 의동(儀東)은 통사랑(通仕郞)을 지냈다.
그 밖에 어모장군(禦侮將軍)을 지낸 승부(承富)는 통사랑(通仕郞) 의동(儀東)의 아들이다. 치언(致彦)은 영조(英祖) 때 과거에 올라 도사(都事)를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 이씨는 파주시에 총 6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성 이씨(車城李氏)

차성 이씨(車城李氏)의 시조는 이위(李渭)이다. 그는 신라 신무조(新武朝)에 은청광록대부(銀靑光錄大夫)에 오른 문의공(文義公) 사언(嗣彦)의 차남인데, 신라 말에 공을 세워 벽상공신(壁上功臣)에 올랐고 차성군(車城郡)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경주 이씨에서 분적하여 위(渭)를 시조로 하고 차성(車城)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차성 이씨는 기장 이씨라고도 한다.
차성은 기장(機張)의 옛 지명이다. 기장은 경상남도 양산군(梁山郡)에 위치한 지역으로 본래는 신라 전기의 갑화량곡현(甲火良谷縣)인데, 경덕왕 때 기장현으로 개명하여 동래군(東萊郡)에 속하게 하였다. 후에 양주(梁州), 또는 울주(蔚州)에 예속되기도 하였는데, 1599년(선조 32)에 다시 동래군에 예속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군(郡)으로 승격되어 동래부(東萊府)에 속해 있다가 후에 동래부가 폐지되고 동래군이 될 때 기장현도 기장면(機張面)이 되어 동래군에 예속되었다. 8·15해방 이후 부산시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동래군의 대부분이 부산시에 편입되었으나 기장면(機張面)은 양산군(梁山郡)에 편입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위(渭)의 후손 원주(元周)가 1417년(태종 17) 문과에 급제하여 호조좌랑을 거쳐 이천부사(利川府使)를 지냈으며, 원주의 아들 맹종(孟宗)은 단종 때 통사랑(通仕郞)에 올랐다. 그 밖에 가선대부로 돈녕부도정을 지낸 희원(希元), 병조참판을 지낸 형원(亨元),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워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를 거쳐 선조(宣祖) 때 병조참지(兵曹參知)에 이른 응벽(應璧)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성 이씨는 파주시에 총 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녕 이씨(昌寧李氏)

창녕 이씨(昌寧李氏)의 시조는 이정현(李正賢)이다.
그는 고려 충선왕 때 과거에 급제하고 예의판서(禮儀判書)를 지낸 후 창산군(昌山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창녕(昌寧)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창녕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본래 신라의 비자화군(比自火郡)·비사벌(比斯伐)인데, 555년(진흥왕 16) 하주(下州)라 칭하고 경덕왕 때 화왕군(火王郡)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태조 때 창녕(昌寧)으로 고치고 1018년(현종 9) 밀성군(密城郡: 밀양)에 귀속되었다가 인조조(仁祖朝)에 현(縣)으로 복귀,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되었으며 1914년에는 영산군(靈山郡)의 일부를 병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정현(正賢)의 아들 원간(元幹)이 교수(敎授)를 지냈고, 손자 구엽(九燁)은 우상시(右常侍)를 역임했다. 정현(正賢)의 증손인 문화공(文華公) 한직(漢直)은 벼슬이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이르렀으며, 그의 아들 귀춘(貴春)은 현감(縣監)을, 손자 연무(衍茂)는 절제사(節制使)를 지냈다.
그 밖에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를 지낸 대임(大任)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집하여 여러 곳에서 많은 전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宣茂原從功臣)에 책록되었으며, 뒤에 가선대부·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학자 홍진(弘進)은 학문이 뛰어나, 향리에서 후진양성에 전념(專念)하여 문화에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했고, 운기(運基)는 통정대부로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을 지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녕 이씨는 파주시에 총 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안 이씨(淸安李氏)

청안 이씨(淸安李氏)의 시조는 이학년(李鶴年)이다.
그는 고려 광종 때 예부상서를 지냈고 청안군(淸安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청안(淸安)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청안은 충청북도 괴산군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1405년(태종 5) 청주(淸州)에 속해 있던 청단현(靑塘縣)과 도안현(道安縣)을 합하여 청안현이라 하다가 1895년(고종 32) 청안군(郡)으로 승격하였으나, 1914년 군(郡)을 폐하고 서면(西面)은 청주에 편입하고 나머지 일원은 괴산으로 편입해서 청안면이 되었다.
역사인물로 학년(鶴年)의 후손 한번(漢藩)은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지내고 홍건적을 대파하여 청안군(淸安君)에 봉해졌으며, 아들 광경(光慶)은 조선에서 병조판서를 지낸 후 호남파(湖南派)의 중시조가 되었다. 양길(陽吉)은 상장군(上將軍)으로 홍건적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워 벽상일등공신(壁上一等功臣)에 책록되고 청안군(淸安君)에 봉해졌으며 영남파(嶺南派)의 중시조로 분파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안 이씨는 파주시에 총 7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이씨(淸州李氏)

청주 이씨(淸州李氏)의 시조는 이능희(李能希)이다.
그는 고려 개국공신으로 벽상삼한삼중대광태사를 지냈다. 그의 10세손 계감(季瑊)은 낭성군(埌城君)에 봉해졌고, 13세손 애(薆)가 정사좌명공신(定社佐命功臣)으로 상당부원군(上堂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청주(淸州)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 왔다.
청주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원래 마한 땅이었다가, 백제 때 상당현(上黨縣), 일명 낭비성(娘臂城)·낭자곡(娘子谷)으로도 불렸다. 685년(신라 신문왕 5) 서원소경(西原小京)을 두었고 757년(경덕왕 16)에 서원경(西原京)이 되었으며, 940년(태조 23)에 청주(淸州)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능희(能希)의 아들 겸의(謙宜)가 삼한공신(三韓功臣)으로 금자광록대부(金紫光錄大夫)에 올랐으며, 증손 중강(仲降)은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냈다. 또한 중강(仲降)의 손자 공승(公升)이 인종(仁宗) 때 문과에 급제하고 형부(刑部)와 이부상서(吏部尙書)를 거쳐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 계장(桂長)도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하였다.
조선에서는 거이(居易)가 태조(太祖) 때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거쳐 태종 때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로서 서원 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졌고, 이어 영의정에 올라 기로소에 들어갔다. 그 밖에 태조의 사위로 공신이 된 애(薆), 태종 때 대장군을 역임하고 대광보국숭록대부에 올라 청평부원군(淸平府院君)에 봉해진 백강(伯剛), 대사간을 지낸 하성(夏成), 참판을 지낸 현송(顯孫)·세양(世陽)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 이씨는 파주시에 총 29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해 이씨(靑海李氏)

청해 이씨(靑海李氏)의 시조는 조선 객구에 공을 세운 공신 이지란(李之蘭)이다.
지란의 원래 이름은 퉁두란으로 아버지 아라부카(阿羅不花)는 여진의 금패천호(金牌千戶)였다. 아버지에 이어 천호가 되었다가 공민왕 때 많은 부하를 이끌고 귀화, 북청(北靑)에 거주하면서 이성계 휘하에 들어가 이씨(李氏) 성을 하사받았으며, 이어 조선 개국공신 일등에 올라 청해백(靑海伯)에 봉해졌다.
청해는 중국에 있는 지역이다. 북서쪽은 신강(新疆), 북쪽과 동쪽은 감숙(甘肅), 남동쪽은 사천(四川), 남서쪽은 티베트를 접하고 있다. 험준한 대고원 지대로, 황하·양자강 등에 발원을 이룬다.
역사인물로 지란(之蘭)의 아들 화영(和英)은 세종 초 판우군부사(判右軍府事)에 이르렀고, 6대손 인기(麟奇)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거쳐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그 밖에 인기(麟奇)의 아들 중로(重老),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핵(翮)의 아들 유민(裕民),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낸 수민(壽民)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해 이씨는 파주시에 총 14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 이씨(忠州李氏)

충주 이씨(忠州李氏)의 시조는 이관(李慣)이다.
그는 고려 때 평장사(平章事)를 지냈으며 충주백(忠州伯)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충주(忠州)를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충주는 충청북도 중원군(中原郡)에 있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 국원성(國原城)·미을성(未乙省)·완장성(薤長城)·탁장성(託長城) 등으로 불리다가 신라에 병합되어 진흥왕 때 이곳에다 소경(小京)을 두었고 경덕왕이 중원경(中原京)으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가 충주(忠州)로 개칭하였다. 그 후 고종 때 국원경(國原京)으로 고쳐 불렀고, 1550년(명종 5) 유신현(維新縣)으로 부르다가 조선 선조 즉위년에 다시 충주(忠州)로 환원되었다. 그 후 1956년 충주면(忠州面) 일원으로는 충주시(忠州市)를 만들고 나머지는 중원군(中原郡)으로 고쳤다.
역사인물로는 선전관(宣傳官)을 지낸 석로(碩老)와 석구(碩耉), 부사(府使)를 지낸 석질(碩耋), 무과에 급제한 석기(碩耆)가 한 형제로서 모두 현달(顯達)하였다. 또한 무관으로서 용맹을 떨친 성태(成泰)가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올랐고 오위장(五衛將)을 지낸 행로(行老)가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주 이씨는 파주시에 총 5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 이씨(泰安李氏)

『태안이씨세보(泰安李氏世譜)』에 의하면 태안 이씨(泰安李氏)의 시조는 중국 송나라 사람인 이욱(李煜)으로 925년(태조 8) 고려에 들어와 농서공(瀧西公)에 봉해졌으며, 그의 7세손인 기(奇)는 고려 광종 때부터 태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 후 욱(煜)의 후손 천(蕆)이 태안을 식읍으로 하사받고 태안부원군(泰安府院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본관을 태안(泰安)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태안(泰安)은 충청남도 서산시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백제 때 성대혜현(省大兮縣)·성대호현(省大號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소태(蘇泰)로 고치고 뒤에 소주(蘇州)로 개칭하여 부성군(富城郡: 서산군)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 현종 때 연주(蓮州)에 예속시켰으며 충렬왕 때 태안(泰安)으로 고쳤고 1416년(태종 16) 군(郡)으로 승격시켰다가 1913년 서산군(瑞山郡)에 병합되어 면(面)이 되었다.

역사인물로 병조정랑(兵曹正郞)을 역임한 회(薈)는 성품이 강직하여 사간(司諫)으로서 직언을 하다가 유배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검상(檢詳)으로 승려였던 청준(淸濬)이 그린 『역대제왕혼일강리도(歷代帝王混一彊理圖)』를 증수(增修)하여 우리나라 지도에 혁신을 가져온 『팔도도(八道圖)』를 그렸다. 조선 때 판서를 지낸 배일(培一)과 참판을 역임한 길장(吉長),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세익(世益) 등도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안 이씨는 파주시에 총 9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산 이씨(平山李氏)

평산 이씨(平山李氏)의 원조(遠祖) 이부명(李敷明)은 중국 당나라 설인귀(薛仁貴)가 보낸 8세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평산(平山)에 들어와 백성들에게 예법을 가르쳤고, 사문박사(四門博士)를 지냈다. 그러나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지낸 후손 자용(子庸)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불분명하므로 부명(敷明)을 원조로, 자용(子庸)을 일세조로 삼고 선조가 정착 세거한 평산(平山)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평산은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 때 대곡군(大谷郡)·다화실(多和悉)이던 것을 신라 경덕왕 때 영풍(永豊)으로 고쳤으며, 고려 초에 평주(平州)로 하였고 1272년(원종 13)에 평산으로 바꿔 도호부(都護府)로 승격하였으며, 고종(高宗) 때 군(郡)으로 되었다.

역사인물로 자용(子庸)의 아들 빈(彬)은 고려 때 찬성사(贊成事)를 지냈고, 빈(彬)의 손자 천위(天緯)는 조선 때 우찬성(右贊成)을, 천경(天經)은 관찰사(觀察使)를 지내다. 또한 판서(判書)를 역임한 천위(天緯)의 아들 지하(支廈),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석곤(錫坤)과 돈녕부사(敦寧府使)를 지낸 창식(昌植),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른 계남(繼男)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산 이씨는 파주시에 총 7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 이씨(平昌李氏)

평창 이씨(平昌李氏)의 시조는 이광(李匡)이다.
그는 고려 명종 때 태사(太師)를 역임하고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에 올라 백오군(白烏君)에 봉해졌으며, 그의 8세손 천기(天驥)가 고려 말에 산기상시(散騎常侍)를 역임한 후 고려의 국운이 기울자 불사이군의 충절로 아들 3형제를 데리고 장단(長湍)으로 내려가 절의를 지켰으므로 이성계가 그 충절을 가상히 여겨 평창군(平昌君)에 봉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이광(李匡)을 시조로 받들고 본관을 평창(平昌)으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평창은 강원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욱오현(郁烏縣, 일명 천오현)인데 신라 경순왕 때에 백오현(白烏縣)이라 개칭하여 내성군(奈城郡: 영월)에 속하게 했다. 고려 때 평창으로 개칭하여 원주의 속현으로 하였다가 1299년(충렬왕 25)에 현령(縣令)을 두고, 우왕 때 지군사(知郡事)로 승격시켰으나 뒤에 다시 현령으로 하였다. 1392년(태조 1)에 목조(穆祖) 효비(孝妃)의 고향이라고 하여 군(郡)이 되었고, 1895년 5월 충주부(忠州府) 평창군으로 되었다가 1896년 13도제(道制) 실시로 다시 강원도(江原道)로 편입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천기의 증손 영서(永瑞)가 이조·예조정랑을 거쳐 광주목사(廣州牧使)를 역임했다. 특히 영서는 글씨에 뛰어나서 강희안(姜希顔) 등과 함께 금은(金銀)으로 불경(佛經)을 쓰는데 특출한 재능을 발휘했다. 그의 아들 계남(季男)은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정국2등공신(靖國二等功臣)으로 평원군(平原君)에 봉해졌다.
세칭 '국조명장(國朝名將)'으로 불리던 계동(季仝)은 연산군 때 고부사(告訃使)로 명나라를 다녀와 왕명으로 이극균(李克均)과 함께 『서북제번기(西北諸蕃記)』와 『서북지도(西北地圖)』를 찬진하여 문명을 떨쳤다.
그 밖에 정조 때 의주부윤(義州府尹)을 역임했던 동욱(東郁)의 아들 승훈(承薰)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천주교 영세신자가 되어 교세 확장에 공헌했고, 정규(正奎)는 을미사변을 계기로 스승 유인석(柳麟錫)과 함께 창의하여 일본군과 항쟁하고 항일운동 기록인 『종의록(從義錄)』과 『북정일기(北征日記)』를 저술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창 이씨는 파주시에 총 76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빈 이씨(河濱李氏)

하빈 이씨(河濱李氏)의 시조는 이거(李琚)이다.
그는 고려 명종 때 예부상서를 지냈고 나라에 공을 세워 하빈군(河濱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하빈(河濱)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하빈은 경상북도 달성군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신라 초기 다사지현(多斯知縣: 바보현)이라 하다가 경덕왕 때 하빈현으로 고쳐 수창군(壽昌郡)에 딸리게 하였다. 그 후 경산부(京山府)·대구부(大邱府)에 속하였다가 1914년 달성군(達城郡)에 편입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거(琚)의 아들 정견(挺堅)이 상서(尙書)를 지냈으며, 거의 손자 경(瓊)은 고려 때 좌정언(左正言)을 지냈고 조선이 개국하자 불사이군의 충절로 두문동에 은거하였다. 경(瓊)의 5세손인 예(芮)가 판서(判書)를 역임하면서부터 다시 관직에 오르기 시작했고, 침(沉)이 판관(判官)을 역임하였다.
그 밖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현계(賢啓),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을 역임한 상룡(相龍), 문명(文名)으로 이름을 날린 조헌(祖憲)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빈 이씨는 파주시에 총 13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음 이씨(河陰李氏)

하음 이씨(河陰李氏)의 시조는 이영(李英)이다.
그는 백운거사 이규보의 둘째 아들이다. 문헌에 의하면 영(英)은 고려에서 내시(內侍)와 정용낭장(精勇郞將)을 지내고 여흥 이씨에서 분적하여 본관을 하음(河陰)으로 삼았다고 한다. 하음(河陰)과 같은 지명인 강화 이씨도 여흥 이씨에서 분적하였고, 이규보가 강화 이씨의 족보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하음 이씨는 강화 이씨에 속한 한 줄기의 파로 추정되나 상계 소목을 고증할 문헌이 없어 정확히 상고(詳考)하지 못한다.
하음은 경기도 강화군에 있던 지역이다. 고구려 때 동음내현(冬音奈縣)·아음현(芽音縣)으로 불리다가 신라 때 호음현(沍音縣)으로 고쳐 해구군(海口郡)에 속했다. 고려ㅈ에 하음현(河陰縣)으로 고쳐 개성(開城)에 속하였으나, 1413년(조선 태종 13) 강화군에 이속되어 현(縣)을 폐하고 강화군에 병합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음 이씨는 파주시에 총 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성 이씨(鶴城李氏)

학성 이씨(鶴城李氏)의 시조는 이예(李藝)이다.
그는 조선 때 대마도 정벌에 공 세워 절충장군용기위사상호군(折衝將軍龍騎衛司上護軍)에 올랐고 이어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와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을 역임하였다. 후손들은 시조의 발상지인 학성(鶴城)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울산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굴아화촌(屈阿火村)인데 파사왕(婆裟王)이 현(縣)을 두었고 경덕왕(景德王)은 하곡(河曲)으로 개명(改名)하여 임관(臨關)의 영현(領縣)으로 삼았으며 고려 태조는 흥려부(興麗府)로 승격시켰다. 그 후 여러 변천을 거쳐 1397년(태조 6) 진(鎭)을 두었고 1413년(태종 13)에는 진(鎭)을 파(罷)하고 울산(蔚山)으로 개칭하여 지군사(知郡事)로 삼았다. 1599년(선조 32) 부(府)로 승격하였고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어 1931년 울산면이 울산읍으로 승격하였으며 1962년 읍이 울산시(蔚山市)로 승격하였다. 학성은 울산의 별칭이다.
역사인물로 예(藝)의 손자 직겸(直謙)은 군자감판사(軍資監判事)를, 직유(直柔)는 사재감 부정(司宰監副正)을, 직강(直剛)은 훈련원봉사(訓鍊院奉事)를 역임하였다. 겸수(謙受)는 나라에 공이 있어 원종훈삼등공신(原從勳三等功臣)에 책록되었으며 남강사(南岡祠)에 제향되었다. 현담(玄聃)은 문장과 학행으로 당대에 뛰어났으며, 양오(養吾)는 학자로 명성을 날리고 『반계집(磻溪集)』을 남겼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성 이씨는 파주시에 총 5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산 이씨(韓山李氏)

한산 이씨(韓山李氏)의 시조는 이윤경(李允卿)이다.
그는 한산지방에 토착 세거해온 호족의 후예로 고려 중엽에 향직(鄕職)의 우두머리인 호장(戶長)을 역임했고, 5대(代)에 걸쳐 호장직을 세습하여 왔다.
한산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마산현(馬山縣)인데 신라 때 가림군(嘉林郡: 임천)의 영현이 되었고 고려 초에 한산으로 고쳤다. 1175년(명종 5) 감무를 두었고 홍산(鴻山)을 겸임, 후에 지한주사(知韓州事)로 승격되었다가 조선 때 한산군(韓山郡)이 되었으며, 1913년 서천군으로 병합하여 지금은 한산면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6세손 곡(穀)이 충숙왕 때 원나라 제과(制科)에 급제하여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고, 스승인 이세현(李齊賢)과 함께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증수했다. 곡(穀)의 아들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야은(冶隱) 길재(吉再)와 더불어 여말 삼은(三隱)으로 일컬어졌던 목은(牧隱) 색(李穡)이다. 1351년(공민왕 2) 등과(登科)하여 정당문학(政堂文學)·판삼사사(判三司事)·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등을 거쳐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렀고, 공양왕 때 한산부원군(韓山府院君)에 봉해졌다. 고려의 국운이 기울고 조선이 개국되는 격동기에 풍운이 격심한 일생을 살면서 다섯 차례나 유배를 당했던 목은은 뛰어난 학문으로 성리학을 집대성하여 후세에 명망을 떨쳤다.
색(穡)의 증손이며 계주(季疇)의 아들이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인 개(塏)이다. 1436년(세종 18) 문과에 급제했던 개(塏)는 저작랑(箸作郞)으로 『명황계감(明皇戒鑑)』 편찬과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에도 참여했으나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직제학(直提學)으로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했다.
지함(之函)은 흙벽돌을 찍어 축대를 쌓았고 그 위에 정자(亭子)를 짓고 살았으므로 토정선생(土亭先生)으로 더욱 유명했다. 복서(卜筮)·지리(地理)·음양(陰陽)에 능통했던 토정(土亭)은 선조(先祖) 때 탁행(卓行)으로 포천현감(抱川縣監)에 임명되었다가 이듬해 사직,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으며, 청빈하게 살았다.
그 밖에 아성부원군(鵝城府院君)에 봉해졌던 산해(山海), 호성2등공신(扈聖二等功臣)으로 한흥부원군(韓興府院君)에 추봉된 산보(山甫), 광해군 때 좌참찬(左參贊)을 지낸 후 한평부원군(韓平府院君)에 진봉된 경전(慶全), 인조(仁祖) 때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올랐던 현영(顯英) 등이 있다.
한말에는 일본의 침략정책에 항거하다가 아들과 함께 살해당한 남규(南珪),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으로 명성황후와 함께 살해된 경직(耕稙), 근대 한국의 정신적인 지주로 일컬어진 월남(月南) 상재(商在)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산 이씨는 파주시에 총 1,35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안 이씨(咸安李氏)

함안 이씨(咸安李氏)의 시조는 이상(李尙)이다.
위위시주부동정(衛尉寺主簿同正)을 지낸 원조(遠祖) 원서(元敍)의 후손인 그는, 고려 때 광록대부(光祿大夫)에 오르고 파산군(巴山君)에 봉해졌다. 그 후 문헌의 실전으로 선계를 상고할 수 없으므로 후손들은 선조들의 세거지인 함안(咸安)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상(尙)의 아들 청(淸)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를, 원(源)은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냈으며, 이 두 형제파가 함안 이씨(咸安李氏)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
함안은 경상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변한 땅이었고, 6가야 중 아나가야(阿那伽倻)의 영역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함안군(咸安郡)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995년(고려 성종 14)에 함주(咸州), 1018년(현종 9)에 함안군, 1172년(명종 2)에 함안현, 1374년(공민왕 22)에 함안군, 조선 때인 1505년(연산군 10)에 함안도호부(咸安都護府), 1506년(중종 1)에 함안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 고려 구국의 명장 방실(芳實)은 당시 국가를 혼란시킨 홍건적을 격퇴하여 추성협보공신(推誠協輔功臣)에 봉해지고 추밀원부사가 되었으며, 함안 이씨를 명문의 위치에 올려놓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 미(美)는 선정을 베풀어 명관으로 이름이 났고 대사성을 역임하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그의 큰아들 인형(仁亨)은 당대의 석학 김종직(金宗直)과는 사돈지간으로, 연산군의 폭정에 항거하였으며 예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중종반정 때 공신이 되었던 세응(世應)은 사간이 되어, 당시 권세를 부리던 유자광을 탄핵하여 귀양을 보낼 정도로 기개가 당당하였으며,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사람인 영(翎)은 인형(仁亨)의 셋째 아들로 스승 조광조를 구하려다 화를 당하였다.
그 밖에 대사간을 지낸 세응(世應)의 아들 임(霖),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공을 세운 달(達)·응성(應星)·왕(旺)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 이씨는 파주시에 총 2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 이씨(咸平李氏)

함평 이씨(咸平李氏)의 시조는 이언(李彦)이다. 그는 고려 광종 때 신호위대장군(神虎衛大將軍)을 지내고 함풍군(咸豊君)에 봉해졌다.

함평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함풍(咸豊)과 모평(牟平) 두 2현(縣)의 이름을 합한 것이다. 함풍현(咸豊縣)은 본래 백제의 굴내현(屈乃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함풍현으로 고쳤고, 모평현(牟平縣)은 다지현(多只縣)을 다기현(多岐縣)으로 개칭하고 무안군(務安郡)에 이속되었다가 고려 태조 때 모평현(牟平縣)으로 하였다. 그 후 1409년(태종 9) 함풍현과 모평현을 병합하여 함평(咸平)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언(彦)의 10대손인 종생(從生)이 세조 대의 무장으로 이시애의 난을 토벌한 공으로 적개공신 2등에 오르고 각 도(道)의 병마절도사를 역임했다.

우윤(右尹) 관(瓘)의 아들로 선조 때 대사간을 지낸 효원(效元), 동지(冬至) 겸 성절사(聖節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함릉부원군(咸陵府院君)에 진봉(進封)되고 공조판서를 역임한 해(澥), 선조 때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를 지낸 춘원(春元), 효종 때 대사헌과 예조판서를 지낸 지익(之翼), 인조 때 황해도관찰사를 지낸 배원(培元)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평 이씨는 파주시에 총 1,08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 이씨(陜川李氏)

합천 이씨(陜川李氏)의 시조는 이개(李開)이다.
서라벌 6부 촌장인 이알평의 후손인 그는, 고려개국 초에 가수호장(嘉樹戶長)을 지냈고 강양(江陽: 지금의 합천)으로 이거하여 합천 이씨의 시원을 이루었다. 그 후 세계를 계승해 오면서 전객령공파(典客令公派)·병사공파(兵使公派) 등 크게 11파로 갈라졌다.
합천은 경상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대량주(大良州)인데, 경덕왕이 강양(江陽)으로 고치고, 조선 태종 때 합천(陜川)으로 고쳐서 군(郡)이 되었다. 1895년 진주부(晋州府) 합천군(郡)이 되었으며 1914년 부군면 폐합 때 궁소면(宮所面)이 의령군(宜寧郡)으로 편입되고, 삼가(三嘉)·초계(草溪)의 2개면이 합천군(陜川郡)에 편입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공조참판 윤검(允儉)의 아들로 이조정랑을 지낸 희민(希閔), 검열(檢閱)과 대교(待敎)를 거쳐 수찬(修撰)을 역임한 희중(希曾), 학문(學問)으로 당대에 이름을 떨쳤던 희안(希顔)의 3형제를 들 수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천 이씨는 파주시에 총 54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주 이씨(海州李氏)

해주 이씨(海州李氏)의 시조는 이녕이다.
해주는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조선 이후 대방군에 속하여 고죽(孤竹)으로 불렸고, 고구려 때에는 내미홀(內米忽)·지성(池城)·장지(長池) 등으로 불렸다. 통일신라 때 폭지군(瀑池軍)으로 고쳤고, 고려 태조가 해주(海州)라는 이름을 내렸다. 성종 때 와서는 별호로 대령(大寧)·서해(西海)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는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을 지낸 이중련(李仲連)의 장남으로 예빈시별제(禮賓寺別提)를 지내고 후에 가선대부 공조참판 해성군(海城君)에 증직되었다. 그러나 해주(海州)에 유배를 당한 후에 자손들이 해주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에 후손들이 이녕(李寧)을 시조로, 해주(海州)를 본관으로 하여 연안 이씨에서 분적하고 세계를 이어왔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주 이씨는 파주시에 총 1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주 이씨(洪州李氏)

홍주 이씨(洪州李氏)의 시조는 이유성(李維城)이다.
고려 때 대장군을 지낸 한(翰)의 아들인 그는, 정당문학을 거쳐 찬성사(贊成事)에 오르고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에 봉해졌으며, 그의 9세손인 기종(起宗)이 내시연경궁제학(內侍延慶宮提學)을 지내고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본관을 홍주(洪州)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홍주는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운주(運州)인데 고려 성종 때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가 1012년(현종 3) 지홍주사(知洪州事)로 고치고 후에 홍주(洪州)로 개칭하였다. 공민왕 때 목(牧)이 되고 세종 때 진(鎭)을 두었으며 현종 때 홍양현(洪陽縣)으로 강등시켰다가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었다. 1913년 군을 폐하여 일부는 청양군(靑陽郡)에 속하고 그 나머지는 결성군(結城郡) 일원과 합하여 홍성군(洪城郡)이 되어 지금은 홍성군에 속한 홍성면(洪城面)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유성(維城)의 아들 천소(倩笑)가 평장사(平章事)에 오르고, 손자 권(鬈)도 평장사(平章事)를, 증손 응송(應松)은 판추밀원사(板樞密院事)를 역임하는 등 3대(代)에 걸쳐 벼슬을 역임하였다.
연수(延壽)는 응송(應松)의 아들로 판리부사(判吏部事)를 거쳐 수태보주국(守太保柱國)을 역임하고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으며, 연수의 아들 지청(之靑)도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했다.
서(舒)는 이성계를 옹립하여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고 안평군(安平君)에 봉해졌으며 영의정에 올랐다.
희건(希建)은 이괄의 난 때 공을 세워 진무공신(振武功臣)으로 홍양군(洪陽君)에 봉해졌고, 정묘호란 때 용골산성(龍骨山城) 전투에서 분전 끝에 전사하였으며 후에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주 이씨는 파주시에 총 19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산 이씨(花山李氏)

화산 이씨(花山李氏)의 시조는 이용상(李龍祥)이다.
그는 안남왕국(安南王國) 교지군왕(交趾郡王) 이공온(李公蘊)의 7세손이며, 안남왕(安南王) 이천조(李天祚)의 둘째 아들로 전한다. 『화산이씨정사세보(花山李氏丁巳世譜)』에 의하면 시조 이용상(李龍祥)은 1226년 변란을 피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 황해도 옹진(甕津) 화산(花山)에 정착하였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고려 고종은 이를 가상히 여겨 화산군(花山君)에 봉하고 그 지역의 땅을 식읍으로 하사하였다. 옹진에 정착한 용상은 북면 봉소리(北面鳳所里) 동쪽 원추형 산위에 쌓은 화산성(花山城)에 올라가 '망국단(望國壇)'을 만들고 고국을 그리다가 일생을 마쳤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용상(龍祥)을 시조로 받들고 본관을 화산(花山)으로 삼게 되었다.
화산은 황해도 금천군(金川郡)의 별칭으로, 1652년(조선 효종 3)에 우봉(牛峰)·토산(兎山)·강음(江陰) 3군현(郡縣)을 합하여 금천군(金川郡)으로 고쳐 고종 때 개성부(開城府)에 속하게 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용상의 6세손 맹운(孟芸)이 공민왕 때 호조전서(戶曹典書)를 역임한 후 고려의 국운이 기울자 해주(海州) 원통리(圓通里)에 은거하면서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켰다. 맹운의 장남인 덕종(德從)은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거쳐 재령군수(載寧郡守)를 역임했고, 차남 대종(大從)은 송화현감(松禾縣監)과 벽동군수(碧潼郡守)를 지낸 후 사복시부정(司僕寺副正)에 이르렀다.
그 밖에 호조좌랑·황해도사(黃海都事)를 지낸 수복(壽福), 평난원종공신(平難原從功臣)에 책록되고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에 추증된 인(嶙), 형조참의를 지낸 운(運), 부호군을 역임한 회백(懷白)·창룡(昌龍)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산 이씨는 파주시에 총 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양 이씨(興陽李氏)

흥양 이씨(興陽李氏)의 시조는 국자생원(國子生員) 이언림(李彦林)이다.
그는 고려 의종 때 병부상서·공부상서를 거쳐 상서우복야를 지낸 후, 흥양(興陽)에 정착 세거하였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흥양(興陽)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흥양은 전라남도 고흥군의 조선시대 행정구역 이름이다. 고려 초에는 고이부곡(高伊部曲)이라 하였으며, 1285년(충렬왕 11)에 고흥현(高興縣)이라 개칭하고 현감을 두었다. 1395년(태조 4)에 보성군 조양현(兆陽縣)으로 개편되었다가, 1397년 진(鎭)을 설치하고 병마사(兵馬使)로 현감(縣監)을 겸임하게 하였다. 1441년(세종 23)에는 장흥부(長興府) 두원현(豆原縣)으로 바꾸고, 보성군 남양현(南陽縣)을 분할 편입하여 흥양(興陽)이라 칭하고 현감을 두었다. 1895년(고종 32) 군으로 고쳐 군수(郡守)를 두었으며, 1914년 고흥군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언림(彦林)의 증손 원방(元邦)이 동정(同正)을 역임했고, 7세손 길(吉)이 문과에 올라 봉상대부(奉常大夫)를 거쳐 통례문부사(通禮門副使)에 이르러 흥양군(興陽君)에 봉해졌다.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 서원(舒原)은 언림의 8세손이며, 서원의 아들 균(均)이 문과에 올라 벼슬이 보문각직제학(寶文閣直提學)에 이르렀다.
그 밖에 전(㙫)이 주자학(朱子學)에 능통하여 학명(學名)을 떨쳤으며, 준(峻)은 예조정랑(禮曹正郞)·수찬(修撰)·교리(校理) 등을 지냈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수차 의병을 일으켜 나라에 공을 세웠다. 군자감봉사(軍資監奉事)를 지낸 원경(元卿)은 첨정(僉正) 대록(大祿)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흥양 이씨는 파주시에 총 18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동 인씨(喬桐印氏)

교동 인씨(喬桐印氏)는 중국 계통으로 『좌씨전(左氏傳)』과 『계고집성(稽古集成)』에 의하면 중국 정(鄭)나라 목(穆)의 증손 7명 중에 자장(子張)의 아들 단(段)이란 사람이 조부의 이름인 '자인(子印)'의 '인(印)'자를 따서 성을 인씨(印氏)로 삼았다고 한다. 단(壇)의 후손 인서(印瑞)가 진(晋)나라 풍익(馮翊)의 대부(大夫)로 297년(신라 유례왕 14)에 사신으로 왔다가 정착한 것이 우리나라 인씨(印氏)의 시초이다. 그 후 33세손 빈(邠)이 고려 인종 때 한림학사(翰林學士)로 교수(喬樹)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교동(喬桐)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교동은 경기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원래 고구려의 고목근현(高木根縣)으로서 해중(海中)의 섬이다.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교동현으로 개명하여 해구군(海口郡)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계속하여 교동현이라 하였고, 1629년(인조 7)에 부(府)로 승격되었으며 수사(水使)가 부윤(府尹)을 겸임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강등(降等)되어 강화군에 예속되었으며, 1914년 군(郡)을 폐하고 강화(江華)로 합(合)했다.

역사인물로는 빈(邠)의 아들 완(完)이 고려 때 형부상서(刑部尙書)를 거쳐 문하시중 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에 올랐다. 손자 규(珪)가 판이부상서(判吏部尙書)를, 증손 현원(玄元)이 응양위대장군(鷹揚衛大將軍)을 거쳐 호부상서(戶部尙書)를 그리고 현손(玄孫) 정(貞)은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하였다..

빈(邠)의 9세손 당(璫)은 공민왕 때 첨의평리(僉議評理)를 거쳐 서북면 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서 압록강 서쪽의 파사부(婆娑府) 등 병참기지(兵站基地)를 격퇴하고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올랐으며 석성부원군(碩城府院君)에 봉해졌다. 또한 그의 아들 안(安)이 전리 판서(典理判書)를, 해(海)가 이부시랑(吏部侍郞)을 지냈고, 손자 원보(原寶)가 서북면체찰사(西北面體察使), 중보(重寶)가 상장군(上將軍)을 각각 역임하였다.

그 밖에 대장군을 지낸 저(著)와 절충장군(折衝將軍) 철관(鐵寬), 선략장군(宣略將軍)으로 임진왜란 때 정난원종이등공신(靖難原從二等功臣)에 오른 발(潑), 도총부부총관(都摠府副摠管) 이헌(以憲), 그리고 참판(參判)을 역임한 명조(明朝)·근영(瑾永)·석신(錫信)·상혁(相赫)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동 인씨는 파주시에 총 39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교동 인씨 통훈공파의 입향조(入鄕祖)는 인성국이며 16세기 초반 문산읍 운천1리 대덕마을에 정착하였다. 현재 운천리 대덕마을(운천1리)과 추동마을(운천2리)에 약 22호가 살고 있다. 선영과 재실이 문산읍 장산 2리에 있으며 해마다 가을에 시제를 지내고 있다.

나주 임씨(羅州林氏)

나주 임씨(羅州林氏)의 시조는 임비(林庇)이다.
그는 고려에서 벼슬을 지내고, 충렬왕이 원나라를 다녀올 때 호종했던 공으로 보좌2등공신(輔佐二等功臣)에 책록되어 철권을 하사받았으며, 뒤에 상장군에 올랐다. 그 후 시조의 9세손 탁(卓)이 고려 말에 해남감무(海南監務)를 역임한 후 조선이 개국되자 망국의 한을 가슴에 안은 채 송도(松都) 부조현(不朝峴)에서 조천관(朝天冠)을 벗고 북쪽을 향해 통곡하면서 금성(錦城) 회진(會津)으로 내려가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켰으며 두문동 72현(賢)의 한 사람으로 후세에 추앙을 받았고 그로부터 나주 임씨의 시원(始原)을 이루게 되었다.
나주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백제 때 발라(發羅)라고 불렸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는 금산(錦山)으로 고쳤으며,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여기를 점령하고 나주(羅州)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탁(卓)의 7세손 붕(鵬)이 중종 때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과 승문원주서(承文院主書)를 거쳐 예조 및 병조좌랑(兵曹佐郎)과 이조(吏曹)를 제외한 5조(五曹)의 참의(參議)를 역임한 후 광주목사(光州牧師)로 나갔다가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지냈다. 특히 그는 문과에 오르기 전에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자 유생(儒生) 200여 명을 이끌고 정암 조광조(趙光祖)의 억울함을 논하다가 화(禍)를 입을 뻔했다. 또 과거를 볼 때 시관(試官)이 간사한 집권자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신진사류(新進士類)들을 간사한 무리로 지칭하자 붓을 그 시관의 얼굴에 던지고 과장(科場)을 뛰쳐나왔다.
1577년(선조 10)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했던 백호(白湖) 제(悌)는 지제교(知製敎)와 장악원정(掌樂院正)에 올랐으나 당시 격렬했던 당쟁을 개탄하여 벼슬을 버리고 전국(全國) 명산(名山)을 찾아다니며 문필(文筆)로 여생(餘生)을 보냈다. 제(悌)의 아우로 공조정랑(工曹正郎)을 역임했던 환(懽)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창의(倡義)하여 전공을 세웠다.
그 밖에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원종공신(靖社原從功臣)에 책록되고 9군의 목사(牧師)와 부사(府使)를 지낸 후 시명(詩名)을 떨쳤던 타와 이괄의 난에 의병을 일으켰던 게가 유명했다. .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 임씨는 파주시에 총 1,98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고려통일대전 충신각에 나주 임씨 9세 감무공 탁(卓)과 아들 10세 소윤공 봉(鳳)이 고려의 충신으로 함께 배향되어 있다.

안의 임씨(安義林氏)

안의 임씨(安義林氏)의 시조는 임대량(林大樑)이고 본관을 안의(安義)로 하여 세계를 잇고 있다.
역사인물로 임온(林蘊)은 조선 때 통정대부로 공조참의를 지냈고, 대직(大職)은 통정대부에 올라 수안(遂安)·포천(抱川)·송화(松禾)등지의 현감(縣監)을 역임하여 향민의 칭송을 받았다.
그 밖에 통덕랑(通德郞)에 오른 해(嶰), 영조 때 통정대부에 오른 요(燿)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의 임씨는 파주시에 총 100여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의 임씨는 월롱면 위전리와 영태리 등에 20호가 살고 있다.

평택 임씨(平澤林氏)

평택 임씨(平澤林氏)는 충절공(忠節公) 휘(諱) 팔급(八及)을 도시조로, 고려조에 평찰품사(評察品事)를 지낸 충선공(忠宣公) 휘(諱) 몽주(夢周)를 중조로 받들고, 도시조 충절공이 처음 자리 잡은 팽성(彭城: 평택의 별칭)의 용주방(龍珠坊)이 평택으로 바뀜에 따라 관향을 평택(平澤)으로 삼고 있다.

평택은 경기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 송촌활달(松村活達)·부산현(釜山縣: 古淵達部曲)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에 진위현(振威縣)으로 개칭되었다. 940년(고려 태조 23)에 수성군(水城郡)에 편입되었으며 동시에 평택현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변천을 계속하다가 1986년 평택읍이 시로 승격되었다. 1995년 평택군·평택시·송탄시가 평택시로 통합되었다.

역사인물로 양저공(良貯公)은 신라 때 경순왕자(敬順王子), 정형(貞顯)의 사위로서 벼슬이 태사(太師)에 이르렀으며, 경순왕이 고려에 귀순하고자 할 때, 천승(千乘)의 왕업(王業)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군왕의 도리가 아니라고 간절하게 직간하다 왕의 노여움을 사서 선산 땅에 유배되었다. 무(碔)는 상장군(上將軍)에 이르고 나라에 공을 세워 평성백(平城伯)의 봉작을 받았다. 성미(成味)는 벽상삼한중광정대부문화시중평장사 삼사우사상호군(壁上三韓三重匡靖大夫門下侍中平章事 三司右使上護軍)으로 1378년(우왕 4)때 밀직부사로 서경도순문사(西京都巡問使)에 이르렀다. 평원부원군(平原府院君) 견미(堅味)는 1386년(우왕 12) 평원부원군(平原府院君)에 봉해졌다.

조선에서는 첨(襜)이서 나주(羅州)로 이거하여 자리를 잡은 후 여러 명현과 이름난 조상을 배출했다. 형수(亨洙)는 부제학에 이르렀다. 식(植)은 형조정랑·영변판관·구성부사·강계부사로 재직 중 간신배의 참소로 벼슬을 버리고 홍성군 결성면 교황리에 부해정(浮海亭)을 짓고 은거할 때 조정에서 참의(參議)로 수차 부름을 받았으나 끝내 거절하였다. 득의(得義)는 청난공신(淸難功臣)에 녹훈되어 의정부영의정평릉부원군(議政府領議政平陵府院君)의 증직을 추증받았다.

득의(得義)는 임진왜란때 왕의 피난길에 호종하여 호성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고, 토적 이몽학(李夢鶴)이 홍산(鴻山)에서 난을 일으켜 홍주성(洪州城)을 포위하자 8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난을 평정하여 분충출기(奮忠出氣) 청난공신(淸難功臣)에 녹훈되고 평성군(平城君)의 봉작(封爵)을 받았다.

한말에는 8명의 독립투사와 파리장서사건(巴里長書事件)의 중심인물 한주(翰周) 등이 조국독립을 위해 힘썼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택 임씨는 파주시에 총 1,73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평택 임씨 충정공파(忠貞公派)는 고려 말의 삼중대광(三重大匡)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충정공(忠貞公) 언수(彦脩)를 파시조(派始祖)로 하며, 파주 입향은 1900년 무렵이다. 주요 인물로는 충정공의 장남으로 고려말 연산(連山), 이산(尼山), 공주(公州)에서 왜구를 물리쳐 삼사우사(三司右使)에 오른 충간공(忠簡公) 성미(成味, ?~1388),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일등공신에 오르고 안주목사(安州牧使)를 지냈으며 충주 충민사(忠愍祠)에 배향된 충민공(忠愍公) 경업(慶業, 1594~1646) 등이 있다. 교하 서패동 산남동 일대에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매년 10월 중순에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전남 영광과 함평 등지에 있다.

장흥 임씨(長興任氏)

장흥 임씨(長興任氏)의 시조는 임분(林蕡)이다.
그는 고려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장흥군(長興君)에 봉해졌는데, 후손들이 임분을 시조로 하고 장흥(長興)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장흥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백제의 오차현(烏次縣)인데 신라 때 오아(烏兒)로 개칭되어 보성군에 속해 있다가 고려 때 영암(靈岩)에 소속되고, 인종 때 장흥부(長興府)로 승격되었다. 1265년(인종 6)에 회주목(懷州牧)으로 승격되었다가 1310년(충선왕 2)에 다시 장흥부가 되었다. 그 이후 많은 변천을 거쳐 1895년에 장흥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분(蕡)의 아들 이(頤)가 조선 태조 때 대제학을, 손자 득이(得荑)가 병조전서를 역임하였으며, 증손 우소(雨所)가 상주판관(尙州判官)을 역임하였다.
그 밖에 통덕랑(通德郞)에 이른 언경(彦京)과 수미(秀美), 부호군(副護軍) 중경(重敬), 대호군(大護軍)을 지낸 성밀(成密)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흥 임씨는 파주시에 총 27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천 임씨(豊川任氏)

본래 그는 중국 소흥부(紹興府) 자계현(慈溪縣) 사람으로 고려 때 은자광록대부(銀紫光祿大夫)에 올랐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의하면 온(溫)은 제국대장공주를 배종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풍천(豊川)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온(溫)의 6세손(世孫)인 주(澍)가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경상도안찰사(慶尙道按察使)를 거쳐 조봉대부(朝奉大夫)에 올라 감문위대장군(監門衛大將軍)을 역임하였는데, 풍천임씨는 그의 아들 대(代)에 와서 백파(伯派: 자송)와 중파(仲派: 자손)로 크게 나뉘었다.

풍천은 황해도에 있던 옛 지명이다. 고구려 때 구을(仇乙)·굴철현(屈遷縣)이라 불렸는데, 고려 초에 풍주(豊州)로 고쳤고, 성종 때 도호부(都護府)로 승격하였다. 조선 태종(太宗)이 풍천(豊川)으로 고쳤다. 그 후 은율현(殷栗縣)과 합하여 풍율현(豊栗賢)으로 개칭하였다가 1895년(고종 32) 송화군(松禾郡)으로 합하였고, 별칭(別稱)으로 서하(西河)라 불리기도 하였다.

풍천 임씨(豊川任氏)의 시조는 임온(任溫)이다.

역사인물로 자송(子松)은 조적(趙頔)의 난 때 공을 세워 정난공신(靖難功臣)에 올라 서하부원군(西下府院君)에 봉해졌고, 자순(子順)은 통헌대부(通憲大夫)서 민부전서(民部典書)를 지내고 개성부사(開城府使)를 역임하였다. 자송(子松)의 6세손인 원준(元濬)은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록되고 서하군(西河君)에 봉해진 후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다.

열(說)은 자송(子松)의 8세손으로 대사간(大司諫)·대사헌(大司憲)에 이어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지냈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으며 자손(子順)의 7세손인 유겸(由謙)은 중종(中宗) 때 대사헌(大司憲)과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거쳐 형조·공조판서(刑曹·工曹判書)를 지냈다.

사명대사(四溟大師)는 승려의 몸으로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자 분연히 일어나 의승(義僧)을 이끌고 왜병에 대항하여 전공을 세웠다. 그는 자순(子順)의 6세손으로 본명은 응규(應奎), 법명(法名)은 유정(惟政)이며 형조판서를 지낸 수성(守成)의 둘째 아들이다.

그 밖에 광(絖)은 도승지(都承旨) 등을 역임하였다. 유후(有後)도 예조참판·관찰사·도승지 등을 역임하였으며 후에 이조판서에 추증(追贈)되었다.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으로 『효종실록』 편찬에 참여한 한백(翰伯), 문장과 글씨가 탁월하고 경사(經史)에 정통하여 명성을 얻으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오르고 기로소에 들어간 홍망(弘望), 대사성·공조판서를 역임한 방(堕) 등도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풍천 임씨는 파주시에 총 1,22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풍천 임씨는 병조참판을 지낸 소간공(昭簡公) 유겸(由謙, 1456~1527)이며 파주 입향 시기는 1500년 무렵이다. 후손들은 탄현면, 법원읍, 적성면, 금촌동, 운정동 등지에 살고 있다.

결성 장씨(結城張氏)

결성 장씨(結城張氏)의 시조(始祖)는 장사(張楒)이다.
930년(고려 태조 13) 후백제) 견훤군을 크게 무찔러 삼중대광보사벽상공신태사오른 정필(貞弼)의 14세손이며 중랑장(中郎將)·병부상서(兵部尙書)를 지낸 상겸(尙謙)의 넷째 아들이다. 그는 고려에서 추성보리찬화안사공신(推誠輔理贊化安社功臣)으로 광정대부에 올라 삼한벽상삼중대광문하시중판전리감찰사사(三韓壁上三重大匡門下侍中判典理監察司事)를 역임하였고, 결성부원군(結城府院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사(楒)를 시조로 삼고 본관을 결성(結城)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결성은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결기현(結己縣)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에 결성군(結城郡)으로 개명하였고, 1018년(현종 9) 운주(運州: 洪州)에 예속하였으며, 1172년(명종 2)에 결성현(結城縣)으로 개명하고 감무를 두었다. 1413년(태종 13)에 감무를 폐하고 현감을 두었으며 1733년(영조 9) 보령(保寧)에 편입시켰다가 1736년(영조 12) 현(縣)으로 복구하였고, 1895년(고종 32)에는 결성군이 되어 홍주부(洪州府)에 예속, 1914년 홍성군에 병합되어 지금은 홍성군에 결성면(結城面)으로 남아있다.
역사인물로는 그의 현손(玄孫) 하(夏)가 공민왕 때 홍건적의 난을 토평하여 2등공신에 책록되고 여러 관직을 역임한 후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올라 결성군(結城君)에 봉해졌으며, 1388년(우왕 14)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있을 때 고려왕조의 국운이 다함을 느껴 치사하고 결성(結城)에 내려와 은둔하였다.
조선에서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언호(彦浩)와 부호군(副護軍) 서익(瑞翼),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낸 후중(後中) 등이 유명했다. 혼(混)은 학자로 효성(孝誠)이 극진하여 고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으며, 또한 시문(時文)과 글씨에도 뛰어났고, 정조조에 감인소사준(監印所司準)으로 서적 편찬에 전력하여 『몽유편(蒙喩篇)』·『시종당률(詩宗唐律)』 등을 저술하였다.
근대에 와서는 독립운동가이며 정치가인 덕수(德秀)와 덕진(德震)이 임시정부 수립에서 광복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업적을 남겨 결성 장씨의 가문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성 장씨는 파주시에 총 19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 장씨(求禮張氏)

구례는 전라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구지차현(仇知次縣)·구례차현(仇禮次縣)이었으나, 신라 경덕왕 때에 구례현(求禮縣)으로 고치고 곡성군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 초에는 남원부(南原府)에 속하였고, 1143년(인종 21)에 감무를 두었으며, 1413년(태종 13)에 현감(縣監)을 두었다. 1499년(연산군 5)에 현(縣)을 폐하고, 부곡(部曲)을 만들어 남원부에 속하게 하였다가 1507년(중종 2)에 다시 현(縣)으로 부활시켰다. 1895년(고종 32)에 군으로 승격시켜 남원부의 관할하에 두었다가, 1906년(광무 10)에 전라남도에 속하게 하였다. 196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구례면(求禮面)이 읍(邑)으로 승격되었다.

구례 장씨(求禮張氏)의 시조는 장악(張岳)이다.

그는 도시조(都始祖) 정필(貞弼)의 21세손이다. 『봉성장씨족보(鳳城張氏族譜)』에 의하면 그는 고려 인종 때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나이 70에 입조(入朝)할 때마다 얼굴에 수심(愁心)이 가득하였다. 하루는 그 까닭을 하문(下問)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신(臣)이 출생하여 자란 곳이 봉성(鳳城)인지라 고향이 생각나서 그러합니다”라고 하자 왕이 즉석에서 봉성(鳳城)을 식읍(食邑)으로 하사(下賜)하고 봉성군(鳳城君)에 봉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구례(求禮)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역사인물로는 군수(郡守) 사종(嗣宗)의 아들 필무(弼武)가 중종 때 무과에 급제하여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등을 역임하고, 명종과 선조 때 가장 청렴결백한 무신으로 알려져 죽은 뒤, 청백리에 녹선되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아들 의현(儀賢)은 무과에 급제하여 해남현감(海南縣監)을 거쳐 선조 때 부령부사(富寧府使)로 니탕개(尼湯介)의 침입을 막아 명성을 떨쳤고, 지현(智縣)은 병마절도사 신립(申砬)의 부장을 지낸 후 임진왜란 때 부하를 거느리고 황간(黃澗)의 추풍령(秋風嶺)에서 적과 대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 밖에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낸 준(浚)과 부총관(副摠管) 정(楨), 부호군(副護軍) 수회(壽會)·석좌(錫佐)·후창(後昌)·국만(國萬), 중추부사(中樞府使) 세후(世後)·진구(軫九)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례 장씨는 파주시에 총 8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 장씨(丹陽張氏)

단양 장씨(丹陽張氏)는 동원(同源)이면서도 계보(系譜)를 달리하는 두 계통(系統)이 있다. 선단양(先丹陽)으로 불리우는 첫째 계통은 장씨(張氏)의 도시조(都始祖) 태사공(太師公) 장정필(張貞弼)의 증손인 지현(之賢)의 아들 장순익(張順翼)이 고려 때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올라 단양군(丹陽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本貫)을 단양으로 삼게 되었고, 후단양(後丹陽)으로 불리는 둘째 계통은 태사공 정필의 14세손으로 결성부원군(結城府院君)에 봉해졌던 장사(張楒)의 둘째 아들 장갑용(張甲用)과 셋째 장무용(張戊用)을 관조(貫祖)로 하는 계통이다.

단양은 충청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적산현(赤山縣, 혹은 赤城縣)이었는데 신라 때 내제군(奈堤郡)의 영현(領縣)이 되었고, 고려 초에 단산(丹山)으로 개칭되었다. 1018년(현종 9)에 원주(原州)에 속했다가 뒤에 충주(忠州)로 이속되고, 고종 때 고을 사람들이 합단(哈丹)의 난을 물리친 공으로 감무를 두었으며, 1318년(충숙왕 5)에 지단양군사(知丹陽郡事)가 되었다. 1423년(조선 태종 13)에 군(郡)이 되고, 1895년(고종 32)에 충주부(忠州府)의 관할하에 들어갔다가 1914년에 군면 폐합에 따라 영춘군(永春郡)을 병합하여 단양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 선단양 계통에서는 단양군(丹陽君) 순익(順翼)의 아들 재일(載鎰)이 고려조에서 상장군(上將軍)을 역임했고, 그의 아들 한문(漢文)은 고려(高麗) 고종(高宗) 때 문과(文科)에 장원급제하여 보문각직제학(寶文閣直提學)을 역임하고 나라에 공을 세워 단양군(丹陽君)에 봉해져서 가세(家勢)를 일으켰다. 한편 조선조(朝鮮朝)에서 황해감사(黃海監司)와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역임했던 중란(仲蘭)의 아들 윤화(允和)는 정용낭장(精勇郎將)으로 한양환도(漢陽還都)에 공(功)을 세워 단산군(丹山君)에 봉해졌으며, 태종(太宗)과 동갑계원(同甲契員)으로 친분이 두터웠다.

그의 아들 지(祉)는 강원감사(江原監司)를 지내고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며 매서운 절개를 지켰다. 한말에 와서는 윤덕(胤德)이 의병을 규합하여 영주(榮州)·풍기(豊基) 등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던 중 부상하여 체포된 뒤에도 계속 항거하다가 총살당했다.

후단양 계통에서는 조선 초기에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역임한 덕랑(德郎)과 예조판서에 올랐던 계증(繼曾)이 유명했다. 중종반정에 공을 세웠던 온(溫)은 정국3등공신(靖國三等功臣)으로 단양군(丹陽君)에 봉해졌다. 그 밖에 호조참판을 지낸 강(綱), 공조참판(工曹參判) 석규(錫奎),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준(準)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양 장씨는 파주시에 총 37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단양 장씨 청계공파는 파시조(派始祖) 가 하(夏)이고 입향조(入鄕祖)는 12대조인 청계공 장설길이다. 청계공의 양자로 령(齡, 1700~1750)이 파주읍 봉암리에 정착하였다. 후손들은 법원읍 금곡리에 20호, 파주읍 봉암4리 새말에 4호가 살고 있으며 그외 파주지역에 51호가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10일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파주읍 봉암4리이다. 입향조(入鄕祖)인 장성길의 묘는 조리읍 봉일천 문중산에 있다가 도시개발로 고양시 설문동으로 이장했으며, 양자인 장령의 묘는 파주읍 봉암4리 선영에 있다

덕수 장씨(德水張氏)

덕수 장씨(德水張氏)의 시조는 장순룡(張舜龍)이다.
그는 원(元)나라 필도치(必闍赤) 경(卿)의 아들이다. 『고려사(高麗史)』, 『덕수장씨족보(德水張氏族譜)』 등에 의하면 순룡은 본래 회회계(回回系) 사람으로 제국공주를 따라 고려에 귀화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등을 지내고 덕성부원군(德城府院君)에 봉해진 후 덕수현(德水縣)을 식읍으로 하사받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순룡(舜龍)을 시조로 하고 덕수(德水)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덕수는 경기도 개풍군(開豊郡)에 속해 있던 지역의 이름이다. 본래 고구려의 덕물현(德勿縣)·인물현(仁物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덕수현(德水縣)으로 개칭하였으며, 후에 해풍군(海豊郡)과 합하여 풍덕부(豊德府)로 승격하였으나, 나중에 개성부(開城府)를 제외한 구(舊) 개성군(開城郡)과 합(合)하여 개풍군(開豊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순룡(舜龍)의 맏아들 양(良)이 판사(判事)를 지냈으며, 둘째 아들 운(芸)은 신호위 대장군(神號衛大將軍)을 역임했다. 양(良)의 손자인 우(羽)는 문과에 급제한 후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오르고 이조판서(吏曹判書) 및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을 역임했다. 조선(朝鮮)의 무신(武臣)으로 이름난 정(珽)은 순룡(舜龍)의 8세손으로 무예에 뛰어나 성종(成宗) 때 선전관(宣傳官)에 뽑혔고, 연산군(燕山君) 때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을 역임한 후 1504년(연산군 10) 연산군의 총애를 받고 있던 장녹수(張綠水)가 부당하게 차지한 토지를 농민에게 나누어 주고 모든 폐단을 제거하여 명관(名官)으로 이름이 났으나 이로 인해 파직되었다. 그 후 중종반정에 가담, 정국일등공신(靖國一等功臣)으로 하원군(河源君)에 봉해졌다. 호조판서 언량(彦良)은 중종 때 무과에 올라 북청판관(北靑判官)을 역임한 후 명종조에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에 이르렀으며, 형조판서(刑曹判書) 운익(雲翼)은 일(逸)의 아들로 선조(宣祖) 때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하여 전적(典籍)·공조좌랑(工曹佐郞)·장령(掌令) 등을 지내고 임진왜란 때 왕을 호종하였다.
신(紳)은 병자호란 때 순절하여 덕창군(德昌君)에 봉해졌으며 유의 아들인 선징(善澂)은 직강(直講)·장령(掌令)·병조참판 등을 지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덕수 장씨는 파주시에 총 23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덕수 장씨의 선영은 행주산성에 있으며 시제를 그곳 선영에서 지낸다.

목천 장씨(木川張氏)

목천 장씨(木川張氏)의 시조는 장빈(張彬)이다.
그는 고려에서 공을 세워 목천군(木川郡)에 봉해졌다. 『목천장씨족보(木川張氏族譜)』에는 그 후 세계가 실전되어 그의 후손 지(池)를 일세조로 하고, 목천(木川)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한다.
목천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 대목악군(大木岳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대록군(大麓郡)으로 고쳤고, 고려 때 목주(木州)로 개칭하여 청주(淸州)에 속하게 하였다. 1172년(명종 2)에 다시 설치하였고, 1413년(태종 13) 목천(木川)으로 고쳐서 현감을 두었으며,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하였다가 1914년 천안군(天安郡)에 병합되어 지금은 천안군(天安郡) 목천면(木川面)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 지(池)는 남평현감(南平縣監)을 거쳐 공조참의를 역임했으며, 그의 아들 승로(承老)는 무과에 급제하여 어모장군(禦侮將軍)에 올라 중랑장(中郎將)을 지냈다. 연산군 때 순천교수관(順天敎授官)을 역임한 자강(自綱)의 손자 렬(洌)은 임진왜란 때 위성삼등공신(衛聖三等功臣)으로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이 되어 목성군(木城君)에 봉해졌으며, 선조 때 사천현감(泗川縣監)이 되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창의하여 여러 곳의 전투에서 전공을 세우고 진주성에서 장렬하게 순절한 윤(潤)은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그 밖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홍도(弘道)와 홍적(弘迪), 병조참판 수명(受命), 이조판서 이필(以弼), 현감(縣監) 세량(世良)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천 장씨는 파주시에 총 10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 장씨(扶安張氏)

부안 장씨(扶安張氏)의 시조는 도시조(都始祖) 장정필(張貞弼)의 7세손인 장을호(張乙湖)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고려 인종 때 좌복야(左僕射)를 역임하였고 부령군(扶寧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그 지방에 정착 세거하며 본관을 부안(扶安)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부안은 전라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부령(扶寧)·보안(保安)의 합명인데, 부령(扶寧)은 본래 백제의 개화현(皆火縣)·계발현(戒發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부령(扶寧)으로 고쳐 고부군(古阜郡)에 편입시켰. 1416년(태종 16) 보안(保安)을 병합하여 부안(扶安)으로 고치고 현(縣)으로 삼았다가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하였으며, 1914년 고부군(古阜郡)의 백산면(白山面)·거마면(巨麻面)·덕림면(德林面)을 편입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고려에서 상호군(上護軍)을 지낸 을호(乙湖)의 손자 대환(大紈), 중랑장(中郎將)을 역임한 을호(乙湖)의 증손 재(載) 등이 있다.
조선에서는 춘추관사(春秋館事)를 지낸 승부(承鮒), 절제사(節制使)를 역임한 우인(友仁), 참판(參判)을 지낸 계량(啓良)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안 장씨는 파주시에 총 2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 장씨(順天張氏)

순천 장씨(順天張氏)의 시조는 장천로(張天老)이다.
『장씨상계세보(張氏上系世譜)』에 따르면 그는 도시조(都始祖) 정필(貞弼)의 10세손인 연우(延佑)의 둘째 아들이라 한다. 천로는 고려에서 문과에 급제하여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중서시랑(中書侍郞)을 지냈고 순천군(順天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관향을 순천(順天)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순천(順天)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 함평군(欿平郡)이었으나 신라 때 승평(昇平)으로 고쳤으며, 996년(고려 성종15)에 승주(昇州)로 하였다가 정종(靖宗) 때 승평군(昇平郡)이 되고, 1309년(충선왕 1) 승주목(昇州牧)으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천로의 증손인 균절(均節)이 개성윤(開城尹)을 지냈으며, 균절의 아들 송저(松貯)는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를 지냈다. 그의 아들 홍(弘)이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역임하였다. 사검(思儉)이 문과에 급제한 후 사재소감(司宰少監)을 거쳐 중추원 녹사(中樞院綠事)에 이르렀으며, 헌(憲)은 중추원녹사(中樞院綠事)를 지냈고, 조선 태종 때 승지(承旨)·이조판서(吏曹判書) 등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고려조에 절개를 지켰다.
조선에서 판관(判官)을 지낸 일신(日新)은 훈련원참군(訓鍊院參軍)을 역임한 윤의(允義)의 아들로 무예(武藝)가 뛰어나고 청빈하기로 이름났으며, 학자(學者) 건(健)은 성균관진사시(成均館進士試)에 합격했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성리학(性理學) 연구에 전념하여 후진 양성에 힘썼다.
문보(文輔)는 명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풍기군수(豊基郡守)를 거치고 진주목사(晋州牧師)로 나가 선정(善政)을 베풀어 많은 치적(治績)을 남겼다.
그 밖에 군자감첨정(軍資監僉正)을 지낸 덕순(德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역임한 대곤(大崑), 부총관(副摠管)을 역임한 시규(是奎), 부호군(副護軍)을 지낸 계헌(桂憲),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지낸 한상(漢相),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세형(世衡)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 장씨는 파주시에 총 8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 장씨(安東張氏)

안동 장씨(安東張氏)의 시조는 장정필이다.
그는 888년 중국 절강성(浙江省) 소흥부(蘇興府)에서 대사마대장군(大司馬大將軍) 원(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원(源)이 어지러운 난국을 피하여 건너올 때 함께 따라와 강원도 강릉 땅에 정착, 후에 경북 노전(蘆田)으로 옮겨 살았다. 930년(고려 태조 13) 고창(古昌) 성주(城主)인 김선평(金宣平), 판관(判官) 권행(權幸)과 함께 태조(太祖)를 도와 후백제 견훤의 군대를 대파한 공으로 삼한벽상삼중대광아보공신태사영운사(三韓壁上三重大匡亞父功臣太師領雲事)에 오르고 고창군(古昌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정필(貞弼)을 시조로 삼고, 본관을 안동(安東)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안동은 경상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고대의 창녕국(昌寧國)이었는데 신라 때 고타야국(古陀倻國)·고창군(古昌君)으로 불렸고, 고려 태조가 견훤과 싸워 전공을 세움으로써 안동부(安東府)로 승격되었다. 그 후 영가군(永嘉郡) 또는 복주(福州)로 개칭되었다가 1361년(공민왕 10)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로 승격하였다. 1914년 안동·예안(禮安)을 통합하여 안동군이 되었고, 1931년 안동면이 안동읍으로 승격하였으며 1962년 신안동시(新安東市)로 승격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안동시(安東市)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화령군(花寧君) 사길(思吉)과 그의 아들 철(哲)이 유명하다. 사길(思吉 : 의주 만호 여의 아들)은 1390년(공양왕 2)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이성계(李成桂)의 위화도(威化島) 회군에 가담하여 공신(功臣)에 책록(策錄)되었고, 1392년(태조 1) 조선개국(朝鮮開國)에 공(功)을 세워 개국 1등공신(開國一等功臣)에 올라 동지절제사(同知節制事)를 지냈다.
1398년에 일어난 왕자의 난 때 방원(芳遠)을 도와 정사2등공신(定社二等功臣)으로 영가군(永嘉君)에 개봉(改封)되고 태종조(太宗朝)에는 참찬(參贊)을 지낸 뒤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다. 그의 아들 철(哲)은 태종조(太宗朝)에 정사2등공신(定社二等功臣)에 오르고, 화산군(花山君)에 봉(封)해졌으며, 이어 첨절제사(僉節制使)·영흥 부사(永興府使)에 이르렀다.
그 밖에 영조 때 창성부사(昌城府使) 겸 방어사(防禦使)로 변방 방어에 공을 세우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오른 천용(天用), 순조 때 홍경래의 난에 공을 세운 몽설(夢說)·낙현(洛賢) 부자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동 장씨는 파주시에 총 44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안동 장씨 희양공파(僖襄公派)는 12대조인 장소남이 강원도 강릉에서 들어온 입향조(入鄕祖)이다. 화산부원군 장사길은 병사 5천명을 이끌고 이모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도와 조선 개국공신에 책봉 된 인물이다.
안동 장씨는 적성면 식현리가 집성촌으로 50여호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외지로 많이 나가 15호 정도 거주하고 있다. 매년 10월 15일 시제를 지내며 선영은 적성면 장파리이다.
장사길 묘는 맥금동에 재실과 함께 있으며 장소남의 묘는 파평면 장파리에 신도비와 함께 있다.

예산 장씨(禮山張氏)

예산 장씨(禮山張氏)의 시조는 장유(張裕)이다.
그는 정필(貞弼: 장씨 도시조인 태사 충헌공)의 9세손으로 고려에서 예산군(禮山君)에 봉해진 것으로 전하며, 그의 아들 영위(英暐)가 고려 때 이부상서(吏部尙書)를 거쳐 평장사(平章事)에 올라 나라에 공을 세워 예산군(禮山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예산(禮山)에 정착 세거하며 예산(禮山)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예산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 오산현(烏山縣)이라 불리다가 통일신라 때 고산(孤山)이라 칭했으며 임성군(任城郡)에 딸린 현이 되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919년(태조 2) 예산이라 개칭하였다. 1018년(현종 9) 천안부(天安府)에 속했으며 후에 다시 감무를 두었다. 1413년(태종 13) 예산현으로 현감(縣監)을 두었으며 1895년(고종 32)에 군으로 승격하여 군수를 두었다. 1914년 대흥군(大興郡)·덕산군(德山郡)을 통합하여 예산군을 설치하여 12면을 관할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유(裕)의 손자 빈(贇)이 대제학(大提學)을 역임했다. 빈(贇)의 아들 진영(鎭永)이 평장사(平章事)를, 진영(鎭永)의 손자 근수(根秀)가 우복야(右僕射)를 역임하여 가문(家門)을 중흥시켰다.
조선에서는 수군안찰사(水軍按察使) 용일(龍釰)과 군수(郡守) 경지(敬持)가 뛰어났고, 계선(繼先)은 광해군(光海君) 때 부장(部將)을 역임한 후 강홍립(姜弘立) 휘하에서 건주위(建州衛) 정벌에 출정하여 남방의 부차(富車) 싸움에서 순절했다.
그 밖에 근(謹)은 군자감정(軍資監正)을, 경고(景高)는 현감(縣監)을, 인덕(麟德)은 참판(參判)을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산 장씨는 파주시에 총 1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구 장씨(沃溝張氏)

옥구 장씨(沃溝張氏)의 시조는 장익(張楹)이다.
그는 도시조(都始祖) 장정필(張貞弼)의 14세손이다. 『장씨상계세보(張氏上系世譜)』에 의하면 그는 고려에서 집현전대제학을 거쳐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하였고 나라에 공(功)을 세워 옥성부원군(沃城府院君, 옥성은 옥구의 별호)에 봉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세계가 실전되어 정확한 계대는 알 수 없고, 그의 후손으로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한 장송(張竦)을 일세조로 하고 옥구(沃溝)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옥구는 전라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본래 백제 마서량현(馬西良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옥구(沃溝)로 고쳐서 임피(臨陂)에 속하게 하였고 1356년(공민왕 5) 금강의 조운(漕運) 기지로서 진포(鎭浦: 현재의 군산)가 되었다. 조선시대 초에 군산열도에 있던 진영(鎭營)을 옮겨오고, 용안현의 득성창(得成倉)이 나누어져 군산창(群山倉)이 되면서 옥구현(沃溝縣)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송(竦)의 손자 화(華)가 고려에서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냈고, 화의 아들 대유(大有)가 부사(府使)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대유의 아들 한(僩)이 판서(判書)를, 윤(倫)이 참의(參議)를 역임하였다.
그 밖에 군수(郡守) 승조(承祖), 현감(縣監) 현손(賢孫), 어모장군(禦侮將軍) 희(禧)·순명(順命)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옥구 장씨는 파주시에 총 3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 장씨(蔚珍張氏)

울진 장씨(蔚珍張氏)의 시조는 장말익(張末翼)이다.
그는 고려 정종 때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냈고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 상주국(上柱國)으로 울진부원군(蔚珍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울진(蔚珍)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울진은 경상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본래는 우진야현(于珍也縣)으로 불렀는데, 신라 경덕왕 때 울진(蔚珍)으로 개칭하여 군(郡)을 삼았으며 고려 때 강등하여 현(縣)을 만들어 영(令)을 두었다.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고쳤다.
역사인물로는 말익(末翼)의 아들 천일(天鎰)이 고려 문종(文宗) 때 문과에 급제하여 추밀직학사(樞密直學士)를 지냈으며, 손자 원흡(元洽)은 병부상서(兵部尙書)를 거쳐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올랐다. 동정(同正)을 지낸 한련(漢連)의 아들 양수(良守)는 희종조에 문과에 급제한 후 봉익대부(奉翊大夫)에 이르렀으며, 전리판서(典理判書)를 거쳐 상호군(上護軍)을 역임하였다.
그 밖에 군수를 역임한 령(翎)·진문(振文)·기문(起文)·응정(應禎), 학자(學者)로 명성을 날린 만시(萬始)·한보(漢輔), 부사(府使)를 지낸 백손(伯孫)·진행(晋行)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진 장씨는 파주시에 총 17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동 장씨(仁同張氏)

인동 장씨(仁同張氏)의 시조는 장금용(張金用)이다.
태사공(太師公) 장정필(張貞弼)의 원손인 그는, 고려 때 삼중대광에 올라 신호위상장군(神虎衛上將軍)을 역임했고, 그의 아들 선(善)이 고려 문종조에서 금오위상장군(金吾衛上將軍)을 지냈다. 그 후 자손들이 본향지인 인동현에 세거하면서 본관을 인동(仁同)으로 삼게 되었다.
인동은 경상북도 칠곡군(漆谷郡)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신라 초기에 사동화현(斯同火縣)·수동현(壽同縣)으로 불리다 경덕왕 때 인동현(仁同縣)으로 고쳤다. 고려 현종 때 경산부(京山府: 성주)에 속한 약목현(若木縣)에 예속시켰다. 1604년(선조 37)에 인동부(仁同府)로 승격되었고 1895년(고종 32) 인동군(仁同郡)으로 개편되었으나 1914년 군이 폐지되고 일부 지역이 칠곡군(漆谷郡)에 병합되어 인동면(仁同面)이 되었다가 1977년 구미시(龜尾市)에 편입되었다. 옥산(玉山)과 연복(延福)은 인동(仁同)의 별호(別號)이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증손 국신(國伸)이 고려 때 봉정대부(奉正大夫)로 내사령(內史令)을 거쳐 직사관(直史館)을 지냈으며, 그의 현손(玄孫) 위(偉)가 통의대부(通議大夫)로 검교군기감사(檢校軍器監事)에 올랐다.
고려 말기에 덕령부윤(德寧府尹)을 역임했던 안세(安世)는 조선이 개국되자 벼슬을 버리고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켜 개성 두문동으로 들어가 은거하였으며 그의 아들로 김해부사(金海府使)를 지냈던 중양(仲陽)은 한성좌윤(漢城左尹)의 벼슬을 내려 회유하던 이성계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은거생활로 일생을 마쳤다.
인조 때 이괄의 난을 평정하여 진무일등공신(振武一等功臣)에 책록되었던 만(晩)은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올라 옥성부원군(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인조반정 증산현령(甑山縣令)으로 공을 세워 옥산군(玉山君)에 봉해졌던 돈(暾)은 병자호란 때 개천군수(介川郡守)로 호병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여 영돈녕부사(領敦寧府使)에 추증되었다.
그 밖에 이인좌의 난에 훈공을 세웠던 붕익(鵬翼),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를 지낸 태소(泰紹), 부제학(副提學)을 지내고 '청명직절(淸名直節)'의 명신으로 이름났던 응일(應一), 병자호란 때 인동(仁同)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경우(慶遇) 등이 있다.
근대에 와서는 대한매일신보 주필을 지낸 지연(志淵)과 국문학자 지영(志暎), 민주당을 조직하여 부통령(副統領)에 당선되었던 운석(雲石) 면(勉), 조국광복운동을 주도했고 국무총리를 지냈던 창랑(滄浪) 택상(澤相)과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을 창간하고 국제올림픽조직위원과 남북조절위원회부위원장을 역임했던 백상(百想) 기영(基榮)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동 장씨는 파주시에 총 5,51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파주에 살고 있는 인동 장씨는 18세기에 적성 자장리로 들어와 살았던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낸 장우한(張友漢)의 후손들이다.
현재 자장리에는 2호가 살고 있는데 90년대에는 10호가 살았다. 선영은 적성면 자장리 전골이며 시제는 따로 지내지 않고 기독교 예배를 하고 있다. 문중 회장은 장동수, 총무는 장봉관이며 선영 임야 3천평을 문중이 소유하고 있다.
한편, 교하 연다산리 연다뫼마을 인동 장씨 태상경공파는 현재 후손의 5대조부가 이 마을로 들어와 정착하였다. 묘는 연다산리에 있다.

절강 장씨(浙江張氏)

절강 장씨(浙江張氏)의 시조는 장해빈(張海濱)이다. 본래 중국 항주(杭州)의 속현(屬縣)인 오강현(烏江縣) 사람인데, 그는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유격장군(遊擊將軍) 오유충(吳惟忠)의 휘하 장수로 우리나라에 와서 울산(蔚山)의 증성(甑城) 전투에서 유탄(流彈)을 맞아 본국(本國)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군위(軍威)에 정착 세거하였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삼고 본향인 절강(浙江)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절강은 중국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양자강(楊子江) 하류의 남부를 점하고 있으며, 전당강(錢塘江)에 의하여 동서(東西)로 나누어져 항주(杭州)를 성도(省都)로 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강 장씨는 파주시에 총 2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 장씨(鎭川張氏)

진천 장씨(鎭川張氏)의 시조는 장유(張裕)이다.
도시조(都始祖) 정필(貞弼)의 후손인 그는, 고려 때 봉익대부(奉翊大夫)·좌우위중추원사(左右衛中樞院事)·문하시중(門下侍中) 등을 지냈고, 예산군(禮山君)에 봉해졌다가 다시 진천군(鎭川君)에 개봉되었다고 『진천장씨세보(鎭川張氏世譜)』에 기록하고 있다. 그 후 후손들은 진천(鎭川)에서 정착 세거하며 진천(鎭川)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진천은 충청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고구려 때 금물노군(今勿奴郡)·만노(萬弩)·수지(首知)·신지(新知) 등으로 불리다가 신라 때 흑양군(黑壤郡)·황양(黃壤)이라 하였다. 고려 초에 와서 강주(降州)로 개칭되었고 뒤에 진주(鎭州)로 하였다가 창의현(彰義縣)으로 승격하여 현령(縣令)을 두었으며, 1413년(태종 13) 진천(鎭川)으로 개명하여 현감(縣監)을 두었고, 1895년(고종 32) 진천군(鎭川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유(裕)의 손자(孫子) 빈(贇)이 1164년(고려 의종 18)에 출생하여 문과에 급제하고 판도판서(版圖判書)를 거쳐 보문각 대제학(寶文閣大提學)을 지냈으며, 증손 진영(鎭永)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올랐다.
그 밖에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오른 송(松), 광정대부(匡靖大夫)·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를 지낸 하일(河馹), 부사(府使)를 역임한 기손(起孫), 참판(參判)을 지낸 희안(希顔)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천 장씨는 파주시에 총 1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녕 장씨(昌寧張氏)

창녕 장씨(昌寧張氏)의 시조는 장천일(張千鎰)이다.
그는 태사공(太師公) 정필(貞弼)의 6세손이며,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하고 옥산군(玉山君)에 봉해진 효익(孝翼)의 아들이다. 천일은 고려에서 문과에 급제하고 1228년(고종 15)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가 되어 사신으로 몽골에 다녀와 국자감좨주(國子監祭酒)가 되었으며, 그 후 2차례나 몽골에 사신(使臣)으로 다녀왔다. 1270년(원종 11) 삼별초(三別抄)가 난을 일으키자 대장군으로 경상도수로방호사(慶尙道水路防護使)가 되어 난을 평정하였고, 이어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지냈으며, 충렬왕조에는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보문각 대학사(寶文閣大學士)에 오르고 하산군(下山君, 하산은 창녕의 별호)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천일(千鎰)을 시조로 삼고 본관을 창녕(昌寧)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창녕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비자화군(比自火郡)·비사벌(比斯伐)인데 555년(진흥왕 16) 하주(下州)라 칭하고 신라 경덕왕 때는 화왕군(火王郡)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태조 때 창녕으로 고치고 1018년(현종 9) 밀성군)에 귀속되었다가 인조조에 현(縣)으로 복귀,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었으며 1914년 영산군(靈山郡)의 일부를 병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조선에서 병조좌랑을 역임한 계회(季會), 사간원헌납을 재낸 계지(繼池), 부사(府使)를 지낸 응성(應星)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녕 장씨는 파주시에 총 1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덕·흥성 장씨(興德·興城張氏)

흥덕·흥성 장씨(興德·興城張氏)의 시조는 장유(張儒)이다.
그는 상질현(尙質縣) 사람으로 도시조 장정필(張貞弼)의 9세손이다. 신라 말에 난을 피하여 오월국(吳越國)에 들어가 중국어를 배우고 돌아와, 고려 광종이 여러 번 객성(客省)의 관원에 임명하여 중국 사신이 올 때마다 접대하게 하였다. 그 후 벼슬이 광평시랑(廣評侍郞)에 이르렀고, 그의 6세 기(機)가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한 후 흥산군(興山君, 흥산은 흥성의 별호)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흥성(興城)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흥덕은 전라북도 고창군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백제 때 상칠현(上漆縣)이라 하다가 신라 경덕왕 때 상질현(尙質縣)으로 고쳐 고부군(高阜郡)의 영현(領縣)을 삼았다. 고려 때 장덕현(章德縣)으로 고쳐서 감무를 두고 고창을 겸해 다스리게 하였다가 충선왕이 즉위한 뒤 흥덕현으로 고쳤다. 조선 개국과 더불어 고창과 갈라서 현감(縣監)을 두고, 1895년(고종 32)에 흥덕군으로 승격하였으나 1914년 고창군에 합쳐 그 일부지방은 흥덕면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유(儒)의 아들 연우(延祐)가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으로 남쪽에 피난한 왕을 호종하여 중추원사(中樞院事)가 되고 판어사대사(判御史臺事)·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냈다.
조선에서는 인신(隣臣)이 세조 때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전적에 올랐으며, 응량(應梁)의 아들 우(佑)가 진도군수(珍島郡守)를 역임했고, 현휘(賢輝)는 부호군(副護軍)에 올랐으며, 왕(旺)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올랐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흥덕·흥성 장씨는 파주시에 총 43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 장씨(居昌章氏)

장씨(章氏)는 중국 하간(何間)에서 계출된 성씨로 문헌에 전해지는 본관(本貫)은 거창(居昌)과 복성(福城: 보성 지방)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거창(居昌) 단본(單本)으로 알려져 있다.
거창 장씨(居昌章氏)의 시조 장종행(章宗行)의 선대는 실전되어 알 수 없으므로 고려 충렬왕 때 봉익대부(奉翊大夫)로 판도판서(版圖判書)를 거쳐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겸 춘추관사(春秋館事)를 지낸 그를 시조로 하고, 그의 아들 두민(斗民)이 상장군(上將軍)이 되어 홍건적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워 아림군(娥林君, 아림은 거창의 별호)에 봉해졌으므로, 본관을 거창(居昌)으로 하게 되었다.
거창은 경상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거열군(居烈郡)인데 통일신라 때 경덕왕이 거창(居昌)으로 고쳤고, 1018년(현종 9) 합주(合奏: 합천)에 속하였다가 조선 태종 때 거제현(巨濟縣)과 합하여 제창현(濟昌縣)이 되었다. 후에 다시 거창이 되어 성종 때 군(郡)이 되었다가 중종 때 현으로 강등, 1658년(효종 9) 안음(安陰)에 편입시켰으며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1895년(고종 32) 거창군(居昌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두민(斗民)의 아들 영순(永巡)이 공민왕 때 한림학사(翰林學士)·보문각직제학(寶文閣直提學) 등을 지냈으며, 후손 참장(參將)은 공양왕 때 돈녕부부정(敦寧府副正)을 지내고 조선이 개국하자 벼슬을 버리고 거창군(居昌郡) 웅양면(熊陽面) 한현촌(汗峴村)으로 퇴거하여 그곳에 정착하였다.
그 밖에 선조 때 훈련원정(訓鍊院正)으로 임진왜란 때 장렬하게 순절한 헌휘(獻輝), 판관을 지낸 헌서(獻瑞), 부호군을 역임한 석규(錫奎)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창 장씨는 파주시에 총 2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장씨(牙山蔣氏)

아산 장씨의 시조인 장서(蔣堳)는 중국 송조(宋朝)에서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신경위대장군(神慶衛大將軍)을 지냈다. 고려 예종 때 금(金)나라가 송(宋)을 침입하자 상서(尙書) 이강(李綱)과 함께 항전(抗戰), 적에게 한 치라도 빼앗겨서는 안되며 끝까지 사수(死守)할 것을 조정(朝廷)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조의(朝儀)가 불합(不合),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배를 타고 동(東)으로 망명, 우리나라의 충남 아산군 인주면 문방리에 표착(漂着)하였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예종이 중국에 탐문한 바 후히 대접하라는 전달을 받았다. 예종은 서(堳)에게 식읍을 하사하고 아산군(牙山君)에 봉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서(堳)를 시조로 하고 아산(牙山)을 관적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장씨(蔣氏)의 득성 근원은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의 나라 이름으로 주(周)나라 주공(周公)의 셋째 아들 백령(伯齡)이 하남성(河南省) 기사현(期思縣)을 장국(蔣國)으로 하사받아 국명을 성(姓)으로 삼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장씨(蔣氏)의 본관은 문헌에 아산(牙山)·청송(靑松)·김포(金浦) 등 여러 본(本)이 기록되어 있으나 모두가 동원(同源)이므로 현존(現存)하는 장씨(蔣氏)는 아산 장씨(牙山蔣氏)로 단일화하고 있다.

아산은 충청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 때 아술현(牙述縣)인데 통일신라 때 음봉(陰峰, 일명 陰岑)·온정군령(溫井郡嶺)이라 하였고, 고려 초기에 인주(仁州)로, 그 후 아주(牙州)로 고쳐 감무를 두었다. 1413년(조선 태종 13) 아산으로 고쳤고 온양·평택·신창의 3읍으로 분속되었다가 1476년(성종 7) 아산현이 되었으며 1895년 군이 되었고 1914년 온양·신창 두 군을 편입하여 지금의 아산군에 이르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서(堳)의 증손 숭(崇)이 고려에서 정록대부(正祿大夫)로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겸 도총사(都摠事)를 역임하였고, 숭(崇)의 아들 득분(得芬)은 정순대부(正順大夫)로 서운관사(書雲觀事) 겸 도총사(都摠事)를 거쳐 판군기시사(判軍器寺事)에 이르렀다. 서(堳)의 6세손 균(均)이 봉익대부(奉翊大夫)로 판도판서(版圖判書)에 올랐으며 균(均)의 아들 자방(自芳)이 봉상대부(奉常大夫)로 삼사부사(三司副使) 겸 검교예빈경(檢校禮賓卿)을 역임하였다.

조선에서는 영실(英實)이 1423년(세종 5) 상의원별좌(尙衣院別坐)·사직(司直)을 지내고 1432년(세종 14) 천문기상기기(天文氣象機器)를 발명, 1438년부터 몇 년 동안 대소간의 천구의(大小簡儀天球儀), 혼천의(渾天儀), 일귀(日晷), 자격루(自擊漏)를 완성하였다. 그 외 동활자주조(銅活字鑄造), 채광제련(採鑛製練)을 감독하였고 1442년 세계 최초로 천문측우기(天文測雨器)를 발명하였다. 그 후 관직은 상호군(上護軍)에 이르렀다.

그 밖에 성종조에 경기병사(京畿兵使)를 지낸 처용(處勇), 선조조에 옥포만호(玉浦萬戶)를 거쳐 부사(府使)에 이르고, 임진왜란 때 울산소모대장(蔚山召募大將)으로 전공을 세워 칠공신(七功臣)의 한 사람이 된 후완(後琓) 등이 있다. 한편 희양(希陽)은 원종3등공신(原從三等功臣)에, 언기(彦起)는 호종3등공신(扈從三等功臣)에 올랐고, 희춘(希春)의 재종형(再從兄) 계현(啓賢)은 의병장 곽재우를 도와 화왕산(火旺山) 토벌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 장씨는 파주시에 총 9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전씨(慶州全氏)

경주 전씨(慶州全氏)의 관조(貫祖) 전공식(全公植)은 도시조(都始祖)인 환성군(歡城君) 전섭(全聶)의 27세손으로 고려 고종 때 병마사(兵馬使)에 이르러 몽골군이 침공하자 이를 토평하고, 1271년(원종 12) 안렴사(按廉使)에 올라 공을 세워 계림군(鷄林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정선 전씨(旌善全氏)에서 분적하여 공식(公植)을 시조로 하고 경주(慶州)를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경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기원전 57년 이곳에 6촌(村)이 연합하여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국호(國號)를 서라벌(徐羅伐)·사로(斯盧)·사라(斯羅)라 하였다. 65년(탈해왕 9) 시림(始林)에서 김씨(金氏)의 시조 김알지가 탄생하여 국호(國號)를 계림(鷄林)으로 고쳐 삼았다가 307년(기림왕 10)에 신라(新羅)로 하였다. 935년(태조 18)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등극한 후 처음으로 경주(慶州)라는 명칭이 생겼다. 987년(성종6) 동경(東京)으로 개칭하고 1008년(목종11) 별칭(別稱)으로 낙랑군(樂浪郡)이라 하다가 충렬왕 때 계림부(鷄林府)로 개칭하였고, 1413년(태종 13)에 와서 경주부(慶州府)로 개칭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변천을 거쳐 1895년 경주군(慶州郡), 1955년에는 경주시(慶州市)로 승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관조(貫祖) 공식(公植)의 아들 민(敏)이 고려 원종 때 우부중랑장(右部中郎將)을 지냈으며, 손자 인적(仁迪)은 충렬왕(忠烈王) 때 산원랑(散員郎)을 역임하였다. 증손 득성(得成)은 호위 산원랑(護衛散員郎)을 지냈다.

조선에서는 전객령(典客令) 석(碩)의 맏아들 세(世)가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올라 자헌대부(資憲大夫)로 공조전서(工曹典書)에 이르렀다. 효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정랑을 지낸 수만(壽萬)은 통천군수(通川郡守)를 역임하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이조참판에 이르렀으며, 영숙(榮淑)은 중추원의관을 역임하였다. 대호군(大護軍)을 지낸 인철(仁哲), 선전관(宣傳官)을 지낸 상명(尙明)·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을 지낸 종근(宗根), 선략장군(宣略將軍)을 역임한 응례(應禮) 등도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주 전씨는 파주시에 총 6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전씨(羅州全氏)

나주 전씨(羅州全氏)의 관조(貫祖) 전경(全卿)은 도시조(都始祖) 전섭(全聶)의 현손인 전이갑(全以甲)의 15세손으로 전한다. 『전씨대동보(全氏大同譜)』에 의하면 경(卿)은 충렬왕조에 성균좨주(成均祭酒)를 지내고, 충혜왕 때 조적(曺頔)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정난공신(定難功臣)으로 나성군(羅城君)에 봉군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나주(羅州)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나주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백제 때 발라(發羅)라고 불렸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는 금산(錦山)으로 고쳤으며,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여기를 점령하고 나주(羅州)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관조 경(卿)의 아들 보초가 고려에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냈으며, 후손 천수(千壽)와 사형(士亨)·대검(大儉)등은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하였다.

조선에서는 영조 때 학자로 『시폐천언소(詩弊千言疏)』를 올렸던 기대(氣大)와 감찰(監察)을 지낸 상원(尙源), 오위장(五衛將)을 역임한 경회(慶會)·경학(慶學)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 전씨는 파주시에 총 3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산 전씨(星山全氏)

성산 전씨(星山全氏)는 도시조(都始祖) 전섭(全聶)의 후손인 전순(全順)을 관조(得貫祖)로 하고 있다. 『전씨대동보(全氏大同譜)』에 의하면 순(順)이 고려 공민왕 때 생원(生員)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공조판서를 지내며 나라에 공을 세워 성산백(星山伯)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정선 전씨에서 분적하여 성산(星山)을 관향(貫鄕)으로 삼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산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성주(星州)의 옛 지명이다. 본래 육가야국의 하나인 성산가야국(星山伽倻國)인데 신라가 멸망시켜 본피현(本彼縣)이라 하다가 757년(경덕왕 16)에 신안현(新安縣)으로 개칭하여 성산군(星山郡)에 속하였다. 그 후 벽진군(碧珍郡)으로 고쳤고 940년(고려 태조 23) 경산부(京山府)로 개칭하였다가 경종(景宗)때 강등하여 광평군(廣平郡)이 되었으나, 995년(성종 14) 대주도단련사(岱州都團練使)를 두었으며 현종 때 다시 경산부(京山府)로 승격하여 1군 14현을 영속하였다. 충렬왕 때 흥안도호부(興安都護府)로 승격한 후 성주(星州)로 고쳐 목(牧)을 두었고, 충선왕이 다시 경산부로 강등하였으나 조선 태종 때 성주목(星州牧)으로 승격하였다. 1895년(고종 32) 성주군(星州郡)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순(順)의 둘째 아들 현로(玄老)가 감찰(監察)을 역임하고, 손자 전중(殿中)은 단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참의(刑曹參議)를 지냈다. 전중(殿中)의 맏아들 환(煥)은 참봉(參奉)을 거쳐 동래부사(東萊府使)와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지낸 후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추증되었다. 이조참판을 지낸 찬(燦)은 전중(殿中)의 셋째 아들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른 광일(光一), 군자감정(軍資監正) 성달(聲達) 등과 함께 가문을 빛냈으며, 판관을 지낸 효관(孝寬),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영완(永完), 오위장(五衛將) 기영(基榮) 등은부호군(副護軍)을 지낸 덕흥(德興)과 함께 성산 전씨(星山全氏) 가문을 유명하게 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산 전씨는 파주시에 총 4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 전씨(星州全氏)

성주 전씨(星州全氏)는 도시조(都始祖)인 전섭(全聶)의 26세손(世孫) 전흥(全興)을 관조(得貫祖)로 하고 있다. 고려조(高麗朝)에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좌우헌납(左右獻納)·봉익대부(奉翊大夫)·판도판서(版圖判書) 등을 지낸 흥(興)은, 1231년(고종18) 몽골의 원수(元帥) 살리타이(撒禮塔)가 침입했을 때 황간군(黃澗君) 전익(全翼)과 함께 공(功)을 세워 대광(大匡)에 오르고 성산군(星山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정선 전씨에서 분적하여 관향을 성주(星州)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성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대 성산가야국(星山伽倻國)인데 신라가 멸망시켜 본피현(本彼縣)이라 하다가 757년(경덕왕 16) 산안현(新案縣)으로 개칭하여 성산군(星山軍)에 속하였다. 그 후 벽진군(碧珍軍)으로 고쳤고 940년(고려 태조 23) 경산부(京山府)로 개칭하였다가 경종(警鐘)이 강등하여 광평군(廣平郡)이 되었으나 995년(성종14) 대주도단련사(岱州都團練使)를 두었으며 현종 때 다시 경산부(京山府)로 승격하였다. 충렬왕 때 흥안도호부(興安都護府)로 승격한 후 성주(星州)로 고쳐 목(牧)을 두었고 충선왕이 다시 경산부로 강등하였으나 조선 태종이 어태(御胎)를 이곳의 조곡산(祖谷山)에 봉안하고 성주목(星州牧)으로 승격하였다. 1895년 성주군(星州郡)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흥의 아들 대평(大平)이 판도 좌랑(版圖佐郎)을 거쳐 전법판서(典法判書)에 올랐으며, 슬하에 아들 5형제 모두가 벼슬에 등용되어 가문을 크게 중흥시켰다. 맏아들 인(仁)은 사평(司評)을 지냈고, 둘째 의(義)는 상서(尙書), 셋째 예(禮)는 좌랑(左郎), 넷째 지(知)는 이부상서(吏部尙書), 막내 신(信)은 상서(尙書)를 역임했다. 조선조(朝鮮朝)에 상호군(上護軍)에 오른 송(松), 부사(府使) 기선(起先)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에 오른 만웅(萬雄), 공조참의(工曹參議) 흥신(興信)과 함께 이름을 날렸고, 학자(學者) 천강 (天康)과 정엽(正燁)은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역임한 석순(錫淳)과 더불어 가문을 빛냈다.

초계군수(草溪郡守)를 지낸 이직(以直)은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올랐으며, 기업(起業)은 인조(仁祖) 때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의병(義兵)을 모집하여 대검(大劍)과 죽창(竹槍)으로 적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하하여 영조(英祖) 때 사림(士林)들의 장계(狀啓)로 전답(田畓)을 하사(下賜)받고 충렬사(忠烈祠)에 제향(祭享)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주 전씨는 파주시에 총 6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산·경산전씨(玉山·慶山全氏)

옥산·경산전씨(玉山·慶山全氏)의 관조(貫祖)는 도시조(都始祖) 전섭(全聶)의 27세손인 전영령(全永齡)이다. 『전씨대동보(全氏大同譜)』에 의하면 그는 고려조에서 신호위 대장군(神虎衛大將軍)으로 나라에 공을 세워 옥산군(玉山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정선 전씨에서 분적하여 옥산(玉山)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옥산(玉山)은 경산의 오래된 이름이다. 경산은 경상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압량소국(押梁小國)·압독소국(押督小國)이었는데, 신라 지마왕(祇摩王)이 군(郡)을 두었고 경덕왕이 장산(章山)이라 칭했다. 940년(고려 태조 23)에 장산(章山)으로 개칭되었으며 1018년(현종 9)에는 경주에 편입되었으나, 1171년(명종 1)에 감무를 설치하였고, 1310년(충선왕 2)에 경산(慶山)으로 바뀌었다. 1315년(충숙왕 2)에 현령(縣令)을 두었고, 1391년(공양왕 3)에는 군(郡)으로 승격하였으나, 1395년(태조 4)에 다시 현으로 강등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지방관제 개편으로 군(郡)이 되어 읍내를 비롯한 동·서·남·북의 5개면을 관할하게 되었는데, 1914년 자인(慈仁)·하양(河陽)의 2군과 신녕군(新寧郡) 남면(南面)의 일부를 편입하여 경산이라 일컫고, 군수를 두어 관할하게 하였다. 1956년에 경산면(慶山面)이 읍(邑)으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득관조(得貫祖) 영령(永齡)의 아들 공량(公亮)이 시어사(侍御史)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 3형제 중 맏아들 윤재(允宰)가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을 지냈고, 손자(孫子) 효정(孝貞)은 대호군(大護軍)을 증손(曾孫) 문주(文住)는 전객령(典客令)을 역임하였다.

상호군(上護軍)을 지낸 의룡(義龍)의 아들 백영(伯英)은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고 우왕(禑王) 때 간관(諫官)으로 이인임(李仁任)의 비리를 탄핵하다가 유배되었으나 풀려나 1390년(공양왕 2)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가 되고, 조선이 개국하자 대간(臺諫)을 거쳐 태조 때 병조전서(兵曹典書)로서 서북면선위사(西北面宣慰使)에 올랐으며, 백종(伯宗)은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를 역임했다.

그 밖에 군수(郡守) 유성(由性)과 부사(府使) 계신(繼信), 판관(判官) 천행(天幸), 현감(縣監) 대은(大恩) 등이 있다. 경창(慶昌)은 선조 때 문과에 급제, 헌납(獻納)을 거쳐 도호부판관(都護府判官)을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옥산·경산 전씨는 파주시에 총 15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 전씨(玉川全氏)

옥천 전씨(玉川全氏)의 관조(貫祖) 전유(全侑)는 환성군(歡城君) 전섭(全聶)의 27세손으로 고려 충숙왕 때 밀직부사(密直副使)·판도판서(版圖判書)·상호군(上護軍) 등을 지내고 나라에 공을 세워 관성군(管城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정선 전씨에서 분적하여 옥천(沃川)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옥천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 초기에 고시산군(古尸山郡)이라 불렸는데, 통일 이후 경덕왕 때에 관성군(管城君)으로 고쳤고, 고려 현종 때에는 경산부(京山府)에 예속되었다가 인정 때에 현(縣)이 되었다. 1181년(명종 12)에 일시 폐현되기도 하였으나 1313년(충선왕 5) 주(州)로 승격, 옥주(玉主)라 했고 경산부의 소속인 이원(伊源)·안읍(安邑)·양산(陽山) 3현을 받아들였다. 1413년(태종 13)에는 옥천(沃川)으로 개칭하고 관할도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변경하였다. 1895년(고종 32)에는 군이 되었고, 1914년에는 신라시대에 굴산현(屈山縣)·기산(耆山)으로 불리던 청산군(靑山郡)을 병합하고 학산면(鶴山面)·용화면(龍化面)· 산면(陽山面)은 영동군(永同郡)에 이관하였다. 1929년에는 이내(伊內)·이남(伊南) 두 면을 합하여 이원면(伊院面)으로 하고 청서(靑西)·청남(靑南) 두 면을 합하여 청성면(靑城面)으로 개편하였으며 1949년에는 옥천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때 부제학(副提學)을 지낸 지(智)와 판도판서(版圖判書) 숙(淑)이 유명했으며, 조선에서는 희철(希哲)과 여림(汝霖)의 아들 식(湜)이 뛰어났다. 희철(希哲)은 조선 세종(世宗) 때 생원(生員)으로 진사시(進士試)를 거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단종(端宗) 때 상장군(上將軍)으로 있다가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왕위(王位)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落鄕)하였다. 그 뒤 인조 때에 와서 익희(益禧)가 그의 유덕(遺德)을 기리기 위하여 방산서원(方山書院)과 공주(公州) 숙모전(肅慕殿)에 배향(配享)하였다.

그 밖에 인조 때 도학(道學)과 문장(文章)에 뛰어났던 명룡(命龍)이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대사헌(大司憲)에 올랐으며, 뇌(磊)의 아들인 익희(益禧)는 인조(仁祖) 때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있으면서 권신(權臣) 김자점(金自點)의 죄를 탄핵하다가 외직(外職)으로 물러났으나, 당시 왕에게 올린 상소문(上疏文)은 조선조(朝鮮朝) 정치사(政治史)에 백미(白眉)를 이루었다. 1641년(인조 19)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거쳐 장흥(長興)·선산 부사(善山府使) 등을 지내면서 선정(善政)을 베풀어 청덕비(淸德碑)가 세워졌고 서예(書藝)에도 능통하였다.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순절(殉節)한 극항(克恒)은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을 거쳐 예조정랑(禮曹正郞)을 지냈으며, 이조참판(李曹參判)을 역임한 황(煌)은 부사(府使)를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옥천 전씨는 파주시에 총 34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산 전씨(完山全氏)

완산 전씨(完山全氏)는 도시조(都始祖) 전섭(全聶)의 30세손(世孫) 전집(全濮)이 공민왕 때 중랑장(中郎將)으로서 홍건적을 격퇴하는데 공을 세워 추충정난호성공신(推忠靖亂扈聖功臣)에 녹훈되고 완산군(完山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정선 전씨에서 분적하여 전집(全濮)을 관조(貫祖)로 하고 완산(完山)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완산(完山)은 전주(全州)의 옛 지명이다. 전주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백제 때, 완선(完山)·비사벌(比斯伐)·비자화(比自火) 등으로 불리다가 555년(진흥왕 16)에 완산주(完山州)로 하였다. 그 후 경덕왕 때 완(完)을 의역(意譯)하여 전주(全州)로 고쳤고, 공민왕(恭愍王) 때 다시 완산부(完山府)가 되었다. 조선에서 태조의 선조(先祖)가 살았던 고향이라고 하여 완산유수부(完山留守府)로 개칭하였다가 1403년(태종 3) 다시 전주부(全州府)가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집(濮)의 아들 지경(之慶)이 사헌부(司憲府)의 감찰(監察)을 지냈으며, 지경(之慶)의 아들 3형제가 모두 현달(顯達)하여 맏아들 사흠(思欽)은 목사(牧使)를, 둘째 사일(思一)은 도사(都事)를 지냈다. 막내 사경(思敬)은 예조판서에 올랐다. 치원(致遠)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전공을 세웠고, 1606년(선조 39) 사헌부감찰을 거쳐 충무위부사과(忠武衛副司果)·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에 이르러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1585년(선조 18) 문과(文科)에 급제한 제(霽)는 첨정(僉正)을 거쳐 영산현감(靈山縣監)에 재임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배대유(裵大維)·이도유(李道攸) 등과 함께 의병(義兵)을 규합하여 박진(泊津)·정암(鼎巖) 등지에서 공(功)을 세웠으며, 정유재란 때 도산(島山)에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여 1880년(고종 17) 사림(士林)들의 장계(狀啓)로 호조참판에 추증되었고 도계서원(道溪書院)에 제향되었다.

만희(萬禧)는 1728년(영조 4) 무신난(戊申亂)이 일어나 합천군(陜川郡)이 함락되자 아우 만정(萬禎)과 함께 향병(鄕兵)을 일으켜 공을 세워 녹권(綠券)을 하사(下賜)받고 양무원종공신(揚武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한말에는 독립운동가로 이름난 석윤(錫允)이 한일합방 이후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에 보내는 호소문에 서명운동을 하는 등 많은 활약을 했으며, 석구(錫九)는 프랑스 장서사건에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산 전씨는 파주시에 총 1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궁 전씨(龍宮全氏)

용궁 전씨(龍宮全氏)의 관조(貫祖)는 도시조(都始祖) 전섭(全聶)의 28세손이며, 충렬공(忠烈公) 전이갑(全以甲)의 14세손인 전방숙(全邦淑)이다. 『전씨대동보(全氏大同譜)』에 의하면 그는 고려 충렬왕 때 한림학사(翰林學士)·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 등을 지냈고 나라에 공을 세워 용성부원군(龍城府院君)에 봉해졌다고 한다. 그 후 방숙의 아들 정민(正敏)이 고려에서 중서사인(中書舍人)·삼중대광(三重大匡)·첨의(僉議)를 거쳐 태사(太師)에 이르렀고, 손자 충경(忠敬)은 전법총랑(典法摠郞)을 역임하여 가문을 크게 중흥시켰다.

또한 충경(忠敬)의 손자 진(璡)은 전서(典書)를 지냈으며, 진(璡)의 아들 원발(元發)이 고려 말 공민왕(恭愍王) 때 원(元)나라에 가서 문과(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병부상서(兵部尙書)·집현전태학사(集賢殿太學士)를 지내다가 귀국하여 조선 태조 때 축산부원군(竺山府院君)에 봉해졌다. 축산(竺山)은 용궁(龍宮)의 옛 지명이며, 용궁은 지금의 경북 예천군 용궁면이 되므로 후손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정선 전씨에서 분적, 관향을 용궁(龍宮)으로 삼아 세계를 계승하고 있다.

용궁은 경상북도 예천군(禮泉郡)에 속한 지역이다. 신라 때 축산현(竺山縣)·원산현(園山縣)이라 하였는데 고려 성종 때 용주(龍州)로 승격시키고, 목종 때 군(郡)으로 강등시켰으며 현종 때 용궁(龍宮)으로 고쳐서 상주(尙州)에 편입하였다가 명종 때 다시 설치하였다. 1413년(태종 13)에 현으로 고치고 1895년 군(郡)으로 승격되었으나 1914년에 군(郡)을 폐하고 신하면(申下面)은 의성군(義城郡)에, 나머지는 예천군에 편입되었고 그 일부 지역은 용궁면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선조 때의 학자인 삼성(三省)이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크게 공을 세웠으며, 오익(五益)이 인조 때 박학다식한 학자로 이름을 떨쳤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궁 전씨는 파주시에 총 18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 전씨(旌善全氏)

정선 전씨(旌善全氏)의 도시조(都始祖) 전섭(全聶)은 백제 건국에 공을 세워 환성군(歡城君)에 봉해졌으며, 섭의 8세손 선(愃)이 신라 내물왕(奈勿王) 때 백제(百濟)로부터 대광공주(大光公主)를 배행하고 신라에 들어와 봉익대부(奉翊大夫)로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를 지냈으며 전법판서(典法判書)에 올라 정선군(旌善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선(愃)을 시조로 받들고, 정선(旌善)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정선은 강원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잉매현(仍買縣)인데, 신라 경덕왕 때 정선이라 개칭하여 명주(溟州)의 영현(領縣)이라 하였고, 1018년(고려 현종 9) 그대로 명주의 속현으로 하였다가 군(郡)으로 승격시켰다. 1895년(조선 고종 32) 5월 지방관제 개편에 따라 충주부(忠州府) 정선군이 되었고 1896년 도제(道制) 실시에 따라 다시 강원도 정선군(旌善君)으로 환원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선(愃)의 9세손(世孫) 이갑(以甲)과 의갑(義甲) 형제가 고려건국에 공을 세웠다. 후손 영보(英甫)는 대호군(大護軍)·밀직부사(密直府使)·대사헌(大司憲) 등을 역임했으며, 이도(以道)는 공민왕 때 예부시랑(禮部侍郞)을 거쳐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를 지냈고, 1362년(공민왕 11) 홍건적의 침입 때 개경(開京) 수복에 공을 세워 이등공신으로 안동도병마사(安東道兵馬使)가 되었다. 고려 말의 절신(節臣)인 오륜(五倫)은 예문관응교(禮文瓘應敎)·국자좨주(國子祭酒)·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등을 지냈다.

한말에는 순국지사(殉國志士) 봉학(奉學)과 독립운동가로 이름난 덕기(德基)·덕명(德明)·덕원(德元)·예순(禮淳)·인학(仁學)·협(協) 등이 기울어가는 조국의 광복과 한민족(韓民族)의 자유수호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선 전씨는 파주시에 총 1,88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법원읍 대능1리 정선 전씨는 전선(全宣)을 시조로 하는 임하군파(臨河君派)로 파주에 입향한 시기는 17세기 이다. 입향조는 전수복(全壽福, 1636~1687)이며 묘는 대능리에 있다. 법원읍 대능리에 예전에는 80여 호나 되는 많은 후손들이 누대를 이어 왔으나 요즘은 40여 호로 줄었다.

죽산 전씨(竹山全氏)

죽산 전씨(竹山全氏)의 시조는 도시조(都始祖) 전섭(全聶)의 28세손인 전한(全僩)이다. 1231년(고종 18)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 공을 세워 좌리공신(佐理公信)으로 죽산군(竹山君)에 봉해졌고 영상에 추종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한(僩)을 관조(貫祖)로 하고 정선 정씨에서 분적, 관향을 죽산(竹山)으로 하게 되었다.

죽산은 경기도 용인시과 안성시 일부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개차산군(皆次山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개산군(介山郡)으로 고쳤다가 고려 초에 죽주(竹州)로 고치고, 995년(성종 1)에 단련사(團鍊使)를 두어 음평(陰平) 또는 연창(延昌)이라 하였으며 현종(顯宗) 때 광주(廣州)로 속하였다. 1413년(태종 13)에 죽산(竹山)으로 개칭하여 감무(監務)를 두었고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었다가 1913년 원일면(遠一面)과 근삼면(近三面) 일부는 용인군에 합해지고 나머지 지역은 안성군에 합해졌다.

역사인물로는 한(僩)의 맏아들 학기(學基)가 고종 때 현감(縣監)을 지냈으며, 손자 득무(得武)는 부사(副使)를 역임하여 상서좌복야(尙書佐僕射)를 지낸 한의 증손 응견(應堅)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한편 응견(應堅)의 아들 공취(公就)는 추밀부사(樞密府使)·공부상서(工部尙書) 등을 거쳐 상장군(上將軍)에 올랐으며, 후손 문간(文簡)은 승지(承旨)를 지냈고, 팔급(八及)은 조선조(朝鮮朝)에 덕망(德望) 놓은 학자(學者)로 칭송을 받아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한 성옥(性玉), 통정대부(通政大夫) 오정(五禎) 등과 함께 명성을 날렸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죽산 전씨는 파주시에 총 7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전씨(天安全氏)

천안 전씨(天安全氏)의 관조(貫祖)는 도시조(都始祖) 전섭(全聶)의 후손인 전낙(全樂)이다. 문헌에 의하면 낙(樂)은 고려의 개국공신으로 삼사좌복야(三司左僕射)를 지냈고 천안군(天安君)에 봉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본관을 천안(天安)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천안은 충청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고려 태조가 백제의 대목악(大木岳)·탕정(湯井)·사산(蛇山) 3고을의 땅을 떼어서 천안부(天安府)를 설치하였다. 성종 때 환주(歡州)로 개칭하고, 목종 때 군영(軍營)과 부(府)를 폐지하였으나, 현종 때에 다시 부로 환원하였다. 충선왕 때 영주(寧州)로 개칭하였다가 공민왕 때 다시 천안부로 환원하였다. 1413년(태종 13)에 천안부를 군수도(郡守都)로 책정하여 영산군(寧山郡)이라 개칭하고 1416년(태종 16)에 천안으로 다시 고쳤다. 1936년 천안읍으로 승격되고, 1963년에 천안시(天安市)로 승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홍술(洪術)이 고려에서 문하시중평장사(文下侍中平章事)를 지내고 영산군(寧山君)에 봉해졌으며, 그의 아들 충우(忠佑)는 환계군(歡溪君)에 봉군(封君)되었다. 충우(忠佑)의 손자(孫子) 인량(人亮)은 1211년(희종 7)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를 거쳐 우의정(右議政)에 이르렀으며, 송(宋)나라에 사신(使臣)으로 가서 이부상서(吏部尙書)에 제수(際授)되고 은 자관록대부(銀紫光祿大夫)로 책록되었다. 귀국 후 천양군(川陽君)에 봉해져서 영평군(寧平君)에 봉해진 아들 단(旦), 지공거(知貢擧)에 오근 승(昇)과 함께 명성을 날렸다.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싸움에서 순절한 계종(繼宗)이 공조참의에 추증되었고, 몽성(夢星)은 정유재란 때 아우 몽진, 김덕흡(金德洽) 등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수차에 걸쳐 왜적을 무찔러 당대에 이름을 떨쳤다.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한 용(蓉)의 아들 상의(尙毅)는 인조 때 좌영장(左營將)을 역임 중 건주(建州)의 야인(野人)이 안주성(安州城)을 포위하자 안주목사(安州牧使) 김준(金浚)과 함께 이를 맞아 싸우다가 전사하여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안주(安州)의 충민사(忠愍祠), 광주(光州)의 충민사(忠愍祠), 경렬사(景烈祠), 제주(濟州)의 귤림서원(橘林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용병(用兵)에 능하여 이상진(李尙眞)·소두산(蘇斗山)과 더불어 『삼걸(三傑)』로 불리웠던 동흘(東屹)은, 현종(顯宗)때 7도(七道)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두루 역임한 후 숙종 때 총융사(摠戎使)와 훈련대장(訓練大將)을 지냈다.

한말에는 고종 때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오위장(五衛將) 등을 지낸 기윤(基允)과 '녹두장군(綠豆將軍)'으로 불린 봉준(琫準) 등이 있다.

그 밖에 수용(垂鏞)이 의병장으로 장성(長城) 등지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여 무공을 떨쳤으며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建國功勞勳章復章)을 받았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 전씨는 파주시에 총 1,27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강 전씨(平康全氏)

평강 전씨(平康全氏)의 관조(貫祖)는 도시조(都始祖) 전섭(全聶)의 29대손인 전빈(全賓)이다. 『전씨대동보(全氏大同譜)』에 의하면 빈(賓)은 공민왕 때 사람으로 1371년(공민왕 20)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을 거쳐 숙천군수(肅川郡守)를 지냈고 조선이 개국하자 간의대부(諫議大夫)로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에 올랐으며, 나라에 공을 세워 평강(平康)을 식읍으로 하사받고 평강백(平康伯)에 봉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정선 전씨에서 분적하여 평강(平康)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평강은 강원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부양현(斧壤縣)·사내현(斯內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광평(廣平)으로 고쳐서 부평군(富平郡)에 속하게 하였으며, 고려 1018년(현종 9)에 평강(平康)으로 개칭하고 동주(東州)에 예속시켰다. 1172년(명종 2) 감무를 두었다가 뒤에 김화(金化) 감무가 겸하였으며, 1390년(공양왕 2)에 다시 감무를 두었다. 1413년(태종 13)에는 현감을 두었고, 1895년(고종 32)에 군(郡)으로 승격시켰다.

역사인물로는 빈(賓)의 아들 후백(厚白)이 세종 때 음보(蔭補)로 초계군수(草溪郡守)에 올랐으며, 손자 수산(壽山)은 중종조에 대호군(大護軍)을 지냈다. 유형(有亨)은 임진왜란 때 조헌(趙憲)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싸웠고, 선조 말년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감찰(監察)을 거쳐 광해군 때 형조참판(刑曹參判)을 지냈다.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난군(亂軍)에 내응하리라는 무고(誣告)를 받아 처형되었으나, 뒤에 혐의가 벗겨져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고 의민공(義敏公)이란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그의 아들 현은 감역(監役)으로 학문(學問)이 깊었으며, 현의 아들 기제(起濟)는 문과에 급제하여 현감(縣監)을 지냈고, 후손 홍영(弘永)은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를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강 전씨는 파주시에 총 1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 전씨(南陽田氏)

남양 전씨(南陽田氏)의 시조(始祖) 전풍(田豊)은 중국에서 한림학사(翰林學士)였으나 옥책(玉冊)을 잘못 쓴 죄로 동방(東方)으로 유배되어 고려에 들어와 남양군(南陽君)에 봉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고증할 문헌이 없어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다가 재경종친회(在京宗親會)에서 『왕조실록(王朝實錄)』과 『국조방목(國祖榜目)』 등의 여러 문헌을 참고로 하여 20여 년간 끈질긴 노력 끝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왕실의 근친은 모두 주살되고 벼슬이 높은 원친(遠親)은 유배당했다.

전국(全局)에 산거한 모든 왕씨(王氏)는 『종모성(從母姓)』 하라는 태조(太祖)의 왕명에 따라 어머니 성(姓)을 따른 이가 많았고, 뜻있는 사람은 왕(王)자가 들어간 글자인 옥(玉)·전(全)·전(田) 등으로 성(姓)을 바꾸었다. 이 무렵 이방원의 집 종으로 사병이 되어 제1·2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 정사좌명원종공신(定社佐命元從功臣)이 되고, 사헌부(司憲府)에서 신분의 진위를 맑혀 천민이 아닌 양민(良民)의 자손임이 판명(判明)되어 태종으로부터 전흥(興)이란 성명을 하사) 받고 벼슬길에 나간 것이 남양 전씨의 출발이라고 한다.

남양은 지금의 경기도 수원(水原)과 화성군(華城郡) 일원을 포함한 지역의 옛 지명이다. 고구려 때 당성군(唐城郡)을 신라 경덕왕이 당은군(唐恩郡)으로 개칭하였고, 고려 초에 다시 당성군으로 고쳤으며, 1018년(현종 9) 수주(水州: 수원)와 인주(仁州: 인천)에 편입되기도 했으나 1310년(충선왕 2)에 남양부가 되었다. 조선 말기에 남양군이 되어 부평군(副平郡)에 편입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수원군(水原郡)에 합하였다. 그 후 수원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었으며, 후에 수원읍 이외의 땅은 화성군(華城郡)으로 수원읍은 수원시(水原市)로 승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전흥(全興)의 맏아들 가생(稼生)과 둘째 조생(稠生)이 한날 과거에 급제하여 장안의 화제가 되었으며, 조생(稠生)의 아들 림(霖)이 이름을 떨쳤다. 세조 때 무과에 급제한 림(霖)은 포도부장(捕盜不將)·전주판관(全州判官)·한성좌윤(漢城左尹)·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등 여러 관직을 거쳐 사은사(謝恩史)로 명나라에도 다녀왔다.

림(霖)의 당질인 우치(禹治)는 지(漬)의 아들로서 중종 때 미관말직을 지내다가 사임하고 송도(松都)와 고향(故鄕)에서 수도(修道)하다가 고사(古寺)에서 산신(山神)을 만나 비결(秘訣)을 얻어 도술가(道術家)로 많은 기담(奇譚)을 남겼으며, 당시 백성(百姓)을 현혹시켰다는 죄로 관(官)의 추적을 받게 되자 그 화(禍)가 두려워서 친척들이 그가 남양 전씨(南陽田氏)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바람에 한때 담양 전씨(潭陽田氏)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으나, 근래에 와서 남양 전씨(南陽田氏)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 밖에 공조정랑(工曹正郎) 경업(敬業)과 예조좌랑(禮曹佐郎) 홍업(洪業), 호조정랑(戶曹正郎) 석형(錫珩)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 전씨는 파주시에 총 4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 전씨(潭陽田氏)

담양 전씨(潭陽田氏)의 시조는 전득시(田得時)이다.
그는 고려 때 누대에 걸쳐 담양에 토착 세거해온 고을 향리(鄕吏)의 아들로 태어나 1155년(의종 9) 현량(賢良)으로 천거되고 갑과(甲科)에 급제하여 좌복야(左僕야)·참지정사(參知政事) 등을 지낸 후 담양군(潭陽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득시(得時)를 시조(始祖)로 하고 본관을 담양(潭陽)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그 후 희경(希慶)의 아들 3형제 대(代)에서 맏아들 녹생(祿生)은 야은공파(埜隱公派), 둘째 귀생(貴生)은 뇌은공파(耒隱公派), 셋째 조생(祖生)은 경은공파(耕隱公派)로 갈리었다.
담양은 전라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추자혜군(秋子兮郡)이었던 것을 신라 경덕왕이 추성군(秋成郡)으로 고쳤고, 995년(고려 성종 14)에는 담주도단련사(潭州都團練使)를 두었다가 후에 담양으로 고쳐서 나주(羅州)에 소속시켰다. 1199년(명종 2)에는 감무를 두었고, 1391년(공양왕 3)에는 율원현(栗原縣)을 병합하였다. 1395년(태조 4)군으로 승격하였다가 1399년(정종 1)에 부로 승격하고, 1413년(태종 13)에 도호부(都護府)가 되었으나, 1728년(영조 4)에 현(縣)으로 강등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담양군이 되어 남원부(南原府)의 관할하에 있었으며, 1914년에 창평군(昌平郡)이 폐지되자 담양군(潭陽君)에 병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녹생(祿生)이 공민왕 때 정당문학(政堂文學)·문하평리(問下評理) 등을 지냈다. 삼사좌윤(三司左尹)과 밀직제학(密直提學)을 역임한 그의 아우 귀생(貴生)과 참지정사를 역임한 조생(祖生)은 모두 문장(文章)에 뛰어나고 학문이 깊어 3형제가 함께 명성을 날렸다.
야은공파(埜隱公派) 녹생(祿生)의 후손에서는 성리학의 대가인 우(愚)가 이율곡(李栗谷)·우암 송시열(宋時烈) 등의 학통을 이어받아 크게 명성을 떨쳤으며, 뇌은공파(耒隱公派)에서는 귀생(貴生)의 아들 한(漢)이 중랑장(中郎將)을, 손자 묘(畝)가 소윤(少尹)을 역임했다. 조선에서는 가종(可種)이 군수(郡守)를, 가식(可植)이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냈다. 구주(九疇)는 중종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이조참의(吏曹參議)·춘추관지제교(春秋館知製敎)까지 지낸 후 문명(文名)을 날렸다.
경은공파(耕隱公派) 조생(祖生)의 후손에서는 그의 아들 순(順)·엄(淹)·회(澮)·개(漑)가 뛰어났으며, 세조 때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로 하음군(河陰君)에 봉해진 균(畇)과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등을 역임한 여림(汝霖), 보령현감(保寧縣監)으로 선정(善政)을 베풀어 '삼옥태수(三玉太守)'란 칭송을 들은 벽(闢), 임진왜란 때 아들 득우(得雨)와 함께 왕을 호종(扈從)하여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에 녹훈된 윤(潤) 등이 가문을 빛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양 전씨는 파주시에 총 1,11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 전씨(延安田氏)

연안 전씨(延安田氏)의 시조는 전가식(田可植)이다.
그는 담양군(潭陽郡) 전득시(田得時)의 10세손이며, 뇌은(耒隱) 전귀생(田貴生)의 증손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1399년(조선 정종 원년) 생원(生員)으로 문과(文科)에 장원하여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를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라 사간원(司諫院)·좌정언(左正言), 육조(六曹)의 정랑(正郎) 등을 거쳐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이르렀으며,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고 만년에 연안군(延安君)에 봉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담양 전씨에서 분적하여 가식(可植)을 시조로 하고 관향을 연안(延安)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연안은 황해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 동음흘·고염성(敲鹽城)이라 부르다가 신라 때 해고군(海皐郡), 고려 때 염주(鹽州)·영응현(永膺縣)·복주(福州)·석주(碩州)·온주(溫州) 등으로 고쳐 불렀다. 충선왕 때 연안부(延安府)로 고쳤다. 1895년 군(郡)이 되었으며, 1914년 배천군(白川郡)과 합하여 연백군(延白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 가식(可植)의 아들 6형제 대(代)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어 가문이 크게 번창하였는데 양원(養元)이 사온서직장(司醞署直長)을, 양건(養乾)이 예조좌랑(禮曹左郎)을 역임했으며, 양민(養民)이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을 지냈다.
그 밖에 중추부사(中樞府事) 덕우(德雨), 부호군(副護軍) 광업(光業), 사복시정(司僕寺正) 극의(克義), 부총관(副摠管) 상휘(尙輝)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안 전씨는 파주시에 총 6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음 전씨(河陰田氏)

하음 전씨(河陰田氏)의 시조는 전균(田畇)이다.
그는 충원공(忠元公) 득시(得時)의 후손으로 1447년(세종 29) 동판내시부사(同判內侍父事) 를 거쳐 1452년(문종 2) 동지내시부사(同知內侍父事)가 되었고, 1453년(단종 1)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수양대군(首陽大君)을 도와 공을 세워 수충위사협찬 정난2등공신(輸忠衛社協贊靖難二等功臣)에 책록되고 강천군에 봉해졌다. 1455년(세조 1)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좌익2등공신(左翼二等功臣)에 책록(策錄)되었으며, 이어 판내시부사(判內侍父事)에 승진(陞進), 하음군(河陰君)에 개봉(改封)되고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담양 전씨에서 분적하여 균(畇)을 시조로 삼고 하음(河陰)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하음은 경기도 강화군에 있던 지역이다. 고구려 때 동음내현(冬音奈縣)·아음현(芽音縣)으로 고쳐 개성(開城)에 속하였으나, 1413년(조선 태종 13) 강화군에 이속되어 현(縣)을 폐하고 강화군에 병합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음 전씨는 파주시에 총 3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 전씨(聞慶錢氏)

전씨(錢氏)는 중국 팽성(彭城) 전욱(顓頊: 중국 고대 전설상의 임금)의 후예로 전한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의하면 진(晉)나라 효제(孝帝) 때 사람인 전단(錢端)과 민제(愍帝) 때 사람인 전봉(錢鳳)의 지손(支孫)인 전류(錢鏐)가 오월국(吳越國)의 왕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후 원(元)나라 순제(順帝) 때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 전유겸(錢惟謙)이 노국공주를 배행하고 고려에 들어와 문장과 덕행으로 명성을 날림으로서 왕이 평장사(平章事)를 제수하였고, 최 영장군의 누이와 혼인하고 개성의 천장교(天章橋) 옆에 정착하여 시원을 이루었다고 한다. 유겸(惟謙)은 그 후 벼슬이 정당문학(政堂文學)에까지 이르렀는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벼슬을 버리고 불사이군의 충절로 관산(冠山: 지금의 경북 문경 조령 남쪽)에 들어가 은거하였다. 그 후 자손들이 그곳에서 세거하면서 문경(聞慶)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었다.
문경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신라 이전에는 고사갈이(高思葛伊)라 하였으며 신라 초기에 관문현(冠文縣)이라 하다가 경덕왕 때 관산현(冠山縣)이라 고쳤다. 고려 초기에 문희(聞喜)라 하고 현종조에 상주(尙州)에 편입시켰다가 후에 문경(聞慶)으로 고쳤으며 조선 태종 때 문경현이 되었고, 1895(고종 32) 군(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 유겸(惟謙) 아들 3형제 중 맏아들 현(玄)은 고려 말에 전서(典書)를 지내다 이성계가 우왕을 폐하고 창을 세우며 최영을 살해하자 이를 반대하다가 만주(滿洲)로 유배되었으며, 둘째 진(珍)은 학문에 진력하여 문명을 떨쳤으며 고려의 유민임을 자처하여 문달(聞達)을 바라지 않았고 후진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진(珍)의 손자(孫子) 중재(仲才)는 무예에 뛰어나고 절의(節義)가 비범했으며, 부사(府使) 이보흠(李甫欽)과 금성대군(錦城大君: 조선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 단종의 복위를 계획하는 데 가담하였다가 탄로되어 함께 화를 입었다.
그 밖에 참판을 지낸 문헌(文獻), 참의를 역임한 초독(初督)·취만(取萬),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을 지낸 방윤(邦潤)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경 전씨는 파주시에 총 1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 정씨(河南程氏)

정씨(程氏)의 선계는 원래 중국 황제의 후손 백부(伯符)에서 시작되며, 그의 45세손 원담(元潭)이 신안 정씨(新安程氏)로 분적하였고, 원담의 31세손 우(羽)는 하남 정씨(河南程氏)의 시조가 되었다. 우(羽)의 18세손 사조(思祖)는 노국공주가 입국할 때 공한림(孔翰林) 등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 충정왕조에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를 지냈고, 공민왕 때 추성보리공신(推誠輔理功臣)·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으로 한산군(韓山君)에 봉해졌으며, 식읍을 하사받았으므로 후손들은 사조(思祖)를 동래조(東來祖)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여 왔다.
하남(河南)은 중국 화북지구(華北地區)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북쪽은 하북(河北), 북동쪽은 산동(山東), 동쪽은 안휘(安徽), 남서쪽은 호북(湖北), 서쪽은 섬서((陝西), 북쪽은 산서(山西)의 각 성(省)과 접한다. 황하 중류 이남을 차지하며 북·서·남부는 산지로 쌓이고, 동방 평야에는 북에 황하, 남에 회하(淮河)가 흘러 수륙 교통이 편리하고 예로부터 한(漢)민족의 활동 중심지였기 때문에 중원(中原)이라고도 한다.
역사인물로는 억강(億綱)이 당대에 뛰어났다. 그는 학문과 기절이 뛰어난 선비로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충주(忠州)·달천(達川)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순절하였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춘한(春漢)은 선조(宣祖) 때 문과에 급제하여 풍천현감(豊川縣監)을 거쳐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올랐으며, 이복(履福)은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냈다. 또한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역임한 연성(連城)과 공조참판(工曹參判)을 지낸 진발(振發)과 진록(振祿)·부쾌(敷快) 등이 당대에 뛰어나 이름을 떨쳤으며, 대홍(大泓)·계홍(桂泓)·처근(處根) 등은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남 정씨는 파주시에 총 5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정씨(慶州鄭氏)

경주 정씨(慶州鄭氏)는 진한국(辰韓國) 사로(斯蘆)의 6촌(村) 중 취산진지촌장(嘴山診支村長) 지백호(智伯虎)를 시조로 받들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와 『동경지(東京誌)』에 의하면, 지백호(智伯虎)는 기원전 117년(한무제 원수 6) 경주 화산(慶州花山)에 강림(降臨)하여 부족국가이던 사로(斯盧)의 여섯 고을 중 취산진지촌을 다스리면서 신라건국에 모체(母體)를 이루었고, 서기 32년(신라 유리왕 9) 그의 현손 대에 와서 다른 다섯 촌장들과 함께 사성받을 때 본피부(本彼部)로 개칭되면서 정씨(鄭氏) 성을 하사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신라 법흥왕 때 문화(文和)로 시호를 받았고, 656년(태종무열왕 3)에 감문왕에 추봉되었다.

그 후 경주정씨는 시조의 후대로 내려오면서 문헌공파(文獻公派)·양경공파(良景公派)·월성위파(月城尉派)·평장공파(平章公派) 등 크게 4파로 갈라졌고, 지손(支孫) 계통에서는 30여 본(本)으로 본적(本籍)되었다.

경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기원전 57년 이곳에 6촌(村)이 연합하여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국호(國號)를 서라벌(徐羅伐)·사로(斯盧)·사라(斯羅)라 하였다. 65년(탈해왕 9) 시림(始林)에서 김씨(金氏)의 시조 김알지가 탄생하여 국호(國號)를 계림(鷄林)으로 고쳐 삼았다가 307년(기림왕 10)에 신라(新羅)로 하였다. 935년(태조 18)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등극한 후 처음으로 경주(慶州)라는 명칭이 생겼다. 987년(성종6) 동경(東京)으로 개칭하고 1008년(목종11) 별칭(別稱)으로 낙랑군(樂浪郡)이라 하다가 충렬왕 때 계림부(鷄林府)로 개칭하였고, 1413년(태종 13)에 와서 경주부(慶州府)로 개칭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변천을 거쳐 1895년 경주군(慶州郡), 1955년에는 경주시(慶州市)로 승격되었다.

역사인물로 문헌공파에서는 시조의 42세손 진후(診厚)가 고려 때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호부상서(戶部尙書)와 정당문학(政堂文學) 겸 판군기시윤(判軍器寺尹)을 지내고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고, 그의 증손으로 좌복야(左僕射)를 지낸 위(偉)의 아들 현영(玄英)은 호부상서와 수문전태학사(修文殿太學士)를 거쳐 벽상삼중대광으로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역임했다. 그 후 문헌(文獻)으로 시호(諡號)를 받았으므로 문헌공파의 파조(派祖)가 되었다.

정헌대부로 이부상서를 지내고 월성군(月城君)에 봉해졌던 종철(宗哲)의 둘째 아들 인조(仁祚)는 공양왕 때 길주목사(吉州牧使)와 병부시랑(兵部侍郎)을 역임한 맹장(孟將)으로 이성계와 함께 일본군 장군 아지(阿只)를 격퇴시켜 더욱 무명을 떨쳤다.

양경공파(良景公派)에서는 월성군(月城君)에 봉해졌던 휘(暉)의 아들 희계(熙啓)가 이성계를 도와 조선창업에 공을 세워 개국1등공신으로 계림군(鷄林君)에 봉해졌다.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 금실(金實)의 아들로 부마(駙馬)가 되어 월성위(月城尉)에 봉해졌던 이기(頤奇)의 후손에서는 선무원종2등공신(宣武原從二等功臣)에 올랐던 구(龜)의 아들 광업(光業)과 홍업(弘業) 형제가 유명했다.

그 밖에 대영(大英)이 임진왜란 때 사촌동생 대방(大方)과 더불어 화왕산성(火旺山城)을 지키는데 공을 세웠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주 정씨는 파주시에 총 2,89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경주 정씨는 시조 지백호(智伯虎)의 후손으로 경상도관찰사와 공조판서, 이조판서를 지낸 제안공(齊安公) 효상(孝常, 1432~1481)을 입향조(入鄕祖)(入鄕祖)로 하는 후손들로 금촌동 일대의 금촌문중과 교하문중이 있다. 경주정씨 문헌공파 제안공 종중의 회장은

인천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지성(址成) 이며 재무는 파주시 문화로에 거주하는 찬형(讚炯)이다. 매년 음력 10월 1일 파주시 학령로 41-16 선영에서 시제를 지낸다. 1972년 11월 제정된 종중 회칙이 있고 2000년 제안공 파보(派譜)를 간행하였으며 2019년 인터넷 족보를 개설하였다.

고성 정씨(固城鄭氏)

고성 정씨(固城鄭氏)의 시조(始祖)는 정가물(鄭可勿)이다.
그는 고려 때 사람으로 누대에 걸쳐 철성(鐵城)에 토착 세거한 호족의 후손이다. 후손들은 선조의 세거지인 고성(固城)에 살면서 본관을 고성(固城)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고성은 경상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소가야의 도읍이었는데 신라시대에 고자군(固自郡)으로 불리다가 고려 때 철성부(鐵城府)로 개칭되었으며, 조선 때 고성현(固城懸)이 되었고, 1895년(고종 32) 고성군(固城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가물(可勿)의 아들 몽송(夢松)이 동정(同正)을 역임했고, 후손 세웅(世雄)은 훈도(訓導)를 지냈다. 세웅(世雄)의 아들 4형제가 모두 관직에 올라 가문을 빛냈는데 그 중에서 장남 개청(介淸)이 뛰어났다. 개청(介淸)은 어려서 중이 되어 풍수설(風水說)을 배웠고 역학(易學)·율려(律呂) 등에 정통했으며 박 순(朴 淳)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또한 조선 선조 때 교정청(校正廳)의 낭관(郞官)을 거쳐 곡성현감(谷城縣監)을 지냈으며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 때 그와 교분이 두터웠던 탓에 경원(慶源)으로 유배 도중 죽었다.
그 밖에 참봉을 지낸 대청(大淸), 별좌(別坐)를 지낸 응청(應淸)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성 정씨는 파주시에 총 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 정씨(公山鄭氏)

공산 정씨(公山鄭氏)의 시조는 정응규(鄭應圭)이다.
그는 충숙왕 때의 인물인데, 증손 정비(鄭庇)가 조선개국공신으로 병조판서를 지내고 공산군(公山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공산(公山) 본관으로 삼았는데, 후에 공산(公山)이 공주(公州)로 변천됨에 따라 공주로 부르기도 한다. 또 호적에 공주와 공산 두 가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모두 응규(應圭)를 시조로 하는 동원이다.
공주는 충청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공주는 충청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백제의 옛 도성이었던 공주의 이름은 웅진(熊津)이었다가, 신라 신문왕(神文王) 때 웅천주(熊川州)로, 940년(고려 태조 23) 공주(公州)로 개칭하였다. 이후 변천을 하다가 현재의 공주시가 되었다. 공산은 공주의 옛 이름이다.
역사인물로는 비(庇)를 꼽을 수 있다. 그는 공민왕 때 밑직부사로 요동과 명나라에 사행(使行)하여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였고, 고려 말에 지문하사·양광도 안무사 등을 지내다가 이성계의 조선건국에 공을 세워 공산군에 봉해졌다. 그의 아들 간(幹)은 우군도총제·전라도 우군도절제사·경상도 좌우수군도절제사 등을 지냈다.
그 밖에 빈(濱)이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순절하고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대용(大用)은 일찍이 문과에 급제, 낙안군수를 거쳐 선전관을 지내고, 임진왜란 때 1등공신에 녹훈되었다. 치방(治邦)은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이 되고, 아우 태방(泰邦)은 숙종조에 보사원종공신이 되었다. 붕익(鵬翼)은 영조조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분무원종공신이 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산 정씨는 파주시에 총 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정씨(光州鄭氏)

광주 정씨(光州鄭氏)의 시조는 정신호(鄭臣扈)이다.
그는 충선왕과 충숙왕 대엑 걸쳐 상호군(上護軍)을 지내고 봉은사진전직(奉恩寺眞殿直)으로 삼중대광문하찬성사(三重大匡門下贊成事)에 추봉되었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일세조로 하고 본관을 광주(光州)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광주는 전라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무진주(武珍州)인데, 신라 경덕왕이 무주(武州)라 개칭하였다. 940년(고려 태조 23) 처음으로 광주(光州)라 개칭하였으며, 그 뒤 996년(성종 15)에 해양현(海陽縣)이라 이름했고, 1259년(고종 46)에 기주(冀州: 일명 冀陽州)라 했다가 1275년(충렬왕 1)에 다시 무주(武州)라 칭하였다. 변천을 거듭하다가 1895년(고종 32) 나주부(羅州付)에 속하는 광주군(光州郡)이 되었으며, 1896년 전라남도의 도청소재지가 되어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1949년 광주시(光州市)로 개칭되고,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 실시로 1987년 직할시(直轄市)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말에 무장으로 이름을 날린 세운(世雲)이 공민왕을 따라 연경(燕京)에 다녀와 일등공신으로 대호군(大護軍)이 되고, 이어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에 올라 홍건적의 침입에 왕을 호종하여 총병관(摠兵官)이 되었다. 귀진(龜晋)은 생원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성(大司成)에 이르렀다.
조선에서는 연산군 때 목사를 역임한 인인(麟仁)과 명종 때 형조참판과 관찰사(觀察使)를 지낸 만종(萬鐘)이 유명했다.
그 밖에 선조 때 문과(文科)에 올라 전적(典籍)을 거쳐 예조좌랑(禮曹佐郎)으로 『명종실록)』편찬에 참여한 이주(以周)가 이름났고, 사호(賜湖)는 선조 때 대사헌(大司憲)·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거쳐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역임하고 『선조실록)』편찬에 참여했다. 영조 때 화가로 이름난 선(歚)은 한국 산수화의 독자적인 특징을 살려 강한 농담(濃淡) 대조위에 청색(靑色)을 주조(主調)로 한 새로운 화풍(畵風)을 개척하여 심사정(沈師正)·조영석(趙榮祏)과 함께 삼재(三齋)로 일컬어졌다.
근대에 와서는 독립운동가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인 춘수(春洙)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규합하여 왜군과 싸운 용대(用大)가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정씨는 파주시에 총 18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성 정씨(錦城鄭氏)

금성 정씨(錦城鄭氏)의 시조는 정성(鄭盛)이다.
그는 1330년(고려 충숙왕 17) 문과에 급제하여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 오르고 금성군(錦城君)에 봉해져 금성으로 이거하였으므로, 하동 정씨에서 분관하여 본관을 금성(錦城)으로 해 세계를 이어왔다.
금성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발라군(發羅郡)을 경덕왕이 금성(錦城: 일명 금산)으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가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주(羅州)로 개칭하였다. 1011년(고려 현종 2) 거란의 2차 침입 때 현종이 이곳에 피난 갔다가 돌아와 목(牧)으로 승격되고 조선 세조 때 진(鎭)을 두었으며 1981년 7월에 영산읍과 나주읍을 통합하여 금성시(錦城市)로 승격되었다. 1986년 나주시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성(盛)의 아들 이(履)가 판군기시사(判軍器寺事)를 지내고 도첨의사(都僉議事)에 증직되었으며, 손자 지(地)는 문하평리(門下評理)가 되어 요동정벌(遼東征伐)에 안주도 도원수(安州道都元帥)로 출전했다가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을 도와 이등공신(二等功臣)에 책록되었다.
윤(倫)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증직되었고, 윤(倫)의 아들 충신(忠信)은 1623년(인조 1) 안주목사(安州牧使)로 방어사(防禦使)를 겸하고 이듬해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전부대장(前部大將)으로 출정하여 공을 세웠으며,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를 지냈다.
그 밖에 부호군(副護軍)을 지낸 우직(友直)·우현(友賢)·태석(泰石)·상로(相老),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낸 기홍(基鴻),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낸 재실(在實), 금부도사(禁府都事)를 역임한 광로(光老)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성 정씨는 파주시에 총 9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정씨(羅州鄭氏)

나주 정씨(羅州鄭氏)의 시조는 정해(鄭諧)이다.
그는 고려에서 벼슬을 지냈고 군기감(軍器監)에 추증되었는데, 후손들이 나주(羅州)에 정착 세거하면서 호족을 이루어 해(諧)를 일세조로 하고 본관을 나주(羅州)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나주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백제 때 발라(發羅)라고 불렸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는 금산(錦山)으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太祖)가 여기를 점령하고 나주(羅州)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해(諧)의 손자 송수(松壽)가 부사(副使)를 역임했고, 증손 가신(可臣)은 충렬왕 때 밀직학사(密直學士)로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원나라에 다녀왔으며, 정당문학(政堂文學) 등을 거쳐 벽상삼한삼중대광수사도(壁上三韓三重大匡守司徒)에 이르렀고 『천추금경록(千秋金鏡錄)』을 저술하였다.
조선에서는 문정공(文靖公) 가신(可臣)의 5세손 식(軾)이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함길도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로 야인정벌(野人征伐)에 공을 세워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그 밖에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낸 국(菊), 이조정랑(吏曹正郞)을 지낸 심(諶), 부사(府使)를 역임한 상(詳), 임진왜란 때 용맹을 떨쳐 별칭(別稱) 『비장군(飛將軍)』으로 일컬어진 여린(如麟),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올라 사정(司正)과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을 지낸 기수(麒壽), 수군방어사를 지낸 봉수(鳳壽),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된 응(鷹)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 정씨는 파주시에 총 31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나주 정씨 고암공파(顧庵公派)는 정윤희(丁胤禧)를 파시조(派始祖)로 하고 12대조 정시백(丁時栢)을 입향조(入鄕祖)로 하고 있다. 파주로의 입향은 17세기 후반 무렵이며 주요 인물로는 한글학자 정태진 등이 있다. 야동동 풀무골에 40호 가량 살고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보름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야동동 풀무골 은봉산이며 광탄면 영장리에 정태진 선생 묘가 있다.

동래 정씨(東萊鄭氏)

동래 정씨(東萊鄭氏)는 신라의 전신인 사로(斯盧)의 6부촌장(六部村長)으로 정씨(鄭氏)의 성을 하사받았던 취산진지촌장(鵄山珍支村長) 지백호(智白虎)의 원손(遠孫) 정회문(鄭繪文)을 시조로 받들고 고려 초에 보윤(甫尹)을 지낸 정지원(鄭之遠)을 일세조로 하며 누대에 걸쳐 정착 세거해 온 동래(東萊)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동래는 부산광역시와 경남 양산시의 일부 지역을 차지했던 지역이다. 본래 장산국(萇山國: 혹은 萊山國)인데 신라 때 점령하여 거칠산군(居漆山郡)으로 고치고 경덕왕 때 동래군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현종 때 울주(蔚州: 울산)에 편입시켰다가 1547년(명종 2) 부(府)로 승격시키고 1895년(고종 32) 관찰부(觀察府)를 설치 1896년 부윤(府尹)으로 삼았으며 1903년 군으로 고쳤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부산부에 예속되고 부산부에 속하지 않는 일부구역과 기장군(機張郡) 일원을 병합하여 동래군을 이루었다. 그 후 대부분이 부산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양산군에 편입됨으로써 동래군의 행정구역 명칭은 소멸되었는데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대부분은 동래구에 속해 있다.

역사인물로는 좌복야 목(穆)의 셋째 아들 택(澤)이 고려 때 찬성사(贊成事)를 지내고 문장(文章)과 재능(才能)으로 명망을 떨쳤으며, 그의 아우 항(沆)은 숙종 때 등과하여 우사간(右司諫)을 거쳐 양광도(楊廣道)와 충청도(忠淸道)의 안찰사(按察使)를 역임한 후 인종(仁宗) 때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예부상서(禮部尙書)·한림학사(翰林學士) 등을 지냈다.

인종비(仁宗妃) 공예대후(恭睿大后) 동생의 남편으로 문명(文名)을 떨쳤던 서(叙)는 의종 때 폐신(嬖臣)들의 참소로 동래(東萊)에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정자(亭子)를 짓고 오이를 심어 과정(瓜亭)이라 당호(堂號)를 삼고 연군(戀君)의 정(情)을 가요(歌謠)로 읊은 '정과정곡(鄭瓜亭曲)'을 지어 우리나라 국문학사(國文學史)에 빛나는 업적(業績)을 남겼다.

세종 때 독격골(獨擊鶻)로 조정이 두려워하였던 갑손(甲孫)은 대사헌이 되어 대강(臺綱)을 바로잡아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와 예조판서(禮曹判書)·좌·우참찬(左·右參贊)을 지내고 중종 때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었다. 갑손(甲孫)의 아우 창손(昌孫)은 세종 때 부제학으로 춘추관(春秋舘)의 수찬관(修撰官)을 겸하여 『고려사(高麗史)』와 『세종실록(世宗實錄)』『치평요람(治平要覽)』 등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세조(世祖)때 영의정에 올랐다.

직제학(直提學) 사(賜)의 아들이 성종조의 명신 난종(蘭宗)이다. 난종의 아들이 중종조의 명상 광필(光弼)이다. 광필(光弼)의 손자 유길(維吉)은 중종(中宗) 때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뽑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으며 대사헌(大司憲)과 이조판서(吏曹判書)대제학(大提學)을 거쳐 선조 때 좌의정에 이르렀다.

창연(昌衍)의 아들로 '삼세호당(三世湖堂)'이라 우러름을 받았던 광성(廣城)과 광경(廣敬)은 형조판서(刑曹判書)와 대사헌(大司憲)을 역임했으며, 광성(廣城)의 아들 태화(太和)는 효종(孝宗)과 현종조에서 영의정을 지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래 정씨는 파주시에 총 2,80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동래 정씨 직제학공파는 신라의 안일호장(安逸戶長) 회문(繪文)을 시조로 하며 주요 인물로는 훈구파(勳舊派)의 중진으로 이조판서 등을 지냈으며 서예에 일가를 이룬 허백당(虛白堂) 난종(蘭宗, 1433~1489), 그 아들로 영의정을 지낸 광필(光弼, 1462~1538) 등이 있다. 현재 금촌동과 아동동, 운정동 등에 살고 있다.

봉화 정씨(奉化鄭氏)

봉화 정씨(奉化鄭氏)의 시조는 정공미(鄭公美)이다.
그는 고려 성종 때 봉화호장(奉化戶長)을 역임하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본관을 봉화(奉化)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봉화는 경상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고사마현(古斯馬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옥마현(玉馬縣)으로 고쳤으며, 고려 경종 때에 봉화(奉化)라 하고 1018년(현종 9) 안동(安東)에 속했다가, 1390년(공양왕 2) 다시 설치하였으며 조선 초에 현(縣)으로 삼았다. 1895년(고종 32) 봉화군(奉化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운경(云敬)은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하고 전교교감(典校校勘) 등을 지낸 후 충혜왕 때 지밀성사(知密城事)를 지냈고, 공민왕 때 전주목사(全州牧使)·지형부사(知刑部事)를 거쳐 검교밀직제학(檢校密直提學)에 이르렀다. 도전(道傳)은 운경(云敬)의 아들로 조선개국에 공을 세워 개국일등공신으로 영의정에 올라 새 왕조를 세우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왕자들 사이에 벌어진 정권 쟁탈전에 휘말려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1394년(태조 4) 정총(鄭摠) 등과 『고려사(高麗史)』를 찬진했고 글씨와 문장에 뛰어나 태조(太祖)의 공덕(功德)을 찬양한 『문덕곡(文德曲)』·『신도가(新都歌)』·『몽금척(夢金尺)』 등 많은 유집(遺集)을 남겼다.
도전(道傳)의 아들 진(津)은 사재령(司宰令)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라 판나주목사(判羅州牧使)로 기용되어 인령부윤(仁寧府尹)이 되었고 1420년(세종 2)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평안도도관찰사(平安道都觀察使)를 역임하였으며 세종(世宗) 때 공조(工曹) 및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지냈다. 담(澹)은 도존(道存)의 아들로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를 지냈으며, 담(澹)의 아들 간(柬)은 대호군(大護軍)을 역임하였다. 도전(道傳)의 증손(曾孫)인 우의정(右議政) 문형(文炯)은 세조(世祖) 때 좌익원종일등공신(佐翼原從一等功臣)에 올라 예조정랑(禮曹正郎)을 지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봉화 정씨는 파주시에 총 19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 정씨(瑞山鄭氏)

서산 정씨(瑞山鄭氏)의 시조는 송(宋)나라에서 원외랑(員外郞)을 지낸 정신보(鄭臣保)이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원래 중국 절강(浙江) 사람으로 증조부인 응충(應冲)이 송나라에서 판장작감사(判將作監事)를, 아버지인 수거(秀琚)는 원외랑(員外郞)을 지냈다 한다. 송나라가 망하자 신보(臣保)가 바다를 건너 고려로 망명하여 서산(瑞山)에 정착 세거하게 된 것이 서산 정씨의 시초이다. 신보(臣保)의 아들 인경(仁卿)은 충렬왕 때 대장군(大將軍)·상장군(上將軍)·서경유수(西京留守)·첨의중찬(僉議中贊) 등을 지내며 나라에 공을 세워 1274년(원종 15) 이등공신)에 올랐으며, 그의 고향인 부성현(富城縣)이 서주군(瑞州郡)으로 승격되었으므로 후손들은 시조의 정착 세거지인 서산(瑞山)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서산은 충청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기군(基郡)인데 통일신라 때 부성군(富城郡)이라 하였으며 1284년(충렬왕 10)에 서산군으로 개칭하였다. 1308년 다시 서주목(瑞州牧)으로 승격하고 1310년(충선왕 2) 서령부(瑞寧府)가 되었다가 1413년(태종 13)에 서산(瑞山)으로 복명하고 군(郡)이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쳐 1913년 태안(泰安)·해미(海美)를 서산에 통합하여 서산군으로 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인경(仁卿)의 아들 4형제가 모두 관직에 올라 크게 현달하였는데, 그중 장남 신유(信柔)가 상서(尙書)를 지냈고, 차남 신화(信和)는 중랑장(中郞將)을 역임하여 전의령(典醫令)을 역임한 동생 신영(信英)과 함께 가문을 중흥시켰다.

조선에서는 인경(仁卿)의 8세손 희(僖)가 점필재 김종직에게서 글을 배워 연산군 때 과거에 급제하여 현감(縣監)을 지냈으며, 그의 증손 인홍(仁弘)은 남명 조식(曺植)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여 항전하였는데, 서애 류성룡(柳成龍)이 실각되자 정권을 장악하여 대사헌(大司憲), 우·좌의정(右·左議政)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그 밖에 군자감(軍資監)을 역임한 근승(瑾昇), 판관(判官)을 지낸 사용(士鎔), 중추부사(中樞府事)를 역임한 의열(義烈)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산 정씨는 파주시에 총 12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성 정씨(野城鄭氏)

야성 정씨(野城鄭氏)의 시조는 정가후(鄭可侯)이다.
고려 희종(熙宗) 때 대사도(大司徒)를 역임했는데, 문헌에 의하면 그는 고려가 일본을 정벌할 때 공을 세워 야성군(野城君)에 봉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야성(野城)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야성은 경상북도 영덕(盈德)의 옛 지명이다. 본래 고구려 시야물군(尸也物郡)인데 신라 때 야성군(野城郡)으로 고쳤고, 고려 초에 영덕(盈德)으로 개칭하였으며 현종 때 예주(禮州)에 속하였다가, 후에 다시 분리시켜서 현령을 두었다. 1515년(태종 15) 지현사(知縣事)를 두었다가 후에 다시 현령(縣令)이 되었고 1895년(고종 32)에 군(郡)으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가후(可侯)의 손자 언국(彦國)이 고려에서 교위(校尉)를 지냈고, 현손 자피(自皮)가 중랑장(中郎將)을 역임하여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야성백(野城伯)에 봉해진 아들 송(松)과 함께 고려에서 가문을 빛냈다.
조선에서는 낭장(郎將) 태진(台璡)과 함께 현감(縣監) 득화(得和)가 유명했고, 담(湛)은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도호부판관(都護府判官)·청주목사(淸州牧使)·김제군수(金堤郡守) 등을 지내고 왜군과 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성 정씨는 파주시에 총 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일 정씨(迎日鄭氏)

연일 정씨(迎日鄭氏)라고도 하는 영일 정씨(迎日鄭氏)는 신라의 전신인 사로(斯盧)의 육부촌 중 취산진지촌장 지백호(智伯虎)가 서기 32년(신라 유리왕 9) 봄 유리왕(儒理王)으로부터 다른 다섯 촌장들과 함께 사성받을 때 본피부(本彼部)로 개칭되면서 정씨(鄭氏) 성을 하사받은 것이 시초가 되며, 그의 원손(遠孫) 종은(宗殷)이 신라조에서 간관(諫官)으로 직언을 하다가 인동(仁同) 약목현(若木縣)에 유배된 후 후손 의경(宜卿)이 영일(迎日)로 이거하여 호장(戶長)을 지내고 영일현백(迎日縣伯)에 봉해졌으므로, 영일 정씨(迎日鄭氏)로 시적(始籍)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의 계대가 실전되고 소목을 고증할 문헌이 전하지 않아 고려 예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인종조에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를 지낸 정습명(鄭襲明)을 시조로 받드는 지주사공파(知奏事公派)와 감무를 역임한 정극유(鄭克儒)를 시조로 받드는 감무공파(監務公派)로 갈라져서 세계를 잇고 있다.

영일은 경상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신라의 근오지현(斤烏支縣 또는 烏良友顯)인데 경덕왕이 임정(臨汀)으로 고쳐서 의창군(義昌郡: 흥해)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가 고려 초에 연일(延日)로 고쳐서 현종 때 경주에 속하게 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변천을 거치고 1913년에 지방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이웃 흥해군(興海郡)·청하군(淸河郡)·장기군(長鬐郡)을 병합하여 영일군(迎日郡)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 지주사공파에서는 습명(襲明)의 11세손 몽주(夢周)가 뛰어났다. 동방이학(東方理學)의 조종(祖宗)이며 반만년 한국사를 대표하는 충신으로 일컬어지는 포은 몽주(夢周)는 1360년(공민왕 9)에 연달아 삼장(三場: 초장·중장·종장)에 장원으로 급제했던 몽주는 이듬해에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라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한 후 순충윤도동덕좌명공신(純忠倫道同德佐命功臣)으로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에 올라 익양군(益陽君) 충의백(忠義伯)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성계가 개국위왕(開國爲王)의 뜻을 품게 되자 이에 단연히 결별하여 그의 마지막 일편단충(一片丹忠)까지도 고려를 위해 바치었다. 몽주의 아들 종성(宗誠)이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지냈으며 손자 보(保)가 사육신 사건에 연루된 '8현(八賢)'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영일 정씨의 절맥(節脈)을 이었다.

세아(世雅)는 임진왜란 때 아들 의번(宜藩)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영천(永川)의 적을 격퇴시킨 후 황산도찰방(黃山道察訪)을 사직하고 장현광(張顯光)·조호익(曺好益) 등과 더불어 학문을 토론하며 후진 양성에 진력했으며, 그의 아들 의번(宜藩)은 경주(慶州)에서 적과 대전하다가 적에게 포위당해 위기에 빠진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 혈전 중 장렬하게 전사하여 영조) 때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감무공파에서는 극유의 6세손 사도(思道)가 1336년(충숙왕 복위 5) 문과에 급제하여 직제학(直提學)을 역임했고 우왕 때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와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낸 후 오천군(烏川君)에 봉해졌으며 손자 진(鎭)이 조선 때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역임한 후 오천부원군(烏川府院君)에 추봉되었다.

가사문학(歌辭文學)의 대가로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한국시가의 쌍벽으로 일컬어졌던 송강(松江) 철(澈)은 유침의 막내아들이다. 1561년(명종 16) 26세 때 진사시(進士試)에 1등이 되었던 송강은 이듬해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자 명종이 방목(榜目)을 보고 어린 시절의 우정을 생각하여 기뻐하면서 "정철이 급제하였구나" 하고 따로 주찬(酒饌)을 내리어 축하연을 베풀어주었

다. 송강이 45세 때인 1580년(선조 13)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나가 금강산(金剛山)과 관동팔경(關東八景)을 답사하며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지었고 『훈민가(訓民歌)』를 지어 도민의 교화에 힘썼다. 1585년(선조 18) 치열한 당쟁으로 양사(兩司)로부터 논척을 받았던 송강은 조정을 물러 나와 한 때 고향에 머물러 있다가 이어 창평(昌平)으로 내려가 4년 동안 유유자적하는 전원생활을 하면서 시상을 가다듬어 『전후미인곡(前後美人曲)』과『성산별곡(星山別曲)』을 비롯한 수많은 가사(歌辭)와 단가(短歌)를 지었다.
영조) 때 '형제정승(兄弟政丞)'으로 유명했던 우량(羽良)과 휘량(翬良)이 명문의 전통을 이었고 『속대전(續大典)』 편찬에 참여했던 하언(夏彦)은 좌부승지(左副承旨)와 병조참의(兵曹參議)를 거쳐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으며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 어제(御製)의 편제(篇題)와 홍화문(弘化門)의 편액을 썼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일 정씨는 파주시에 총 48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영일 정씨 문청공파(文淸公派)는 강원도관찰사, 좌의정을 지낸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을 파시조(派始祖) 로 하는 후손으로 14세기에 파주로 입향 하였다. 주요 인물로는 고려말의 성리학자 정몽주(鄭夢周)를 비롯하여 병조판서를 지낸 정효전(鄭孝全), 대제학을 지낸 정홍명(鄭弘溟), 우의정을 지낸 정유성(鄭維城)과 정우량(鄭羽良), 의병장 정환직(鄭煥直) 등이 있다. 아동동과 맥금동, 금촌동, 운정동 등에 살고 있으며 매년 10월초에 아동동의 선영에서 시제를 지낸다. 종손은 정진용이다.
파주에 살고 있는 영일 정씨 겸제공파(謙齋公派) 탄현종중은 영일정씨 감무공파(監務公派) 시조(始祖) 종은(宗殷)의 11세손인 겸제(謙齋) 완(浣)을 파시조(派始祖) 로 하며 겸재공의 증손인 14세손인 사마공(司馬公) 속(涑, 1557~1634)을 입향조(入鄕祖)로 하여 탄현면 축현2리에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종원(宗員)은 모두 390명이다.
주요 인물로는 15세손으로 지평(持平)을 지낸 문택(文澤, 1580~1665) 등이 있다. 매년 음력 10월 1일에는 아동동 산 9-1 새말에서, 10월 2일에는 탄현면 법흥리에서, 10월 초4일 후 일요일에는 탄현면 축현리 산 46-2 선영에서 시제를 지낸다. 1982년 1월 제정된 종중규약이 있으며 2007년 탄현종중 가승(家乘)을 간행하였다. 탄현종중의 회장은 정태선이며 월롱면 덕은리 1036번지 상가 건물 등을 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다.
파주에 살고 있는 영일 정씨 사과공파(司果公派)는 성균관 진사를 지낸 엄(儼, 1762~1824)을 입향조(入鄕祖)로 하며 18세기초 용인에서 파주로 옮겨왔다. 금촌동과 맥금동, 운정동 등에 50호가 살고 있으며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 맥금동 감사골 선영에서 시제를 지낸다. 연일 정씨 사과공파 종친회 회칙이 있다. 영일 정씨 사과공파의 문중회장은 정의관, 총무는 정의석이다.
영일 정씨의 파주 관련 인물 사적으로는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정연(鄭淵, 1389~1444)묘가 경기도기념물 제13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영조의 딸과 혼인한 정치달(鄭致達, ?~1757), 세종때 숙정옹주와 혼인한 정효전(鄭孝全, ?~1453)등 부마들의 묘가 있다.

온양 정씨(溫陽鄭氏)

온양 정씨(溫陽鄭氏)의 시조는 고려에서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역임한 정보천(鄭普天)이다.
문헌에 의하면 고려 태조가 탕정(湯井: 온양의 고호)에 왔다가 고을 관리의 공을 가상히 여겨 누대가 토착 세거한 정씨 일가에게 향직(鄕職)인 호장(戶長)을 제수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온양(溫陽)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온양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탕정군(湯井郡)을 신라 문무왕이 주(州)로 승격시켜 총관(摠管)을 두었다가 후에 군(郡)으로 삼았으며 고려 초에 온수군(溫水郡)으로 고치고 현종 때 천안부(天安府)에 속하게 하였다. 1172년(명종 2) 현(顯)으로 강등되고 조선 태종 때 신창현(新昌縣)과 합하여 온창(溫昌)이라 하다가 다시 온수현(溫水縣)이라 하였으며 세종 때 온양군(溫陽郡)이 되었다. 1913년 아산군에 속한 온양면(溫陽面)이 된 후 지금의 온양읍에 이르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보천(普天)의 아들 작진(作珍)과 작정(作貞)이 함께 찬성사(贊成事)를 역임했고, 손자 존구(存玖)는 헌납(獻納)을, 증손 자준(自準)은 간의 대부(諫議大夫)를 지냈다. 찬성사(贊成事) 달존(達尊)의 아들 응휴(應休)는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하고 감찰어사(監察御史)를 역임하여 가문을 중흥시켰다.
조선에서는 판서(判書)를 역임한 백붕(白朋)과 탁(鐸)의 아들 순붕(順朋)이 유명했다. 순붕(順朋)은 연산군 때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공조·병조참판 등을 거쳐 중종 때 호조판서를 지낸 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고, 명종이 즉위하자 소윤(少尹)으로서 윤원형(尹元衡)·이기(李芑) 등과 함께 윤임(尹任) 등 대윤(大尹) 일파를 제거하는 데 크게 활약하여 보익일등공신(保翼一等功臣)으로 우찬성(右贊成) 겸 지경연사(知經筵事)에 승진하여 온양부원군(溫陽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우의정에 올랐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양 정씨는 파주시에 총 1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정씨(全州鄭氏)

전주 정씨(全州鄭氏)는 연일 정씨에서 분적한 계통(系統)이다. 문헌에 의하면 시조 정원흥(鄭元興)은 고려 예종 때 장례원(掌隷院)의 판결사(判決事)를 지내고 뒤에 전주(全州)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정착 세거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연일에서 분적하여 본관을 전주(全州)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전주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 완선(完山)·비사벌(比斯伐)·비자화(比自火) 등으로 불리다가 555년(진흥왕 16)에 완산주(完山州)로 하였다. 그 후 경덕왕 때 완(完)을 의역(意譯)하여 전주(全州)로 고쳤고, 공민왕(恭愍王) 때 다시 완산부(完山府)가 되었다. 조선에서 태조의 선조(先祖)가 살았던 고향이라고 하여 완산유수부(完山留守府)로 개칭하였다가 1403년(태종 3) 다시 전주부(全州府)가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광엽(光葉)이 도승지(都承旨)를 역임했고, 그의 맏아들 제홍(齊弘)은 정랑(正郞)을, 둘째 제운(齊云)은 찰방(察訪)을 지냈다.

그 밖에 원주(源周)와 지(芝)는 도승지(都承旨)를 지냈고, 충국(忠國)과 은소(恩蘇)는 첨절제사(僉節制使)를 각각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 정씨는 파주시에 총 2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 정씨(貞州鄭氏)

정주 정씨(貞州鄭氏)의 시조는 고려 현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낭장(郎將)에 이른 정문청(鄭文淸)이다.
정주는 경기도 풍덕(豊德)의 고구려 때 지명이다. 1018년(고려 현종 9) 개성군(開城郡)의 속현이 되었다가 1310년(충선왕 2) 해풍군(海豊郡)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군을 폐하고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에 속하였다가 다시 군이 되고, 1442년(세종 24) 덕수현(德水縣)과 합하여 풍덕군(豊德郡)으로 개칭되었으나 개성이 부(府)로 승격됨에 따라 개성군과 합하여 개풍군(開豊郡)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낭장(郎將)을 역임한 장(莊)과 태사(太師)를 역임한 준(準)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주 정씨는 파주시에 총 2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 정씨(晋州鄭氏)

예로부터 '진주8정(晋州八鄭)'으로 불렸던 진주 정씨(晋州鄭氏)는 동성동본(同姓同本)이면서도 세계를 달리하는 여러 계통으로 갈라져서 계대를 이어왔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를 비롯한 제문헌(諸文獻)에 진주 정씨는 12파(派)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한 소목은 밝힐 수 없고 현존하는 계파 중에서 비교적 널리 알려진 5파로 대별할 수 있다.

진주는 경상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거열성(居烈城)인데 신라 문무왕 때 신라의 영토가 되어 거열주(居烈州)라 하였고, 757년(경덕왕 16) 9주 5소경제의 실시와 함께 강주(康州)로 고쳤다가 뒤에 청주(菁州)로 개칭되었다. 고려초에 다시 강주로 환원하였고, 995년(성종 14)에 진주(晋州)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뒤 조선에 와서는 진양도호부(晋陽都護府)가 되기도 하였으나 진주목(晋州牧)으로서 서부 경남 일대를 관할하였다. 그 후 여러 변천을 거쳐 1949년에 진주시(晋州市)가 되었다.

역사인물로 첫째 고려통합삼한벽상공신(高麗統合三韓壁上功臣)으로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지낸 영절공(英節公) 정예(鄭藝)의 계통은, 그 후의 세계가 실전되어 문익공(文翼公) 정시양(鄭時陽)을 일세조로 받들고 있다.

시양(時陽)의 7세손 수(需)가 고려 충렬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판도좌랑(版圖佐郎)과 좌사간(左司諫)을 역임하고 진양부원군(晋陽府院君)에 봉해져서 가세(家勢)를 일으켰고, 그의 후손 을보(乙輔)는 1338년(충숙왕 7) 국자시(國子試)에 장원하여 정당문학(政堂文學)과 도감제조(都監提調)를 지내고 청천군(菁川君)에 봉해졌으며 공민왕 때 찬성사(贊成事)에 올랐다. 한편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찬성사(贊成事)를 역임했던 신중(臣重)의 아들 이오(以吾)는 조선 태종(太宗) 때의 명신(名臣)으로 찬성(贊成)과 대제학(大提學)을 역임했고, 그의 아들 4형제 중 장남 분(苯)이 단종조(端宗朝)의 상신(相臣)으로 유명했다.

1416년(태종 16)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했던 분(苯)은 세종과 문종조에 걸쳐 조정의 중신으로 많은 치적을 남겼고 병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으나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의 반대파로 몰려 사사되었다.

중종 때 15세로 향시에 올랐던 사현(思顯)은 판관(判官)을 지낸 기(璣)의 아들로서 명종 때 형·병조의 좌랑을 거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과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을 역임했으며, 충의공(忠毅公) 분(苯)의 6세손 천경(天卿)은 임진왜란 때 아우 원경(元卿)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전공을 세우고 임천군수(林川郡守)와 전의현감(全義縣監)을 지낸 후 병조참판으로 선무원종2등공신(宣武原從二等功臣)에 책록되었다.

둘째, 고려에서 호장을 지낸 정자우(鄭子友)의 후손에서는 그의 6세손 신열(臣烈)이 고려 현종 때 유일하게 천거되어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거친 후 병부상서(兵部尙書)에 올라 거란(契丹)의 침입을 격퇴시킨 공(功)으로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올라 진양부원군(晋陽府院君)에 봉해졌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판부사(判府事)가 되었던 천익(千益)은 당시의 난정을 개탄하여 벼슬에서 물러나서 향리로 돌아가 퇴헌정(退軒亭)을 짓고 자적하다가 사위인 문익점(文益漸)이 원(元)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왔으므로 이를 시배(始培)하여 '물레'와 '씨아'를 창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추증되었던 장(莊)을 파조로 하는 계통에서는 세종조의 명신인 척(陟)이 뛰어났다. 1414년(태종 14) 식년문과에 급제했던 척(陟)

은 교서관정자(校書舘正字)를 거쳐 봉상시주부(奉常寺主簿)와 감찰(監察)을 지내고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수문전제학(修文殿大提學)에 이르렀으며, 1463년(세조 9) 문양공 양성지(梁誠之)와 함께 『동국지도(東國地圖)』를 찬진했다.
넷째, 문하시중평장사(文下侍中平章事)로 진산부원군(晋山府院君)에 봉해졌던 정헌(鄭櫶)의 계통에서는 그의 손자 온(溫)이 청맹(靑盲)으로 유명했다. 고려의 국운이 기울어지자 대사간(大司諫)을 역임했던 온(溫)은 눈뜬장님을 가장하고 지리산 청학동에 숨어살았는데 조선이 개국한 후 태조)가 수차례 벼슬을 내려 불렀으나 끝까지 거절하고 매서운 절개를 지켰다.
온의 아우로 고려 말에 감찰어사(監察御使)를 지낸 택(澤)의 10세손 경세(經世)는 이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내며 성리학자인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과 함께 우리나라 예학(禮學)의 금자탑을 세웠다.
다섯째, 고려 때 첨정(僉正)을 지낸 정중공(鄭仲恭)을 파조로 하는 계통에서는 그의 15세손 기룡(起龍)이 1586년(선조 19) 무과에 급제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거창(居昌)과 금산(錦山) 싸움에서 무공을 세웠다. 그는 곤양수성장(昆陽守城將)이 되어 왜군의 호남 진출을 방어했으며 상주판관(尙州判官)으로 상주성(尙州城)을 탈환한 후 이어 성주(星州)·합천(陜川)·초계(草溪)·의령(宜寧)·고령(高靈) 등지의 여러 성(城)을 탈환하는 데 무명을 떨쳤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 정씨는 파주시에 총 1,48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진주 정씨의 파주 입향조(入鄕祖)는 충청도관찰사를 지낸 공대공(恭戴公) 정척(鄭陟) 1390~1475)이며 주요 인물로는 경기도관찰사를 지낸 백창(百昌, 1588~1635) 등이 있다. 아동동, 조리읍, 운정동 등지에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선영은 충남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이다.
파주에 살고 있는 진주 정씨 충장공파(忠莊公派)는 우의정을 지낸 충장공 정분(鄭苯, 1394~1454)을 파시조(派始祖)로 하며, 파주 입향조(入鄕祖)는 호조정랑 등을 지냈으며 수양대군(首陽大君)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황보 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와 그의 양아버지인 분(苯)을 죽이자 벼슬을 버리고 공주 동혈(銅峴)에 들어간 지산(之産, 1423~1469)이다. 조리읍 등지에 후손들이 살고 있다.

청산 정씨(靑山鄭氏)

청산은 충청북도 옥천군(沃川郡)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원래는 신라 굴산현(屈山縣)으로 경덕왕이 기산현(耆山縣)으로 고치고, 고려 초에 청산현으로 개칭해서 상주(尙州)에 속하게 하였다. 1414년(태종 14) 황간현(黃澗縣)과 합하여 황청현(黃靑縣)이라 하였으나, 후에 다시 분리해서 청산현으로 복구하였고, 1895년(고종 32) 청산군으로 승격하였다가 1914년 군을 폐하여 옥천군에 편입되었다.

청산 정씨(靑山鄭氏)의 시조는 정금강(鄭錦綱)이다.

그는 고려 말에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하였으며, 이성계를 도와 조선개국에 공을 세워 개국공신으로 좌의정에 올라 청산군(靑山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본관을 청산(靑山)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으나 선계가 실전되어 후손 운결(雲潔)을 일세조로 하여 계대하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운결(雲潔)이 가선대부(嘉善大夫)를 거쳐 사헌부대사헌으로 연산군의 실정을 직간하다가 종성부교수(鍾城府敎授)로 좌천되었으며 아들 희한(希漢)은 현감을 지냈다. 희한(希漢)의 아들인 필(弼)은 주부(主簿)를 지냈으며, 동생 익(翼)이 목사(牧使)를 역임했고, 익(翼)의 셋째 아들 여소(汝疏)는 통덕랑(通德郞)에 올랐다.

그 밖에 부사과(副司果)를 지낸 문우(文祐), 판관(判官)을 역임한 효성(孝誠),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한 종주(宗周), 호조정랑(戶曹正郞)을 지낸 봉상(鳳祥)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산 정씨는 파주시에 총 1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정씨(淸州鄭氏)

청주 정씨(淸州鄭氏)의 시조는 정극경(鄭克卿)이다.
그는 고려 의종 때 중랑장(中郎將)을 지냈고, 그의 6세손 책(𠂤+責)이 충숙왕 때 충주 목사(忠州牧使)를 역임하였고, 통헌대부(通憲大夫)·판선공사(判繕工事)로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이르러 청하군(淸河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본관을 청주(淸州)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청주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원래 마한 땅이었다가, 백제 때 상당현(上黨縣), 일명 낭비성(娘臂城)·낭자곡(娘子谷)으로도 불렸다. 685년(신라 신문왕 5) 서원소경(西原小京)을 두었고 757년(경덕왕 16)에 서원경(西原京)이 되었으며, 940년(태조 23)에 청주(淸州)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극경(克卿)의 손자 의(顗)가 고려 고종 때 대장군(大將軍)을 지냈으며, 그의 손자 해(瑎)는 판삼사사(判三司事)를 거쳐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에 올라 지공거(知貢擧)가 되었다. 책의 아들 오(頫)는 공민왕 때 공신(功臣)에 오르고 첨의평리(僉議評理)로 서원군(西原君)에 봉해져 충숙왕 때 좌사간을 지낸 동생 포(誧)와 함께 가문을 빛냈다. 추(樞)는 포(誧)의 아들로 우왕 때 좌대언(左代言)을 거쳐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올라 수성익조공신(輸誠翊祚功臣)에 책록되었고, 슬하의 다섯 아들 중 셋째 아들 탁(擢)이 조선개국일등공신(朝鮮開國一等功臣)으로 청성군(淸城君)에 봉해졌다.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 이충(以忠)의 아들인 대사헌(大司憲) 탁(擢)은 명종(明宗) 때 문과(文科)에 올라 선조 때 춘추관(春秋館)의 기주관(記注官)으로『명종실록(明宗實錄)』편찬에 참여하였고,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한 후 우찬성(右贊成)으로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외교적인 공적을 쌓았다. 천문·지리·상수(象數)·병법(兵法)에 이르기까지 정통했으며 1604년(선조 37) 호종공신삼등(扈從功臣三等)으로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졌고 봉조하(奉朝賀)에 이르렀다.
그 밖에 영의정에 추증된 곤수(崐壽), 대사헌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추증된 구(逑), 판결사(判決事)를 지낸 사신(士信), 전라도도사(全羅道都事)와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역임한 장(樟), 관찰사(觀察使)를 지낸 옥(玉)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 정씨는 파주시에 총 37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계 정씨(草溪鄭氏)

초계 정씨(草溪鄭氏)의 시조는 정배걸(鄭倍傑)이다.
고려 초에 학자로 이름난 배걸은 초계 성산(草溪城山) 출신으로 1017년(고려 현종 8) 장원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문종 때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이르렀으며, 사숙(私塾)을 열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쳐 '십이공도(十二公徒)'의 하나인 '홍문공도(弘文公徒)'를 이루어 유가(儒家)의 대가(大家)요, 백세(百世)의 존사(尊師)라 일컬어졌다. 홍문광학추성찬화공신(弘文廣學推誠贊化功臣)으로 개부의동삼사수태위문하시중상주국광유후(開府儀同三司守太尉門下侍中上柱國光儒侯)에 이르고 초계군(草溪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초계(草溪)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초계는 경상남도 합천군에 속해 있는 지명이다. 본래 신라의 초팔혜현(草八兮縣)인데, 경덕왕 때 팔계(八溪)로 고쳐서 강양군(江陽郡: 합천)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가 고려 때 초계(草溪)로 하였고 1018년(현종 9) 합주(陜州)에 속했다. 명종 때 감무를 두었으며 1316년(충숙왕 3) 지군사(知郡事)로 승격하였고, 1913년 합천군에 병합하여 지금은 합천군에 속한 초계면(草溪面)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배걸(倍傑)의 아들 문(文)이 고려 예종 때 형부상서(刑部尙書)를 거쳐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냈고 좌복야(左僕射)에 추증되었다. 특히 그는 형조(刑曹)에 있는 동안 명판관(名判官)으로 이름이 높았고, 문장(文章)에 능하여 문명(文名)을 날렸다.
조선에서는 진사(進士) 유명(惟明)의 아들인 온(蘊)이 성품이 곧고 절개가 높기로 이름났다. 그는 일찍이 정인홍(鄭仁弘)과 정구(鄭逑)의 문하에서 글을 읽고 광해군(光海君) 때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설서(說書)·사서(司書)·정언(正言) 등을 거쳐 부사직(副司直)에 올랐으나, 광해군의 비위에 거슬려 제주도(濟州島)에 10년 동안이나 귀양살이를 하며 『망북두시(望北斗詩)』·『망백운가(望白雲歌)』를 지어 애군우국(愛君憂國)의 뜻을 토로(吐露)했으며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그 밖에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정국삼등공신(靖國三等功臣)으로 부총관(副摠管)에 이른 윤겸(允謙), 검열(檢閱)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나가 육조(六曹)의 판서(判書)를 두루 역임하고 청백리에 녹선되었던 숙의 아들인 종영이 가문을 빛냈다. 선조와 인조 대의 명신 엽(曄)은 인조반정 후 대사성(大司成)에 올랐으며, 여직(汝稷)은 사도(四道)의 절도사(節度使)와 훈련대장(訓鍊大將)을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계 정씨는 파주시에 총 76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하 당하리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 내 윤원형의 첩이었던 초계 정씨 정난정의 묘가 있다.

하동 정씨(河東鄭氏)

하동 정씨(河東鄭氏)는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의하면 연원을 알 수 없는 여섯 계통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존하는 하동 정씨의 후손들은 본관을 같이하면서 계통을 달리하는 다음 세 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첫째 계통(系統)은 삼한(三韓)의 말기(末期)에 하동(河東)으로 이거(移居)하여 고려 초(高麗初)에 호장(戶長)을 거쳐 평장사(平章事)에 오른 정도정(鄭道正)을 시조(始祖)로 하고 그의 후손(後孫) 석숭(碩崇)을 일세조(一世祖)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온 계통이다.

둘째 계통은 고려 초에 하동지방(河東地方)의 민병(民兵)을 주관(主管)하던 사족(士族)의 후손으로 고려 덕종(德宗)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였고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도첨의좌정승(都僉議左政丞)·검교태자첨사(檢校太子詹事) 등을 지낸 정응(鄭膺)을 시조(始祖)로 하는 계통이다.

셋째 계통은 고려 숙종(肅宗)과 명종조(明宗朝)에 걸쳐 다섯 왕조에 벼슬을 지냈고 정헌대부(正憲大夫)·지예부사(知禮部事)·문하시중(門下侍中) 등을 역임한 후 하동백(河東伯)에 봉해진 정손위(鄭遜位)를 시조로 하는 계통이다.

하동은 경상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다사군(多沙郡)이었는데 경덕왕 때 하동(河東)으로 고쳤고 고려 현종(顯宗) 때 남해현(南海縣)을 병합하여 하남현(河南縣)이라 하다가 후에 분리하였다. 1703년(숙종 29) 치소를 진답면 두곡(豆谷)에 설치하고 1704년(숙종 30) 부로 승격, 1730년(영조 6) 치소를 나동(螺洞)으로 옮겼으며 1895 년(고종 32)에 군(郡)으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손위(遜位)의 아들 세유(世裕)가 고려 때 서북면 병마사(西北面兵馬使)를 거쳐 형부상서(刑部尙書)를 지냈고 세유(世裕)의 아들 숙첨(叔瞻)은 참지정사(參知政事)를 거쳐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했다. 참지정사(參知政事) 안(晏)은 평장사(平章事) 숙첨(叔瞻)의 아들로 일찌기 문과에 급제하여 진양(晋陽) 수령으로 나갔으나 부모의 봉양을 위해 사임 뒤에 외숙(外叔)인 최우(崔瑀)의 천거로 국자좨주(國子祭酒)가 되었다. 특히 그는 음양(陰陽)·산술(算術)·의약·음률 등에 정통했고 불교(佛敎)를 독신(篤信)하여 당시 간행 중인 『대장경(大藏經)』의 일부를 사재(私財)를 들여 간행하기도 하였으며, 후에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올랐다.

조선에서는 초(招)가 집의(執義) 희(熙)의 아들로 일찌기 당대의 명신 포은 정몽주(鄭夢周)의 문하에서 글을 배워 태종(太宗) 때 문과에 급제하여 좌정언(左正言)을 거쳐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에 이르렀다.

인지(麟趾)는 현감(縣監) 흥인(興仁)의 아들로 태종 때 식년문과와 문과중시에 각각 장원급제하고 예조·병조좌랑 등을 역임하였고, 뒤에 세종의 총애를 받아 집현전학사(集賢殿學士)와 직제학(直提學)을 지냈다. 계유정난 때 공을 세워 우의정에 올랐고 정난일등공신(靖難一等功臣)으로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에 봉해졌다. 특히 그는 조선(朝鮮)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천문(天文)·역법(曆法)·아악(雅樂) 등에 능통하여 많은 책을 편찬했으며, 김종서(金宗瑞) 등과 『고려사(高麗史)』를 찬수(撰修)하고 성삼문(成三問)·신숙주(申叔舟) 등과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에 공(功)을 세우는 한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지었다. 인지의 두 아들 또한 크게 현달하여 이름을 떨쳤는데 인지의 큰아들 현조(顯祖)가 세조(世祖)의 딸 의숙공주(懿淑公主)와 혼인하여 예종(睿宗) 때 익대공신(翊戴功臣), 성종(成宗) 때 좌리공신(佐理功臣)으로 하성부원군(河城府院君)에 봉해졌다. 둘째 아들 숭조(崇祖)는 음보(陰補)로 벼슬에 올라 공조(工曹) 및 이조

참판(吏曹參判)을 거쳐 성종(成宗) 때 좌리공신(佐理功臣)으로 하남군(河南君)에 봉해졌다.
형제 무장(武裝)으로 유명한 봉수(鳳壽)와 기수(麒壽)는 정묘호란 때 용골산성(龍骨山城)에서 반장(叛將) 장사준(張士俊)을 죽이고 적군을 섬멸하여 포로가 된 많은 백성들을 구출하여 당대에 이름을 떨쳤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동 정씨는 파주시에 총 1,82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하동 정씨 문성공파(文成公派)는 문성공 인지(麟趾)의 후손으로 영의정에 추증된 기문(起門, 1520~1571)을 입향조(入鄕祖)로 한다. 파주 입향 시기는 16세기 중반 무렵이다. 주요 인물로는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을 지낸 희적(熙績, 1541~?), 대사헌을 지낸 익정공(翼正公) 광적(光績, 1551~?) 등이 있다. 정기문의 묘소는 밥재마을 군부대 내에 있다.
적성 식현리 밥재마을에는 하동 정씨가 500여년 이상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으며 현재 40여호가 거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산읍, 금촌동, 운정동 등지에 50여호 가량이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15일 시제를 지내며 선영은 적성면 식현1리에 있다. 재실과 묘지 30만평 등을 종중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동정씨 문성공파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hadongjeong.com이다.

함평 정씨(咸平鄭氏)

함평 정씨(咸平鄭氏)의 시조는 정언겸(鄭彦謙)이다.
그는 고려 인종 때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역임하였다. 문헌에 의하면 언겸이 1126년(인종 4)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자 모평(牟平)에 은거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함평(咸平)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함평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함풍(咸豊)과 모평(牟平) 두 현(縣)의 합명(合名)이다. 함풍현(咸豊縣)은 본래 백제의 굴내현(屈乃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함풍현으로 고쳤고, 모평현(牟平縣)은 다지현(多只縣)을 다기현(多岐縣)으로 개칭하고 무안군(務安郡)에 이속되었다가 고려 태조 때 모평현(牟平縣)으로 하였다. 그후 1409년(태종 9) 함풍현과 모평현을 병합하여 함평(咸平)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언겸(彦謙)의 아들 형(炯)이 평장사(平章事)를 지냈고, 손자 현수(賢守)는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영풍부원군(永豊府院君)에 봉해졌다.
그 밖에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낸 신량(臣良),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역임한 공민(恭敏),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함성군(咸城君)에 봉군된 함(緘),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을룡(乙龍) 등이 있다. 조선에서는 호조전서를 지낸 지유(知遊), 사헌부지평을 역임한 구명(耉明)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평 정씨는 파주시에 총 1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주 정씨(海州鄭氏)

해주 정씨(海州鄭氏)의 시조는 정숙(鄭肅)이다.
그는 고려 신종(神宗) 때 전법정랑(典法正郞)을 지냈는데, 숙(肅)의 선계는 문헌이 실전되어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조상이 해주(海州) 수양산(首陽山) 밑에서 누대에 걸쳐 세거하던 사족이었으므로 후손들이 숙(肅)을 시조로 하고 그의 후손으로 소부소윤(小府少尹)을 지낸 언(琂)과 대장군(大將軍)을 역임한 초(初)를 각각 일세조로 하여 두 파로 세계를 이어왔다.
해주는 황해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 때 내미홀(內米忽)이라 하였는데, 신라 경덕왕이 폭지(瀑池)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가 해주(海州)로 개명하였다. 성종 때 와서는 별호(別號)로 대령(大寧)·서해(西海) 등으로 불렸고, 현종 때 해주안서도호부(海州安西都護府)를 두었다가 예종 때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승격되었다. 세종 때 진(鎭)을 설치하였고, 광해군 때 현(縣)으로 강등되었다가 1895년(고종 32) 부(府)가 되어 16군(郡)을 다스렸으며 1913년 군이 되었고 1938년 부(府)로 승격, 1940년 해주항이 개항장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방과 더불어 시(市)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언(琂)의 맡아들 윤규(允珪)가 정용낭장(精勇郞將)을 지냈으며, 차남 윤경(允卿)은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역임하여 당대에 뛰어났다.
조선에서는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낸 역(易)과 그의 아들 충경(忠敬)이 세종 때 형조참판(刑曹參判)과 호조판서(戶曹判書)를 거쳐 대제학(大提學)을 역임하여 가문을 빛냈고, 문종(文宗)의 딸인 경혜공주(敬惠公主)와 혼인하여 영양위(寧陽尉)에 봉해진 종(悰)은 단종(端宗) 때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왕의 깊은 신임을 받았으나 금성대군(錦城大君)과 가깝다고 하여 수양대군(首陽大君)일파에 의해 영월(寧越)에 유배되었다가 뒤에 죽음을 당했다. 그의 부인 경혜공주(敬惠公主)는 순천관비(順天官婢)가 되었다.
미수(眉壽)는 종(悰)의 아들로 연산군 때 우찬성(右贊成)으로 중종반정에 공(功)을 세워 정국삼등공신(靖國三等功臣)에 오르고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에 봉해졌다. 부사(府使) 연경(延慶)의 아들인 희량(希良)은 역(易)의 현손으로 연산군 초에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檢閱)을 거쳐 호당(湖堂)에 뽑힌 수재였다.
그 밖에 철견(鐵堅)의 아들 붕(鵬)과 도승지(都承旨)를 지내고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와 한성부좌윤 등을 역임한 언각(彦殼)이 이름을 날렸고, 문부(文孚)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대장(義兵大將)으로 활약하고 영흥부사(永興府使)를 거쳐 길주목사(吉州牧使)에 올랐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주 정씨는 파주시에 총 35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원 제씨(漆原諸氏)

제씨(諸氏)는 본래 제갈씨(諸葛氏)에서 분종(分宗)된 성씨로 전한다. 『칠원제씨세보(漆原諸氏世譜)』에 의하면 칠원 제씨(漆原諸氏)의 원조(遠祖)는 제갈영(諸葛嬰)으로 34세손 제갈홍(諸葛泓)과 제갈영(諸葛瀅) 형제 대(代)에서 복성(復姓)을 각각 한 자씩 나누어 쓰기로 하여 형인 홍(泓)은 제씨(諸氏)로 낭야군(瑯揶君)에 봉해졌으며, 아우인 영(瀅)은 갈씨(葛氏)로 남양군(南陽君)에 봉해져 제씨(諸氏)와 갈씨(葛氏)로 분종(分宗)되었다. 그 후 낭야군 홍(泓)의 9세손 제문유(諸文儒)가 고려 충선왕이 토번(吐蕃)으로 유배될 때 호종한 공으로 벽상일등공신(壁上一等功臣)에 책록되어 평장사(平章事)에 올랐고 구산부원군(龜山府院君)에 봉해 졌으므로 본관을 칠원(漆原)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칠원(漆原)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위치했던 지역이다. 본래 신라 칠토현(漆吐縣)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칠제(漆隄)로 고쳐서 의안군(義安郡: 지금의 창원)에 예속시켰으며, 고려 초에 칠원(漆原)으로 고쳤고 1018(헌종 9) 김해에 속하게 하였다. 조선 선조 때 창원에 속하였다가 광해군 때 현(縣)이 되었고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하였으며, 후에 함안군(咸安郡)에 병합되었다.

역사인물로 홍록(弘祿)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전공을 세워 성주목사(星州牧使)에 임명되었으며 정조 때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낙(洛)은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배둔역(背屯驛)에서 대파한 공으로 참봉을 지냈고 한성부서윤(漢城付庶尹)에 추증되어 이름을 날렸다.

그 밖에 선략장군(宣畧將軍)에 오른 여원(汝元), 인조 때의 학자 경창(慶昌), 호조참의 달룡(達龍), 감찰(監察) 정로(珽魯), 방어사(防禦使) 경욱(景彧)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칠원 제씨는 파주시에 총 7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 제갈씨(南陽諸葛氏)

제갈씨(諸葛氏)는 중국에서 계출된 성씨(姓氏)로 『남양제갈씨세보(南陽諸葛氏世譜)』에 의하면 시조 제갈규(諸葛珪)는 『삼국지(三國志)』에 등장하는 제갈량(諸葛亮)의 아버지라 한다. 우리나라 제갈씨는 신라(新羅) 흥덕왕(興德王) 때 제갈규(諸葛珪)의 20대손으로 제갈공순(諸葛公巡)이 우리나라에 건너온 것이 시초가 된다. 고려 고종 대에 와서 후손 제갈홍(諸葛泓)·제갈형(諸葛瀅) 두 형제가 복성(復姓)을 서로 한 자씩 나누어 쓰기로 하여 형 홍(泓)은 제씨(諸氏)로, 아우 형(瀅)은 갈씨(葛氏)로 분종(分宗)하였다.

그 후 구한말(舊韓末)에 이르러 성씨환원운동(姓氏還元運動)이 일어나자 일부가 제갈씨(諸葛氏)로 복성(復姓)했다고 한다.

남양은 지금의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군 일원을 포함한 지역의 옛 지명이다. 고구려 때 당성군(唐城郡)을 신라 경덕왕이 당은군(唐恩)으로 개칭하였다가 고려 초에 다시 당성군으로 고쳤고, 1018년(현종 9) 수주(水州: 수원)와 인주(仁州: 인천)에 편입되기도 했으나 1310년 (충선왕2)에 남양부(南陽府)가 되었다. 조선 말기에 남양군이 되어 인천부(仁川府) 관할이 되었다가 1913년 군을 폐하고 그 땅을 나누어 영흥면·대부면은 부평군(富平郡)에 편입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수원군(水原郡)에 합하였다. 그 후 수원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었으며, 후에 수원읍 이외의 땅은 화성군(華城郡)으로 수원읍은 수원시(水原市)로 승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은(殷)이 고려에서 시랑(侍郎)을 지냈고, 훤(萱)이 상장군(上場軍)을 역임했으며, 의병장(義兵將) 윤신(允信)은 한말에 연기우(延基羽)의 부장(副將)이 되어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철원(鐵原)·평강(平康) 등지에서 일본군과 접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 제갈씨는 파주시에 총 3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녕 조씨(昌寧曺氏)

창녕 조씨(昌寧曺氏)의 시조는 조계룡(曺繼龍)이다.
그는 신라 진평왕의 사위로 전한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는 한림학사(翰林學士) 이광옥(李光玉)의 딸 예향(禮香)이며, 그의 출생과 이름이 계룡이 된 절설이 전한다. 계룡(繼龍)은 자라서 진평왕(眞平王)의 부마도위(駙馬都尉)가 되었고, 벼슬은 태사(太師)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본관을 창녕(昌寧)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으나 문헌의 실전으로 계룡의 후손 겸(謙)을 일세조로 하여 계대하고 있다.
겸(謙)은 신라 말에 아간시중(阿干侍中)을 지낸 흠(欽)의 아들로 고려 태조 딸 덕공공주(德恭公主)와 혼인하고 대악서승(大樂署丞)을 지냈다. 『창녕조씨가첩(昌寧曺氏家牒)』에 의하면 겸(謙)의 손자(孫子)인 연우(延祐)로부터 10세손 자기(自奇)에 이르기까지 8대에 걸쳐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배출하여 가문(家門)의 번성을 누린 것으로 전(傳)한다.
창녕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비자화군(比自火郡)·비사벌(比斯伐)인데 555년(진흥왕 16) 하주(下州)라 칭하고 신라 경덕왕 때는 화왕군(火王郡)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태조 때 창녕으로 고치고 1018년(현종 9) 밀성군)에 귀속되었다가 인조조에 현(縣)으로 복귀,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었으며 1914년 영산군(靈山郡)의 일부를 병합하였다.
역사인물로 고려 말에 와서 크게 이름을 떨친 민수(敏修)는 공민왕 때 순주부사(順州府使)로 여러 장군과 함께 홍건적(紅巾賊)을 물리치고 이등공신(二等功臣)에 올라 우왕(禑王) 초 경상도도순문사(慶尙道都巡問使)로 왜구를 물리쳐 문하평리(門下評理)에 이어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역임하고 창성부원군(昌城府院君)에 봉해졌다. 또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창왕을 세우는데 공(功)을 세워 충근양절선위동덕안사공신(忠勤亮節宣威同德安社功臣)이 되었다.
조선에서는 관찰사를 지낸 항(沆)의 아들 석문(錫文)이 유명하였는데, 1434년(세종 16)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여 이조(吏曹)·형조(刑曹)·예조(禮曹)의 정랑(正郞)을 지냈고, 세조(世祖) 즉위에 공(功)을 세워 좌익삼등공신(佐翼三等功臣)으로 도승지(都承旨)에 올라 창녕군(昌寧君)에 봉해졌다. 1467년(세조 13) 이시애의 난 때는 난의 평정에 공을 세우고 적개일등공신(敵愾一等功臣)이 되어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석학(碩學) 식(植)은 판교(判校) 언형(彦亨)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학문 연구에 열중하여 당대 유학계(儒學界) 대학자(大學者)로 추앙되었으며, 뛰어난 학행(學行)으로 여러번 벼슬에 천거(薦擧)되었으나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고 오로지 성리학(性理學)연구와 후진 양성에만 진력하여 문하(門下)에서 김효원(金孝元)·김우옹(金宇顒)·정인홍(鄭仁弘) 등 저명한 학자(學者)들을 숱하게 배출했다.
그 밖에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에 오른 명교(命敎), 초서(草書)·예서(隸書)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은 풀·돌·대나무를 잘 그려 많은 작품을 남긴 윤형(允亨), 연산군 때 대사헌(大司憲)을 지낸 숙기(叔沂), 중종(中宗) 때의 반정공신에 오른 계형(繼衡), 인조 때 우부승지(右副承旨)를 지냈고, 시(詩)·서(書)·화(畵)에 능하여 삼절(三絶)로 일컬어진 우인(友人) 등이 있다.
근대에 와서는 만식(晩植)이 민족독립운동가로 조선일보사장을 역임하여 민족 언론 창달에 공헌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녕 조씨는 파주시에 총 3,03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창녕 조씨는 13세 송무의 6세손 원봉(元鳳), 7세손 지경(智敬)으로 세대를

있는 지중추공파와 월롱면 영태3리에 묘역을 조성한 시정공파(寺正公派)가 13세 송무(松茂), 14세 준(俊), 15세 인취(仁取), 16세 원단(元旦), 17세 두문(斗文), 18세 천부(天符), 19세 경(庚)으로 세계를 이어 왔으며 병사공파가 송무의 11세 광원(光遠), 12세 대곤(大坤)으로 세계를 이어 왔다. 조광원 사패지의 일부를 받아 묘역을 월롱면에 형성하면서 집성촌의 기반을 마련 하였다. 19세기부터 영태리와 도내리에 촌락을 이루며 후손들의 거주가 이루어졌다.
파주의 또 다른 창녕 조씨 집성촌은 탄현면 금산1, 2리로 전남 곡성군에서 흥원(興遠, 1600년생)이 17세기 초반에 올라와 뿌리를 내렸다. 금산1,2리 마을에는 예전에 60여 가구가 살았는데 당시 마을주민의 80%가 창녕 조씨였다. 현재도 36가구가 살고 있다. 금산2리 마을회관 옆에는 창녕 조씨 기념비단이 세워져 있다.

김제 조씨(金堤趙氏)

김제 조씨(金堤趙氏)의 시조는 조연벽(趙連璧)이다.
그는 고려 고종 때 상장군을 지냈다. 문헌(文獻)에 의하면 연벽(連璧)은 1231년(고려 고종 18) 몽골의 살리타이(撒禮塔)가 침략했을 때 대장군(大將軍)에 임명되어 부장(副將) 김윤후(金允侯)와 함께 처인성(處仁城: 현 경기도 용인)에서 몽골군을 소탕한 공으로 상장군(上將軍)에 올라 벽성군(碧城君, 벽성은 김제의 옛 이름)에 봉해지고 좌정승(左政丞)에 추증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연벽(連璧)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김제(金堤)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김제는 전라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벽골군(碧骨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김제군(金提郡)으로 고쳤으며 고려 초에는 전주(全州)의 속현(屬縣)이 되었다가 1403년(태종 3) 군(郡)으로 승격하였다. 1914년 만경군(萬頃郡)과 금구군(金溝郡)을 병합(倂合)하였다.
역사인물로 연벽의 맏아들 기(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무장(武將)으로 벼슬이 대호군(大護軍)에 이르는 동안 수차에 걸친 몽골군의 침략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웠다. 차남 서(瑞)는 좌승지(左承旨)를 지냈다. 충렬왕 때 문신(文臣)으로 이름난 간(簡)은 연벽의 셋째 아들로 어려서부터 시문(詩文)에 뛰어나 1279년(충렬왕 5)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며 형조시랑(刑曹侍郎),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를 지냈다.
조선에서는 단종 때 금군별장(禁軍別將)을 지낸 수량(遂良)이 유명했다. 그는 단종이 수양대군(首陽大君)에 의해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되어 영월(寧越)로 유배될 때 함께 가서 그곳에서 순절(殉節)한 절신이며, 그의 동생 우량(友良)은 세종 때 흥해군수(興海郡守)를 역임하였다.
그 밖에 필달(必達)은 포도대장(捕盜大將), 양주목사(楊州牧使), 훈련원도정(訓鍊院都正) 등을 역임하였고, 광해군(光海君) 때 공신(功臣) 시준(時俊)은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풍성군(豊城君)에 추봉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제 조씨는 파주시에 총 1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 조씨(密陽趙氏)

밀양 조씨(密陽趙氏)의 시조는 문과에 급제한 조홍사(趙洪祀)이다.
밀양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변한의 일부로 가락국에 속하였으며, 법흥왕 때 신라에 병합되어 추화군(推火郡)이 되었다가 757년(경덕왕 16) 밀성군(密城郡)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에 와서는 995년(성종 16)에 밀주(密州)로 하였고 1390년(공양왕 2) 밀양부로 승격, 그 후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듭하다가 1895년 밀양군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영조 때 문과에 급제한 언혁(彦爀)과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한 석갑(錫甲)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양 조씨는 파주시에 총 1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천 조씨(白川趙氏)

배천 조씨(白川趙氏)의 시조는 조지린(趙之遴)이다.
그는 중국 송나라 태조(太祖: 조광윤)의 맏아들인 덕소(德昭)의 아들인데, 979년 난을 피하여 바다를 건너 은천현(銀川縣) 도태리(都台里: 황해도 배천)에 정착 세거하면서 시원을 이루게 되었다. 그는 고려 현종조에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좌복야(左僕射),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렀고, 그의 아들 양유(良裕)가 덕종과 정종조에 걸쳐 판위시승(判衛寺承)을 지내고 추의찬화익조공신(推義贊化翊祚功臣)으로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오르고 배천군(白川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배천(白川)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世界)를 이어왔다.
배천은 황해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도랍현(刀臘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구택(雊澤)으로 고쳐 해고군 영현으로 삼았고 고려 초에 배주(白州)로 고쳤으며 현종 때 평주(平州)에 속했다가 의종 때 다시 배주(白州)로 하여 해주(海州)에 속하게 하였다. 고종 때 복흥군(復興郡)으로 승격되었으나 공민왕 때 배주(白州)라 고쳤고 1413년(태종 13)에 배천군으로 개칭되어 경기도로부터 황해도로 옮겼고, 1526년(중종 21)에는 현(縣)으로 강등시켰다.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하였고, 1914년 연안(延安)에 병합되어 연백군(延白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양유(良裕)의 아들 선정(先正)이 1047년(고려 문종 원년)에 과거에 올라 벼슬이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 문하시중(門下侍中), 태자태사(太子太師)에 이르렀다. 대제학(大提學)을 역임한 옥(玉)의 아들 문주(文胄)는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지내고 고종(高宗) 때 위사공신(緯社功臣)으로 은천군(銀川君)에 봉해져서 아들 오(璈), 진(珍) 형제와 함께 가문을 중흥시켰다.
조선에서는 '임란사충신(壬亂四忠臣)'의 한 사람인 헌(憲)이 이름을 날렸는데, 그는 응지(應祉)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하에서 글을 배워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그 후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 호조좌랑(戶曹佐郞) 등을 거치고 통진 현감(通津縣監)에 올라, 누차에 걸친 상소(上疏)와 직간(直諫)으로 인해 왕의 노여움을 받아 한때 유배(流配), 파직 또는 벼슬이 깎이는 등 많은 파란을 겪었으나 선조 때 이조판서(吏曹判書), 영조 때는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정호(廷虎)의 아들 석윤(錫胤)은 인조 때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올라 호당(湖當)에 뽑혀 사가독서(賜暇讀書)로 학문을 연마하고 수찬(修撰), 승지(承旨) 등을 거쳐 대사간(大司諫)을 역임한 후 효종(孝宗) 즉위년에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으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겸행(謙行)의 아들인 석주(錫周)는 숙종(肅宗) 때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장령(掌令)을 역임했으나 만년에는 시주(詩酒)를 즐기며 학문에만 진력했고, 죽은 후 효행(孝行)과 청백(淸白)으로 도승지(都承旨)에 추증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천 조씨는 파주시에 총 1,25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조리읍 뇌조1리 조산마을의 배천 조씨는 숙의공파로 10가구가 살고 있다. 이 마을에 배천 조씨가 들어온 시기는 약 200여 년 전으로 입향조는 조완벽이며 묘가 뇌조리에 있다.

순창 조씨(淳昌趙氏)

순창 조씨(淳昌趙氏)는 고려조에서 순창호장(淳昌戶長)을 지낸 조자장(趙子長)을 시조로 하고 그 선조(先祖)들의 토착지인 순창(淳昌)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순창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원래 백제의 도실군(道實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순화군(淳化郡)으로 고치고 고려 때에는 순창현이 되어 남원부(南原府)에 속하였다가 1314년(충숙왕 1) 군(郡)으로 승격, 조선(朝鮮) 시대에도 그대로 군으로 삼았다.
역사인물로 자장(子長)의 현손 인평(仁平)은 고려 명종 때 계룡산(鷄龍山)의 도적을 토평하여 일등공신으로 금오위 상장군(金吾衛上將軍)에 올랐고, 그의 아들 광명(光明)은 문하시랑평장상사(文下侍郎平章事)를 지냈다. 광명(光明)의 아들 문선(文琁)은 충렬왕 때 중문지후(中門祗侯)를 거쳐 대호군(大護軍)에 올랐으며, 문선의 아들 염(廉)은 충숙왕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광정대부(匡靖大夫),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내고 상호군(上護軍)에 올라 치사했다. 염(廉)의 맏아들 봉(縫)은 판도판서(版圖判書)로 순성군(淳城君)에 봉해졌고, 차남 신(紳)은 고려 말에 진사(進士)였으나 고려가 망하자 괴산(槐山)의 송평(松坪)으로 은거(隱居)하여 정자(亭子)를 세우고 피세정(避世亭)이라 이름 지어 백이숙제(伯夷叔齊)와 안진경(顔眞卿)의 충절을 찬미했다.
조선에서는 한성판관(漢城判官)을 지낸 흔(昕), 병조참의에 추증된 복(服), 김천도찰방(金泉道察訪)을 지낸 덕용(德容), 이조판서 겸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에 추증된 수익(壽益) 등이 많은 공적을 남겼다. 학자로 이름난 수항(壽恒)은 봉림대군(鳳林大君)의 사부로 천거되었고 위일(胃一)은 제자백가에 통달했으며 20세 때 『천명도해 (天命圖解)』를 저술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창 조씨는 파주시에 총 31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에 살고 있는 순창 조씨는 파시조를 조이려(趙爾呂, 1642~1693)로 하는 승지공파(承旨公派) 입향조는 19세 조헌겸(趙憲謙, 1762~1816)이다. 조이려와 아들 태하(泰夏), 그리고 입향조 헌겸의 묘는 교하 송촌리에 있다. 10세 천상(天祥,1526~?)부터 14세 이중(이중, 1653~1720)까지의 묘가 광탄면 용미리 혜음령에 있는 것으로 보아 입향조 헌겸 이전부터 파주와 연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교하 송촌리에 예전에는 12호가 살았는데 지금은 3호가 거주하고 있다.

양주 조씨(楊州趙氏)

양주는 경기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 때 매성군(買城郡)·창화군(昌化郡)이라 하였는데, 신라 경덕왕이 내소(來蘇)로 고치고 고려 초에 견주(見州)로 승격하였다가 1668년(현종 9) 양주(楊洲)에 속하였다. 조선 때 다시 양주(楊洲)로 개칭한 뒤 1895년(고종 32) 목(牧)을 군(郡)으로 승격시켰다.

양주 조씨(楊州趙氏)의 시조는 고려 때 호장(戶長)을 지내고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에 추증된 조잠(趙岑)이다. 그의 선계는 문헌이 실전되어 상고할 수 없으며,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의 기록에는 고려 때 사람인 군우(君祐)의 손자이며, 경질(景質)의 아들이라 전하고 있다. 후손들은 잠(岑)을 시조로 하고 양주(楊洲)를 본관(本貫)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역사인물로는 잠의 증손 계생(啓生)이 고려 우왕 때 문과에 올랐으며 조선이 개국한 후 이조판서를 역임하였고, 문장(文章)이 뛰어나 학자로 이름을 날렸다. 계생의 동생 말생(末生)은 태종의 총신(寵臣)으로 병조판서를 지냈고, 세종 때 예문관대제을 거쳐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에 이르렀으며, 그의 아들 3형제 중 맏아들 선(璿)은 태종의 사위로 한원군(漢原君)에 봉해졌다. 이조판서 극관(克寬)은 계생(啓生)의 맏아들로 태종 때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여 사관(史官), 정자(正字), 우정언(右正言), 지평(持平), 이조정랑(吏曹正郎) 등을 거쳤고, 세종 때 병조(兵曹)와 형조(刑曹)의 참관(參觀)을 지냈다.

말생(末生)의 7세손 정(挺)은 광해군 때 우의정에 올랐고, 존성(存性)은 인조반정 후에 형조·호조참판을 거쳐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부총관(副摠管)을 역임했으며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검찰사(檢察使)로서 왕을 공주(公州)로 호종하였고, 정묘호란 때는 호조판서로 세자(世子)를 따라 전주(全州)에 갔다 돌아왔다.

존성(存性)의 아들 창원(昌遠)은 인조의 장인이 되어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에 봉해졌고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가 되었으며, 동생 계원(啓遠)은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를 거쳐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올랐다. 숙종 때 노론(老論) 4대신의 한 사람인 태채(泰采)는 군수(郡守) 희석(禧錫)의 아들로 1686년(숙종 12)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수찬(修撰), 교리(敎理) 등을 역임하였다. 그 후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태구(泰耉)는 우의정 사석(師錫)의 아들로 1686년(숙종 12)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한 후 설서(設書), 문학(文學), 승지(承旨) 등을 거쳐 부제학(副提學),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냈고, 동지사(同知使)로 청나라에 가서 외교적인 공적을 쌓았으며 1720년(숙종 46) 우의정(右議政)에 올랐다.

그 밖에 좌참찬(左參贊)과 호조판서(戶曹判書) 등 벼슬을 두루 역임한 운규(雲逵),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동지부사(冬至副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온 영순(榮順), 영의정(領議政) 두순(斗淳)과 좌의정(左議政) 병세(秉世)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주 조씨는 파주시에 총 22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 조씨(玉川趙氏)

옥천 조씨(玉川趙氏)는 고려에서 광록대부(光祿大夫),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 문하시중(門下侍中) 등을 지낸 조장(趙璋)을 일세조(一世祖)로 하고 그의 증손 원길(元吉)이 공양왕 때 일등공신(一等功臣)으로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에 봉해졌기 때문에 후손들은 옥천(玉川)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옥천은 순창(淳昌)의 별호이다. 순창은 전라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본래 백제 도실군(道實郡)인데, 신라 경덕왕 때 순화군(淳化郡)으로 고쳤고, 고려 때 순창(淳昌)으로 개칭하여 남원부(南原府)에 속하게 하였다. 1175년(명종 5)에 다시 설치하였고 충숙왕 때 군(郡)으로 승격하였으며 1914년에 임실군(任實郡) 영계면(靈溪面)을 병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장(璋)의 아들 홍규(洪珪)가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냈고, 손자 전(佺)이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에 봉해졌으며, 그의 동생 여(璵)가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를 역임하였다.

원길(元吉)은 정몽주(鄭夢周), 설장수(偰長壽)와 함께 공양왕을 옹립한 공으로 일등공신이 되었으나 고려가 망하자 벼슬에서 물러나 끝까지 절의를 지켜 목은(牧隱) 이색(李穡) 등과 함께 오은(五隱)으로 불렸다. 원길(元吉)의 아들 5형제 중 맏아들 영(瑛)은 전공판서(典工判書)를, 차남 유(瑜)는 전농시부정(典農寺副正)을 지냈으며, 고려가 망한 후 태종(太宗)이 유(瑜)에게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명(命)했으나 고려에서 벼슬을 지낸 신하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하여 형제가 함께 절의를 지켰다. 그가 죽은 뒤 세종이 예관(禮官)을 보내어 장사 지내고 '효자전부정조유지여(孝子前副正趙瑜之閭)'라는 명정(銘旌)을 내렸다.

조선에서는 유(瑜)의 아들 숭문(崇文)이 세종 때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에 올랐으나 단종복위운동에 관련되어 아들 철산(哲山)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뒤에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그 밖에 유(瑜)의 증손(曾孫) 침(琛)은 중종(中宗) 때 문과에 급제한 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지냈으며 그의 후손으로는 효신(孝臣: 이조 참판을 역임)과 호신(虎臣: 병마절도사를 지냄), 효정(孝貞: 시강원 설서) 등이 이름났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옥천 조씨는 파주시에 총 37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천 조씨(林川趙氏)

임천 조씨(林川趙氏)의 시조(始祖) 조천혁(趙天赫)은 송(宋)나라 태조의 손자이 유길(惟吉)의 다섯째 아들이라 전한다. 우리나라에서 연원은 천혁이 진사시(進士試)에 올라 서두공봉관(西頭供奉官)을 지내다가 979년 국난(國難)을 피하여 바다를 건너와 호서지방(湖西地方: 현 부여군 임천지방)에 정착 세거하면서 부터이다. 그 후 고려 현종 때 강감찬(姜邯贊)과 함께 거란군을 토벌한 공으로 문하시중평장사에 올라 가림백(伯)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천혁(天赫)을 시조로 하고 임천(林川)을 관향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임천은 충청남도에 있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 가림군(加林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가림(嘉林)으로 고쳤다. 고려 성종 때 임주(林州)로 하였다가 1018년(현종 9) 가림현(嘉林縣)으로 삼았는데 충숙왕 때 다시 주(州)로 승격시켰다. 1394년(태조 3) 부(府)로 삼았다가 1401년(태종 1) 복귀시켰으며, 1403년(태종 3) 다시 부(府)로 승격시켰다가 다시 강등시켜 1413년(태종 13) 임천(林川)으로 고치고 군(郡)으로 삼았다. 1914년 부여군(扶餘郡)에 합했다.

역사인물로는 조선에서 이름을 날린 지서(之瑞)가 있다. 그는 감찰(監察)을 지낸 찬(瓚)의 아들로 성종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이어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교리(郊理)를 지냈다. 연산군이 즉위하자 외직(外職)인 창원부사(昌原府使)로 나갔다가 연산군의 폭정을 개탄하여 벼슬을 버리고 지리산(智異山)에 들어가 학문에만 힘썼다.

사예(司藝)를 역임한 원경(元卿)의 아들 익(翊)은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를 거쳐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냈으며 중국어(中國語)에 능통하여 여러 차례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3대(三代)에 걸쳐 시문(詩文)으로 명성을 날린 원(瑗)은 당대에 이름난 석학 조식(曺植)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정언(正言)이 되어 당시 격렬한 당쟁(黨爭)의 폐해(弊害)를 상소하였으며 삼척 부사(三陟府使)를 역임한 후 승지(承旨)를 지냈다. 아들 희일(希逸)은 선조(宣祖) 때 과거에 급제하여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番)이 왔을 때 김상헌(金尙憲), 류 근(柳 根) 등과 함께 접반사(接伴使)가 되어 시문(詩文)으로 찬탄을 받았으며,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지냈고 정묘호란 때 왕을 강화(江華)로 호종한 후 예조참판을 거쳐 강릉 부사(江陵府使)를 지냈다. 그의 아우 희진(希進)은 정언(正言), 장악원정(掌樂院正) 등을 지냈다. 숙종 때 학자로 이름난 경망(景望)은 석형의 아들로, 특히 서사(書史)와 경적(經籍)에 밝았으며 서예가(書藝家)로 유명했다.

그 밖에 숙종 때 한문소설인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을 집필한 성기(聖期), 대사헌을 지낸 명택(明澤), 이조판서를 역임한 명정(明鼎)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천 조씨는 파주시에 총 12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임천 조씨는 고려시대 문하시중 평장사를 지낸 조천혁(趙天赫)의 후손으로 이조참의를 지낸 12세 익(翊, 1474~1547)을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후손들이다. 문중의 주요 인물로는 12세 익(翊)을 비롯하여 14세 원(瑗), 15세 희일(希逸)과 경창(景昌), 18세 정만, 22세 기복(基復, 추사 김정희 고종사촌으로 추사체 비문), 23세 면호(冕鎬) 등이 있다.

광탄면 용미리 산80-1번지에 있는 임천 조씨 묘역내 조기복 묘표는 추사 김정희의 친필 묘표로 2019년 8월 30일 파주시향토문화유산 제34호로 지정 되었다.

파주에는 현재 봉암리에 10호, 용미리에 5호, 기타 지역에 9호 등 모두 24호가 살고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14일 광탄면 용미리 263 일대 묘역에서 시제를 지낸다. 문중 회장은 26세 용언, 총무는 28세 진석이며 2020년 11월 30일 현재 재실 공사를 진행중이다. 용미리 산 85 외

21필지 약 43만평을 문중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고 1966년 12월 제정된 문중 규약(規約)이 있으며, 문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주소가 http://cafe.daum.net/ww3456ww이다.

직산 조씨(稷山趙氏)

직산 조씨(稷山趙氏)는 백제의 개국공신인 조성(趙成)을 시조로 받들고 있다. 『직산조씨갑자대동보(稷山趙氏甲子大同譜)』에 의하면 시조 조성(趙成)은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 주몽(朱蒙)의 셋째 아들 온조(溫祚)를 도와 위례성(慰禮城)에서 백제를 건국하고, 한산(漢山)으로 천도(遷都)하여 마한(馬韓)을 멸망시킨 후 백제창업(百濟創業)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훈공을 세워 경양군(慶陽君)에 봉해졌으며, 뒤에 다시 예성부원군(醴城府院君)으로 개봉되었다가 하남백(河南伯)에 이봉(移封)되었다고 하며, 그의 아들 준연(俊連)과 손자(孫子) 입충(立冲)이 함께 금오대장군(金吾大將軍)을 역임한 것으로 전한다.
그 후 시조의 손자 입충(立冲)으로부터 고려 말기에 이르기까지의 상계가 실전되어 후손들은 고려 말에 중정대부(中正大夫)로 합문지후사(閤門祗候使)에 올랐던 원우(元祐)와 병부낭중(兵部郞中) 원경(元慶),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를 지낸 복원(復元), 태자첨사(太子詹事) 영원(永元), 조선(朝鮮) 때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역임한 응원(應元) 등 다섯 계통(系統)으로 갈라져서 각각 중시조(中始祖)로 받들고 세계를 이어왔다.
직산은 충청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위례성(慰禮城)이었는데 고구려 때 사산현(蛇山縣)으로 고쳤고, 신라 때 백성군(白城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으며 고려 초에 직산(稷山)으로 고쳤다. 1018년(현종 9) 천안부(天安府)에 예속시켰다가 후에 다시 설치하였으며, 1504년(연산군 10) 경기도로 옮겼으나 중종 때 복구하여 충청도(忠淸道)에 속하게 하였다.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하였고 1914년에는 천안군에 병합하여 지금은 천안군 직산면(稷山面)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합문지후사 원우(元祐)의 손자 방림(邦霖)이 조선 세조가 등극하는 데 공을 세워 좌익공신(左翼功臣)에 책록되었고 이어 자헌대부로 호조판서를 지냈다. 그의 아들 광보(光甫)는 병조참판을 역임하였다. 통정대부로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추증되었던 경(瓊)의 맏아들 응형(應亨)은 명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철원부사(鐵原府使)를 역임했으며, 전의현감(全義縣監)을 지낸 탁(擢)의 아들 서동(瑞東)은 보리공신(輔理功臣)으로 한성부원군(漢城府院君)에 봉해졌다. 한편 임진왜란 때 양산군수(梁山郡守)로 있었던 영규(英圭)는 양산성(梁山城) 수비에 참전했다가 장렬하게 순절하여 호조참의에 추증되고 장성(長城)의 모암서원(慕庵書院)과 양산(梁山)의 충렬사(忠烈祠)에 제향되었다. 광해군(光海君) 때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을 지냈던 영(英)은 숙종조에 선전관(宣傳官)을 역임했던 수(洙)와 함께 무맥(武脈)을 이었다. 유선(有善)은 유학(儒學)에 정통하여 『고정유사(考亭遺事)』와 『사우연원(師友淵源)』을 편찬했으며,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아 진산군수(珍山郡守)에 임명되었으나 사임하고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전념했다.
그 밖에 숙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사복장(司僕將)을 지내고, 영조 때 이인좌의 난을 토평하는 데 공을 세워 분무공신(奮武功臣)에 올랐던 태상(台相), 군수를 역임한 정휴(鼎休)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산 조씨는 파주시에 총 4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산 조씨(平山趙氏)

평산 조씨(平山趙氏)의 선계에 대해서는 미상하며, 시조 조응선(趙應善)은 사간원 대사간으로 왕에게 직간하다가 평산(平山)으로 유배되었다고 한다. 그 후 세계가 실전되어 계대를 알 수 없으므로 후손들은 시조의 배소지인 평산(平山)을 본관으로 삼고 조선에서 참봉을 지낸 조충백(趙忠白)을 중시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평산은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 때 대곡군(大谷郡)·다화실(多和悉)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영풍(永豊)으로 고쳤으며, 고려 초에 평주(平州)로 하였고 1272년(원종 13)에 평산으로 바꿔 도호부(都護府)로 승격, 고종 때 군(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충백(忠白)의 아들 복린(馥麟)이 중추부사(中樞副使)를 지냈고, 후손 발(發)의 아들 호문(好問)은 1480년(성종 11)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군수(郡守)를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산 조씨는 파주시에 총 1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 조씨(平壤趙氏)

평양 조씨(平壤趙氏)의 시조는 조춘(趙椿)이다.
그는 고려에서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추밀원부사(樞密院府使)에 이르렀고, 중국으로 건너가 남송(南宋)을 도와 금(金)나라를 토평한 공으로 상장군(上將軍)이 되었다. 그의 현손 인규(仁規)는 고려조에 제교(諸校)가 되고 이어서 장군(將軍)에 오른 뒤 성절사(聖節使)로 원(元)나라에 30여 차례나 사신으로 왕래하였다. 그의 둘째 딸이 충선왕비(忠宣王妃)가 되자 국구로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올라 수태위판중서문하이병부사(守太尉中書門下吏兵部事)·태자태사(太子太師)·상장군(上將軍)에 오르고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에 봉해져서 충렬왕의 명(命)으로 선대(先代)의 본관인 상원(詳原)을 평양(平壤)으로 이적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평양은 평안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4천여 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古都)로서 역사상 왕조(王朝)에 따라 왕검성(王儉城)·기성(箕城)·낙랑(樂浪)·서경(西京)·호경(鎬京)·유경(柳京) 등으로 불렸고, 단군(檀君)·기자(箕子)·위만(衛滿)의 3조선(朝鮮)과 고구려(高句麗)의 도읍(都邑)이기도 했던 곳이다. 고려 태조 때 서경(西京)이라 부르다가 광종 때 서도(西都)로 개칭되었으며 목종 때 와서는 호경(鎬京)이라 하였으나 1396년(공민왕 18)에 만호부(萬戶府)를 두고 후에 평양부(平壤府)로 개칭하였고, 1895년(고종 32) 전국을 13도(道)로 분할함에 따라 평안남도 도청소재지가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인규(仁規)의 아들 5형제 중 맏아들 서(瑞)가 충렬왕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삼사사(三司使)에 이르렀고 평양군(平壤君)에 봉해졌으며, 둘째 아들 연(璉)과 셋째 아들 연수(延壽)가 찬성사(贊成事)를 지냈다. 넷째 아들 의선(義旋)은 불문출가(佛門出家)하였고, 다섯째 아들 위(瑋)가 찬성사(贊成事)를 지냈다. 연(璉)의 손자 준(浚)은 고려 우왕(禑王)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강원도안렴사(江原道按廉使)로 나가 선정(善政)을 베풀었고, 대호군(大護軍)·전법판서(典法判書) 등을 거쳐 최영(崔瑩) 장군 휘하에서 왜구(倭寇)를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워 선위좌명공신(宣威佐命功臣)에 책록되었다. 그 후 이성계를 도와 조선창업에 공을 세우고 개국일등공신에 올라 제1차 왕자의 난 때 다시 정사일등공신(定社一等功臣)으로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에 봉해졌으며, 태종 때 영의정(領議政)을 지냈다.
그 밖에 태종의 동서(同婿)로 평원군(平原君)에 봉해진 박(璞)은 정사공신(定社功臣)과 좌명공신(佐命功臣)에 녹훈되고, 대제학·이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명종 때의 학자 형제인 성(晟)과 욱(昱)은 호(瑚)의 아들로 지평(砥平)의 운계서원(雲溪書院)에 함께 제향(濟享)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양 조씨는 파주시에 총 44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양 조씨(豊壤趙氏)

풍양 조씨(豊壤趙氏)의 시조는 조맹(趙孟)이다.
한양부(漢陽府) 풍양현(豊陽縣) 사람인 그는 본래 초명이 바위(巖)였는데 만년(晩年)에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건국에 공을 세워 통합삼한벽상개국공신(統合三韓壁上開國功臣)에 책록되고 상주국삼광문하시중평장사(上柱國三匡門下侍中平章事)에 이르렀으며 맹(孟)이란 이름을 하사받았다. 그 후 후손들이 시조의 세거지명인 풍양(豊壤)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으나 시조 이하의 세계가 실전되어 일세조를 각기 다르게 하는 두 계통으로 계대하고 있다.
6세까지 실전한 전직공파(殿直公派)는 고려 때 전직(殿直)을 지낸 조지린(趙之藺)을 일세조로 하여 계대하고 있으며, 몇 대까지 실전했는지 상고할 수 없는 평장사파(平章事派)는 조신혁(趙臣赫)을 일세조로 하여 계대하고 있다.
풍양은 경기도 양주(楊洲)에 있던 지역의 옛 지명이다. 원래 고구려의 골의노현(骨衣奴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황양(荒壤)으로 고쳐 한양군(漢陽郡)의 영현이 되었다가 후에 풍양으로 고쳐 양주에 속하였다. 그 후 포주(抱州: 포천)에 이속되고 세종 때 다시 양주(楊州)에 속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운흘(云仡)이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고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를 거쳐 계림부윤(鷄林府尹) 등을 지냈고, 조선이 개국한 후 강릉부사(江陵府使)로 선정을 베풀었다.
부총관(副摠管)을 지낸 익정(益貞)은 공조좌랑(工曹左郎) 안평(安平)의 손자로 벼슬을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을 거쳐 공조·이조참판을 지냈으며, 지진(之鎭)의 아들 현범(賢範)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중종 때 사섬시정(司贍寺正)을 지낸 종경(宗敬)과 명종 때 부총관(副摠管)을 역임하고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된 안국(安國)은 훈련대장(訓鍊大將) 경(儆)과 함께 가문을 중흥시켰다. 경(儆)은 임진왜란 때 경상우도방어사(慶尙右道防禦使)가 되어 추풍령(秋風嶺) 싸움에서 패하고 금산(金山)에서 왜군을 격퇴시켜 1599(선조 32) 회령 부사(會寧府使)에 올라 선무삼등공신(宣武三等功臣)으로 풍양군(豊壤君)에 봉해졌다.
그 밖에 영조 때 과거에 급제하여 부총관(副摠管)을 지낸 흥진(興鎭)이 대제학(大提學)에 추증되었으며, 판서(判書) 용화(容和)는 경사(經史)에 밝고 문장(文章)에 능하여 당대의 거유(巨儒)로 일컬어졌다.
한말에 정구(鼎九)는 고종 때 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와 기로소 비서장(耆老所秘書長) 등을 지내고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으로 재직중 한일합방이 되자 합방조서(合邦詔書)와 고유문(告諭文)을 찢고 자결하려다 실패하자 금강산(金剛山)에 입산(入山)하여 중이 되기도 했다. 그의 종제인 완구(琓九)는 군수(郡守)에 재임 중 합방을 당하자 간도(間島)로 가서 상해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의 간부로 활약했고, 동석(東奭)은 경북 상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우다가 체포되어 순절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풍양 조씨는 파주시에 총 1,33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에 살고 있는 풍양 조씨는 조면(趙沔)을 파시조로 하는 언양공파다.
입향조 조면은 강원도 춘천으로부터 장단 진동면 초리로 17세기 후반에 들어 왔으며 묘소도 진동면 초리에 있다.
진동면 초리와 하포리 등지에 60여 가구가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나와 각지로 흩어졌다. 현재 문산읍 문산리에 5~6호가 거주하고 있다.

한양 조씨(漢陽趙氏)

한양 조씨(漢陽趙氏)의 시조 조지수(趙之壽)는 덕원부 용진현(德源府龍津縣)에 세거해온 사족의 후예로 고려조에 첨의중서사(僉議中書事)를 지냈다. 그 후 후손들은 조선이 개국하자 한성(漢城)으로 이거하여 가세가 크게 번창하였으므로 본관을 한양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한양 조씨는 지수(之壽)의 후손에서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낸 인재(麟才)의 계통과 총관(摠管)을 지낸 휘(暉)의 계통으로 대별(大別)되어, 서로 계대(系代)를 다르게 하며 보첩(譜牒)도 따로 만들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휘(暉)의 아들 양기(良琪)가 1281년(충렬왕 7) 부원수(副元帥)가 되어 일본정벌에 참가했고 21세 때 합단(哈丹)의 침입을 대파(大破)한 공(功)으로 원나라 세조(世祖)로부터 금포(錦袍)와 옥대(玉帶)를 하사받았다. 양기(良琪)의 아들 돈(暾)은 1356년(공민왕 5) 쌍성수복(雙城收復) 작전 때 공(功)을 세워 예빈경(禮賓卿)이 되고 이듬해 평양에 침입한 홍건적을 대파한 후 판사농시사(判司農寺事),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오르고 1375년(우왕 1)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용성군(龍城君)에 봉해졌다. 맏아들 인벽(仁璧)은 동북면 원수(東北面元帥)로 왜구를 토벌하였고 정화공주(貞和公主)와 결혼하여 이성계의 매부(妹夫)가 되었으며 용원부원군(龍原府院君)에 봉해졌다. 또한 판도판서(版圖判書) 인재(麟才)의 증손(曾孫)이자 판서(判書) 세진(世珍)의 아들인 영무(榮茂)는 조선조에 개국3등공신(開國三等功臣)으로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라 한산군(漢山君)에 봉해졌으며 1405년(태종 5) 우의정(右議政)에 오르고 이듬해 판이병조사(判吏兵曹事)를 겸임한 후 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에 진봉(進封)되어 태종(太宗)의 극진한 총애를 받았다.

사림파(士林派)의 영수 정암 광조(光祖)는 개국공신 온(溫)의 현손(玄孫)으로 14세 때 어천도찰방(魚川道察訪)으로 부임하는 아버지 원강(元綱)을 따라가 희천(熙川)에 유배중인 한훤당 김굉필(金宏弼)에게 글을 배웠다. 그는 성리학(性理學) 연구에 힘썼으며, 유교(儒敎)로써 정치(政治)와 교화(敎化)의 근본을 삼아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실현해야 한다는 지치주의(至治主義)를 역설했다. 중종(中宗) 때 대사헌(大司憲)에 있으면서 신진사류(新進士類)인 30대의 소장학자(少壯學者)들을 요직에 안배하는 한편, 훈구파(勳舊派)를 외직(外職)으로 몰아내는 등 과격한 개혁을 단행하여 마침내 훈구파의 반발을 야기시켜 남곤(南袞), 심정(沈貞) 등이 주동한 기묘사화(己卯士禍)에 피화(被禍)되어 능주(綾州)에 유배(流配), 배소(配所)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 밖에 중종때 대사간, 형조판서 등을 지낸 위한(緯韓),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위성공신(衛聖功臣)에 오르고 한흥군(漢興君)에 봉해진 공근(公謹), 인조 때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고, 대제학(大提學)을 거쳐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낸 경(絅) 등이 있다.

한말에는 독립투사 맹선(孟善)이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매국칠적(賣國七賊)을 죽이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평양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전했고 독립단(獨立團)을 조직하여 군사훈련(軍事訓鍊)에 힘써 많은 독립투사를 배출했다. 병옥(炳玉)은 대학생으로 한인회(韓人會), 흥사단(興士團) 등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해방이 되자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을 창당하여 경무부장(警務部長)으로 치안유지에 힘썼다. 그 후 반독재(反獨裁) 투쟁에 앞장섰으며, 1955년 민주국민당이 민주당(民主堂)으로 개편될 때 최고위원이 되어 야당(野黨)을 영도했으며, 대통령에 입후보하였으나 신병으로 미국 육군병원에서 영면(永眠)하였다. 청록파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지훈(芝薰)도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문단의 선구자로 민족적 정서운동에 앞장섰으며, 종신토록 대학교단에서 문학을 피력하였고, 사회활동에

이바지함이 지대하여 후에 그를 기리는 시비(詩碑)가 세워졌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양 조씨는 파주시에 총 3,12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에 살고 있는 한양 조씨는 양걸공 현주공파로 입향조는 조선 중종때 시문에 능했던 조찬한(趙纘韓, 1572~1631)이다. 입향조가 들어 온 지역은 탄현면 축현리로 현재 입향조의 묘도 축현리에 있다.
탄현면 축현리에 현재 한양 조씨가 3가구 살고 있다.

함안 조씨(咸安趙氏)

함안은 경상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변한(弁韓) 땅이었으며, 가락국(駕洛國)의 6가야 중 아나가야(阿那伽倻)의 영역이었다. 신라 경덕왕 때 함안군(咸安郡)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고려 때의 995년(성종 14)에 함주(咸州), 1018년(현종 9)에 함안군(郡), 1172년(명종 2)에 함안현(縣), 1374년(공민왕 22)에 함안군, 조선 때의 1505년(연산군 10)에 함안도호부(都護府), 1506(중종 1)에 함안군이 되었다.

함안 조씨(咸安趙氏)의 시조는 조정(趙鼎)이다.

고려 초에 대장군(大將軍)을 지낸 정(鼎)은 당(唐)나라 출신으로 신라 말에 두 동생 부(釜)와 당(鐺)을 데리고 절강(絶江) 사람인 장길(張 吉)과 함께 고려에 귀화하여, 왕건을 도와 고창성(高昌城)에서 견훤을 대파하고 공을 세웠으므로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으로 대장군(大將軍)에 올랐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함안(咸安)에 정착 세거하며 본관을 함안(咸安)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역사인물노는 정(鼎)의 아들 간(幹)이 고려에서 중랑장(中郎將)을 지냈으며, 증손 시우(時雨)는 오위도영장(五衛都領將), 영준(英俊)은 형부상서(刑部尙書)를 지냈다.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인 여(旅)는 공조전서 지낸 열(悅)의 손자로 일찍부터 명망(名望)이 높아 장래가 촉망되었으나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고향 백이산(伯夷山)에 들어가 독서와 낚시로 여생을 보냈으며, 정조 때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명종 때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지낸 연(淵)은 여(旅)의 손자로 전서(篆書), 예서(隸書), 잡체(雜體)에 뛰어나 당대의 명필(名筆)로 일컬어졌으며 시문(詩文)에도 능했다.

영조 때 화가(畵家)로 이름난 영석(榮祏)은 군수(郡守) 해(楷)의 아들로 유학자 이희조(李喜朝)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워 숙종(肅宗) 때 천거로 등용되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거쳐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을 지냈고, 시(詩), 글씨, 그림에 뛰어나 삼절(三絶)로 불렸다.

영복(榮福)의 아들 중회(重晦)는 서장관(書狀官)으로 청(淸)나라에 다녀와 승지(承旨)가 되어 사도세자(思悼世子)가 뒤주에 갇혀 죽을 때 극간(極諫)하다가 무장(武裝)에 유배되었다. 그 후 예조(禮曹), 이조(吏曹),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역임했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으며, 성품이 강직(剛直)하여 그에게 아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두 배척하며 지조를 지켰다.

조선 후기의 화가(畵家)로 유명한 정규(廷奎)는 특히 산수(山水), 인물(人物) 등을 잘 그렸으며, 희룡(熙龍)은 오위장(五衛將)을 역임하고 시문(詩文)과 글씨, 그림 등에 능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 조씨는 파주시에 총 1,57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함안 조씨의 입향조(入鄕祖)는 조감(趙堪, 1530~1586)이며 입향 시기는 1550년 무렵으로 진주에서 휴암 백인걸 선생을 찾아 공부하러 파주로 왔다. 주요 인물로는 생육신인 어계선생 조려(趙旅), 백인걸의 사위로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를 지낸 조감, 이조참판을 지낸 조일(趙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조봉원(趙逢源),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를 지낸 조근(趙根), 조중협의 부인 청풍김씨 열녀(파주시향토문화유산 제7호), 돈녕부 도정을 지내고 조선의 삼재라 일컫는 문인화가 조영석, 파주향악 부약정을 지낸 조관규(趙寬奎), 독립운동가 조소앙 등이 있다. 월롱면 능산리에 함안 조씨가 50여호 살았으나 현재는 마을전체 36호 중 25호가 살고 있다. 또, 파주읍 연풍리에 17호가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 시제를 지내며 입향조 조감의 묘를 비롯한 선영은 월롱면 능산

리 아가산에 있다. 조감은 월롱면의 용주서원(龍洲書院)과 파평면 눌노리에 있는 파산서원 우측 경현단(景賢壇)에 배향된 인물이다.
주요 간행물로 함안조씨참판공파보(咸安趙氏參判公派譜), 함안조씨 문적총관(咸安趙氏文籍總觀)(상하 2권), 옥봉선생일고집(玉峰先生逸稿集) 등이 있다. 종손은 조재우이다.
함안 조씨 참봉공파는 월롱면에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횡성 조씨(橫城趙氏)

횡성 조씨(橫城趙氏)의 시조는 조익(趙翌)이다.
고려에서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한 첨(瞻)의 아들인 그는, 958년(고려 광종 9)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고 횡성군(橫城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횡성(橫城)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횡성은 강원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 횡천현(橫川縣)·어사매(於斯買)라 부르다가 신라 때 황천(黃川)이라 고치고 삭주(朔州: 춘천)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에 이르러 다시 횡천이라 일컫고 종전대로 삭주에 예속시켰다가, 후에 원주(原州)의 속현(屬縣)으로 하였고, 1389년(공양왕 1)에 감무를 두었다. 1413년(태종 13) 현감(縣監)을 두고, 1414년 횡천과 홍천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횡성으로 개칭하였다. 1627년(인조 5)에 원주의 속현이 되었다가 1636년(인조 14) 다시 현이 되었고, 1760년(영조 36)에는 원주로부터 토포사(討捕使)가 이설되었으며, 1895년(고종 32) 횡성군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익(翌)의 아들 승린(承麟)이 문과에 급제하고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으며, 손자 윤익(潤益)은 집현전태학사(集賢殿太學士)를, 증손 주조(周祚)는 중서승(中書丞)에 이르렀다. 영인(永仁)은 정당문학(政堂文學),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를 거쳐 개부의동삼사, 수태사,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역임했다.
영인(永仁)의 아들 충(冲)은 문무(文武)를 겸비하여 명종 때 문과에 급제, 대사성(大司成), 한림학사(翰林學士)로 동지공거(同志貢擧)를 겸임하고 서북면원수(西北面元帥)가 되어 수차에 걸친 거란군의 침입을 물리쳐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이르렀다. 충렬왕 때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에 오른 변(抃)은 충(冲)의 손자이며, 평장사(平章事) 계순(季珣)의 아들로 동생 해(晐)와 함께 가문을 빛냈다.
조선에서는 지근(支瑾)의 아들 무(茂)가 벼슬을 지내고 공(功)이 있어 횡성군(橫城君)에 봉해졌으며, 후손 인(遴)은 부호군을 지냈다. 선조 때 학자로 이름난 목(穆)은 대춘(大椿)의 아들로 벼슬이 공조참판에 이르렀으나 청빈하여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일생을 학문에만 힘써 대학자(大學者)로 존경을 받았고 문장(文章)과 글씨에도 뛰어났다.
그 밖에 성립(誠立)이 공주목사(公州牧使), 대사간(大司諫), 수찬관(修撰官) 등을 역임했으며, 식(湜)은 공조참의(工曹參議), 승정원우승지(承政院右承旨), 석동(錫東)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횡성 조씨는 파주시에 총 3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좌씨(淸州左氏)

좌씨(左氏)는 중국 노(魯)나라 때의 태사(太史) 좌구명(左丘明)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유명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주석(註釋)한 대학자(大學者)이자 유학자(儒學者)로 후배인 공자(孔子)도 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좌씨(淸州左氏)는 원나라 때 중국 변경(卞京)에 살다가 고려 말 탐라 목마장의 감목관(監牧官)으로 건너와 정착한 좌형소(左亨蘇)를 시조로 한다.

제주도가 발상지(發祥地)인 좌씨는 형소(亨蘇)가 죽음에 이르러 “사람은 그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하며 대대로 살아오던 중국 산동성(山東省) 청주(靑州)를 본관(本貫)으로 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후손들이 청주(靑州)를 관향으로 삼았으나, 1922년 조선 호적령(戶籍令)에 따라 청주(靑州)라는 지명이 한국에 없어 음(音)이 같은 청주(淸州)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그 후 후손들은 제주도(濟州島)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으며, 고려 때의 명의(名醫) 자이(自以)는 고려 왕후의 중병을 완쾌시켜 이에 탄복한 왕으로부터 그가 살던 한동리(漢東里)일대의 토지를 하사(下賜)받았는데 지금도 그 곳은 <좌가장(左哥場)>으로 불린다.

청주는 충청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원래는 마한 땅이었는데 백제가 상당현(上堂縣)이라 하였고, 일명 낭비성(娘臂城) 또는 낭자곡(娘子谷)으로 불리다가 685년(통일신라 신문왕 5) 서원소경(西原小京)을 두었으며 경덕왕 때 서원경(西原京)으로 승격하였다. 고려 태조조에 청주(淸州)로 고치고 그 후 여러 차례 변천을 거듭한 후 1895년(고종 32) 청주군이 되었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市)가 되었다.

역사인물로 시우(時祐)는 한말의 철종과 고종 대에 걸쳐 유학(儒學)으로 학명을 떨쳤으며, 향교에서 많은 후진을 양성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 좌씨는 파주시에 총 1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 주씨(尙州周氏)

상주 주씨(尙州周氏) 시조는 주유(周瑜)이다. 고려의 절신인 유(瑜)는 고려 말에 진사(進士)를 지내다가 1392년(태조 1) 고려가 망하자 불사이군의 충절로 길재(吉再)·김자수(金自粹) 등과 함께 벼슬을 마다하고 초계현(草溪縣)에 은거하여 세칭(世稱) '포번삼절사(浦播播三節士)'로 불렸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선조가 세거해온 상주(尙州)를 관향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상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진한 영토였으나 185년(신라 벌휴왕 2, 고구려 고국천왕 7) 사벌국(沙伐國: 혹은 사불국)으로 독립해오다가 신라 첨해왕(沾解王) 때 정벌되어 상주(尙州)로 고쳐 군주(軍主)를 두었다. 진흥왕이 상락군(上洛郡)으로 고치고 신문왕(神文王) 때 다시 사벌주(沙伐州)로 개칭되었다가 경덕왕 때 와서 상주(尙州)로 하는 등 많은 변천을 거쳐 고려 성종 때 귀덕군(歸德郡)이라 하여 영남도(嶺南道)에 속하게 하였다. 1012년(현종 3) 다시 상주안무사(尙州安撫使)로 고쳐서 8목(牧)의 하나로 정하였다가 조선이 개국하여 관찰사(觀察使)를 두었으며 1910년 상주군(尙州郡)으로 개칭되어 함창군(咸昌郡) 일원이 편입되었고, 1988년 시(市)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역사인물로 1522년(중종 17) 생원(生員)으로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한 세붕(世鵬)은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子)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한 후 명종(明宗) 때 부제학(副堤學)·호조참판(戶曹參判)을 거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書院)인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세워 학풍(學風)을 진작했으며,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있을 때는 해주(海州)에 수양서원(首陽書院)을 창설하였고 후에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상주주씨(尙州周氏)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인물로 박(博)과 명신(命新), 재성(宰成)이 있다. 세붕(世鵬)의 아들 박(博)은 퇴계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워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교리(敎理)를 지내면서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명신(命新)은 경종(景宗) 때 의학자(醫學者)로 『의문보감(醫門寶鑑)』의 명저를 남겼고, 『용학강의』『경의집록(經義輯錄)』의 저자인 재성(宰成)은 학자로 당대에 이름을 떨쳤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주 주씨는 파주시에 총 15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 주씨(新安朱氏)

신안 주씨(新安朱氏)는 중국 송나라 신안현(新安縣) 사람인 주잠(朱潛)이 고려 고종 때 건너와 나주(羅州)에 정착하면서부터 그를 동래조로 하여 계대를 이어오고 있다. 잠(潛)은 주자(朱子)의 증손으로 송나라 사직(社稷)이 위태롭게 되자 아들 여경(餘慶)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 망명해 와서 금성(錦城)에 자리 잡고 살았다고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다. 후에 원(元)나라에서 송(宋)의 유민(遺民)을 압송(押送)하려 했을 때 이름을 적덕(積德)이라 고치고 능성(綾城) 고정리(考亭里)에 은거하였다가 여러 곳으로 이거하여 지명에 따라 따로 본관을 사용해 온 관계로 신안(新案)·나주(羅州)·능성(綾城) 등 45개 파로 갈리었다. 1902년(고종 39, 광무 6)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석면(錫冕)의 상소로 선조의 본향(本鄕)인 신안(新安)을 본관(本貫)으로 복관(復貫)하게 되었다.

신안은 중국 중앙부(中央部), 양자강(楊子江) 하류 및 회하(淮河) 유역의 안휘성(安徽省) 휘주부(徽州府)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역사인물로는 잠(潛)의 아들 여경(餘慶)이 고려 고종 때 은사과(恩賜科)에 올랐고, 여경(餘慶)의 아들 열(悅)은 원종(元宗) 때 병부낭중(兵部郞中)으로 충청(忠淸)·경상(慶尙)·전라도(全羅道)의 안찰사(安察使)로 나가 크게 치적(治積)을 올렸다. 충렬왕 때는 지도첨의부사(知都僉議府事)에 이르러 능성군(綾城君)에 봉해졌다. 열(悅)의 맏아들 인장(印長)은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냈고, 둘째 인원(印遠)은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를 역임하였으며, 셋째 인환(印還)은 첨의부사(僉議府使)를 지냈다. 조선조(朝鮮朝)에서 약관(弱冠)도 못되어서 향시(鄕試)에 합격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한 택정(宅正)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덕원(德源)에 유배되어 오자 그를 찾아가 학문을 배웠고 1679년(숙종 5)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올라 성균관 학유(成均館學諭)·이성 현감(利城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몽룡(夢龍)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금산군수(金山郡守)로 의병장 강덕룡(姜德龍)·정기룡(鄭起龍) 등과 함께 거창 우지현(牛旨峴) 싸움에서 용전, 왜군을 격파하여 3룡(龍)으로 불렸다.

그 밖에 중종 때 전적(典籍)을 지낸 양우(良佑)와 선조(宣祖) 때 군수(郡守)를 역임한 덕원(德元) 부자가 유명했다. 정(椗)은 숙종 때 개성교수(開城敎授)를 역임하여 경원부사(慶源府使) 표(杓)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한말에는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을 지낸 석면(錫冕),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한 인섭(寅燮) 등이 있다. 진수(鎭洙)는 신민회(新民會) 강원 대표로서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 모집에 공헌하였고, 석환(錫煥)은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모검부장을 지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안 주씨는 파주시에 총 1,06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산 지씨(鳳山智氏)

그는 고려 때의 명장인데, 그의 선계에 대해서는 고증할 문헌이 실전되어 정확히 상고할 수 없다. 그는 1010년(고려 현종 원년) 거란군이 내침했을 때 많은 전공을 세웠고, 또 왕의 피난길을 호종하여 신변의 위기를 막아 난이 평정된 후 공으로 토지를 하사받고 무관으로서 우상시(右常侍)를 겸직했다. 후에 상장군(上將軍)·좌복야(左僕射)를 지냈고 덕종(德宗)이 즉위하자 일등공신에 추록되었으므로, 후손들은 그를 시조로 하고 관향을 봉산(鳳山)으로 삼아 세계 이어왔다.

봉산은 황해도에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 때 휴암군·조파의(租坡衣)·휴류성(鵂鶹城) 등으로 불리다가 통일신라 때 서암군(栖巖郡)으로 고쳤고, 고려 초에 봉주(鳳州)로 개칭하여 방어사(防禦使)를 두었으나 현종 때 폐하고 황주(黃州)에 속하게 되었다. 그 후 충렬왕 때 봉양군(鳳陽郡)으로 고쳐 지사(知事)를 두었다가 후에 다시 봉주로 개칭하였으며, 조선에 와서 태종이 봉산군(鳳山郡)으로 고쳐 오늘에 이르렀다.

봉산 지씨(鳳山智氏)의 시조(는 지채문(智菜文)이다.

역사인물로 시조의 증손 녹연(祿延)은 음보(蔭補)로 벼슬에 올라 동북면 병마판관(東北面兵馬判官)을 지냈고 1104년(숙종 9) 여진 정벌에 공을 세워 전중시어사(殿中寺御史)가 되었으며, 예종 때 내시지후(內侍祉侯)를 거쳐 경상도안무사(慶尙道按撫使)·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 등을 역임한 후 1125년(인조 3) 동지중추밀원사(同知中樞密院事)에 이르렀다.

정묘호란 때 의병장으로 크게 활약한 득남(得男)은 선천부사(宣川府使) 기협(奇協)의 별장(別將)이 되어 군사를 이끌고 능한산성(凌漢山城)에 들어간 뒤 전세록(田世祿)·김여간(金餘幹)·계숭로(桂崇老)·임여택(任如澤)등과 함께 선천(宣川)의 월봉(月峰)에서 천여 명의 의병을 모아 적을 대파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봉산 지씨는 파주시에 총 21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 지씨(忠州池氏)

충주 지씨(忠州池氏)는 중국 홍농(弘農) 출신인 지경(池鏡)을 시조로 하고 있다. 『충주지씨족보(忠州地氏族譜)』에 의하면 경(鏡)은 960년(고려 광종 11) 태학사(太學士)로서 고려에 사신(使臣)으로 왔다가 정착하여 벼슬이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태보(太保)·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다. 그 후 6세손 종해(宗海)가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낸 후 충원백(忠原伯)에 봉해져 충주에 세거하였으므로 후손들은 본관을 충주(忠州)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충주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국원성(國原城)·미을성(未乙省)·완장성(薍長城)·탁장성(託長城)등으로 불리다가 신라에 병합되어 진흥왕 때 소경(小京)을 두었고, 경덕왕 때 중원경(中原京)으로 고쳤다. 940년(고려 태조 23) 충주(忠州)로 개칭하고 뒤에 창화군(昌化郡)이라 하여 중원도(中原道)라 칭하다가 고종 때 국원경(國原京)이 되었으며, 조선 명종 때 유신현(維新縣)으로 부르다가 선조 즉위년에 다시 충주(忠州)로 환원되었다. 그 후 많은 변천을 거쳐 1956년 충주면(忠州面) 일원은 충주시(忠州市)가 되었고, 나머지는 중원군으로 고쳤다.

역사인물로 용수(龍壽)는 찬성사(贊成事) 호문(好文)의 7세손으로, 공민왕 때 서북면 지병마사(西北面知兵馬使)로 홍건적을 물리치고 일등공신에 올랐으며, 서북면 도순무사(西北面都巡撫使)가 되어 수차에 걸쳐 왜구와 야인을 물리쳐서 크게 명성을 날렸고, 윤(奫)은 우왕(禑王) 때 찬성사(贊成事)를 거쳐 서북면 도원수(西北面都元帥)가 되었고 이어 판판도사사(判版圖司事)를 역임하였다. 용기(湧奇)는 우왕 때 호남지방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공으로 문하평리(門下評理)에 올랐으며, 이어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서 양광도도순문사(楊廣道都巡問使)가 되었다. 1388년(우왕 14) 요동공격(遼東攻擊) 때는 안주도부원수(安州道副元帥)로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 가담하여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이어 판삼사사(判三司事)로 충원부원군(忠原府院君)에 봉해졌다.

조선에서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별장(別將)으로 싸우다가 전사하여 병조참판에 추증된 여해(汝海)가 유명했으며, 문장(文章)에도 능하여 학명(學名)으로도 이름이 높았던 달원(達源)은 임진왜란 때 함경도에서 정문부(鄭文孚)·최배천(崔配天) 등과 의병을 일으켜 공(功)을 세웠다.

근대(近代)에 와서는 우리나라에 우두법(牛痘法)을 처음으로 보급한 의학자 석영(錫永)이 뛰어났다. 1876년(고종 13) 수신사(修信使) 김기수(金綺秀)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종두법(種痘法)을 배워 온 박영선(朴永善)에게 종두법을 익혔으며, 김홍집(金弘集)을 따라 일본에 건너가 우두법(牛痘法)을 배우고 돌아와서는 전주(全州) 등지에서 우두국을 설치하여 종두의 전국 보급을 시작하였고, 『우두신설(牛痘新設)』을 저술하여 국민보건에 위대한 업적(業績)을 남겼다.

한말에는 의병장 홍문(弘文)이 1907년(순종 1) 군대 해산령이 내리자 의병을 일으켜 강화 갑곶에서 일본군 1개 중대를 격멸했으며, 독립운동가로 이름난 청천(靑天)은 3·1운동이 일어난 뒤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고 청산리 전투 후에는 일본군의 대대적인 보복작전을 피해 흑룡강으로 이동하였으며, 김좌진(金佐鎭) 등과 대한독립군단을 조직, 항일전을 수행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주 지씨는 파주시에 총 1,29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 진씨(南原晋氏)

진씨(晋氏)는 중국 괵군(虢郡: 지금의 하남성 하락도)에서 계출된 성씨로 당나라 희종(僖宗) 때 사람인 진휘자(晋暉者)의 후손으로 전한다. 우리나라 진씨는 고려 현종 때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를 역임한 진함조(晋含祚)를 시조로 하는데, 그는 역학(易學)과 술수(術數)에 정통하여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도참설(圖讖說)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그 후 고려 고종 때 후손 석(錫)이 거란군의 침입을 토평하는 데 공을 세워 남원군(南原君)에 봉해지고 남원(南原)을 식읍으로 하사받아 후손들이 그곳에서 정착 세거하면서 남원(南原)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남원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고룡군(古龍郡)인데 후에 대방군(帶方郡)으로 고쳤고, 신라 신문왕 때 소경(小京)을 두었다가 경덕왕 때 남원소경(南原小京)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태조 때 남원부로 삼았다가 다시 대방군으로 하였으며, 후에 남원군으로 고치고 1360년(공민왕 9) 부(府)로 승격, 1739년(영조 15) 일신현(一新縣)으로 하였고 다시 부로 복구 1895년(고종 32) 남원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말에 집현전 학사(集賢殿學士)를 지낸 우란(于蘭)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벼슬을 버리고 두류산(頭流山)에 은거하여 끝까지 절의를 지켰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창의한 벽(壁)은 여러 곳에서 왜군을 맞아 싸워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후 금산전투에서 순절하여 크게 이름을 떨쳤다. 인조 때 무과에 급제한 종립(宗立)은 병자호란 때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 김준용(金俊龍)의 휘하에서 수원 광교 전투에 참전하여 적장을 사살하고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창복(昌復)은 박사(博士)를 지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원 진씨는 파주시에 총 5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 진씨(晋州秦氏)

진주 진씨(晋州秦氏)의 원조는 공자의 제자로 우리나라 문묘(文廟)에 배향된 진상(秦商)이다. 문헌에 의하면 상(商)의 후손인 욱(郁)이 고려에서 박사보리공신(博士輔理功臣)으로 진주군(晋州君)에 봉해졌으므로 그를 시조로 하고, 진주(晋州)를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진주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거열성(居烈城)인데 문무왕 때 신라의 영토가 되어 거열주(居烈州)라 하였고, 757년(경덕왕 16) 9주 5소경제(九州五小京制)의 실시와 함께 강주(康州)로 고쳤다가 뒤어 청주(淸州)로 개칭되었다. 고려 초에 다시 강주로 환원하였고, 995년(성종 14)에 진주(晋州)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뒤 조선에 와서는 진양도호부(晉陽都護附)가 되기도 하였으나 진주목(晋州牧)으로서 서부 경남 일대를 관할하였다. 그 후 여러 변천을 거쳐 1949년에 진주시(搢州市)가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봉훈랑(奉訓郞) 인한(仁漢)의 손자(孫子) 언백(彦伯)이 조선에서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과 제주상진무(濟州上鎭撫) 등을 지내고 천문(天文)·지리(地理)에 박통(博通)하여 크게 이름을 날렸으며, 경팔(慶八)은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따.
그 밖에 학자로 유명한 온(瑥)·석준(錫俊)·용하(龍河)·달호(達浩)·원훈(元勳), 감찰(監察)을 역임한 치만(致萬),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낸 원호(原湖) 등이 있다.
한말에는 독립운동에 앞장선 성국(聖國)과 항일지사(抗日志士) 철주(喆周)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 진씨는 파주시에 총 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기 진씨(豊基秦氏)

풍기 진씨(豊基秦氏)의 시조는 진필명(秦弼明)으로 당나라 고종조(高宗朝)에 병부시랑(兵部侍郎)을 지냈다. 필명(弼明)은 624년(신라 진평왕 46)에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지용(智勇)과 지기(志氣)가 뛰어났으며, 660년(신라 무열왕 7) 소정방(蘇定方) 등과 함께 나당연합군의 장수로 참전하여 백제를 공략·멸망시켰고 신라에 귀화하여 우리나라 진씨(秦氏)의 시조(始祖)가 되었다고 『풍기진씨족보(豊基秦氏族譜)』에 기록하고 있다. 그 후 필명의 15세손 질명(礩溟)이 고려 의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으로 정중부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기주부원군(基州府院君)에 봉해졌으므로 본관을 풍기(豊基)로 하게 되었다. 그때 질명의 두 형 질직(礩直)과 질황(礩晃)도 함께 공을 세워 양주군(浪州君)·영원군(永原君) 등으로 봉해졌으며, 그들의 후대에서 삼척(三陟)과 영춘파(永春派)로 분적(分籍)되었다.

풍기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은풍(殷豊)·기천(基川)의 합명(合名)이며, 본래 신라 기목진(基木鎭)이었는데, 고려 초에 기주현(基州縣)으로 개칭하고 1018년(현종 9) 길주(吉州: 안동)에 딸리게 하였으며, 1390년(공양왕 2) 은풍현(殷豊縣)을 병합하였다. 1413년(태종 13) 기천현(基川縣)으로 개칭하였다가 곧 이어 은풍(殷豊)과 기천(基川)의 2현을 합하여 풍기(豊基)로 고쳐 군(郡)으로 승격시켰다. 1914년 영주군(榮州郡)에 병합(併合)하였다.

역사인물로는 보승장군(保勝將軍) 원(元)의 아들 효정(孝貞)이 충선왕 때 문과에 장원하여 봉승랑(奉承郎)을 거쳐 중문지후(中門祗候)를 지냈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그의 아들 중길(中吉)이 권부(權溥)의 문하(門下)에서 글을 배워 통직랑(通直郎)을 지낸 후 계림판관(鷄林判官)이 되었다.

무성군(茂城君) 예남(禮南)의 후손인 재해(再奚)는 1713년(숙종 39) 어용모화도감(御容模畫都監)의 화공(畫工)이 되어 숙종의 전신(全身)을 그려 상을 받았고,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 때는 의병을 일으켜 난을 평정했으며 후에 첨절제사(僉節制使)를 역임하였다.

그 밖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낸 동익(東益)·동석(東奭), 독립운동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학신(學新)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풍기 진씨는 파주시에 총 8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동 진씨(廣東陳氏)

우리나라 진씨(陳氏)의 시조는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이 일어나 조선이 위태롭게 되자 명나라 어위도총관(御倭都摠管)·전군도독부 도독(前軍都督府都督)으로서 수병 5천을 거느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강진 고금도(古今島)에서 이순신과 더불어 전공을 세워 광동백(廣東伯)에 봉해진 진린(陳璘)이다. 그는 본래 중국 광동지방에서 대대로 현유(賢儒)와 현관(顯官)을 배출한 명문(名門)의 후손이다. 그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뒤에 태자소보(太子少保)에 추증되었고 그의 손자 영소(泳溯)는 감국수위사(監國守衛使)를 지내다가 명나라가 망하자 벼슬에서 물러나 남경(南京)으로부터 배를 타고 건너와 남해(南海)의 장승포(長勝浦)에 표착하였다. 그러다가 조부인 린(璘)이 공을 세웠던 강진 고금도로 옮겨 살다가 다시 해남현(海南顯) 내해리(內海里)로 이거하여 정착하였는데 여기서부터 광동 진씨(廣東陳氏)의 뿌리가 내리게 되었다.
광동은 중국 남단에 위치하여 남지나해에 면한 광동성(廣東省)의 성도(省都)인 광주(廣州)의 통칭(通稱)으로, 일찍이 해륙교통의 요충을 차지하여 화남(華南)에 있어서의 정치·경제·문화의 대중심지이다.
역사인물로는 감국수위사(監國守衛使) 영소(永溯)의 아들 석문(碩文)이 공조참의에, 손자 천룡(天龍)은 한성부 좌윤에 추증되었고, 기환(幾瓛)은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을 지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동 진씨는 파주시에 총 1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 진씨(三陟陳氏)

삼척 진씨(三陟陳氏)의 시조는 진경(陳鏡)이다.
그는 고려 태조 때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시중(侍中)·상서(尙書)·태보(太保) 등을 역임하고 이어 문하시랑평장사에 올랐다. 그의 선계는 상고할 수 없으나, 경의 16세손 의(懿)가 1296년(충렬왕 2) 삼척군(三陟郡)에 봉해진 것과, 조선 초에 의주 병마사(義州兵馬使)를 역임한 충귀(忠貴)의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 녹권에 본관이 삼척(三陟)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누대에 걸쳐 삼척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삼척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진한의 실직국(悉直國)이 있던 지역인데, 102년(신라 파사왕 23) 신라에 합병되어 만약(滿若)·파리(波利)로 불리었다. 505년(지증왕 6)에 실직주(悉直州)라 하였고, 639년(진덕여왕 8) 진주(眞珠)로 고쳤다가 757년(경덕왕 16)에는 삼척군으로 개칭하여 명주도독부(溟州都督府: 강릉) 관하에 두었다. 940년(고려 태조 23)에는 척주(陟州)라 개칭하였고, 1018년(현종 9)에는 삼척현으로 강등되어 동계(東界)에 속하였다가 1377년(우왕 3)에 다시 삼척군으로 승격되었다. 1393년(태조 2) 삼척부로 승격되었고, 1413년(태종 13)에는 도호부가 설치되어 조선시대 동안 명맥이 이어졌다.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정으로 강릉부 삼척군이 되었고, 1896년 강원도 삼척군이 되었다. 1914년 군면 폐합으로 말곡면이 부내면으로 폐합되었다가 1917년 부내면이 삼척면으로 개칭되었다. 1980년에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되어 동해시로, 1981년 장성읍과 황지읍이 통합되어 태백시로 각각 승격되어 분리되었다. 1986년에는 삼척읍이 시로 승격되어 분리되었다. 1995년 삼척군이 삼척시에 통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조선 개국공신 충귀(忠貴)의 증손 암수(巖壽)가 무과에 급제하여 연산군 때 임천군수(林川郡守)를 역임하였고, 그의 아들 3형제가 모두 학문에 뛰어났는데 특히, 둘째 아들 극효(克孝)는 학행이 뛰어나 사림(士林)의 추앙을 받았다. 셋째 아들 극성(克誠)은 조선조에 만호(萬戶)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 영암(永闇)은 지극한 효행으로 정려가 내려져 가문을 빛나게 하였다.
그 밖에 인조반정 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오른 여기(汝起), 숙천부사(肅川府使)를 지낸 재성(再成), 이조참판을 지낸 행은(行殷)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척 진씨는 파주시에 총 5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양 진씨(驪陽陳氏)

여양은 충청남도 홍주(洪州) 남쪽에 위치하던 지역이다. 본래 백제(百濟) 사척량현(沙尺良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신량(新良)으로 개칭하여 결성군(結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초에 여양(驪陽)으로 고쳐서 다시 설치하였다가 1018년(현종 9) 연주(蓮州)에 속하였으며 지금은 폐했다.

여양 진씨(驪陽陳氏)는 고려 인종 때의 장인 진총후(陳寵厚)를 시조로 한다. 『여양진씨대동보(驪陽陳氏大同譜)』에 의하면 총후는 고려 예종조에 호분위대장군(虎賁衛大將軍)을 지내고,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을 토평하는 데 공을 세워 신호위대장군(神號衛大將軍)에 오르고 여양군(驪陽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여양(驪陽)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역사인물로는 총후(寵厚)의 아들 준(俊)이 좌군병마사(左軍兵馬使)·참지정사(參知政事)·병부상서(丙部尙書) 등을 지낸 후 덕장(德將)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화는 병부상서(丙部尙書) 광수(光脩)의 셋째 아들로 고려 신종(神宗) 때 문과에 올라 벼슬이 지공주사(知公州事)에 이르렀다.

조선에서는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고 중종 때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복창(復昌)이 부제학(副提學)·부평부사(富平府使) 등을 지낸 후 대사헌(大司憲)에 올랐고, 기개(氣槪)가 높았던 식(寔)은 명종 때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여 이조·병조정랑을 거쳐 형조참의를 지낸 후 의주목사(義州牧使)로 나갔다가 대사간과 부제학을 역임하였다.

병부상서(丙部尙書) 광수(光脩)의 후손인 무성(武晟)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휘하에서 중군(中軍)으로 당포해전(唐浦海戰)에서 공을 세웠으며, 경문(景文)은 덕망 높은 학자로 명망이 높았다.

그 밖에 현감(縣監)을 지낸 헌(憲), 예조좌랑(禮曹佐郞)을 역임한 만재(晩宰), 첨사(僉使)를 지낸 효겸(孝謙)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양 진씨는 파주시에 총 7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 차씨(延安車氏)

연안(延安)을 단본(單本)으로 하는 차씨(車氏)는 고대 중국의 명군인 황제(黃帝: 성은 姬, 휘는 軒轅)의 후예이다. 우리나라 차씨(車氏)의 연원은 황제의 후손 사신갑(似辛甲)이 중국에서 고대조선에 망명하여 평양(平壤) 일토산(一土山) 아래에 정착하여 살며 왕조명(王祖明)으로 변성명하였고 그 후손 왕몽(王蒙)이 정치적 화를 피하기 위하여 전(田)·신(申) 등으로 개성하였다가 후에 차무일(車無一)로 변성명하여 차씨(車氏)의 시원(始源)을 이루게 되었다.
신라 초기에 승상(承相)을 지냈던 차무일(車無一)의 아들 8형제 중 일곱째 차신을(車神乙: 본명 王林)이 차씨(車氏)의 성(姓)을 계승하여 후손 대에서 25명의 승상(承相)이 배출되어 명문대가의 기틀을 다졌다.
연안은 황해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 동음홀(冬音忽)·고염성(鼓鹽城)이라 부르다가 통일신라 때 해고군(海皐郡), 고려 때 염주(鹽州)·영응현(永應縣)·복주(復州)·석주(碩州)·온주(溫州) 등으로 고쳐 불렀고, 충선왕 때 연안부(延安府)로 고쳤다. 1895년 군(郡)이 되었으며 1914년 배천군(白川郡)과 합하여 연백군(延安府)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직사관(直史舘) 거수(擧首)의 아들 약송(若松)이 고려 신종(神宗) 때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와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내고 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에 이르렀으며 병마사(兵馬使) 덕위(德威)의 아들 척(倜)이 고종(高宗) 때 어사대부(御使大夫)와 참지정사를 역임하였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했던 원부(原頫)는 성리학에 정통하여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등과 함께 당대에 명유(名儒)로 일컬어졌으며 고려 말에 정국이 혼란해지자 평산(平山)의 수운암동(水雲巖洞)에 은거하였다. 원부의 조카 운혁(云革)은 경성(鏡城)에 살다가 이시애의 난이 일어나자 정휴명(鄭休明)·박성장(朴成章)·조두(曺斜) 등과 더불어 이시애 납치 작전을 수행하다가 적에게 잡혀 단천(端川)에서 살해당했다.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으로 문명을 떨쳤던 천로(天輅)는 1577년(선조 10)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여 개성교수(開城敎授)를 지내고 정자(正字)가 되어 고향 사람인 여계선(呂繼先)이 과거를 볼 때 표문(表文)을 대신 지어 주어 장원급제를 시킨 일로 명천(明川)에 유배되었으나 문재(文才)가 있어 풀려 나와 명(明)나라에 보내는 대부분의 외교문서를 담당하여 '동방문사(東方文士)'로 일컫어졌다. 천로의 아우 운로(雲輅)는 1583년(선조 16) 알성문과에 장원하여 전의현감(全義縣監)과 봉상시판관(奉常寺判官)을 거쳐 교리(敎理)를 지냈고 임진왜란에 공을 세워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에 책록되었으며 문장(文章)이 탁월하여 형 천로(天輅)와 더불어 당대의 명사(名士)였던 마상원(馬尙遠)과 함께 '양차일마(兩車一馬)>' 불렸다.
한말에는 항일단체인 '포우단(砲牛團)'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도선(道善), '대동공보(大同共報)'를 창간하여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앙양하고 애국지사의 독립투쟁을 배후에서 후원했던 석보(錫甫), 화성군 쌍봉산(華城郡雙峰山) 만세시위의 총지휘자로 일본 경찰을 살해하여 서대문형무소에서 9년 2개월간이나 복역한 희식(喜植), 신민회에 가담하여 독립운동을 한 후 임시정부 비서장(秘書長)을 역임한 이석(利錫)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안 차씨는 파주시에 총 1,49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연안 차씨 창주공파는 7대조 덕천을 입향조(入鄕祖)로 하는데 탄현면 대동리에 10호 정도 살고 있다. 선영은 탄현면 금산1리 산 22이다.
파주에 살고 있는 연안 차씨 창주공파(滄州公派)는 약 300년 전에 7대조 차덕천을 입향조(入

鄕祖)로 하여 탄현면 대동리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입향조의 묘는 탄현면 금산1리 산 22번지에 있으며 대동리에는 많을때는 40호 이상 살았던 시기도 있었는데 현재는 10호 정도 살고 있다. 창주공파 교위공문중(校尉公門中) 후손으로 전 탄현우체국장을 지낸 차익준 씨가 있다.

인천 채씨(仁川蔡氏)

인천 채씨(仁川蔡氏)의 시조는 채선무(蔡先茂)이다.
그의 선계는 문헌이 없어 상고할 수 없으며, 그가 고려 때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使)에 추증되고 인천(仁川)에 세거하였으므로 후손들이 인천을 관향으로 하게 되었다.
인천은 경기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매소홀현(買召縣)이라 칭하다가 신라 경덕왕 때 소성(邵城)으로 개칭, 율진군(栗津郡: 지금의 시흥군)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1018년(현종 9) 수주(樹州)에 속하였으며 숙종 때 경원군(慶源郡), 인종 때 인주(仁州), 1390년(공양왕 2)에 경원부(慶源府)로 계속 승격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392년(태조 원년) 인주로 환원, 1413년(태종 13)에 인천군(仁川郡)이 되었으며, 1460년(세조 6)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었으나 1688년(숙종 14)에는 현으로 강등, 1698년 다시 부로 환원하였다. 1914년 인천의 관할구역이 구(舊) 제물포를 중심으로 한 인천항의 신시가지로 축소되고 구(舊) 인천읍과 부평이 통합되어 부천군(富川郡)이 되었다. 1949년 인천시(仁川市)로 개칭되고 1963년 부천군 작약도(芍藥島)를 편입하였으며 1968년부터 구제(區制)가 실시되었다. 1981년 7월 1일 직할시로 승격, 경기도에서 분리 독립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그의 아들 신징(愼徵)이 나라에 공을 세워 대장군(大將軍)을 거쳐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에 올랐고, 손자 보문(寶文)은 고려 의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부상서 등을 지냈으며, 뒤에 금성백(錦城伯)에 봉해졌다.
시조의 10세손 귀하(貴下)는 고려 말에 정몽주 등과 교유하며 공양왕 때 호조전서(戶曹典書)를 지냈으나,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불사이군의 충절로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은거하였다.
조선에서는 부사(府使) 신보(申保)의 아들 수(壽)가 1469년(예종 1) 추장문과(秋場文科)의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에 장원하였으며, 부수찬(副修撰)으로 춘추관(春秋館)의 기사관(記事官)이 되어 『세조실록(世祖實錄』과 『예종실록(睿宗實錄)』 편찬에 참여했다. 후에 대사성(大司成)·호조참판(戶曹參判) 등을 역임하고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나서 정국사등공신(靖國四]等功臣)으로 인천군(仁川君)에 봉해졌다. 그의 손자(孫子) 무일(無逸)은 예조정랑·헌납(獻納)을 거쳐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에 이르렀으며, 음률(音律)·의학(醫學)·복서(卜筮) 등에도 정통했다.
그 밖에 부제학(副提學)을 지낸 무택(無擇), 학자로 유명한 응린(應麟)·선견(先見)·이항(以恒)·몽연(夢硯) 등이 있다.
한말에는 기중(其中)이 광복단(光復團)을 조직하여 군자금 모집과 독립운동에 몸 바쳤고, 상덕(相悳)은 1925년 3월 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府)가 일본군에게 참패하자 자결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채씨는 파주시에 총 27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강 채씨(平康蔡氏)

평강 채씨(平康蔡氏)의 시조는 채송년(蔡松年)이다.
그는 1230년(고종 17) 최향(崔珦)의 난이 일어나자 병마사(兵馬使)로 이를 평정하여 대장군(大將軍)에 올랐고, 그 후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태사(太師)·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상호군(上護軍) 등을 거쳐 태자태사(太子太師)에 이르렀다. 그의 맏아들 정(楨)이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로 평강군(平康君)에 봉해졌고 둘째 자화(子華)는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상장군(上將軍)·판이부사(判吏部事) 등을 지냈으므로, 후손들은 본관을 평강(平康)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평강은 강원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부양현(斧壤縣)·사내현(斯內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광평(廣平)으로 고쳐서 부평군(富平郡)에 속하게 하였으며 고려 1018년(현종 9)에 평강(平康)으로 개칭하고 동주(東州)에 예속시켰다. 1172년(명종 2)에 감무를 두었다가 뒤에 김화(金化) 감무가 겸하였으며, 1390년(공양왕 2)에 다시 감무를 두었다. 1413년(태종 13)에는 현감(縣監)을 두었다가 1895년(고종 32)에 군(郡)으로 승격시켰다.
역사인물로 정승(政丞) 종린(宗璘)의 7대손 세영(世英)은 중종과 명종 대에 걸쳐 호조판서·좌참찬 등을 역임한 명신이다. 한편 진사(進士) 충연(忠衍)의 아들인 유후(裕後)는 수찬(修撰)·이조좌랑(吏曹佐郎)·사간(司諫) 등을 지냈고 병자호란 때 왕을 호종(扈從)하였다. 제공(濟恭)은 1573년(현종 14) 호서 암행어사가 되어 균역)과 소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세금에 대한 백성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올렸으며 1758년(영조 34) 도승지(都承旨)로 『열성지장(列聖誌狀)』의 편찬에 참여했다. 그리고 1781년(정조 5)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으로 서명응(徐明膺)과 함께 『국조보감(國朝寶鑑)』을 편찬했다.
그 밖에 철종 때 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를 지낸 동건(東健)이 고종(高宗) 때 개성부안무사(開城府按舞使)를 거쳐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와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올랐으며, 동식(東軾)의 아들 광묵(光默)은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의병(義兵)을 일으켜 홍성(洪城)에서 일본군과 격전하다가 아들 규대(奎大)와 함께 전사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강 채씨는 파주시에 총 80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 천씨(潁陽千氏)

영양 천씨(潁陽千氏)의 시조(始祖) 천암(千巖)은 중국 서촉(西蜀)의 천고봉 만인암(千古峰萬仁巖)에서 출생하였으므로 그 지명을 따서 성(姓)을 천(千)으로 하고 이름을 암(巖)이라 하였다고 한다.

영양은 현재 중국 하남성 등봉현 영양진으로 고대 중국의 왕도였던 낙양과 정주 사이의 숭산 근처에 위치하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곳이다.

『영양천씨매헌공가승보(潁陽千氏梅軒公家乘譜)』의 기록에 의하면 시조 천암(千巖)은 1368년(명나라 흥무 원년) 도총장(都總將)을 지내며 나라에 공훈을 세워 판도승상(版圖丞相)에 이르렀고, 후손들이 대대로 벼슬을 역임하며 영양(潁陽)에 살았으므로 본관을 영양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중시조(中始祖) 천만리(千萬里)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황제의 명을 받아 총수사(總輸使) 이여송(李如松)과 더불어 조병영양사(調兵嶺糧使) 겸 총독장(總督將)으로서 두 아들 상(祥)과 희(禧)를 데리고 철기군(鐵騎軍) 2만을 인솔하여 조선에 건너와 평양(平壤)·곽산(郭山: 함경북도)·동래(東來) 등지에서 대첩(大捷)을 거두었고, 정유재란 때는 울산(蔚山) 등지에서 왜군을 섬멸했다. 전란이 평정되자 명나라 장병들은 귀국했으나, 만리(萬里)는 휘하 장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두 아들과 함께 조선 땅에 남아 우리나라 천씨(千氏)의 시원(始源)을 이루게 되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그의 혁혁한 전공을 치하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로 봉조하(奉朝賀)의 벼슬을 내리고, 화산군(花山君)에 봉했으며 30결(結)의 사패지(賜牌地)를 하사(下賜)하고, 맏아들 상(祥)은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에, 차남 희(禧)는 평구도 찰방(平邱道察訪)에 각각 임명하였다. 그 후 숙종(肅宗)때 왜란 평정의 은혜(恩惠)를 잊지 못하여 명(明)나라 황제를 추모하기 위해 궁중에 대보단(大報壇)을 설치하고, 화산군(花山君) 천만리(千萬里)도 함께 향사(享祀)하도록 했다. 순종(純宗) 때는 가헌(家憲)의 뜻이 담긴 충장(忠壯)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역사인물로는 무과에 급제하여 어모장군으로 선전관(宣傳官)을 역임했던 경주(耕疇)와 호조정랑을 지낸 태주(泰疇) 형제가 유명했으며, 찰방(察訪) 희(禧)의 아들 거주(耟疇)는 영월군수(寧月郡守)와 이원현감(利原縣監)을 각각 역임하였다.

통훈대부(通訓大夫)로 선공감역(線工監役)을 지낸 장주(長疇)와 광주부윤(廣州府尹) 찬명(贊銘),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순명(順銘), 군자감정(軍資監正) 인명(仁銘), 칠원현감(漆原縣監) 경필(慶弼), 형조참의(刑曹參議) 우열(宇烈),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을 지냈던 해(海),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록(淥), 예조참판(禮曺參判) 용서(龍瑞),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인운(仁雲) 등도 뛰어났다.

그 밖에 세헌(世憲)은 고종(高宗) 때 외부주사(外部主事)를 역임한 후 도미하여 안창호(安昌浩)와 함께 독립운동을 벌이고 상해임정(上海臨政)에 참여했으며, 세광(世光)은 해방 후에 성결교 서울 신학교를 창설하여 이사(理事)가 되고 십자군 전도대장으로 전도사업에 공헌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양 천씨는 파주시에 총 60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 최씨(江陵崔氏)

강릉 최씨(江陵崔氏)는 본관을 같이하면서도 상계를 달리 하는 다음 3계통(系統)이 있다. 첫째는 고려 태조 왕건의 딸 옥경대주(玉慶大主)와 혼인하여 부마로 대경(大卿)에 올랐던 최흔봉(崔欣奉)의 계통이고, 둘째는 고려 때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삼한벽상개국찬화공신(三韓璧上開國贊化功臣)에 책록되어 영첨의좌정승(領僉議左政丞)을 역임한 후 경흥부원군(慶興府院君)에 봉해졌던 충무공(忠武公) 최필달(崔必達)의 계통이며 또 다른 한 계통은 충숙왕의 부마로 삼중대광(三重大匡) 판군기시사 (判軍器寺事)에 올랐던 충재(忠齋) 최문한(崔文漢)을 시조(始祖)로 하는 계통이다.

강릉은 강원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상고시대에는 창해(滄海)와 임둔(臨屯)에 속했다가 313년(고구려 미천왕 14)에 개칭하여 하서량(河西良)·하슬라(何瑟羅)라 하였다. 550년(진흥왕 11)에 신라의 영토가 되어 선덕여왕 때 소경(小京)으로 삼았다가 태종무열왕조에 하서주(河西州)로 개편, 경덕왕 때는 명주(溟州)로 고쳤고, 고려 태조가 동원경(東原京)이라 칭하고 임영관(臨瀛館)을 세웠으며 940년(태조 23)에 다시 명주로 고쳤다. 성종 때는 처음에 하서부(河西府)로 하다가 986년(성종 5) 명주도독부(溟州都督府)로 개칭하고 뒤에 목(牧)으로 하였으며, 995년(성종 14) 지방행정구역을 10도(道)로 나눌 때 삭방도(朔方道)의 중심지가 되어 영동 일대와 영서(嶺西)의 춘천(春川) 이북 등지를 관할하였다. 이후 여러 변천을 거치다 1896년(고종 33) 13도제(道制) 실시로 강원도 강릉군(江陵郡)이 되어 21개 면(面)을 관할하다가 1931년 강릉면이 읍(邑)으로 승격되고, 1955년 9월 1일 성덕면(城德面)과 경포면(鏡浦面)을 편입하여 강릉시(江陵市)가 되었다.

최흔봉 계통 강릉 최씨의 역사인물로는 고려 태조의 부마(駙馬)로 대경(大卿)에 올랐던 최흔봉(崔欣奉)의 후손에서는 그의 12세손 입지(立之)가 고려조에서 문하평리(門下評理)와 상호군(上護軍)을 지내고, 평장사(平章事)에 오른 후 강릉군(江陵君)에 추봉되어 그의 후손들이 강릉에 뿌리내렸다.

입지(立之)의 장남 안소(安沼)는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상주국(上柱國) 강릉부원군(江陵府院君)에 진봉되었고, 차남 안영은 예조·이조의 전서(典書)를 역임하고 예성군(芮城君)에 봉해졌고, 막내 안언(安諺)은 이조전서를 역임하였다.

그 밖에 강릉군(江陵君)에 봉해졌던 유련(有漣), 전법판서(典法判書)를 지낸 유의(有漪) 형제가 유명하였고, 유련(有漣)의 아들 이(迤)는 조선 초기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와 공조(工曹)및 형조(刑曹), 호조(戶曹)의 판서(判書)를 두루 역임하였고, 유의(有漪)의 아들인 수(修)는 대사간(大司諫)을 지냈다.

한편, 최필달 계통의 강릉 최씨의 역사인물로는 충무공(忠武公) 필달(必達)의 증손 숭언(崇彦)이 고려 때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명주부원군(溟洲府院君)에 봉해졌으며, 13세손 한주(翰注)는 충렬왕 때 대중대부(大中大夫)로 종정경(宗正卿)과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내고 명주군(溟洲君)에 봉해졌다.

고려 말에 정선 군수(旌善郡守)를 지내고 중정대부(中正大夫)로 삼사 좌윤(三司左尹)을 역임했던 동강(東崗) 원량(元亮)의 손자 치운(致雲)은 조선 전기의 명신으로 세종 때 훌륭한 치적을 남겼다. 치운(致雲)의 둘째 아들 응현(應現)은 단종 때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였고 사헌부집의·승정원부승지·예조참의·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대사헌(大司憲)·경주부윤(慶州府尹)·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등을 역임했다. 응현(應現)의 셋째 아들 세절(世節)은 대사헌)·한성부

우윤, 형조·호조의 판서를 지냈다. 임진왜란 때 28세로 백의창의(白衣倡義)하여 전공을 세웠던 배천(配天)은 선조로부터 어의(御衣)와 망건(網巾) 등을 하사받고 회령교수(會寧敎授)와 사복시 첨정을 역임했다.
문오(文澳)는 군수(郡守)를 거쳐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을 역임했고, 문활(文活)은 군수(郡守)를 지내고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으며, 문발(文潑)은 세속의 명리(名利)를 초탈하고 시주(詩酒)와 더불어 보내며 595수(首)의 주옥(珠玉) 같은 시(詩)를 3권 2책에 담은 『취석시집(醉石詩集)』을 나겼다. 문식(文湜)은 1630년(인조 8) 중형인 문활(文活)과 함께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지평(持平)을 거쳐 헌종(憲宗) 때 장령(掌令)고 헌납(獻納)을 지내고 숙종조(肅宗朝)에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승지(承旨)·대사간(大司諫)·예조참판·도승지(都承旨) 등을 역임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릉 최씨는 파주시에 총 1,15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 최씨(江華崔氏)

강화 최씨(江華崔氏)의 시조는 최익후(崔益厚)이다.
경주 최씨 시조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의 후손인 그는, 고려 중엽 상서좌복야(尙書左僕야)를 지냈고 정당문학에 올라 강화(江華)에 터를 잡고 살았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본관을 강화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강화는 경기도에 위치한 섬이다. 아득한 옛날 갑비고차(甲比古次)라 하다가 고구려 때 혈구군(穴口郡), 신라 때 해구군(海口郡)으로 불렸다. 그 후 940년(태조 23) 현재의 지명인 강화(江華)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2세 효장(孝章)이 고려 때 도평리(都評理)를 지냈으며 3세 중의(重義)는 시중(侍中)을 지냈다. 중의(重義)의 동생 광의(光義)는 지도성사(知都省事)를 역임하였고, 광의(光義)의 아들 근(瑾)은 1232년(고종 19) 상장군(上將軍)으로 이통(李通)의 난을 토평하고 수문각대제학(修文閣大提學)을 거쳐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올라 문하시중(門下侍中)과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하였다. 그의 아들 종수(宗秀)가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을 거쳐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 상서우복야(尙書右僕야)를 지냈으며, 손자 유(蕤)는 선부전서(選部典書)·수문각 대제학(修文閣大提學)·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예부상서 등을 역임했고, 수진(秀眞)은 감찰어사(監察御使)를 거쳐 직제학(直提學)을 지냈다. 백전(伯全)의 손자이며 판사(判事)를 역임한 홍(泓)의 아들인 용소(龍蘇)는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지냈고 1394년(태조 3)에는 회례사(回禮使)로 일본(日本)에 건너가 포로로 잡혀간 본국인(本國人) 570여 명을 데리고 왔으며, 1397년(태조 6)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를 거쳐 다음 해 강원도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가 되고 1400년(태종 1) 도진무(都鎭撫)를 역임한 후 1403년(태종 3) 승녕부윤(承寧府尹)이 되었다. 1413년(태종 13)에는 형조판서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明)나라에 다녀왔으며 공조판서·좌군도총제(左軍都摠制)를 역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에 이르렀다.
용소(龍蘇)의 동생 귀수(龜壽)는 벼슬이 사복경(司僕卿)에 이르렀는데 조선이 개국하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가 충신의 절개를 지켰다. 수진(秀眞)의 아들 항(恒)은 감찰어사(監察御使)를, 항의 아들 유간(有澗)은 개성소윤(開城小尹)을 지냈다. 중종 때 예조판서를 역임한 한문(漢文)은 귀수(龜壽)의 증손이며, 그의 아우 자윤(自潤)은 기묘사화(己卯士禍)의 원흉인 남 곤(南袞) 일당의 비행을 논척(論斥)하고 양주 사천(楊州沙川)으로 퇴거하여 살았다.
귀수(龜壽)의 현손 수(琇)는 1590년(선조 23) 과거에 등제하여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역임하고 개성유수(開城留守)를 거쳐 판윤(判尹)에 이르렀다. 시망(時望)은 임진왜란 때 창의하였고, 희립(希立)은 선조 때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의 휘하에서 공을 세우고, 김천일(金千鎰)·최경회(崔慶會) 등과 함께 진주 싸움에서 순절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화 최씨는 파주시에 총 9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최씨(慶州崔氏)

경주 최씨(慶州崔氏)는 사로(斯盧)의 6촌(村) 중 돌산고허촌장(突山高墟村長: 사량부) 소벌도리(蘇伐都利)를 원조(遠祖)로 받들고 그의 24세손으로 전하는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을 시조로 하여 누대로 세거해온 경주(慶州)를 관향으로 삼아 문호(門戶)를 열었다.
경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기원전 57년 이곳에 6촌(村)이 연합하여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국호(國號)를 서라벌(徐羅伐)·사로(斯盧)·사라(斯羅)라 하였다. 65년(탈해왕 9) 시림(始林)에서 김씨(金氏)의 시조 김알지가 탄생하여 국호(國號)를 계림(鷄林)으로 고쳐 삼았다가 307년(기림왕 10)에 신라(新羅)로 하였다. 935년(태조 18)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등극한 후 처음으로 경주(慶州)라는 명칭이 생겼다. 987년(성종6) 동경(東京)으로 개칭하고 1008년(목종11) 별칭(別稱)으로 낙랑군(樂浪郡)이라 하다가 충렬왕 때 계림부(鷄林府)로 개칭하였고, 1413년(태종 13)에 와서 경주부(慶州府)로 개칭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변천을 거쳐 1895년 경주군(慶州郡), 1955년에는 경주시(慶州市)로 승격되었다.
역사인물로 시조의 손자 승로(承露)는 태조의 뒤를 이은 혜종(惠宗)을 비롯하여 정종(定宗)·광종(光宗)·경종(景宗)을 거쳐 6대 성종(成宗)에 이르기까지 다섯 임금을 모시면서 고려 창업의 여러 가지 모순과 신라로부터 이어져온 적폐(積弊), 또는 문물제도의 미비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혼란들에 대하여 세밀히 분석하여 군제(軍制)의 개편, 과다한 불교행사의 중지, 무역의 절제, 지방관제의 확정, 관복의 제정, 승려의 횡포 엄금, 공역(貢役)의 균등, 우상(偶像)의 철폐, 신분제도의 확립, 개국공신 후손의 등용등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을 간추린 <시무28조>를 상소하여 이를 시행케 함으로써 고려왕조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계림군(鷄林君) 탁(倬)은 벼슬이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에 이르렀으며, 충렬공(忠烈公) 광위(光位)는 고려 명종(明宗) 때 왜적을 토평하는 데 공을 세워 초명(初名)인 광훈(光勳)에서 광위(光位)로 사명(賜名)받았고 벽상삼한삼중대광으로 내사령(內史令)에 이르러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봉해졌다. 정랑공(正郞公) 호(號)는 고려 정종(定宗) 때 동경 부유수(東京副留守)로 왕명을 받아 『전후한서(前後漢書)』·『예기정의(禮記正義)』·『모시정의(毛詩正義)』 등의 명저를 저술하여 문명을 떨쳤으며 사성공(司成公) 예(汭)는 이조정랑과 성균관의 사성(司成)을 지냈고, 문밀공(文密公) 제(堤)는 충선왕 때 합문지후(閤門祗侯)를 지내고 밀성군(密城君)에 봉해졌다.
문정공(文正公) 해(瀣)는 원(元)나라 제과에 급제하여 요양로 개주판관(遼陽路蓋州判官)을 지내고 귀국한 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이르렀으며, 화숙공 현우의 5세손 형손(亨孫)은 장흥부사(長興府使)를 지내고 적개공신(敵愾功臣)에 올라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그의 아들 한홍(漢洪)은 병마절도사를 지낸 후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올랐다. 종질 호(號)는 무과에 장원하여 함경남도 병마절도사를 거쳐 충청도 수군절도사에 올라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했고 정유재란 때 칠천량(漆川梁) 해전에서 원균(元均) 등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여 청난2등공신(淸難二等功臣)으로 계성군(鷄城君)에 추봉되었다. 화숙공 현우(玄祐)의 7세손 숙생(淑生)은 대사간과 대사헌을 거쳐 우찬성에 이르렀고, 진립(震立)은 남한산성이 포위당하자 노장(老將)은 용인험천(龍仁險川)에서 순절했다. 한쪽 눈에 반안경을 쓰고 그림을 그렸던 호생관(毫生館) 북(北)은 특히 산수화(山水畵)에 뛰어났다.
그 밖에 '칠계선생(漆溪先生)'으로 일컬어졌던 흥원(興源), 동학교조(東學敎祖) 수운(水雲) 제우(濟愚), 척사위정(斥邪衛正)의 운동을 지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며, 항일구국항쟁의 최선봉에

나섰던 한말 최대의 거유인 면암(勉庵) 익현(益鉉), 일본의 과중한 과세에 항거했던 봉환(鳳煥), 세종대왕기념사업회(世宗大王紀念事業會)를 만들어 우리나라 한글 발전에 공헌했던 외솔 현배(鉉培), 독립운동가인 창식(昌植)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주 최씨는 파주시에 총 6,73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최씨 파주종중 회장은 최광일, 총무는 최호영이다.
파주에 살고 있는 경주 최씨(화숙공/금위공 유검파) 파시조(派始祖) 는 최유겸이며 입향조(入鄕祖)는 20대조인 최시립(1550~1603)이다. 16세기 중반 법원읍 갈곡리 칡울마을에 정착하였다. 현재 법원읍 갈곡리 칡울에 6호가 살고 있는데 460년째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고 있다. 매년 10월 셋째 일요일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법원읍 오현리 산 62번지이다.
경주 최씨 화숙공파는 4대조를 입향조(入鄕祖)로 하고 있으며 탄현면 갈현리에 후손들이 살고 있다.

광주 최씨(廣州崔氏)

광주 최씨(廣州崔氏)는 경주 최씨에서 분적한 계통으로 조선 때 장사랑(將仕郞)으로 훈도(訓導)를 역임하고 평안도 안주(安州)에서 정착 세거한 최득보(崔得寶)를 시조로 받들고 거의 전 세거지인 광주(廣州)를 본관으로 삼가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광주는 경기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마한의 일부로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準王)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으로 망명하여 한왕(韓王)이 되어 세운 회안국(淮安國)의 일부였다. 371년 백제의 근초고왕은 남한산(南漢山: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 이도(移都)하여 이곳을 한성(漢城)이라 불렀고, 553년 (백제 성왕 31, 신라 진흥왕 14) 신라에게 나라를 빼앗겨 신라의 한산주(漢山州)가 되었다가 756년(경덕왕 15) 한주(漢州)로 개칭하였다. 940년(고려 태조 23)에 광주(廣州)로 고쳤고, 여러 차례 변천을 거듭한 후 1895년 광주군(廣州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 득보의 아들 덕강(德江)은 조선에서 통덕랑(通德郞)에 오르고 참의에 추증되었고, 손자 진산(進山)과 인달(仁達)은 각각 참의와 군수를 지냈다. 그 외 진산의 아들 해옥(海玉)이 병조참의를 지냈으며 손자 한웅(韓雄)이 예조참의를 지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최씨는 파주시에 총 1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낭주 최씨(郎州崔氏)

낭주 최씨(郎州崔氏)의 상계는 문헌이 실전되어 상고할 수 없으며, 최흔(崔昕)이 낭주에 토착한 사족의 후예로 신라 말에 원보(元甫)를 역임하고 영암(靈岩)에 정착하여 가세가 크게 번창했으므로 후손들이 흔(昕)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낭주(郎州)로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낭주(朗州)는 전라남도 영암의 옛 이름이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에 속하여 월내군(月奈郡)이라 칭하다가 통일신라시대에 영암군(靈岩郡)이 되었다. 995년(고려 성종 14)에 낭주군(郎州郡)이라 개칭하였다가 1096년(헌종 9)에 영암군(靈岩郡)으로 복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후손 안우(安雨)가 문과에 급제하고 봉열대부(奉列大夫)와 검교군기시소감(檢校軍器侍少監)을 거쳐 재상(宰相)에 올랐다. 안우(安雨)의 아들 운(雲)은 조선에서 현감을 지냈다. 운(雲)의 아들 네 명이 모두 벼슬에 올랐는데 장남 양(漾)이 지현(知縣)에, 차남 장은 현령(縣令)에 올랐고 셋째 상(湘)과 넷째 영(渶)은 계공랑(啓功郎)과 찰방(察訪)을 각각 역임했다.
그 밖에 치호(致湖)가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 교리(弘文館敎理)를 거쳐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올랐으며, 산두(山斗)는 성리학(性理學)에 정통하여 많은 명사(名士)를 배출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낭주 최씨는 파주시에 총 14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주 최씨(東州崔氏)

동주 최씨(東州崔氏)의 시조는 최준옹(崔俊邕)이다.
그는 득성 시조 소벌도리(蘇伐都利)의 후손인데, 고려 태조를 도와 통합삼한공신(統合三韓功臣)으로 벼슬이 삼중대광(三重大匡)·태사(太師)에 이르렀다.
철원은 강원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고구려의 철원(鐵原)·모을동비(毛乙冬非)군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철성군(鐵城郡)으로 고쳤다. 고려 태조 때 동주(東州)로 고쳤고, 1310년(충선왕 2)에 철원부(鐵原府)가 되었다. 1413년(태종 13)에 도호부(都護府)가 되어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이속되었으며, 1895년(고종 32)에 철원군으로 고쳤다. 1914년 군면(郡面) 폐합에 따라 경기도 삭녕군(朔寧郡)의 내문(乃門)·인목(寅目)·마장(馬場)의 3개면을 병합하고, 동변과 송내를 합하여 동송읍으로 하였으며, 1931년에 서변면이 철원읍(鐵原邑)으로 승격되었다.
역사인물로 준옹(俊邕)의 증손인 석(奭)은 1051년(문종 5)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고려의 최고 중앙정치기관인 좌습유(左拾遺)를 시작으로 1075년(문종 29) 형부시랑(刑部侍郎)이 되어 4월 요(堯)나라에 가서 천안절(天安節)을 축하한 뒤 돌아와 전중감(殿中監)·지어사대사(知御史臺史)가 되었고, 그 후 여러 요직을 두루 역임한 후 1087년(선종 4) 감수국사(監修國史)에 이르렀다. 석(奭)의 아들 유청(惟淸)은 『이한림집주(李翰林集註)』와 『유문사실(柳文事實)』를 지었고, 벼술이 수사공·집현전 대학사·판예부사에 이르렀다.
종준(宗峻)은 1201년(신종 4)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고종 초에 좌승선(左承宣)을 거쳐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이부상서(吏部尙書) 등을 역임하고 뒤에 문하시중에 이르러 궤장을 하사받았으며, 특히 의학에 정통하여 『신집어의촬요방(新集御醫撮要方)』을 저술했다. 종준(宗峻)의 동생 종자(宗자)도 1225년(고종 12) 위위경(衛慰卿)으로 과거시험의 감독관을 거쳐 1236년(고종 23) 우복야(右僕射)에 이르렀다.
문신(文臣)들의 권세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흘러온 시대에 동주 최씨(東州崔氏)의 대표적인 인물은 고려조의 명장이고 충신인 영(瑩)이다. 영(瑩)은 유청(惟淸)의 현손(玄孫) 원직(元直)의 아들로 태어나 양광도(楊廣道) 도순문사(都巡問使) 휘하에서 왜구를 여러 번 토벌하여 공(功)을 세웠다. 1359년(공민왕 8)에는 중국의 홍건적 4만 명이 서경(西京)을 침범하자 서북면 병마사(西北面兵馬使) 이방실(李芳實) 등과 함께 홍건적을 격파하여 서울을 수복하고 그 공(功)을 일등도형벽상공신(一等圖形壁上功臣)이 되어 전리판서(典理判書)의 벼슬을 받았다.
영(塋)의 후대에서는 그의 아들 담(潭)이 대호군(大護軍)을 지냈고 손자 언(彦)은 부사(府使)를 역임했다. 언(彦)의 후손인 충국(忠國)·양진(良振) 두 부자(父子)가 함께 임진왜란에 공(功)을 세워 명문의 대(代)를 이었고 근대에 와서 국학자 육당(六堂) 남선(南善)이 가문의 중흥(中興)을 이룩했다.
근대에 남선(南善)은 독학으로 국문을 깨우치고 황성신문(皇城新聞)에 글을 투고하였으며 1908년 자택에 『신문관』을 설립하여 잡지 『소년』을 창간하여 논설문과 새로운 형식의 자유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하였다.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민족대표의 한 사람으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주 최씨는 파주시에 총 16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동주 최씨의 입향조(入鄕祖)는 정안공 휘당으로 입향 시기는 고려초이다.
현재 적성면 율포리에 40여 호, 파주 전역에 150호 가량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7일 시

제를 지내며 선영은 적성면 율포리이다.
종중 회장은 최태영, 최주연(전 적성향교 전교)이며 총무는 최승명이다.

밀양 최씨(密陽崔氏)

밀양 최씨(密陽崔氏)는 경주 최씨에서 분적된 계통으로 알려졌으나 성관(姓寬) 연혁에 대해서는 미상하다. 『밀양최씨계해보(密陽崔氏癸亥譜)』에 이하면 밀양 최씨는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의 후손인 화숙공(和淑公) 최현우(崔玄祐)의 15세손으로 기록된 익대(益大)가 조선 숙종 때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용양위부호군(龍楊衛副護軍)을 지냈으며, 경종이 즉위한 후 몸이 병약하고 후사가 없었으므로 왕세제 연잉군(延礽君: 영조)을 책봉하고 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하다가 소론(少論)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던 노론(老論)의 영수 김창집(金昌集)이 화를 입었던 사건에 연루되어 각처에 은거하다가 경기도 수리산(修理山)에 들어가 변관명(變寬名)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을 고증할 문헌이 없다.

그 후 익대(益大)는 영조(英祖)가 즉위하자 사면(赦免)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전국에 산거(散居)하면서 3세손 경륜(景崙)이 한성성적(漢城成籍)에 본관을 밀양(密陽)으로 기록한 연유로 해서 익대(益大)를 일세조로 하고 밀양을 본관(本貫)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밀양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변한의 일부로 가락국에 속하였으며, 법흥왕 때 신라에 병합되어 추화군(推火郡)이 되었다가 757년(경덕왕 16) 밀성군(密城郡)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에 와서는 995년(성종 16)에 밀주(密州)로 하였고 1390년(공양왕 2) 밀양부로 승격, 그 후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듭하다가 1895년 밀양군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통훈대부로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증직된 경륜(景崙)의 아들 도신(道信)이 호조참의에 추증되었으며, 그의 손자 치갑(致甲)은 1841년(헌종 7) 무과에 급제하여 가선대부로 용양위 부호군(龍楊衛副護軍)을 거쳐 창덕궁위장(昌德宮衛將)을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양 최씨는 파주시에 총 14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녕 최씨(朔寧崔氏)

삭녕 최씨(朔寧崔氏)는 고려 때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최천로(崔天老)를 시조로 하고, 어모장군으로 낭장(郎將)을 지낸 최선보(崔善甫)와 경전부사(慶殿副使)를 역임했던 최연(崔珚)을 각각 일세조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루었다.

삭녕은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일부 지역을 차지했던 지역이다. 원래 고구려 소읍두현(所邑豆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삭읍(朔邑)으로 고쳤고, 1018년(현종 9)에는 동주(東州: 철원)에 속했으며, 1106년(예종 1)에 승령현(僧嶺縣) 감무를 겸하여 삭녕으로 고쳤다. 조선 태종 때 지군사(知郡事)로 승격하였고, 1414년(태종 14)에 안협현(安峽縣)을 합쳐서 다시 안삭군(安朔郡)이 되었다. 1416년 안협현을 다시 설치하여 삭녕현이 되고, 1895년(고종 32)에 군으로 승격하여 삭령군(朔領郡)이 되었다. 1914년 일제에 의해 군이 폐지되어 내문면(內文面)·인목면(寅目面)·마장면(馬場面)은 강원도 철원군(鐵原郡)에 속하고, 나머지는 연천군(連川郡)에 병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낭장(郎將) 선보(善甫)의 아들 충(忠)이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충의 아들 윤문(潤文)은 우찬성을 역임하였으며, 윤문의 셋째 아들 사유(士柔)가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역임한 후 장흥고사(長興庫使)를 거쳐 노인직(老人織)으로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에 올랐다.

그의 아들 항(恒)은 삭녕 최씨 가문을 명문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1434년(세종 16)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조선 초기 훈구파의 대학자로서 세조를 도와 문물제도의 정비에 큰 역할을 했다. 집현전 부수찬(集賢殿副修撰)으로 정인지(鄭麟趾)·박팽년(朴彭年) 등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으며, 집현전 교리(校理)로 오례(五禮)를 찬진했고,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로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창제에 참여, 이어 『동국정운(東國正韻』·『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용비어천가보수(龍飛御天歌補修)』 등을 찬진했다. 또한 수양대군을 도와 계유정난에 공을 세워 정난일등공신(靖難一等功臣)으로 책록되어 도승지에 올랐고 형조·공조판서·예문관대제학·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영의정에 올랐다. 예조참의(禮曹參議)를 지낸 영린(永潾)과 좌찬성(左贊成)을 지낸 영호(永灝)는 항(恒)의 아들로 가문을 더욱 빛냈다.

항(恒)의 증손이자 전첨을 지낸 수진(秀珍)의 아들인 흥원(興原)은 장령(掌令)·정언(正言)·집의(執義)·사간(司諫)·동래부사(東萊府使)를 역임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순찰사(都巡察使)가 되었고, 이어 우의정·좌의정에 승진하여 영의정에 기용되었다. 영평부원군(寧平府院君)에 봉해졌고 죽은 뒤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추록되었으며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었다.

계옹(啓翁)은 지평(持平)으로 동지사 서장관(冬至使書狀官)이 되어 청나라에 다녀온 후에 정언(正言)·지평(持平)을 지냈고 그의 동생 시옹(是翁)은 윤증(尹烝)의 문하생으로 지평(持平)이 되고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 학자로서 실학파(實學派)의 거두(巨頭)이며 한국 사상사(韓國思想史)에 중요한 업적을 이룩한 한기(漢綺)는 항(恒)의 14세손이다. 1825년(순조 25)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학문(學文)의 연구에 전심하였고, 1872년(고종 9) 아들 병대(柄大)가 고종의 시종(侍從)이 되자, 노인직(老人職)으로 첨지중추부사가 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삭녕 최씨는 파주시에 총 42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삭녕 최씨들은 금촌동 아곡에 거주하였는데 현재 아동동 파주시청 너머 군

부대내에 조선 선조때 청백리에 녹선된 최흥원의 묘와 신도비가 파주시향토문화유산 제9호로 지정되어 있다. 삭녕 최씨의 선영은 월롱면 영태리 둔전골에 있으며 이곳에는 최영호의 묘가 있다.

수성 최씨(隋城崔氏)

수성 최씨(隋城崔氏)는 영규계(永奎系)와 거경계(居涇系)의 두 계통이 있는데, 영규계의 시조(始祖) 최영규(崔永奎)는 신라 경순왕의 후손으로 본래 성이 김씨(金氏)였다. 1261년(원종 2) 문과에 급제하고 남조전서(南曹典書)에 있으면서 보문각대경(寶文閣大卿)을 겸하고 문학으로 서경(西京)의 학도(學徒)들을 가르쳐 명망이 높았다. 충렬왕 때 수주(水州) 일대(一帶)의 풍속이 퇴폐하고 이륜(彝倫)을 지키지 않아 사람의 행동이 금수(禽獸)와 다름없음을 왕(王)이 개탄하니, 그가 자청(自請)하여 호장(戶長)으로 부사(副使) 안 설 (安 說)과 함께 나가서 효제(孝悌)로 백성을 다스리고 의리(義理)로 설득하여 1년이 못되어 윤강(倫綱)이 부흥하자 왕(王)이 가상(嘉尙)히 여겨 1302년(충렬왕 28) 호상하고 수성백(隋城伯)에 봉(封)한 후 최씨(崔氏)로 사성(賜姓)하여 이때부터 문호(門戶)를 열었다.

한편 거경계(居涇系)는 고려 때 서운관부정(書雲觀副正)을 지낸 거경(居涇)을 중시조(中始祖)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오고 있다.

수성은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하는 수원의 옛 이름이다. 고구려 시대 매홀군(買忽郡), 신라 경덕왕 때 수성군(水城郡)이라 불렀다. 1271년(원종 12)에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로 고쳤으며, 1310년(충선왕 2) 수원부로 되었다. 1362년(공민왕 11)에는 군(郡)으로 환원되었다가 1413년(태종 13)에 다시 도호부(都護府)로 고쳤고, 세조(世祖) 때에는 진(鎭)을 두었으며 1895년(고종 32) 한 때 인천부(仁川府) 관할의 수원군(水原郡)으로 되었다가 1896년 경기도의 2등 군이 되었다. 1931년 수원면(水原面)이 수원읍(水原邑)으로 승격되었고 1949년 수원군을 분할하여 수원시로 승격시키고 수원군을 화성군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 영규(永奎)의 아들 흡(洽)은 충렬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전서·정당문학을 거쳐 뒤에 찬성사(贊成事)에 이르렀고, 그의 아들 원개(元凱)는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봉상대부(奉嘗大夫)로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다. 원개(元凱)의 손자 경(涇)은 조선이 개국하자 출사하여 사정(司正)에 올랐으며, 죽은 후에 순충보조공신(純忠補조공신)에 책록되었고, 자헌대부로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경(涇)의 아들 유림(有臨)은 1450년(세종 32)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고성현령(固城縣令)을 거쳐 의금부진무(義禁府鎭撫)를 지냈고, 1467년(세조 13)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삼등공신(敵愾三等功臣)에 책록되어 수성군(隋城君)에 봉해진 뒤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유림(有臨)의 아들 윤신(潤身)은 사마(司馬)로 있을 때 공로가 있어, 천거로 사헌부집의가 되었고, 윤신(潤身)의 손자 희효(希孝)는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 등을 지냈고 1555년(명종 10) 동지사 서장관(冬至使書將官)을 역임하였다.

봉암공(鳳巖公) 원개(元凱)의 증손 유용(有容)은 통정대부로 병조참의에 추증되었으며, 조선 때 감역(監役)을 지낸 윤종(潤宗)의 아들 언호(彦浩)는 안동부사(安東府使)를 역임하였고 정현(廷顯)은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선전관 겸 세자익찬(世子翊贊)을 거쳐 전라좌도수군절제사가 되었따.

형록(亨錄)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義兵)을 일으켜 서울에 침공한 왜적을 물리쳐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종부령(宗簿令) 문개(文凱)의 후손에서는 좌승지를 지낸 효건(孝騫)이 대표적이다. 효건(孝騫)은 1608년(선조 41)에 상고(尙古)의 아들로 태어나 1644년(인조 22) 별시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으나 성품 이 강직하고 아부를 하지 않아 벼슬은 부사에 그쳤다. 시(詩)와 문장에 능하여 저서(著書)를 많이 남겼으며 『하산집(何山集)』이 유명하

다. 거경계(居涇系)의 후손 희량(希亮)은 참봉을 지낸 영(瀛)의 손자로 1594년(선조 27) 무과(武科)에 급제하였고,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나자 선전관(宣傳官)으로 이순신의 휘하에서 여러 번 공을 세웠다. 1604년(선조 37) 선무원종일등공신(宣武原從一等功臣)으로 책록되었고 1774년(영조 50)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성 최씨는 파주시에 총 69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최씨(水原崔氏)

수원 최씨(水原崔氏)는 최씨 득성 시조 소벌도리(蘇伐都利)의 후손으로 경주 최씨와 동원(同源)이다. 수원 최씨는 동성동본(同姓同本)이면서 시조를 달리하는 두 계통으로 나뉘는데, 한 계통은 고려 때 산원동정(散員同正)을 역임한 최정(崔靖)을 시조로 하고, 또 한 계통은 고려 예종 때 수주(水州)의 호장(戶長) 최상저(崔尙翥)를 시조로 한다.

수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매홀군(買忽郡), 통일신라 때 수성군(水城郡)이라 불렀으며, 고려 때 인주(仁州)·수주(水州)를 거쳐 1310년(충선왕 2) 수원부(水原府)로 개칭되었다. 그 후 여러 변천을 거쳐 1895년(고종 32) 한 때 인천부(仁川府) 관할의 수원군(水原郡)으로 되었다가 1949년 수원군을 분할하여 수원시(水原市)로 승격시키고 수원군은 화성군(華城郡)으로 개칭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때 문신이며 효자인 누백(婁伯)이 유명하다. 그는 수원(水原)에서 호장(戶長)을 지낸 상저(尙翥)의 아들인데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그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그 후 문과에 급제하여 의종(毅宗) 때 기거사인(起居舍人)에 올라 1153년(의종 7) 금(金)나라에 가서 용흥절(龍興節)을 축하하고 돌아와 1155년(의종 9) 국정(國政)에 관한 와의 자문에 응했으며 뒤에 한림학사(翰林學士)에 이르렀다.

충렬공(忠烈公) 자성(滋盛)은 성품이 강직하고 민첩하여 여러 벼슬을 훌륭히 역임하였다.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를 거쳐 1121년(예종 16) 동북면병마가 되고 1127년(인종 5)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참지정사(參知政事)를 거쳐 이듬해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역임했다. 사위(士威)는 1010년(현종 1) 통군사(統軍使)에 보직되어 강조(康兆) 등과 함께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통주(通州: 평북 선주)에 나가 거란의 침입을 방어하였으며 그 후 태자태사(太子太師)에 올랐고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그 밖에 고려 때 신호위보승별장(神虎衛保勝別將)을 역임 중 조선이 개국되자 금부도사(禁府都事)에 임명되었으나 취임을 거부한 원(原), 조선 중종 때 정국공신(靖國功臣)이 되고 길성군(吉城君)에 봉해진 유정(有井), 통훈대부(通訓大夫)로 장악원정(掌樂院正)을 지낸 명원(明遠)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 최씨는 파주시에 총 24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 최씨(楊洲崔氏)

양주 최씨(楊洲崔氏)의 시조는 최억(崔億)이다.
그는 득성 시조 소벌도리(蘇伐都利)의 후손으로 고려 때 한문과 덕행으로 명성이 높아 태사(太師)에 천거되었고, 1353년(공민왕 2)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역임하여 양주군(楊洲郡)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억(億)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양주(楊洲)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양주는 경기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 때 매성군(買城郡)·창화군(昌化郡)이라 하였는데, 신라 경덕왕이 내소(來蘇)로 고치고 고려 초에 견주(見州)로 승격하였다가 1668년(현종 9) 양주(楊洲)에 속하였다. 조선조에서 다시 양주(楊洲)로 개칭한 뒤 1895년(고종 32) 목(牧)을 군(郡)으로 승격시켰다.
역사인물로는 문경공(文敬公) 억(億)의 아들 연(淵)이 판도판서(判圖判書)를 역임했고, 손자 숙(淑)은 병조전서(兵曹典書)를 지냈으며, 증손 경운(慶雲)은 공조전서(工曹典書), 경운의 아들 항(沆)은 집의(執義)를 역임하였다.
정안(井安)은 1433년(세종 15) 우정언(右正言)을 거쳐 1437년(세종 19) 이천(李蕆)의 종사관으로 함경도에 침투한 야인(野人)정벌에 공(功)을 세웠으며 그 후 벼슬이 부사직(副司直)에 이르렀다. 정안의 동생 정연(井涓)은 군수(郡守)를 지냈으며, 정연의 아들 결(潔)은 감찰(監察)을 역임하였다. 혼(渾)의 아들 홍도(弘渡)는 1539년(중종 34)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1545년(인종 1) 저작(著作)을 거쳐 1564년(명종 19) 부정(副正)이 되었다가 동래부사(東萊府使)를 역임한 후 부제학(副提學)에 이르렀다. 홍도(弘渡)의 동생 홍개(弘溉)는 임진왜란 때 순절하여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후손 정걸(挺傑)은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왕을 호종하였으며 적군을 쳐부수는 데 용맹이 뛰어나 많은 공훈을 세웠다.
그 밖에 감찰(監察)을 역임한 완(浣), 절제사(節制使)를 지낸 정해(挺海), 군수(郡守)를 지낸 극태(克泰), 부사(府使)를 지낸 선태(先泰)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주 최씨는 파주시에 총 4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 최씨(陽川崔氏)

양천 최씨(陽川崔氏)는 경주 최씨에서 분적한 전주 최씨 시조 최순작(崔純爵)을 파조로 하여, 고려 초에 봉선대부(奉善大夫)·밀직부사(密直副使)를 지냈고 공을 세워 양천백(陽川伯)에 봉해진 최원(崔遠)을 일세조로 하고 본관을 양천(陽川)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양천은 경기도에 있는 지역이다. 원래 고구려 때의 재차파의현(齊次巴衣縣)을 신라 경덕왕 때 공암현(孔岩縣)으로 고쳤다. 1310년(고려 충선왕 2)에 양천현(陽川縣)으로 개칭되어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 내려오다가 1895년(고종 32)에 양천군(陽川郡)으로 승격되었으나 1914년 경기도 김포군(金浦郡)에 흡수되었다. 1979년 양천군 관할이던 양동면과 양서면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원(遠)의 아들 관(灌)이 고려 때 만호(萬戶)에 올랐고 운(澐)이 소윤(少尹)을 지냈으며 조선 때 부제학을 지낸 숙정(淑貞)은 문과에 급제하고 중시(重視)에 올라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여 호당(湖當)에 녹선되었고 예문관부교리를 거쳐 1470년(성종 1) 승문원교리로서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겸하여 『세조실록』·『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했고 부제학에 이르러 왕명으로 『삼국사절요』를 편찬했다. 숙정의 아우 숙경(淑卿)도 성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부사(府使)를 역임했다.

그 밖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지낸 종호(綜浩), 부사(府事)를 역임한 연(淵), 군수(郡守)를 지낸 택(澤)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천 최씨는 파주시에 총 7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 최씨(永川崔氏)

영천 최씨(永川崔氏) 시조 최한(崔漢)은 경주 최씨에서 분적한 최균(崔均)의 9세손 최식(崔 寔)의 둘째 아들이다. 한(漢)은 고려 때 예종과 명종 양 대에 걸쳐 벼슬을 하면서 공을 세워 연산부원군(燃山府院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그들 시조로 하고 관향을 영천(永川)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영천은 경상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고대 골벌국(骨伐國)이었던 것을 신라 초기에 영천군 일원은 절야화군(切也火郡), 신녕(新寧)지방은 사정화군(史丁火郡)이라고 하였다. 경덕왕 이후에는 임고군(臨皐郡)·고울부(高鬱府)·도동현(道同縣)·임천현(臨川縣)·면백현(면白縣)·이지현(梨旨縣) 등으로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었다. 고려 초에는 도동·임천현을 합하여 영주군(永州郡)이라고 불렀으며 성종 때 자사(刺史)를 두었다. 현종 때 신녕현이 경주로 편입되고 명종 때 감무를 두었다가 그 뒤 지주사(知州使) 소재지로 승격되었다. 1414년(태종 14) 영천군으로 개칭되고 1497년(연산군 3) 신녕현이 폐현(廢縣)되면서 영천군(永川郡)에 귀속되었다. 그 후 1937년 영천면이 읍(邑)으로 승격하였고 1981년에는 영천읍(永川邑)이 시(市)로 분리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한(漢)의 아들 완(玩)이 문과에 장원하여 상찰사(上察使)를 지냈고 그의 동생 집(집)은 좌정승(左政丞)을 지냈다. 완(玩)의 아들 상례(尙禮)는 절도사를, 증손 윤기(允琪)는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했다.

무선(茂宣)은 광흥창사(廣興倉使) 동순(東洵)의 아들로, 왜구가 창궐하자 화약제조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원나라 사람 이원(李元)에게 그 제조법을 배웠다. 1377년(우왕 6) 화통도감(花煸都監)을 설치하여 화약을 만들고 각종 화기(火器)를 제조하여 1380년(우왕 6) 왜구가 대거 침입했을 때 부원수(副元帥)로서 진포(鎭浦: 금강 하구)에서 화포·화통 등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왜선 500여 척을 전멸시켜 공신에 책록되고 영성군(永城君)에 봉해졌다. 1383년(우왕 9) 남해의 관음포(觀音浦)로 침입한 왜구를 정지(鄭地)와 함께 격파했고 1389년(창왕 1) 화통도감이 철폐되자 집에서 『화약수련법(火藥修鍊法)』·『화포법(火砲法)』을 저술하다가 조선이 개국하자 장헌대부·검교참찬문하부사 겸 판군기시사가 되었다. 후에 의정부 우정승(議政府右政丞)에 추증되고 영성부원군(永城府院君)에 추봉되었다.

판군기시사(判軍器寺事)를 지낸 일(壹)의 아들 흥효(興孝)는 인령부판관(仁寧府判官)을 지냈고 후에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을 지냈다. 해산(海山)은 무선(茂宣)의 아들로 아버지의 유명(遺命)에 따라 『화약수련법』·『화포법』을 통해 그 비법을 전수받고, 여러 관직에 재임 중 화차(火車)·완구(碗口)·발화(發火)·신포(信砲) 등 신화기(新火器)를 창제하여 화약과 화기의 발전에 공헌(貢獻)했다.

의병장 문병(文炳)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천장산(天丈山)에서 수천 명의 의병을 모집하고 대장이 되어 적의 침입을 격퇴했다. 특히 영천(永川)에서 적을 화공으로 섬멸하여 감목관(監牧官)을 역임했으며, 후에 한성부우윤에 추증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천 최씨는 파주시에 총 10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산 최씨(完山崔氏)

완산 최씨(完山崔氏)는 경주 최씨에서 분적한 완산군(完山君) 최순작(崔純爵)의 후손으로 상계가 실전되어 정확한 계대를 알 수는 없다. 후손 최수강(崔秀岡)이 고려 말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중시조(中始祖)오 하고 완산(完山)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오고 있다.

완산은 전주의 옛 이름이다. 전주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마한의 원산성(圓山城)에서 유래하며, 백제 때 완산(完山)·비사벌(比斯伐)·비자화(比自火) 등으로 불리다가 555년(신라 진흥왕 16)에 완산주(完山州)로 하였다. 그 후 신라 경덕왕이 완(完)을 의역(意譯)하여 전주(全州)로 고쳤고, 공민왕이 완산부(完山府)로 하였다. 조선에 와서는 태조(太祖)가 선조의 고향이라 하여 완산유수부(完山留守府)로 개칭하였다가 1403년(태종 3) 다시 전주부(全州府)로 개편되었다.

역사인물로는 경(涇)이 아들 수지(水智)와 같이 조선 때 현감을 역임했고 명우(命佑)는 벼슬이 부제학에 이르렀다.

그 밖에 부호군(副護軍)을 지낸 정정(禎貞)·병확(秉矱), 학자로 명성을 떨친 정우(正愚)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산 최씨는 파주시에 총 2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궁 최씨(龍宮崔氏)

용궁 최씨(龍宮崔氏)의 시조는 고려 때 평리부밀직사사(評理府密直司使)를 지낸 최현(崔玄)이다. 그의 아들 안도(安道)는 전리상서(典理尙書)를 역임하였으며 손자 유(濡)는 군부판서(軍簿判書)로 1399년(충숙왕 복위 8) 조적의 난에 왕을 호종하여 성근익대 협찬보정 일등공신(誠勤翊戴協贊保定一等功臣)에 책록되고 충정왕이 즉위하자 취성군(驟城君)에 봉해졌으며 공민왕 때는 삼사사(三司使)로 용성부원군(龍城府院君)에 진봉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해주 최씨에서 분적하여 본관을 용궁(龍宮)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용궁은 경상북도 예천군에 속한 지역이다. 신라 때 축산현(竺山縣)·원산현(園山縣)이라 하였는데 고려 성종 때 용주(龍州)로 승격시키고, 목종 때 군(郡)으로 강등시켰으며 현종 때 용궁(龍宮)으로 고쳐서 상주(尙州)에 편입하였다가 명종 때 다시 설치하였다. 1413년(태종 13)에 현으로 고치고 1895년 군(郡)으로 승격되었으나 1914년에 군(郡)을 폐하고 신하면(臣下面)은 의성군에, 나머지는 예천군에 편입되었고, 일부 지역은 용궁면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 밀직사사(密直司使)를 역임한 성우(成雨)는 현(玄) 증손이며 유(濡)의 아들이다. 성우의 후손에서는 차남 민수(敏秀)의 증손 세담(世潭)이 훈도(訓導)를 역임하여 첨정(僉正)을 지낸 알(斡)과 함께 가문을 빛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궁 최씨는 파주시에 총 1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 최씨(原州崔氏)

원주 최씨는 경주 최씨에서 분적된 계통으로 최보은(崔寶隱)을 시조로 한다. 보은은 조선 때 대호군(大護軍)으로 임지(任地)인 함경도 명천(明川)에서 세거하였는데, 후손들이 조상의 연고지인 원주(原州)를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원주는 강원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평원군(平原郡)인데 신라시대에 북원소경(北原小京), 940년(고려 태조 23)에 원주(原州)로 고쳤다. 그 후 일신현(一新縣)·정원도호부(靖原都護府)·익흥도호부(益興都護府) 등을 거쳐 원주목(原州牧)이 되었으나 1310년 성안부(成安府)로 강등, 1353년(공민왕 2) 치악산에 태(胎)를 안치하고 다시 원주목으로 하였다. 1895년(고종 32) 원주군(原州郡)이 되었으며, 1955년 일부가 원주시(原州市)로 승격되고 나머지는 원성군(原城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보은의 아들 적(迪)이 가선대부로 검교한성부윤(檢校漢城府尹)을, 적(迪)의 아들 보인(甫仁)이 상호군(上護軍)을 역임하여 만호(萬戶)를 지낸 운잠(雲岑), 인건(仁健), 동환(東煥) 등과 함께 가문을 빛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주 최씨는 파주시에 총 1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 최씨(月城崔氏)

월성 최씨(月城崔氏) 시조는 최치원(崔致遠)이고, 일세조는 최진립(崔震立)이다. 최진립은 조선 중기의 명장으로 1594년(선조 27) 무과에 급제, 1507년 정유재란 때 결사대 수백 명을 이끌고 서생포의 적을 격멸하였다. 이어 권율과 함께 도산(島山)에서 대승하여 선무공신이 되었다. 경기수사로 3도통제사를 겸했으며, 전라수사를 거쳐 1636년 병자호란 때 공주영장으로 남한산성이 포위되자 용인의 험천에 이르러 전사했다. 청백리에 뽑히고 병조판서에 추증, 고향에 정문이 세워졌다.

그러나 월성은 경주의 옛 이름인데 어째서 월성을 본관으로 삼았는지 알 수 없고 또 경주 최씨 세계에 최진립의 하계가 이어온 것으로 보아 어느 대에 분적했는지 확실치 않다. 특히 이 집안이 대표적인 인물로 내세우는 5세 최경로(崔慶老)가 《경주최씨손록》에도 실려 있는 점으로 보아 그 후에 분적했는지 알 수 없다.

월성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개국하여 사로국(斯盧國), 즉 서라벌(徐羅伐)이라 하였다가 후에 신라로 불려오던 중 65년(탈해왕 9)에 계림(鷄林)으로 개명되었고 기림왕(基臨王) 때 다시 신라로 고쳤으나 고려 때 경주(慶州)로 개칭하였다. 987년(성종 7)에는 동경(東京)이라 하고 목종(穆宗)때 낙랑군(樂浪郡)으로 강등하였다가 현종(顯宗) 때 다시 경주라 하였으며 이후 안동대도호부 경주목 등으로 변천 해오다가 충렬왕(忠烈王) 때 계림부(鷄林府)로 고쳐 불렀다. 1415년(태종 15) 경주부로 다시 고치고 1895년(고종 32)에 경주군(慶州郡)이 되었으며 1955년 8월 경주시를 설치하면서 종전의 경주군의 나머지 지역을 월성군(月城郡)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역사인물로 최경로는 무과에 급제,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을 토평한 공으로 분무공신2등에 책록되었다. 그 후 3읍의 수령을 지내면서 치적이 있었다. 동지중추부사에 이르고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3대가 추영(追榮)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 최씨는 파주시에 총 34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최씨(全州崔氏)

전주 최씨(全州崔氏)는 동본이면서도 계보를 달리하는 4계통(系統)이 있다. 『전주최씨연원보(全州崔氏淵源譜)』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정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숙종 때 병부상서(兵部尙書)와 신호위상장군(神號衛上將軍)을 지내고 완산부개국백(完山府開國伯)에 봉해진 최순작(崔純爵)을 시조(始祖)로 하는 계통이 있다.

또한 고려 때 삼중대광으로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내고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에 봉해진 최군옥(崔群玉)을 시조로 하는 계통이 있으며, 또 다른 계통은 고려 인종 때 문과에 급제한 후 1174년(명종 4) 동북로 도지휘사(東北路道指揮使)로 조위총(潮位寵)의 난에 순절하여 완산군(完山君)에 추봉된 최균(崔均)을 시조로 하는 일파와, 완산부개국백 문열공(文烈公) 최순작의 7세손으로 충숙왕(忠肅王) 때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올라 완산군(完山君)에 봉해진 최아(崔阿)를 시조로 하는 계통이 있다.

그러나 『전주최씨인물사』에는 문성공(文成公) 최아(崔阿)가 원종 때 보문각대학사(寶文閣大學士)를 지낸 최정신(崔正臣)의 셋째 아들 입평(立坪)의 맏아들로 기록되어 있고 문열공(文烈公) 순작계(純爵系)와 합보(合譜)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하고 있다.

전주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 완선(完山)·비사벌(比斯伐)·비자화(比自火) 등으로 불리다가 555년(진흥왕 16)에 완산주(完山州)로 하였다. 그 후 경덕왕 때 완(完)을 의역(意譯)하여 전주(全州)로 고쳤고, 공민왕(恭愍王) 때 다시 완산부(完山府)가 되었다. 조선에서 태조의 선조(先祖)가 살았던 고향이라고 하여 완산유수부(完山留守府)로 개칭하였다가 1403년(태종 3) 다시 전주부(全州府)가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문열공 순작(純爵)의 아들 숭(崇)이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역임했고 손자 남부(南敷)는 문종(文宗) 때 공부상서(工部尙書)를 거쳐 수문전태학(修文殿太學) 겸 대장군(大將軍)을 지냈으며 그의 아들 전(佺)은 희종조(熙宗朝)에 비서소윤(秘書小尹)을 지내다가 당대 권력가의 전횡을 개탄하여 병을 핑계하고 벼슬에서 물러났다. 한편 강직한 성품으로 권력을 남용하던 무리들을 탄핵하다가 10년이나 귀양살이를 했던 정신(正臣)의 아들 득평(得枰)은 1278년(충렬왕 4) 18세의 약관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형부상서(刑部尙書)에 이르렀다.

중흥조 유경(有慶)은 감찰대부(監察大夫) 재(宰)의 아들로서 사헌부장령에 있을 때 환자(宦者) 윤충좌(尹忠左)의 교만방자함을 탄핵하고 1375년(우왕 1)에 전법총랑(傳法摠郞)에 이어 양광도안렴사(楊廣道按廉使)를 거쳐 요동정벌 때에는 서북면전운사겸찰방(西北面轉運使兼察訪)이 되고 최영(崔瑩)이 실각한 후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올랐다. 1392년 이성계(李成桂)의 조선개국을 도와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었다. 그의 여섯 아들이 모두 현달하여 가세(家勢)를 크게 일으켰는데 유경(有慶)의 장남 사위(士威)는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지냈고 차남 사의(士義)는 세종(世宗) 때 상호군(上護軍)을 거쳐 태종 때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를 지내고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었다. 삼남 사규(士規)는 중백부(仲伯父) 덕성(德成)에게 글을 배워 학행(學行)으로 도판관(都判官)에 천거되었고 도관좌랑(都官佐郞)·영평군수(永平郡守)를 거쳐 1405년(태종 5) 24세 때에 사헌부지평을 지냈다. 사남(四男) 사강(士康)은 음보(蔭補)로 벼슬에 올라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며 명성을 떨쳤으며, 오남(五男) 사용(士庸)은 세종 원년에 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을 지내고 실록청당랑(實錄廳堂郞)에 뽑혀 서강원(書講院)에 들어갔다가 1423년(세종 5)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거쳐 상호군(上護軍)을 지냈다. 육남(六男) 사흥(士興)은 유복자(遺腹子)로 태어나 학문을 좋아했으며, 시문(詩文)에 능했고 효심(孝心)이 극진하였다..

명상인 명길(鳴吉)은 가문을 명문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몸집은 잔약하고 작았으나 앉아 있는 모습이 금석(金石)과 산악(山岳)처럼 크고 무거워서 정기(精氣)가 곁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번졌으며 자제들도 감히 우러러 보지 못했다고 『지천유사(遲川遺事)』에 기록되어 있다. 병자호란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조판서로서 척화(斥和)와 화의(和議)의 갈림길에서 현실적 정세에 적응키 위하여 강화(講和)를 해야 한다는 주화론(主和論)을 주장했다.
삼중대광에 올라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내고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에 추봉되었던 문충공(文忠公) 군옥(郡玉)의 인맥으로는 그의 맏아들 송년(松年)이 고려 의종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중의대부(中議大夫)로 밀직사사(密直司使)를 역임했고 차남 구년(龜年)은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거쳐 문하찬성(門下贊成)을 역임한 후 완성부원군(完成府院君)에 봉작(封爵)되어 가문을 일으켰다. 문숙공(文肅公) 유의 아들 선능(善能)은 추충보절공신(推忠補節功臣)으로 삼중대광문하찬성사에 올라 상산부원군(商山府院君)에 봉작되었다. 선능(善能)의 둘째 아들로 우왕 때 해도만호(海島萬戶)를 지낸 칠석(七夕)은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정남대장군(征南大將軍) 겸 원수(元帥)가 되어 칠월 칠석날에 대마도 정벌에 공을 세워 사명을 받았으며 조선이 개국된 후 경기우도수군절도사를 역임했다.
고려 말 이부상서(吏部尙書)와 대제학(大提學)을 역임했던 양(瀁)은 고려가 망하자 전주 대승동 봉강리에 은거하며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켰다. 형제가 함께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진무공신(振武功臣)에 책록되었던 응일(應一)은 한풍부원군(漢豊府院君)에 봉작되어 이조참판을 지냈다. 그의 아우 응수(應水)는 결성군(結城君)에 봉해진 후 선천부사(宣川府使)를 역임했다.
사도공(使徒公) 균(均)의 인맥으로는 그의 아들 보순(甫淳)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아우 보연(甫延)과 함께 열심히 수학(修學)하여 문과에 급제한 후 황주(黃州) 장서기(掌書記)를 시작으로 벼슬길에 나가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참지정사(參知政事) ·형부상서(刑部尙書) 등을 지내고 1226년(고종 13) 감수국사(監修國史)로서 수찬관(修撰官)이 되어『명종실록(明宗實錄)』을 찬수했으며 수태사판이부사(守太師判吏部事)에 이르렀고, 그의 아우 보연(甫延)은 형부상서(刑部尙書)를 역임했다.
인품(人品)과 덕망(德望)이 탁월하여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로 손꼽혔던 문도(文度)는 전법판서(典法判書)와 첨의참리(僉議參理)를 지냈으며, 자주군사(慈州郡事) 용(溶)의 아들 부(府)는 조선이 개국한 후 예문관과 춘추관의 수찬관(修撰官)을 역임했고 광주목사(光州牧使)와 동부대언(同副代言)을 거쳐 세종 때 경기도관찰사를 지냈으며 대사헌 등을
문성공(文成公) 아(阿)의 후손에서는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참의와 제학(提學)을 역임했던 담(霮)이 유명했다. 혼탁한 정국을 개탄하여 벼슬을 버리고 전주(全州)로 낙향하였던 담(霮)은 옥류동(玉流洞) 냇가의 기암(奇巖) 위에다 한벽당(寒壁堂)을 짓고 양촌(陽村) 권 근(權近)·만육당(晩六堂) 최 양(崔 養)을 비롯한 명사(名士)들과 교류(交流)하면서 학문과 풍월(風月)로 자적했다.
그의 아들 4형제가 모두 현달했는데 맏아들로 우왕(禑王) 때 문과에 급제했던 광지(匡之)는 조선 태종(太宗) 때 집현전 제학(集賢殿提學)을 역임했으며, 광지(匡之)의 아우 직지(直之)는 나주판관(羅州判官)과 순창도사(淳昌都事)를, 셋째 득지(得之)는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하여 막내 덕지(德之)와 함께 가문을 중흥시켰다. 1405년(태종 5)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했던 덕지(德之)는 사관(史官)과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김제군사(金堤郡事) 등을 거쳐 남원부사(南原府使)로 나갔다가 사임하고 영암(靈巖) 영보촌(永保村)에서 학문연구에 진력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 최씨는 파주시에 총 3,68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산 최씨(竹山崔氏)

죽산 최씨(竹山崔氏)는 소벌도리(蘇伐都利)의 원손(遠孫)이 죽산군(竹山君)에 봉해졌으므로 본관을 죽산(竹山)으로 하여 계대를 이어왔으나, 중간 계보가 병화로 실전되어 소목을 밝힐 수 없으므로 죽산군(竹山郡)의 원손인 일죽공(一竹公) 최효운(崔孝雲)을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조선에서 문과에 급제하여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를 지내고 홍문관 대제학·지경연사에 이르렀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죽산은 경기도 용인시과 안성시 일부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개차산군(皆次山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개산군(介山郡)으로 고쳤다가 고려 초에 죽주(竹州)로 고치고, 995년(성종 1)에 단련사(團鍊使)를 두어 음평(陰平) 또는 연창(延昌)이라 하였으며 현종(顯宗) 때 광주(廣州)로 속하였다. 1413년(태종 13)에 죽산(竹山)으로 개칭하여 감무(監務)를 두었고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었다가 1913년 원일면(遠一面)과 근삼면(近三面) 일부는 용인군에 합해지고 나머지 지역은 안성군에 합해졌다.

역사인물로는 일세조 효운(孝雲)의 아들 세형(世亨)이 부총관(副摠管)을 지냈고, 그의 아들 충좌(忠佐)는 세조의 맏아들 덕원군(德源君) 서(曙)의 사위가 되었다. 충좌(忠佐)의 아들 영(鴒)은 면천군수(沔川郡守)를 지냈고, 영의 아들 임(琳)은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안방준(安邦俊)과 함께 창의하여 전쟁에 공을 세우고 사재감직장(司宰監直長)을 지냈으며, 개천군수(价川郡守)를 역임한 침(琛)은 형인 임(琳)과 함께 삼정사(三亭祠)에 제향(祭享)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죽산 최씨는 파주시에 총 4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산 최씨(稷山崔氏)

직산 최씨(稷山崔氏)는 최씨(崔氏)의 득성조 소벌도리(蘇伐都利)의 후손인 최홍재(崔弘宰)를 시조로 하고 있다. 본래 장군(將軍)의 아들로 태어난 홍재(弘宰)는 기(氣)를 숭상하고 말 달리기를 좋아하며 명장 윤관을 따라 여진을 정벌하여 공을 세워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를 역임한 후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가 되어 포주(抱州)를 수복하였다. 그 후 의주성(義州城)을 쌓는데 공을 세워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형부상서(形部尙書)·판삼사(判三司)를 거쳐 참지정사(參知政事)·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등을 역임하고, 한때 순천(順天)으로 유배되었다가 판리부사(判吏部事)로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록되고 수사공우복야(守司空右僕射)·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직산(稷山)에 토착하여 세거하면서 본관을 직산(稷山)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직산은 충청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위례성(慰禮城)이었는데 고구려 때 사산현(蛇山縣)으로 고쳤고 신라 때는 백성군(白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으며 고려 초에 직산(稷山)으로 고쳤다. 1018년(현종 9) 천안부(天安府)에 예속시켰다가 후에 다시 설치하였으며, 1504년(연산군 10) 경기도로 옮겼으나 중종 때 복구해 충청도에 속하게 하였다.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하였고 1914년에는 천안군(天安郡)에 병합하여 지금은 천안군 직산면(稷山面)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 홍재의 아들 서(瑞)는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냈고, 온(溫)은 의종(毅宗) 초에 판합문사(判閤門事)에 올라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1170년(의종 24) 판중근 병마사·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에 이르렀다. 그의 아들 문본(文本)은 음보(蔭補)로 산정도감판관(刪定都監判官)이 되었고 1275년(충렬왕 1) 승선(承宣)에 승진 후에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이르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산 최씨는 파주시에 총 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 최씨(晋州崔氏)

진주 최씨(晋州崔氏)는 경주 최씨에서 분적한 씨족으로 벽제공파(碧濟公派)·강서파(江西派)·정읍파(井邑派) 등 3파가 있다고 하는데, 이 3파가 통합된 족보를 보지 않고서는 시조와 분관의 연원 및 본관의 유래 등을 밝힐 수가 없다. 따라서 이 3파가 같은 뿌리인지 아니면 동본이족인지를 가리는 것도 후일 확실한 전증(典證)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진주는 경상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거열성(居烈城)인데 신라 문무왕 때 신라의 영토가 되어 거열주(居烈州)라 하였고, 757년(경덕왕 16) 9주 5소경제의 실시와 함께 강주(康州)로 고쳤다가 뒤에 청주(菁州)로 개칭되었다. 고려초에 다시 강주로 환원하였고, 995년(성종 14)에 진주(晋州)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뒤 조선에 와서는 진양도호부(晋陽都護府)가 되기도 하였으나 진주목(晋州牧)으로서 서부 경남 일대를 관할하였다. 그 후 여러 변천을 거쳐 1949년에 진주시(晋州市)가 되었다.

『진주최씨성(晋州崔氏姓)의 속편(續編)』 자료에 의해 파별로 그 약사를 소개하기로 한다.

정읍파의 시조는 최서림(崔瑞琳)으로 조선 현종 때 인물이다. 그는 김집(金集)의 문인으로 일찍이 사마시에 합격하고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름이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에 전한다.

벽제공파는 시조에서 16대손까지는 휘(諱)와 묘소의 소재지도 알 수 없고, 17대부터 31대까지는 겨우 휘자만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32대손 최연해(崔連海)부터 정상적인 세계가 시작했다. 그래서 후손들 중 일부가 최연해를 중시조로 삼아 벽제공파를 이루었는데 벽제는 연해의 아호이다. 『국조방목(國朝榜目)』에 의하면 1815년(순조 15)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최봉항(崔鳳恒)의 본관이 전주로 되어 있는데 봉항은 연해의 7세손이다. 강서파는 언제 어째서 입북했는지 알 수 없으나 평남 강서군 급차면에 세거의 터를 잡아 시조 이하 10여 기의 선영을 모시고 봄과 가을에 향사해 오다가 6·25 때 일부가 월남했다고 한다.

『진주최씨성의 속편』에 의하면 전북 전주 지방에 벽제공파가 약 50가구, 정읍 지방에 약 20가구, 그리고 북한의 평남 강서군 반석면 반룍리에 50가구, 하사리에 3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평북 희천군 장동면·희천읍, 영변과 평남 강동, 함경도 지방에 널리 퍼져 세거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 최씨는 파주시에 총 1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송 최씨(靑松崔氏)

청송 최씨(靑松崔氏)의 시조는 해주 최씨 시조 최온(崔溫)의 13세손 최경(崔京)이다. 『청송최씨세보(靑松崔氏世譜)』에 의하면 그는 조선에서 예조판서를 지냈고 삭주(朔州)에서 황해도 청송(靑松)으로 이거하였는데,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받들고 해주 최씨에서 분적하여 청송(靑松)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청송은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송화(松禾)의 옛 지명(地名)으로, 본래 고구려 마경이(痲耕伊)인데 고려 초에 청송(靑松)으로 개칭되었다. 1018년(현종 9) 풍천에 예속시켰다. 1106년(예종 1) 다시 설치하였다가 1408년(태종 8) 청송(靑松)과 가화(嘉禾)를 합(合)하여 송화(松禾)로 개명하였으며 1895년(고종 32) 송화군(松禾郡)으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 세걸(世傑)은 조선조에 어모장군(禦侮將軍)에 추증되었고, 세걸의 아들 팽령(彭嶺)은 참의를 지냈으며, 손자 인방(仁邦)은 중추부사(中樞府使)를 역임하여 그의 네 아들과 함께 나라에 충성하였다.

그 밖에 효자로 유명한 덕항(德恒)·종집(宗諿), 부호군을 역임한 응천(應天)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송 최씨는 파주시에 총 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계 최씨(草溪崔氏)

초계 최씨(草溪崔氏)는 전주 최씨에서 분파되었다. 문헌에 의하면 시조 최용궁(崔龍宮)은 전주 최씨 일파의 시조 최균(崔均)의 4세손으로, 1296년(충렬왕 22)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충익대보조공신(忠翼戴保祚功臣)으로 판사(判事)와 참찬(參贊)을 거쳐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세자태부(世子太傅)에 이르렀으며, 팔계군(八溪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초계(草溪)로 하여 문호를 열었으나, 상계의 기록이 실전되어 그의 13세손 신재(新齋) 산두(山斗)를 중시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초계는 경상남도 합천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초팔혜현(草八兮縣)인데, 경덕왕 때 팔계(八溪)로 고쳐서 강양군(江楊郡: 합천)의 영현으로 삼았다가 고려 때 초계(草溪)로 하였고 1018년(현종 9) 합주(陜州)에 속했다. 명종 때 감무를 두었으며 1316년(충숙왕 3) 지군사(知郡事)로 승격하였고, 1913년 합천군에 병합하여 지금은 합천군 초계면(草溪面)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 산두(山斗)의 슬하에 교적에 오른 병길(丙吉)과 장령을 지낸 정길(丁吉) 형제가 있었으며, 후세에서는 규록(圭祿)의 아들 경모(璟模)가 사헌부지평·사간원정언을 역임하였고, 임진왜란 때 백의종군한 이는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책록되었으며, 후에 수문장(守門將)이 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계 최씨는 파주시에 총 1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초계 최씨 순절공파 입향조(入鄕祖)는 최신재이며 1940년대 전북 부안에서 광탄면으로 옮겨왔다.

충주 최씨(忠州崔氏)

충주 최씨(忠州崔氏)의 시조는 최승(崔陞)이다.
그는 846년(신라 문성왕 8) 신라에 흉년이 들어 도처에서 도적들이 무리를 지어 퍼져 갈 때 당나라 무종(武宗)의 명을 받아 병마사가 되어 이를 토평하였고, 889년(진성여왕 3) 원종(元宗)·애노(哀奴) 등이 사벌주(沙伐州)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평정하여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에 올랐다. 그 후 승(陞)은 예성(藥城)에 그대로 머물러 세거하였으므로 후손들은 본관을 충주(忠州)로 하였으나 상계가 실전되어 승의 후손으로 호장(戶長)을 지낸 공의(公義)를 일세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오고 있다.
충주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구려 때 국원성(國原城)·미을성(未乙省)·완장성(薍長城)·탁장성(託長城)등으로 불리다가 신라에 병합되어 진흥왕 때 소경(小京)을 두었고, 경덕왕 때 중원경(中原京)으로 고쳤다. 940년(고려 태조 23) 충주(忠州)로 개칭하고 뒤에 창화군(昌化郡)이라 하여 중원도(中原道)라 칭하다가 고종 때 국원경(國原京)이 되었으며, 조선 명종 때 유신현(維新縣)으로 부르다가 선조 즉위년에 다시 충주(忠州)로 환원되었다. 그 후 많은 변천을 거쳐 1956년 충주면(忠州面) 일원은 충주시(忠州市)가 되었고, 나머지는 중원군으로 고쳤다.
역사인물로는 공의(公義)의 손자 옥(沃)이 충숙왕 때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렀으며, 그의 아들 삼형제는 모두가 벼슬에 나가 고려 왕조에 공헌했는데, 장남 백청(伯淸)은 충숙왕 때 문하시랑(門下侍郞)을 역임했고, 차남 중청(仲淸)은 판관을 지냈다. 삼남 우청(遇淸)은 인종(仁宗) 때 문과에 급제하고 진례현위(進禮縣尉)에 올랐으며 명종(明宗)이 즉위하기 전에 전첨(典籤)으로 있다가 명종 즉위 후 대간(臺諫)을 역임했으며, 1174년(명종 4) 병마부사(兵馬府使)로 조위총(趙位寵)의 난을 진압하여 공을 세웠고 1182년(명종 12)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를 거쳐 좌복야(左僕射)에 이르렀다.
염(濂)은 충혜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검교정승(檢校政丞)이 되었고, 셋째 아들 순(洵)은 1396년(태조 5) 문과에 급제한 후 성절사(聖節使)로 중국에 다녀와 여러 관직을 거쳐 직제학(直提學)이 되었으며 세자필선(世子弼善)으로 대사간(大司諫)을 지낸 후 중군총제(中軍摠制)와 관찰사(觀察使)를 역임했다.
그 밖에 효자로 이름난 혁(爀)이 호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동지돈령(同知敦寧)을 지낸 규석(奎錫)이 유명하고, 학자 동봉(東鳳)은 후진양성에 전심하는 한편 문집(文集)을 남겼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주 최씨는 파주시에 총 15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충주 최씨는 조선시대 충주와 양주를 거쳐 파주로 입향하였다고 한다. 충주 최씨 집성촌은 조리읍 대원리 2리였는데 현재 4호 가량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 15일 전후에 연천 백학과 적성에서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연천 백학에 13기, 적성 구읍리에 30~40기가 있다. 종중 회칙이 있으며 20년 전 적성에 3천평을 문중에서 구입했으며 연천 백학에 선조 때부터 내려온 땅 7만평이 있다. 종중 회장은 최창회이다.
충주 최씨 전서공파는 전서공을 파시조(派始祖)로 하고 6대조를 입향조(入鄕祖)로 하는데 충주에서 연천으로 터전을 옮겼다 다시 파주로 옮겨왔다. 선영은 5대조와 6대조가 적성읍 구읍리에 있으며 7대조에서 14대조 묘는 연천군 백학면에 있다. 적성에 토지 3천평을 종중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탐진 최씨(耽津崔氏)

탐진 최씨(耽津崔氏)는 고려 때 상약원직장(尙藥院直腸)을 지낸 최철(崔哲)을 원조(遠祖)로 하고 고려 때 장작감(將作監)을 지낸 정의 아들 최사전(崔思全)을 시조로 하고 있으나 사전의 아들 변(弁)과 열(烈) 이하의 기록은 누차의 전란으로 문헌이 실전되어 각 파 중시조의 세거지를 따서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문헌에 의하면 사전(思全)은 경주 최씨에서 분적한 해주 최씨의 시조 최온(崔溫)의 증손이다. 사전(思全)은 처음에 의술(醫術)로써 조정에 나갔으나 1126년(인종 4) 이자겸이 궁궐을 범하고 함부로 권세를 부리자 왕과 협의하여 자겸의 심복 척준경(拓俊京)을 설복하여 이자겸을 제거한 공으로 공신(功臣)에 책록되어 병부상서(兵部尙書)에 올랐다. 그 후 삼한후벽상공신(三韓後壁上功臣)으로 수태위(守太尉)·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에 이르렀다.

탐진은 전라남도 강진군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동음현(冬音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탐진현(耽津縣)으로 고치고, 고려 때 영암(靈岩)·장흥(長興) 등으로 이속되었다가 1417년(태종 17) 도강현(道康縣)과 합하여 강진으로 고쳤으며, 1895년(고종 32) 강진군(康津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화성파(華城派)는 중조(中祖) 응규(應奎)가 고려 때 중서령(中書令)을 지냈고, 그의 아들 상(尙)은 1056년(문종 10) 예부낭중(禮部郞中)으로 감찰어사(監察御使)를 거쳐 1065년(문종 119) 예부상서(禮部尙書)로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거란에 다녀와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지공거(知貢擧)가 되었다. 상(尙)의 아들 원습(原隰)은 태복시정(太僕寺正)을 지냈고, 원길(原吉)은 중랑장(中郞將)에 올랐으며, 원습(原隰)의 아들 용폐(龍陛)·용승(龍陞)의 아들 숙륜(叔倫)이 당대에 뛰어났다.

강진금천파(康津錦川派)의 중조(中祖) 준량은 생원으로 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에 추증되었고, 아들 령(齡)이 예의판서(禮義判書)를 지냈으며, 령(齡)의 아들 직림(直霖)은 판도판서(版圖判書)로 오산군(鰲山君)에 봉해졌다. 직림(直霖)의 아들 봉(鳳)이 조선 때 병조참판을 지냈으며 봉(鳳)의 아들 만(滿)이 조선 세종(世宗) 때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역임했다.

만경파(萬頃派)의 중조(中祖) 효로(孝老)의 현손이고, 능참봉을 지낸 숙(淑)의 아들 학령(鶴齡)은 당대의 명신 하서 김인후의 문하에서 글을 읽고 1539년(중종 34) 진사로 정시문과에 장원했으나 어사의 홍패(紅牌)에 틀린 글자가 있다고 받기를 거절하고 돌려보낸 뒤 포의(布衣)로 고향으로 돌아가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학문으로 일생을 보냈다.

보성조내파(寶城兆內派) 중조(中祖) 총(聰)의 아들 표(彪)는 당대에 명성을 날린 학자 목은 이색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아 공양왕 때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냈고 조선이 개국하자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의 아들 귀령(龜靈)은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담양부사(潭陽府使)를 지냈고 세조가 즉위하자 벼슬을 버리고 강호에 숨어 살았다.

광주성서파(光州城西派) 중조(中祖) 윤덕(允德)은 고려 말 영도첨의(領都僉議)로 조선이 개국한 후 광산으로 귀양 가서 살았으며, 손자 호(灝)가 중종 때 계공랑(啓功郞)에 이르렀고 가선대부로 한성판윤 겸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총관(摠管)에 추증되었으며, 호(灝)의 손자 언웅(彦雄)은 첨지중추부사를 지냈다.

금남파(錦南派) 중조(中祖) 정원(井元)의 손자 부(溥)는 학자 점필재 김종직 문하에서 글을 배워 1482년(성종 13) 진사로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금제하여 사가독서를 한 뒤 교리(敎理)로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등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뒤에 호당(湖當)에 뽑혔다.

만경율리파(萬頃栗里派) 중조(中祖) 해(海)는 세조 때 벽동군수(碧潼郡守)를 지냈으며, 아들 한춘(漢春)은 의영고직장(義盈庫直長)에 있었고 한춘의 증손 경란(景瀾)은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냈다.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만경율리(萬頃栗里)에 은거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탐진 최씨는 파주시에 총 71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탐진 최씨 천곡파는 최사전을 파시조(派始祖)로 하고 최금길을 입향조(入鄕祖)로 한다. 후손들은 운정과 문산읍, 금촌 등지에 10호가 살고 있으며 매년 10월 14일 광주에서 시제를 지낸다.

통천 최씨(通川崔氏)

통천 최씨(通川崔氏)의 시조는 고려 때 정의대부(正義大夫)로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중서좌상시(中書左常侍)·감찰어사(監察御使) 등을 역임한 최경현(崔景賢)이다.

통천은 강원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원래 고구려 휴양군(休養郡)·금뇌군(金惱郡)인데 신라 경덕왕 때 금양군(金壤郡)이 되었고, 1413년(태종 13) 통천(通川)이라고 개칭하여 통천군(通川郡)이 되었으나 1762년(영조 38)에 현(縣)으로 하였으며, 1771년(영조47)에 다시 군(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의 아들 사순(事舜)과 우순(遇舜)의 후대에서 증손 유(侑)가 문하평리(門下評理)를 지냈으며, 녹(祿)의 아들 운해(雲海)는 충렬왕 때 호군(護軍)으로 고우(高郵)의 싸움에서 전공을 세웠다. 운해는 아버지의 전공(戰功)으로 공민왕 때 충용위 산원(忠勇衛散員)에 기용되었고 조전병마사(助戰兵馬使)에 올라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수차에 걸쳐 왜구를 격퇴한 뛰어난 장군이었다. 그는 조선이 개국하자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책록되고 문하평리(門下評理)로 양공도 절제사(楊廣道節使)가 되어 왜구를 격파하였고, 1396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서 경상도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가 되어 영해에서 왜구를 격퇴하여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었으며, 이성도 절제사(泥城道節制使)를 거쳐 참판승추부사(參判承樞府使)로서 사직했다.

운해의 아들 윤덕(潤德)은 어려서부터 활을 잘 쏘아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다녔고 싸움터에 나가 전공을 세워 부사직(副使直)이 되었다. 1433년(세종 15) 파저강(婆猪江)의 야인(野人) 이만주(李萬住)가 국경을 침범하여 백성을 괴롭히므로 왕명을 받들어 토벌하고 돌아오니, 세종이 매우 기뻐하며 친히 영접하여 노고를 위로한 후 우의정(右議政)에 특진시켰다. 그는 장군(將軍)으로 30여 년 간 변경에서 위력을 떨쳐 벼슬이 좌의정에까지 올랐으며 궤장(几杖)을 하사받아 당대에 이름을 떨쳤다. 녹(祿)의 후손이며 자양(自陽)의 아들인 입(岦)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서 문장에 능하고 학문이 뛰어났으며, 임진왜란 때 승문제조(承文提調)로 외교문서 작성의 제1인자였고, 여러 차례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문명을 날렸다.

그 밖에 윤덕(潤德)의 아들 숙손(淑孫)이 조선(朝鮮) 때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지냈고, 숙손의 동생 광손(廣孫)은 군수(郡守)를, 윤덕의 동생 윤옥(潤玉)은 수찬관(修撰官)을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천 최씨는 파주시에 총 11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통천 최씨 후손들의 입향조인 최운해(崔雲海)의 묘가 파주읍에 있다.

해주 최씨(海州崔氏)

해주 최씨(海州崔氏)의 시조는 해주(海州)의 목민관(牧民官)으로 선정을 베풀었으며 또한 문명이 높았고 뒤에 판이부사(判異副詞)를 역임한 최온(崔溫)이다. 선조들이 일찍이 대령군(大寧郡) 수양산(首陽山) 밑에서 누대에 걸쳐 세거하였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해주(海州)로 삼고 문호를 열었다.

해주는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조선 이후 대방군에 속하여 고죽(孤竹)으로 불렸고, 고구려 때에는 내미홀(內米忽)·지성(池城)·장지(長池) 등으로 불렸다. 통일신라 때 폭지군(瀑池軍)으로 고쳤고, 고려 태조가 해주(海州)라는 이름을 내렸다. 성종 때 와서는 별호로 대령(大寧)·서해(西海)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역사인물로는 황해도 대령군에서 시골 향리인 온(溫)의 아들로 태어난 동방유학(東方儒學)의 비조이며 해동공자(海東孔子)로 일컬어지는 충(沖)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고1005년(목종 8) 20세의 나이로 갑과(甲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우습유(右拾遺)를 거쳐 1013년(현종 4) 국사수찬관(國史修撰官)이 되어 태조(太祖)에서 목종(穆宗)까지의 실록편찬(實錄編纂)에 참여하였다.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형부상서(刑部尙書)·중추사(中樞使)를 거쳐 1047년(문종 1)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되어 법률관들에게 율령(律令)을 가르침으로서 고려 형법(刑法)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농번기(農繁期)의 공역 금지와 국가재정 낭비를 금하도록 상소하여 이를 실행케 했다. 그 후 동여진(東女眞)의 동태를 파악하여 그 국방경계의 강격책을 쓰도록 하는 등 많은 업적을 세워 1053년(문종 7) 궤장(几杖)을 하사받았고 추충찬도협모동덕치리공신(推忠贊道協謨同德治理功臣)으로 개부의동삼사. 수태사 겸 문하시중·상주국 치사(上注國致仕)가 되었다. 1055년(문종 9) 내사령(內査令)으로 치사(致仕)한 뒤 사숙을 열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해동공자 충(沖)의 아들 유선(惟善)과 유길(惟吉)도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데, 유선(惟善)은 학문이 깊고 사리에 밝았으며 여러 번 지공거(知貢擧)가 되었다. 1030년(현종 21)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한림원(翰林院)에 들어가 1047년(문종 1) 어사잡단(御史雜端)을 거쳐 형부상서(刑部尙書)를 역임하였다. 수태위(守太慰)·중서령(中書令)에 추증되었다. 유선(惟善)의 동생 유길(惟吉)은 호부상서(戶部尙書)·태자빈객(太子貧客)·상서우복야(常書右僕野)를 거쳐 1077년(문종 31) 수사공(守司空) 섭상서령(攝尙書令)에 올랐다. 사제(思齊)는 충(沖)의 손자이고 유선(惟善)의 아들로 1054년(문종 8) 문과에 급제하고 1081년(문종 35) 예부상서(禮部尙書)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송나라에 다녀와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중추원사(中樞院使)·참지정사(參知政事)를 역임, 1090년(선종 7) 수사공(守司空)·판리부사·상주국(上柱國)에 이르렀다.

유길(惟吉)의 아들 사량(思量)은 18세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공부 시랑(工夫豺狼)으로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송나라에 다녀오고 1084년(선종 1) 동지충추원사로 지공거(知貢擧)를 겸했다. 1086년(선종 3) 중추원사(中樞院使)를 거쳐 여러 관직에 올랐고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냈다. 유길(惟吉)의 둘째 아들인 사추(思諏)는 문종(文宗) 때 문과에 급제, 내시(內侍)가 되고 전중소감(殿中少監)·지상서호부사를 거쳐 서경부유수(西京副留守)를 역임하고 1094년 (현종즉위) 동지충추원사·좌산기상시를 비롯한 여러 관직에 종사하다 문하시중(門下市中)에 승진하여 보정공신(補正功臣)이 되었고, 예종(睿宗) 때 중서령(中書令)으로 치사(致仕)하였으며 뒤에 추성봉국공신(推誠奉國功臣)에 대령군개국후(大寧郡開國侯)가 되었다.

자(滋)는 강종(康宗) 때 문과에 급제하여 상주사록(尙州司錄)을 거쳐 학유(學諭)로 있을 때 이

규보(李奎報)에게 문재(文才)가 인정되어 그의 추천으로 문한(文翰)을 맡았다. 급전도감녹사(給田都監錄事)로 민첩 근면하게 일을 하여 집정사 최우(崔瑀)의 인정을 받았으며, 고종(高宗) 때 정언(正言)을 거쳐 상주목사(尙州牧使)가 되어 선정을 베풀고 전중소감·보문각대제학이 되었다. 1256년(고종 43) 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를 역임하고 1259년(고종 46)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로 치사했다. 시문(詩文)에 뛰어나 당대에 크게 문명(文名)을 떨쳤고 저서(著書)로는 『최문충공가집』·『보한집』·『삼도척』 등이 있다.
춘명(椿命)은 1231년(고종 18) 자부주사(慈州副使)로서 몽골군에 포위된 성(城)을 고수하며 용감하게 싸웠고 후에 일등공신에 책록되고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에 발탁되었으며, 황(滉)은 1579년(선조 12) 함경도 암행어사로 나가 지방의 기한(饑寒) 구제대책 8조를 상소했으며 좌찬성(左贊成) 겸 세자이사(世子貳師)를 지냈고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조선시대에서는 세종 때 문신이며 학자로 청백리(淸白吏)에 녹석된 만리(萬里)를 꼽을 수 있다. 당시에 바른 말 잘 하기로 이름이 높았으며 1419년(세종 1) 생원으로 증광문과에 급제, 홍문관(弘文館)에 기용되어 집현전박사(集賢殿博士)를 겸임했다.
경회(慶會)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규합하여 전라우도 의병장으로 금산(錦山)·무주(茂朱)·창원(昌原)·성주(星州) 등지에서 왜병을 격퇴하고 전공을 세워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승진한 후 진주성(晋州) 싸움에 참가, 창의사 김천일 등과 함께 밤낮 9일 동안 싸우다가 전사한 명장이며,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규서(奎瑞)는 1680년(숙종 6)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지평(持平)을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1699년(숙종 25) 대사헌(大司憲)·대제학(大提學)·형조와 이조판서를 지냈다. 1721년(경종 1) 소론(小論)의 영수(領袖)로서 우의정이 되었고 1723년(경종 3) 영의정에 올라 치사하고 1728년(영조 4) 이인좌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서울로 올라와 고변(告變)하므로 난을 토평케 하여 왕으로부터 일사부정(一絲扶鼎)이라는 서찰을 받았으며 영조(英祖)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한말에는 조국독립을 위하여 몸 바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인 린(麟)은 어릴 때부터 두뇌가 명철하여 1896년 19세로 함남감찰부 집사(執事)가 되었고 25세에 활빈당(活貧黨)과 일심회(一心會)에 가입했다. 그는 1919년 최남선(崔南善)·현상윤(玄相胤) 등과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지도자 선출을 밀의하고 초안을 작성, 최남선으로 하여금 완성케 하였으며 후에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대한독립을 선언한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주 최씨는 파주시에 총 2,30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탄면 방축1리 검전리 마을의 해주 최씨는 전한공파조 다섯째 아들 최연의 후손이다. 방축리 돌산에 재실이 있으며 재실 옆으로 묘역이 있다. 묘역의 제일 상단에는 현재 방축리에 거주하고 있는 36세손의 12대조 윗대 선조인 최상필의 묘가 위치하고 있으며 묘비에 효종 기해년 3월 10일생(1659), 숙종 무술년 11월 2일 졸(1718)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17세기에 광탄면 방축리 마을에 입향해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해주최씨 전한공파는 양력 11월 셋째 일요일에 광탄면 방축1리 산57번지에 있는 재실 산수재(山水齋)에서 시제를 지낸다.

화순 최씨(和順崔氏)

화순 최씨(和順崔氏)는 최씨의 득성조인 소벌도리(蘇伐都利)의 후손으로 고려 중엽 평장사(平章事)를 지냈고 오산군(烏山君)에 봉해진 최세기(崔世基)를 시조로 하고 본관을 화순(和順)으로 하여 세계를 이었다. 그러나 상계가 실전되어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을 거쳐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후손 최계(崔系)를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고 있다.

화순은 전라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원래 백제 잉리아현(仍利阿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여미(汝湄)로 고치고 능성군(綾城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으며 고려 초에 화순(和順)으로 고쳐 나주에 속했다가 후에 능성(綾城)에 편입시켰고 공양왕 때 다시 설치하였다. 1394년(태조 3)에 2현으로 나누어서 동복(同福)을 설치하여 겸임시켰고, 1405년(태종 5) 2현을 합하였으며 1407년(태종 7) 복순(福順)이라 고쳐서 칭하였다. 1416년(태종16) 다시 동복(同福)을 설치하고 화순현을 능성(綾城)에 편입시켰으며, 순성(順城)이라 칭하다가 1418년(태종 18)에 각각 복구하였다. 1594년(선조 27) 능성에 편입시켰고 1611년(광해군 3) 다시 화순현을 설치하였으며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되었다. 1914년 능주·동복의 양군을 합하였고 1963년 화순면이 화순읍으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언(堰)의 아들 계신(繼臣)이 고려 때 봉상대부(奉常大夫)를 지냈으며 계신(繼臣)의 영호(永浩)가 충렬왕 때 보승산원(保勝散員)을 지냈다. 충절공 영유(永濡)는 1361년(공민왕 10) 해주목사(海州牧使)로서 홍건적의 침입으로 포위된 수양성(首陽城)을 끝까지 지키다가 적의 공격으로 성(城)이 함락되자, 혈서(血書)를 남기고 귀중한 관인(官印)을 안고 깊은 못에 투신 자결했다. .

선문(善門)은 일찍이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금릉(金陵)에서 학문에 전심하여 김종직(金宗直) 등의 존경을 받았다. 그 후 수양대군이 단종 때 정권을 장악하자 좌찬성(左贊成)으로 기용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중홍(重洪)은 1495년(연산군 1)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사관(史官)이 되었고,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 예조정랑으로 삭직당했으나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으로 복직되어 형조참의를 지낸 후, 1524년(중종 19) 형조참판으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영경(永慶)은 1584년(선조 17) 교정청낭관(校正廳郞官)이 되어 『경서훈해(經書訓解)』 교정에 참여한 후 낙향하여 학문에 전념했다. 1589년(선조 22)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 때 그 배후자로 무고를 받아 투옥되어 국문(鞫問)을 받다가 옥사(獄死)했다.

일(逸)은 음보(陰補)로 벼슬에 올라 교리(校理)를 거쳐 1653년(효종 4) 홍천현감(洪川縣監)에 올랐고, 1660년(현종 1) 헌납(獻納)으로 『효종실록』 편찬에 참여 했으며 장성부사(長城府使)·장령(掌令)·집의(執義)를 거쳐 뒤에 병조와 형조참판(刑曹參判)을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순 최씨는 파주시에 총 25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 최씨(黃州崔氏)

황주 최씨(黃州崔氏)는 소벌도리(蘇伐都利)의 후손으로 전주 최씨에서 분적하였다고 하나 확증할 근거가 없다. 황주 최씨의 시조 최남혁(崔南赫)은 성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황주목사(黃州牧使)로 재임 중 억울함 누명을 쓰고 의주(儀註)로 유배당했다가 죽은 후에 누명이 벗겨져 죄를 사면함과 동시에 좌의정으로 추증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그를 시조로 하고 그의 재임지였던 황주(黃州)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황주는 황해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동홀(冬忽)·동어홀(冬於忽)이었으며 신라 헌덕왕 때 취성군(取城郡)으로 개칭되었고, 고려 초에 황주(黃州)라 하였다. 983년(성종 2) 목을 두었고 그 후 절도사(節度使)를 두었으며 천덕군(天德郡)이라 하여 관내도(關內道)에 속하였다. 1012년(현종 3) 안무사(安撫使)를 두었다가 또 목으로 고쳐 서해도(西海道)에 속하였으며 고종(高宗) 때 지고령군(知高寧郡)으로 강등, 후에 다시 황주목(黃州牧)으로 환원되었다. 1269년(원종 10) 원나라의 동녕부(東寧府)에 속하였고 1290년 서북면에 이관되었으며 공민왕(恭愍王) 때 다시 서해도에 이관, 조선 세조 때에 진(鎭)을 두어 2도호부, 6군, 5현 등을 관할하여 오다가 1895년에 황주군(黃州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중식(重湜)이 병조좌랑에 임명되었다가 돈령도정(敦寧都正)에 이르렀다. 의산(義山)은 고향인 의주에서 3·1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운동 자금조달과 동지 규합에 힘썼으며, 석순(碩淳)은 항일투사로 1919년 만주로 건너가 대한독립단에 가입하여 임시정부 휘하의 육군참의부(陸軍參議府) 제2중대장·참의장(參議長)을 지내면서 항일무력항쟁을 벌였으며, 1925년 일본군) 공격을 위한 작전계획 회의 중 수비대의 기습을 받아 응전 끝에 전사했다.

군인이며 외교관으로 이름난 덕신(德新)은 1914년 평북 의주에서 출생하여 1946년 육사(陸士) 3기 특별반을 졸업하고 1949년 미국육군종합학교를 마친 후 주월공사, 외무부장관, 유엔총회 수석대표, 서독대사 등을 역임하고 1967년 천도교 교령을 거쳐 1971년 종교협회회장을 역임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주 최씨는 파주시에 총 1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해 최씨(興海崔氏)

흥해 최씨(興海崔氏)는 경주 최씨와 동원(同源)으로, 전주 최씨 일파조 최균(崔均)의 11세손인 최호(崔湖)가 고려조에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에 오르고 곡강부원군(曲江府院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삼고 본관을 흥해(興海)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으나, 시조 이하 중간 계대가 병화로 실전되어 소목을 상고할 수 없어, 그의 6세손으로 직제학(直提學)을 역임한 최연(崔淵)을 일세조로 하여 계대하고 있다.
흥해는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본래 신라의 퇴화군(退火郡)인데 경덕왕이 의창군(義昌郡)으로 고쳤고, 고려 초에 흥해(興海)로 고쳐 현종 때 경주에 속하였다가 1172년(명종 2) 감무를 두었다. 공민왕 때 지주사(知州事)로 승격하였으며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내려왔고, 1914년 영일군(迎日郡)에 병합되어 일부 지방은 1973년 이후 의창읍으로 내려오다가 1983년 흥해읍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팔개(八凱)가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집하여 부산진(釜山鎭) 전투에서 왜군과 격전 중에 전사하였고, 동생 팔원(八元)은 1585년(선조 18) 문과에 급제하여 봉사(奉事)를 거쳐 박사(博士)에 재임 중 임진왜란을 당하여 형 팔개(八凱)와 함께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흥해 최씨는 파주시에 총 10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 추씨(秋溪秋氏)

추씨(秋氏)는 중국 성씨이다. 송나라 고종(高宗) 때 문과에 급제한 추엽(秋饁)이 고려 인종 때 가솔을 이끌고 함흥 연화도(蓮花島)에 정착하여 우리나라 추씨(秋氏)의 시조가 되었다. 추씨는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의 문헌(文獻)에 47본(本)까지 기록되어 있으나, 모두가 동원분파며 현존하는 관향은 전주(全州)·추계(秋溪) 두 본(本)이다.
추계는 경기도 양지(陽智)를 말한다. 본래 수주양량부곡(水州陽良部曲)인데 1399년(정종 1) 처음으로 현(縣)을 두고 양지(陽智)라 명하였다. 1413년(태종 13) 현감을 두고 치소를 광주추계향(廣州秋溪鄕)으로 옮기고 죽주(竹州)의 고안(高安)·대곡(大谷)·목악(木岳)·제촌(蹄村) 4부곡(部曲)을 병합하여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내속하였다.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하고 1914년 용인군(龍仁郡)에 병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엽(饁)의 아들 황(篁)이 1209년(희종 5) 성균시험(成均試驗)에 장원하고 1213년(강종 3) 문과에 급제한 후 예부상서(禮部尙書)·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등을 지냈다. 황(篁)의 아들 적(適)은 문장에 뛰어났고, 민부상서(民部尙書)·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등을 역임한 후 시랑(侍郞) 겸 국학교수(國學敎授)에 이르러 『명심보감(明心寶鑑)』을 중국에 전파하였다. 이부시랑(吏部侍郞) 천일(天日)의 아들 수경(水鏡)은 명나라에 건너가 무강자사(武康刺史)에 재임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원병(援兵)으로 이여송(李如松)의 부장(副將)이 되어 아들 노(蘆)·추(萩) 형제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 곽산(郭山)·동래(東萊) 등지에서 많은 전공(戰功)을 세우고 정유재란 때 전주 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여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적(適)의 후손 익한(益漢)이 세종 때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지내고 향리로 돌아가 시서(詩書)로 자락(自樂)하다가 어린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어 오자 머루·다래 등을 따다 바치며 충성을 다하였다. 1457년(세조 3) 단종이 살해되자 그도 따라 죽으니 세상 사람들은 당시 단종의 시신을 거둔 엄흥도(嚴興道)와 더불어 ‘살아 생전 추충신(秋忠臣)이요, 죽어서는 엄충신(嚴忠臣)’이라고 일컬었다.
한말에는 ‘칠의사(七義士)’의 한 사람이던 치경(致鏡)이 충주 장현(長峴)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고, 용만(鏞滿)·용소(鏞召) 형제는 합천에서 결사대를 조직하고 일본 수비대를 공격하다 순국하였다.
그 밖에 전북 익산에서 의병을 일으켜 윤현보와 함께 영암(靈岩)·동해(東海) 등지에서 활약한 기엽(琪燁)과 군자금 마련을 하다 체포되어 3년간 옥고를 치른 교철(敎哲) 등이 뛰어났고, 독립애국단을 조직하여 단장이 되어 동지규합에 노력하고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하여 군자금 모금에 공헌한 규영(圭映)을 비롯하여 많은 애국열사가 배출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계 추씨는 파주시에 총 26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추계 추씨는 서울 무악재에 세거하던 선대가 파주로 입향하면서 탄현면 금산리에 정착 하였다.
현재 탄현면 금산리에는 8가구에 30여명의 추계 추씨들이 살고 있으며 선영은 탄현면 축현리 덕수동에 있다. 매년 음력 10월 15일 시제를 지낸다. 추계 추씨 족보가 있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된 <금산리민요> 보존회장 추교현씨를 비롯해 추교욱, 추교전씨 등이 금산리에 거주한다.

광산 탁씨(光山卓氏)

광산 탁씨(光山卓氏)의 시조는 탁지엽(卓之葉)이다.
그는 고려 선종(宣宗) 때 학행으로 천거되어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되고 뒤에 태사(太師)에 이르러 광산군(光山君)에 봉해졌으며, 문성(文成)이란 시호(諡號)를 제수(除授)받았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본관을 광산(光山)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광산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곳으로 백제의 무진주(武珍州)였는데, 757년(경덕왕 16)에 무주(武州)로 이름을 고쳤다. 이후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다가, 1935년 광주(光州)가 부(府)로 승격됨에 따라 광산군(光山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지엽(之葉)의 맏아들 도민(道敏)이 선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보문각대제학을 역임하였으며, 둘째 도집(道集)은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역임하였다. 인종(仁宗) 때 문과에 급제한 원광(元光)은 대제학(大提學) 도민(道敏)의 아들로 벼슬이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렀고 선종의 부마(駙馬)가 되어 광성군(光城君)에 봉해졌으며, 그의 손자 종성(宗成)은 신종조(神宗朝)에 보문각대제학을 역임하고 해양군에 추봉되어, 공민왕(恭愍王) 때 내서사인(內書舍人)을 거쳐 예의판서(禮儀判書)에 이른 광무(光茂)와 함께 명성을 날렸다.
조선에서는 태종 때 지신사(知申事)·이조참판(吏曹參判) 등을 지내고 예문관제학을 거쳐 의정부참찬에 오른 신(愼), 가선대부로 동지중추부사에 오른 유진(惟進)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산 탁씨는 파주시에 총 16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순 태씨(永順太氏)

영순 태씨(永順太氏)는 태씨(太氏)의 도시조(都始祖) 태중상(太仲象)의 18세손으로 상장군을 지냈고 병마원수(病馬元帥)로 영천군(永川君)에 봉해진 태웅성(太雄成)의 아들 태금취(太金就)를 일세조로 하고 있다.

『협계태씨족보(陜溪太氏族譜)』에 의하면 금취는 고려 고종(高宗) 때 금교(金郊)에서 몽골군을 격퇴하는 데 공을 세워 대장군(大將軍)에 올라 영순군(永順君)에 봉해져, 상주군 북면 임하촌에 정착 세거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협계 태씨에서 분적하여 관향을 영순(永順)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영순은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상주(尙州) 북면(北面) 임하촌(林下村)인데 고려 때 영순(永順)으로 고쳐 현(縣)으로 승격하고 상주(尙州)에 속하게 하였다. 지금은 경상북도(慶尙北道) 문경군(聞慶郡) 영순면(永順面)이다.

역사인물로는 효정(孝貞)의 아들 두남(斗南)이 뛰어났다. 그는 일찍이 김진양(金震陽)의 문하(門下)에서 학문을 배워 1513년(중종 8) 생원(生員)·진사(進士) 양시(兩試)에 합격, 같은 해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형조좌랑(刑曹佐郞)을 거쳐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를 지냈으며, 1536년(중종 31) 종부시정(宗簿시正)이 되어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을 겸했으나 권신(權臣) 김안로(金安老)의 미움을 사서 성주목사(星州牧使)로 좌천되었다. 특히 그는 시문(詩文)에 뛰어나 저서(著書)로 『쇄언(瑣言)』을 남겼으며, 옥천서원(玉川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그 밖에 진사를 지낸 언룡(偃龍)과 순민(舜民)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순 태씨는 파주시에 총 4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강 편씨(浙江片氏)

편씨(片氏)는 중국 당나라 종실(宗室)의 후손으로 본래 남송 때 현유(賢儒)인 이동(李侗)의 8세손 이지(李址)가 명조 때 한림원태학사(翰林院太學士)로서 일편단 충간(忠諫)의 공(功)으로 편씨(片氏)를 사성받았다.

우리나라 편씨(片氏)의 연원은 다음과 같다. 편지(片址)의 현손인 편갈송(片碣頌)이 임진왜란 때 명군 이여송 휘하의 군무총병유격장(軍務總兵遊擊將)으로 들어와 평양에서 전공을 세우고 귀국하였다가, 정유재란 때 중군도독(中軍都督)으로 다시 조선에 건너와 직산(稷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 선조로부터 노고를 치하하는 친서를 받았으며, 당시 본국의 어지러운 소식을 듣고 환국을 단념한 뒤 경주 금오산(金鰲山)에 은거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본국의 아들, 풍세(豊世)·풍원(豊源)·산보(山甫) 3형제가 금오산으로 와서 아버지를 봉양하다가 갈송(碣頌)의 상 당하자 삼년간 시묘한 후 경주(慶州)를 떠나 풍세(豊世)와 풍원(豊源)은 나주(羅州)에, 산보(山甫)는 만경(萬頃)에 정착 세거하며 편갈송(片碣頌)을 시조로 하고 선향인 절강(浙江)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편씨의 가계는 나주(羅州)에 뿌리를 내린 풍세(豊世)가 슬하에 아들 성대(成大)와 문수(文秀)를 두었으며, 풍원(豊源)은 응복(應福)·한정(漢鼎)·영표(永標) 3형제를, 만경(萬頃)에 정착한 산보(山甫)는 외아들 순당(郇堂)을 두어 이들의 자손 대에서 크게 번성하였다.

절강은 중국 동남부(東南部) 동해(東海) 연안에 위치하여 양자강(楊子江) 하류의 남부를 점하고 있으며, 전당강(錢塘江)에 의하여 동서(東西)로 나누어져 항주(杭州)를 성도(省都)로 하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고종(高宗) 때 무과에 급제하여 전주중군(全州中軍)을 지낸 기진(沂珍)과 정평부사(定平府使) 좌언(佐彦)이 있으며 독립운동가로 명성을 날린 강렬(康烈)·덕렬(德烈)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강 편씨는 파주시에 총 3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 표씨(新昌表氏)

표씨(表氏)는 중국에서 귀화해 온 성씨이다. 신창 표씨(新昌表氏)는 중국 고대 오계시대(五季時代: 오대의 문란해진 시대를 일컫음)에 후주(後周)의 이부상서(吏部尙書) 표대박이 서기 960년(고려 광종 11) 장(張)·방(方)·위(韋)·변(邊)·윤(尹)·진(秦)·감(甘)·황보(皇甫) 등 8성(八姓)과 함께 고려에 들어와 귀화함으로서 연원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세계가 실전되고 소목을 밝힐 수 없어, 후손들은 충숙왕 때 합문지후(閤門祗侯)·평장사(平章事) 등을 지내고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올라 온창백(溫昌伯)에 봉해진 표인려(表仁呂)를 중시조(中始祖)로 하고, 신창(新昌)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신창은 충청남도 아산군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 굴직현(屈直縣)을 통일신라 때 기량현(祁梁縣)으로 고쳐 온정군(溫井郡: 온양)에 딸리게 하였고, 고려 초에 신창현으로 개칭하여 천안부의 영현으로 삼았다. 조선 태종 때 온수현(溫水縣: 온양)과 합하여 온창(溫昌)이라 하였다가 곧 다시 갈라서 신창현으로 하였고 1914년 아산군에 들어가 신창면(新昌面)이 되었다.

역사인물로 감찰(監察)을 지낸 계(繼)의 아들 연말(沿沫)은 성종 때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 장령(掌令)·시독관(試讀官)·사간(司諫) 등을 지냈으며 당대의 명문장으로 이름이 높아 성종의 총애를 받았다. 이어 연산군(燕山君) 때에는 응교(應敎)로 춘추관 편수관(春秋館編修官)이 되어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했으며, 그 후 직제학(直提學)을 거쳐 승지(承旨)·대사간(大司諫) 등을 지냈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낸 헌(憲)과 그의 아들 정로(廷老)는 당대의 명역관(名譯官)·명문장(名文章)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 밖에 참봉(參奉)을 지낸 근석(根碩)·인(仁)·명서(明瑞), 의병을 일으켜 전공을 세우고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의 녹권(錄券)을 받은 광수(光守)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창 표씨는 파주시에 총 24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 피씨(槐山皮氏)

홍천 피씨에서 분적된 계통으로 알려진 괴산 피씨(槐山皮氏)는 조선개국공신으로 병조판서와 전라감사 등을 지낸 시조 피득창(皮得昌)이 괴산(槐山)에 정착 세거하면서 후손들이 괴산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괴산은 충청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고구려 때 잉근내군(仍斤內郡)이라 하였으며, 신라 때 괴양군(槐壤郡), 고려 때 괴주군(槐州郡)으로 개칭하였다. 1018년(고려 현종 9)에 충주(忠州)에 예속시켜 감무관(監務官)을 두어 다스리게 하고, 1403년(태종 3)에 괴주지사(槐州知事)로 고쳤으며, 1413년(태종 13)에 분리하여 괴산군(槐山郡)이라 고쳐 불렀다. 1895년(고종 32)에 충주부(忠州府)에 속했다가 1914년 연풍군(延豊郡)을 병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득창(得昌)의 아들 강지(康芝)가 장령(掌令)을 지냈으며, 손자 정(釘)이 진사(進士)를, 증손 소(嬈)는 목사(牧使)를 역임하여 판서(判書)에 오른 후손 홍군(洪君), 통덕랑(通德郎) 경송(卿松), 방어사(防禦使) 동현(洞鉉) 등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 밖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종남(宗南), 판관(判官) 세만(世萬), 통사랑(通仕郎) 세담(世淡), 통덕랑(通德郎) 경우(景祐), 참봉(參奉) 봉준(鳳俊)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괴산 피씨는 파주시에 총 1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성 하씨(達城夏氏)

달성 하씨(達城夏氏)는 중국 송나라의 귀화족(歸化族)으로 전한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의하면 송나라에서 대도독(大都督)이었던 하흠(夏欽)이란 사람이 고려 인종 때 귀화하여 달성에 정착한 것이 우리나라 하씨(夏氏)의 시원이라고 한다. 그 후 흠(欽)의 아들 용(溶)이 고려 때 나라에 공을 세워 달성군(達城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시조를 흠(欽)으로 하고 본관을 달성(達城)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달성은 현재 대구광역시 일원의 옛 지명으로 별호로 삼한시대에는 달구화(達句火) 또는 달구벌(達句伐)이라 불렸다. 영조 때에 대구(大丘)를 대구(大邱)로 변경하였으며,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정으로 대구부 대구군이 되었다가 1914년 군면 폐합으로 대구부의 시가지 부분인 대구면이 대구부로 독립하고 옛 대구부의 일부와 현풍군의 일부가 통폐합되어 달성군이 되었다. 1938년 달성군의 일부가 대구부로 편입되었고, 1949년에는 대구시로 개편되었다. 1981년에 대구직할시로 승격되었고, 1988년에 달서구가 신설되었다. 1995년 대구광역시로 개편하면서 달성군을 통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흠(欽)의 현손 광신(光臣)이 고려 때 이부시랑(吏部侍郞)을 역임하였으며, 혁하(赫河)가 대장군(大將軍)을 지냈다.

조선에서는 인경(仁敬)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시우(時雨)가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하여 가문을 중흥시켰다.

그 밖에 정조 때의 학자 시찬(時贊)은 학행(學行)으로 유명했으며, 벼슬을 단념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여 『열암집(悅庵集)』을 저술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달성 하씨는 파주시에 총 1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 하씨(晉州河氏)

하씨(河氏)의 선계는 삼한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고증할 문헌이 없다. 진주 하씨(晋州河氏)는 연원을 알지 못하는 다음 3계통으로 갈리어 세계(世系)를 잇고 있다.

첫째는 고려 현종 때 좌사시랑(左司侍郎)을 지냈고 평장사(平章事)에 추증된 하공진(河拱辰)을 시조로 하는 시랑공파(侍郎公派)이다. 둘째는 고려 정종과 문종 대에 걸쳐 사직(司直)을 지낸 하진(河珍)을 시조로 하는 사직공파(司直公派)이다. 셋째는 고려 때 주부(主簿)를 역임한 하성(河成)을 시조로 하는 단계공파(丹溪公派)이다.

진주는 경상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거열성(居烈城)인데 신라 문무왕 때 신라의 영토가 되어 거열주(居烈州)라 하였고, 757년(경덕왕 16) 9주 5소경제의 실시와 함께 강주(康州)로 고쳤다가 뒤에 청주(菁州)로 개칭되었다. 고려초에 다시 강주로 환원하였고, 995년(성종 14)에 진주(晋州)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뒤 조선에 와서는 진양도호부(晋陽都護府)가 되기도 하였으나 진주목(晋州牧)으로서 서부 경남 일대를 관할하였다. 그 후 여러 변천을 거쳐 1949년에 진주시(晋州市)가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순흥부사(順興府使) 윤린(允麟)의 아들 륜(崙)이 뛰어났다. 그는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고 감찰규정(監察糾正)이 되어 신돈(辛旽)의 비행을 공박하기도 했으며 조선개국 후 경기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계룡산(鷄龍山) 천도(遷度)를 반대하여 한양도읍(漢陽都邑)을 주장했다. 제2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워 진산백(晉山伯)으로 진봉되어 좌명일등공신(佐命一等功臣)에 책록되었으며 『태조실록)』 편찬을 지휘하는 한편 이첨(李澹)과 함께 『동국사략(東國史略)』을 편찬한 후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에 봉해졌다. 부윤(府尹) 자종(自宗)의 아들 연(演)은 세종 때 대사헌에 이르러 불교개혁을 추진했으며 형조판서, 좌찬성, 우의정을 역임한 후 영의정에 이르렀다.

충절로써 하씨 가문을 빛냈으며 사육신의 한 사람인 위지(違地)는 첨(詹)의 아들인데, 1438년(세종 20)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사가독서(賜暇讀書)로 학문을 연마한 후 집현전교리(集賢殿校理)가 되어 『오례의주(五禮儀註)』, 『역대병요(歷代兵要)』편찬에 참여했으며, 단종 때 부제학(副堤學)에 이어 예조판서를 지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후 부득이 받은 녹(祿)은 하나도 먹지 않고 창고에 보관한 절신(節臣)이었다. 1456년(세조 2)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과 함께 단종복위(端宗復位)를 꾀하다가 거사에 실패하자 형 강지(綱地), 아우 기지(紀地), 소지(紹地)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

그 밖에 예조좌랑을 지낸 윤(潤)은 당대의 이름난 학자로 『운수당실기(雲水當實記)』를 저술했고, 참봉 영수(永水)의 아들 응림(應臨)은 명종 때 예조정랑을 지냈는데 문장이 뛰어나 송익필(宋翼弼) 등과 함께 당대 '8문장(八文章)'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 하씨는 파주시에 총 1,02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산 한씨(谷山韓氏)

곡산 한씨(谷山韓氏)의 시조는 한예(韓銳)이다.
고려에서 문하시중평장사를 지낸 그는, 중국 송나라 출신으로 206년(고려 희종 2) 8학사의 한 사람으로 고려에 들어와 곡산군(谷山君)에 봉해지고 본관을 곡산(谷山)으로 하사받았다고 한다.
곡산은 황해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십곡성(十谷城)인데 신라 경덕왕이 진서(鎭瑞)로 고쳐서 영풍군(永豊郡: 평산)의 영현으로 삼았으며 고려 초에 곡주(谷州)로 개칭하였다. 조선 태조 때 곡산(谷山)으로 고쳐서 부(府)로 승격하였다가 태종(太宗) 때 군으로 격하, 1669년(현종 10) 다시 부로 승격되었으며, 1895년(고종 32) 곡산군(谷山郡)이 되어 개성부(開城府)에 속하였다가 1914년 황해도에 속한 군이 되었다. 별칭은 덕둔홀(德둔忽)·고곡(古谷)·진서(進瑞)·상산(象山) 등이다.
역사인물로는 그의 아들 희(禧)가 고려 때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지냈으며, 손자 익(翊)은 판도판서(版圖判書)에 올라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낸 아들 진(瑨)과 함께 가문을 빛냈다.
조선 태조 때 사헌부감찰을 지낸 옹(雍)은 예(銳)의 6세손으로 사헌부감찰·능성군수(綾城郡守) 등을 거쳐 태종 때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병조판서에 이르렀다. 학자로 이름난 여유(汝愈)는 일찍이 서경덕(徐景德)·송시열(宋時熱)에게 학문을 배워 상수(象數)·병진(兵陣)·성률(聲律) 등에 능통했고, 치상(致相)의 아들 이원(以原)은 숙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외직(外職)을 지냈으며 경사(經史)와 시(詩)·역학(易學) 등에 뛰어났다.
그 밖에 부윤(府尹)을 역임한 덕후(德厚), 학자(學者) 시유(是愈)·문건(文健)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곡산 한씨는 파주시에 총 2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한씨(淸州韓氏)

청주 한씨(淸州韓氏)의 시조는 한란(韓蘭)이다.
그는 기자(箕子)의 후예로 상당 한씨(上黨韓氏)를 습성하였다는 우량(友諒)의 32세손으로 전한다. 『청주한씨족보(淸州韓氏族譜)』에 의하면 란(蘭)은 서기 928년 고려 태조가 후백제 견훤을 정벌할 때 장검을 들고 함께 출정하여 삼한통합에 공을 세워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으로 삼중대광태위(三重大匡太尉)에 올랐으며 청주 방정리(方井里)에 세거하였다. 그러므로 후손들은 청주(淸州)를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청주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원래 마한 땅이었다가, 백제 때 상당현(上黨縣), 일명 낭비성(娘臂城)·낭자곡(娘子谷)으로도 불렸다. 685년(신라 신문왕 5) 서원소경(西原小京)을 두었고 757년(경덕왕 16)에 서원경(西原京)이 되었으며, 940년(태조 23)에 청주(淸州)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난(蘭)의 7세손 강(康)이 고려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감찰어사(監察御使)를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라 여러 관직을 역임했고 충렬왕 때 성절사(聖節使)로 원나라에 다녀와 『고금록(古今錄)』을 저술했으며 첨의중찬(僉議中贊)으로 치사(致仕)하였다.
밀직사(密直司) 영(英)의 아들 종유(宗愈)는 충혜왕 때 첨의평리(僉議評理)로 일등공신에 녹훈되어 한양군(漢陽君)에 봉해졌고 충목왕 때 좌정승에 올랐다. 이어 1349년(충정왕1) 한양부원군(漢陽府院君)에 진봉(進封)되어 치사(致仕)하였다. 간의대부(諫議大夫) 사기(謝奇)의 아들 악(渥)은 우정승(右政丞)으로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에 봉해졌다.
조선에서는 수(脩)의 아들 상환(尙桓)·상질(尙質)·상경(尙敬)·상덕(尙德) 형제가 모두 뛰어났다. 그중 예문춘추관대학사(藝文春秋館大學士)를 지낸 차남 상질(尙質)은 조선이 개국하자 주문사(奏聞使)로 명나라에 들어가 국호를 조선(朝鮮)으로 결정받고 돌아왔으며, 셋째 상경(尙敬)은 이성계의 개국을 도와 개국삼등공신에 책록되어 도승지(都承旨)를 역임하였고 태종 때는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져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명회(明澮)는 말직인 경덕궁직(敬德宮直)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라 수양대군의 심복이 되어 계유정난에 공을 세워 정난일등공신(靖難一等功臣)에 올랐고 세조가 즉위하자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승진하고 같은 해 가을 좌익일등공신(左翼一等功臣)으로 우승지(右承旨)가 되었다. 2년 뒤인 1457년(세조3) 이조판서에 올라 상당군(上黨君)에 봉해졌고 이어 영의정에 이르러 신숙주(申叔舟)등과 함께『신제대전(新制大典)』의 초안을 완성했다. 광해군 때 좌의정에 오른 효순(孝純)과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副使)를 지낸 여해(如海)는 부원군(府院君)에 진봉되고 우의정을 지낸 응인(應寅)과 함께 가문을 한층 더 중흥시켰다.
동방(東邦) 제일의 명필(名筆)로 일컬어진 석봉(石峯) 호(濩)는 어려서부터 지극한 어머니의 격려로 서예(書藝)에 정진하여 중국(中國)의 서체(書體)와 서풍(書風)을 모방하던 풍조를 벗어나 독창적인 경지를 확립하여 석봉류(石峯流)의 호쾌(豪快)·강건(剛健)한 서풍을 창시했으며, 김정희(金正喜)와 함께 조선(朝鮮) 서예계(書藝界)의 쌍벽을 이루어 동양의 명필(名筆)로 크게 명성을 떨쳤다.
한말에는 의병장 봉수(鳳洙)와 상렬(相烈)은 독립운동에 몸바친 대홍(大弘)·상호(相浩)·우종(禹宗)·필호(弼昊)·훈(焄)·흥(興)·흥근(興根) 등과 함께 충렬로써 명문(名門)의 대를 이었으며, 불교의 대중화와 항일독립사상의 고취에 힘썼던 만해(萬海) 용운(龍雲)은 3·1운동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수여되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 한씨는 파주시에 총 6,73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청주 한씨의 입향조(入鄕祖)는 고려조의 한언공(韓彦恭, 940~1004)이며 문하시중에 올랐고 고향인 장단을 단주(端州)로 승격시켰고 목종(穆宗)의 묘정에 배향된 인물이다. 그 뒤를 이어 한공의(韓公義, 1307~1365), 한악(韓渥, 1274~1342), 한수(韓脩, 1333~1384), 한리(韓理, ?~1417), 한제(韓齊, 1349~1398), 한상질(韓尙質, ?~1400) 등이 청주 한씨의 고려때 인물들이며 이들 묘가 모두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 조성되어 있다.
청주 한씨 참판공파는 파평면 장파리 봉우재 마을에 연천군 미산면에서 약 300여년 전에 입향하여 약 20여호가 대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또, 청주 한씨 문열공파는 한국전쟁 때 피난나와 조리읍 장곡3리에서 14호가 살고 있다.
참판공파는 종중 총회를 음력 7월 15일경 개최하며, 시제는 음력 10월 10일 근처 일요일에 지낸다. 선영은 진동면 서곡리(한상질 묘), 적성면 답곡리(한내문 묘), 교하동 교하리 등이다.
유항 한수 묘는 경기도기념물 제187호로 지정되어 있다.

강릉 함씨(江陵咸氏)

강릉 함씨(江陵咸氏)의 원조(遠祖) 함혁(咸赫)은 삼한(三韓) 초 한강(漢江)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이 소국(少國)을 형성할 때 용문산 서록(龍門山西麓: 현재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상곡)에 석성(石城)을 쌓고 웅거한 촌장으로 세칭(世稱) 함왕주악(咸王周鍔)이라 불렸다고 전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양근(楊根: 양평의 옛 지명)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그 후 15세손 신(信)이 785년(신라 원성왕 1) 김주원(金周元: 강릉 김씨의 시조)을 따라 강릉(江陵)에서 살게 되어 본관을 강릉(江陵)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그 후 21세손 규(規)가 왕건을 도와 고려개국에 공을 세워 익찬개국공신(翊贊開國功臣)으로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광평시랑(廣評侍郞)을 지내고,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 대사마대장군(大司馬大將軍)으로 출전하여 적을 물리쳐 평난좌명공신(平難佐命功臣)의 호(號)를 받았으므로, 후손들이 규(規)를 시조로 하여 계대하여 왔다.

강릉은 강원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상고시대에는 창해(滄海)와 임둔(臨屯)에 속했다가 313년(고구려 미천왕 14)에 개칭하여 하서량(河西良)·하슬라(何瑟羅)라 하였다. 550년(진흥왕 11)에 신라의 영토가 되어 선덕여왕 때 소경(小京)으로 삼았다가 태종무열왕조에 하서주(河西州)로 개편, 경덕왕 때는 명주(溟州)로 고쳤고, 고려 태조가 동원경(東原京)이라 칭하고 임영관(臨瀛館)을 세웠으며 940년(태조 23)에 다시 명주로 고쳤다. 성종 때는 처음에 하서부(河西府)로 하다가 986년(성종 5) 명주도독부(溟州都督府)로 개칭하고 뒤에 목(牧)으로 하였으며, 995년(성종 14) 지방행정구역을 10도(道)로 나눌 때 삭방도(朔方道)의 중심지가 되어 영동 일대와 영서(嶺西)의 춘천(春川) 이북 등지를 관할하였다. 이후 여러 변천을 거치다 1896년(고종 33) 13도제(道制) 실시로 강원도 강릉군(江陵郡)이 되어 21개 면(面)을 관할하다가 1931년 강릉면이 읍(邑)으로 승격되고, 1955년 9월 1일 성덕면(城德面)과 경포면(鏡浦面)을 편입하여 강릉시(江陵市)가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始祖) 규(規)의 6세손 유일(有一)이 고려 인종 때 서경(西京) 반란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으며 베옷만을 입고 질그릇을 쓰며 청빈하게 살았다. 유일의 아들 순(淳)은 문장이 뛰어나 당대의 명유(名儒)인 이인로(李仁老)·오세재(吳世才)·임춘(林椿)·조통(趙通)·황보항(皇甫抗)·이담지(李湛之) 등과 함께 '강좌칠현(江左七賢)'으로 일컬어졌다.

조선에서는 승경(承慶)의 아들 부림(傅霖)이 개국삼등공신으로 예조의랑(禮曹義郞)에 이어 명성군(溟城君)에 봉해지고, 태종 때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가 되어 동원군(東原君)으로 개봉되어 예부상서(禮部尙書) 부열(傅說)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 밖에 성종 때 형조판서로 좌리공신(佐理功臣)에 녹훈되어 좌참찬을 지낸 우치(禹治)와 삼척부사(三陟府使)를 지낸 헌(軒) 등이 있다.

한말에는 독립운동에 몸 바친 일형(一亨)과 석은(錫殷), 부통령(副統領)을 역임한 태영(台永)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릉 함씨는 파주시에 총 68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 허씨(金海許氏)

김해 허씨(金海許氏)의 시조 허염(許琰)은 가락국 수로왕비인 허황후(許皇后)의 35세손으로 전한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의하면 그는 고려 때 삼중대광(三重大匡)을 지내고 가락군(駕洛君)에 봉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시조의 세거지인 김해(金海)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면서 가락군 인전파(駕洛君仁全派), 호은공 기파(湖隱公麒派), 중승공 린파(中承公麟派), 전직공 인부파(典直公仁副派), 증성군 구년파(甑城君龜年派), 판서공 언룡파(判書公彦龍派), 상서공 상파(尙書公相派) 등 크게 7파로 분파되었다.

김해는 경상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가락국의 문화 중심지로서 532년(신라 법흥왕 19)에 신라에 병합되어 금관국(金官國)이 되었다. 그 후 금관소경(金官小京)으로 680년(문무왕 20)에는 김해(金海)로 개칭하여 소경을 두었다. 고려 때에는 김해부(府), 995년(성종 14)에는 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 1000년(목종 3)에는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 1270년(원종 11)에는 금녕도호부(金寧都護府)의 일부가 되었다가 부민(府民)의 반란으로 1276년(충렬왕 2)에 현(縣), 그 후 금주목(金州牧), 김해부(金海府), 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가 되었다. 1413년(조선 태종 13) 도호부로 고쳤다가 세조 때에는 진(鎭)을 두었으며, 1895년(고종 32)에 군(郡)이 되었고 1981년에 김해읍(金海邑)이 시(市)로 승격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충렬왕 때 지공거(知貢擧)를 지낸 유전(有全)이 충숙왕 때 가락군(駕洛君)에 봉해지고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에 이어 정승이 되었으며, 옹(邕)은 문과에 급제한 후 헌납(獻納)이 되었고 전리판서(典理判書)를 지냈으며 성품이 청렴강직(淸廉剛直) 했다.

조선에서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백기(伯琦)와 목사(牧使) 수겸(守謙)이 유명했고, 한말의 의병장 위(蔿)는 300명의 선발대로 일본통감부(日本統監府)를 격파하려다 실패하고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옥사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해 허씨는 파주시에 총 60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 허씨(陽川許氏)

양천 허씨(陽川許氏)의 시조는 가락국 김수로왕비의 30세손으로 전하는 허선문(許宣文)이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의하면 그는 공암촌(孔巖村)에 살면서 농사(農事)에 힘써 많은 양곡을 비축하였는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정벌할 때 군량이 부족하여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군량을 보급해 주었다. 태조는 그 공을 가상히 여겨 선문에게 공암을 식읍으로 하사하였다. 그리하여 본관을 양천(陽川)으로 하였다고 한다.

양천은 경기도에 있는 지역이다. 원래 고구려 때의 재차파의현(齊次巴衣縣)을 신라 경덕왕 때 공암현(孔岩縣)으로 고쳤다. 1310년(고려 충선왕 2)에 양천현(陽川縣)으로 개칭되어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 내려오다가 1895년(고종 32)에 양천군(陽川郡)으로 승격되었으나 1914년 경기도 김포군(金浦郡)에 흡수되었다. 1979년 양천군 관할이던 양동면과 양서면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선문(宣文)의 손자 원(元)이 고려 목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내사사인(內史舍人)·지제고(知制誥)·태자사의(太子司議)등을 지냈다. 증손 정(正)은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낸 후 태자재보(太子太保)에 이르렀다. 정(正)의 아들 재(載)는 일찍이 병마사(兵馬使)에 재임 시 여진의 정세를 파악하여 변경수비의 방책을 왕에게 올려 채택되기도 하였다. 후손 공(珙)은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한 후 1284년(충렬왕 10) 수국사(修國史)를 겸하여 원부(元傅) 등과 함께 『고금록(古今錄)』을 찬술(撰述)하고 첨의중찬(僉議中贊)에 올랐다.

조선에서는 재령군수(載寧郡守) 손(蓀)의 아들로 우의정에 오른 종(琮)과 좌의정을 지낸 침(琛) 형제가 뛰어났다. 선조 때 좌의정에 오른 욱(頊)은 종(琮)의 현손으로 광해군(光海君) 때 능창군(綾昌君) 추대사건에 관련, 원주에 유배되었다.

조선에서 허씨 가문을 빛낸 인물로는 초당(草堂) 엽(曄)과 미수(眉叟) 목(穆)을 빠뜨릴 수 없다. 엽(曄)은 군자감부봉사(軍資監副奉事) 한(瀚)의 아들로 태어나 일찌기 당대에 이름난 석학(碩學) 서경덕(徐敬德)의 문하에서 글을 배워 여러 관직을 역임한 후, 선조(宣祖) 때 동서분당(東西分黨)의 소용돌이 속에서 동인(東人)의 영수(領袖)가 되어 정암 조광조(趙光祖)의 신원(伸寃)과 허자(許磁)·구수담(具壽聃) 등의 무죄를 논하다가 한때 파직되기도 했으나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그의 슬하에 성(筬)·봉(篈)·균(筠)·난설헌(蘭雪軒) 4남매가 있었는데 모두 시문(詩文)에 뛰어났으며, 특히 난설헌(蘭雪軒)은 규수시인(閨秀詩人)으로 이름이 나서 황진이(黃眞伊), 신사임당(申師任堂)과 함께 '삼대여류(三大女流)'로 꼽혀왔다. 조선의 봉건적 사회제도에 개혁을 부르짖은 사회소설 『홍길동전(洪吉童傳)』의 작가로 유명한 균(筠)은 서얼(庶孼)을 차별 대우하는 당시의 『서얼금고법(庶孼禁錮法)』 철폐와 반계급적(反階級的) 평등사상을 주장하여 한국사상사(韓國思想史)에 있어 근대화(近代化)의 시발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숙종 때 우의정에 오른 미수 목(穆)은 한강 정구(鄭逑)에게 학문을 배워 당대의 석유(碩儒)인 우암 송시열(宋時烈)과 쌍벽을 이루었던 이름난 학자로 학문(學問)·문장(文章)·그림·서예(書藝)에 뛰어났으며 특히 전서(篆書)에 능하여 동방(東方)의 제일인자(第一人者)로 일컬어졌다.

영의정 적(積)은 1678년(숙종 4) 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하여 이를 사용케 했으며, 궤장(几杖)을 하사(下賜)받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선조 때 명의(名醫)로 호성삼등공신(扈聖三等功臣)에 오른 준(浚)은 16년의 긴 세월 동안 연구 끝에 25권의 방대한 의서(醫書)인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완성하여 한의학(韓醫學) 발전에 크

게 공헌했으며 양평군(陽平君)에 봉해졌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천 허씨는 파주시에 총 1,59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양천 허씨 합천공파는 허선문을 파시조(派始祖) 로 하며 26세손 허업이 연천에서 파주 방축골로 입향하였다. 후손들 다수가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양천 허씨는 진동면 하포리에 있는 허준묘에서 지난 2016년까지 매년 10월 셋째 일요일 시제를 지냈으며 이제는 11월 첫째 일요일 방축동에서 시제를 지낸다. 후손들은 주로 교하, 광탄 등지에 살고 있으며 종중 회원은 40호 가량이다.
교하 신촌리 양천 허씨 교위공파는 추(碓)를 파시조(派始祖) 로 하고 10대조 률(慄)을 입향조(入鄕祖)로 하며 약 300년 전에 입향하였다. 률과 칙 형제와 사촌형제 항, 장 이렇게 4명이 신촌리에 와서 정착했는데 신촌리에는 에전에 70여 호가 살았으나 지금은 줄어 40여 호가 살고 있다. 매년 9월 마지막 일요일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장단군 대강면 우근리이다.
신촌리 인근 교하 송촌리에는 한국전쟁 때 장단에서 피난 나온 양천 허씨들이 새롭게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파주의 대표적 양천 허씨 인물로는 조선시대 『동의보감』을 편찬한 의성(醫聖) 허준(許浚) 선생으로 경기도기념물 제128호로 지정된 허준 선생묘가 진동면 구암로 205번지에 있다.

태인 허씨(泰仁許氏)

태인 허씨(泰仁許氏)의 시조 허사문(許士文)은 수로왕비 허황옥의 30세손으로 왕건의 사위였으며 시산군(詩山郡)에 봉해졌다고 한다.

태인은 전라북도 정읍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태산현(泰山縣)과 인의현(仁義縣)의 합명(合名)이다. 태산현은 본래 백제의 대시산현(大尸山縣)인데 경덕왕이 태산(太山)으로 고쳐 대산(大山)·태산(泰山) 등으로 불리다가 공민왕 때 군(郡)으로 승격되었다. 인의현은 백제 때 빈굴(賓屈)·빈성(賓城)·성(賦城) 등으로 불리다가 신라 때 무성(武城)으로 고쳤고, 고려 때 인의(仁義)로 고쳤다가 1411년에 태산(泰山)과 합하여 태인현(泰仁縣)이 되었으며 1895년(고종 32) 군(郡)으로 승격되었고 1913년에 정읍군에 합해져서 태인면(泰仁面)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사문의 후손 포(褒)가 고려 때 기천현령(奇川縣令)·풍해도관찰사(豊海道觀察使) 등을 지낸 후 태산군(泰山君)에 봉해졌으며, 병부시랑(兵部侍郞)을 역임한 엄(儼)과 그의 아들로 이부시랑(吏部侍郞)을 지냈고 시산부원군(詩山府院君)에 봉해진 벽(壁)이 유명했다.

숙종과 예종 때 문학(文學)이 뛰어났고 청렴충직하기로 이름난 경(慶)은 1101년(숙종 6) 즉위사(卽位使)가 되어 요(遼)나라에 다녀왔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중서문하평장사(中書門下平章事)에 이르렀다. 그의 아들 6형제가 모두 관직에 올라 가문을 크게 중흥시켰는데, 둘째 아들 사문(斯文)이 낙안군수(樂安郡守)를, 넷째 사행(斯行)은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막내 사제(斯悌)는 사평(司評)을 지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인 허씨는 파주시에 총 5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양 허씨(河陽許氏)

하양 허씨(河陽許氏)의 시조는 허강안(許康安)이다.
그는 고려 현종 때 호부낭장(戶部郞將)을 역임하였다. 문헌에 의하면 강안은 가락국 허황후의 33세손으로 전하며, 말년에 호장(戶長)을 지냈고 하주(河州)에 정착 세거하였다. 그리하여 본관을 하주(河州)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다가 지명이 개칭됨에 따라 화성(花城)으로 개관하였으며 그 후 하양(河陽)으로 바꾸어 이어오고 있다.
하양(河陽)은 경상북도 경산군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고려 때 하주, 1018년(현종 9)에 하양으로 개칭하였으며, 1742년(영조 18)에 화성현이 되었다가 1895년(고종 32)에 하양군으로 바뀌었다. 1914년에 경산군에 편입되면서 하양면이 되었고 1973년에 읍으로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강안의 손자 작린(綽麟)이 고려에서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을 지냈으며, 증손 신(愼)은 호부주사(戶部主事)·동정(同正) 등을 역임하여 가문을 빛냈다. 개성부윤(開城府尹) 귀룡(貴龍)의 아들 주(周)는 우왕 때 지양주사(知襄州事)가 되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城)을 구축했고, 조선이 개국한 후 한성부윤·경기도관찰사 등을 지낸 후 개성유후사유후(開城留後司留後)·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지냈다. 주(周)의 동생 조(稠)는 권근(權近)의 문하에서 글을 읽고 공양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한 후 조선 세종 때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올랐다. 경사(經史)에 밝았던 성(城)은 주(周)의 아들로, 예조와 이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예문관대제학을 지냈다.
조(稠)의 아들 후는 문종 때 형조판서로 『세종실록』 편찬에 참여했고, 단종 때 좌찬성(左贊成)이 되어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과 함께 문종의 유명을 받들어 어린 단종을 보필하는데 앞장섰으며, 계유정난이 일어나자 이를 개탄하며 고기를 먹지 않아 의심을 받다가 거제도(巨濟島)에 유배되어 죽임을 당했다.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척(倜)의 아들 계(誡)는 밀양부사(密陽府使)로 나가 선정(善政)을 베풀어 표리(表裏)를 하사(下賜) 받았으며, 병조참의(兵曹參議)를 거쳐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양 허씨는 파주시에 총 13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 현씨(星州玄氏)

성주 현씨(星州玄氏)의 시조는 성현규(星玄珪)이다.
조선 세종조에 군자감정·고부군수 등을 지낸 그는, 연주 현씨(延州玄氏)의 시조 현담윤(玄覃胤)의 큰아들이며, 고려조에 병부상서를 지내고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에 봉해진 현덕수(玄德秀)의 8세손으로 그의 후손들이 성주에 오래도록 세거하면서 연주 현씨에서 분적, 그를 시조로 하고 본관을 성주로 하였다.
성주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대 성산가야국(星山伽倻國)인데 신라가 멸망시켜 본피현(本彼縣)이라 하다가 757년(경덕왕 16) 산안현(新案縣)으로 개칭하여 성산군(星山軍)에 속하였다. 그 후 벽진군(碧珍軍)으로 고쳤고 940년(고려 태조 23) 경산부(京山府)로 개칭하였다가 경종(警鐘)이 강등하여 광평군(廣平郡)이 되었으나 995년(성종14) 대주도단련사(岱州都團練使)를 두었으며 현종 때 다시 경산부(京山府)로 승격하였다. 충렬왕 때 흥안도호부(興安都護府)로 승격한 후 성주(星州)로 고쳐 목(牧)을 두었고 충선왕이 다시 경산부로 강등하였으나 조선 태종이 어태(御胎)를 이곳의 조곡산(祖谷山)에 봉안하고 성주목(星州牧)으로 승격하였다. 1895년 성주군(星州郡)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 관봉(冠峰) 상벽(尙璧) 영조 때 고명한 성리학자로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이다.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의 한 사람으로 이간(李柬)과 함께 낙론(洛論)에 속해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였고, 예론(禮論)에도 정통하였다. 지서에 『관봉문답(冠峰問答)』·『관봉유고(冠峰遺稿)』 등을 남겼다.
삼벽당(三碧堂) 약호(若昊)는 참봉 현징(玄徵)의 아들이며 당대의 석학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이다. 기사환국 때 제주도에 유배된 송시열(宋時烈)을 위해 당액(堂額)을 썼으며 학행으로 유명하였다. 저서에 『병계집(屛溪集)』이 전한다.
사환(仕宦)으로는 덕량(玄德良)이 선조 때 무과에 급제, 임진왜란에 공을 세우고 인동현감을 지냈으며, 덕승(玄德升)이 선조조에 증광문과에 급제, 지평을 지내다가 광해군의 난정으로 물러나 학문에 전념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주 현씨는 파주시에 총 10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 현씨(順天玄氏)

순천 현씨(順天玄氏)의 시조는 현원고(玄元羔)이다.
그는 고려 명종조에 조위총(趙位寵)의 난을 평정, 문하시랑평장사에 오르고 연산군(延山君)에 봉해진 연주 현씨(延州玄氏) 시조 현담윤(玄覃胤)의 손자이며,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 현덕수(玄德秀)의 아들이다. 그는 고려조에 영동정(令同正)을 지내고 순천부원군(順天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래서 후손들이 연주 현씨에서 분적, 그를 시조로 하고 본관을 순천(順天)으로 하였다.
순천은 전라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백제 때 함평이었으나 신라 경덕왕 때 승평(昇平)으로 고쳤으며, 983년(고려 성종 2) 지명을 순주(順州)·자주(慈州)·은주(殷州)로 고치고 각 주마다 방어사(防禦使)를 두었다. 995년(성종 14) 곤해군절도사(袞海軍節度使)가 파견되고, 1012년(현종 3) 안무사로 고쳤다가, 1036년(정종 2) 다시 승평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309년 승주목(昇州牧), 1310년 순천부(順天府)가 되었다. 1413년(태종 13) 군현제 개편 때 도호부로 승격하여, 조선시대 동안 순천도호부는 전라좌도 남부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1479년(성종 10) 속현이었던 여수현(麗水縣)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되어 전라좌도 해안방어의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다. 순천의 별호는 평양(平陽)이었다.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정으로 남원부 소속 순천군으로 개칭하고, 1896년 전라남도 순천군이 되었다. 1949년 8월 순천읍과 도사면 일부 해룡면 일부를 합하여 순천시가 되고 종래의 순천군은 승주군으로 개칭하였다. 1995년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의 새로운 순천시가 되었다.
역사인물로 보(甫)는 시조 원고의 아들로 영동정을 지냈고 그의 아들 병성(秉性)은 찬성사를 지냈다. 충수(忠守)는 병성의 아들로 승지동정을 지냈으며 그의 손자 광수(光壽)는 판도판서에 이르렀다.
조선에서는 광우(光宇)가 영조조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양사를 거쳐 공조참의에 이르렀다.
그 밖에 인량(仁亮)은 수군절제사를 지냈고, 현극(極)은 방어사를 역임했다. 지후(之厚)는 도호부사를, 벽(璧)은 오위장을, 말승(末丞)은 참의를 지냈으며, 석로(碩老)는 이조판서를 지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 현씨는 파주시에 총 2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주 현씨(延州玄氏)

연주 현씨(延州玄氏)의 시조는 현담윤(玄覃胤)이다.
그는 평안도 연주(延州) 출신으로 고려 의종조에 장군(將軍)을 지내고 명종 때 일어난 조위총(趙位寵)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문하시랑평장사에 올라 연산군(延山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현담윤(玄覃胤)을 시조로 받들고, 시조의 봉군지명인 연주(延州)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연주는 평안북도 영변(寧邊)의 옛 이름이다. 영변군은 영주(迎州)와 무주(撫州)의 합명이다. 영주는 본래 고려 때 밀운군(密雲郡)인데 670년(광종 21) 연주(延州)로 고쳐 지주사(知州事)를 두었으며 995년(성종 14) 방어사를 두었다가 공민왕 때 연산부로 승격되고 1413년(조선 태종 13) 도호부로 개편되었다. 무주는 원래 고려의 운남군(雲南郡)인데 995년 무주방어사라 하였다가 공민왕 때 태주(泰州)로 이속되었고, 1391년(공양왕 3) 감무를 둔 후 태종(太宗) 때 무산현(撫山縣)이 되었다. 1419년(세종 11) 연산과 무산을 합하여 영변으로 개칭하고 세조 때 연주(延州)를 나누어 운산군(雲山郡)에 속하게 하고, 그 후 여러 변천을 거쳐 1895년 영변군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시조 담윤(覃胤)의 3형제 중 덕수(德秀)와 이후(利厚)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반적 조위총(趙位寵)의 반란을 평정하는 데 훈공을 세웠다.
그리하여 맏아들 덕수가 내시지후(內侍祗候)와 안남부사(安南府使)를 거쳐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를 역임한 후 신종(神宗) 때 병부상서(兵部尙書)에 올라 팔거군(八莒君)에 봉해졌다가 수에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으로 이봉(移封)되어 그의 후손들이 성주 현씨로 분적하였다.
둘째 이후(利厚)는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를 지내고 광성군(廣城君)에 봉해졌고, 1186년(명종 16) 문과(文科)에 급제했던 덕유(德裕)는 시조의 셋째 아들로 이부(吏部)와 예부(禮部)의 시랑(侍郎)을 거쳐 서경유수(西京留守)로 나갔다가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낸 후 대사공(大司空)에 이르러 회원군(檜原君)에 봉해져서 그의 후손들이 창원현씨(昌原玄氏)로 분관(分貫)하였으며, 성산부원군 덕수(德秀)의 둘째 아들 원미는 영동정(令同正)으로 순천군(順天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순천 현씨로 분관하였다.
조선에서는 9세손 규(珪)가 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를 지내고 고부군수(古阜郡守)로 나갔다가 홍문관교리와 이조정랑을 역임하였다. 아들 득원(得元)은 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고 1454년 성주목사(星州牧使)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고 민정을 보살폈으나 이듬해 단종이 손위(遜位)하자 벼슬을 버리고 아들 보손(寶孫)과 같이 영천(永川) 묵방동(默坊洞)으로 돌아와 은거하며 종신토록 질의를 지키다가 여생을 마쳤다.
그 밖에 당대에 이름난 성리학자로 손꼽힌 상벽(尙壁)이 『관봉문답(冠峰問答)』『관봉유고(冠峰遺稿)』 등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학자 약호(若昊), 문장과 글씨에 능했던 덕윤(德潤)·재덕(在德) 등이 있다. 한말에는 독립운동가 병근(炳瑾)과 익철(益哲)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주 현씨는 파주시에 총 38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연주 현씨(영천 현씨)는 조리읍 장고2리, 봉일천 3리, 대원리, 금촌 등지에 30호가 살고 있다. 매년 8월말에서 9월초에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고양시 원당에 있다.

창원 현씨(昌原玄氏)

창원 현씨(昌原玄氏)의 시조는 현덕유(玄德裕)이다.
연주 현씨의 시조 현담윤(玄覃胤)의 셋째 아들인 그는, 1186년(고려 명종 16) 문과에 급제, 관직에 나아갔다. 당시의 집권자였던 최충헌(崔忠獻)을 꺼려 오랫동안 산지(散地)에 있다가 뒤에 이부시랑·예부시랑·서경유수를 거쳐 참지정사·대사공(大司空)에 이르렀고 회원군(檜原君)에 봉해졌다. 회원은 창원(昌原)의 옛 이름이다. 그래서 후손들이 연주 현씨에서 분적, 그를 시조로 하고 본관을 창원으로 하였다.
창원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대에는 금관가야(金官伽倻)에 속했다. 『한국지명연혁고(韓國地名沿革考)』에 의하면 창원(昌原)은 본래 의창현(義昌縣)과 회원현(會原縣)의 합명(合名)이다. 의창(義昌)은 신라(新羅) 때 굴자군(屈自郡) 또는 의안군(義安郡)으로 불리다가 1282년(충렬왕 8)에 의창(義昌)으로 개칭되었고, 회원(회원)은 신라 때의 굴포현(屈浦縣)을 경덕왕(景德王)이 합포(合浦)로 고쳤다가 고려에 와서 회원(會原)으로 개칭하여 1413년(태종 13)에 이르러서 두 현(縣)을 합하여 창원부(昌原府)라 하였다.
역사인물로 시조 덕유의 아들 승(昇)은 이부상서에 이르렀고, 그의 아들 장(璋)은 추밀원사를 지냈다. 문혁(文爀)은 장의 아들로 도원수를 지냈고, 그의 동생 상혁(象爀)은 삼사사(三司事)를 지냈다. 상의사도(尙衣司徒)를 지낸 간(簡)의 아들 태로(台老)는 평장사를 지냈고, 그의 아들 유의(惟義) 역시 평장사에 이르러 가문을 중흥시켰다.
조선에서는 좌참찬을 지낸 효생(孝生)의 아들인 문헌공(文憲公) 석규(錫圭)를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다. 그는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아들인 서원군(瑞原君)의 사위로 1460년(세조 6) 문과에 급제하였다. 위인이 정직 청렴하여 매사에 공의를 주장하였고, 명석한 판단으로 공사를 잘 처리하였다.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벼슬을 사양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고, 사헌부 감찰을 비롯하여 형조판서·평안도 관찰사·우참찬 등을 지내는 동안 왕의 신임이 두터웠으며 은권(恩眷)이 깊었다. 때로는 선온진수(宣醞珍羞)와 어선(御膳)이 하사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첨정을 지낸 사원(士元), 관찰사를 지낸 지준(之俊), 부사를 지낸 수간(守諫), 지중추부사를 지낸 성운(星運), 한말에 내부협판을 역임한 호민(好敏)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 현씨는 파주시에 총 1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 형씨(晋州邢氏)

진주 형씨(晋州邢氏)의 시조는 당나라 태종(太宗) 때 사람인 형옹(邢顒)으로 전한다. 옹(顒)은 벼슬이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이르렀으며, 영류왕(榮留王)의 요청에 따라 8학사의 한 사람으로 고구려에 들어와 당나라 문화 보급에 공헌한 한편, 남양(南陽)에 뿌리를 내렸다. 그 후 13세손 방(昉)이 충목왕 때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고 대광보국(大匡輔國)에 이르렀으며, 경남(慶南) 진주(晋州) 반성(班城)에서 살았다.
이후에 방(昉)의 손자 공미(公美)가 문과에 급제하여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고, 1280년(충렬왕 6) 도원수(都元帥)가 되어 왜군을 정벌하는 데 공을 세워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일등공신에 책록되어 진양군(晋陽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방(昉)을 일세조로 하고 진주(晋州)를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진주는 경상남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거열성(居烈城)인데 신라 문무왕 때 신라의 영토가 되어 거열주(居烈州)라 하였고, 757년(경덕왕 16) 9주 5소경제의 실시와 함께 강주(康州)로 고쳤다가 뒤에 청주(菁州)로 개칭되었다. 고려초에 다시 강주로 환원하였고, 995년(성종 14)에 진주(晋州)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뒤 조선에 와서는 진양도호부(晋陽都護府)가 되기도 하였으나 진주목(晋州牧)으로서 서부 경남 일대를 관할하였다. 그 후 여러 변천을 거쳐 1949년에 진주시(晋州市)가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방(昉)의 현손 찬(贊)이 조선에서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냈고, 그의 아들 4형제 중 셋째 군소(君紹)가 20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평양윤(平壤尹)을 거쳐 삼도(三道)의 순찰사(巡察使)를 지낸 후 이부상서(吏部尙書), 정당문학(政堂文學) 등을 지냈다. 문장(文章)이 뛰어나 『동문선(東文選)』에 부벽루운(浮碧樓韻)이 전한다. 그의 아우 군철(君哲)은 세종 때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 강계부사(江界府使) 등을 거쳐 충청도병마사(忠淸道兵馬使)를 지냈다.
그 밖에 호조참판에 추증된 세영(世英),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역임한 협(浹)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 형씨는 파주시에 총 3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평 호씨(新平扈氏)

신평 호씨(新平扈氏)의 시조는 호의(扈義), 혹은 호원보(扈元甫)라고도 했다. 고려 건국에 공을 세워 개국공신에 책록되었고, 서기 927년(고려 태조 10년) 평장사(平章事)로서 공산(公山)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후백제 견훤군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처한 태조 왕건을 신숭겸(申崇謙)과 함께 역전고투(力戰苦鬪) 끝에 구출하고 전사하여 태사(太師)로 추증되고 희개(禧開)라 시호(諡號)를 받았다. 호의(扈義)의 맏아들 호철(扈哲)이 배천군(白川君)에 봉해져 배천을 본관으로 삼았었다. 그뒤 17세손 호종국(扈從國)이 공민왕 때 숭록대부정당문학(崇祿大夫政堂文學) 수문전태학사(修文殿太學士) 상장군(上將軍)에 이어 대사도(大司徒)로 승진하고 개국공신에 책록, 신평군(新平君)에 봉해지고 식읍을 하사 받고 본관을 신평으로 하였다.
신평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속해 있던 옛 지역이다. 본래 백제 사평현(沙平縣)이었는데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신평으로 고쳐서 혜성(槥城: 면천)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 태조 때 이곳에 운주(運州)를 설치하고, 995년(고려 성종 14)에는 도단련사(都團練使)를 파견하였다. 1018년(현종 9) 홍주(洪州)에 예속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는 왕사(王師) 보우(普愚)의 고향이라 하여 홍주목으로 승격되었다가, 1368년에 다시 홍주로 강등되었으며, 1371년에 다시 홍주목이 되어 조선시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조선 세종 때 진(鎭)을 두었으며 뒤에 홍양현(洪陽縣)으로 강등되었다가 1914년 홍성군(洪城郡)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지방제도 개정으로 면천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군면 폐합으로 이웃한 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신평면으로 개칭하였고 당진군에 편입되었다. 현재는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이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평 호씨는 파주시에 총 9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신평 호씨는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에 주로 분포한다. 파주읍 봉암5리 신평 호씨는 병사공파의 파시조(派始祖) 호종국(扈從國, 1352~1418)이며 입향조(入鄕祖)는 호천상(扈天祥, 1605~1675)이다. 천상은 병마절도사 호장손(扈長孫)의 3세손이고 현재 봉암리에 사는 후손 사윤(四允)에게 11대조가 된다. 신평 호씨의 파주 입향은 선조 때 천상이 충남 당진에서 분가하여 파주로 옮겨와 살았으며 천상의 묘는 파주읍 봉서4리에 있다. 파주읍 백석리와 봉암리 등지에 18호 55명이 거주하고 있다.

남양 홍씨(南陽洪氏)

남양 홍씨(南陽洪氏)는 중국 당나라 8학사의 한사람인 홍천하(洪天河)를 시조로 하는 당홍계(唐洪系)와 고려 고종 때 금오위별장(金吾衛別將)을 지낸 홍선행(洪先幸)을 시조로 하는 토홍계(土洪系)가 있다.

남양은 지금의 경기도 수원(水原)과 화성군(華城郡) 일원을 포함한 지역의 옛 지명이다. 고구려 때 당성군(唐城郡)을 신라 경덕왕이 당은군(唐恩郡)으로 개칭하였고, 고려 초에 다시 당성군으로 고쳤으며, 1018년(현종 9) 수주(水州: 수원)와 인주(仁州: 인천)에 편입되기도 했으나 1310년(충선왕 2)에 남양부가 되었다. 조선 말기에 남양군이 되어 부평군(副平郡)에 편입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수원군(水原郡)에 합하였다. 그 후 수원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었으며, 후에 수원읍 이외의 땅은 화성군(華城郡)으로 수원읍은 수원시(水原市)로 승격되었다.

당홍계는 당나라 태종이 여덟 명의 학사(學士)를 문화사절(文化使節)로 고구려에 파견할 때 그 중의 한 사람으로 들어온 홍천하(洪天河)를 시조로 한다. 천하(天河)는 고구려에 들어와 유학(儒學)을 가르치고 문화(文化)를 널리 개척했으며, 고구려가 망하고 삼한 통합(三韓統合)에 따라 신라(新羅) 선덕여왕(善德女王) 때 유학(儒學) 발전에 공(功)을 세워 문무왕(文武王) 때 당성(唐城 : 남양의 옛 지명) 백(伯)에 봉해지고 신무왕(神武王)이 태자태사(太子太師)로 추대했으며 효소왕(孝昭王)은 당성후(唐城侯)를 삼았다고 한다. 그 후 당성(唐城)의 지명(地名)이 개칭(改稱)됨에 따라 후손들은 남양(南陽)을 본관(本貫)으로 삼고 고려에서 삼중대광(三重大匡)·태사(太師)를 지낸 은열(殷悅)을 시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역사인물로는 은열(殷悅)의 6세손 관(灌)이 고려에서 예부상서(禮部尙書), 수사공·상서좌복야(守司空·尙書佐僕射)에 이르렀으며 1126년(인종 4) 이자겸(李資謙)의 난(亂)이 일어나자 인종(仁宗)을 호위(護衛)하다가 척준경(拓俊京)의 난군(亂軍)에게 살해되었다. 그는 신라(新羅) 김생(金 生)의 필법(筆法)을 본받은 당대의 명필(名筆)로 보문각(寶文閣)·청연각(淸讌閣)의 글씨를 비롯한 보전화루(寶殿畵樓)의 병풍과 편액을 썼다.충렬왕(忠烈王) 때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에 오른 자번(子藩)은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를 역임하고 첨의중찬(僉議中贊)에 올랐다. 충선왕 때 판삼사(判三司)를 지낸 규(奎)는 진(縉)의 아들로 추성진력정안공신(推誠陣力定安功臣)으로 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찬성사(贊成事) 선(詵)은 충숙왕(忠肅王) 때 강녕군(江寧君)에 봉군(封君)되어 만호(萬戶)를 지낸 아들 수(綏)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조선에서는 이성계를 도와 개국이등공신으로 남양군(南陽君)에 봉해진 길민(吉旼)과 세종 때 전주부윤(全州府尹)을 거쳐 판서(判書)를 역임한 여방(汝方)이 뛰어났다. 윤성(允成)은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가 되고, 예조참의에 올라 좌익삼등공신으로 녹훈(錄勳)되어 인산군(仁山君)에 봉해졌다. 1460년(세조 6) 모련위(毛憐衛)의 야인(野人)이 반란을 일으키자 신숙주(申叔舟)의 부장(副將)이 되어 이를 토벌하고 우의정이 되었으며 예종(睿宗) 때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 좌리일등공신(左理一等功臣)이 되었다.

대사간(大司諫) 천민(天民)의 아들 서봉(瑞鳳)은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병조참의(兵曹參議)가 되고 정사삼등공신(靖社三等功臣)으로 익녕군(益寧君)에 봉해졌다. 그 후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1640년(인조 18) 영의정에 올랐다. 그의 아들 명일(命一)은 인조 때 문과에 급제하고 이조정랑을 지낸 뒤 병자호란 때 척화론(斥和論)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장령(掌令)·필선(弼善)을 거쳐 대사성(大司成)에 올라 영안군(寧安君)에 습봉(襲封)되었으며, 서익(瑞翼)의 아들 명하(命夏)

는 현종 때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관찰사 처후(處厚)의 아들 수헌(受憲)은 숙종 때 이조판서와 좌참찬을 역임하였다.

토홍계(土洪系)의 시조 홍선행(洪先幸)은 당성(唐城: 남양의 옛지명)에 세거한 사족의 후손으로 고려 고종 때 금오위별장(金吾衛別將)을 지냈다. 그의 선계는 문헌이 실전되어 정확하게 상고할 수 없으나 후손들이 당성(唐城)에서 정착 세거하며 가세가 크게 번창하였으므로 선행(先幸)을 시조로 받들고 본관을 남양(南陽)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한다.
역사인물로 익생(益生)은 문과에 급제한 후 목사(牧使)를 거쳐 좌익원종공신(左翼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귀연(貴演)은 대호군(大護軍)을, 식(湜)은 검열(檢閱)을 거쳐 이조좌랑(吏曹佐郎)·정언(正言)을 지냈다.
언필(彦弼)은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내고 시(詩)·서(書)·화(畵)에 모두 뛰어났으며 아들 섬(暹)은 명종 때 대제학을 지낸 후 선조 때 영의정을 세 차례나 중임했다. 선조 때 홍주목사(洪州牧使)가 되어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정난일등공신(靖難一等功臣)에 책록되어 영원군(寧原君)에 봉해진 가신(可臣)은 형조판서)를 거쳐 광해군 때 우의정에 추증되었다.
헌(憲)은 광해군 때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여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했다. 숙종 때 문과에 올라 병조참판을 지내고 남계군(南溪君)에 습봉된 숙은 그의 아들 형제와 함께 가문을 더욱 빛냈다. 맏아들 봉조(鳳祚)는 영조(英祖) 때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여 삼사(三司)의 벼슬을 거치고 대사성(大司成)에 이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낸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둘째 용조(龍祚)는 충주목사(忠州牧使)와 회양(淮陽)·삼화(三和) 등지의 부사(府使)를 역임하였다.
실학자로 유명한 대용(大容)은 군국(軍國)과 경제(經濟)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여 종래의 음양오행설(陰陽五行設)을 부정한 기화설(氣火說)을 주장했으며 지구의 자전설을 설파했고 신분제도의 타파를 부르짖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 홍씨는 파주시에 총 3,98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남양 홍씨 익산군파(益山君派)는 당홍계로 조선 전기 좌의정을 지낸 17세손 홍응(洪應, 1428 ~ 1492)의 후손들이다. 파주 금촌동과 검산동, 운정동 등에 20호가 살고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3일 구리시 아천동의 선영에서 시제를 지낸다.

풍산 홍씨(豊山洪氏)

풍산 홍씨(豊山洪氏)의 시조는 홍지경(洪之慶)이다.
그는 1242년(고려 고종 29)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국학직학(國學直學)을 역임한 후 풍산(豊山)에 정착 세거하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풍산(豊山)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풍산은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신라 하지현(下枝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영안(永安)으로 고쳐서 예천군(醴泉郡) 영현으로 삼았고, 고려 때 풍산(豊山)으로 개명하였다. 1018년(현종 9) 안동(安東)에 속하였고 1172년(명종 2) 다시 설치하였으며, 후에 안동에 속하여 지금은 안동시 풍산읍(豊山邑)으로 남아있다.
역사인물로는 수(脩)의 아들 이상(履祥)이 대사성·대사헌을 지내고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를 역임하였으며, 아들 여섯 명과 손자 열한 명을 배출하여 가문을 크게 중흥시켰다. 그의 여섯 아들 중 넷째 영(霙)은 공조참판·동지중추부사 등을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만선(萬選)은 현종 때 진사시(進士試)에 올라 장악원정(掌樂院正)을 지냈으며, 행실이 근엄하고 인격(人格)이 고매하여 당쟁(黨爭)에도 가담치 않아 세인(世人)들은 그를 '완인(完人)'이라 불렀다고 하며 주자학에 반기를 들고 실용후생의 학풍을 일으켜 실학 발전의 선구적 인물이 되었다. 영조 때 판돈녕부사에 오른 만조(萬朝)는 대사간(大司諫)·좌빈객(左賓客) 등을 거쳐 우참찬(右參贊)·형조판서(刑曹判書)를 지낸 뒤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영의정 봉한(鳳漢)은 영조 때 예조판서를 지낸 현보(鉉輔)의 아들이며, 그의 딸이 세자빈(世子嬪)으로 뽑혔고, 영조의 정책에 순응하여 많은 업적을 남긴 후 조선 후기의 문화 부흥에 크게 공헌했다. 그의 동생 인한(麟漢)도 좌의정을 역임하여 명성을 날렸으며,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상한(象漢)의 아들 낙성(樂性)은 정조 때 좌의정이 되어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1797년(정조 21) 80세로 궤장을 하사받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그 밖에 정조 때 대제학을 지낸 국영(國英)과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현주(顯周)가 뛰어났고, 우부승지(右副承旨) 인모(仁謨)의 아들 석주(奭周)는 특히 성리학(性理學)에 밝았고 문장(文章)에 있어서 『십대가(十大家)』의 한 사람으로 꼽혔으며 1795년(정조 19)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후 직장(直長)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라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한 후 실록청 총재관(實錄廳摠裁官)이 되어 『순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한말에는 한일합방이 되자 망국의 한을 품고 자결한 범식(範植)과 독립운동에 몸 바친 충희(忠熹),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陣線)의 운영 간부로 활약한 진(震)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풍산 홍씨는 파주시에 총 36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풍산 홍씨 문경공파(文敬公派)는 예조(禮曹)와 호조(戶曹)의 좌랑(佐郞)과 정언(正言), 병조정랑(兵曹正郞) 등을 지낸 문경공 이상(履祥, 1594~1615)을 입향조(入鄕祖)로 하며 파주 입향 시기는 1800년대이다. 주요 인물로는 구한국 무관학교(舊韓國武官學校) 보병과를 졸업, 육군 부위(副尉)를 지냈으며 1920년 김규식(金奎植), 김찬수(金燦洙) 등과 함께 북간도(北間島)로 망명하여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에 가담한 충희(洪忠熹, 187~1945) 등이 있다. 법원읍 오현리에 20호 가량이 살고 있으며 매년 10월초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고양시 벽제 성석동 887-6에 있다.

덕산 황씨(德山黃氏)

덕산 황씨(德山黃氏)의 시조는 황언필(黃彦弼)이다.
그는 고려 때 도점의정승(都僉議政丞)을 지내고 덕풍군(德豊君)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본관을 덕산(德山)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으나 상계가 실전되어 장흥고사(長興庫使)를 지낸 황재(黃載)를 일세조로 하여 계대하고 있다.
덕산은 충청남도 예산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덕풍(德豊)·이산(伊山) 두 현(縣)의 합명이다. 덕풍현(德豊縣)은 백제의 금물현(今物縣)인데, 신라 경덕왕 때 금무(今武)로 개명하고 고려 때 덕풍으로 고쳤다. 이산현(伊山縣)은 본래 백제의 시산군(尸山郡)인데, 경덕왕 때 이산군으로 개명하였다. 1405년(태종 5) 두 현을 합하여 덕산현을 만들었고, 1847년(헌종 13) 군(郡)으로 승격하였다가 1913년 일제강점기에 덕산면이 되어 지금은 예산군 덕산면(德山面)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재(載)의 아들 길상(吉祥)이 고려 때 문과에 올라 부정(副正)을 지냈으며, 손자 덕경(德卿)은 신호위보승낭장(神虎衛保勝郎將)을 역임하여 호조참의에 추증된 욱(郁)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필은 부위(副尉) 귀수(龜壽)의 셋째 아들로 일찍이 김종직(金宗直) 문하에서 글을 배워 성종 때 별시문과에 급제한 후 교리(校理)·사인(舍人)·승지(承旨)를 거쳐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역임하였다. 그의 손자 기로(耆老)는 중종 때 진사시에 합격하고 별좌(別座)를 지냈으며 특히 초서(草書)를 잘 써서 초성(草聖)으로 일컬어졌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덕산 황씨는 파주시에 총 1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 황씨(尙州黃氏)

상주 황씨(尙州黃氏)는 황씨(黃氏)의 도시조(都始祖)인 황낙(黃洛)의 후손이며, 고려에서 벼슬이 상주국(上柱國)에 이른 황석주(黃石柱)를 일세조로 하고 있다. 『상주황씨족보(尙州黃氏族譜)』에 의하면 석주(石柱)의 4대손 을구(乙耉)가 상주(尙州)에 정착 세거하면서부터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상주(尙州)로 고쳐 군주(軍主)를 두었다. 진흥왕이 상락군(上洛郡)으로 고치고 신문왕(神文王) 때 다시 사벌주(沙伐州)로 개칭되었다가 경덕왕 때 와서 상주(尙州)로 하는 등 많은 변천을 거쳐 고려 성종 때 귀덕군(歸德郡)이라 하여 영남도(嶺南道)에 속하게 하였다. 1012년(현종 3) 다시 상주안무사(尙州安撫使)로 고쳐서 8목(牧)의 하나로 정하였다가 조선이 개국하여 관찰사(觀察使)를 두었으며 1910년 상주군(尙州郡)으로 개칭되어 함창군(咸昌郡) 일원이 편입되었고, 1988년 시(市)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역사인물로는 세종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을 거쳐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오른 효원(孝源)이 좌익(佐翼) 및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록되어 상산부원군(尙山府院君)에 봉해졌고, 후에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었다.

세근(世懃)의 아들 우한(佑漢)은 선조 때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원(翰林院)의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대사헌(大司憲)에 올랐으며,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추증된 이환(以煥)의 아들 징(徵)은 현종 때 생원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호조정랑(戶曹正郞)을 거쳐 훈련원부정(訓鍊院副正)·부호군(副護軍)·승지(承旨)를 지냈고 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佐道水軍節度使)를 역임하였다.

한말에는 한국통신원주사(韓國通信院主事) 휘동(暉東)의 아들 노식(魯軾)이 1935년 오성면 양고리(梧城面梁稿里)에 신흥학원(新興學院)을 설립하고 운영비(運營費)와 교사(敎師)의 보수 등을 자비로 부담하여 불우한 농촌아동의 교육에 헌신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주 황씨는 파주시에 총 6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 황씨(紆州黃氏)

우주 황씨(紆州黃氏)의 시조는 황민보(黃旻甫)이다.
그는 우주에 토착한 사족의 후손으로 중윤(中尹)에 추증되었고, 그의 아들 공세(公世)는 검교신호위대장(檢校神虎衛大將)을 역임한 후 우주(紆州)에 세거하였다. 그 후 민보(旻甫)의 10세손 거중(居中)이 조선개국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정당문학, 호조판서를 역임하고 공조전서를 지낸 후 낙향하여 우주(紆州)에 살았으므로 후손들은 본관을 우주(紆州)로 삼았다.
우주)는 전라북도 전주(全州)의 옛 이름이다. 전주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백제 때 완선(完山)·비사벌(比斯伐)·비자화(比自火) 등으로 불리다가 555년(진흥왕 16)에 완산주(完山州)로 하였다. 그 후 경덕왕 때 완(完)을 의역(意譯)하여 전주(全州)로 고쳤고, 공민왕(恭愍王) 때 다시 완산부(完山府)가 되었다. 조선에서 태조의 선조(先祖)가 살았던 고향이라고 하여 완산유수부(完山留守府)로 개칭하였다가 1403년(태종 3) 다시 전주부(全州府)가 되었다.
역사인물로 호조판서를 지낸 거중(居中)의 장남 기(圻)는 사직, 호조참판을 지내고, 임피파 파조가 되었다. 차남 육(陸)은 정읍 현감을 지냈으며 3남 균(均)은 부사직을 역임하고 김제파(金堤派) 파조가 되었으며, 4남 견(堅)은 부사정을 지내고 전주파(全州派) 파조가 되었다.
기(圻)는 슬하에 윤순(允純), 절충장군으로 상호군(上護軍)을 역임한 윤성(允誠)과 호조참의를 지낸 3남 윤검(允儉)을 두었다. 윤성(允誠)은 슬하에 만경 현령, 홍주와 나주목사를 지낸 장남 윤신(潤身), 차남 윤우(潤祐), 3남 사맹, 4남 윤보(潤寶)를 두었다. 윤신(潤身)은 슬하에 장남 경(經)이 훈련원참군을 지내고, 정읍 고부파(古阜派) 파조가 된 륜(綸)을 두었으며, 윤신(潤身)은 슬하에 주부를 지내고 전주 두방파(斗坊派)의 파조가 된 장남 연(演), 경릉 참봉을 지내고 임피 주곡파(酒谷派)의 파조가 된 차남 준(濬), 3남 진을 두었다.
윤보(潤寶) 슬하에는 종사랑에 올라 전주 광곡파(廣谷派)의 파조가 된 장남 종(淙)이 있으며, 차남 택(澤)은 중종2년 (1507년) 생원, 진사 시험에 동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정암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으로 중종 6년 (1511년) 정암과 함께 성균관의 천거를 받았다. 그러나 중종 14년 (1519년) 기묘사화로 정암과 사림들이 화를 당할 때 낙향하여 종신토록 두문불출 하였다. 그는 이리 팔봉파(八峰派)의 파조가 되었다.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낸 린(麟)도 가문을 빛냈다. 형(衡)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역임했고, 희(禧)는 승사랑(承仕郞)에 올랐으며, 호(祜)는 공조좌랑(工曹佐郞)을 지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주 황씨는 파주시에 총 21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 황씨(長水黃氏)

장수 황씨(長水黃氏)의 시조는 황경(黃瓊)이다.
그는 신라 경순왕의 사위로 시중(侍中)을 지냈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우리나라 황씨(黃氏)의 도시조(都始祖) 황락(黃洛)의 후손이며 장수군(長水君)에 봉해진 을고(乙古)의 아들로 전한다. 그 후 세계가 실전되어 후손들은 참의(參議)를 지낸 황석부(黃石富)를 일세조로 하여 계대하고 있다.
장수는 전라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우평(雨平)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고택(高澤)이라 하여 장계군에 속하였다가 고려시대 이후 장수현이 되어 남원부(南原府)에 소속되었고 1905년(고종 32) 군(郡)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조선의 사대명상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황희(黃喜) 정승을 들 수 있다. 그는 1363년(고려 공민왕 12) 개성에서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 군서(君瑞)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27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학관(成均館學官)이 되었다. 1392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은거했으나 태조의 간청으로 벼슬길에 올라 태종 때에는 5조(五曹)의 판서를 두루 거쳐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세종 때 영의정에 이르렀다. 그의 아들 치신(致身), 보신(保身), 수신(守身), 직신(直身) 4형제도 모두 벼슬에 등용되어 가문을 빛냈다.
오위장(五衛將) 열(悅)의 아들 정욱(廷彧)이 명종(明宗) 때 문과에 올라 동지중추부사, 이조판서 등을 거쳐 광국일등공신(光國一等功臣) 등으로 장계부원군(長溪府院君)에 봉해졌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호소사(號召使)가 되어 왕자 순화군(順和君) 보(王土)를 관동(關東)으로 배종(陪從)하기도 했다. 문장(文章)에 능한 그는 시(詩)와 서예(書藝)에도 뛰어났으며, 『지천집(芝川集)』을 저술하였다.
영조 때 대제학을 지낸 경원(景源)은 삼례(三禮)에 정통했고, 특히 고문(古文)에 밝았으며 서예(書藝)에 뛰어났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수 황씨는 파주시에 총 2,00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장수 황씨 호안공파(胡安公派)는 파시조(派始祖)가 장수 황씨 시조 황경(黃瓊)의 5세손이며 영의정 희(喜)의 장남(長男)인 황치신(黃致身, 1397~1484)으로 경기도관찰사와 형조참판, 호조판서 등을 지냈다. 파주 입향조(入鄕祖)는 방촌(厖村) 황희(黃喜, 1363~1452)다. 탄현면 금승리, 문산읍, 금촌동, 운정동 등에 30호 가량이 살고 있다. 탄현면 금승리 장수 황씨 문중의 사패지는 에전에는 50여만평 이었으나 군부대가 들어와 정부에 땅이 수용되고 현재는 10만여 평이 남아있어 종중 땅관리를 위해 일제 말기에 '장수 황씨 묘하대종중회'를 조직하여 내려 온다. 매년 10월 3일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 72-1의 선영에서 시제를 지낸다. 문중 회장은 황간하, 총무는 황용하이다.
장수 황씨 소윤공파(少尹公派) 파시조(派始祖)는 영의정 희(喜)의 차남(次男)으로 사헌부 감찰(監察)과 호조정랑(戶曹正郞) 등을 지낸 황보신(黃保身, 1401~1456)이다. 파주 입향조(入鄕祖)는 이조참의와 울산군수를 지낸 황맹헌(黃孟獻, 1472~1535)으로 입향시기는 14세기 무렵이다. 문산읍 사목리, 금촌동, 운정동 등에 50호 가량이 살고 있다. 매년 10월 5일 시제를 지내며 선영은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우하리이다. 장수 황씨 사목종친회 회칙이 있다.
월롱면 영태리와 위전리에는 호안공파 9명의 아들 중 차남인 사장(事長, 병사공)과 아홉째 사

경(事敬, 창평현령공)의 자손들이 살고 있다. 한때 영태리에만 40여 호 정도가 거주하면서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지만 현재는 10여 가구 미만이 남았다. 월롱면 도내리에는 넷 째 사형(事兄)의 자손(감찰공) 종중 묘역이 있다.
파주시 장수 황씨의 대표적 인물은 방촌 황희선생으로 문산읍 사목리의 황희선생영당지(경기도기념물 제29호)와 반구정(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호), 탄현면 금승리의 황희선생묘(경기도기념물 제34호)가 경기도문화재로 지정 되었다.

제안 황씨(齊安黃氏)

제안 황씨(齊安黃氏)는 창원 황씨에서 분적된 계통으로 회산부원군(檜山府院君) 황석기(黃石奇)의 증손 황을구(黃乙耉)를 시조로 받들고 있다. 문헌에 의하면 시조 을구(乙耉)는 고려에서 문과에 급제하여 소윤(少尹)과 이조참의를 역임한 후 나라에 훈공을 세워 제안군(齊安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받들고 제안(齊安)을 본관으로 삼아 창원 황씨에서 분적되었다고 한다.

제안은 황해도 황주(黃州)의 고려 성종 때 별호(別號)이다. 황주(黃州)는 본래 고구려의 동홀(冬忽: 혹은 冬於忽)인데 신라 헌덕왕 때 취성군(取城郡)으로 개칭되었고, 고려 초에 황주(黃州)라 하였다. 983년(성종 2) 목(牧)을 두었고 그 후 절도사(節度使)를 두었으며 천덕군(天德軍)이라 하여 관내도(關內道)에 속하였다. 1012년(현종 3) 안무사(按撫使)를 두었다가 또 목으로 고쳐 서해도(西海道)에 속하였으며, 고종(高宗) 때 지고령군(知高寧郡)으로 강등, 후에 다시 황주목(黃州牧)으로 환원되었다. 1269(원종 10) 원나라의 동녕부(東寧府)에 속하고 1290년 서북면에 이관되었으며 공민왕 때 다시 서해도에 이관, 조선 세조 때에 진(鎭)을 두어 2도호부, 6군 5현등을 관할해 오다가 1895년에 황주군이 되었다.

역사인물로는 을구(乙耉)의 7세손 대붕(大鵬)이 조선에서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에 올라 현령(縣令), 군수(郡守)를 지냈고, 후손 대임(大臨)의 아들 응성(應聖)은 조선 중엽에 보령현감(保寧縣監)을 거쳐 청도군수(靑道郡守)를 역임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안 황씨는 파주시에 총 3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황씨(昌原黃氏)

창원 황씨(昌原黃氏)는 황씨(黃氏)의 도시조(都始祖)인 황낙(黃洛)의 후손으로, 창원백(昌原伯)에 봉해진 병고(丙古)의 지손(支孫)에서 계대를 알지 못하는 다음 3파로 크게 분류한다.

첫째, 고려 충정왕 때 도첨의참리(都僉議參里)를 지냈고 회산군(檜山君)에 봉해져서 문하평장사에 오른 황석기(黃石奇)를 파조로 하는 회산군계(檜山君系), 둘째, 시중(侍中)을 역임한 황충준(黃忠俊)을 파조로 하는 시중공계(侍中公系), 셋째, 호장공계(戶長公系) 황양충(黃亮沖)의 계통이다. 한편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는 위의 3파를 포함하여 8파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연원(淵源)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창원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대에는 금관가야(金官伽倻)에 속했다. 『한국지명연혁고(韓國地名沿革考)』에 의하면 창원(昌原)은 본래 의창현(義昌縣)과 회원현(會原縣)의 합명(合名)이다. 의창(義昌)은 신라(新羅) 때 굴자군(屈自郡) 또는 의안군(義安郡)으로 불리다가 1282년(충렬왕 8)에 의창(義昌)으로 개칭되었고, 회원(회원)은 신라 때의 굴포현(屈浦縣)을 경덕왕(景德王)이 합포(合浦)로 고쳤다가 고려에 와서 회원(會原)으로 개칭하여 1413년(태종 13)에 이르러서 두 현(縣)을 합하여 창원부(昌原府)라 하였다.

역사인물로는 회산군계(檜山君系) 파조인 석기(石奇)의 아들 상(裳)이 고려 충혜왕 때 호군(護軍)이 되어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추충익찬공신(推忠翊贊功臣)을 포함하여 여러 번 공신에 녹훈되었으며, 특히 홍건적의 난과 왜구의 침입을 토평하는 데 공을 세워 문하찬성사를 지내고 회산부원군(檜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서강 도원수(西江都元帥) 등을 지냈고 무예에 능하여 궁술로 이름을 떨쳤다. 조선 성종 때 무과와 중시에 장원한 형(衡)은 많은 무공을 세워 병마절도사를 거쳐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기(琦)는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직제학과 대사간을 지냈고 경기도관찰사로 나갔다. 신(愼)은 선조 때 알성문과에 장원한 수재였으며, 공조·호조판서에 올라 위성이등공신(衛聖二等功臣)으로 회원부원군(檜原府院君)에 봉해졌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청나라 태종(太宗)의 암살 계획을 추진했던 일호(一皓)와 정조 때 학자 운조(運祚)는 영조 때 노론(老論)의 중진(重鎭)으로, 이조판서에 오른 귀하(龜河), 학자로 유명했던 근중(謹中)·경중(敬中) 형제와 가문을 빛냈다.

시중공계(侍中公系)에서는 일세조를 판윤(判尹)을 지낸 신(信)으로 하는 계통과, 대(昊)를 일세조로 하는 계통이 있다. 숙종 때 문과에 올라 정언·지평·사간 등을 거쳐 부제학과 호조참판을 지낸 자(梓)와 그의 맏아들로 형조판서를 역임한 인검(仁儉), 사은사(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둘째 아들 인점(仁點) 3부자(三父子)가 유명했다.

호장공계(戶長公系)의 사우(士祐)는 중종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지평·응교 등을 지냈고, 대사헌을 거쳐 호조·예조·이조판서를 역임한 후 우찬성에 이르렀으며, 그의 아들 응규(應奎)는 선조 때 알성문과에 올라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임진왜란 때 동지돈녕부사에 이르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 황씨는 파주시에 400여 가구 총 2,53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창원 황씨의 파주 입향조(入鄕祖)는 의령현감을 지낸 황선(黃瑄)이며 입향시기는 17세기 무렵이다. 주요 인물로는 상주목사를 지낸 황극중(黃克中, 1552~1603) 등이 있다. 동패동, 와동동, 운정동, 문산읍 사목리 등지에 후손들이 살고 있다.

교하 동패리 양지마을에 예전에는 80여호가 살았으나 요즘은 20여 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오도1리에는 현령공파 후손들 20여호가 살고 있다.

매년 10월 12~15일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광탄면 용미리 31번지에 있다.
문중 회장은 황인수, 총무는 황경선이다.

평해 황씨(平海黃氏)

평해 황씨(平海黃氏)의 시조(始祖)는 중국 후한(後漢)의 유신(儒臣)으로 서기 28년(신라 유리왕 5, 한나라 광무제 4) 구대림(丘大林)과 함께 사신으로 교지국(交趾國)에 가던 길에 풍랑을 만나 안아진(安我鎭)에 표착하여 그곳에 정착 세거한 황낙(黃洛)이다.

낙(洛)의 후손에 갑고(甲古)·을고(乙古)·병고(丙古)의 3형제가 있는데, 그중 갑고(甲古)가 기성군(箕城君)에 봉해졌고, 그의 아들로 전하는 온인(溫仁)이 고려에서 금오위대장군, 태자검교를 지냈고 평해(平海)에 세거하였으므로 후손들은 온인(溫仁)을 일세조로 계대하면서 본관을 평해(平海)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평해는 경상북도 울진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근을어현(斤乙於縣)인데, 고려 초에 평해(平海)로 고쳤고, 현종조에 예주(禮州: 영해)에 속하였다가 충렬왕 때 군(郡)으로 승격하였다. 조선 때 평해군(平海郡)으로 삼았으며 1913년 울진군에 병합하여 지금은 울진군 평해면(平海面)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온인(溫仁)의 8세손 희석(希碩)이 1388년 요동정벌 때 이성계를 도와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개국이등공신(開國二等功臣)으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가 되어 평해군(平海君)에 봉해졌고,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에 추증되었다. 공조판서 유정(有定)의 아들 현(鉉)은 세종 때 대사성을 역임하였다. 어려서부터 문장으로 이름났던 여일(汝一)은 동래진병마첨절제사(東萊鎭兵馬僉節制使)를 지낸 후 참판을 역임하였다. 영조 때 실학자 윤석(胤錫)은 김원행(金元行)에게 글을 배워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익찬(翊贊)에 이르렀고, 그가 저술한 문집 『이재유고(頤齋遺稿)』와 『화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는 오늘날 국어 연구에 좋은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해 황씨는 파주시에 총 1,25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평해 황씨 양무공파(襄武公派, 낙하파라고도 한다)는 조선 개국공신으로 평해군(平海君)에 봉해진 희석(希碩)을 파시조(派始祖)로 한다. 주요 인물로는 상주목사를 지낸 황창(黃琩) 등이 있다. 후손들은 장단군, 문산읍, 금촌동, 교하동 등지에 살고 있다. 매년 한식 때 장단에서 시제를 지내며 10월 셋째주 일요일 고양시 대자동에서 시제를 지낸다. 선영은 진서면 석곳리와 고양시의 대자동 산 1-5번지이며 평해 황씨 양무공파 종중 회장은 황유진이다.

회덕 황씨(懷德黃氏)

회덕 황씨(懷德黃氏)의 시조는 한(漢)나라 유신(儒臣)으로 평해(平海)에 표착한 황낙(黃洛)이다. 그러나 상계가 실전되어 정확한 계대를 알 수 없다. 고려 때 형부전서(刑部典書)를 지낸 후손 윤보(允寶)가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회천군(懷川君)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그를 일세조로 하고 회덕(懷德)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회덕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본래 백제의 우술군(雨述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비풍군(比豊郡)으로 고쳤으며, 1018년(고려 현종 9)에는 공주(公州)에 편입되었다. 1895년 군(郡)이 되고 1914년 진잠면 일원과 공주군 현내면을 합하여 대전군(大田郡)으로 개칭, 1935년 대전이 부(府)로 승격됨에 따라 대덕군(大德郡)이 창설되었고 그 후 대덕군 회덕면(懷德面)이 되었다가 지금은 대전광역시 회덕동으로 남아 있다.
역사인물로는 윤보(允寶)의 5세손 유(裕)가 조선 태종의 사위로 회천위(懷川尉)에 올랐다. 덕휴(德休)의 아들 종해(宗海)는 인조 때 학자로 명성을 날렸다. 일찍이 정구(鄭逑)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으며 광해군) 때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과거를 단념한 후 김장생(金長生)을 찾아가서 예학(禮學)을 강의받았다. 그 후 수차에 걸쳐 벼슬에 천거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오직 학문연구에만 진력하여 저서로 『후천집(朽淺集)』을 남겼다.
그 밖에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을 지낸 덕부(德符), 숙종 때 목사를 역임하며 청백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많은 치적을 남긴 찬(燦),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세정(世禎) 등이 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덕 황씨는 파주시에 총 5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 황보씨(永川皇甫氏)

황보씨(皇甫氏)는 중국 안정(安定)에서 계출된 성씨로, 신라 말 당나라로부터 귀화한 황보경(皇甫鏡)이 우리나라 황보씨의 시원(始原)을 이룬 것으로 전한다. 『영천황보씨세보(永川皇甫氏世譜)』에 의하면 황보경(皇甫鏡)의 증손 능장(能長)이 고려 태조 때 금강성(金剛城) 장군으로 나라에 공을 세워 영천부원군(永川府院君)에 봉해졌으므로, 관향을 영천(永川)으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영천은 경상북도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고대 골벌국(骨伐國)이었던 것을 신라 초기에 영천군 일원은 절야화군(切也火郡), 신녕(新寧)지방은 사정화군(史丁火郡)이라고 하였다. 경덕왕 이후에는 임고군(臨皐郡)·고울부(高鬱府)·도동현(道同縣)·임천현(臨川縣)·면백현(면白縣)·이지현(梨旨縣) 등으로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었다. 고려 초에는 도동·임천현을 합하여 영주군(永州郡)이라고 불렀으며 성종 때 자사(刺史)를 두었다. 현종 때 신녕현이 경주로 편입되고 명종 때 감무를 두었다가 그 뒤 지주사(知州使) 소재지로 승격되었다. 1414년(태종 14) 영천군으로 개칭되고 1497년(연산군 3) 신녕현이 폐현(廢縣)되면서 영천군(永川郡)에 귀속되었다. 그 후 1937년 영천면이 읍(邑)으로 승격하였고 1981년에는 영천읍(永川邑)이 시(市)로 분리 승격하였다.

역사인물로는 고려 명종 때 '강좌칠현(江左七賢)'의 한 사람으로 명성을 떨친 항(抗)과 대사성(大司成)을 지낸 탁(倬)이 유명했으며, 정종 때 참지정사(參知政事)·평장사(平章事)를 지낸 영(穎)과 고종 때 좌복야(左僕射)·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이른 기(琦) 등이 뛰어난 인물이다. 유의(兪義)는 고려 현종이 즉위하는데 공헌했으며, 1031년(현종 22) 중추사(中樞使)를 거쳐 이부상서(吏部尙書)와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냈고 덕종(德宗) 때는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에 올랐다.

공민왕 때 홍건적을 토평하고 일등공신에 오른 임(琳)은 1388년(우왕 14) 요동정벌 때 부원수로서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가담하여 일등공신에 오르고 삼도도체찰사(三道都體察使)가 되었으며, 조선개국 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에 올랐다.

임(琳)의 아들 인(仁)은 태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세종 때 장령(掌令)과 병조판서를 거쳐 평안·함길도체찰사(平安·咸吉道體察使)가 되어 10년 동안 김종서 장군과 함께 육진을 개척하였다. 그는 태종·세종·문종 3대에 걸쳐 도승지를 비롯하여 관찰사·좌찬성·우좌의정 등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여 조정의 중신이 되었으며, 1452년(문종 2) 영의정이 되어 어린 단종을 보필하다가 계유정난 때 김종서(金宗瑞)·정분(鄭笨) 등과 함께 수양대군에게 살해당했다. 이때 그의 두 아들 참판을 지낸 석(錫), 직장(直長)을 지낸 흠(欽)과 손자 원(源)·문(汶) 등 다섯 사람이 화를 당하니 영천 황보씨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그 후로 나머지 일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붙잡혀 섬이나 먼 변방의 관리(官吏)나 천민(賤民)이 되기도 하였으며, 성(姓)을 바꾸며 숨어 살기도 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천 황보씨는 파주시에 총 6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에 살고 있는 영천 황보씨는 소수이지만 영천 황보씨의 대표적 인물인 조선 초기 영의정 관직을 지내고 계유정난으로 인해 살해당한 절육신의 한 사람인 황보인(皇甫仁)의 묘역과 황보인을 주벽으로 모신 월계단(月桂壇)이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위치하고 있다.

황보인 묘역은 파주시향토문화유산 제33호로 지정되었다.